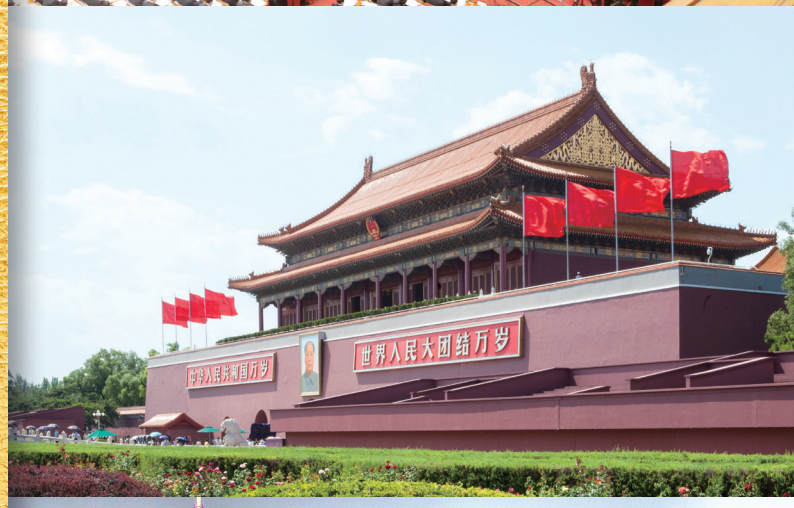
2016

중국 개황









외교부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2016

중국개황

외교부



명칭 : 오성홍기(五星紅旗)

유래 :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후인 1949.9.30 인민정치협상회의 제1차 전체회의에서 채택

의미 : 혁명(적색)의 기치하에 중국공산당(큰별)을 중심으로 노동자·농민·小부르주아·민족부르주아 계급(4개의 작은별) 등 모든 중화인민이 단결하자는 의미

중국 휘장



가운데 휘장을 둘러싼 쌀과 보리는 농민, 아래의 톱니바퀴는 공장 노동자, 별 아래의 건축물은 자금성을 의미



중국 국가가사 起來
不愿做奴隶的人們
把我們的血肉
筑成我們新的長城
中華民族 到了最危險的时候
每个人被迫着發出最后的吼聲
起來 起來! 起來!!
我們万衆一心
冒着敵人的炮火
前進
冒着敵人的炮火
前進 前進 前進 進

한국어 번역본 일어나라
노예되기 싫은 사람들아
우리의 피와 살로
우리의 새장성을 쌓자
중화민족에 닥친 가장 위험한 시기
억압에 못견딘 사람들의 마지막 외침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우리 모두 일치단결하여
적의 포화를 뚫고,
전진하자
적의 포화를 뚫고,
전진 전진 전진 전진하자

중국 국가는<의용군행진곡義勇軍進行曲>으로 1935년에 티엔한(田漢) 작사, 니에얼(聶耳) 작곡으로 탄생. 당시 영화<풍운아녀(風雲兒女)>의 주제가로 작곡한 곡

중국 전도


헤이룽장성
하얼빈
창춘
지린성
옌지
우루무치
닝샤후이족자치구
네이멍구자치구
선양
랴오닝성
신장위구르자치구
후허하오터
허베이성
다롄
간쑤성
베이징시
톈진시
옌타이
스자좡
웨이하이
칭다오
인촨
타이위안
지난
칭하이성
시닝
산시성
(山西)
산둥성
란저우
시안
정저우
장쑤성
산시성
(陝西)
허난성
허페이
시짱자치구(티베트)
난징
상하이
라싸
청뚜
후베이성
안후이성
쓰촨성
우한
황저우
충칭
저장성
난창
창사
장시성
푸저우
후난성
구이저우성
푸젠성
타이베이
구이양시
쿤밍
타이완
윈난성
광시좡족자치구
광둥성
선전
광저우
난닝
홍콩
특별행정구
마카오
특별행정구
하이커우
하이난성



개관

국명	중화인민공화국(中華人民共和國, People's Republic of China : PRC)
수도	베이징(北京) 2,069.3만 명
면적	약 960만㎢ (한반도의 44배, 세계 3위) • 남북길이 : 南沙群島(23°N)~黑龍江(53°32′N), 5,500㎞ • 동서길이 : 파미르高原(73°E)~우수리江(135°E), 5,200㎞
국경선총길이	22,800㎞ • 한국, 러시아, 몽골, 중앙아 3국,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인도, 네팔, 부탄,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등 14개 국가와 육지 접경 • 강 길이 : 長江(揚子江) 6,300㎞, 黃河 5,464㎞
인구	약 13억 6,782만 명(대만, 홍콩, 마카오 제외) (중국국가통계국 2014) • 연평균 인구증가율 약 0.5% • 농촌인구 : 약 7.49억 명, 도시인구 : 약 6.19억 명
민족	漢族과 55개 소수민족(1억 1,379만 명, 總인구의 8.5%)으로 구성 ('10 인구조사) • 朝鮮族 : 약 183만여 명으로 소수민족의 1.6%
언어	漢語(중국어) 사용(단, 方言 및 소수민족언어 존재)

정치

정체	勞農연맹에 기초한 인민민주독재의 사회주의국가 ('82년 개정헌법 제1조 규정)
권력형태	실질적 공산당 一黨獨裁(형식상 8개 정당 존재)
주요지도자	黨총서기 겸 국가주석 : 시진핑(習近平, Xi Jinping) 黨중앙 및 국가중앙군사위원회 주석 : 시진핑(習近平, Xi Jinping) 國務院 총리 : 리커창(李克强, Li Keqiang) 국가부주석 : 리위안차오(李源潮, Li Yuanchao) 全國人民代表大會 상무위원회 위원장 : 장더장(張德江, Zhang Dejiang) 人民政治協商會議 전국위원회 주석 : 위정성(俞正聲, Yu Zhengsheng) 외교부장 : 왕이(王毅, Wang Yi)
건국일	1949.10.1
유엔가입일	1971.10월(안보리 상임이사국)

군사

2016년 국방예산	약 1,460억 불
군사력(정규군) ('15년)	총 230만 명 • 陸軍 : 156.7만, 海軍 : 23.5만, 空軍 : 39.8만, 로켓군 : 10만, 전략지원부대 : 미상 ※ 무장경찰 : 약 66만 명 별도

경제 ('15년)

국내총생산(GDP)	약 10조 9,828억 불('16.4월 잠정, IMF)
경제성장률	6.9%
소비자물가 상승률	1.4%
대외무역액	3조 9,586억 불 • 수출 2조 2,766억 불, 수입 1조 6,821억 불(흑자 5,945억 불)
외환보유액	3조 3,304억 불
외국인 직접투자	1,263억 불(외국인 투자건수 26,575건)
재정규모	재정수입 152,217억 위안, 재정지출 175,768억 위안(23,551억 위안 적자) (중국국가통계국)

행정구역 ('16년 2월)

省 級(총 34개)	• 4개 直轄市 北京, 天津, 上海, 重慶 • 5개 自治區 內蒙古, 新疆維吾爾族, 西藏, 廣西壯族, 寧夏回族 • 22개 省 華北區 : 河北省, 山西省 西北區 : 陝西省, 甘肅省, 青海省 東北區 : 遼寧省, 吉林省, 黑龍江省 華東區 : 江蘇省, 浙江省, 安徽省, 江西省, 福建省, 山東省 中南區 : 河南省, 湖北省, 湖南省, 廣東省, 海南省 西南區 : 四川省, 雲南省, 貴州省 ※ 中國은 臺灣을 23번째 省으로 간주 • 2개 특별행정구 : 홍콩, 마카오
州 級(총 334개)	8地區, 30自治州, 3盟(內蒙古), 293市 ※自治州·盟·市는 독립행정구이나, 地區는 독립행정구가 아니며, 다만 縣級 행정구들을 관할
縣 級(총 2,853개)	872市轄區, 368市, 1,442縣, 117自治縣, 49旗, 3自治旗, 1特區, 1林區 ※ 縣은 우리의 郡에 상당 鄕, 鎭(총 40,497개) ※ 鄕은 우리의 面에 해당, 鎭은 邑 또는 市의 區에 해당



정치 주요 약사

1911 辛亥革命 발발

1921 中國共産黨 창당(上海, 7.1)

1928 中華소비에트정부 수립(주석 : 毛澤東)

1936 西安事件 발발

1937 中日戰爭 발발, 제3차 國共合作

1949 中華人民共和國 건국(北京, 10.1)

1950.10 韓國戰爭 참전

1958 大躍進運動 전개

1961 大躍進運動 실패

1966 文化大革命 발발

1972 Nixon 美대통령 訪中, 中·日 국교 수립

1976 周恩來·毛澤東 사망, 華國鋒 체제 출범

1977 鄧小平 복권, 문화대혁명 종결 선언

1978 4개 현대화노선 채택(黨 제11기 3中全會)

1979 中·美 국교 수립

1982 新憲法 채택

1988 趙紫陽 총서기 취임

1989. 4 민주화 요구 시위
6 天安門事態 발생, 趙紫陽 실각, 江澤民 총서기 취임
11 江澤民 黨中央軍事委員會 주석 취임

1992. 2 鄧小平, 南巡講話를 통해 개혁·개방 촉진 계기 제공

1992. 8 韓·中 국교 수립

1992.10 제14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개최(헌법 개정 및 社會主義 市場經濟 방침 결정)

1997. 2 鄧小平 사망

1997. 7 홍콩의 中國 귀속

1997. 9 제15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개최

1998. 3 제9기 全人大 개최

1999.12 마카오 中國 귀속

2001.12 WTO 가입

2002.11 제16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개최(胡錦濤 당총서기 등 제4세대 지도부 등장)

2003. 3 제10기 全人大 개최(胡錦濤 국가주석 등 선출)

2005. 3 胡錦濤 국가중앙군사위 주석 취임

2007.10 제17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개최 (胡錦濤 당총서기 연임, 상무위원 9명 선출)

2008. 3 제11기 全人大 개최(후진타오 주석 집권 2기 정부 출범)

2008.10 제17기 3중전회 개최('농촌의 개혁발전에 관한 결정' 채택)

2009. 3 제11기 2차 全人大 개최

2009. 9 제17기 4중전회 개최(당내 민주화, 부패 척결 등 공산당개혁 강조)

2010. 3 제11기 3차 全人大 개최

2010.10 제17기 5중전회 개최('12·5계획' 채택)

2011. 3 제11기 4차 全人大 개최

2012. 3 제11기 5차 全人大 개최

2012.11 제18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개최(習近平 총서기 선출 등 제5세대 지도부 등장)

2013. 3 제12기 1차 全人大 개최(習近平 국가주석 등 선출)

2013.11 제18기 3중전회 개최('전면적 개혁 심화에 있어 일련의 중대문제에 대한 결정' 채택)

2014. 3 제12기 2차 全人大 개최

2014.10 제18기 4중전회 개최(당의 집권 능력 제고를 위해 '법에 의한 국가 통치' 전면 추진)

2015. 3 제12기 3차 全人大 개최

2015.10 제18기 5중전회 개최(제13차 국민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2016-2020) 건의안 심의·통과)

2016. 3 제12기 4차 全人大 개최

CONTENTS

Ⅰ 중국의 정치제도

1. 공산당 2
2.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10
3. 국무원 16
4. 사법부 20
5.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23
6. 중국 주요 정부기관 기구도 33

Ⅱ 정치 약사

1. 중국 정권 수립 후 개혁·개방 이전 42
2. 개혁·개방 채택 후 장쩌민(江澤民) 체제 등장 이전 43
3. 장쩌민(江澤民) 체제 등장 이후 48
4. 후진타오(胡錦濤) 체제 등장 이후 56
5. 시진핑(習近平) 체제 등장 이후 64

Ⅲ 중국의 대외관계

1. 대외정책 기조 70
2. 중국의 외교체제 72
3. 주요국과의 관계 75
4. 양안 관계 111
5. 중·북한 관계 127
6. 중국의 수교국 및 중국 내 주재공관 현황 136

Ⅳ 중국의 군사·안보

1. 중국의 국방정책 140
2. 인민해방군 군사조직 및 지휘체제 143
3. 병력 현황 150
4. 계급 제도 152
5. 국방 예산 153
6. 2014년 중국 국방백서 155









중국의 경제 V

1. 개관 162
2. 중국 경제 최근 동향 및 정책 166
3. 중국의 장기 경제정책 172
4. 중국 경제의 당면과제 179
5. 중국의 주요지역 개발 정책 187
6. 경제체제 개혁정책 추이 197

중국의 사회·문화 VI

1. 인구 206
2. 소수민족 210
3. 교육 219
4. 언론·출판 224
5. 종교 226
6. 체육 228
7. 문화 229

한·중 관계 VII

1. 정무 관계 232
2. 군사 관계 303
3. 경제 관계 305
4. 영사 관계 3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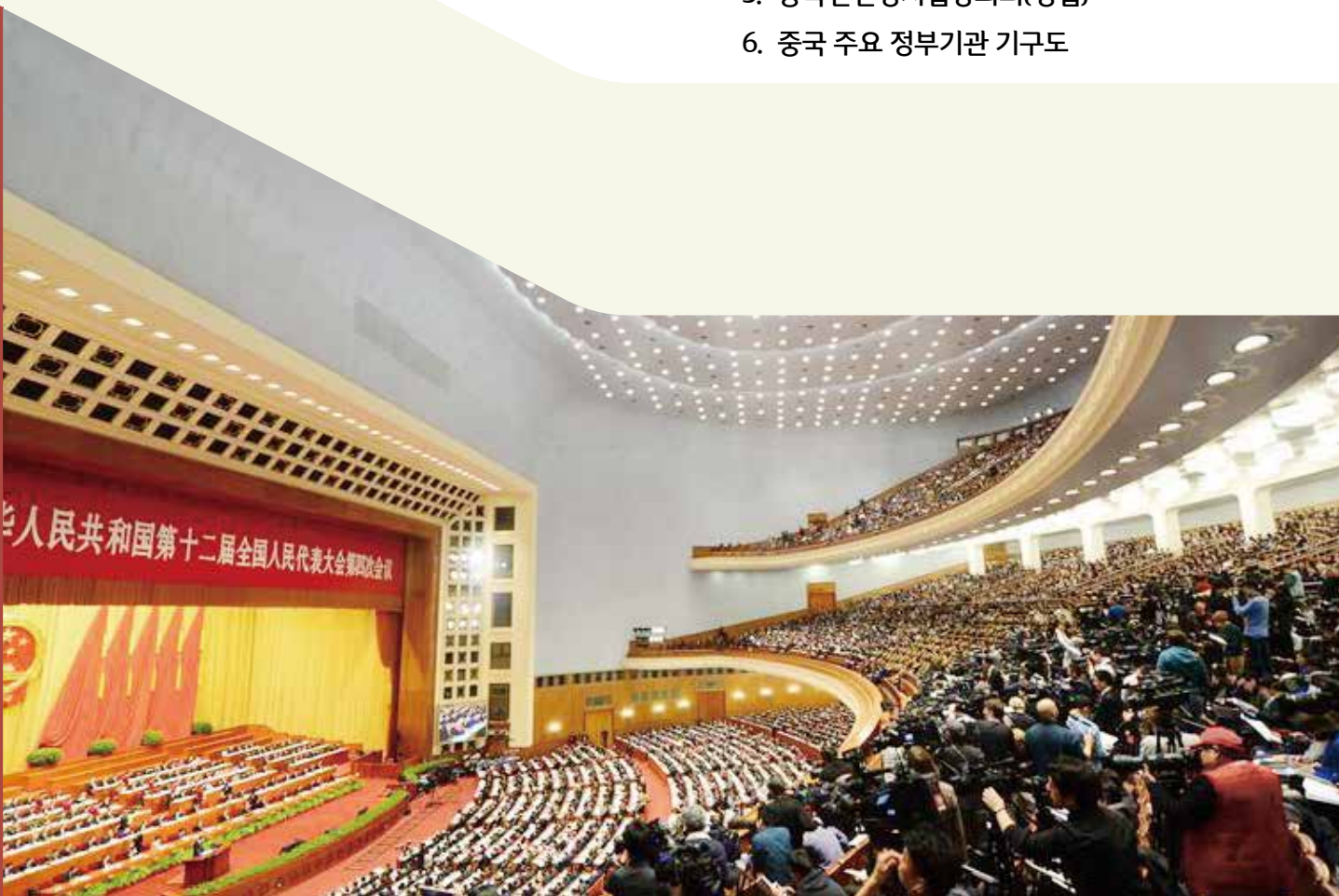
부록

중국 주요지도자 인적사항 318
중국 성·시·자치구 개황 348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364
중국의 주요 경제분야별 통계 365
한·중 간 주요 경제통계 367
한·중 간 주요 조약·협정 및 합의서 372
한·중 간 공동성명 378
한·중 공동언론발표문 429
역대 주중한국대사 및 주한중국대사 434
중국주재 한국 공관 435


世界人民大团结万

I
중국의 정치제도

1. 공산당
2.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3. 국무원
4. 사법부
5.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6. 중국 주요 정부기관 기구도



1. 공산당

가. 개요

- 당원 : 8,779.3만 명('14년 말)
- 성격
  - 黨章에 의하면 중국 공산당은 중국 노동자 계급의 선봉대이자 동시에 중화인민과 중화민족의 선봉대이며, 중국특색사회주의 사업의 영도 핵심 → 중국의 실질적 최고 권력기관

나. 조직과 권한

1) 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

- 黨의 최고 권력기관으로 매 5년마다 중앙위원회에서 소집('12.11월 제18차 당대회, 2,270명의 대표 참석)
- 대표는 중앙 黨기관과 지방의 각급 대표대회에서 간선
- 기능
  - 黨의 중요정책 토의 및 결정, 黨章 개정
  - 중앙위원회,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보고 청취, 심의 및 위원 선출

2) 당 중앙위원회

- 전국대표대회의 폐회 중 전국대표대회의 결의를 실행하고 黨의 활동전반을 지도하며, 대외적으로 黨을 대표
- 중앙위원회 전체회의(中全會)
  - 중앙정치국에 의해 소집되며 적어도 매년 1회 개최
  - 중앙위원 205명, 후보위원 171명
- 중앙정치국(위원 : 25명)
  -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폐회 중 中央委員會 직권 행사

역대 당 전국대표대회 개최 현황

회의명	시기	개최지	대표수	당원수	주요 사항
제1차 전국대표대회	1921.7.23–31	上海	12	53	중국 공산당 결성 선언
제2차 전국대표대회	1922.7.16–23	上海	12	195	민주혁명에서 공산혁명으로의 2단계 강령 채택
제3차 전국대표대회	1923.6.12–20	廣州	30	432	국공합작 채택. 공산당원이 개인적으로 국민당 가입
제4차 전국대표대회	1925.1.11–22	上海	20	994	민족혁명운동에 대한 결의 채택
제5차 전국대표대회	1927.4.27–5.9	武漢	82	57,900	총서기 천두슈(陳獨秀)의 우경 기회주의화
제6차 전국대표대회	1928.6.18–7.11	모스크바	142	40,000	중국혁명의 현 단계는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이라 규정하고 10대 강령 제정
제7차 전국대표대회	1945.4.23–6.11	延安	547	121만	마오쩌둥(毛澤東) '연합정부론' 보고
제8차 전국대표대회	1956.9.15–27	北京	1,026	1,073만	사회주의 개조가 기본적으로 완료되었으며, 주요 모순이 변화하였다고 지적
제9차 전국대표대회	1969.4.1–24	北京	1,512	2,200만	린뱌오(林彪)를 '후계자'로 규정한 당규약 채택
제10차 전국대표대회	1973.8.24–28	北京	1,249	–	린뱌오(林彪)의 쿠데타 사건 및 추락사 공표
제11차 전국대표대회	1977.8.12–18	北京	1,510	3,500만	문화대혁명 종결 선언
제12차 전국대표대회	1982.9.1–11	北京	1,545	3,965만	당규약 채택, 중공중앙고문위 신설
제13차 전국대표대회	1987.10.25–11.1	北京	1,936	4,600만	사회주의 초급 단계론 공표
제14차 전국대표대회	1992.10.12–18	北京	1,989	5,100만	사회주의 시장경제 확립을 제기
제15차 전국대표대회	1997.9.12–18	北京	2,048	5,800만	덩샤오핑(鄧小平) 이론을 지도사상으로 규정
제16차 전국대표대회	2002.11.8–14	北京	2,120	6,636만	'3개 대표이론'을 지도사상으로 규정
제17차 전국대표대회	2007.10.15–21	北京	2,237	7,336만	과학적 발전관과 조화사회 건설 방침 공표
제18차 전국대표대회	2012.11.8–14	北京	2,270	8,260.2만	과학적 발전관의 지도사상화, 생태환경 건설을 포함한 5위1체의 발전 전략 제시

역대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및 중앙정치국 위원

직위	13차 (1987–1992)	14차 (1992–1997)	15차 (1997–2002)	16차 (2002–2007)	17차 (2007–2012)	18차 (2012–)
상무 위원회	자오쯔양(趙紫陽) 리펑(李鵬) 차오스(喬石) 후치리(胡啓立) 야오이린(姚依林)	장쩌민(江澤民) 리펑(李鵬) 차오스(喬石) 리루이환(李瑞環) 주룽지(朱鎔基) 류화칭(劉華清) 후진타오(胡錦濤)	장쩌민(江澤民) 리펑(李鵬) 주룽지(朱鎔基) 리루이환(李瑞環) 후진타오(胡錦濤) 웨이젠싱(尉健行) 리란칭(李嵐清)	후진타오(胡錦濤) 우방궈(吳邦國) 원자바오(溫家寶) 자칭린(賈慶林) 쩡칭훙(曾慶紅) 황쥐(黃菊) 우관정(吳官正) 리창춘(李長春) 뤄간(羅幹)	후진타오(胡錦濤) 우방궈(吳邦國) 원자바오(溫家寶) 자칭린(賈慶林) 리창춘(李長春) 시진핑(習近平) 리커창(李克强) 허궈창(賀國强) 저우융캉(周永康)	시진핑(習近平) 리커창(李克强) 장더장(張德江) 위정성(兪正聲) 류윈산(劉雲山) 왕치산(王岐山) 장가오리(張高麗)
중앙 정치국	완리(萬里) 톈지윈(田紀雲) 차오스(喬石) 장쩌민(江澤民) 리펑(李鵬) 리톄잉(李鐵映) 리루이환(李瑞環) 리시밍(李錫銘) 양루상(楊汝傷) 양상쿤(楊尙昆) 우쉐첸(吳學謙) 쑹핑(宋平) 자오쯔양(趙紫陽) 후치리(胡啓立) 후야오방(胡耀邦) 야오이린(姚依林) 친지웨이(秦基偉)	딩관건(丁關根) 톈지윈(田紀雲) 주룽지(朱鎔基) 차오스(喬石) 류화칭(劉華清) 장쩌민(江澤民) 리펑(李鵬) 리란칭(李嵐清) 리톄잉(李鐵映) 리루이환(李瑞環) 양바이빙(楊白冰) 우방궈(吳邦國) 쩌우자화(鄒家華) 천시퉁(陳希同) 후진타오(胡錦濤) 장춘윈(姜春雲) 첸치천(錢其琛) 웨이젠싱(尉健行) 셰페이(謝非) 탄사오원(譚紹文)	딩관건(丁關根) 톈지윈(田紀雲) 주룽지(朱鎔基) 장쩌민(江澤民) 리펑(李鵬) 리창춘(李長春) 리란칭(李嵐清) 리톄잉(李鐵映) 리루이환(李瑞環) 우방궈(吳邦國) 우관정(吳官正) 츠하오톈(遲浩田) 장완녠(張萬年) 뤄간(羅幹) 후진타오(胡錦濤) 장춘윈(姜春雲) 자칭린(賈慶林) 첸치천(錢其琛) 황쥐(黃菊) 웨이젠싱(尉健行) 원자바오(溫家寶) 셰페이(謝非)	왕러췐(王樂泉) 왕자오궈(王兆國) 후이량위(回良玉) 류치(劉淇) 류윈산(劉雲山) 리창춘(李長春) 우이(吳儀) 우방궈(吳邦國) 우관정(吳官正) 장리창(張立昌) 장더장(張德江) 천량위(陳良宇) 뤄간(羅幹) 저우융캉(周永康) 후진타오(胡錦濤) 위정성(兪正聲) 허궈창(賀國强) 자칭린(賈慶林) 궈보슝(郭伯雄) 황쥐(黃菊) 차오강촨(曹剛川) 쩡칭훙(曾慶紅) 쩡페이옌(曾培炎) 원자바오(溫家寶)	시진핑(習近平) 왕강(王剛) 왕러췐(王樂泉) 왕자오궈(王兆國) 왕치산(王岐山) 후이량위(回良玉) 류치(劉淇) 류윈산(劉雲山) 류옌둥(劉延東) 리창춘(李長春) 리커창(李克强) 리위안차오(李源潮) 우방궈(吳邦國) 왕양(汪洋) 장가오리(張高麗) 장더장(張德江) 저우융캉(周永康) 후진타오(胡錦濤) 쉬차이허우(徐才厚) 궈보슝(郭伯雄) 원자바오(溫家寶) 보시라이(薄熙来)	시진핑(習近平) 마카이(馬凱) 왕치산(王岐山) 왕후닝(王滬寧) 류윈산(劉雲山) 류옌둥(劉延東) 류치바오(劉奇葆) 쉬치량(許其亮) 쑨춘란(孫春蘭) 쑨정차이(孫政才) 리커창(李克强) 리젠궈(李建國) 리위안차오(李源潮) 왕양(汪洋) 장춘셴(張春賢) 장가오리(張高麗) 장더장(張德江) 판창룽(范長龍) 멍젠주(孟建柱) 자오러지(趙樂際) 후춘화(胡春華) 위정성(兪正聲) 리잔수(栗戰書) 궈진룽(郭金龍) 한정(韓正)
후보 위원	딩관건(丁關根)	원자바오(溫家寶) 왕한빈(王漢斌)	쩡칭훙(曾慶紅) 우이(吳儀)	왕강(王剛)		

-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상무위원 : 7명)
  - 중앙위원회 폐회기간 중 중앙위원회 권한 행사
  - 국가와 黨에 관계되는 모든 정책 최종 결정
  - 黨·政·軍의 고위간부 인사권 장악

- 중앙서기처(7명)
  -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의 지도아래 중앙의 일상 업무처리

- 중앙위원회 총서기 : 시진핑(習近平)
  -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중에서 선출
  - 중앙정치국과 상무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는 것 외에 중앙서기처의 업무를 관장함으로써 黨을 운영하는 핵심

역대 중국 공산당 총서기

시기	성명	시기	성명
1921–1927	천두슈(陳獨秀)	1935–1943	장원톈(張聞天)
1927–1928	취추바이(瞿秋白)		(일명 뤄푸(洛甫))
1928–1931	샹중파(向忠發)	1956–1969	덩샤오핑(鄧小平)
1931–1932	천사오위(陳紹禹)	1980–1987	후야오방(胡耀邦)
	(일명 왕밍(王明))	1987–1989	자오쯔양(趙紫陽)
1932–1935	친방셴(秦邦憲)	1989–2002	장쩌민(江澤民)
	(일명 보구(博古))	2002–2007	후진타오(胡錦濤)
		2007–2012	후진타오(胡錦濤)
		2012–현재	시진핑(習近平)

다. 당 중앙군사위원회

- 1927년 창설되었으며 인민해방군의 조직과 활동을 통제
  -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중국내 최고권력자
- 인민해방군 총정치부를 통해 軍에 있어서의 黨의 정치활동을 관리

당 중앙군사위원회 구성

직위	제13차 당대회	제14차 당대회	제15차 당대회	제16차 당대회	제17차 당대회	제18차 당대회
주석	장쩌민 (江澤民)	장쩌민 (江澤民)	장쩌민 (江澤民)	장쩌민 (江澤民)	후진타오 (胡錦濤)	시진핑 (習近平)
제1부주석	양상쿤 (楊尙昆)	류화칭 (劉華淸)	–	–	–	
부주석	류화칭 (劉華淸) 장전 (張震)		장만녠 (張萬年) 츠하오톈 (遲浩田)	후진타오 (胡錦濤) 궈보슝 (郭伯雄) 차오강촨 (曹剛川)	시진핑 (習近平) (제17기 5중전회시 임명) 궈보슝 (郭伯雄) 쉬차이허우 (徐才厚)	판창룽 (範長龍) 쉬치량 (許其亮)
위원	친지웨이 (秦基偉) 츠하오톈 (遲浩田) 양바이빙 (楊白氷) 자오난치 (趙南起)	츠하오톈 (遲浩田) 장만녠 (張萬年) 위융보 (于永波) 푸취안유 (傅全有)	푸취안유 (傅全有) 위융보 (于永波) 왕커 (王克) 왕루이린 (王瑞林)	쉬차이허우 (徐才厚) 량광례 (梁光烈) 랴오시룽 (廖錫龍) 리지나이 (李繼耐)	량광례 (梁光烈) 천빙더 (陳炳德) 리지나이 (李繼耐) 랴오시룽 (廖錫龍) 창완취안 (常萬全) 징즈위안 (靖志遠) 우성리 (吳勝利) 쉬치량 (許其亮)	창완취안 (常萬全) 팡펑후이 (房峰輝) 장양 (張陽) 자오커스 (趙克石) 장유샤 (張又俠) 우성리 (吳勝利) 마샤오톈 (馬曉天) 웨이펑허 (魏鳳和)
비서장	양바이빙 (楊白氷)					

라. 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

- 1978.12월 제11차 黨 3中全會에서 설치되었으며, 문화혁명 기간 중에 폐지된 중앙감찰 위원회를 대치한 기구
-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주된 임무는 黨憲과 기타 중요한 규칙·제도 수호 및 黨風을 정돈하며 黨 노선, 정책, 결의의 실천상황을 점검

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단

직위	제13차 당대회	제14차 당대회	제15차 당대회	제16차 당대회	제17차 당대회	제18차 당대회
서기	차오스 (喬石)	웨이젠싱 (尉健行)	웨이젠싱 (尉健行)	우관정 (吳官正)	허궈창 (賀國强)	왕치산 (王岐山)
부서기	천쭤린 (陳作霖) 리정팅 (李正亭) 샤오훙위안 (蕭洪遠) 왕더잉 (王德瑛)	전쭤린 (陣作霖) 왕더잉 (王德瑛) 우쭝빈 (武宗賓) 쉬칭 (徐青) 차오칭쩌 (曹慶澤)	한수빈 (韓抒濱) 차오칭쩌 (曹慶澤) 허융 (何勇) 저우쯔위 (周子玉) 샤짠중 (夏赞忠) 류리잉 (劉麗英)(女)	허융 (何勇) 샤짠중 (夏赞忠) 리즈룬 (李至倫) 장수톈 (張樹田) 류시룽 (劉錫荣) 장후이신 (張惠新) 류펑옌 (劉鳳巖)	허융 (何勇) 장후이신 (张惠新) 마원 (馬駁)(女) 쑨중퉁 (孫忠通) 간이성 (干以勝) 장이 (張毅) 황수셴 (黃樹賢) 리위푸 (李玉賦)	자오훙주 (趙洪祝) 황수셴 (黃樹賢) 두진차이 (杜金才) 우위량 (吳玉良) 장쥔 (張軍) 천원칭 (陳文淸) 양샤오두 (楊曉渡) 류진궈 (劉金國)

마. 당 중앙직속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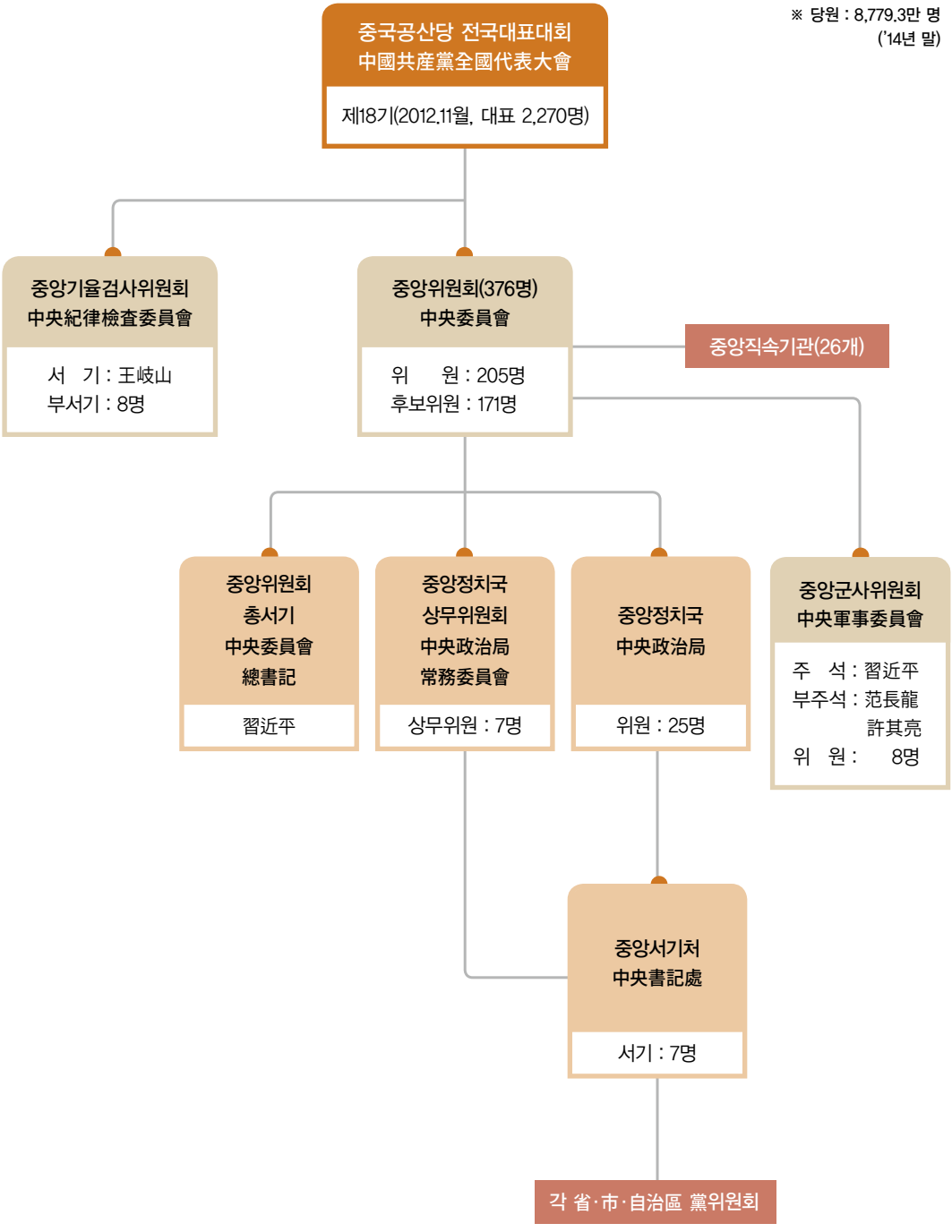
- 당 중앙직속기관으로는 판공청, 조직부, 선전부, 대외연락부 및 인민일보사, 광명일보사 등이 있음.

당 중앙직속기관 및 기관장

중앙판공청	주임	리잔수(栗戰書)
중앙조직부	부장	자오러지(趙樂際)
중앙선전부	부장	류치바오(劉奇葆)
중앙통전부	부장	쑨춘란(孫春蘭)
중앙대외연락부	부장	쑹타오(宋濤)
중앙정법위원회	서기	멍젠주(孟建柱)
중앙정책연구실	주임	왕후닝(王滬寧)
중앙대만공작판공실	주임	장즈쥔(張志軍)
중앙대외선전판공실	주임	차이밍자오(蔡名照)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양제츠(楊潔篪)
중앙기구편제위원회판공실	주임	장지난(張紀南)
중앙사회관리종합치리위원회	주임	멍젠주(孟建柱)
중앙정신문명건설지도위원회	주임	류윈산(劉雲山)
중앙정신문명건설지도위원회판공실	주임	뤄수강(雒樹剛)
중앙당교	교장	류윈산(劉雲山)
≪인민일보≫사	사장	양전우(楊振武)
≪구시≫잡지사	사장	리제(李捷)
중앙문헌연구실	주임	렁룽(冷溶)
중앙당사연구실	주임	어우양쑹(歐陽淞)
중앙편역국	국장	자가오젠(賈高建)
중앙직속기관공작위원회	서기	리잔수(栗戰書)
중앙국가기관공작위원회	서기	양징(楊晶)
중앙당안관(국가당안국)	관장	리밍화(李明華)
중앙보밀위원회판공실(국가보밀국)	주임	톈징(田靜)
중앙밀마공작영도소조판공실(국가밀마관리국)	주임	웨이윈타오(魏允韜)
중앙경위국	국장	왕사오쥔(王少軍)

중국 共産黨 조직표

※ 당원 : 8,779.3만 명
('14년 말)



2.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가. 개요

- 중국의 형식상 최고 권력기관으로서 32개 성·자치구·직할시, 홍콩·마카오 특구, 인민해방군에서 선출되는 대표로 구성
  - 인민대표대회(人大)는 全人大, 省·市·自治區·人民解放軍 人大, 縣·市 人大, 鄉·鎭 人大 등 4단계로 구분되어 있으며, 次下級 人大에서 次上級 인민대표를 해당 지역의 인구 비례에 기초, 직접 또는 간접선거를 통해 선출(차액선거 실시)
  - 따라서 全人大 대표는 次下級 단위인 省·市·自治區·人民解放軍 및 홍콩·마카오 特區로부터 간접선거로 최고 3천5백 명까지 선출(대표의 약 70%가 공산당원)
  - 최하급 人大로서 縣(市·區), 鄉(鎭)급 인민대표는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되며, 임기는 3-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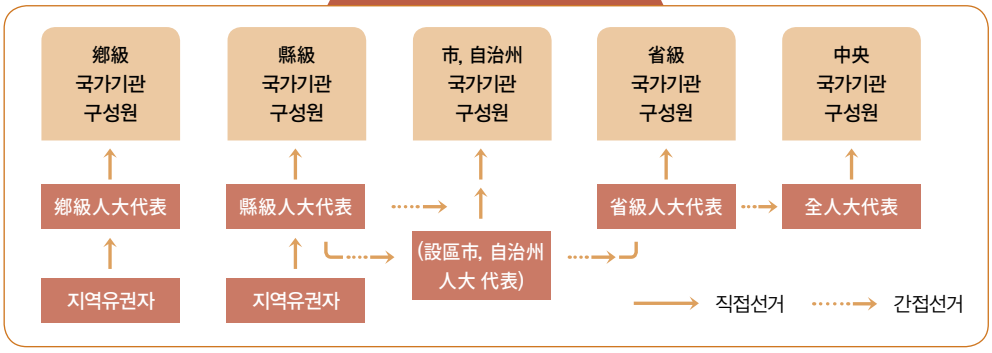
※ 차액선거(差額選擧) : 후보자의 수가 당선자의 수보다 많은 상태에서 치러지는 선거

- 과거에는 상급의 당위원회가 정원과 동수의 후보자를 결정하고, 그 외의 입후보자는 사실상 입후보하는 일조차 금지된 상태에서 찬반투표 형식의 선거로 진행
- 그러나 '80.1월부터 시행된 인민대표대회 대표 선거법은 대표 후보자의 수를 대표자 정원의 1.5배에서 2배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 일정 한도의 경쟁원칙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차액선거 실시

- 全人大 대표 총수는 全人大 상무위원회가 상황에 따라 결정하나, 3,500명을 초과하지 못하며 임기는 5년('13.3월 개최된 제12기 全人大 대표는 2,987명, '16.3월 현재 2,943명)

- 전국인민대표대회는 全人大 상무위원회가 소집

중국의 선거제도



※ 設區市 : 내부에 區가 설치되어 있는 市로서 自治州급. 區를 보유하지 않은 중·소형 市는 縣급으로 분류

나. 주요기능

- 헌법의 개정, 헌법 집행의 감독 및 기본법률의 제정·개정
- 국가주석, 부주석 선출 및 파면
- 국가주석의 제청에 입각한 국무원 총리 선출과 총리 제청에 따른 副총리, 국무위원, 각부 부장, 위원회 주임 등을 결정 및 파면
- 국가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선출 및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제청에 입각한 각 위원회의 기타 구성원 결정 및 파면
- 최고인민법원 원장,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 선출 및 파면
- 국가경제·사회발전 계획 및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 심의·비준
- 국가예산과 예산집행 상황에 대한 보고 심의·비준
- 성, 자치구, 직할시의 설치 비준
- 특별행정구의 설치 및 제도 결정
- 전쟁과 평화에 대한 문제 결정
- 전인대 상무위원회 구성원 선출 및 파면

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 全人大의 상설기관으로서 全人大 폐회기간 중 全人大 대부분의 권한 행사(단, 헌법 개정, 국가주석, 총리, 중앙군사위 주석 선출 등은 제외)
  - 통상 매 2개월마다 1회(짝수월의 하순) 개최되며, 매회 회의기간은 7-10일 정도
-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3명, 비서장 1명(부위원장 1인 겸직) 및 155명의 위원으로 구성 ('13.3월 출범시 겸직 포함 총 175명, '16.3월 현재 총 169명)
  - 단, 全人大 상무위원회 위원은 국가행정기관, 사법 또는 검찰기관업무 겸직 금지
-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인사권(全人大 폐회기간)
  - 결정권
    - · 국무원 부장, 위원회 주임, 심계장, 비서장(총리의 제청)
    - ·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이외의 구성원(주석의 제청)
    - · 전권대사

- 임면권
  - · 최고인민법원 부원장, 심판원, 심판위원회 위원, 군사법원 원장(최고인민 법원장의 제청)
  - · 최고인민검찰원 부검찰장, 검찰원, 검찰위원회 위원, 군사검찰원 검찰장(최고인민 검찰원 검찰장의 제청)
  - · 성·자치구·직할시의 인민검찰원 검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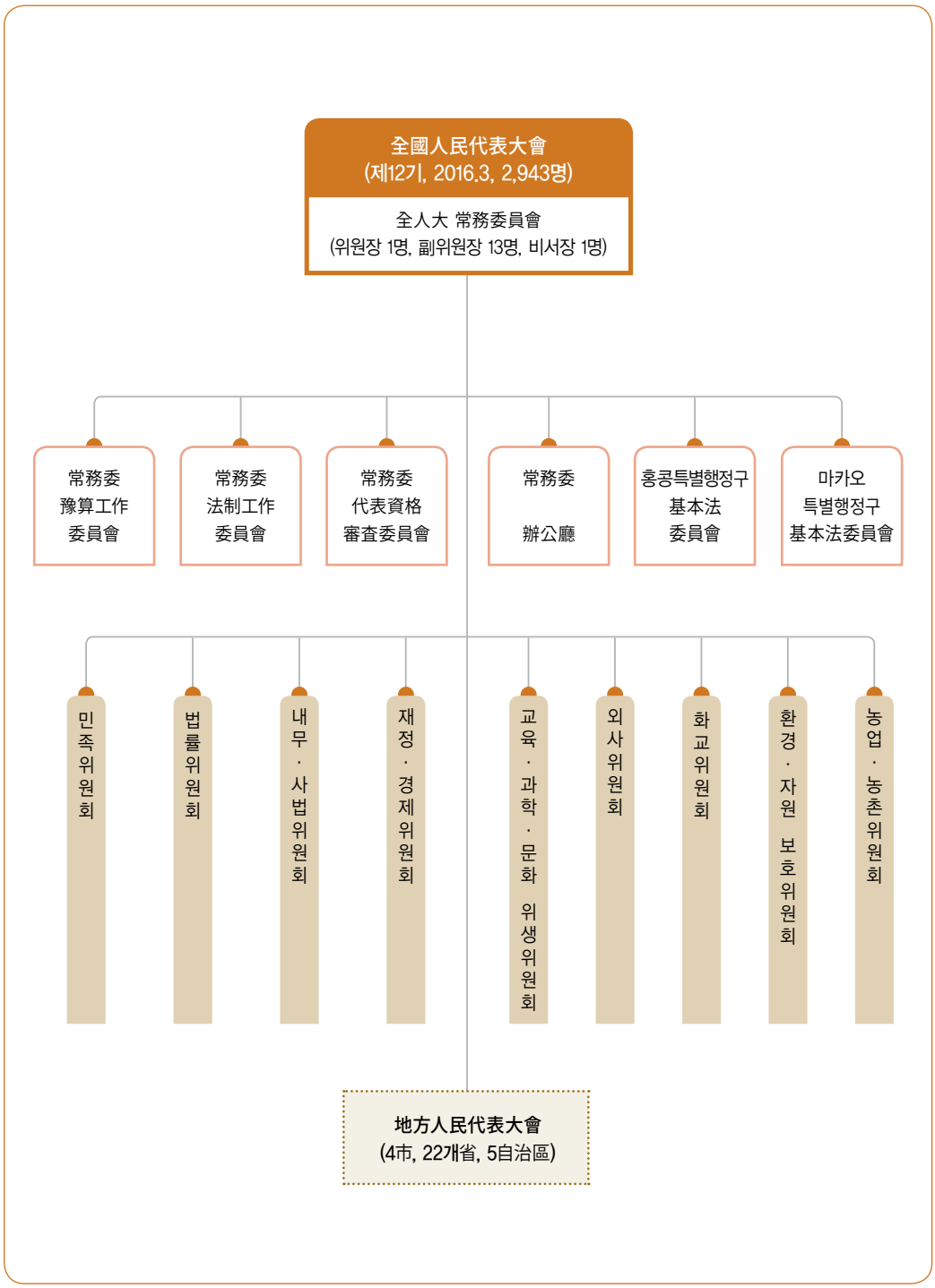
역대 전국인민대표대회 개최 결과

전인대	시기	대의원수	위원장	주요 결정 사항
1기	1954.9.15–28	1,226	류샤오치	헌법 및 전인대 및 각급 정부 조직법 제정 마오쩌둥 주석, 주더 부주석, 저우언라이 총리 등 국가 지도자 선출
2기	1959.4.18–28	1,226	주더	1959년 경제계획 승인 티베트 문제 결의안 류샤오치 주석, 쑹칭링·둥비우 부주석, 저우언라이 총리 선출
3기	1964.12.21–1965.1.4	3,040	주더	1965년 경제계획 승인 국민경제 조정 작업 계속 류샤오치 주석, 쑹칭링·둥비우 부주석, 저우언라이 총리 등 선출
4기	1975.1.13–17	2,885	주더	헌법 개정, 4개 현대화 제안, 저우언라이 총리 선임
5기	1978.2.26–3.5	3,497	예젠잉	헌법 개정, 신국가 가사 채택, 국민경제 10개년 계획 초안 통과, 화궈펑 총리 선출
6기	1983.6.6–21	2,978	펑전	1983년 경제사회발전계획 승인 리셴녠 주석, 우란푸 부주석, 덩샤오핑 군사위 주석, 자오쯔양 총리 선출
7기	1988.3.25–4.13	2,970	완리	헌법 개정, 국무원 기구 개혁, 1988년 경제계획 승인 마카오 특별법 기초위 설치, 하이난성 설치 양상쿤 주석, 왕전 부주석, 덩샤오핑 군사위 주석, 리펑 총리 선출
8기	1993.15–31	2,978	차오스	헌법 개정, 국무원 기구 개혁, 마카오 관련 특별법 승인 장쩌민 주석, 룽이런 부주석, 리펑 총리 선임
9기	1998.3.5–19	2,979	리펑	국무원 기구 개혁안, 마카오 특별행정구 기본법 및 부속 문건 승인 장쩌민, 후진타오 부주석, 주룽지 총리 선임
10기	2003.3.5–18	2,985	우방궈	후진타오 주석, 쩡칭홍 부주석, 장쩌민 군사위 주석, 원자바오 총리 선임
11기	2008.3.5–18	2,987	우방궈	2008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 2008년 중앙예산, 전인대 상무위 업무보고, 최고인민법원 업무보고 및 최고인민검찰원 업무보고 승인
12기	2013.3.5–17	2,987	장더장	시진핑 주석, 리위안차오 부주석, 시진핑 군사위 주석, 리커창 총리 선임, 국무원 조직 개편(27개 부처 → 25개 부처 등)

全人大 상무위원회 주요간부 명단

직위	제8기 全人大 (1993.3–1998.3)	제9기 全人大 (1998.3–2003.3)	제10기 全人大 (2003.3–2008.3)	제11기 全人大 (2008.3–2013.3)	제12기 全人大 (2013.3–)
위원장	차오스(喬石)	리펑(李鵬)	우방궈(吳邦國)	우방궈(吳邦國)	장더장(張德江)
부위원장	톈지윈(田紀雲) 왕한빈(王漢斌) 얼즈푸(倪志福) 천무화(陳慕華) 페이샤오퉁(費孝通) 쑨치멍(孫起孟) 레이제충(雷潔瓊) 친지웨이(秦基偉) 리시밍(李錫銘) 왕빙첸(王丙乾) 파바라·거례랑제 (帕巴拉·格列朗杰) 왕광잉(王光英) 청쓰위안(程思遠) 루자시(盧嘉錫) 부허(布赫) 톄무얼·다와마이티 (鐵木爾·達瓦買提) 간쿠·리페이야오 (甘苦·李沛瑤) 우제핑(吳階平) (총 19명)	톈지윈(田紀雲) 셰페이(謝非) 장춘윈(姜春雲) 쩌우자화(鄒家華) 파바라·거례랑제 (帕巴拉·各列朗杰) 왕광잉(王光英) 청중위안(程忠遠) 부허(布赫) 톄무얼·다와마이티 (鐵木爾·達瓦買提) 우제핑(吳階平) 펑페이윈(彭珮雲) 허루리(何魯麗) 저우광자오(周光召) 청커제(成克杰) 차오즈(曹志) 딩스쑨(丁石孫) 청쓰웨이(成思危) 쉬자루(許嘉璐) 짱정화(藏正華) (총 19명) ※ 셰페이(謝非)는 사망(1999.10) 청커제(成克杰)는 뇌물수뢰죄로 사형(2000.9)	왕자오궈(王兆國) 리톄잉(李鐵映) 쓰마이·아이마이티 (司馬義·艾買提) (維吾爾族) 허루리(何魯麗)(女) 딩스쑨(丁石孫) 청쓰웨이(成思危) 쉬자루(許嘉璐) 장정화(蔣正華) 구슈롄(顧秀蓮)(女) 러디(熱地)(藏族) 성화런(盛華仁) 루융샹(路甬祥) 우윈치무거 (烏雲其木格) (女, 蒙古族) 한치더(韓啓德) 푸톄산(傅鐵山) (총 15명)	왕자오궈(王兆國) 루융샹(路甬祥) 우윈치무거 (烏雲其木格) 한치더(韓啓德) 화젠민(華建敏) 천즈리(陳至立) 저우톄농(周鐵農) 리젠궈(李建國) 쓰마이·톄리와얼디 (司馬義·鐵力瓦爾地) 장수성(蔣樹聲) 천창즈(陳昌智) 옌쥐안치(嚴雋琪)(女) 쌍궈웨이(桑國衛) (총 13명)	리젠궈(李建國) 왕성쥔(王勝俊) 천창즈(陳昌智) 옌쥐안치(嚴雋琪)(女) 왕천(王晨) 선웨웨(瀋躍躍)(女) 지빙쉬안(吉炳軒) 장핑(張平) 샹바핑춰(向巴平措) 아이리겅·이밍바하이 (艾力更·依明巴海) 완어샹(萬鄂湘) 장바오원(張寶文) 천주(陳竺) (총 13명)
비서장	차오즈(曹志)	허춘린(何春霖)	성화런(盛華仁)	리젠궈(李建國)	왕천(王晨)

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조직



마. 국가주석

1) 선출

-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며 임기는 全人大 대표와 같은 5년으로 중임 가능하나 3회 연임은 불가

2) 주요권한

- 국가를 상징적으로 대표
- 全人大의 결정 및 그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법률을 공포
- 全人大의 결정 및 그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각 부장, 각 위원회 주임, 심계장, 국무원 비서장의 임면권
- 국가훈장, 명예 칭호의 수여
- 특사령, 계엄령, 선전포고, 동원령을 공포
- 대외적으로 외국사절을 접수하고, 全人大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외주재 전권대사를 파견, 소환하며 외국과 체결한 조약 및 협정을 비준 또는 폐기

국가주석·부주석 명단

직위	제7기 全人大	제8기 全人大	제9기 全人大	제10기 全人大	제11기 全人大	제12기 全人大
주석	양상쿤 (楊尙昆)	장쩌민 (江澤民)	장쩌민 (江澤民)	후진타오 (胡錦濤)	후진타오 (胡錦濤)	시진핑 (習近平)
부주석	왕전 (王震)	룽이런 (榮毅仁)	후진타오 (胡錦濤)	쩡칭홍 (曾慶紅)	시진핑 (習近平)	리위안차오 (李源潮)

* 국가부주석의 권한 : 주석 보좌, 주석의 위임하 주석의 일부직권 대행 및 주석 궐위시 주석직 승계

3. 국무원

가. 조직 및 구성

-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집행기관이며, 최고 국가행정기관으로서, 전국 인민대표대회 폐회 중에는 그 상설기관인 상무위원회에 책임을 지고 업무활동에 관해서 보고
- 임기는 5년이며,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의 연임은 1회로 제한
- 총리 1명, 부총리 4명, 국무위원 5명, 비서장 1명, 각부 부장 25명(중국인민은행장 포함), 각 위원회 3명, 심계서(審計署) 심계장 1명

나. 주요 권한

- 법률에 근거한 행정법규 및 명령의 제정·공포
- 지방의 각급 행정기관에 대한 업무지도
- 국민경제, 사회발전계획 수립 및 국가예산의 편성과 집행
- 省·市 범위내에서 일부 地區에 대한 계엄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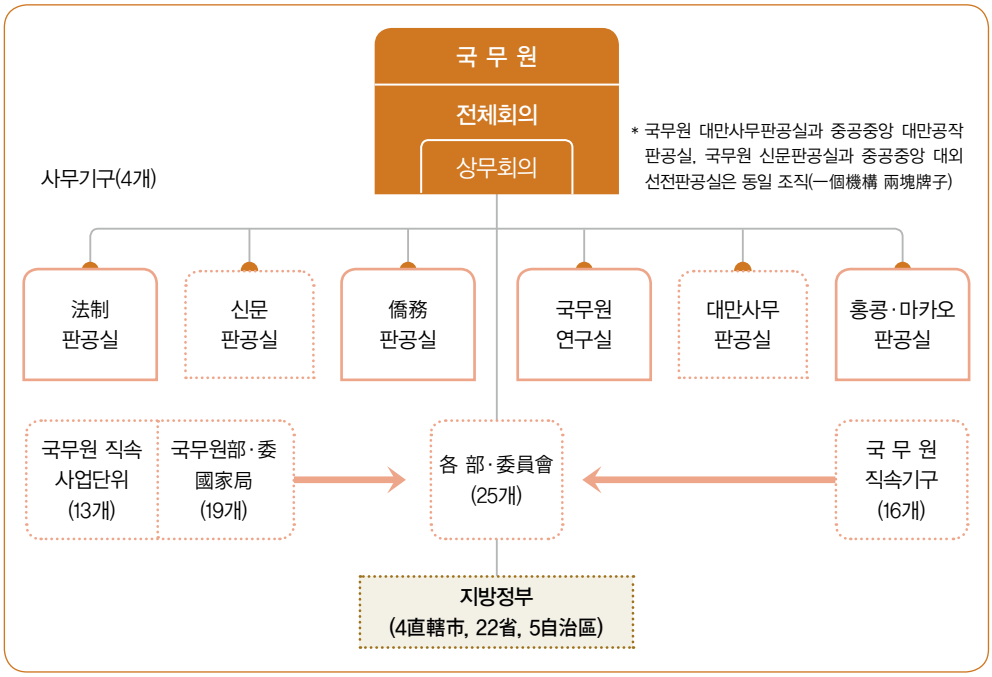
다. 국무원 회의

- 국무원 전체회의 : 국무원 구성원 전원이 참석하는 회의
- 국무원 상무회의 :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비서장만으로 구성되며 비공개회의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 구성

직위	제7기 全人大	제8기 全人大	제9기 全人大	제10기 全人大	제11기 全人大	제12기 全人大
총리	리펑(李鵬)	리펑(李鵬)	주룽지(朱鎔基)	원자바오(溫家寶)	원자바오(溫家寶)	리커창(李克强)
부총리	야오이린(姚依林) 톈지윈(田紀雲) 우쉐첸(吳學謙) 쩌우자화(鄒家華) 주룽지(朱鎔基)	주룽지(朱鎔基) 쩌우자화(鄒家華) 첸치천(錢其琛) 리란칭(李嵐清) 우방궈(吳邦國) 장춘윈(姜春雲)	리란칭(李嵐清) 첸치천(錢其琛) 우방궈(吳邦國) 원자바오(溫家寶)	황쥐(黃菊) 우이(吳儀)(女) 쩡페이옌(曾培炎) 후이량위(回良玉)	리커창(李克强) 후이량위(回良玉) 장더장(張德江) 왕치산(王岐山)	장가오리(張高麗) 류옌둥(劉延東) 왕양(汪洋) 마카이(馬凱)
국무위원	리톄잉(李鐵映) 친지웨이(秦基偉) 왕빙첸(王丙乾) 쑹젠(宋健) 왕팡(王芳) 리구이셴(李貴鮮) 천시퉁(陳希同) 천쥔성(陳俊生) 첸치천(錢其琛)	리톄잉(李鐵映) 천쥔성(陳俊生) 리구이셴(李貴鮮) 쑹젠(宋健) 츠하오톈(遲浩田) 펑페이윈(彭珮雲) 쓰마이·아이마이티 (司馬義·艾買提)	츠하오톈(遲浩田) 뤄간(羅幹) 우이(吳儀) 쓰마이·아이마이티 (司馬義·艾買提) 왕중위(王忠禹)	저우융캉(周永康) 차오강촨(曹剛川) 탕자쉬안(唐家璇) 화젠민(華建敏) 천즈리(陳至立)(女)	류옌둥(劉延東) 량광례(梁光烈) 마카이(馬凱) 멍젠주(孟建柱) 다이빙궈(戴秉國)	양징(楊晶) 창완취안(常萬全) 양제츠(楊潔篪) 궈성쿤(郭聲琨) 왕융(王勇)
비서장	뤄간(羅幹)	뤄간(羅幹)	왕중위(王忠禹)	화젠민(華建敏)	마카이(馬凱)	양징(楊晶)

라. 국무원 조직('13.3월, 제12기 全人大 1차회의를 통해 개편)



국무원 각료 명단

部/委/직책		성명	출생년월	출신
총리	총리	리커창(李克强)	'55.7	안후이성
부총리 (4명)	부총리	장가오리(張高麗)	'46.11	푸젠성
		류옌둥(劉延東)(女)	'45.11	장쑤성
		왕양(汪洋)	'55.3	안후이성
		마카이(馬凱)	'46.6	상하이시
국무위원 (5명)	–	양징(楊晶)	'53.12	네이멍구자치구
	국방부장 겸임	창완취안(常萬全)	'49.1	허난성
	외교담당	양제츠(楊潔篪)	'50.5	상하이시
	공안부장 겸임	궈성쿤(郭聲琨)	'54.10	장시성
	–	왕융(王勇)	'55.12	랴오닝성
국무원 비서장	국무원 행정업무총괄	양징(楊晶)	'53.12	네이멍구자치구
장관 (25명)	외교부장	왕이(王毅)	'53.10	베이징시
	국방부장	창완취안(常萬全)	'49.1	허난성
	국가발전개혁위주임	쉬사오스(徐紹史)	'51.10	저장성
	교육부장	위안구이런(袁貴仁)	'50.11	후베이성
	과학기술부장	완강(萬鋼)	'52.8	상하이시
	사법부장	우아이잉(吳愛英)(女)	'51.12	산둥성
	국가민족사무위주임	왕정웨이(王正偉)	'57.6	닝샤회족자치구
	공안부장	궈성쿤(郭聲琨)	'54.10	장시성
	국가안전부장	경후이창(耿惠昌)	'51.11	허베이성
	감찰부장	황수셴(黃樹賢)	'54.9	장쑤성
	민정부장	리리궈(李立國)	'53.11	허베이성
	문화부장	뤄수강(雒樹剛)	'55.5	허베이성
	재정부장	러우지웨이(樓繼偉)	'50.12	저장성
	인력자원사회보장부장	인웨이민(尹蔚民)	'53.1	허베이성
	환경보호부장	천지닝(陳吉寧)	'64.2	지린성
	국토자원부장	장다밍(姜大明)	'53.3	산둥성
	주택도시농촌건설부장	천정가오(陳政高)	'52.3	랴오닝성
	교통운수부장	양촨탕(楊傳堂)	'54.5	산둥성
	공업정보화부장	먀오웨이(苗圩)	'55.5	베이징시
	수리부장	천레이(陳雷)	'54.6	베이징시
	농업부장	한창푸(韓長賦)	'54.10	산둥성
	상무부장	가오후청(高虎城)	'51.8	산시(山西)성
	국가위생가족계획위주임	리빈(李斌)(女)	'54.10	랴오닝성
	중국인민은행장	저우샤오촨(周小川)	'48.1	장쑤성
	심계서장	류자이(劉家義)	'56.8	충칭시

국무원 직속 기구·단위·국가국



※ 全人大, 공산당, 국무원의 권력관계

- 공산당–全人大 관계
  - 법률상 전인대가 최고권력기관(헌법 제57조)
  - 실제는 지도대 피지도의 관계(공산당은 인사권을 통해 전인대를 통제)
- 全人大–국무원 관계
  - 원론적으로는 감독–피감독의 관계(종속관계)
  - 실제는 능력면에서 국무원의 우위관계 형성
- 全人大는 입법권 보장 및 구성원들의 자질 향상으로 향후 위상 강화 기대

마. 국가중앙군사위원회

- 전국 병력을 지휘하며 주석책임제 실시
  - 주석은 임기 5년으로(연임제한 규정없음),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에 책임
- 국가중앙군사위의 구성은 黨 중앙군사위 구성과 동일

4. 사법부

가. 최고인민법원

- 중국의 최고 재판기관으로서 지방의 각급 인민법원과 전문 인민법원의 재판활동을 감독하며,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에 책임
- 원장의 임기는 5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간부명단
  - 원장 : 저우창(周强)
  - 부원장 : 선더융(沈德咏), 장비신(江必新), 리사오핑(李少平), 난잉(南英), 징한차오(景漢朝), 장수위안(張述元), 허룽(賀榮), 타오카이위안(陶凱元)
  - 심판위원회 위원 : 원장, 부원장, 재판장, 부재판장 및 심판위원 약간명으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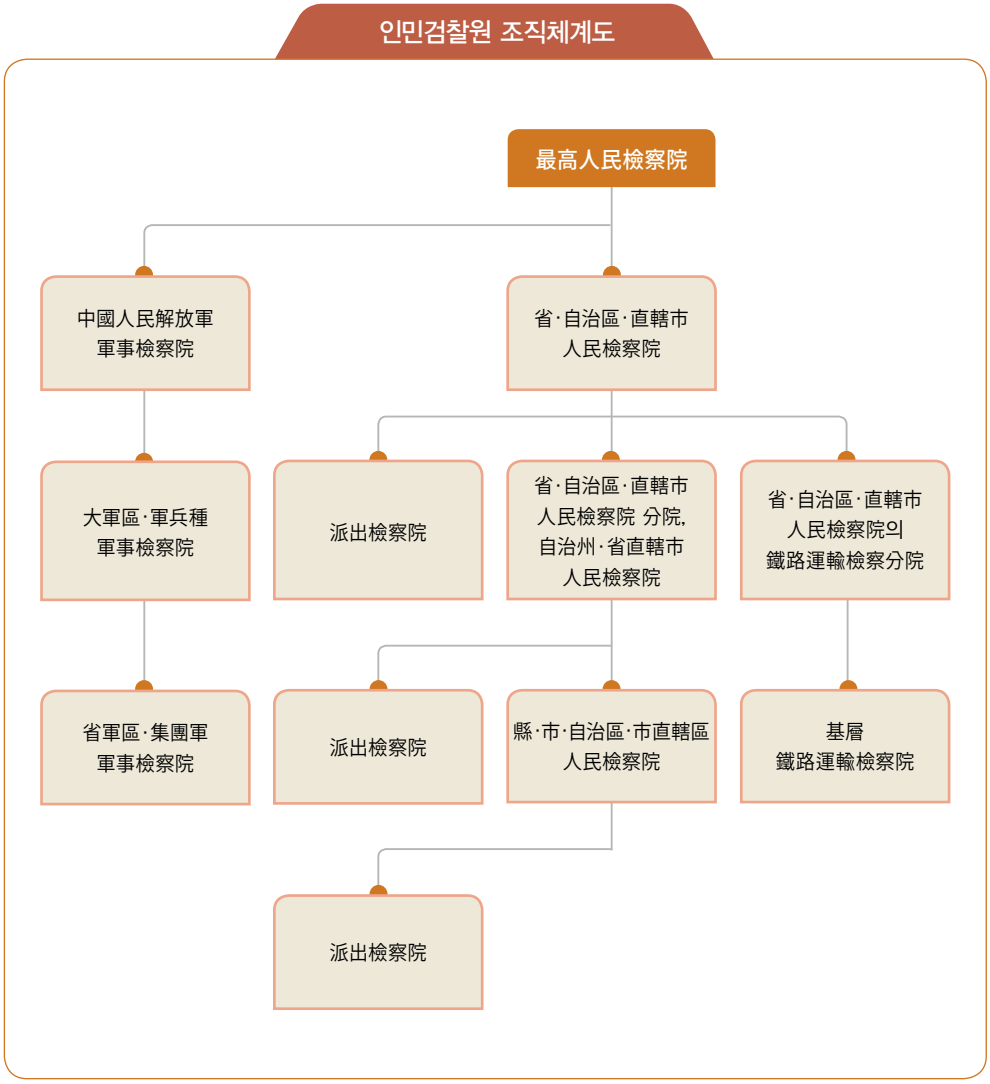
인민법원 기구조직도



나. 최고인민검찰원

- 중국의 최고 검찰기관으로서 지방의 각급 인민검찰원과 전문 인민검찰원의 활동을 지도하며,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에 책임
- 검찰장의 임기는 5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간부명단
  - 검찰장 : 차오젠밍(曹建明)
  - 부검찰장 : 후쩌쥔(胡澤君), 추쉐창(邱學强), 쑨첸(孫謙), 장젠추(姜建初), 장창런(張常韌), 커한민(柯漢民), 리루린(李如林)

인민검찰원 조직체계도



최고인민검찰원 조직기구표



5.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가. 연혁 및 기능

- '49.9월 「인민통일전선」 조직으로 설립되어 건국('49.10월) 초기 임시 헌법에 해당하는 「政協 공동강령」을 제정하는 등 의회 역할을 대행
- '54년 전국인민대표대회(의회) 설립 이후 정책자문기관 및 홍콩·마카오 접수, 대만 통일을 위한 통일전선 업무 협의체 기능을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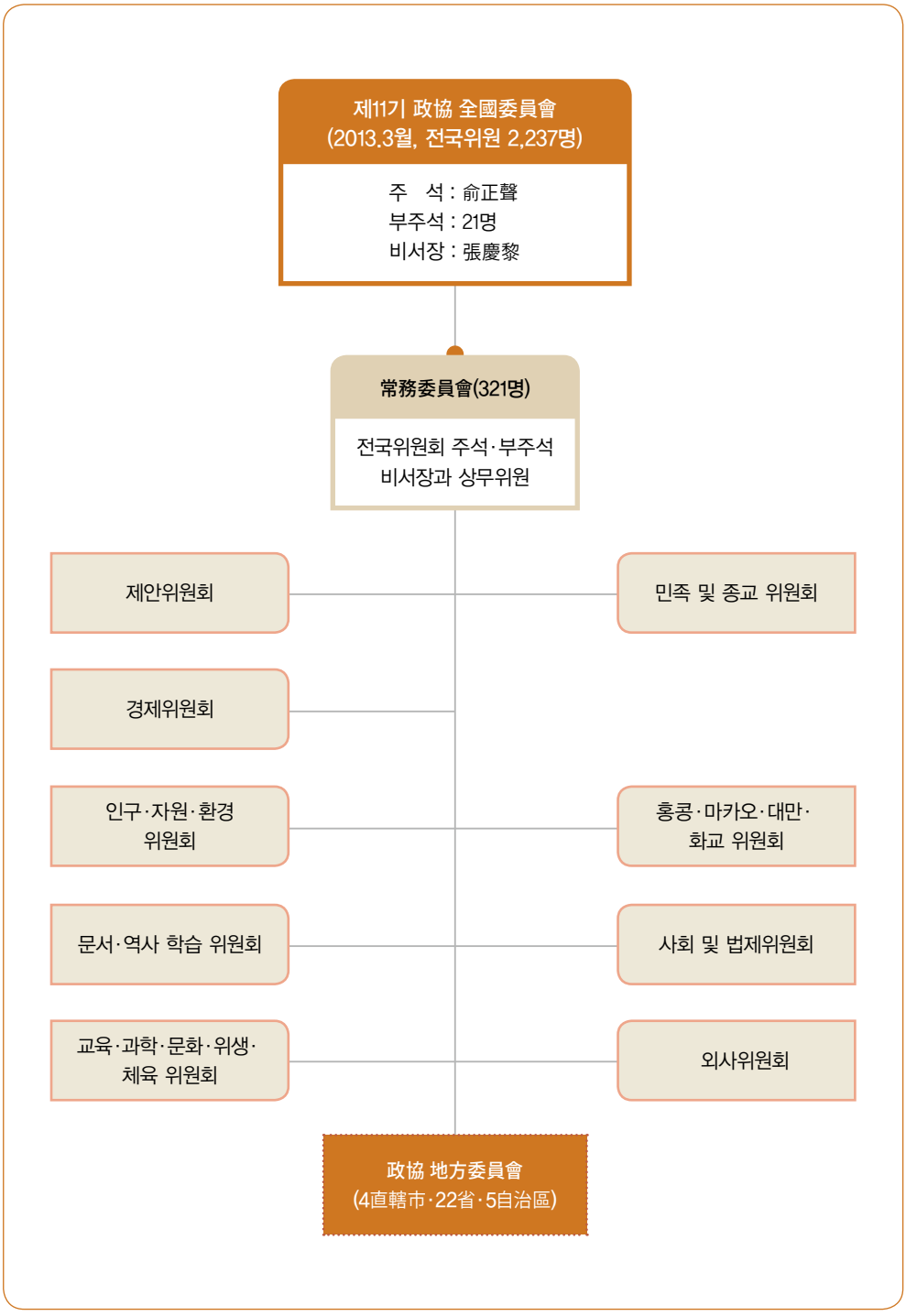
나. 정협 전국위원회

- 공산당, 8개 「民主諸黨派」, 인민단체, 소수민족, 홍콩·마카오 교포 등의 대표인사 2,237명('13.3월)으로 구성
- 임기는 5년이며 통상 연 1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다음의 권한을 행사
  - 전국위원회의 주석, 부주석, 비서장 및 상무위원 선출
  - 국정방침에 관한 토의 참여, 제안 및 비판
  - 정협 규약 개정, 결의 채택 및 상무위 사업보고 심의

다. 정협 상무위원회

- 전국위원회의 주석, 부주석(21명, '13.3월 출범시 23명), 비서장과 상무위원(299명) 등 총 321명('13.3월 출범시 323명)으로 구성('16.3월 현재)
- 전국위원회 전체회의 폐회 중 전체회의의 결의를 집행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또는 국무원에 제출할 결의안을 심의·채택

라. 인민정치협상회의 조직



마. 주요 정치단체

1) 민주제당파

- 중국에는 중국국민당혁명위원회, 민주동맹, 대만민주자치동맹 등 8개 당파가 있으나 실질기능 및 역할 면에서 독립정당이라기보다는 중국공산당의 一黨통치를 방조하는 형식상의 존재
- 민주제당파는 중국만의 특유한 조직으로 사회 각 분야 저명 지식인을 다수 포함

「민주제당파」 현황

명칭	성립시기	主席	특징
中國國民黨革命委員會 (民革)	1948.1	완어샹 (萬鄂湘)	蔣介石 독재에 반대하는 國民黨내, 혁신파 중심
中國民主同盟 (民盟)	1941.3	장바오원 (張寶文)	中國民主正團同盟으로 발족하여 '44.9월에 현재 명칭으로 개칭 문화교육계 지식인 중심
中國民主建國會 (民建)	1945.12	천창즈 (陳昌智)	민족부르주아인 工商業者 및 그와 관계가 깊은 지식인 중심
中國民主促進會 (民進)	1945.12	옌쥐안치 (嚴雋琪)	항일·민주운동을 추진한 문화교육계 지식인, 특히 초등·중등학교 및 문화출판계 지식인 중심
中國農工民主黨 (農工黨)	1930.8	천주 (陳竺)	中國民主黨臨時行動委員會로 성립하여 '35년에 中華民族解放行動委員會로 바뀌고 '47년에 현재 명칭으로 개칭 의학·약학·보건 분야 인사 중심
中國致公黨 (致公黨)	1925	완강 (萬鋼)	해외화교 비밀결사인 洪門致公黨으로 출발, '47.5월 조직을 개편하고 대표회의 소집. 귀국 화교 및 해외화교 중심
九三學社	1944.11	한치더 (韓啓德)	民主科學社로 출발하여 '45.9월에 현재 명칭으로 개칭 민주운동을 추진한 문화교육계·과학기술계 지식인 중심
臺灣民主自治同盟 (臺盟)	1947.11	린원이 (林文漪)	항일·민주운동을 추진한 臺灣省 출신 인사 중심

2) 기타 주요단체

- 중국공산주의청년단 : 중국공산당의 청년조직
- 중국소년선봉대 : 중국공산당의 소년, 아동조직
- 중화전국청년연합회 : 청년단체의 연합조직

- 중화전국부녀연합회 : 여성조직
- 중화전국총공회 : 전국의 노동자 조직

바. 지방정부 주요 인사

구분	행정구역	직책	성명	중국 공산당 중앙 직위	출생년월	출신지	학력	비고(전직 경력)
직할시 (4개)	베이징	당서기	궈진룽 (郭金龍, Guo Jinlong)	중앙정치국 위원	'47. 7	장쑤성(江蘇省) 난징(南京)	난징(南京)대학 물리학과	베이징시(北京市) 부서기, 대리시장
		시장	왕안순 (王安順, Wang Anshun)	제18기 중앙위원회 위원	'57.12	허난성(河南省) 후이현(輝縣)	난카이(南開)대학 정치경제학	정법위원회 서기
	톈진	대리 서기	황싱궈 (黃興國, Huang Xingguo)	제18기 중앙위원회 위원	'54.10	저장성(浙江省) 샹산(象山)	퉁지(同濟)대학 경제관리학원 관리과학·공정학	톈진시(天津市) 부서기, 대리시장
		시장						
	상하이	당서기	한정 (韓正, Han Zheng)	중앙정치국 위원	'54. 4	저장성(折江省) 츠시(慈溪)	화동사범대학 경제학 석사	상하이시(上海市) 부서기, 시장
		시장	양슝 (楊雄, Yang Xiong)	–	'53.11	저장성(折江省) 항저우(杭州)	중국사회과학원 경제학 석사	상하이시(上海市) 상무부시장
	충칭	당서기	쑨정차이 (孫政才, Sun Zhengcai)	중앙정치국 위원	'63. 9	산둥성(山東省) 룽청(榮成)	중국농업대학 농학박사	농업부 부장, 지린성(吉林省)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시장	황치판 (黃奇帆, Huang Qifan)	제18기 중앙위원회 위원	'52. 5	저장성(浙江省) 주지(諸暨)	중국유럽국제 공상학원 공상관리 석사	충칭시(重慶市) 대리시장, 부시장, 중경행정학원 원장
성 (22개)	허베이	당서기	자오커즈 (趙克志, Zhao Kezhi)	제18기 중앙위원회 위원	'53.12	산둥성(山東省) 라이시(萊西)	중앙당교 연구생반 사회주의학 재직 석사	구이저우성 (貴州省) 부서기, 당서기
		성장	장칭웨이 (張慶偉, Zhang Qingwei)	제18기 중앙위원회 위원	'61.11	허베이성(河北省) 탕산(唐山)	서북공업대학 공학석사	국방과학기술 공업위원회 주임

구분	행정구역	직책	성명	중국 공산당 중앙 직위	출생년월	출신지	학력	비고(전직 경력)
성(22개)	산시(山西)	당서기	뤄후이닝(駱惠寧, Luo Huining)	제18기 중앙위원회 위원	'54.10	저장성(浙江省) 이우(義烏)	인민대학 경제학원 정치경제학박사	안후이성(安徽省) 선전부 부장, 칭하이성(青海省) 서기
		성장	리샤오펑(李小鵬, Li Xiaopeng)	제18기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59. 6	쓰촨성(四川省) 청두(成都)	화북전력학원 전력공정학 박사	산시성(山西省) 대리성장
	랴오닝	당서기	리시(李希, Li Xi)	제18기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56.10	간쑤성(甘肅省) 량당(兩當)	칭화(淸華)대학 경제관리학원 공상관리 재직 석사	상하이시(上海市) 부서기
		성장	천추파(陳求發, Chen Qiufa)	제18기 중앙위원회 위원	'54.12	후난성(湖南省) 청부(城步)	국방과학기술대학 전자공정학 전탐대항책	국가우주비행국 국장, 후난성(湖南省) 정협주석
	지린	당서기	바옌촐루(巴音朝魯, Bayanqolu)	제18기 중앙위원회 위원	'55.11	네이멍구자치구(內蒙古自治區) 어퉈커첸치(鄂托克前旗)	지린(吉林)대학 경제관리학원 국민경제계획 관리학 석사	지린성(吉林省) 부서기, 대리성장
		성장	장차오량(蔣超良, Jiang Chaoliang)	제18기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57. 8	후난성(湖南省) 미뤄(汨羅)	서남재경대학 경제학 석사	국가개발은행 부이사장, 중국농업은행 이사장
	헤이룽장	당서기	왕셴쿠이(王憲魁, Wang Xiankui)	제18기 중앙위원회 위원	'52. 7	허베이성(河北省) 창현(滄縣)	중앙당교 경제관리학	장시성(江西省) 부서기, 헤이룽장성(黑龍江省) 부서기
		성장	루하오(陸昊, Lu Hao)	제18기 중앙위원회 위원	'67. 6	상하이(上海)	베이징(北京)대학 경제학원 경제학 석사	베이징시(北京市) 부시장, 공청단 중앙서기처 제1서기
	장쑤	당서기	리창(李强, Li Qiang)	제18기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59. 7	저장성(浙江省) 루이안(瑞安)	중앙당교 연구생 공상관리 석사	원저우시(溫州市) 당서기, 저장성(浙江省) 성장
		성장	스타이펑(石泰峰, Shi Taifeng)	제18기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56. 9	산시성(山西省) 위서(榆社)	베이징(北京)대학 법학기초이론 석사	중앙당교 부교장, 쑤저우시(蘇州市) 당서기

구분	행정구역	직책	성명	중국 공산당 중앙 직위	출생년월	출신지	학력	비고(전직 경력)
성(22개)	저장	당서기	샤바오룽(夏寶龍, Xia Baolong)	제18기 중앙위원회 위원	'52.12	톈진시(天津市)	베이징(北京)대학 경제학 박사	톈진시(天津市) 상무위원, 저장성(浙江省) 부서기
		대리 성장	처쥔(車俊, Che Jun)	제18기 중앙위원회 위원	'55. 7	안후이성(安徽省) 차오후(巢湖)	중앙당교 통신교육학원 경제관리	허베이성(河北省) 부서기, 신장웨이우얼자치구(新疆維吾爾自治區) 부서기
	안후이	당서기	왕쉐쥔(王學軍, Wang Xuejun)	제18기 중앙위원회 위원	'52.12	허베이성(河北省) 난피(南皮)	허베이(河北)공학원 기계학과 기계제조학	국무원 부비서장
		성장	리진빈(李錦斌, Li Jinbin)	–	'58. 2	쓰촨성(四川省) 청두(城都)	지린(吉林)대학 행정학원 정치학이론 법학박사	지린성(吉林省) 부성장
	푸젠	당서기	유취안(尤權, You Quan)	제18기 중앙위원회 위원	'54. 1	허베이성(河北省) 루룽(盧龍)	중국인민대학 국민경제계획학 석사	국무원 부비서장
		성장	위웨이궈(於偉國, Yu Weiguo)	제18기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55.10	산둥성(山東省) 원덩(文登)	중국인민대학 중문학과 중국문학	푸젠성(福建省) 조직부 부장, 샤먼시(厦門市) 부서기, 당서기
	장시	당서기	루신서(鹿心社, Lu Xinshe)	제18기 중앙위원회 위원	'56.11	산둥성(山東省) 쥐예(巨野)	우한(武漢)수리 전력학원 수리공정 전공	간쑤성(甘肅省) 부서기, 장시성(江西省) 성장
		대리 성장	류치(劉奇, Liu Qi)	–	'57.9	산둥성(山東省) 이수이(沂水)	시안(西安)교통대학 경제학 박사	닝보시(寧波市) 서기, 저장성(浙江省) 상무위원
	산둥	당서기	장이캉(姜異康, Jiang Yikang)	제18기 중앙위원회 위원	'53. 1	산둥성(山東省) 자오위안(招遠)	중남(中南)공업대학 관리공정 석사	충칭시(重慶市) 부서기, 국가행정원 부원장
		성장	궈수칭(郭樹清, Guo Shuqing)	제18기 중앙위원회 위원	'56. 8	네이멍구자치구(內蒙古自治區) 우란차부(烏蘭察布)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생원 마르크스레닌주의 학과 법학박사	중국인민은행 부행장, 중국증권감독 관리위원회 주석
	허난	당서기	셰푸잔(謝伏瞻, Xie Fuzhan)	제18기 중앙위원회 위원	'54. 8	후베이성(湖北省) 톈먼(天門)	기계공업부 기계과학연구원 공업자동화학과 석사	국가통계국 국장, 국무원 연구실주임
		성장	천룬얼(陳潤兒, Chen Run'er)	제18기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57.10	후난성(湖南省) 차링(茶陵)	중앙당교 연구생반 경제관리 전공	후난성(湖南省) 상무위원, 헤이룽장성(黑龍江省) 부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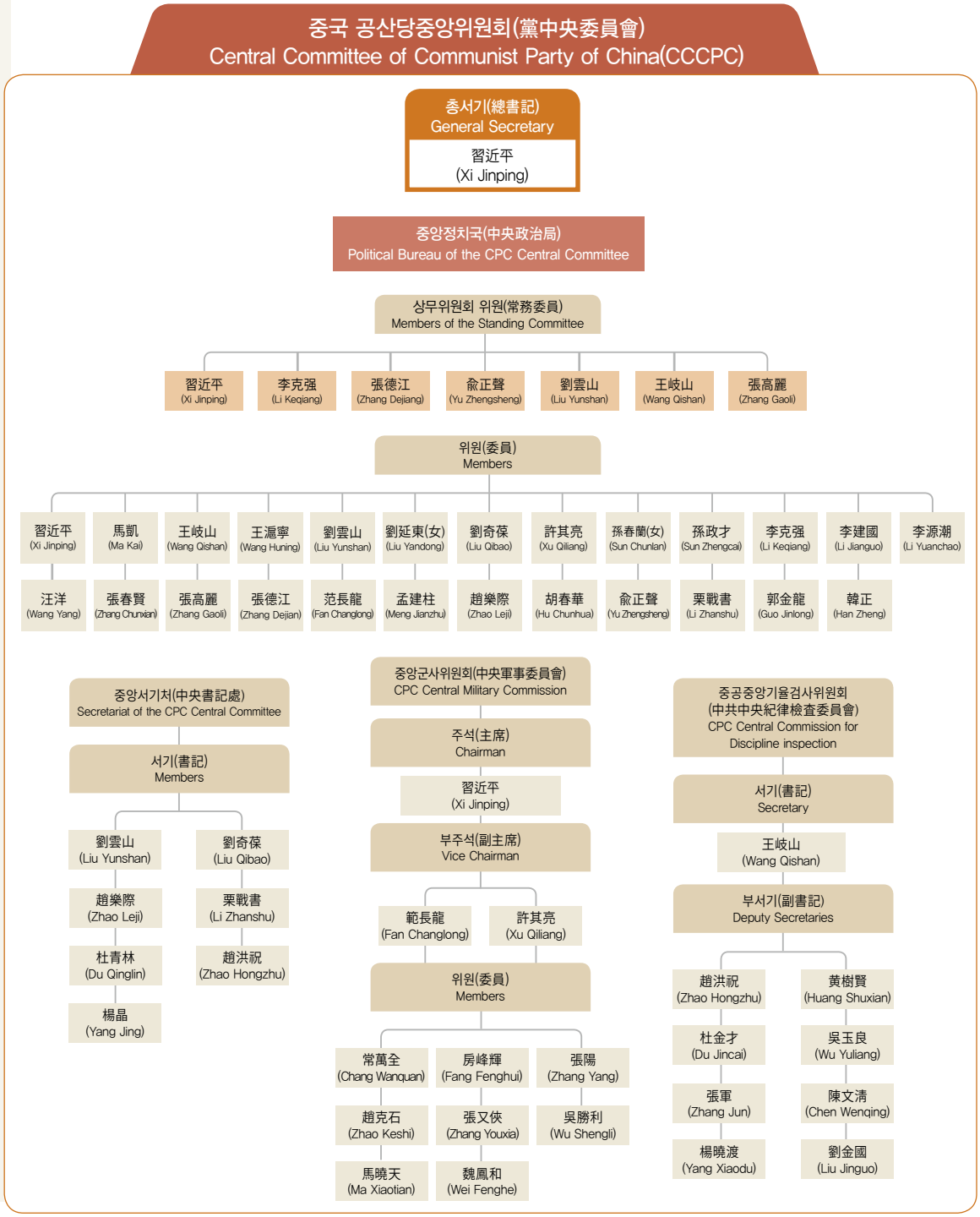
구분	행정구역	직책	성명	중국 공산당 중앙 직위	출생년월	출신지	학력	비고(전직 경력)
성(22개)	후베이	당서기	리훙중(李鴻忠, Li Hongzhong)	제18기 중앙위원회 위원	'56. 8	산둥성(山東省) 창러(昌樂)	지린(吉林)대학 역사학과	선전시(深圳市) 당서기, 후베이성(湖北省) 부서기
		성장	–	–	–	–	–	–
	후난	당서기	쉬서우성(徐守盛, Xu Shousheng)	제18기 중앙위원회 위원	'53. 1	장쑤성(江蘇省) 루둥(如東)	장쑤성(江蘇省)당교 정치경제학 석사	간쑤성(甘肅省) 부서기, 성장 후난성(湖南省) 부서기
		성장	두자하오(杜家毫, Du Jiahao)	제18기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55. 7	저장성(浙江省) 닝보(寧波)	화동사범대학 중문학, 중국유럽공상학원 공상관리학 석사	헤이룽장성(黑龍江省) 정법위원회 서기, 부서기
	광둥	당서기	후춘화(胡春華, Hu Chunhua)	중앙정치국 위원	'63. 4	후베이성(湖北省) 우펑(五峰)	베이징(北京)대학 중문과	허베이성(河北省) 부서기, 성장, 네이멍구자치구(內蒙古自治區) 당서기
		성장	주샤오단(朱小丹, Zhu Xiaodan)	제18기 중앙위원회 위원	'53. 1	저장성(浙江省) 원저우(溫州)	중앙당교 경제관리학 석사	광저우시(廣州市) 당서기
	하이난	당서기	뤄바오밍(羅保銘, Luo Baoming)	제18기 중앙위원회 위원	'52.10	톈진시(天津市)	톈진(天津) 사범전문학교 중문학과, 난카이(南開)대학 역사학 석사	톈진시(天津市) 상무위원, 하이난성(海南省) 부서기
		성장	류츠구이(劉賜貴, Liu Cigui)	–	'55. 9	푸젠성(福建省) 취안저우(泉州)	중앙당교 사회과학주의학 재직 석사	푸젠성(福建省) 해양 · 어업국 국장
	쓰촨	당서기	왕둥밍(王東明, Wang Dongming)	제18기 중앙위원회 위원	'56. 7	랴오닝성(遼寧省) 번시(本溪)	중앙당교 연구생	중앙조직부 부부장, 중앙기구편제위원회 판공실 주임
		성장	인리(尹利, Yin Li)	제18기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62. 8	산둥성(山東省) 린이(臨邑)	러시아의학과학원 위생경제 · 위생사업관리 전공, 의학박사	위생부 부부장,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부국장

구분	행정구역	직책	성명	중국 공산당 중앙 직위	출생년월	출신지	학력	비고(전직 경력)
성(22개)	구이저우	당서기	천민얼(陳敏爾, Chen Min'er)	제18기 중앙위원회 위원	'60. 9	저장성(浙江省) 주지(諸暨)	사오싱(紹興) 사범전문학교 중문과, 중앙당교 연구생반 법학과 전공	저장성(浙江省) 상무위원, 선전부 부장, 부성장
		성장	쑨즈강(孫志剛, Sun Zhigang)	–	'54. 5	허난성(河南省) 싱양(滎陽)	상하이(上海)재경학원 공업경제학 석사, 우한(武漢)대학 정치경제학 박사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 국가위생·계획생육 위원회 부주임
	윈난	당서기	리지헝(李紀恒, Li Jiheng)	제18기 중앙위원회 위원	'57. 1	광시성(廣西省) 구이강(貴港)	광시(廣西)대학 중문과 문학창작과, 중앙당교 경제학과 재직 석사	윈난성(雲南省) 부서기, 당교 교장
		성장	천하오(陳豪, Chen Hao)	–	'54. 2	장쑤성(江蘇省) 하이먼(海門)	중국유럽 국제공상학원 공상관리 석사	중화전국노동조합 총연합회 서기처 제1서기
	산시(陝西)	당서기	러우친젠(婁勤儉, Lou Qinjian)	제18기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56.12	귀이저우성(貴州省) 퉁쯔(桐梓)	화북컴퓨터 기술연구소 공학석사, 화중(華中)과기대학 컴퓨터공학 박사	공업·정보화부 부부장
		성장	후허핑(胡和平, Hu Heping)	제18기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62.10	산둥성(山東省) 린이(臨沂)	칭화(淸華)대학 수리공정과, 수리수전공정학 석사	저장성(浙江省) 상무위원, 조직부 부장
	간쑤	당서기	왕싼윈(王三運, Wang Sanyun)	제18기 중앙위원회 위원	'52.12	산둥성(山東省) 산현(單縣)	구이양(貴阳) 사범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중앙당교 정치학 재직 석사	푸젠성(福建省) 부서기, 안후이성(安徽省) 부서기
		성장	린둬(林鐸, Lin Duo)	제18기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56. 3	산둥성(山東省) 허쩌(菏澤)	중앙당교 법학 재직석사	북경시(北京市) 부비서장, 헤이룽장성(黑龍江省) 상무위원
	칭하이	당서기	왕궈성(王國生, Wang Guosheng)	제18기 중앙위원회 위원	'56. 5	산둥성(山東省) 둥어(東阿)	산둥(山東)대학 정치학전공, 산둥성 당교 석사	장쑤성(江蘇省) 부서기, 후베이성(湖北省) 성장
		성장	하오펑(郝鵬, Hao Peng)	제18기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60. 7	산시성(陝西省) 펑샹(鳳翔)	서북(西北)공업대학 항공기제조 공정학, 서북공업대학 항공시스템공정학 석사	시짱자치구(西藏自治區) 부서기, 상무부주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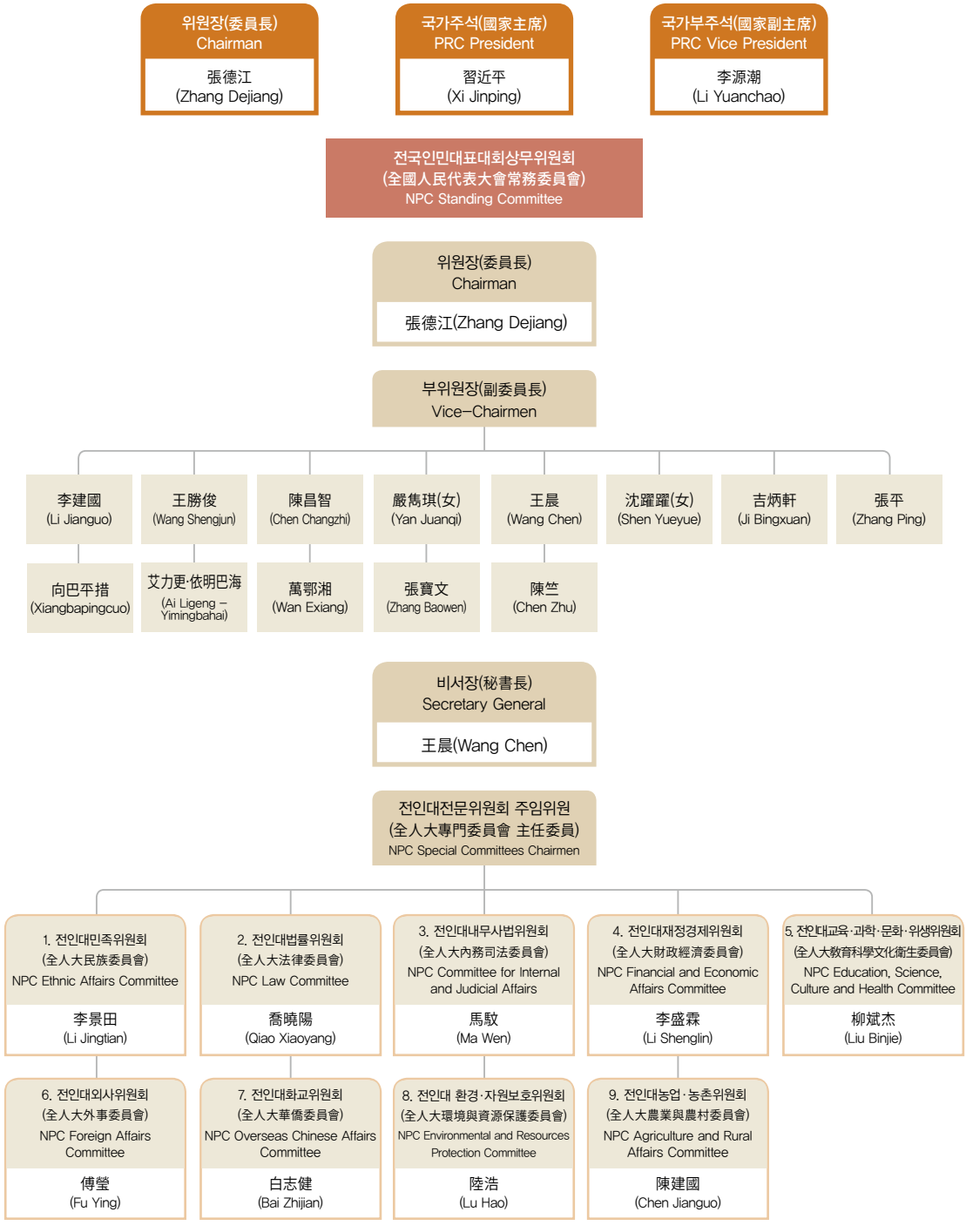
구분	행정구역	직책	성명	중국 공산당 중앙 직위	출생년월	출신지	학력	비고(전직 경력)
민족자치구(5개)	네이멍구	자치구 공산당 서기	왕쥔 (王君, Wang Jun)	제18기 중앙위원회 위원	'52. 3	산시성(山西省) 다퉁(大同)	중앙당교 철학과 재직 석사	산시성(山西省) 부서기, 성장
		자치구 대리 주석	부샤오린(女) (布小林, Bu Xiaolin)	–	'58. 8	네이멍구자치구 (内蒙古自治區) 투쭤치(土左旗)	지린(吉林)대학 법학원 법학 박사	정부법제국 국장, 네이멍구자치구 (内蒙古自治區) 상무위원
	광시좡족	자치구 공산당 서기	펑칭화 (彭清華, Peng Qinghua)	제18기 중앙위원회 위원	'57. 4	후베이성(湖北省) 다예(大冶)	후난(湖南)대학 석사, 중산(中山)대학 기업관리학 박사	주홍콩 중앙정부연락판공실 주임
		자치구 주석	천우 (陳武, Chen Wu)	제18기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54.11	광시좡족자치구 (廣西壯族自治區) 충쭤(崇左)	중앙당교 법학 재직 석사	광시좡족자치구 (廣西壯族自治區) 판공청 주임, 비서장
	시짱(티베트)	자치구 공산당 서기	천취안궈 (陳全國, Chen Quanguo)	제18기 중앙위원회 위원	'55.11	허난성(河南省) 핑위(平輿)	정저우(鄭州)대학 정치경제학 학사, 우한(武漢)이공대학 경제학 석사	허난성(河南省) 부서기, 성장
		자치구 주석	뤄쌍장춘 (洛桑江村, Luosangjiangcun)	제18기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57. 7	시짱(티베트)자치구 (西藏自治區) 차야(察雅)	시짱(티베트)(西藏) 민족학원 어문학, 중앙당교 연구생반 마르크스주의 철학 전공	시짱(티베트)자치구 (西藏自治區) 라싸시(拉薩市) 부서기, 시짱(티베트)자치구 (西藏自治區) 상무부주석
	닝샤후이족	자치구 공산당 서기	리젠화 (李建華, Li Jianhua)	제18기 중앙위원회 위원	'54. 9	허베이성 (河北省) 구청(故城)	난카이(南開)대학 재직연구생반 경제학 석사	국가행정학원 당위원회 서기, 부원장
		자치구 대리 주석	셴후이(女) (咸輝, Xian Hui)	제18기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58. 3	간쑤성(甘肅省) 딩시(定西)	란저우(蘭州)대학 관리학 박사	간쑤성(甘肅省) 상무부성장
	신장위구르자치구	자치구 공산당 서기	장춘셴 (張春賢, Zhang Chunxian)	중앙정치국 위원	'53. 5	허난성(河南省) 위저우(禹州)	동북중형기계학원 기계제조학과 하얼빈(哈爾濱) 공업대학 관리학 석사	교통부 부장, 후난성(湖南省) 당서기
		자치구 주석	쉐커라이티 자커얼 (雪克萊提·扎克爾)	–	'53. 8	신장(新疆) 이닝(伊寧)	톈진(天津)대학 관리학원 공상관리 석사	신장위구르자치구 (新疆维吾爾自治區) 상무위원회 당조직 서기

구분	행정구역	직책	성명	중국 공산당 중앙 직위	출생년월	출신지	학력	비고(전직 경력)
특구(2개)	홍콩	행정장관	렁춘잉(梁振英, Leung Chun-ying)	–	'54. 8	홍콩(香港) [본적 : 산둥성(山東省) 웨이하이(威海)]	영국 Bristol 이공학원 자산평가·관리 학사 홍콩이공대학 상업관리 명예박사	전국 정치협상회의 상무위원
		입법회 주석	쩡위청(曾鈺成, Jasper Tsang Yok-sing)	–	'47. 5	광둥성(廣東省) 광저우(廣州) [본적 : 광둥성(廣東省) 순더(順德)]	홍콩(香港)대학 수학과 학사 홍콩(香港)대학 교육학 석사	홍콩특별행정구(香港特別行政區) 제4회 입법회 의원
	마카오	행정장관	페르난도 추이(Fernando Chui Sai-on, 崔世安)	–	'57. 1	마카오(澳門) [본적 : 광둥성(廣東省) 신후이(新會)]	미국 오클라호마 주립대 공공위생 석·박사	중화전국청년연합위원회 상무위원
		입법회 주석	허이청(賀一誠, Ho Lat Seng)	–	'57. 6	마카오(澳門) [본적 : 저장성(浙江省) 이우(義烏)]	저장(浙江)대학 기계, 경제 전공	중화전국공상연합회 상무위원

6. 중국 주요 정부기관 기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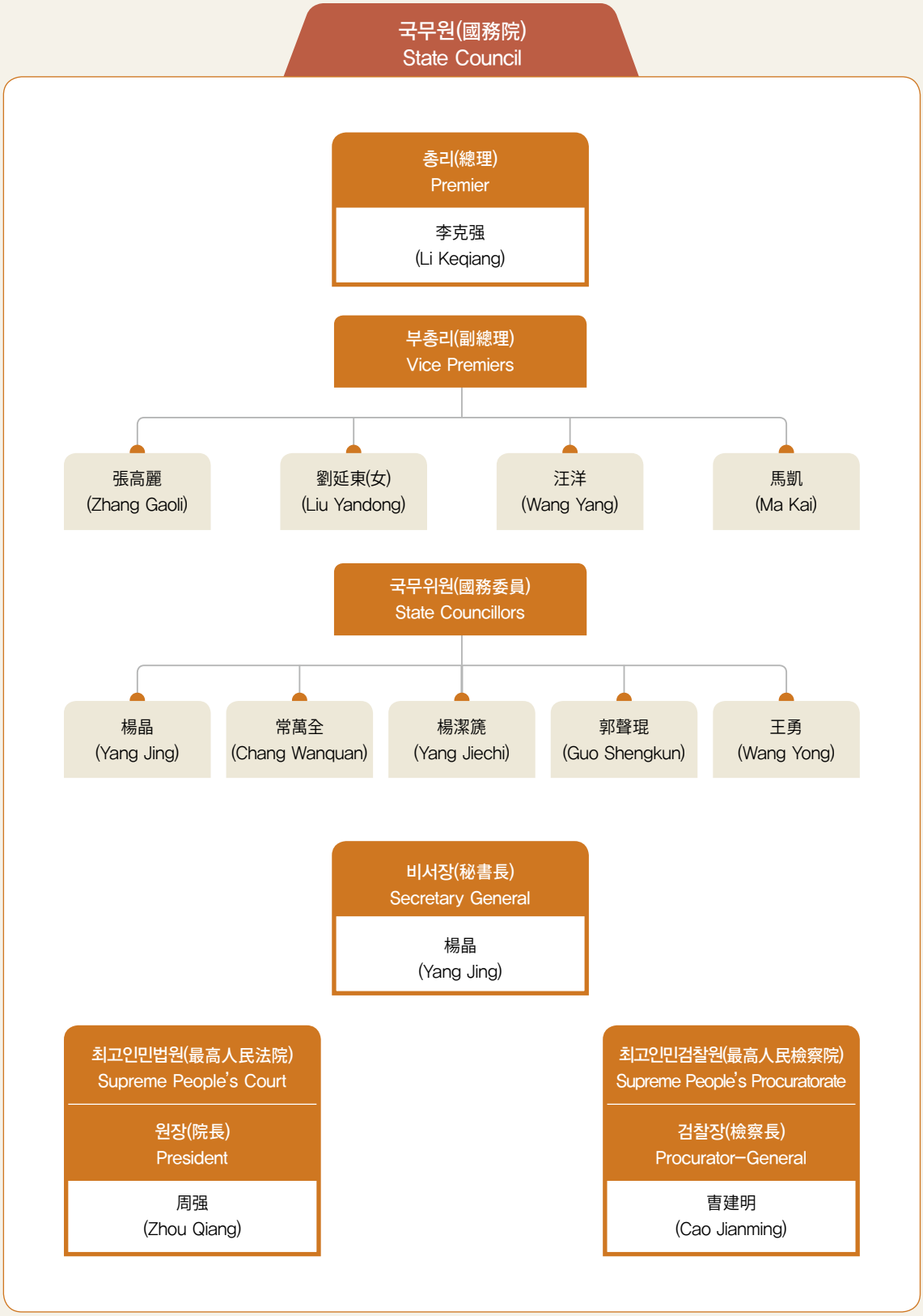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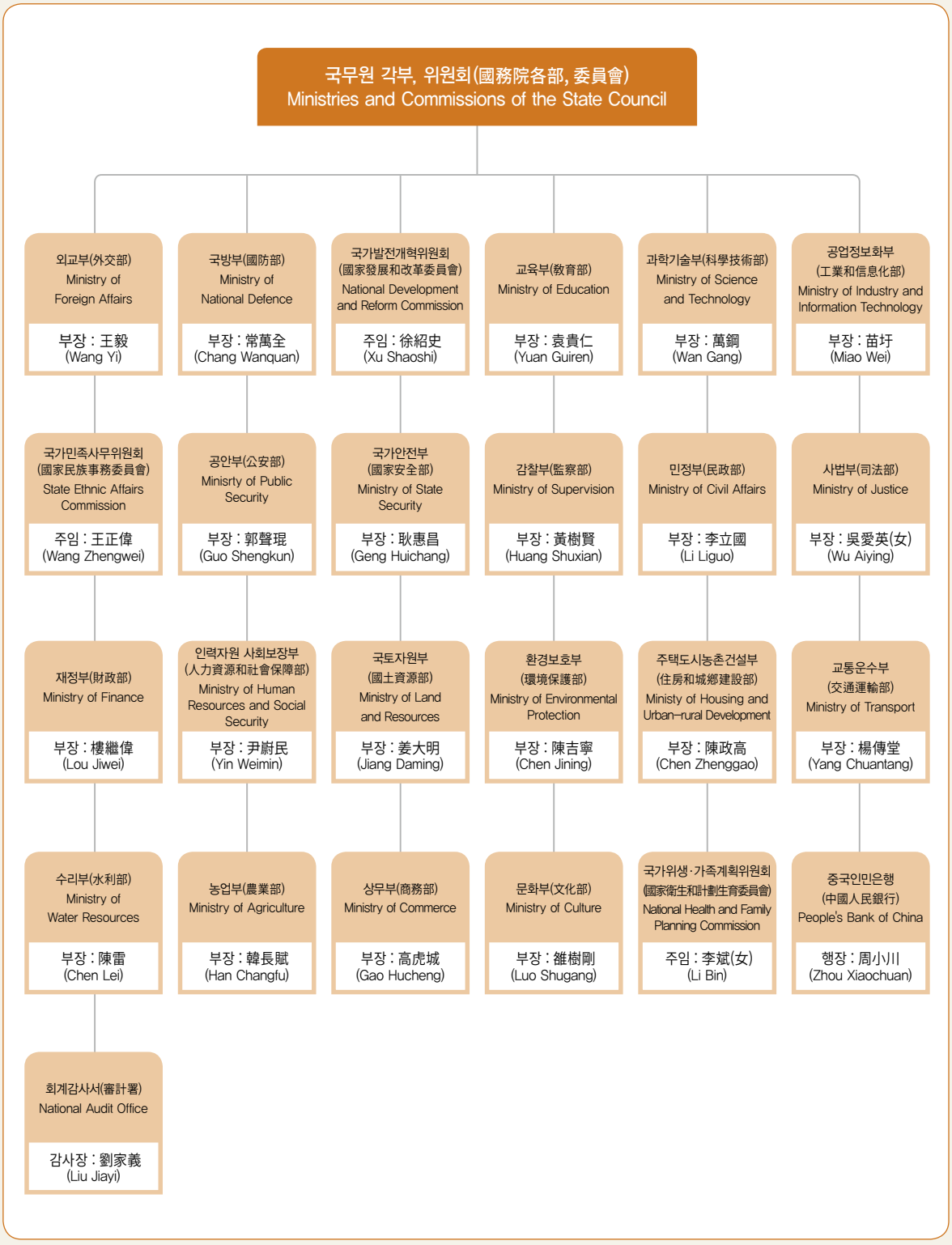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
National People's Congress(NPC)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中國人民政治協商會議)
Chinese People's Political Consultative Conference(CPPCC)




국무원(國務院)
State Council
총리(總理)
Premier
李克强
(Li Keqiang)
부총리(副總理)
Vice Premiers
張高麗
(Zhang Gaoli)
劉延東(女)
(Liu Yandong)
汪洋
(Wang Yang)
馬凱
(Ma Kai)
국무위원(國務委員)
State Councillors
楊晶
(Yang Jing)
常萬全
(Chang Wanquan)
楊潔篪
(Yang Jiechi)
郭聲琨
(Guo Shengkun)
王勇
(Wang Yong)
비서장(秘書長)
Secretary General
楊晶
(Yang Jing)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
Supreme People's Court
원장(院長)
President
周强
(Zhou Qiang)
최고인민검찰원(最高人民檢察院)
Supreme People's Procuratorate
검찰장(檢察長)
Procurator-General
曹建明
(Cao Jianming)


국무원 각부, 위원회(國務院各部, 委員會)
Ministries and Commissions of the State Council
외교부(外交部)
Ministry of Foreign Affairs
부장 : 王毅
(Wang Yi)
국방부(國防部)
Ministry of National Defence
부장 : 常萬全
(Chang Wanquan)
국가발전개혁위원회
(國家發展和改革委員會)
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
주임 : 徐紹史
(Xu Shaoshi)
교육부(教育部)
Ministry of Education
부장 : 袁貴仁
(Yuan Guiren)
과학기술부(科學技術部)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부장 : 萬鋼
(Wan Gang)
공업정보화부
(工業和信息化部)
Ministry of Industry and Information Technology
부장 : 苗圩
(Miao Wei)
국가민족사무위원회
(國家民族事務委員會)
State Ethnic Affairs Commission
주임 : 王正偉
(Wang Zhengwei)
공안부(公安部)
Minisrty of Public Security
부장 : 郭聲琨
(Guo Shengkun)
국가안전부
(國家安全部)
Ministry of State Security
부장 : 耿惠昌
(Geng Huichang)
감찰부(監察部)
Ministry of Supervision
부장 : 黃樹賢
(Huang Shuxian)
민정부(民政部)
Ministry of Civil Affairs
부장 : 李立國
(Li Liguo)
사법부(司法部)
Ministry of Justice
부장 : 吳愛英(女)
(Wu Aiying)
재정부(財政部)
Ministry of Finance
부장 : 樓繼偉
(Lou Jiwei)
인력자원 사회보장부
(人力資源和社會保障部)
Ministry of Human Resources and Social Security
부장 : 尹蔚民
(Yin Weimin)
국토자원부
(國土資源部)
Ministry of Land and Resources
부장 : 姜大明
(Jiang Daming)
환경보호부
(環境保護部)
Ministry of Environmental Protection
부장 : 陳吉寧
(Chen Jining)
주택도시농촌건설부
(住房和城鄉建設部)
Ministy of Housing and Urban–rural Development
부장 : 陳政高
(Chen Zhenggao)
교통운수부
(交通運輸部)
Ministry of Transport
부장 : 楊傳堂
(Yang Chuantang)
수리부(水利部)
Ministry of Water Resources
부장 : 陳雷
(Chen Lei)
농업부(農業部)
Ministry of Agriculture
부장 : 韓長賦
(Han Changfu)
상무부(商務部)
Ministry of Commerce
부장 : 高虎城
(Gao Hucheng)
문화부(文化部)
Ministry of Culture
부장 : 雒樹剛
(Luo Shugang)
국가위생·가족계획위원회
(國家衛生和計劃生育委員會)
National Health and Family Planning Commission
주임 : 李斌(女)
(Li Bin)
중국인민은행
(中國人民銀行)
People's Bank of China
행장 : 周小川
(Zhou Xiaochuan)
회계감사서(審計署)
National Audit Office
감사장 : 劉家義
(Liu Jiayi)

국무원 각부, 위원회(國務院各部, 委員會)
Ministries and Commissions of the State Council

국무원직속특설기구
(國務院直屬特設機構)
Special Organization directly under the State Council

- 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
  – 서기 : 張毅(Zhang Yi)

국무원직속기구
(國務院直屬機構)
Organizations directly under the State Council

- 해관총서(海關總署)
  – 국장 : 于廣洲 (Yu Guangzhou)
- 국가세무총국 (國家稅務總局)
  – 국장 : 王軍(Wang Jun)
-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國家工商行政管理總局)
  – 국장 : 張茅(Zhang Mao)
-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 (國家質量監督檢驗檢疫總局)
  – 국장 : 支樹平 (Zhi Shuping)
-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國家新聞出版廣電總局)
  – 국장 : 蔡赴朝(Cai Fuchao)
- 국가체육총국(國家体育總局)
  – 국장 : 劉鵬(Liu Peng)
-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 (國家安全生産監督管理總局)
  – 국장 : 楊煥寧 (Yang Huanning)
-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國家食品藥品監督管理總局)
  – 국장 : 畢井泉 (Bi Jingquan)
- 국가통계국(國家統計局)
  – 국장 : 寧吉喆(Ning Jizhe)
- 국가임업국(國家林業局)
  – 국장 : 張建龍 (Zhang Jianlong)
- 국가지식산권국 (國家知識産權局)
  – 국장 : 申長雨 (Shen Zhangyu)
- 국가여유국(國家旅游局)
  – 국장 : 李金早(Li Jinzao)
- 국가종교사무국 (國家宗教事務局)
  – 국장 : 王作安 (Wang Zuoan)
- 국무원참사실(國務院參事室)
  – 주임 : 王仲偉 (Wang Zhongwei)
- 국무원기관 사무관리국 (國務院機關事務管理局)
  – 국장 : 李寶榮 (Li Baorong)
- 국가예방부패국 (中國國家豫防腐敗局)
  – 국장 : 黃樹賢 (Huang Shuxian)

국무원판사기구
(國務院辦事機構)
Administrative Offices under the State Council

- 국무원교무판공실 (國務院僑務辦公室)
  – 주임 : 裘援平 (Qiu Yuanping)
- 국무원항오사무판공실 (國務院港澳事務辦公室)
  – 주임 : 王光亞 (Wang Guanya)
- 국무원법제판공실 (國務院法制辦公室)
  – 주임 : 宋大涵 (Song Dahan)
- 국무원연구실 (國務院研究室)
  – 주임 : 寧吉喆 (Ning Jizhe)
- 국무원대만사무판공실 (國務院臺湾事務辦公室)
  – 주임 : 張志軍 (Zhang Zhijun)
- 국무원신문판공실 (國務院新聞辦公室)
  – 주임 : 蔣建國 (Jiang Jianguo)
- 국무원사교문제예방 및 처리판공실 (國務院防範和處理邪教問題辦公室)
  – 주임 : 傅政華 (Fu Zhenghua)

국무원직속사업단위
(國務院直屬事業單位)
Institutions directly under the State Council

- 신화통신사(新華通訊社)
  – 사장 : 蔡名照 (Cai Mingzhao)
- 중국과학원(中國科學院)
  – 원장 : 白春禮(Bai Chunli)
- 중국사회과학원 (中國社會科學院)
  – 원장 : 王偉光 (Wang Weiguang)
- 중국공정원(中國工程院)
  – 원장 : 周濟(Zhou Ji)
- 국무원발전연구중심 (國務院發展研究中心)
  – 주임 : 李偉(Li Wei)
- 국가행정학원(國家行政學院)
  – 원장 : 楊晶(Yang Jing)
- 중국지진국(中國地震局)
  – 국장 : 陳建民 (Chen Jianmin)
- 중국기상국(中國氣象局)
  – 국장 : 鄭國光 (Zheng Guoguang)
-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中國銀行業監督管理委員會)
  – 주석 : 尚福林 (Shang Fulin)
-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中國證券監督管理委員會)
  – 주석 : 劉士余(Liu Shiyu)
-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中國保險監督管理委員會)
  – 주석 : 項俊波 (Xiang Junbo)
- 전국사회보장기금이사회 (全國社會保障基金理事會)
  – 이사장 : 謝旭人 (Xie Xuren)
- 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 (國家自然科學基金委員會)
  – 주임 : 楊衛(Yang Wei)

국무원부위관리국가국
(國務院部委管理的國家局)
State Administrations and Bureaus under the Ministries and Commissions

- 국가신방국(國家信訪局)
  – 국장 : 舒曉琴(Shu Xiaoqin)(女)
- 국가양식국(國家糧食局)
  – 국장 : 任正曉(Ren Zhengxiao)
- 국가에너지국(國家能源局)
  – 국장 : 努爾·白克力 (Nuer Baikeli)
- 국가국방과기공업국 (國家國防科技工業局)
  – 국장 : 許達哲(Xu Dazhe)
- 국가연초전매국(國家烟草專賣局)
  – 국장 : 凌成興(Ling Chengxing)
- 국가외국전가국 (國家外國專家局)
  – 국장 : 張建國(Zhang Jianguo)
- 국가공무원국(國家公務員局)
  – 국장 : 信長星 (Xin Changxing)
- 국가해양국(國家海洋局)
  – 국장 : 王宏(Wang Hong)
- 국가측회지리신식국 (國家測繪地理信息局)
  – 국장 : 庫熱西·買合蘇提 (Kurexi Maihesuti)
- 국가철로국(國家鐵路局)
  – 국장 : 馮正霖(Feng Zhenglin)
- 중국민용항공국 (中國民用航空局)
  – 국장 : 李家祥(Li Jiaxiang)
- 국가우정국(國家郵政局)
  – 국장 : 馬軍勝(Ma Junsheng)
- 국가문물국(國家文物局)
  – 국장 : 劉玉珠(Liu Yuzhu)
- 국가중의약관리국 (國家中醫藥管理局)
  – 국장 : 王國强 (Wang Guoqiang)
- 국가외환관리국 (國家外滙管理局)
  – 국장 : 潘功勝 (Pan Gongsheng)
- 국가탄광안전감찰국 (國家煤鑛安全監察局)
  – 국장 : 黃玉治(Hwang Yuzhi)
- 국가보밀국(國家保密局)
  – 국장 : 田靜(Tian Jing)
- 국가암호관리국 (國家密碼管理局)
  – 국장 : 張彦珍(Zhang Yanzhen)
- 국가당안국(國家檔案局)
  – 국장 : 李明華(Li Minghua)

CHINA





Ⅱ
정치 약사

1. 중국 정권 수립 후 개혁·개방 이전
2. 개혁·개방 채택 후 장쩌민(江澤民) 체제 등장 이전
3. 장쩌민(江澤民) 체제 등장 이후
4. 후진타오(胡錦濤) 체제 등장 이후
5. 시진핑(習近平) 체제 등장 이후



1. 중국 정권 수립 후 개혁·개방 이전

가. 전국 경제 회복시기('49-'57년)

- 정권 수립 후 중국이 우선적으로 추진한 과제는 혁명과 내전으로 파괴된 경제의 부흥과 新민주주의 혁명의 완성
  - 지주재산 몰수 및 토지개혁 실시
  - 초급·고급 합작사를 조직, 농촌의 집단화 실시

나. "3面紅旗" 시기('58-'60년)

- 급진적인 사회주의 건설노선을 채택(毛澤東 노선)
  - 사회주의 총노선, 생산 대약진, 人民公社化 활동 등 "3면홍기" 정책을 전개하여 집단소유제, 자력갱생 등을 추진하였으나 자연재해와 대약진 운동의 실패 등으로 심각한 경제적 곤경에 직면

다. 조정기('61-'65년)

- 급진적인 사회주의 건설 노선을 수정, 劉少奇의 경제조정정책을 채택하여 人民公社 제도 수정 등을 실시, 중국경제가 서서히 회복
- 그러나 中·蘇 분쟁이 더욱 심화되어 소련이 중국에의 기술원조를 중지한 데 이어 기술자를 전면 철수시켰으며, 黨 내부적으로는 영구혁명론을 주장하는 毛澤東과 劉少奇, 鄧小平 등 실용주의파 간의 대립 시작

라. 문화혁명기('66-'76년)

- 毛澤東의 측근 문예 비평가 姚文元이 베이징 부시장 吳含을 비판한 논문 "新編歷史劇海瑞罷官批評"을 발표한 것을 계기로 시작된 문화혁명은 毛澤東, 林彪의 주류파가 劉少奇, 鄧小平, 彭眞 등 실권파를 숙청하는 3년간의 치열한 투쟁을 거쳐 毛澤東이 절대적인 지도체제를 확립하고 林彪를 후계자로 지명
- 그러나 군부의 지나친 정치관여와 林彪의 毛澤東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林彪 숙청('71.9월)
- 문혁파 4인방(王洪文, 江靑, 張春橋, 姚文元) 활동 증대
  - '76.9월 毛澤東 사망 후 黨과 軍의 원로와 華國鋒 등에 의해 4인방 숙청

2. 개혁·개방 채택 후 장쩌민(江澤民) 체제 등장 이전

가. 덩샤오핑(鄧小平) 지도체제 확립('78.12월)

- 毛澤東 사망 후 '76.10월 4인방을 추방하고 성립된 華國鋒 체제(華國鋒이 黨주석, 黨중앙군사위 주석, 국무원 총리 겸임)는 경제발전 10개년 계획('76-'85년)을 추진하였으나 목표가 지나치게 과대하고 현대화를 위한 경제토대가 취약한 관계로 제반 문제점 발생

- '78.12월 黨 제11차 3中全會에서 華國鋒을 중심으로 하는 文革 잔존세력과 鄧小平을 중심으로 하는 실천파가 대립, 鄧小平의 실용주의 노선이 승리
  - 농업생산책임제, 인민공사 개편 등 농촌개혁을 결정하였으며 鄧小平계인 胡耀邦 등이 정치국원으로 선출

- '81.6월 黨 제11차 6中全會에서는 '76.9월 毛澤東 사후 과도정권을 유지해 오던 華國鋒 체제가 붕괴되고, 文革 및 毛澤東에 대한 재평가 실시
  - 黨 주석('82년 黨 총서기로 변경)에 胡耀邦, 黨 중앙군사위 주석에 鄧小平을 각각 선출함으로써 '80.8월 국무원 총리로 선출된 趙紫陽을 포함, 鄧小平을 핵심으로 하는 新지도체제 확립
  - "건국 이래 약간의 역사 문제에 대한 결의" 채택을 통하여 毛澤東에 대하여는 "功 제1, 過誤 제2"로, 文革은 모택동의 잘못된 이론으로서 커다란 재해를 초래한 내란으로 평가
  - 華國鋒에 대하여는 그가 毛澤東이 내린 결정 및 지시는 모두 준수한다는 그릇된 방침을 취함으로써 文革의 그릇된 이론·정책 구호를 시정하는 것은 고사하고 역으로, 文革을 지지했다고 비난함과 아울러 그의 무리한 경제정책 비판

나. 제12차 당대회('82.9월) : 당헌개정

- 제12차 당대회는 근본적으로 문화대혁명 이전의 정상적인 黨 체제로 복귀하는 黨憲을 채택('56년 당헌과 유사)
  - 동 黨憲은 黨 우위의 원칙을 확인하면서도 黨의 지도체제는 어디까지나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내에 국한되어야 한다고 규정

- 또한 종래의 黨 주석제를 폐지하고 黨 중앙위 총서기제를 부활
  - '45년 이래 38년간 존속된 黨 주석제를 폐지한 것은 毛澤東의 개인우상화 등의 재발을 방지하고, 黨 총서기제下에서의 집단 지도체제를 굳히는 기초를 마련

- 한편, 중앙지도부의 기구로서 중앙고문위원회를 신설, 주임에 鄧小平을 선출

다. 헌법개정('82.12월)

- '82.12월 제5기 全人大 제5차 회의에서 新헌법을 채택함으로써, 鄧小平을 중심으로 하는 집단지도체제를 공고화 함.
- 상기 헌법개정은 '54.9월 헌법제정, '75.1월 1차 개정, '78.3월 2차 개정에 이은 3차 개정으로서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주요지도자 임기제 채택
  - 국가주석제 부활
  - 국가중앙군사위원회 신설
  - 전국인민대표대회 권한 강화
  - 특별행정구 설치 규정(홍콩과 마카오, 대만 적용을 예상)
- '75년에 폐지된 바 있는 국가주석제 부활은 권력의 다원화에 기여

라. 경제개혁 조치('84.10월)

- 黨 제12차 3中全會에서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대폭 개혁하는 조치 채택('85.1월부터 시행)
  - 종전의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부 자본주의 경영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새로운 사회주의 상품경제 추진도모
- 경제개혁 조치의 주요내용
  - 기업경영의 자율권 강화, 차등책임제 실시

마. 특별 당대회 개최('85.9월)

- '85.9월 黨 제12차 4, 5中全會 및 특별 당대회를 통해, 경제개혁 및 대외개방을 지지하는 혁명 제3세대(李鵬, 胡啓立, 田紀雲, 喬石 등)를 당 및 정부 요직에 대거 등용하고 당내 원로보수세력을 퇴진시킴으로써, 실용주의노선 지도체제 구축 및 鄧小平 사후에 대비한 후계체제 기반 조성

바. 제13차 당대회('87.10월)

- '87.10-11월 제13차 黨大會 및 13기 1中全會를 개최, 대폭적인 세대교체를 통해 개혁·개방 지도체제기반 구축

- 80代의 소위 혁명 제1세대 전원 및 70代의 보수파 원로 대부분이 정치일선에서 퇴진(鄧小平, 陳雲, 李先念, 彭眞 등은 정치국원 및 중앙위원직에서 은퇴)
- 趙紫陽이 黨 총서기 및 黨 중앙군사위 부주석으로 선출되어 鄧小平의 후계자로 부상
- 개혁, 개방정책을 지지하는 60代 이하 인사들의 대거 요직 등

- 중국은 현재 생산성이 낮고 상품경제가 발달하지 못한 "사회주의 초급단계"에 처해 있다고 규정, 생산력 증대를 통한 현대화 건설이 급선무임을 강조, 개방정책 추진을 위한 이론적 근거 제시

- 경제체제 개혁에 상응하는 정치체제 개혁의 점진적, 단계적 추진방침을 확정하고, 이를 위해 黨·政 기능분리, 중앙권한의 하부기관 이양, 정부기구 개편 등 방침 제시

사. 제7기 전인대 제1차 회의('88.3.25-4.15)

- 주요 인사개편
  - 국가주석에 楊尙昆, 부주석에 王震 선출
  - 전인대 상무위원장에 萬里 前부총리 선출
  - 총리에 李鵬 총리서리 정식 선출, 부총리를 5명에서 3명으로 축소
  - 국가 중앙군사위 주석에 鄧小平(유임), 군사위 부주석에 趙紫陽 黨총서기 선출

- 주요 정책 결정내용
  - 경제발전을 위한 법제정비
  - 향후 5개년간 연평균 경제성장 목표를 7.5%로 설정
  - 10개항 주요정책 목표수립
    · 농업 및 기초공업 발전
    · 沿岸地區 개발전략 가속화 및 대외개방 확대
    · 정부기구 및 기업의 개혁추진 등
  - 기존의 독립자주 외교정책 견지
  - 아세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관심

아. 제7기 전인대 제2차 회의('89.3.20-4.4)

- '89년 경제성장률 완화 및 긴축예산 편성
  - 경제성장률 : 7.5%('88년 11.2%)
  - '89-'90년간 경제환경개선 및 경제질서 시정을 핵심 정책목표로 설정, 6개항 구체 추진방안 제시, 과열경기 진정, 인플레 억제, 고정자산 투자규모 축소, 총수요 억제,

농업생산증대, 경제법규 및 제도완비 등

- 대외개발 지속
- 사회주의, 민주 및 법제도 강화로 안정, 단결, 민주, 화해의 정치국면 확립
- 對한반도 관계
  - 남북한의 자주, 평화통일을 위한 북한의 합리적 제의 지지
  - 남북한간 대화와 접촉이 긍정적 결과를 얻기를 희망
  - "남조선"과는 공식관계가 없으며, 민간차원의 경제무역 교류만이 있을 뿐임.
    ※ 국가기관의 공식회의에서 한·중 교류사실 존재를 인정한 것은 최초

자. 천안문 사태('89.6.4)

1) 경위

- '89.4.15 胡耀邦 前 黨 총서기의 사망을 계기로 학생들의 민주화 시위 촉발
  - 중국정부는 학생시위를 "동란"으로 규정하면서도 대화에 의한 해결 모색
  - 학생운동의 시민운동으로의 확산 조짐(5.17 백만군중 천안문 광장 시위)
  - 학생들의 구호가 鄧小平 및 李鵬 총리의 퇴진으로 발전
  - 고르바쵸프 소련 공산당 총서기장의 訪中 일정변경 등 대외적 체면 손상
- 5.20 北京 일원에 계엄령 선포
  - 계엄령 선포에 대한 黨·政·軍 지도층내 의견대립
    ※ 중국 정부 수립 후 北京에 선포된 최초의 계엄령
- 6.4 무력진압, 수천 명의 사상자 발생
  ※ 중국 정부 발표 사상자 수(6.30 陳希同 베이징시장, 全人大 상무위 보고)
  - 민간인 사망 2백여명(학생 36명 포함), 부상 3천 명
  - 군, 경찰 사망 수십 명, 부상 6천 명
- 6.9 鄧小平 무력진압 공개 지지
  - 鄧小平의 계엄령 지도부 접견시 楊尙昆, 李鵬 등 보수파 인사만 대동
  - 趙紫陽 黨 총서기, 胡啓立 黨정치국 상무위원 불참
- 6.23-24 黨 제13차 4中全會 개최, 학생시위를 "反혁명 폭란"으로 규정, 趙紫陽 黨 총서기와 측근인사를 해임하고 신임 黨 총서기에 江澤民을 선출

2) 배경

- 동유럽국가에서 태동된 공산권내의 자유화·민주화 물결이 중국내 학생, 지식인층에 침투, 확산
  - 사회주의 체제의 비능률성, 폐쇄성에 대한 회의 및 비판의식 점증
  - 정치개혁 부진에 대한 불만 누적

- 개혁·개방정책 추진에 따른 부작용
  - 물가급등 등으로 서민대중의 생활난 가중
  - 권력층의 부정부패 만연

- 개혁파의 상징인 胡耀邦 사망으로 누적된 불만 분출

- 고르바쵸프 訪中
  - 정치적 개혁을 통해 경제적 발전을 기하려는 페레스트로이카에 대한 동경이 시위 가열화 유발
    ※ 경제적 개혁·개방에 국한코자 하는 것은 보수파 지도층의 확고한 정책

- 鄧小平 후계체제를 둘러싼 지도층 내부간 갈등 표출

- 同 사태는 중국사회의 구조적 문제점과 개방·개혁 추진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타난 모순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3. 장쩌민(江澤民) 체제 등장 이후

가. 제13기 4中全會('89.6.23-24)

1) 지도층 개편

- 趙紫陽을 黨 총서기 등 모든 당직에서 해임하고, 江澤民 상하이시 黨서기를 후임으로 선출
- 宋平(黨 조직부장) 및 李瑞環(톈진(天津) 시장)을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새로이 선출
  - 이에 따라 黨 최고 정책결정기구인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수는 5명에서 6명으로 증가
- 趙紫陽 추종세력 해임
  - 胡啓立 정치국 상무위원을 黨 중앙위원직을 제외한 모든 당직에서 해임
  - 趙紫陽 측근 2명을 중앙서기처 서기직에서 해임

2) 대내외 정책노선 재확인

- 4대 기본원칙이 立國의 기본임을 확인
  ※4개 기본원칙 : 공산당 영도, 사회주의 노선, 프롤레타리아 독재 및 막스·레닌주의, 毛澤東 사상
- 개혁·개방정책의 지속적 추진 및 과거의 폐쇄노선으로 복귀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
- 4개항의 당면과제 설명
  - '反혁명 폭란'의 평정을 통한 정국 안정 도모
  - 경제적 안정 추진
  - 사회주의 고취, 부르주아 자유화 반대 등 이념교육 강화
  - 부패척결 등 국민의 관심사항 추진
- 독립자주 외교정책 견지
- '反혁명 폭란' 평가에 대한 세계 각국의 이해 촉구 및 우호관계의 지속적 발전을 희망
  - 서방제국의 對중국 제재, 비난조치에 대해 대응 자제

나. 제13기 5中全會('89.11.6-9)

1) 鄧小平의 黨 중앙군사위 주석직 사퇴 및 黨 중앙 군사위 인사개편 단행

- 江澤民 총서기를 주석으로, 군 원로인 楊尙昆을 제1부주석으로 선출하여 鄧小平 후계체제 가시화

2) 整理整頓의 계속추진 및 개혁의 심화에 관한 결정

- 정리정돈의 6가지 주요목표 설정
  - 물가상승률 10% 이하로 억제, 산업구조 개선
  - 재정수지 균형 노력강화와 적정 경제성장률 유지
  - 개혁·개방 조치의 심화 및 개선

다. 제14차 당대회('92.10.12-18)

1) 의의

- 경제개혁의 최종목표로서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확립을 강조한 江澤民 총서기의 정치보고 승인
- 黨 고문위 폐지 및 鄧小平이 주창한 「중국식 사회주의 건설」 이론을 삽입한 黨 규약 개정안 심의, 채택

2) 장쩌민(江澤民) 총서기 정치보고

-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채택
  - '78년부터 추진되어온 개혁·개방정책을 통한 경제발전은 중국적 특색의 사회주의 건설에 크게 기여
  - 경제발전 촉진을 위해서는 사회주의, 자본주의에 대한 추상적 이념논쟁을 버리고 사상해방, 개혁·개방을 가속화함이 필요
- 중국 대외정책 천명
  - 중국의 개혁·개방과 현대화 건설에 유리한 국제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
  - 어느 국가나 국가집단과도 동맹관계 不체결

- 중국의 사회제도와 사상을 타국에 강요하지 않을 것이며 타국이 이를 중국에 강요하는 것도 不허용

○ 黨 조직 개선 및 강화
- 중국 공산당은 중국적 특색의 사회주의 이론으로 무장함이 필요
- 사회주의 위업을 유지해 나갈 후계자를 양성해야 하며 黨 지도부의 부패척결 필요
- 黨 중앙고문위원회 폐지

3) 제14기 1中全會('92.10.19)

○ 江澤民 총서기, 李鵬 총리 체제 계속 유지
- 江澤民 총서기의 국가주석직 겸임 내정

○ 권력핵심부인 정치국원 및 상무위원 경질
- 정치국원을 15명에서 20명 정도로 증원, 상무위원을 6명에서 7명으로 증원
  · 宋平, 姚依林이 퇴진하는 대신 개혁파의 신진세력인 朱鎔基, 劉華淸, 胡錦濤가 상무위원으로 선출
  · 鄒家華 부총리, 錢其琛 외교부장, 遲浩田 총참모부장 등이 정치국원 으로 선출

○ 黨 중앙위원수를 283명에서 319명으로 증원
- 楊尙昆, 萬里, 姚依林 등 원로인사가 퇴진하고 신진세력 대거 선출

○ 軍 수뇌부 인사
-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은 江澤民이 계속 유지
- 楊尙昆, 楊白氷이 퇴진하고, 軍 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劉華淸 부주석이 제1부주석으로 승진

라. 제8기 전인대 제1차 회의('93.3월)

1) 의의

○ 江澤民 총서기의 국가주석직 겸임으로 鄧小平 후계체제 구축
- 江澤民은 毛澤東 이후 처음으로 黨·政·軍을 모두 장악(楊尙昆 주석은 퇴임)
- 李鵬 총리는 유임

○ 60代의 젊은층을 중심으로 개혁·개방정책 강력 추진
- 錢其琛 외교부장, 李嵐淸 대외경제무역부장의 부총리 승진
  ※ 경제개발을 국가의 최대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내외적 여건 조성 노력 경주

- 중국 헌법개정을 통해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확립
  - 계급투쟁 개념 삭제
  - 헌법에 최초로 '시장경제' 명기('국가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실시함')
  - 국가는 소유만 하고 경영은 민간에 맡기는 '국유경제' 개념 삽입
    ※ 단, 정치개혁에 대해서는 당분간 신중한 태도 견지

2) 리펑(李鵬) 총리 정부업무보고

-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건설을 위한 개혁의 가속화
  - 중국 경제체제 개혁의 목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건설(제8차 5개년 계획('91-'95년)의 경제성장률을 연 6%에서 8-9%로 상향 조정, 향후 5년 이내에 '80년 GNP의 4배 달성 목표

3) 한반도 관련 부분

- 한·중 수교는 양국관계의 전반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기초
- 중·북한간의 전통우호관계는 공고화 지속, 강화
- 정부인사 개편
  - 국가주석 : 江澤民 黨총서기(겸임)
  - 국무원 총리 : 李鵬 총리(유임)
  - 국무원 부총리 : 朱鎔基(유임), 鄒家華(유임), 錢其琛(외교부장 겸임), 李嵐淸 前대외경제무역부장
  - 全人大 상무위 위원장 : 喬石 黨 정치국 상무위원
  - 국가중앙군사위 주석 : 江澤民 黨 중앙군사위 주석(유임) 등

마. 제14기 5中全會('95.9월)

- '黨 중앙의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9.5 계획 및 '10년의 장기 목표에 관한 건의' 통과
  - 경제체제를 전통적인 계획경제 체제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하고 경제발전 방식을 개별형식에서 집약형으로 전환해야 함을 강조
-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陳希同 동지의 문제에 관한 심사보고'를 통과
  - 陳希同 前 베이징시 黨 서기를 중앙정치국 위원 및 중앙위원회 위원의 직위를 박탈하고 法 절차에 따라 전인대 대표의 직위를 박탈
- 사회주의 정신문명건설을 강조

- 청렴한 黨風 건설 및 反부패투쟁 강화 필요성 강조

바. 제8기 전인대 제5차 회의('97.3.1-14)

- 鄧小平 사망('97.2.19) 후 처음 개최된 全人大
- 주요 결과
  - 鄧小平의 중국특색 사회주의 지속 추진 및 당의 기본노선과 기본방침 견지 천명
  - 江澤民을 핵심으로 하는 黨의 단결을 강조
  - 개혁·개방정책 지속 추진 및 가속화 천명
  - 지역 간·계층 간 균형발전 및 안정속의 발전 방침 천명
  - 부정부패 추방운동 지속 추진
  - 홍콩 반환 후 "1국 2체제" 및 "港人治港"을 재확인

사. 제15차 당대회('97.9.12-18) 및 제15기 1中全會('97.9.19)

1) 장쩌민(江澤民) 총서기의 정치보고

- 21세기의 新목표 제시
  - 2010년까지 GNP를 2000년의 2배로 증대,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대략 완성
  - 2020년까지 국민경제를 더욱 발전시키고 각종 제도를 완비
  - 2050년까지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시키고, 부강하고 민주적인 문명사회주의 국가를 건설
- 鄧小平 이론을 黨의 지도사상으로 확립
- 중국의 정확한 현실이 '사회주의 초급단계'임을 특히 강조하고, 모든 역량을 사회 생산력 발전에 집중시킬 필요성을 강조
- 공유제를 主로 하되 다양한 형식의 소유제를 병용하여 생산력 발전을 촉진
  - 국유경제는 주요 업종 및 관건적 분야에서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되 기타 영역에서는 국유경제 축소도 가능
  - 공유제 실현방식도 주식제 도입 등으로 다양화 필요
- 국유기업에 대한 전략적 개편 필요성 강조(개편, 연합, 합병, 임대, 하청경영, 주식합작제, 매각 등 실시)

- 노동분배를 주로 하되 여러 형태의 분배방식 병행 가능

- 정치체제 개혁의 중요임무로 민주발전, 법제강화, 정경분리실시, 기구간소화, 민주적 감독제도 완비, 안정단결의 수호를 강조
  - 2010년까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법률체계 수립 목표
  - 간소화, 통일, 효율의 원칙하에 국가기구 개혁 필요

- 1980년대 1백만 명 감군의 기초위에 향후 3년 내 50만 명 감군 및 정예 과학군대 육성
  ※ '99년에 50만 명 감군 완료(총 병력 250만 명)

2) 당 중앙위원회 및 기율검사위원회 위원 선출

- 특징
  - 기존 정치국원 중 喬石, 劉華淸, 楊白氷, 鄒家華, 王漢斌이 탈락하고, 중앙서기처 서기 중 任建新이 고령으로 퇴진
  - 전반적으로 신진세력이 대거 진출, 세대교체를 촉진

3) 제15기 1中全會

- 정치국 위원 22명 선출
  - 14기 19명 중 15명 유임
  - 江澤民 측근으로 알려진 賈慶林, 遲浩田, 張萬年, 曾慶紅 등 포함 7명 신규 진출

-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의 경우, 朱鎔基가 서열 3위로 부상하고, 喬石·劉華淸 대신에 尉健行 당 중앙기율검사위 서기와 李嵐淸 부총리가 새로이 진출
  - 강력한 경제개혁 추진을 예고하며, 黨 중앙기율검사위의 위상 제고

- 집단지도체제(江澤民, 李鵬, 喬石 3인간 견제와 균형)가 江澤民 중심의 단일지도체제, 권력집중형으로 변화

- 黨 중앙군사위에서 기존의 劉華淸, 張震 부주석이 퇴진
  - 江澤民의 군 장악력 강화

아. 제9기 전인대 제1차 회의('98.3.5-15)

- 제15차 당대회('97.9월)에서 제시한 21세기 국가정책 목표의 지속적 추진

- 江澤民 중심의 李鵬, 朱鎔基 지도체제 확립
  - 혁명 제4세대 중심의 후계체제 구도 가시화

- 지도층의 年少化, 전문화, 세대교체 실현

○ 국가 지도층 인사 선출
- 국가(중앙군사위) 주석 : 江澤民(연임), 국가부주석 : 胡錦濤(신임)
- 全人大 상무위원장 : 李鵬(신임), 국무원 총리 : 朱鎔基(신임), 외교부장 : 唐家璇(신임), 국방부장 : 遲浩田(연임)

○ 정부기구 축소개편
-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요구에 따라 정부기능을 변화시켜 "정부"와 "기업"의 분리를 실현하고, 간소화·통일·효율의 원칙에 따라 정부조직구조를 조정하여 인원 정리를 통한 기구축소를 실행하기 위해, 국무원 조직을 부총리 4명(기존 6), 국무위원 5명(기존 7), 29개 부처(기존 40)로 축소 개편

자. 제15기 3中全會('98.10.12-14)

○ '농업과 농촌문제에 대한 결정' 토의·통과와 농촌개혁 20년간 달성한 성취에 대한 평가 및 '10년까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의 목표제시

○ '공유제'를 위주로 한 각종 소유제 경제제도의 강조

○ 개혁·개방 20주년 성과평가 및 향후 국정 추진 방향 제시
- 주요 성과 평가
  · 문화대혁명 후 국민경제 붕괴 직전상황에서 놀랄만한 경제성과 달성
    * 과거 20년간 연평균 9.8% 경제성장률 달성, 경제총규모 세계 10위, 외환보유고 세계 2위, 외국투자유치규모 세계 2위 등
  ·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기본틀 형성
  · 당과 국가의 중점업무를 경제건설로 전환
- 향후 국정 추진방향
  · 마르크스 사상노선 견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건설, 공산당 영도 원칙 견지 및 강화
  · 개혁·개방의 확대 추진
  · 개혁·개방 및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위한 장기적·안정적 국제환경 유지

차. 제9기 전인대 제2차 회의('99.3월)

- "鄧小平 이론"을 헌법 전문에 명기
- "사영경제 등 비공유 경제"를 사회주의 시장개혁의 중요구성 부분으로 인정
  - 전체 GDP 중 사영경제 비중 23.7%('98년 기준)
- "다양한 소유제와 분배 방식"을 인정하고 "사회주의 법치국가" 용어를 헌법에 최초로 도입

카. 제15기 4中全會('99.9월)

- 국유기업 개혁을 '10년까지 장기목표로 설정·추진
- 급진적 개혁보다는 안정위주의 점진적 개혁 정책 채택
- 胡錦濤 국가부주석을 당 중앙군사위 부주석으로 임명

타. 제9기 전인대 제3차 회의('00.3월)

- 개혁의 지속 추진 및 공직사회 부패에 대한 강경대응 방침을 천명함으로써, 지도체제의 안정 도모
- 실업자 문제 등 기존과제의 해결과 함께, 상대적으로 낙후한 서부지역의 집중 개발 필요성 강조

※ 홍콩('97.7.1) 및 마카오('99.12.20) 반환

- 1국 2체제 유지 및 특별행정구 설치
  - · 외교·국방을 제외한 분야에서 고도자치
  - · 현행 자본주의 체제와 생활양식 50년간 불변

4. 후진타오(胡錦濤) 체제 등장 이후

가. 제16차 당대회('02.11.8-14) 및 제16기 1中全會('02.11.15)

- 당 중앙 지도부 개편 및 제4세대 지도부 출범
  - 胡錦濤 총서기 선출
  - 정치국 상무위원을 7명에서 9명으로 증원, 胡錦濤를 제외한 전원 교체, 제4세대로의 권력이양 작업 완료(단, 중앙군사위 주석은 江澤民 유임)

- 3개대표론을 黨章(당 헌법)에 명기하는 黨章 수정 결의안 통과, 鄧小平 이론과 함께 당의 지도사상으로 확립

  ※ 3개대표론(三個代表論)

  – 2000.2월 江澤民 주석이 제창. 공산당이 ① 선진사회 생산력의 발전 요구를 대표하고 ② 선진문화 창달을 대표하고 ③ 최대인민의 근본이익을 대표해야 한다는 이론

- 江澤民 총서기의 정치보고 비준
  - 지난 5년 간 鄧小平 이론에 따라 개혁·발전·안정, 내정·외교·국방, 당 및 군사 분야 등에서 큰 성과 이룩(당 15차 기간 평가)
  - '89년 이래 13년간 국내외의 어려움 속에서도 종합국력 제고, 국제영향력의 현저한 확대 등 역사적인 성과 거양(제3세대의 국정운영 성과 평가)
  - 중국식 사회주의 건설사업의 새로운 국면을 창조해 나가기 위해 鄧小平 이론을 높이 받들고, 3개대표론 중요사상의 관철을 견지해 나가야 함.
  - 소강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목표 제시(2020년까지 GDP를 2000년의 4배 수준으로 제고, 사회주의 민주·법제 완비 및 법치국가 완성 등)

나. 제10기 전인대 제1차 회의('03.3.5-18)

- 국무원 기구 개편 방안 통과
  - 상무부, 중국발전개혁위원회, 국유자산 감독관리위원회, 중국은행업 감독관리위원회, 국가식품약품 감독관리국 신설

- 국가지도자 및 전인대 지도부 선출, 향후 5년간의 지도체제 확정
  - 국가주석 胡錦濤, 국가부주석 曾慶紅, 국가중앙군사위 주석 江澤民(유임)
  - 전인대 상무위원장 吳邦國,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15명(10명 신임) 등

- 溫家寶 국무원 총리 선출 및 국무원 총리의 제청에 따라 국무원 부총리 4명, 국무위원 5명, 비서장 1명, 외교부 등 28개 부서 장관 인선안 확정
  - 唐家璇 국무위원 및 李肇星 외교부장 신규 임명

- 60代 전후의 제4세대로 권력 전면 이양
  - 대부분 테크노크라트 출신으로 실사구시 중시, 개혁지향적 성향

다. 제10기 전인대 제2차 회의('04.3.5-14)

- 개혁개방정책의 내실화 도모
  - '양적' 위주의 발전전략에서 '질적'인 측면을 중시하는 전략으로 궤도 수정
  - 그동안 추진해 온 개혁개방정책의 기본적인 기조는 계속 유지해 나가되, 과거보다 동 정책의 내실화를 도모하겠다는 중국 지도부의 의지를 표출

- 새로운 발전전략으로 '과학적 발전관' 제시
  - 인본주의 견지, 조화로운 발전, 지속가능한 발전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과학적 발전관'을 국가의 발전전략으로 새로이 제시

- 국가지도이념 체계의 보완, 발전
  - '3개대표' 중요사상을 "마르크스 레닌주의, 모택동 사상, 등소평 이론"과 함께 국가의 중요지도사상으로 공산당 당장('02.11월)에 이어 헌법에도 명문화
  - 이로써, 장쩌민 전 국가주석에 의해 '00.2월 제시된 '3개대표' 중요사상은 확고한 국가지도이념으로 자리매김

- 인권분야 신장
  - 합법적 사유재산의 불가침권, 국가의 인권존중 및 보장, 사회 보장제도, 국가에 의한 개인토지 수용시 보상제도 등 개인의 인권과 관련된 내용들을 명문화

- 新지도부의 리더십 강화(개혁 이미지 제고, 지지기반 강화 등)
  - 三農 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표명 및 정책제시(5년 내 농업세 폐지 계획 등)를 통해 국민의 대 정부 지지기반을 강화

- 법치강화 및 공평정의를 통한 사회안정 도모
  - '법치강화(法治强化), 집정위민(執政爲民)'을 강조하였는 바, 이는 그동안 중국 사회의 문제점으로 상존하고 있는 부정부패, 치안불안 등의 지속적 해결노력을 통해 사회안정과 통합을 도모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천명

라. 제10기 전인대 제3차 회의('05.3.5-14)

- 胡錦濤 주석의 정치적 위상 강화
  - 江澤民이 국가 중앙군사위 주석직을 사임하고 胡錦濤가 동 직위에 선출되어 '04.9월 당 제16차 4중전회에서 당 중앙군사위 주석직을 江澤民으로부터 승계,

당·정·군의 실질적 권한을 갖고는 있었으나, 국가 중앙군사위 주석직에도 선출됨으로써 실질적·형식적 권한을 모두 갖게 됨.

- 조화로운 사회 건설
  - 금번 전인대의 최대 화두는 '조화로운 사회 건설'이었는 바, 정부업무보고 및 전인대 상무위 업무보고 등 각종 보고에서는 이를 핵심적인 내용으로 다루었고, 주요 관영 매체들은 회의기간 내내 '조화로운 사회 건설'의 중요성 및 의의에 대해 중점적으로 보도
  - 지도부가 '조화로운 사회 건설'을 새로운 정치·경제·사회적 국정목표로 제시한 배경은 개혁·개방 이후 경제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지역 간·계층 간 빈부격차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모순들이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당과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누적되어, 당과 정부의 존립 자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에 기반

- 《반국가분열법》 제정
  - 동법 제정 과정에서 대만의 반대, 미국 및 일본 등 외국의 우려 표명 등에도 불구하고, 미국 등과의 커다란 외교적 마찰 없이 당초 의도한 대로 법 제정을 관철시키는데 성공
  - 동법의 제정으로 대만문제 처리가 법적으로 제도화된 바, 지도자의 개인적 성향에 따라 바뀌지 않고 일관성 있게 유지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

- 부패척결 문제
  - 중국 공산당은 전국적인 범위에 걸친 '공산당원 선진성 교육' 실시를 통해 당·정 인사의 부패문제를 해결하고, 공직사회의 청렴기풍을 수립함으로써 당의 집정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 강화

마. 제10기 전인대 제4차 회의('06.3.5-14)

- 장기적인 체제안정 기반 강화
  - 중국은 정치체제를 유지한 채 경제체제의 개혁을 통한 급속한 경제 발전을 추진해 온 바, 이로서 향후 야기될 수 있는 사회·정치체제의 불안정을 염두에 두고 사전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대폭 채택
    - 농촌 발전 중점 추진 등 지역 간, 계층 간 소득불균형 축소, 국민 다수의 중대 이익 관련 문제 우선 해결 등
      ※ '05년 약 8만 7천 건의 집단 소요 발생
  - 내부적 불안, 소요사태 대응 능력도 강화(인민무장경찰 부대 건설 등)

- 경제발전 중점추진전략 견지
  - 장기 국정 최대 과제인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이에 지속 집중 투입
  - 이를 위해 안정·조화·지속가능의 고도성장 정책 지속 추진 및 산업 구조고도화 등

"양"에서 "질"로의 발전전략 전환 촉진

- 기존의 대외정책 견지
  - "도광양회(韜光養晦)"의 외교전략 견지, 영향력 행사와 국제문제 적극 개입 등 자제
    · 기존의 對한반도 정책 견지(북핵문제, 남북관계 등에서 기존 정책 견지)

바. 제10기 전인대 제5차 회의('07.3.5-16)

- 장기적인 체제안정 기반 강화를 위한 여건 조성
  - '조화로운 사회 건설'의 이념을 구체화한 '11·5 규획'의 연장선상에서 '민생 문제'의 해결을 최고 중요한 과제로 강조한 것이 큰 특징
  - '07년 제17차 공산당 전당대회에 대비, 지도부의 제2기 집권기반 조성을 위해 사회 및 국가 전반의 안정을 모색
    ※ '제11기 전인대 대표정원 및 선거문제에 관한 결정'에서 전인대 대표선거 사상 최초로 일정수의 '농민공(농민출신 도시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고, 여성 대표를 22% 이상 선출하도록 규정

-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사회문제 치유 및 지속적인 성장기반 마련
  - 3농문제(농촌, 농민, 농업), 사회보장, 실업문제 등 '민생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반복적으로 강조
  - 균형발전을 위한 조화로운 사회건설 정책을 촉진하면서, 동시에 경제성장의 모멘텀 유지와 고용확대 등 사회안정 확보를 위한 적절한 수준의 성장률 유지정책 견지

- 기존 대외정책 기조 유지
  - "조화로운 세계" 건설을 표명하면서 평화공존 5개원칙에 기초한 독립자주적인 평화 외교 노선을 견지한다는 원칙적 입장 강조

- 주요 경제관련 법안(물권법 및 기업소득세법) 통과 관련
  - 물권법과 내외자 통합기업소득세법의 통과. 물권법의 제정으로 중국은 재산권의 기초인 물권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률을 갖게 되었으며, 내외자 통합기업소득세법의 제정으로 기존의 외자우대정책으로부터 내외자 평등정책으로 전환하였는바,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 제도의 발전에 있어 중요한 전기 마련
    ※ 물권법
    - '93년부터 기초작업이 시작되어 '02.12월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최초 심의된 이후, 국내적으로 중국 사회주의 체제의 정체성에 관한 논란을 일으키며 10기 전인대 5차 회의 시까지 8차례에 걸친 심의과정을 통해 통과. 물권법은 '04.3월 '사유재산불가침'을 규정한 헌법 수정에 따라 국유 재산과 사유재산을 평등하게 보호하고 있으며, 주택 용지의 사용기간(70년) 만료 후 사용권의 자동연장과 농민들의 경작지 사용기간 만료 후 사용권 승계가능 근거를 규정
  - 기업 소득세법 통합은 내외자기업소득에 차별과세로 인한 중국 기업의 문제제기와

중국의 외환보유고 누적에 따라, 중국 정부가 '79년 개혁개방 이래 장기간 유지해 온 외자우대정책을 폐기한 것을 의미

사. 제17차 당대회('07.10.15-21) 및 제17기 1中全會('07.10.22)

- 제5세대 지도부의 등장
  - 習近平 상하이시 당서기와 李克强 랴오닝성 당서기의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진입으로 중국은 2012년 제5세대 지도부의 등장을 예고

- 공산당 장정(黨章) 수정안 채택
  - 胡錦濤 주석이 주창해 온 "과학적 발전관" 및 "조화로운 사회(和諧社會) 건설" 중 "과학적 발전관"만 반영

-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계속적인 발전 지향
  -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에 기초하여 당이 공산당을 중심으로 하여 부강하고 민주적이며 문명적인 조화로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건설할 것을 강조

- 성장 위주의 전략과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의 조화 지향
  - 개혁개방과 발전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공평한 분배를 강조하면서, 계속적인 성장을 추구하되 도시와 농촌 간, 지역 간, 사람과 자연 간 균형적인 발전을 강조

아. 제11기 전인대 제1차 회의('08.3.5-18)

- 胡錦濤 주석 집권 제2기 정부 출범
  - 胡錦濤 국가주석, 吳邦國 전인대 상무위원장, 溫家寶 국무원 총리가 유임되고, 부총리 국무위원, 각 부서 부장들이 선출됨으로써 胡錦濤 주석 제2기 정부 공식 출범

- 제5세대 지도부의 전면 등장
  - 차기 제5세대 지도자로 주목받아온 習近平, 李克强이 국가 부주석과 국무원 상무부총리(수석부총리, 업무총괄)로 각각 선출
    - 다만, 習近平 부주석이 동 전인대에서 중앙군사위 부주석에 선출되지 못한바, 이는 제17차 공산당 대회에서 習近平 부주석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에 선출되지 못하면서 어느 정도 예견
    - 시진핑 부주석은 '10.10월 제17기 5중전회에서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으로 선출됨에 따라 사실상 차기 지도자로 확정

- 소폭에 그친 국무원 기구개혁
  - 당초 大部制를 기본으로 하는 대폭적인 정부기구 개혁이 구상되어 왔으나, 6개 부서 폐지, 통합과 5개 부서 신설로 소폭의 조직 개편

자. 제11기 전인대 제2차 회의('09.3.5-13)

- 거시조정을 강화, 개선하여 경제의 안정적이고 빠른 발전을 유지
  - 적극적인 재정정책 실시
  - 적절하고 완만한 통화정책 실시
- 내수 및 소비수요의 적극 확대
  - 주민소비의 확대
  - 투자확대
- 농업의 기초적 지위 공고화, 안정적 발전 및 농민 수입의 지속적 증가
- 경제발전 방식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경제구조의 전략적 조정을 적극 추진
  - 산업 구조조정의 중점적 진행
  - 과학기술 혁신의 적극 추진
  - 에너지절약과 오염물질 방출 축소 및 생태환경보호 추진
  - 제품의 품질과 안전수준 제고
  - 지역 발전전략의 지속적 추진

차. 제11기 전인대 제3차 회의('10.3.4-14)

- 경제체제 개혁과 현대화의 기본조건으로서 정치체제 개혁 필요성 적시
  - 기층 민주주의 확대, 언론의 정부 감독기능 강화 정책 의지 표명
- 전인대 선거법 개정
  - 도시와 농촌의 전인대 의원 선출 인구비율을 기존의 4:1에서 1:1 동일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도농간 정치참여 균형 추진
- 경기부양정책 기조 유지 및 인플레이션 억제와 실업률 감소 중점
- 부실기업 인수합병을 통한 구조조정, 첨단 분야 중심의 중점 신흥산업 육성, 서비스 산업 발전 촉진 등 양적 성장보다 질적 산업구조 고도화에 역점
- 중국의 부상에 우호적인 국제사회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둔 대외정책 기조 표명

- 안정적인 대외관계 관리 및 국제사회 평화와 발전에 대한 기여의지 표명
- G20 정상회의 및 ASEAN, 상하이 협력기구, 한·중·일 등 지역협력 적극 추진 의사 표명

카. 제11기 전인대 제4차 회의('11.3.5-14)

- 12·5 규획 강령 심사 및 비준
  - 향후 5년간 경제사회발전의 주요 목표(GDP 연평균 7% 성장 등), 전략적 중점 분야, 중대 조치 등의 임무를 제시
  - 발전 목표에 있어 과학기술과 교육, 자원과 환경, 국민생활 등을 지표로 부각
-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법률체계 형성 및 완비
  - 제15차 당대회 이래, 사회주의 민주제도와 법제도를 착실히 시행하여(有法可依, 有法必依, 執法必嚴, 違法必究)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법률체계 사업을 추진
  - 총 239건 법률, 총 690여 건 행정법규, 총 8,600여 건 지방성법규를 제정
- 2011년에는 적극적 재정정책과 안정적 통화정책을 통해, 물가 안정, 내수 확대, 경제구조조정, 과학/교육강국, 민생개선, 문화진흥, 부패 척결 등 중점 추진
- 평화·발전·협력의 기치와 독립자주의 평화외교정책을 견지하고, 평화발전 정책을 통해 조화로운 세계 건설을 추진

타. 제17기 6중전회('11.10.15-18)

- '사회주의 문화강국 건설'을 대전략으로 '문화체제 개혁 심화'와 '사회주의문화의 대발전과 대번영의 추진'을 논의
  - "문화체제 개혁의 심화와 사회주의 문화 대발전 및 대번영의 추진에 관한 결정"에 대한 심의 및 통과
- 제16대 당대회 이래 문화건설을 당과 국가업무의 중요한 전략적 위치에 놓고, 법치주의(依法治國)과 덕치주의(以德治國)를 결합하여 실행하며, 문화산업과 문화사업을 함께 발전시키는 가운데, 문화개혁과 발전을 통해 국가의 문화소프트파워를 증진함으로써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발전
- 중국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와 상황을 전면적으로 분석하여 위기의식(憂患意識)과 위험의식(風險意識)을 강화하는 가운데, 개혁발전의 안정적 국면을 주도하고, 안정적 성장의 경제발전을 유지하며, 민생업무에 대한 역량을 개선

파. 제11기 전인대 제5차 회의('12.3.5-14)

- '12년 추진될 기본 정책기조로 '안정속의 발전(穩中求進)' 제시
  - '12년 경제발전 주요 목표로 GDP 7.5% 성장 제시('05년부터 매년 제시해오던 바오빠(保八) 정책 폐기)
    ※ 바오빠(保八) : 연평균 GDP 성장률을 8% 이상 유지

- 기존의 독립자주 평화외교 견지 및 국가주권·안보·발전 이익 수호, 군사혁신을 위한 국방비 확충(전년 대비 11.2% 증액)

- 제12기 전인대 대표 선거시 도농 동일인구비례 원칙 도입을 통해, 노동자, 농민, 농민공, 소수민족 등 사회적 약자의 대표성 강화

하. 제17기 7중전회('12.11.1-4)

- 제18차 당대회 관련 주요 결정 사항 논의 및 결정
  - 제18차 당대회 일정('12.11.8-14, 베이징) 및 정치보고 통과

- 薄熙來 전 충칭시 당서기에 대한 기율검사위 보고서 통과 및 공산당 당적 박탈

5. 시진핑(習近平) 체제 등장 이후

가. 제18차 당대회('12.11.8-14) 및 18기 1중전회('12.11.15)

- 당 중앙 지도부 개편 및 제5세대 지도부 출범
  - 習近平 총서기 및 중앙군사위 주석 선출
  - 정치국 상무위원을 9명에서 7명으로 감원, 習近平, 李克强을 제외한 전원 교체
- 胡錦濤가 주창한 과학적 발전관을 마르크스-레닌주의, 毛澤東 사상, 鄧小平 이론, 및 3개대표 사상과 함께 黨章(당 헌법)에 명기하는 黨章 수정 결의안 통과
- 胡錦濤 총서기의 정치보고 비준
  -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노선 및 지속적인 평화발전 노선 견지 천명(서구식 민주주의 불도입 의지 재확인)
  - 과학적 발전관을 당이 장기간 견지해야 할 지도사상으로 확립
  - 정치건설, 경제건설, 사회건설, 문화건설에 생태문명 건설을 포함한 5위1체의 발전전략 제시
  - 국내총생산·1인당 국민소득의 배증(2020년까지 2010년의 2배) 및 2020년까지 소강사회의 전면전 완성 목표 제시
  - 부패척결에 대한 강한 의지 표명

나. 제12기 전인대 1차 회의('13.3.5-17)

- 국가지도자 및 전인대 지도부 선출, 향후 5년간의 지도체제 확정
  - 국가주석 習近平, 국가부주석 李源朝, 국가중앙군사위 주석 習近平
  - 전인대 상무위원장 張德江,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13명(10명 신임) 등
- 국무원 기구 개편 방안 통과
  - 철도부 폐지, 국가위생·가족계획위원회 신설(위생부와 국가인구·가족계획위원회 통합),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신설, 국가신문출판방송영화TV총국 신설(국가신문출판총서와 국가방송영화TV총국 통합)
  - 국가해양국 기능 강화, 국가에너지국 기능 강화
- 李克强 국무원 총리 선출 및 국무원 총리의 제청에 따라 국무원 부총리 4명, 국무위원 5명, 비서장 1명, 외교부 등 25개 부서 장관 인선안 확정
  - 楊潔篪 국무위원 및 王毅 외교부장 신규 임명

- 안정 위주의 거시경제 운영 강조
  - '13년 경제발전 목표로 GDP 성장률 7.5% 제시

다. 제18기 2중전회('13.2.26-28)

- 「국무원 기구 개혁 및 기능전환 방안」 심의 및 통과
  - 정치와 기업, 정치와 투자, 행정부처와 사업부처, 정치와 사회 간 분리 추진, 과학적 직능과 우수한 구조를 가지는 서비스형 정부 건설 등

라. 제18기 3중전회('13.11.9-12)

- '중국특색 사회주의 발전'을 개혁 목표로 제시하고 국가관리 체계 현대화 추진
  - 전면적 개혁 심화를 추진·이행할 영도소조 구성
- 경제체제 개혁을 개혁 심화의 중점으로 제시
  - 각종 소유제의 공동발전, 시장역할 강화 및 정부기능 전환, 재정·세제 개혁, 도농 일체화, 대내외 개방 등 추진
- '국가안전위원회' 설립을 통한 국가안보 체제와 전략 완비 추진

마. 제18기 4중전회('14.10.20-23)

- 당의 집권 능력 제고를 위해 '법에 의한 국가 통치' 전면 추진
  - 과학적 입법, 엄격한 법 집행, 공정한 사법제도, 모든 인민의 법 준수 등 4대 중점 추진 방향 제시
- 헌법 이행 강화 및 의법행정, 공정한 사법제도 보장 등 법치정부 건설
  - 행정 권력에 대한 규제·감독 강화, 정부업무 공개 추진, 사법체제 개선 등

바. 제18기 5중전회('15.10.26-29)

- 제13차 국민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건의안 심의 및 통과
  - 2020년까지 2010년 기준 GDP 및 1인당 국민소득 2배 증대, 대중창업·만중창신(大衆創業·萬衆創新), 인터넷+, 중국제조 2025 등 국가 발전 전략 제시, 1가구

2자녀 허용, 사회보장제도 강화 등 제시

- 당의 집권능력 제고를 위한 '종엄치당(從嚴治黨)' 및 반부패 전면 추진
  - 부패척결을 공산당의 사활이 걸린 문제로 인식, 강도 높은 반부패 및 정풍 운동 전개

- 군 개혁의 일환으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융합 추진
  - 부국과 강군의 병행 추진, 군민 융합발전 전략 추진 등

CHINA



Ⅲ
중국의 대외관계

1. 대외정책 기조
2. 중국의 외교체제
3. 주요국과의 관계
4. 양안 관계
5. 중·북한 관계
6. 중국의 수교국 및 중국 내 주재공관 현황



1. 대외정책 기조

가. 시진핑(習近平) 정부의 외교정책 방향 및 중점 추진정책

○ 習近平 정부는 외교정책의 중점 추진 방향으로 △중국 특색의 대국외교, △신형국제관계, △총체적 국가안보관 등을 제시하고, 적극적, 주도적인 대외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 중

- (중국 특색 대국외교) △중국 특색, 중국의 스타일, 중국의 기백을 부각하고, △평화발전 노선 견지, △국가의 정당한 권익과 핵심이익을 수호

  ※ '16.3.5 전인대 정부업무보고시, 중국 정부는 '중국특색의 대국외교 이념'을 제시, 글로벌 경제금융 거버넌스 보완 및 글로벌 이슈에 건설적으로 참여하고 해결하겠다는 의지 표명

- △미국 등과의 신형대국/국제관계 구축, △올바른 의리관(義利觀) 추구, △내정불간섭 원칙 견지, △대화와 협상을 통한 갈등·분쟁의 해결 및 무력 사용 반대 등

  · 이는 평화공존 5원칙 및 독립·자주·평화 외교정책을 기초로 평화·발전·협력·공영(상생)의 기치 아래 세계평화 수호 및 공동발전을 촉진해 나간다는 기존 중국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와 일맥상통

평화공존 5원칙

1. 유래

- 인도 수상 네루의 '평화지역 구상'하에 '54.4월 체결된 중국–인도 간 및 네팔–인도 간의 통상·외교 협정 전문 에서 최초 등장
- '54년 周恩來 총리가 인도 수상 네루(6.28) 및 버마 수상 우·누(6.28)와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평화공존 5원칙을 재확인
  – '54.8.1 「평화공존 5원칙」의 일환으로 제네바에서 제1차 중·미 회담 개최
- '55.4월 인도네시아 반둥 개최 제1차 亞·阿회의에서 周恩來 총리가 평화공존 5원칙을 확대 발전시켜 제시한 「평화 10원칙」을 채택
  – 黨 제9기 全人大('56.9월)에서 「평화공존 5원칙」을 구체적으로 명기

2. 내용

- 주권의 상호존중과 영토의 보전(互相尊重主權和領土完整), 상호불가침(互不侵犯), 상호내정불간섭(互不干涉內政), 호혜평등(平等互惠), 평화공존(和平共處)

- (총체적 국가안보관) △영토주권·해양권익·국가통일 수호, △영토·도서분쟁의 타당한 처리, △非동맹 원칙하에 다양한 동반자관계 구축 등

나. 국제사회 내 위상 강화 도모

- 習近平 정부는 상기 정책 방향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 전략과제로 ① 주변외교, ② 대국관계, ③ 개발도상국과의 협력, ④ 다자외교, ⑤ 일대일로(新실크로드경제 벨트 및 21세기 해상실크로드) 건설, ⑥ 올바른 의리관, ⑦ 해외에서의 권익 수호 등을 제시하고 적극 이행

- 특히,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이란핵/북핵 문제 해결, 에볼라 퇴치, ISIL 등 대테러, 기후변화 문제 등 주요 국제/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면서, 국제사회내 위상 강화를 도모
  - UN, BRICS, SCO, CICA 등 국제/지역 기구내 활동 및 역량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일대일로 협력을 추진하면서 중국 주도로 발족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실크로드 기금 등을 통한 국제금융 분야에서의 영향력 확대 도모

다. 시진핑(習近平) 정부의 외교정책 이행 등 향후 전망

- 중국은 '중국 특색의 대국 외교'의 기치 아래 국제사회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지는 대국으로서의 행보를 시현해 나가고자 할 것으로 예상
  - 미국과의 '신형대국관계' 및 EU, 러시아 등과의 '신형국제관계' 구축을 공고화해 나가는 동시에, '친성혜용(親誠惠容)'의 주변국 외교, 의리관에 기초한 對개도국 외교 등을 지속 전개해 나갈 전망
  - 일대일로(一帶一路), 국제 생산력 협력 등을 기초로 한 국가 발전전략의 연계를 심화하고, 인류 운명공동체론 등 중국 특색의 외교 이념을 적극 전파 추진

- 단, 대만/홍콩, 조어도, 남중국해 문제 등 중국의 주권, 영토보전, 안보상의 이익에 관련된 사안의 경우, 미국, ASEAN 각국과의 관계 및 지역정세 변화 동향 등을 예의주시하면서도 과거에 비해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태도를 지속 유지할 가능성

2. 중국의 외교체제

가. 외교정책 결정체계

- 중국 외교정책 결정과정의 기본계선은 외교부-총리-국가주석이며,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보고수준이 결정
  - 胡錦濤 前 국가주석 이전 시기까지는 대부분의 외교정책이 총리 또는 그 이하의 단계(외교담당 국무위원 및 외교부 등)에서 주로 결정되어 왔으나, 習近平 주석이 집권한 이후에는 주요 외교정책 결정 및 변경 등에 있어 習近平 주석 등 최고지도부의 역할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관찰

- 국가주석은 관련 黨·政 고위간부들로 구성되는 黨 외사영도소조회의 또는 黨 정치국 회의,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소집하여 협의
  - 외교부는 사안의 중요성, 관련성에 따라 국무원내 他부처, 黨 대외연락부, 전인대 외사위원회 등과 협의

나. 결정기구

1) 외교부 및 국무원

- 외교부는 외교 관련 업무의 주무부처로서 주요사안에 대한 분석, 결정 및 상부(국가주석 및 국무원 총리 등) 보고 총리에게 보고 또는 건의
  - 과거에는 외교부에서 건의한 사안이 국무원에서 결정되었으며, 국가주석은 대체로 이러한 결정을 수용

2) 중앙외사영도소조 및 국가안전위원회

- 당중앙의 영도소조는 당 지도부가 △일선 부처와의 소통 및 △중요 업무를 조율·결정해 왔던 공산당 직속의 당·정 협의체를 의미하며, 중국의 성장에 따른 중국의 이익 확대, 대외 문제의 복잡성 심화 등에 따라, '90년대 이후 중앙외사영도소조의 권한과 역할이 확대

  ※ '영도소조'는 △정책적 필요에 따라 참여 기관 및 인원을 탄력적으로 조합하며, △참여기관 간 공동 결정을 통해 이해관계를 초월한 효율적 정책 입안 가능

○ 習近平 주석 집권 후, 習 주석을 조장으로 하는 당 국가안전위원회가 창설된바, 동 위원회는 李克强 총리 등 당·정·군 최고 권력기구 수장이 모두 참여
- 국가안전위의 업무영역은 △대외 국가안보(국방·외교·대외선전·정보)뿐 아니라, △대내 사회안정, △중·장기 안보전략 연구·수립 등 안보 업무를 포괄

※ 習 주석은 '13.10월 주변외교 업무 좌담회 주재('13.10.24-25일)
-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전원 등 당, 정, 군 주요인사들이 모두 참석하여, 미래 5-10년간 주변외교업무의 전략적 목표, 기본 방침 등에 대해 협의

다. 주요 협의기구

1) 공산당 대외연락부(부장 : 장관급)

○ 외국 정당과의 黨對黨 교류를 관장하며 업무추진시 외교부와 협의
- 黨 간 교류시 상대국 인사가 장관급 이상일 경우 대외연락부장 보다 서열이 높은 黨 서기처 서기가 수석대표를 담당(서기처는 黨 간 대외교류 外의 국내에서의 외교정책 결정에는 관여하지 않고 주로 사상·기율·조직·선전 등 黨업무를 관장)

○ 직제상 외교정책 수립에 외교부와 대등한 위치에서 별도로 정책을 건의하며, 주로 외국의 국내정세 분석 및 전략적 관계 정립 등에 관해 상부에 보고 또는 건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북한 등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당 대 당 교류 등을 주도

2) 전인대 외사위원회

○ 외국 의회와의 교류를 담당하며 업무추진시 외교부와 협의

○ 상대측 인사가 외사위원회 주임위원 보다 서열이 높은 경우 전인대 상무위원회 副위원장이 수석대표를 담당

3) 정협 외사위원회

○ 정치협상회의는 공산당이 지도하고 各 당파 및 인민단체가 참가하는 통일전선 조직이며, 산하 전문위원회의 하나인 외사위원회는 외국과의 교류가 거의 없으나 정협회의 개최시 외교관련 사안에 대해 토의 또는 건의서 제출
- 전국정협의 주석 또는 副주석이 외국과 교류

4) 연구기관

- 정부기관의 요청에 따른 자문 제공 및 연구 역할 수행

주요 기관명	설립년도	설립목적	관련(소속)부처
중국 국제문제연구소	1956	국제 정치·경제정세 연구·분석	외교부
중국 사회과학원	1977	사회과학연구 및 정책 건의	국무원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원	1980	세계 정치·경제분석 및 정책 건의	국가안전부
중국 국제전략문제학회	1979	국제전략·안보문제 연구	국방부

5) 주요 민간교류단체

- 정부의 대외정책을 민간외교 형식으로 뒷받침하며, 주로 대외교류 활동 이후 소감 및 건의서 등을 관계부처에 제출하면 해당부처가 이를 참고하는 방식

주요 단체명	설립년도	설립목적	관련(소속)부처
중국 인민외교학회	1949	민간차원의 인사교류 추진	민정부
중국 국제우호연락회	1984	민간 대외우호교류(경제교류 촉진 포함)	민정부
중국 인민대외우호협회	1954	민간 차원의 이해·우호 증진(자매도시 포함)	민정부

6) 신화사

- 신화사는 전국 각지 언론사에 뉴스를 제공하는 국영통신사이며, 외교 관련 사안에 대한 대외 발표시 주로 활용
  - 보도시 외교분야에 밝은 편집자들이 정부의 입장을 고려, 기사 수정 가능
  - 그러나, 黨·政의 외교정책 결정 과정에서 신화사 등 언론사의 역할은 극히 제한적

3. 주요국과의 관계

가. 중·미 관계

1) 관계추이

가) 초기의 대립관계

- 國共內戰에서 미국이 장개석 국민당 정부를 지원하여 공산당의 반미 감정 대두
  - '49년 말, 주중 미국대사관은 蔣介石 정부와 함께 대만으로 철수
- '50년 중국의 한국전 참전으로 양국관계는 결정적으로 대립관계로 변화
  - 미국 주도의 유엔은 중국을 침략자로 규정하고, 미국은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중국의 활동 봉쇄 노력
  - '50년대 동서 블록화 시대에 따라 중·미 간 대립관계 지속
- '55년 제네바회담 이후 '70년 바르샤바회담까지 대사급 회담 136회 개최
  - 양국관계 개선을 위한 제반 현안문제 협의
  - 기타 국제문제에 관한 양국 간 의사소통 기능 수행

나) 중·미 접근 및 관계 정상화

- '60년대 후반 중·소 분쟁에 따라 중국은 미국 대신 소련을 제1의 가상적(敵)으로 간주하고 對蘇 전략상 미국과의 관계개선 시도
  - 또한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불가피하다는 현실론 대두
- 미국 또한 닉슨 대통령과 키신저 국무장관 취임 이후 對蘇 전략상 중국과의 관계개선 시도
  - 닉슨 독트린은 아시아의 지역세력으로서 중국의 역할 기대
- 상기 중·미 간 공동인식에 따라 '72.2월 닉슨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중·미 간 상하이공동성명 발표

※ 上海 공동성명('72.2.28) 주요 내용

- 평화공존원칙에 입각, 패권추구 반대
- 제3국 대항을 목표로 하지 않는 양국관계 정상화
- 대만이 중국의 일부임과 중국인 자신에 의한 대만문제의 평화적 해결 필요성 인정
- 정세추이에 따른 대만주둔 美軍 철수

○ 중·미 간 연락사무소 상호개설('78.5월)
- 고위급 외교관을 사무소장으로 임명하고 사실상 대사관으로서의 지위 부여

○ 대만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중·미 간 외교관계 수립이 지연되어 오다가 '79.1.1 수교
- 상주대사관 설치('79.3.1)
- 미국 초대대사 Leonard Woodcock 베이징 부임('79.3.7)
- 중국 초대대사 梁澤民 워싱턴 부임('79.3.1)

※ 수교 공동성명('78.12월) 주요 내용

- 양국은 '79.1.1자로 상호 승인 및 외교관계 수립
- 미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의 유일 합법정부라는 점과 대만이 중화인민공화국의 일부라는 중국의 입장을 인정(acknowledge)하며 미국은 이러한 테두리 안에서 대만과 文化·商務 및 기타 관계를 계속 유지
- 양국은 패권을 추구하지 않으며 다른 개별국가나 국가그룹의 패권추구 노력에 반대
- 양국은 제3국을 대신하여 협상을 하지 않으며 또한 상호 제3국을 겨냥한 협정 不체결

※ 대만관계법(Taiwan Relations Act)

- '79.1.1 미 의회 대만관계법 채택, '79.4월 서명
- 중·미 간 관계 정상화 이후 미국과 대만간 교류를 지속하기 위한 미 국내적 근거로서 채택
- 상업적·문화적, 여타 양국 간 인적교류 지속 및 대만에 대한 방어적 목적의 무기 지속 판매 규정
- 대만관계법을 통해 미국은 "One China Policy"를 공식 인정하면서도, 대만과의 기존 사회적·경제적·문화적 관계 유지 및 무기판매를 통한 대만 안보 관여를 지속 추진

다) 1980년대 중·미 관계

○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79.12월)을 계기로 미국의 중국에 대한 非살상무기 및 군수품 수출 인정 등 군사협력 강화

- 레이건 행정부 출범('81.1월) 이후 대만에 대한 新무기 공급정책으로 중·미 관계 냉각
  - '81.12월 9,700만 불 상당 F-5E 전투기 엔진 부품 등 대만 공급 결정
  - '82.1월 대만과의 F-5E 공동생산, 노후기 교체 및 부품판매 방침 결정
- 중국은 미국의 對대만 무기판매에 반대 표명('82.3월) 및 對美 관계 격하 시사
- '82.8.17 중·미 공동성명(일명 '817' 성명) 발표로 양국관계 재정립 기반 구축 및 美·中·臺灣 관계의 현실적 해결 계기 마련

※ '82.8.17 공동성명 주요 내용

-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의 유일 합법정부(대만은 중국의 일부)
- 미·대만간의 비공식관계 계속 유지
- 상호주권 및 영토주권 존중과 내정불간섭
- 중국은 대만문제가 국내문제임을 재확인
- 미국은 對중국 관계를 중시하며, 2개의 중국 정책을 추구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
- 미국의 對대만 판매무기는 기술수준면에서 중국과 수교이래 최근 수년간 대만에 제공된 수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
- 미국의 對대만 무기판매를 점진적으로 감소시키며, 일정기간 경과 후 對대만 무기판매 중단
- 양국 정부는 일정기간에 걸쳐 미국의 對대만 무기 판매문제를 최종적으로 완전 타결키 위한 조치의 채택과 여건 조성에 모든 노력 경주
- 호혜평등 원칙에 입각, 경제, 문화, 교육, 과학, 기술 및 여타분야에서의 유대관계 강화

- '85년 이래 중·소 관계개선과 중국의 독립자주 외교노선 강화에 따라 중·미 간 전략적 이해일치 범위 축소
- 천안문 사태('89.6월) 이전까지 중·미 양국관계는 고위인사 상호 교류, 경제협력 및 과학기술 교류 증대 등 전반적으로 안정속에 꾸준히 진전
  - 특히 중국 건국후 최초로 '86.11월 미국 함대의 靑島港 기항 등 군사 관계 증진
- 그러나 '89.6월 천안문 사건 이후 중·미 양국 간 상호 제재와 보복조치로 양국관계 급속히 악화
  - 미국은 對중국 무기금수, 軍 고위인사 교류 동결, 정부 고위인사간 교류 동결, 국제금융기관의 對중국 융자 연기 요청 등 對중국 제재조치 시행
  - 중국은 對美 강경비난을 계속하면서 美 해외공보방송(VOA) 특파원 퇴거, 풀브라이트 사업 중단 등 對美 보복조치 시행

라) 1990년대 중·미 관계

- ’90년 이후 중·미 양국은 양국관계 개선 시도
  - 미국은 중국의 지나친 고립 방지를 위해 실리외교에 기반한 포괄적 포용정책(Comprehensive Engagement Policy)으로 관계회복을 추진
    · ’90.5월 및 ’91.6월 美 행정부, 중국에 대한 최혜국대우 지위 1년 연장 결정
  - 중국도 개혁·개방정책의 성공적 추진 및 자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해 신뢰증진·문제감소·협력발전·대립회피(增加信任·減少麻煩·發展合作·不搞對抗)라는 ‘16字原則’에 따라 對美관계 개선 시도
    · 중국은 VOA 특파원 입국 허용(’89.12월), 베이징 일원의 계엄령 해제(’90.1.11) 및 천안문 사태 관계자 석방
    · 중국의 대규모 무역사절단 방미(’90.10월) 및 NPT 가입(’92.3월)

- 탈냉전 이후 양국관계는 상호협력을 추구하면서도 중국의 對파키스탄 미사일 수출과 관련한 미국의 제재조치, 미국의 중국 2000년 올림픽 개최 반대, 미국의 중국 WTO 가입 제동, 통상 문제, 대만 문제(’95.5월 미국의 李登輝 대만 총통 방미 허용, ’95.7월, ’95.8월, ’96.3월 중국의 대만해협 미사일 발사 훈련) 등으로 협력과 대립 상태 지속

- 이러한 과정에서 양국은 고위인사 교류를 통해 상호 대화와 협력 분위기 조성에 노력한 바, 江澤民 국가주석이 천안문 사태 이후 중국 국가원수로는 최초로 미국을 방문(’97.10월) 함으로써 그간의 경색 관계 청산
  - 21세기를 향한 “건설적·전략적 동반자관계(Constructive Strategic Partnership)” 추진 노력 합의

- 클린턴 美 대통령도 방중(’98.6월)을 통해 核확산 억제, 아시아 금융위기, 국제 안보 문제 등에 있어 중·미 간 전략적 대화를 통한 공동협력 의지를 과시하고 지역 및 국제문제 해결에 있어 양국 간 공조체제의 중요성을 확인함으로써 향후 안정적 관계 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기반 구축
  - 전략핵 상호 不조준 합의
  - 한반도 평화·안정유지를 위한 대화협력 강화 합의

- 중·미 관계는 ’99.5월 미국을 위시한 NATO의 유고 주재 중국대사관 폭격으로 급속히 냉각되었으나, ’99.9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루어진 중·미 정상회담과 ’99.11월 중·미 간 WTO 가입협상의 극적 타결로 관계복원의 전기 마련

마) 2000년대 이후 중·미 관계

- 부시 행정부 출범 후 ’01.4월 중·미 군용기 충돌, 미국의 對대만 무기판매, 인권문제 등으로 한동안 다시 불편한 국면 초래

- 중·미 관계는 '01.9.11 테러사건을 계기로, 중국이 미국 주도의 반테러 국제공조 노력에 협조하면서 일정부분 회복되고, 수차에 걸친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건설적 협력관계"의 궤도에 진입

- '05.1월 부시 2기 행정부 출범을 전후하여 미국 조야에서 중국 위협론이 대두되었으나, 중국 측은중·미 간 고위급 접촉을 통해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
  - '05.8월 제1차 중·미 전략대화 개최(베이징)
  - '05.9월 UN정상회의 계기 중·미 정상회담 개최
  - '05.11월 부시 대통령의 방중시 중·미 간 "건설적 협력관계" 지향에 합의
  - '05.12월 제2차 중·미 전략대화 개최(워싱턴)

- '06.4월 胡錦濤 주석의 방미시 새로운 관계 설정 모색
  - 중국 측은 자신의 부상을 인정하고 기회로 받아들일 것을 설득하고, 중·미 간 전략적 대화·협력 필요성 역설(상호 존중, 대화, 협력 강조)
  - 미국 측은 중국을 'stakeholder'로 칭하면서 중국의 대내외 정책에서 투명성 제고, 민주 및 인권 개선 촉구·압박(중국의 가치·체제 전환 촉구)

- '08년 양국 간 제5차 중·미 전략대화 개최('08.1월, 구이저우성 구이양시), 라이스 미 국무장관 방중('08.2월), 제4차 중·미 전략경제대화 개최('08.6월, 매릴랜드 아나폴리스), 라이스 미 국무장관 방중('08.6월), 베이징올림픽 계기 부시 미 대통령 방중('08.8월), 제5차 중·미 전략경제대화 개최('08.8월, 베이징) 등 양국 간 활발한 교류·협력 추진

- '09.1월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중·미 양국은 외교장관 상호 교환 방문('09.2월, '09.3월) 및 런던 G20 정상회의 계기 중·미 정상회담 개최('09.4월) 등을 통해 안정적 우호협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
  - 양국관계를 '적극적이고, 협력적이며, 포괄적인 관계'(positive, cooperative and comprehensive relationship)로 규정
    ※ 클린턴 국무장관 방중(2.20-22)/양제츠 외교부장 방미(3.9-13)

- 또한, 제1차 중·미 전략·경제 대화('09.7월 워싱턴)를 통해 광범위한 이슈에 대한 새로운 협의의 틀 마련
  - 오바마 행정부는 기존 전략대화와 경제대화를 통합·격상하여, 중·미 협력의 포괄화, 체계화 및 對中 외교적 영향력 확대 추진
    · 이를 통해 범세계적 문제 해결의 동반자로서 중국의 보다 적극적 책임과 역할 유도
  - 중국으로서는 자신의 신장된 국력과 위상 재확인

- '09.11월 오바마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통해 양국은 전략적 상호 신뢰 구축 및 심화를 위해 노력키로 하고, 범세계적 문제에 공동 대응하는 파트너로서 서로를 인정
  -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역할이 증대된, 강대하고 번영하는 성공한 중국을 환영하고, 중국은 아·태국가의 일원으로서 역내 평화, 안정 및 번영을 위해 노력하는 미국을 환영

- 양국은 세계경제 회복, 지역 및 세계적 도전, 기후변화, 에너지, 환경 등 전세계적 문제에 대한 공조 의사 표명

- 2010년에 들어 중·미 관계는 미국의 對대만 무기판매 계획 발표('10.1월), 오바마 대통령의 달라이라마 면담('10.2월), 무역분규 및 위안화 환율 평가 절상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운 국면을 맞이하였으나, 胡錦濤 국가주석의 핵안보정상회의 참석('10.4월), 제2차 중·미 전략경제대회 개최('10.5월, 베이징)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관계 복원도 함께 모색하고자 했던 것으로 평가

- '11.1월 胡錦濤 국가주석의 방미를 계기로 중·미 양측은 공히 상호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어 '12.2월 習近平 부주석 방미시 '신형대국관계' 수립 필요성을 제기하여, '12.5월 제4차 중·미 전략경제대화(베이징), '12.5월 량광례 국방장관 방미, '12.9월 파네타 국방장관 방중, '12.9월 클린턴 국무장관 방중, '12.12월 왕치산 부총리 방미, '13.3월 코헨 재무차관 방중 등 각 분야간 교류를 지속 개최

  ※ '신형대국관계'는 '12.2월 시진핑 부주석 방미시 처음 제기한 개념으로, 중·미 간 상호 전략적 의도를 객관적·이성적으로 대하고, 각자의 이익을 존중하며, 중대한 국제·지역 문제에서의 협조를 강화하는 것을 의미

바) 시진핑(習近平) 주석 집권 이후 중·미 관계

- 중국은 중·미 관계를 가장 중요한 양자관계로 간주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신형대국관계 구축을 위한 외교 노력을 적극 전개
  - 중국은 △자국의 국내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외부환경 조성 필요성, △중국 특색의 책임있는 대국외교의 실천,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확대 등을 위해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 경제, 인권, 사이버안보, 남중국해 문제 등 민감 현안(이견 분야)에 대해서는 적절히 관리해 나가는 한편, 기후변화, 이란핵문제, 북핵문제, 전염병, 대테러 등 주요 지역/국제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을 감소하고 양측 간 협력을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 중

-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미 간 지역 및 전세계적인 전략적 경쟁, 대만, 남중국해, 인권, 문제 등을 둘러싼 입장차 등을 감안할 때, 각 분야별 양측 간 갈등 양상은 상당 기간 계속될 전망
  - 중국이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세력이라는 미국내 우려와 미국의 아태 재균형 정책이 중국에 대한 압박 및 봉쇄용이라는 중국내 인식 등이 양국관계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로막는 근본적인 제약 요인으로 작용

2) 중·미 간 채택 공동문서 주요 내용

문서명	주요내용	비고
Shanghai Communique (1972.2.28)	▸ 국제관계에 대한 양국의 상이한 인식을 병렬하는 방식으로 기술 ▸ 양국 간 사회체제와 외교정책에 기본적 차이가 있음을 인정 – 주권과 영토보전의 존중 – 상호불가침, 내정불간섭 원칙존중 – 평등과 상호이익, 평화공존의 원칙 존중 ▸ 양국 국교정상화의 기본원칙 적시 – 무역충돌의 위험성을 줄이기를 희망 – 아태지역 내에서 어느 누구도 헤게모니를 추구하지 않을 것을 확인 – 어느 일방도 제3국을 위해 교섭하거나 제3국을 대신하여 협상을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 ▸ 대만문제 관련 입장 표명 – 중국은 PRC가 유일한 중국내 합법정부이며 타이완은 중국의 일부지역이고 대만의 해방 문제는 국내문제라는 입장 강조 – 미국은 하나의 중국만이 존재하고 대만이 중국의 일부임을 인정하고 점진적으로 대만내 군사력을 줄여나갈 것임을 천명	▸ 중·미 관계 정상화 기반 조성 ▸ 이후 양국 관계의 기본적인 틀로서 기능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Joint Communique (1979.1.1)	▸ 1979.1.1일부터 중·미 양국 간 외교관계를 수립함을 공표 ▸ 미국은 PRC가 중국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인정하고 이러한 인식하에서 미국인이 대만 국민들과의 상업적, 문화적, 여타 비공식적 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임을 천명 ▸ 중·미는 Shanghai Communique에서 합의된 양국관계 원칙 재확인 ▸ 1979.3.1일부터 대사를 교환하고 공관 개설	
China–US Joint Communique (1982.8.17)	▸ 중·미의 대만 관련 입장 재확인 ▸ 미국은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 정책을 장기적으로 추진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 ▸ 미국은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를 점차적으로 감소시켜나갈 의사가 있음을 확인	▸ 중국 측이 국교정상화 이후에도 계속된 미국의 對대만 무기판매에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채택
US–China Joint Statement (1997.10.29)	▸ 양국이 인권문제에 있어 중대한 차이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 ▸ 양국은 국제평화 안정관련 협력을 추진할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 ▸ 양국은 건설적인 전략적 동반자(a constructive strategic partnership) 관계를 형성해 나가기로 합의 ▸ 대만 문제관련 양국입장 기술 – 중국은 대만문제가 중·미 관계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 江澤民 주석의 방미계기 채택 ▸ 3개의 communique가 양국관계의 기본을 설정하는 정치적 문서인 반면, 동 공동 성명은 양국 간 구체적인 협력의

문서명	주요내용	비고
	민감한 사안임을 강조하고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대만문제의 적절한 관리가 필요함을 지적 – 미국은 One China Policy를 준수할 것이라는 입장 천명 ▸ 양국 대표단 상호 방문 합의 ▸ 아시아·태평양의 두 주요국가로서 지역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	방향을 제시하는 성격의 문서
US–China Joint Statement (2009.11.17)	▸ 중·미 관계 – 고위급 교류 및 군사교류 증진 합의 – 외교장관 회담 연례화 합의 – 2010.2월 말 이전 차기 인권대화 개최합의 – 인적·문화적 교류 추진을 위한 양자 메카니즘 설치 합의 ▸ 양자 간 전략적 상호신뢰 수립 및 심화 – 양국 간 전략적 상호신뢰 수립과 강화가 새로운 시대 양국관계의 기초가 됨을 확인 – 미국은 국제문제에서 더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강하고 번영되며 성공적인 중국을 환영하는 입장 표명 – 중국은 미국이 아태지역 국가로서 역내 평화와 안정 및 번영에 기여하는 것을 환영 – 양국은 "positive, cooperative and comprehensive"한 양국 관계를 증진하여 나갈 것을 공약 – 양국은 대만 문제가 중·미 관계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각각의 대만 관련 입장 재천명 – 양국은 상대방의 핵심이익(core interest)을 존중하는 것이 지속적인 중·미 관계의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 공유 ▸ 경제협력 및 세계경제 회복을 위한 양국 공조 확인 ▸ 양국이 지역 및 국제문제를 협력적으로 다루어 나가야 할 책임을 공유하고 있음을 강조 – 아태지역 통합, 비확산, 북한핵, 이란핵, 남아시아 지역문제 관련 양국협력 강화 의사 표명 ▸ 기후 변화와 에너지, 환경문제관련 보다 강화된 양국 협력 추진 의사 표명	▸ 오바마 대통령 방중계기 채택 ▸ 21세기 중·미 양국 간 협력 방향을 광범위하게 규정한 문서 ▸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부상을 배경으로 양국 관계를 재규정하는 성격의 문서 – 양자관계에서는 전략적 상호신뢰 수립 추진 – 지역 및 국제 문제 관련 양국의 공동 이익과 책임을 규정하고, 주요 이슈별 협력 강화 – 대만문제, 티베트, 신장 문제 관련 중국의 입장 최대한 배려
US–China Joint Presidential Statement on Climate Change (2014.11.12/ 2015.9.26/ 2016.3.31)	▸ Paris 기후변화 협약 체결 계기,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및 협력을 위한 양측간 공조 노력 확인 – △양국내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단호한 추진, △중·미 간 조율과 협력 강화, △지속가능한 개발, 녹색/저탄소/기후탄력적인(climate–resilient) 경제로의 전환에 대한 결의 합의 ※ 양국은 2014년 최초 공동성명 채택 이후 양측간 협력 노력을 재확인하고,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구체 협력 사항을 보완하는 공동성명을 두 차례 더 발표	▸ 오바마 대통령 2014.11월 APEC 정상회의 참석 방중 계기 최초 채택 ▸ 2015.11월 파리 기후변화 총회 계기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2번째 공동성명 발표 ▸ 2016.3월 習近平 주석의 핵안보정상회의 참석 방미 계기 3번째 공동성명 발표

3) 중·미 간 주요일지

- '79. 1월 덩샤오핑(鄧小平) 부총리 방미
- '79. 8월 먼데일 부통령 방중
- '83. 2월 슐츠 국무장관 방중
- '83. 9월 와인버거 국방장관 방중
- '84. 1월 자오쯔양(趙紫陽) 총리 방미
- '84. 4월 레이건 대통령 방중
- '85. 5월 볼드리지 상무장관 방중
- '85. 7월 리셴녠(李先念) 주석 방미
- '85.10월 부시 부통령 방중
- '88. 9월 칼루치 국방장관 방중
- '90. 7월 주룽지(朱鎔基) 상해시장 방미
- '90.11월 첸치천(錢其琛) 외교부장 방미
- '91.11월 베이커 국무장관 방중
- '92. 1월 리펑(李鵬) 총리 방미
- '92. 3월 주룽지(朱鎔基) 부총리 방미
- '92. 5월 켄터 국무부 차관 방중
- '93.11월 시애틀 APEC 정상회의 참석 계기 장쩌민(江澤民) 국가주석 방미
- '94. 3월 크리스토퍼 국무장관 방중
- '94. 5월 미국, 인권문제와 대중 MFN 지위부여 문제의 연계 폐지
- '94. 8월 미 상원 대만관계법 수정
- '94.10월 중국, 41번째 핵실험 실시
- '94.11월 자카르타 APEC 정상회의 계기 중·미 정상회담
- '95.10월 UN 창립 50주년 기념회의 계기 중·미 정상회담
- '96.11월 크리스토퍼 국무장관 방중
- '96.11월 마닐라 APEC 정상회의 시 중·미 정상회담
- '96.12월 츠하오톈(遲浩田) 국방부장 방미
- '97. 3월 올브라이트 국무장관 방중
- '97. 4월 고어 부통령 방중
- '97. 4월 깅리치 하원의장 방중
- '97. 8월 버거 대통령 안보보좌관 방중
- '97. 8월 푸취안유(傅全有) 총참모장 방미

- '97.10월 장쩌민(江澤民) 국가주석 방미
- '97.12월 슝광카이(熊光楷) 부총참모장 방미
- '98. 1월 코헨 국방장관 방중
- '98. 6월 클린턴 대통령 방중
- '99. 2월 올브라이트 국무장관 방중
- '99. 4월 주룽지(朱鎔基) 총리 방미
- '00. 7월 코헨 국방장관 방중
- '00. 9월 UN 새천년 정상회의 계기 중·미 정상회담
- '00. 9월 APEC회의(뉴질랜드 오크랜드) 참석 계기 중·미 외교장관회담
- '00.12월 이글버거 전 국무장관 방중
- '01. 3월 첸치천(錢其琛) 부총리 방미
- '01. 4월 미군 정찰기와 중국 군용기 충돌 사고
- '01. 7월 파월 국무장관 방중
- '01. 9월 죠셉 바이든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 방중
- '01. 9월 탕자쉬안(唐家璇) 외교부장 방미
- '01.10월 상하이 APEC 정상회의 계기 부시 대통령 방중(상하이)
- '02. 2월 부시 대통령 방중
- '02. 2월 중·미 간 "상하이공동성명" 발표 30주년 기념축전 교환
- '02. 4월 키신저 전 국무장관 방중
- '02. 4월 에번스 상무장관 방중
- '02. 5월 후진타오(胡錦濤) 부주석 방미
- '02. 5월 부시 전 대통령 방중
- '02. 7월 ARF 외무장관 회의(브루나이) 참석 계기 중·미 외교장관회담
- '02.10월 장쩌민(江澤民) 주석 방미
- '02.12월 슝광카이(熊光楷)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 방중
- '02.12월 아미티지 국무부 부장관 방중
- '03. 2월 파월 국무장관 방중
- '03. 6월 남북정상간 비공식 대화(프랑스 에비앙) 참석 계기 중·미 정상회담
- '03.12월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방미
- '04. 4월 체니 미국 부통령 방중
- '04.11월 파월 미국 국무장관 방중
- '04.11월 APEC 정상회담 계기 중·미 정상회담
- '05. 3월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 방중

- ’05. 7월 G8+5 정상회의시 중·미 정상회담(英 스코틀랜드)
- ’05. 7월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 방중
- ’05. 7월 탕자쉬안(唐家璇) 국무위원 방미
- ’05. 8월 제1차 중·미 전략대화(다이빙궈(戴秉國) 부부장-졸릭 국무부 차관)
- ’05. 9월 UN 정상회의 계기 중·미 정상회담
- ’05.10월 럼즈펠트 국방장관 방중
- ’05.11월 부산 APEC 회의 계기 중·미 외교장관회담
- ’05.11월 부시 대통령 방중
- ’05.12월 제2차 중·미 전략대화(다이빙궈(戴秉國) 부부장-졸릭 국무부 차관)
- ’06. 4월 우이(吳儀) 국무원 부총리 방미
- ’06. 4월 새넌 국무부 중남미 담당 차관 방중
- ’06. 4월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방미
- ’06. 5월 이란 핵문제 6개국 외교장관회의(뉴욕) 계기 중·미 외교장관회담
- ’06. 7월 G8 정상회담(상트페테르부르크) 계기 중·미 정상회담
- ’06. 7월 궈보슝(郭伯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방미
- ’06. 7월 저우융캉(周永康) 국무위원 겸 공안부장 방미
- ’06. 8월 스티븐스 상원 임시의장 방중
- ’06.11월 APEC 계기 중·미 외교장관회담(하노이)
- ’06.11월 제14차 APEC 비공식 정상회담(하노이) 계기 중·미 정상회담
- ’06.11월 제3차 중·미 전략대화(다이빙궈(戴秉國) 부부장-네그로폰테 국무부 차관)
- ’07. 1월 양제츠(楊潔篪) 외교부장 중국정부 특사 신분, 포드 전 대통령 추도식 참석
- ’07. 6월 제4차 중·미 전략대화(다이빙궈(戴秉國) 부부장-번스 국무부 차관)
- ’07. 9월 UN총회 계기 중·미 외교장관회담
- ’07.11월 중동국제평화회의(아나폴리스) 계기 양제츠(楊潔篪) 외교부장 방미
- ’08. 1월 제5차 중·미 전략대화(다이빙궈(戴秉國) 부부장-네그로폰테 국무부 차관)
- ’08. 1월 이란 핵문제 6개국 외교장관회의(베를린) 계기 중·미 외교장관 회담
- ’08. 2월 라이스 국무장관 방중
- ’08. 5월 네그로폰테 국무차관 방중
- ’08. 6월 아프가니스탄 원조공여국 회의(파리) 계기 중·미 외교장관 회담
- ’08. 6월 라이스 국무장관 방중
- ’08. 7월 G8 정상회담(홋카이도) 계기 중·미 정상회담
- ’08. 7월 ASEAN 외교장관회의(싱가포르) 계기 중·미 외교장관 회담
- ’08. 7월 양제츠(楊潔篪) 외교부장 방미

- '08. 8월 베이징올림픽 계기 부시 대통령 및 일가 방중
- '08. 8월 베이징올림픽 계기 폴슨 미국 재정부장관 방중
- '08. 9월 UN총회 계기 중·미 외교장관 회담
- '08. 9월 UN 새천년개발목표 고위급 원탁회의 계기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방미
- '08.11월 G20 금융시장 및 세계경제 정상회담 계기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방미
- '08.11월 APEC 비공식 정상회담(리마) 계기 중·미 정상회담
- '08.12월 다이빙궈(戴秉國) 국무위원 방미
- '08.12월 중·미 수교 30주년 기념 축전 교환
- '09. 2월 클린턴 국무장관 방중
- '09. 3월 양제츠(楊潔篪) 외교부장 방미
- '09. 4월 G20 금융정상회담(런던) 계기 중·미 정상회담
- '09. 6월 스타인버그 국무차관 방중
- '09. 7월 ASEAN 외교장관회의 계기 중·미 외교장관회담
- '09. 7월 제1차 중·미 전략경제 대화(워싱턴)
- '09. 9월 우방궈(吳邦國) 전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 방미
- '09. 9월 홀브루크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지역 특별대사 방중
- '09. 9월 UN총회 계기 중·미 정상회담
- '09. 9월 스타인버그 국무차관 방중
- '09.10월 쉬차이허우(徐才厚) 공산당 중앙군사위 부주석 방미
- '09.11월 오바마 대통령 방중
- '10. 3월 스타인버그 국무차관 방중
- '10. 4월 핵안보정상회의 계기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방미
- '10. 5월 제2차 중·미 전략경제 대화(베이징)
- '10. 9월 UN총회 계기 중·미 정상회담
- '10.11월 G20 금융정상회담(서울) 계기 중·미 정상회담
- '10.12월 미국 고위급 대표단(스타인버그 국무차관) 방중
- '11. 1월 양제츠(楊潔篪) 외교부장 방미
- '11. 1월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 방중
- '11. 1월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방미
- '11. 5월 제3차 중·미 전략경제대화(워싱턴)
- '11. 6월 제1차 미·중 아태지역 협의
- '11. 7월 ARF 계기 중·미 외교장관회담(발리)
- '11.10월 번스 국무부 부장관 방중

- ’11.11월 APEC 계기 중·미 정상회담(호놀룰루)
- ’11.12월 제12차 중·미 국방 대화(베이징)
- ’12. 2월 시진핑(習近平) 부주석 방미
- ’12. 5월 제4차 중·미 전략경제대화(베이징)
- ’12. 5월 량광례(梁光烈) 국방장관 방미
- ’12. 7월 ARF 계기 중·미 외교장관회담(프놈펜)
- ’12. 9월 파네타 국방장관 방중
- ’12. 9월 클린턴 국무장관 방중
- ’12.12월 왕치산(王岐山) 부총리 방미
- ’13. 3월 코헨 재무차관 방중
- ’13. 4월 케리 국무장관 방중
- ’13. 4월 번스 국무부 부장관 방중
- ’13. 4월 뎀시 합참의장 방중
- ’13. 5월 도닐런 국가안보보좌관 방중
- ’13. 6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중남미 순방 계기 방미(캘리포니아 서니랜즈)
- ’13. 7월 제5차 중·미 전략경제대화(워싱턴)
- ’13. 8월 창완취안(常萬全) 국방부장 방미
- ’13. 9월 UN총회 참석 계기 왕이 외교부장 방미
- ’14. 4월 헤이글 국방장관 방중
- ’14. 5월 왕자루이(王家瑞) 중련부장 방미
- ’14. 7월 제6차 중·미 전략경제대화 및 제5차 인문교류 고위급협상(베이징)
- ’14. 9월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 방중
- ’14.10월 왕이(王毅) 외교부장 방미
- ’14.10월 양제츠(楊潔篪) 국무위원 방미
- ’14.11월 오바마 대통령 APEC 정상회의 참석 계기 방중
- ’15. 2월 양제츠(楊潔篪) 국무위원 방미
- ’15. 5월 케리 국무장관 방중
- ’15. 6월 판창룽(范長龍) 공산당 중앙군사위 부주석 방미
- ’15. 6월 제7차 중·미 전략경제대화 및 제6차 인문교류 고위급협상(워싱턴)
- ’15. 8월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 방중
- ’15. 9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미국 국빈방문
- ’15.10월 블링큰 국무부 부장관 방중
- ’15.11월 파리 기후변화 총회 계기 중·미 정상회담

- '16. 1월 케리 국무장관 방중
- '16. 2월 왕이(王毅) 외교부장 방미
- '16. 3월 제4차 핵안보정상회의 참석 계기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방미
- '16. 6월 케리 국무장관 방중

나. 중·일 관계

1) 관계추이

- '45년 일본의 패망, '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후 양국 간에는 상호 의구심과 불신이 충만한 적대관계가 지속되었으나, 양국 간 비공식 교류는 꾸준히 전개
  - '52.6월 중·일 민간무역협의 서명, '55.4월 중·일 민간어업협정 서명

- 1960년대 소련 전문가들의 갑작스런 철수로 중국으로서는 일본과의 보다 밀접한 경제·무역 관계 수립 필요성 대두
  - 양국 간 민간 무역 양해각서가 '62.11월 체결되어 중국내 공장 건설, 일본내 무역대표부 설치 등의 실질적 협력관계 증진

- 중국 문화대혁명 시기를 맞이하여 양국 간 교류는 감소하고 관계 소원
  - 미군의 일본 주둔으로 중국내 반감이 강해졌으나 집권 자민당 내에는 대중국 관계개선 움직임 태동

- '72.9월 국교정상화, '78.8월 평화우호조약 체결 이래 일본은 중국과의 관계발전을 통해 자국의 국제정치적 입장을 강화하고, 對中 경제진출 증대를 통한 국익 증진을 위해 중국과의 우호관계 유지에 노력하였고, 중국도 개혁·개방 정책 추진에 있어 일본의 자본과 기술 유치 필요성을 인식, 對日관계를 중시

※ 중·일 평화우호조약('78.8.12) 주요내용

- 상호 불가침, 내정불간섭 및 평화공존
- 패권반대, 제3국 대항반대, 항구적 우호협력 증진

- 1980년대 들어 양국관계는 급격한 진전을 이루었으나, 일본 지도층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던 후야오방(胡耀邦) 총서기의 제거에 이은 '89년 천안문 사태의 발발로 중·일 관계 악화

- 천안문사태 이후 일본의 對중국 경제 제재로 양국은 소원한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일본의 對中 차관재개('90.7월), 日王 방중('92.10월) 등 고위인사 교류를 통해 관계 정상화 추진

- '95년 일본의 달라이라마 방일 허용, 유엔 인권위에서 "중국 인권결의안"과 관련 서방측 입장 지지, '95년 중국의 지하핵실험 계기 對중국 무상원조 동결, '96.4월 미·일 新안보협력 선언, '96.7월 조어도 영토 분규, '96.8월 하시모토 수상의 신사 참배로 빚어진 과거 역사인식 문제 등으로 양국관계는 최악의 국면에 돌입

- '97년 「중·일 국교 정상화 25주년」을 맞아 양국 총리의 교환방문이 이루어지고, '98년에는 「중·일 평화우호조약 체결 20주년」을 맞아 장쩌민(江澤民) 주석이 중국 국가원수로는 최초로 방일한데 이어, '99년에는 오부치 총리가 방중함으로써 다소 소원했던 양국관계를 개선하고 협력관계 도모

- '00.10월 주룽지(朱鎔基) 총리 방일, '01.10월 고이즈미 총리 방중, '02.4월 리펑(李鵬) 전인대 상무 위원장 방일 등 양국지도자 상호방문이 진행되었으며, '02년 양국 간 수교 30주년을 기념 하여 관계발전을 위한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 증대

- 고이즈미 총리의 매년 계속된 신사참배('01.8월, '02.4월, '03.1월, '04.1월, '05.10월) 및 '05.4월 일본 역사교과서 검정 발표 이후 베이징, 상하이 등 중국내 각 도시에서 격렬한 반일시위가 발생하는 등 양국관계 경색

- 고이즈미 총리 시절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로 악화된 중·일 양국 갈등관계가 아베 총리 방중('06.10월),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방일('07.4월), 후쿠다 총리 방중('07.12월), 후진타오(胡錦濤) 주석 방중('08.5월) 등 잇따른 정상 상호 방문으로 전면적 개선 추세 시현

- 아베 총리 후임으로 對아시아 외교를 중시하는 후쿠다 전 관방장관이 선출('07.9월)된 이후, 중·일 관계는 군사, 경제·통상, 문화 등 제 분야에서 교류·협력 강화
  ※ '06.6월 후쿠다는 동남아시아와 한국·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공동체' 구성을 목표로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 표명
  – 日 언론은 후쿠다의 이러한 주장을 '70년대 말 부친인 후쿠다 다케오 총리가 발표한 '후쿠다 독트린'(동남아시아 중시 정책)과 비교하여 '新 후쿠다 독트린'으로 명명

- '07.12월 후쿠다 총리 방중에 이어 '08.5월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 방일로 관계 완전 복원 및 '전략적 호혜관계' 추진
  – 양국관계의 미래발전방향을 규정한 '정치문서' 채택
    ※ '08년 중·일 정상급 교류
    – 胡錦濤 주석의 2차례(공식방일, 도야코 개최 G8 정상회의 참석) 일본방문, 후쿠다 총리의 베이징올림픽 개막식 참석, 아소 총리의 베이징 ASEM 정상회의 참석, 溫家寶 총리의 후쿠오카 개최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
  – '08.6월 양국 간 최대 현안의 하나인 동중국해 가스전 공동개발과 관련한 원칙적 합의 성사

- '09년도 들어 3차례 정상회담을 개최, 2년 만에 중·일 '안보대화'를 재개하는 등 양국 간 '전략적 호혜관계'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

- '09.4월 G-20 정상회의 계기 정상회의, '09.4월 ASEAN+3 정상회의 계기 및 아소 총리 방중시 총리회담 개최, '09.10월 한·중·일 정상회의 계기 정상회담 개최 등 양국간 고위 인사 교류의 모멘텀 강화
- '09.1월 및 6월 중·일 전략대화(차관급) 2회 개최, '09.6월 경제고위급 대화(장관급) 1회 개최

  ※ '09.6월, 제10차 중·일 전략대화시 야부나카 차관은 중국의 군사부문 투명성 결여에 대한 일본의 문제의식 전달 및 중국의 핵군축 필요성 강조

○ '09.9월 일본의 민주당 정권 출범이후 양국은 활발한 고위인사 교류를 통해 새로운 관계 진전을 모색
- '09.11월 王家瑞 중련부장 및 杨潔篪 외교부장, 梁光烈 국방부장 방일, '09.12월 習近平 국가 부주석 방일
- '09.12월 오자와 민주당 간사장 방중

  ※ 오자와 일본 민주당 간사장은 중·일 간 인력교류 프로그램인 장성 계획의 일환으로, 국회의원 143명 등 각계인사 643명을 인솔하여 '09.12월 방중, 胡錦濤 국가 주석과 회견하고 王家瑞 공산당 대외연락부장과 면담
- '10.5.30-6.2 溫家寶 총리 방일

○ '10.9.7 일본 영해를 침범한 중국어선과 선원을 구속한 사건이 발생하여 중국내 '애국주의' 등 대일여론이 악화됨에 따라 중국 정부가 강경대응 조치를 취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 일본 내에서도 대중여론이 악화됨과 동시에 일본정부에 대한 비판여론이 증가하는 등 중·일 관계는 급속도로 냉각
- 중국 측은 △동중국해 자원개발 조약교섭 연기, △정상회담 성과사업인 일본 청소년 1천 명 상하이 엑스포 방문 취소, △장관급 이상 교류 중단, △항공편 증편 관련 접촉 중단 등 대응조치를 강화시켰고, 결국 △희토류의 대일수출의 사실상 중단 및 △군사시설 촬영을 이유로 일본 민간인 4명 조사 등 강경조치를 실시

○ 다만, '11.3월 일본대지진 발생시 중국 정부가 일본에 대해 3천만 위안 상당의 인도주의 물자 지원 의사를 표명한 데 대해 일본 정부가 수용하고자 하는 의사를 보여 지원이 이뤄지는 등 중·일 양국 간 관계개선 분위기가 모색

○ '11.10월에 야마구치 산요시 외무대신 방중(10.13), 나카노조 외무대신 정무관 방중(10.14), '11.11월 겐바 외무대신 방중 등 양국 외교당국간 고위급 교류가 이루어졌으며, '11.12월에는 중·일 외교차관급 전략대화에 이어 12.25-26 노다 총리가 방중하면서 중·일 양국관계 강화 및 상호 신뢰 회복 방안 등 도모
- '11.12월 노다 총리 방중시 양국 간 해양문제 협의체 설치에 공식 합의

○ '12.9월 일본 정부의 조어도(센카쿠) 매입 조치 이후 중국이 일련의 강경한 대응 조치를 취하면서, 수교 40주년을 맞아 계획되었던 양국 간 각종 고위인사교류가 연기·취소되고 중국내 반일 시위가 대규모로 일어나는 등 양국관계 급격히 경색

○ '12.12월 일본 자민당 아베 신조 총리 취임 후, '13.1월 야마구치 공명당 대표 및 하토야마

전 총리 등 주요 인사들이 방중하였으나 양국관계 개선의 돌파구는 마련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며, 조어도 문제 관련 양국 간 갈등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

2) 시진핑(習近平) 주석 집권 이후 중·일 관계

- 2012년 일본의 조어도 국유화 조치 이후로 양국내 習近平 주석과 아베 총리가 각각 중국과 일본의 최고지도자가 되면서, 양국관계의 악화가 지속
  - 중국의 부상에 따른 중국의 역내 영향력 확대 움직임과 이를 견제하려는 일본의 대응이 맞서면서 양국 간 긴장이 지속되었으며,
  - 특히, △'12.9월 일본 정부의 센카쿠 열도 국유화, △'13.11월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CADIZ) 선포, △'13.12월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등 영토 및 역사 문제로 인해 양국 간 긴장 심화

- '14.11.7 楊潔篪 中 국무위원-야치 日 NSC 사무국장간 면담시 중·일 관계 개선 등에 관한 4가지 사항에 대해 합의함으로써 관계 개선의 전기가 마련된 후, '14.11월 APEC 정상회의 및 '15.4월 아시아·아프리카 정상회의 계기에 習 주석-아베 총리간 정상회담(회동)이 개최
  - 당국 간 해상위기관리 메커니즘 구축 논의, 정계 및 민간 차원의 상호교류 행사도 재개

- 양국 공히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 양측 간 역내 전략적 경쟁관계와 영토·역사·방위안보 문제 등을 둘러싼 근본적인 인식 차이가 상존

3) 중·일 간 주요 현안

가) 조어도(釣魚島 : 센카쿠 열도) 영유권 분쟁

- 양측 입장
  - 일본 : 1894년 일본인이 최초로 조어도가 무인도임을 확인하고 1895.1.14 각의의 영토편입 결정 이래 "계속적, 평화적, 실효적 점유"를 근거로 자국 영토라는 입장
  - 중국 : 조어도는 1534년 최초 발견 이후 자국 영토였으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1951년) 上 "대만 및 부속 도서에 대한 일본의 모든 권리 포기"의 대상이라는 입장

중국-일본 영유권 분쟁지역



- 분쟁 경위
  - '69년 유엔극동경제위원회에서 "동중국해상 천연자원 매장량에 대한 보고서" 발표 이후 영유권 분쟁 본격화
  - '97년 중·일 어업협정 체결시 조어도 영유권 문제 보류(중간수역으로 설정)
  - '04.3월 중국인의 조어도 상륙 시도, 중국 선박의 접안 시도, 중국 해양탐사선의 일본 EEZ 침범 등으로 조어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 격화

- '12.9월 일본 정부의 조어도 국유화(매입) 조치 이후 중국은 후진타오 주석 등 최고지도자의 조어도 관련 언급, 외교부 등 각계 명의 성명 발표, 영해기선 선포 및 해감선박 조어도 영해 진입, 인사교류 연기 및 취소 조치하는 등 중·일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나) 동중국해 가스전 개발 문제

- 중국이 중·일 영유권 분쟁 지역인 동중국해에서 '03.7월 춘샤오(春曉) 가스전 개발에 착수함에 따라 양국 간 마찰 표면화

  ※ 춘샤오 가스전 : 중·일 간 동중국해 중간선으로부터 중국으로 4km 지점에 위치(동중국해 대륙붕 경계원칙으로 일본은 중간선, 중국은 자연연장 원칙 고수

- '09.10월 중·일 정상회담시 양국 정상은 천연가스 채굴 관련 협력을 통해 동중국해를 '友愛의 바다'로 만드는 것에 합의

- 공동개발 구역 설정 문제는 조어도 영유권 문제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어 해결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인바, '15.7월 일본 정부는 중국 측의 가스전 개발 활동에 대한 증거들을 공개하면서 중국 정부의 일방적인 조치를 비판

다) 과거사(역사인식) 문제

- 일본 정부 및 총리 등의 역사인식 관련 언행, 야스쿠니 신사 참배, 역사교과서 기술, 위안부, 남경대학살 문제 관련 문서 등의 UNESCO 기록유산 등재, 강제징용 배상 문제 등을 둘러싸고, 중국 측은 일본 정부 및 고위급 인사들의 역사퇴행적인 언행을 비판
  - 중국 정부는 '15.9월 전후 70주년 반파시스트 및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기념행사를 대규모로 개최

라) 방위안보 문제

- 일본 정부는 안보법제 개정을 통해 '16.3월부터 新안보법을 시행하게 된바, 중국으로서는 일본의 안보법 개정 및 향후 평화헌법 개정 문제 등이 전후 질서를 변경

하고자 하는 것이자 중국에 대한 견제에서 나온 행동이라고 인식
-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국내법 개정이 국내문제에 속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일측 조치에 대한 공식적인 '반대' 표현은 不사용

4) 중·일 간 4개 정치문서(기존) 및 4개 주요합의('14.11월) 주요 내용

문서명	주요내용
중·일 공동성명 (1972.9.29)	① 중·일 간 비정상적 상태 종결 ② 일본은 중국 정부가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승인 ③ 일본은 대만이 중국영토의 불가분의 일부분임을 승인 ④ '72.9.29부터 양국 국교수립 ⑤ 중국 정부는 양국 국민간 우호를 위해 일본에 어떠한 배상도 不요구 ⑥ 양국은 주권존중 및 평화공존 5원칙 하에 평화우호관계 수립 ⑦ 양국은 아·태지역에서 패권 不추구
중·일 평화우호조약 (1978.8.12)	① 주권존중, 평화공존 5원칙 하에서 평화우호관계 발전 ② 유엔헌장에 의한 무력불사용, 분쟁의 평화적 해결 ③ 아·태지역에서의 패권추구 반대 ④ 선린우호, 내정불간섭의 원칙을 통한 경제, 문화, 인적교류 강화
중·일 공동선언 (1998.11.25)	① 평화공존 5원칙, 유엔헌장이 국가관계 설정의 중요한 역할 수행 ② 유엔의 국제사회내 신질서 형성 및 유지 공헌 인정, 개혁 지지 ③ 핵무기 폐기, 어떤 형식의 핵확산도 반대 ④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강화 ⑤ 평화와 발전을 위한 우호협력 동반자관계 수립 ⑥ 역사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양국관계의 출발점 ⑦ 인적교류 강화 등
중·일 전략적 호혜관계의 전면적 실천을 위한 공동성명 (2008.5.7)	① 중·일 전략적 호혜관계 설정 ②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 ③ 5개 영역에서의 협력 강화 – 정치적 상호신뢰 강화 – 인적·문화 교류 촉진과 양국 국민간 우호감정 증진 – 상호 이익을 위한 협력 심화 – 아·태지역 발전을 위한 공동 노력 – 글로벌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중·일 간 4개 합의 내용('14.11.7) *일 외무성 홈페이지

1. 쌍방은 일·중 간의 4개의 기본문서의 諸원칙과 정신을 준수하고, 일·중의 전략적 호혜관계를 계속적으로 발전시킬 것을 확인하였다.
2. 쌍방은 역사를 직시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는 정신에 따라 양국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곤란을 극복하자는데 약간의 인식의 일치를 보았다.
3. 쌍방은 센카쿠 제도 등(댜오위다오) 동중국해 해역에서 최근 긴장상태가 발생하고 있는데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고 인식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정세의 악화를 방지하면서 동시에 위기관리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불측의 사태 발생을 피하자는데 의견의 일치를 이루었다.
4. 쌍방은 다양한 다자 간·양자 간 채널을 활용하여 정치·외교·안보대화를 서서히 재개하고, 정치적 상호 신뢰 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자는데 의견의 일치를 이루었다.

5) 중·일 간 주요일지

- '79-'83 일본 정부, 동 기간 3,309억 엔(15억 불)의 1차 엔차관 제공
- '81. 9월 자오쯔양(趙紫陽) 총리 방일
- '82. 9월 스즈끼 총리 방중
- '83.11월 후야오방(胡耀邦) 총서기 방일
- '84. 3월 나까소네 총리 방중
- '85. 7월 중·일 각료회의 개최
- '85. 8.15 나까소네 총리의 신사참배 계기 중국내에서 反日시위 발생
- '86.11월 나까소네 총리 방중
- '88. 5월 우노 외상 방중
- '89. 6월 천안문사태 관련 對중국제재 일환으로 제3차 엔차관 교섭중단
- '90. 4월 가이후 총리, 對中 제3차 엔차관 재개 검토 언급
- '90. 8월 다께시다 前총리 방중
- '90.10월 日 정부, 90회계년도분 1,022억 엔의 차관을 3회 분할 제공키로 결정
- '90.11월 일본 외무성, 對中 엔차관(90년도 1차분) 재개 발표
- '90.11월 우쉐첸(吳學謙) 副총리, 아끼히또 日王 즉위식 참석차 방일
- '90.12월 일본의 對中 3차 엔차관 90년도 2차분(426억 엔) 제공 각서 교환
- '91. 3월 일본의 對中 엔차관 90년도 3차분(433억 엔) 제공 협정 조인
- '91. 4월 나까야마 외상 방중
- '91. 6월 첸치천(錢其琛) 외교부장 방일
- '91. 8월 가이후 총리 방중
- '92. 4월 장쩌민(江澤民) 黨 총서기 방일

- ’92.10월 日王 방중
- ’97. 3월 중·일 외교장관회담
- ’97. 9월 하시모토 총리 방중
- ’97.11월 리펑(李鵬) 총리 방일
- ’98. 2월 츠하오톈(遲浩田) 국방부장 방일
- ’98. 5월 큐마 日 방위청 장관 방중
- ’98.11월 「중·일 평화우호조약 체결 20주년」 계기 장쩌민(江澤民)주석 방일
- ’99. 7월 오부치 총리 방중
- ’00. 4월 쩡칭훙(曾慶紅) 공산당 조직부장 방일
- ’00. 5월 탕자쉬안(唐家璇) 외교부장 방일
- ’00. 7월 첸치천(錢其琛) 부총리 방일(오부치 총리 조문 사절)
- ’00. 9월 APEC회의(뉴질랜드 오크랜드) 계기 중·일 정상회담
- ’00.10월 주룽지(朱鎔基) 총리 방일
- ’00.10월 ASEM 정상회의(서울) 계기 중·일 외교장관회담
- ’00.12월 리루이환(李瑞環) 전국정협 주석 방일
- ’01. 5월 ASEM 외무장관회의(베이징) 계기 중·일 외교장관회담
- ’01. 7월 중·일 외교장관 회담(하노이)
- ’01. 8월 고이즈미 총리 신사참배
- ’01.10월 고이즈미 총리 방중
- ’01.10월 상하이 APEC 회의 계기 중·일 정상회담
- ’02. 3월 제1차 외무차관급 안보대화 개최(베이징)
- ’02. 4월 주룽지(朱鎔基) 총리, 보아오포럼 계기 양국 총리회담
- ’02. 4월 리펑(李鵬) 전인대 상무위원장 방일
- ’02. 4.21 고이즈미 총리 신사참배
- ’02. 7월 ARF 외무장관 회의(브루나이) 계기 중·일 외교장관회담
- ’02. 9월 가와구치 외상 방중
- ’02. 9월 ASEM 정상회의(코펜하겐) 계기 양국 총리회담
- ’02. 9월 중·일 수교정상화 30주년 기념 축전 교환
- ’02.10월 APEC 정상회의(멕시코 로스카보스) 계기 중·일 정상회담
- ’03. 1.14 고이즈미 총리 신사참배
- ’03. 4월 가와구치 외상 방중
- ’03. 5월 상트 페테르부르그 건도 300주년 행사 계기 중·일 정상회담
- ’03. 9월 우방궈(吳邦國) 전인대 상무위원장 방일

- ’04. 1. 1 고이즈미 총리 야스쿠니신사 참배
- ’04. 3월 가와구치 외상 방중
- ’04. 9월 가와구치 외상 “China Business Summit(CBS)” 참석차 방중
- ’04.11월 APEC 정상회담 계기 중·일 정상회담
- ’04.11월 ASEAN+3 정상회담 계기 중·일 총리간 회담
- ’05. 4월 아시아·아프리카 정상회의 계기 중·일 정상회담
- ’05. 5월 제1차 중·일 전략대화(베이징)
- ’05. 5월 우이(吳儀) 부총리 방일
- ’05. 6월 제2차 중·일 전략대화(도쿄)
- ’05. 7월 ASEM 외무장관 계기 중·일 외교장관회담
- ’05.10월 제3차 중·일 전략대화(베이징)
- ’05.10월 고이즈미 총리 야스쿠니 신사 참배
- ’06. 2월 제4차 중·일 전략대화(도쿄)
- ’06. 5월 제5차 중·일 전략대화(베이징, 구이저우)
- ’06. 5월 ACD 외교장관회의(도하) 계기 중·일 외교장관회담
- ’06. 7월 ASEAN+3 외교장관회의(쿠알라룸푸르) 계기 중·일 외교장관회담
- ’06. 8월 고이즈미 총리 야스쿠니신사 참배
- ’06. 9월 제6차 중·일 전략대화(도쿄)
- ’06.10월 아베 총리 방중
- ’06.11월 APEC 비공식 정상회담(하노이) 계기 중·일 정상회담
- ’07. 1월 ASEAN+3(필리핀 세부) 계기 중·일 정상회담
- ’07. 1월 제7차 중·일 전략대화(베이징, 항저우)
- ’07. 2월 리자오싱(李肇星) 외교부장 방일
- ’07. 4월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방일
- ’07. 5월 ASEM 외교장관회의(함부르크) 계기 중·일 외교장관회담
- ’07. 6월 한·중·일 외교장관회담(제주도) 계기 중·일 외교장관회담
- ’07. 6월 G8 정상회담(하일리겐담) 계기 중·일 정상회담
- ’07. 8월 ASEAN+3 외교장관회의 계기 중·일 외교장관회담
- ’07. 8월 차오강촨(曹剛川) 국방부장 방일
- ’07. 9월 APEC 비공식 정상회담(시드니) 중·일 정상회담
- ’07. 9월 자칭린(賈慶林) 전국 정협 주석 방일
- ’07. 9월 중·일 수교 정상화 35주년 기념 축전 교환
- ’07.12월 제1차 중·일 경제고위층 대화(베이징)

- ’07.12월 후쿠다 총리 방중
- ’08. 2월 제8차 중·일 전략대화(베이징)
- ’08. 4월 양제츠(楊潔篪) 외교부장 방일
- ’08. 5월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방일
- ’08. 5월 후쿠다 총리, 사천성 ‘원촨 대지진’에 관해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및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에 각각 위로 전보 발송
- ’08. 6월 제2차 한·중·일 외교장관회담(도쿄) 계기 양제츠(楊潔篪) 외교부장 방일
- ’08. 7월 G8 정상회담(홋카이도) 계기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방일
- ’08. 7월 ASEAN 외교장관회의(싱가포르) 계기 중·일 외교장관회담
- ’08. 8월 후쿠다 총리, 베이징올림픽 개막식 참석 계기 방중
- ’08. 8월 고무라 외상, 베이징올림픽 관전 계기 방중, 중·일 외교장관회담
- ’08.10월 ASEM 정상회의 참석 차 아소 수상 방중
- ’08.11월 APEC 비공식 정상회담(리마) 계기 중·일 정상회담
- ’09. 1월 제9차 중·일 전략대화(도쿄)
- ’09. 2월 나카소네 외무대신 방중
- ’09. 4월 G20 금융정상회담(런던) 계기 중·일 정상회담
- ’09. 4월 ASEN+3 정상회의 계기 중·일 총리간 회담
- ’09. 4월 아소 총리 방중, 중·일 총리회담
- ’09. 6월 제2차 중·일 경제고위급대화(도쿄)
- ’09. 6월 제10차 중·일 전략대화(도쿄)
- ’09. 6월 한·중·일 정상회의 계기 중·일 정상회담(베이징)
- ’09.11월 양제츠(楊潔篪) 외교부장 방일
- ’09.11월 량광례(梁光烈) 외교부장 방일
- ’09.12월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 방일
- ’09.12월 오자와 민주당 간사장 방중
- ’10. 1월 FEALAC 외교장관회의 계기 중·일 외교장관회담(도쿄)
- ’10. 4월 핵안보정상회의 계기 중·일 정상회담(워싱턴)
- ’10. 5.30-6.2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방일
- ’10. 8월 제3차 중·일 고위급 경제대화 및 외교장관회담(베이징)
- ’10.10월 ASEM 계기 중·일 정상회담(브뤼셀)
- ’10.10월 ASEAN+3 계기 중·일 전략대화(도쿄)
- ’11. 2월 제11차 중·일 전략대화(도쿄)
- ’11. 7월 중·일 외교장관 회담(베이징)

- ’11.11월 APEC 계기 중·일 정상회담(호놀룰루)
- ’11.11월 중·일 외교장관 회담(베이징)
- ’11.12월 제12차 중·일 전략대화(베이징)
- ’11.12월 노다 일본총리 방중
- ’12. 6월 제13차 중·일 전략대화(일본)
- ’12. 7월 ARF 계기 중·일 외교장관회담(프놈펜)
- ’12. 8월 야마구치 일본 외교차관 방중
- ’12. 9월 APEC 계기 중·일 정상 비공식 회동(블라디보스톡)
- ’12. 9월 일본 정부의 조어도 국유화(매입) 조치
- ’13. 1월 하토야마 전 총리 방중
- ’13. 1월 야마구치 공명당 대표 방중
- ’14. 8월 ARF 계기 중·일 외교장관 회담(미얀마)
- ’14.11월 야치 NSC 사무국장 방중
- ’14.11월 APEC 계기 중·일 정상회담(베이징)
- ’15. 4월 아시아·정상회의 계기 중·일 정상회담(인도네시아)
- ’15. 6월 오타 국토교통대신 방중(조어도 국유화 조치 이후 2년 만에 각료급 인사 방중)
- ’15. 6월 아소 부총리 방중(제5차 중·일 재무장관회의 개최)
- ’15. 7월 야치 NSC 사무국장 방중
- ’15. 8월 ARF 계기 중·일 외교장관 회담(말레이시아)
- ’15.10월 양제츠 국무위원 방일
- ’15.11월 한·일·중 정상회의 계기 중·일 정상회담(서울)
- ’16. 4월 중·일 외교장관 회담(베이징)

다. 중·러 관계

1) 관계 추이

가) 관계 수립 및 긴장 관계

- 중국 건국(’49.10월) 이후 스탈린 사망(’53.3월)시까지 양국은 긴밀한 우호협력 관계 유지
  - ’49.10월 소련, 중국 정부 승인
  - ’49.12월 마오쩌둥(毛澤東), 소련방문

- '50. 2월 중·소 우호동맹 상호원조조약 체결(30년 기한)
- '50.10월 한국전쟁에서 對북한 공동지원

○ 그러나, 1950년대 중반부터 양국 간 관계에 긴장 조성
- 소련 공산당 20차 전당대회('56.12월)시, 후루시초프의 서방과의 평화공존원칙 천명에 대해 중국 측은 비판적 태도 견지
- 소련혁명 40주년 기념식 및 제1차 세계공산당대회(마오쩌둥 참석, '57.11월)부터 중·소간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주도권 다툼 전개
- 소련 측이 원자탄 제조기술의 對중국 제공을 거부('59.6월)함에 따라 양국관계는 결정적으로 악화되었으며, 후루시초프는 중국을 "교조주의", 중국은 소련을 "수정주의"라 공개 비난

○ 이러한 양국 간 긴장관계는 국경선 영토분쟁을 위요한 무력충돌('69.3월)로 이어져 양국관계는 최악의 상태에 직면
- 중국 全人大 상무위, "중·소 우호동맹 상호원조조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79.4월)
- '80.4월 同 조약 기한만료로 자동 폐기

나) 관계 정상화

○ '82년 이래 중·소 간 외무차관급 관계개선 회담 개최('88.6월까지 12차례 회담 개최)
- 중국 측은 소위 3대 장애요소의 우선 제거를 주장하고 특히 캄푸챠(現 캄보디아) 문제 해결을 계속 주장

※ 3대 장애요소('83.3월 제3차 회담 시 중국 측 제시)
- 중·소 국경 및 중국·몽골 국경지역 소련군 감축
- 아프가니스탄내 소련군 철수
- 캄푸챠(現 캄보디아) 문제에 있어 베트남 지원 중지

○ 1980년대 중반 소련의 고르바쵸프 정권 등장이래 對아시아 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적극 추진, 3대 장애요소에 대한 일부 양보적 자세 표명
- '87.4월 몽골 주둔 소련군(7.5만 명)중 1만명 철수 개시
- '88.4월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간 아프간 내전 종식을 위한 제네바 평화협정 조인으로 '89.2월까지 소련군 철수 합의
- '88.5.26 베트남, 캄푸챠 주둔 베트남군 철수계획 발표
- '88.6-12월말까지 5만 명 철수, '90년에 완전철수

○ 첸치천(錢其琛) 중국 외교부장 訪蘇('88.12월) 및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상 방중('89.2월)에 이어 고르바쵸프 방중('89.5월)으로 양국관계 정상화

※ 고르바쵸프 訪中 결과

- 黨對黨 관계를 포함한 양국관계 정상화에 완전 합의
- 고르바쵸프, 中·蘇 적대관계와 관련한 소련의 책임인정
- 캄보디아문제 해결방안 합의에는 실패

○ 관계 정상화 이후 실질관계 증진을 위해 리펑(李鵬) 총리는 중국 총리로서는 26년 만에 소련을 방문('90.4월), 양국 간 우호협력 증진을 위한 정부 간 6개 협정을 체결

※ 협정내용

- 국경병력 상호감축 및 군사적 신뢰구축에 관한 협정
- 경제과학 및 기술의 장기협력에 관한 협정
- 核발전소 건설을 위한 소련의 對中 차관공여에 관한 협정(1백만 메가와트급 핵발전소 2개)
- 외교협의에 관한 의정서(정기적 외교협의회 개최)
- 소비재 수출을 위한 중국의 對蘇 정부 신용공여에 관한 협정(3억 3천만 불 상당)
-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 및 연구에 관한 협정

○ 중·러 양국은 '96.4월 옐친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설정하고 정치, 군사, 경제 등 제반 분야에서 협력 추진
- 이러한 전략적 협조의 기조하에 접경국인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과 함께 '96.4월 정상회담을 개최, "Shanghai Five"(후에 상하이협력기구로 발전)라는 협의체 출범

○ '00년 이후 양국 정상간 매년 정기적 상호방문 등 양국 고위인사 정례협의 채널 구축을 통해 긴밀한 양자관계를 관리하는 한편, '01.6월 출범한 상하이협력기구(SCO) 및 중·러·인 외교장관 협의 등 다자협의 채널을 통해 지역 및 국제문제에 대한 협력 증진 도모

○ '01.7월 장쩌민(江澤民) 주석의 러시아 방문 시, 양국은 '중·러 선린우호협력조약'을 체결, 향후 양국관계 발전을 위한 정치적 틀 형성

○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은 '03년도 SCO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주석 취임 후 최초 순방국으로 러시아를 방문
- 동 방문 시, 러시아 석유회사(Yukos Oil)와 중국석유공사(CNPC)는 Angarsk-大慶간 송유관 건설 프로젝트(약 2,400㎞, 약 20-25억 불 소요)에 합의한바, 이를 통해 양국은 경제적인 분야에서도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기초 마련

○ 이후 양국은 고위 인사 간 상호방문 확대, 경제협력 강화 및 국내 문제, 지역·국제 문제에서의 상호협력을 중심으로 제반 분야에서 협력 강화

- '04.10월 푸틴 대통령 방중 시 후진타오(胡錦濤) 주석과 '중·러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고, 대만, 티베트, 체첸 문제 등 상호주권 및 영토보존 관련 중대 문제에 대한 상호지지 입장 표명
- 또한, 중·러 양국은 〈동부국경조약보충협정〉을 체결하고, '05.6월 동 비준서를 교환하여 지난 '69.3월 양국 간 무력충돌까지 불러왔던 국경선 문제를 깨끗하고 철저히 해결

- 국경선 문제의 완전한 해결로 양국관계 발전의 가장 큰 장애가 해소됨에 따라, '05년에는 중·러 관계가 급속도로 발전하여, 양국 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가 심화
  -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의 '05.5월 및 '05.7월 연이은 방러 및 "21세기 국제질서에 관한 공동성명" 발표

- '09.6월 중·러 수교 60주년 계기 胡주석 방러, '09.10월 푸틴 총리 방중 등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내실화를 도모하면서 국제금융질서 재편, 6자회담 재개 등 국제현안 관련 공조 추구

- '09.10월 푸틴 총리 방중 결과, 양국은 에너지협력을 포함한 55억 불 상당의 상업계약 체결, Gazprom(러시아 국영가스회사)과 중국석유공사(CNPC)간 러시아산 가스의 중국운송에 관한 협정 서명

- '11.10월 및 '12.6월 푸틴 총리 방중 계기에는 중·러 양국 지도자 간 양자관계, 경제협력, 인문교류 증진 방안과 함께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대중국 공급문제, 에너지 협력, 양국 간 교역확대 등 경제·통상 실질협력 증진방안 등이 비중있게 논의(푸틴 총리는 '11년 대통령 출마 의사 발표 이후 최초 해외순방국으로 중국을 방문)

- '13.3월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전임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에 이어 주석 취임 후 최초 순방국으로 러시아를 방문
  - 동 방문 시 중·러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전면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 심화 방안에 대해 협의한 후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양국 간 선린우호협력 조약 2013-16년간 행동계획, 중국 석유천연가스공사(CNPC)와 러시아 Gazprom간 동부노선을 통한 러시아 천연가스의 중국내 공급사업 양해각서, 러시아 극동개발부와 중국 상업부 간 협력협정 등 총 35개 문서에 서명

2) 시진핑(習近平) 주석 집권 이후 중·러 관계

- 중·러 양측 공히 양국 관계가 "역사상 최상의 단계에 있다"고 수시로 평가할 만큼 긴밀한 관계를 구축 중
  -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13.3월 취임 후 첫 해외순방지로 러시아를 국빈방문한 이후, '15년에만 러시아 전승기념 행사(5월) 및 BRICS/SCO 정상회의(7월) 참석 차 2차례 방러하였고, 푸틴 대통령은 중국의 반파시스트 및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기념행사 참석차 방중하는 등 양국 간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 중

- 2013년 이후 중·러 간 주요 협력 동향
  - (양자 협력) △중·러 간 역대 최대 규모의 가스공급(동부노선) 계약 타결('14.5월), △중국의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유라시아 경제연맹 상호연계 협력 협정 체결('15.5월)/'15.9월 푸틴 대통령 방중 계기 양측 간 20여개의 협력사업 서명('서부노선'에 해당하는 대규모 천연가스 계약 체결 등)
  - (지역 및 국제문제 협력) △'15년 전승 70주년 기념행사에 양국 정상의 상호 참석,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이란핵문제, 북핵문제 등에 있어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으며, △CICA, BRICS, SCO 등 지역협력체의 공동 성원으로서 지역 및 국제문제 대응에 있어 긴밀하게 협력 중, △중국 주도의 일대일로 및 러시아 주도의 유라시아경제연맹 연계 및 협력 강화

3) 관계 발전 혹은 갈등 요인과 향후 전망

가) 발전 요인

- 중·러 양국 최고지도부 간 정치적 신뢰 및 유대가 강할 뿐만 아니라, 양국 정상이 매년 정기적으로 상호방문을 실시하고, UN, SCO(상하이협력기구), APEC, ASEM 정상회의 등 지역/국제무대에서의 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
  - '10년 이후, 중국은 러시아의 제1위 교역대상국/러시아는 '15년 중국 주도의 AIIB에 가입하는 등 경제, 에너지, 군사 분야 등 협력을 강화 중
- 한편 양국은 자국의 안정을 해칠 수 있는 역내 이슬람 세력(러시아내 체첸세력, 중국의 동투르키스탄 독립운동 세력)에 대한 대처라는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고, SCO(상하이협력기구) 등 지역기구 내에서의 상호 협력을 더욱 확대

나) 갈등 및 한계 요소

- 첫째, 양국 간의 역사적으로 뿌리 깊은 불신 문제
  - 냉전시기 수십 년간 양국은 사회주의권의 양대 강국으로서 경쟁하고 대립하는 가운데 국경지대 무력충돌 경험
- 둘째, 양국 모두 중·러 관계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
- 셋째, 국경을 접하고 있는 러시아의 극동지역과 중국 동북부 지방 인구의 불균형
  - 러시아 측은 중국인의 러시아 불법입국 문제에 대해 우려
- 넷째, 중앙아시아를 둘러싼 중·러 간 경쟁
  -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의 확장을 억제하기 위해 양국은 공동의 이익을 가지고 있으나, 이들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 행사에는 경쟁관계를 형성

다) 향후 전망

- 우크라이나 사태, 남중국해 문제 등을 두고 중·러 양국이 공히 미국과 대립하고 있는 형세를 보이고 있는바, 자국의 이익을 수호하고 역내 미국의 영향력을 차단하고자 하는 중·러 양국의 공통된 이해가 양국 관계를 더욱 밀착시키는 계기로 작용
  - 따라서, 향후 중·러 관계는 양자관계 뿐만 아니라 주요 지역, 국제문제에 있어 더욱 우호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자 할 가능성이 다대

※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14.5월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시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러측 입장에 대한 이해를 표명한 바 있으며, 푸틴 대통령은 동 정상회담 시 남중국해 문제 관련, "(미국을 명시적으로 지목하지는 않으면서도) 누군가가 필리핀, 베트남을 배후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언급함으로써 남·동중국해 문제의 양자 차원의 해결이라는 중측 입장에 대한 지지 표명

4) 중·러 간 주요일지

- '84.12월 아프히포프 제1부수상 방중(경제기술협력협정 체결 및 중·소 경제무역 기술 합동위원회 설치 합의)
- '84.12월 완리(萬里) 부총리 방러(안드로포프 장례식 참석)
- '85. 3월 리펑(李鵬) 부총리 방러(체르넨코 장례식 참석)
- '85. 7월 야오이린(姚依林) 부총리 방러('86-'90년간 장기무역협정 체결)
- '85.12월 리펑(李鵬) 부총리 방러
- '86. 3월 아프히포프 소련 제1부수상 방중(제1차 중·소 경제무역 과학기술협력 회의 개최)
- '88.12월 첸치천(錢其琛) 외교부장 방러
- '89. 2월 세바르드나제 외교장관 방중(고르바쵸프 黨서기장 방중일정 합의)
- '89. 5월 고르바쵸프 黨서기장 방중
- '90. 1월 로가쵸프 부수상 방중
- '90. 4월 리펑(李鵬) 총리 방러
- '90. 5월 류화칭(劉華淸) 黨 및 국가중앙군사위 부주석 방러
- '91. 5월 야조프 국방상 방중
- '91. 5월 장쩌민(江澤民) 총서기 방러
- '92. 3월 코지레프 외무장관 방중
- '92.11월 첸치천(錢其琛) 외교부장 방러
- '92.12월 옐친 대통령 방중
- '93.11월 그라쵸프 국방장관 방중
- '94. 1월 코지레프 외무장관 방중
- '94. 4월 리펑(李鵬) 총리 방러

- ’94. 5월 체르노미르딘 총리 방중
- ’94. 6월 첸치천(錢其琛) 외교부장 방러
- ’94. 7월 츠하오톈(遲浩田) 국방부장 방러
- ’94. 9월 장쩌민(江澤民) 주석 방러
- ’95. 5월 그라쵸프 국방장관 방중
- ’95. 5월 2차대전 50주년 기념식 계기 장쩌민(江澤民) 주석 방러
- ’95. 6월 리펑(李鵬) 총리 방러
- ’96. 4월 옐친 대통령 방중
- ’96.12월 리펑(李鵬) 총리 방러(제1차 정례총리회담)
- ’97. 4월 장쩌민(江澤民) 주석 방러
- ’97. 5월 체르노미르딘 총리 방중
- ’97.11월 옐친 대통령 방중
- ’97.12월 러시아 제1부총리 방중
- ’98. 2월 리펑(李鵬) 총리 방러
- ’98.11월 장쩌민(江澤民) 국가주석 방러
- ’99. 2월 주룽지(朱鎔基) 총리 방러
- ’99. 8월 클레바노프 부총리 방중
- ’99.12월 옐친 대통령 방중
- ’00. 1월 츠하오톈(遲浩田) 국방장관 방러
- ’00. 2월 탕자쉬안(唐家璇) 외교부장 방러
- ’00. 3월 클레바노프 부총리 방중
- ’00. 7월 푸틴 대통령 방중
- ’00.11월 카시야노프 총리 방중
- ’00.11월 APEC 정상회의(브루나이) 참석 계기 중·러 정상회담
- ’00.12월 리란칭(李嵐淸) 부총리 방러
- ’01. 4월 탕자쉬안(唐家璇) 외교부장 방러
- ’01. 6월 상하이협력기구(SCO) 창립 계기 푸틴 대통령 방중
- ’01. 7월 리란칭(李嵐淸) 부총리 방러
- ’01. 7월 장쩌민(江澤民) 주석 방러
- ’01. 9월 주룽지(朱鎔基) 총리 방러
- ’01.10월 상하이 APEC 정상회의 계기 중·러 정상회담
- ’01.10월 후진타오(胡錦濤) 부주석 방러
- ’01.11월 UN총회(뉴욕) 참석시 중·러 외교장관 회담

- ’01.12월 중·러 차관급 전략안정협의회(모스크바)
- ’02. 1월 SCO 외무장관회의 참석 계기 이바노프 러시아 외무장관 방중
- ’02. 4월 모스크바 SCO 외무장관회의 계기 탕자쉬안(唐家璇) 외교부장 방러
- ’02. 6월 SCO 정상회의 계기 중·러 정상회담(상트 페테르부르그)
- ’02. 7월 리란칭(李嵐淸) 부총리 방러
- ’02. 7월 “중·러 선린우호협력 조약” 체결 1주년 축전 교환
- ’02. 8월 ARF 외무장관회의(브루나이) 참석 시 중·러 외교장관회담
- ’02. 8월 카시야노프 총리 방중
- ’02.10월 풀리코프스키 러시아 극동 연방지구 대통령 전권대표 방중
- ’02.11월 탕자쉬안(唐家璇) 외교부장 방러
- ’02.12월 푸틴 대통령 방중
- ’03. 2월 이바노프 외무장관 방중
- ’03. 4월 카자흐스탄 SCO 외무장관회의 중·러 외교장관 회담
- ’03. 5월 상트 페테르부르그 건도 300주년 기념식 계기 후진타오(胡錦濤) 주석 방러
- ’04. 4월 리자오싱(李肇星) 외교부장 방러 및 이바노프 국방부장 방중
- ’04. 9월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방러
- ’04.10월 푸틴 대통령 방중
- ’05. 2월 제1차 전략대화 개최(모스크바)
- ’05. 4월 다이빙궈(戴秉國) 외교부 부부장 방러
- ’05. 5월 2차 대전 전승 60주년 기념행사 계기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방러
- ’05. 6월 「중·러 동부국경조약 보충협정」 비준서 교환
- ’05. 6월 그리즐로프 두마(하원) 의장 방중
- ’05. 7월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방러
- ’05. 9월 차오강촨(曹剛川) 군사위원회 부주석 겸 국방부장 방러
- ’05. 9월 UN창립 60주년 정상회의 계기 중·러 정상회담
- ’05. 9월 UN창립 60주년 정상회의 계기 중·러 외교장관회담
- ’05. 9월 미로노브 러시아 연방위원회 주석 방중
- ’05.10월 SCO 총리회의 계기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방러
- ’05.10월 제2차 전략대화 개최(베이징)
- ’05.11월 제13차 APEC 비공식 정상회담(부산) 계기 중·러 정상회담
- ’05.12월 ASEAN+3 외교장관회의(쿠알라룸푸르) 참석 계기 중·러 외교장관회담
- ’05.12월 ASEAN+3 정상회의(쿠알라룸푸르) 참석 계기 중·러 정상회담
- ’05.12월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 푸틴 대통령의 새해 축전 교환, 중국 내에서의

''06 러시아의 해' 선포

- '06. 1월 아프가니스탄 국제회의(런던) 계기 중·러 외교장관회담
- '06. 3월 누르갈리예프 내무부장 방중
- '06. 3월 푸틴 대통령 방중
- '06. 5월 6개국 외교장관회의(뉴욕) 계기 중·러 외교장관회담
- '06. 5월 라브로프 외교장관 방중
- '06. 5월 우방궈(吳邦國) 전인대 상무위원장 방러
- '06. 7월 G8 정상회담 계기 중·러 정상회담(상트 페테르부르그)
- '06. 7월 국무위원 겸 공안부장 저우융캉(周永康) 방러
- '06. 7월 ASEAN+3 외교장관회의(쿠알라룸푸르) 계기 중·러 외교장관회담
- '06. 9월 우방궈(吳邦國) 전인대 상무위원장 방러
- '06. 9월 UN총회(뉴욕) 계기 중·러 외교장관회담
- '06.10월 류옌둥(劉延東) 전국정협 부주석 방러
- '06.10월 다이빙궈(戴秉國) 외교부 부부장 방러
- '06.11월 프라드코프 총리 방중
- '06.11월 APEC 비공식 정상회담(부산) 계기 중·러 정상 및 외교장관회담
- '06.12월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 푸틴 대통령의 새해 축전 교환
- '07. 1월 APPF 총회 참석 계기 쉬자루(許嘉璐)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방러
- '07. 2월 RIC 외교장관회의(뉴델리) 계기 중·러 외교장관회담
- '07. 3월 우이(吳儀) 부총리 방러
- '07. 3월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방러
- '07. 5월 이라크 국제회의(샤름엘세이크) 계기 중·러 외교장관회담
- '07. 5 월 리구이셴(李貴鮮) 전국정협 주석 방러
- '07. 6월 아시아협력대화 외교장관회의(서울) 계기 중·러 외교장관회담
- '07. 6월 G8 정상회담(하일리겐담) 계기 중·러 정상회담
- '07. 6월 우이(吳儀) 부총리 방러
- '07. 7월 양제츠(楊潔篪) 외교부장 방러
- '07. 8월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담(비슈케크) 계기 중·러 정상회담
- '07. 8월 상하이협력기구(SCO) 합동군사훈련 계기 중·러 정상회담
- '07. 9월 APEC 비공식 정상회담(시드니) 계기 중·러 정상회담/APEC 장관급회의(시드니) 계기 중·러 외교장관회담
- '07. 9월 러시아연방위원회 주석 미로노브 방중
- '07. 9월 주코프 부총리 방중

- ’07.10월 RIC 외교장관회의(하얼빈) 계기 리자오싱(李肇星) 외교부장 방러
- ’07.10월 리자오줘(李兆焯) 전국정협 부주석 방러
- ’07.11월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방러
- ’08. 1월 트루트네프 천연자원부장관 방중
- ’08. 5월 메드베데프 대통령 방중
- ’08. 7월 G8 정상회담(홋카이도) 계기 중·러 정상회담
- ’08. 7월 라브로프 외교장관 방중
- ’08. 7월 이고르 세친 부총리 방중
- ’08. 8월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담(두샨베) 계기 중·러 정상회담
- ’08.10월 왕치산(王岐山) 부총리 방러
- ’08.10월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방러 및 중·러 총리회담
- ’08.11월 사포노프 극동연방구 주재 대통령 전권대표 방중
- ’08.11월 G20 금융시장과 세계경제 정상회의(워싱턴) 계기 중·러 정상회담
- ’08.11월 APEC 비공식 정상회담(리마) 계기 중·러 정상회담
- ’08.12월 세르듀코프 국방장관 방중
- ’09. 1월 알렉산드르 쿠드린 러시아 재정부 장관 방중
- ’09. 2월 이고르 세친 러시아 부총리 방중
- ’09. 3월 알렉산드르 주코프 부총리 방중
- ’09. 4월 중·러 수교 60주년 참석차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 방중
- ’09. 4월 이고르 세친 러시아 부총리 방중
- ’09. 4월 양제츠(楊潔篪) 중국외교부 장관 방러
- ’09. 5월 우방궈(吳邦國)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 방러
- ’09. 5월 멍젠주(孟建柱) 중국 국무위원 방러
- ’09. 5월 다이빙궈(戴秉國) 국무위원, BRIC’s 안전사무고위급회의 참석 차 방러
- ’09. 6월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 계기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방러
- ’09. 7월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무부 부부장 방러
- ’09. 9월 G20 피츠버그 정상회담 계기 중·러 정상회담
- ’09.10월 푸틴 러시아 총리 방중
- ’09.11월 APEC(싱가포르) 계기 중·러 정상회담
- ’10. 3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부주석 방러
- ’10. 4월 BRICs 정상회의(브라질리아) 계기 중·러 정상회담
- ’10. 5월 2차대전 전승 65주년 기념행사 계기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방러
- ’10. 6월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타슈켄트) 계기 중·러 정상회담

- '10. 9월 중·러 정상회담(베이징)
- '10.11월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방러 및 중·러 총리회담
- '10.11월 G20정상회의 계기 중·러 정상회담(서울)
- '11. 4월 메드베데프 대통령 방중
- '11. 6월 SCO정상회의 참석 계기 중·러 정상회담(카자흐스탄 마스터나)
- '11.10월 중·러 정기총리회담(베이징)
- '11.11월 SCO총리회의 계기 중·러 총리회담(상트 페테르부르그)
- '12. 4월 리커창(李克强) 부총리 방러
- '12. 5월 라브로프 외교장관 방중
- '12. 6월 푸틴 대통령 방중
- '12. 8월 제7차 중·러 전략안보회담(모스크바)
- '12. 9월 APEC 계기 중·러 정상회담(블라디보스톡)
- '12.12월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방러
- '13. 2월 양제츠(楊潔篪) 외교부장 방러
- '13. 2월 중·러 에너지협력위원회 개최(베이징)
- '13. 3월 시진핑(習近平) 주석 방러
- '13. 2월 양제츠(楊潔篪) 외교부장 방러
- '13. 3월 시진핑(習近平) 주석 방러
- '13. 8월 양제츠(楊潔篪) 국무위원 방러(제9차 중·러 전략안보협상 개최)
- '13.10월 메드베데프 총리 방중
- '14. 4월 라브로프 외교장관 방중
- '14. 5월 CICA 정상회의 참석 계기 푸틴 대통령 방중
- '14.10월 리커창(李克强) 총리 방러(제19차 정기 총리회담)
- '14.11월 APEC 정상회의 참석 계기 푸틴 대통령 방중
- '15. 4월 왕이(王毅) 외교부장 방러
- '15. 5월 시진핑(習近平) 주석 방러
- '15. 7월 BRICs, SCO 회의 참석 계기 시진핑(習近平) 주석 방러(우파)
- '15. 9월 푸틴 대통령 방중
- '15.12월 메드베데프 총리 방중
- '16. 3월 왕이(王毅) 외교부장 방러
- '16. 6월 푸틴 대통령 방중

라. 중·ASEAN 관계

1) 중·ASEAN 관계 변화 추이

- 냉전시기 경제원조를 기반으로 한 일본의 동남아 제국에 대한 침투는 중국의 사상 침투보다 훨씬 큰 영향력을 발휘하여, 동남아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이 지배적
- 그러나, 일본은 동남아 제국보다는 중국과의 교역을 더 중시하고 있고, 일본 기업들은 동남아 대신 중국으로 투자를 전환하고 있는바, 이로 인해 일본의 동남아에 대한 영향력도 그만큼 약화
- 반면 중국의 동남아에 대한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제고되었는바, 국경분쟁 및 영토분쟁 등으로 인해 심화되었던 동남아 국가들의 중국에 대한 불신감이 중국의 선린우호정책 추구로 일정부분 약화

2) 중·ASEAN 관계발전 현황

- 중국은 ASEAN으로 대표되는 이들 동남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는 바, 무역 투자 분야 등에서 높은 관계 발전을 시현
  - 중국은 '01.11월 ASEAN과 FTA체결에 합의한 데 이어, '02.11월에는 「중·ASEAN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Framework Agreement」를 체결
  - 동남아 국가들은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일대일로 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중국 주도로 설립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모두 참여
- 또한, 중국은 ASEAN측과 "비전통적 안보분야에서의 협력 관련 공동선언" 및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 선언(DOC)"을 채택
- 그러나, '10.6월 ARF 시 미측의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개입의사 표명 이후 ASEAN과의 관계를 두고 중·미 간 경쟁 심화
- '14년 이후 남중국해 내 중국의 인공섬 매립과 군사시설 배치 등을 둘러싸고, 중국과 필리핀, 베트남 등 ASEAN 일부 국가 간 분쟁이 심화되면서 ASEAN 내부에서는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싸고 중국에 대한 위협 인식이 지속 증가하는 양상
  - 특히 '16.7월 중국-필리핀 중재재판 판결에 따라 중·ASEAN 관계의 유동성 증가

3) 향후 중·ASEAN 관계 전망

- 중국·ASEAN 간 경제협력은 지속 확대되어 나갈 것이나, 아래 요인들로 인해 전폭적인 관계 개선에는 일정한 한계도 존재할 것으로 예상

- ASEAN의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이 심화됨에 따라 ASEAN 각국 내 대중 협력 강화에 대한 우려와 경계심이 확대되는 추세
-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싸고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과의 갈등이 고조될 우려가 상존하며,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준칙(COC) 협상 추진 동향 등이 중국과 ASEAN의 관계에 일정 영향을 미칠 가능성

- 향후 중국은 ASEAN 국가들의 대중 의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데 주력함과 동시에 미국, 일본 등의 ASEAN에 대한 접근 확대 노력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우선적인 주변국외교의 일환으로서 對ASEAN 중시 정책을 지속해 나갈 것으로 전망
  -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 중국으로서는 안정적 문제해결 및 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분쟁이 있는 당사국간의 양자 간 대화와 협상을 강조하면서, COC 협상을 지속해 나가는 전략을 구사해 나갈 가능성 다대

4. 양안 관계

가. 관계 추이

1) 대립시기('49–'87년)

- 중국은 '49년 이후 무력에 의한 대만통일을 주장해 오다가 '79년 개방정책 채택 이후 적극적인 평화 공세로 전환
  - '79.1월 "3通"(通商, 通航, 通郵) 및 "4流"(경제, 문화, 체육, 과학·기술 교류) 제의
  - '81.9월 평화통일 9개 방안 제의
    · 대만의 자본주의 및 군대유지 등 고도의 자치권 부여
  - '82.12월 중국 新헌법에 "특별행정구" 설치 조항 신설 및 "1국 2체제" 방식에 의한 중국통일 방식 제의

- 대만은 "三民主義 中國統一"을 주장하면서 정치적으로 대륙과의 "3불정책(不接觸, 不協商, 不談判)"을 견지하는 한편, 중국의 공산주의 및 무력사용 포기를 요구

2) 非정치적·민간차원의 교류·협력 확대시기('87–'90년)

- 대만은 폐쇄적인 대륙정책이 한계에 부딪치자 '87년 친척 방문 등 인적교류를 통한 다각적인 兩岸간 교류·협력을 촉진, 단절·고립의 兩岸관계를 교류·협력의 관계로 추진
  - '88.7월 국민당 제13차 대표대회에서 신대륙 정책 채택
    · 對중국 정책의 목표는 대륙의 민심 쟁취, 최종목표는 중국통일 건설

- '88.7월 중국은 중국 공산당과 대만 국민당 간의 협상에 의한 新헌법 제정과 연합정부 구성 제의

3) 교류·협력의 제도화 시기('90–'93년)

- '90년 이후 대만 정부의 대륙정책이 적극적 대륙정책으로 전환됨에 따라 兩岸간 교류·협력이 확대되고 제도화되기 시작
  - 중국에서는 대만의 해협교류기금회(海基會)('91.2월 설립, '92.3월 정식활동 개시)에 상응한 해협양안관계협회(海協會)가 '91.12월 설립
  - 동 海協會는 양안관계 사무 처리 시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臺灣事務辦公室)의 지도와 감독을 받고 있으며, 또한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로부터 권한위임을 받아 海基會 등 대만 유관단체와 협정을 체결

해협회(海協會)

- 사회각계 유관인사로 구성된 이사회(이사 약 80명)가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공직을 겸하고 있으나, 개인 신분자격으로 가입
- 海協會 조직은 명예회장 1명, 고문 5명, 회장 및 상무부회장 각 1명, 부회장 2명, 비서장 1명, 부비서장 4명 등을 두고 있으며, 기능부서로 비서부, 종합부, 연구부, 협조부, 연락부, 경제부 등 6개 部 설치. 양안관계에 종사하는 인원은 약 30여 명
- 사업예산은 민간찬조금, 재정부 등 국가지원 및 자문서비스 수입금 등으로 충당

○ 대만은 기존의 비현실적, 수세적 입장을 지양, 새로운 차원의 양안 관계 수립을 위해 통일 추진기구를 정비하고 각종 통일 지침을 제정·시행
- '91.3월 對중국정책 최고 지도지침으로 「국가통일강령」 제정

4개 원칙
· 국가통일은 공동 책임
· 통일은 全국민의 복지목적
· 통일은 기본인권 보장, 민주법치 실천
· 理性, 평화, 대등, 호혜 원칙하에 단계적으로 추진

3개 과정
· 제1단계(교류와 호혜단계) : 양측 간 정치실체 인정, 양측 간 교류의 질서와 규범 확립 및 교류 중개기구 설치, 민간교류 증대
· 제2단계(상호 신뢰구축과 협력단계) : 평화협정 체결, 3通 실시 및 고위인사 교류
· 제3단계(통일협상단계) : 통일협상 기구 설립 및 통일실현

○ 그러나 대만은 중국 측의 즉각적인 교류 완전 개방 요구에 대해서는 중국의 對대만 정치실체 인정, 외교 독립화 및 무력침공 의도 포기가 교류 개방의 전제조건임을 내세워 거부 태도를 고수
※ 1國 2政府 원칙에 따른 대등한 관계 수립을 도모

4) 양안간 공식접촉 모색시기('93–'99년)

○ 중국의 해협양안관계협회(海協會)와 대만의 해협교류기금회(海基會) 회장 간 회담('93.4월, 일명 汪-辜 회담)을 계기로 양안 간 준공식적 접촉 개시

汪-辜 회담

- 배경
  - 민간교류 촉진 및 교류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한 상설 대화채널 구축 필요성 대두
  - 주요 협의 의제
    - 항공기 납치범 처리, 해상밀수 · 밀입국 문제, 지적소유권 보호, 사법기관간 협조, 해상분규 문제 등
    - 경제교류, 에너지 자원개발 및 교류
    - 과학기술, 교육, 문화, 청소년 교류

- 회담개최 경과
  - '90.12월 대만 측 海基會(해협교류기금회, 회장 : 구전푸(辜振甫)) 성립
  - '91.12월 대륙 측 海協會(해협양안관계협회, 회장 : 왕다오한(汪道涵)) 성립
  - 예비회담 3회 개최 : 1차('92.3월, 베이징), 2차('92.10월, 홍콩), 3차('93.3월, 베이징)
    * "92년 공통인식(九二共識)" : 예비회담 과정에서 '하나의 중국' 문제에 대하여 각자 구두방식으로 표현한다(一個中國各者表述)고 합의('92.11월)
  - 대만 측은 상기 의제에 대해 하나씩 타결하면서 동시에 이를 실시하고자 주장하는 반면, 대륙 측은 일괄타결 입장 견지
  - '93.4.29 제1차 汪-辜회담(싱가포르)
  - '98.10.14 제2차 汪-辜회담(상하이)
    * '99.7월 리덩후이(李登輝) 대만총통의 "兩國論" 발언이후 대화 계속 중단 상태

○ 중국·대만 쌍방은 '90년대 이후 각자의 필요에 의해 '안정된 兩岸관계'를 희망, '95년 초까지 점진적인 화해와 교류 모색

장쩌민(江澤民) 주석의 對대만 제안('95.1.30, '江8點')

- 1개의 중국원칙 견지 및 대만독립 반대
- "2개 중국" 또는 "1個 중국, 1個 대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만의 이른바 "국제 생존공간 확대" 활동 반대
- 중국·대만 간 적대관계 해소를 위한 정당·단체 간 회담 개최
- 대만에 대한 무력사용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대만 동포에 대한 것이 아니라 중국통일에 간섭하고 "대만독립"을 도모하는 외국세력에 대한 것
- 중국·대만 간 경제교류협력의 대폭 발전, 대만 상인의 권익보호 및 "三通(通信, 通航, 通郵)" 실현 가속화 필요
- 중국·대만 양측 동포의 중국 문화전통 계승 및 발전 노력 촉구
- 대만 동포의 생활방식 및 자치희망을 충분히 존중
- 중국·대만 간 지도자의 상호 방문

리덩후이(李登輝) 대만총통의 對중국 공식입장('95.4.8, '李6點')

- 兩岸은 각자의 통치현실에 입각하여 중국통일을 추구
- 中華문화에 기초한 양안교류를 강화
- 양안은 경제무역 교류를 추진하고 상호보완관계를 발전
- 양안은 평등한 입장에서 국제조직에 참여하고 쌍방지도자가 국제회의에서 자연스럽게 회동
- 兩岸은 일체의 분쟁을 평화적 방식으로 해결
- 兩岸은 홍콩과 마카오의 번영을 도모하고, 민주화를 촉진

양안의 통일정책 비교

구분	중국	대만
통일원칙	• 하나의 중국 – 臺灣은 중국의 불가분의 일부분	• 하나의 중국 – 대륙과 대만은 모두가 중국의 영토 (대등·존중·호혜)
통일정책	• 一國兩制 – 兩 제도 공존 – 특별행정구 방식	• 一國兩府 또는 中國兩府(一國兩區) – 독립적 정치실체 공존 – 대등한 정부 · 지역관계(홍콩식 거부)
통일방식	• 평화통일 – 무력사용 가능성 유보	• 점진적 평화통일, 제도통일
추진단계	• 3통(通商, 通航, 通郵) 4류(經濟, 文化, 科技, 體育)	• 3단계(민간교류 → 정부 간 접촉 → 통일협상)

- 그러나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 추진된 리덩후이(李登輝) 대만 총통의 미국 방문('96.6.7-12일)을 계기로 중국은 무력위협까지 동원, 對대만 강경자세로 선회함에 따라 중국 · 대만 관계 급속히 악화
  - '95.7월 및 '95.8월, '96.3월 중국은 대만근해 미사일 발사훈련 실시
  - '95.8월 장쩌민(江澤民) 중국 국가주석, 對대만 무력사용 불포기 천명

- 대만은 중국의 강경자세에 일단 유화적 제스처로 대응하는 한편 중국의 이러한 다각적 압박에도 불구, 대만집권 국민당의 총선 과반수 의석확보('95.12월)와 리덩후이(李登輝) 대만 총통의 再당선('96.3월) 성공에 힘입어 對중국 평화공세에 병행, 기존 실용외교 지속 추진 다짐
  - '96.2.23 리덩후이(李登輝) 총통, 중·대만간 적대상태 종식 및 긴장완화를 위한 양안 간 '평화협정' 체결 추진 천명
  - '96.5.20 리덩후이(李登輝) 총통, 제9대 총통 취임사에서 대만의 국제생존 공간 확보를 위한 실용외교 지속 및 양안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 방문 용의 표명

- 리덩후이(李登輝) 총통 再당선 이후, 중국은 대만과의 관계에 있어 다소 유화적

자세로 전환하였으나 기본적으로 강성기조 유지
- '96.4.30 중국 외교부 대변인, 대만의 실용외교 중단 요구
- '96.5.1 중국해협양안관계협회, 대만 측이 제의한 "제2차 汪·辜 회담" 재개 거부

- 중국은 대만 측의 汪·辜회담 개최 제의를 거부하고, 장쩌민(江澤民) 주석의 8개항 제안에 의거한 정치협상 개최를 계속 견지
  - 海協會는 海基會에 대한 정치협상의 절차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준비회담을 갖자고 제의
  - 장쩌민(江澤民) 주석은 15기 黨 대회 시 양안 간 적대상태 종식을 위한 회담 개최를 다시 제의('97.9.12)

- '98.7.14-18, 주리란(朱麗蘭) 중국 과학기술부장이 장관급 관리로는 처음으로 대만 방문
  - 베이징대 교수 자격으로 세미나 참석차

- '98.10.14 양안 대화가 5년 만에 재개되어 대만 해협교류기금회 회장 구전푸(辜振甫) 가 중국을 방문, 중국 측 파트너인 왕다오한(汪道涵) 회장과 회담을 갖고, 아울러 10.18 장쩌민(江澤民) 주석 및 첸치천(錢其琛) 부총리 예방

- '99.7.9 리덩후이(李登輝) 총통의 "양국론(兩國論)" 발언으로 중국 측이 다시 무력 사용 불포기 입장을 재천명하는 등 양안관계는 긴장과 이완 반복

- 중국은 1개 중국 원칙(중화인민공화국정부가 중국의 유일한 합법정부이며 대만은 중국의 불가분의 일부분임)이 국제사회의 공인된 원칙이라면서 대만의 국제적 고립과 대만문제의 국제화 방지에 노력
  - 중국은 대만문제의 배후에는 미국 등 외세의 개입이 작용한다고 판단, 서방과의 관계에서 다소 희생을 각오하더라도 강경입장 고수

- 대만은 유엔 再가입 및 未수교국과의 관계발전 등 국제 생존공간 확대를 위한 "彈性實務외교"를 추진
  - 未수교국가에 대해 휴가외교, 사적방문, 금전외교, 다자외교 참가 등 수단을 사용하여 접근

5) '臺獨'을 둘러싼 긴장국면하의 실질교류 확대시기('00-'08년)

- '99년 중국 해협회 왕다오한(汪道涵) 회장의 대만 방문이 양측 간 기존입장의 고수로 무산되었고, 이후 대만은 총통선거 정국으로 돌입, 양안관계가 선거의 쟁점으로 부상
  - 국민당 롄잔(連戰) 후보는 리덩후이(李登輝) 총통의 "양국론" 계승을 주장
  - 무소속 쑹추위(宋楚瑜) 후보는 상대적으로 친대륙적인 중도노선을 주장
  - 민진당 천수이볜(陳水扁) 후보는 양안관계를 "두개 국가의 특수관계"로 규정하면서 대만의 독립을 주장

※ 중국은 '00.2.21 대만백서를 발표, 과거 "대만의 독립추진 및 외국의 대만침공의 경우" 이외에 "통일협상의 무기한 연기"도 무력사용의 요건으로 추가하는 등 무력위협을 통한 대만독립파에 대한 공세를 강화

- 대만 총통선거('00.3.18)에서 그간 대만독립을 주장하던 천수이볜(陳水扁)이 당선되어 양안 간 긴장고조의 우려가 높았으나 양측은 상호 자제 및 관망자세 견지
  - 천수이볜(陳水扁) 당선자는 양안 간 "대등한 관계"라면 "하나의 중국"을 포함한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할 용의 표명(3.20)
  - 장쩌민(江澤民) 주석은 양안 간 대화와 협상은 "하나의 중국" 원칙이 전제조건이라고 천명함으로써 동 제의를 사실상 거부(3.20)
  - 천수이볜(陳水扁) 총통은 취임식 연설(5.20)에서 "대만독립을 선언하지 않겠다"고 천명하였고, 이에 대해 중국은 대만이 "하나의 중국" 원칙 수용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등 "성의"가 결여되어 있다고 평가하였으나, 전반적으로는 상호 절제된 자세 견지
  - 천수이볜(陳水扁) 총통은 양안 간 정상회담을 제의(6.20)했으나,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 수용을 요구하며 사실상 동 제의 거부

'00.5.20일 陳水扁 총통 취임시 「四不一沒有」 발표

- 중국이 무력침공 않으면 독립선언을 하지 않는다.
- 국호를 변경하지 않는다.
- 兩國論을 입헌하지 않는다.
- 현 상태를 변화시키는 대만독립에 대한 국민투표를 추진하지 않는다.
- 국가통일강령 및 국가통일회 폐지 문제는 없다.

- '02.8월 천수이볜(陳水扁) 대만 총통의 "一邊一國論" 등 "대만 독립" 관련 언행과 "국제 생존 공간" 확대 활동을 위요하여 양안 간 긴장과 갈등도 있었으나 양안관계는 대체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경제·통상분야에서는 계속적으로 협력 확대
  ※ '一邊一國論' 발언 : 陳 총통은 민진당 주석 취임('02.7) 이후 '양안 각 측은 각각의 국가'라는 '一邊一國論'을 발표하여 대만 독립 노선 강화

- '02.11월 제16기 당대회 및 '03.3월 전인대를 통해 등장한 후진타오(胡錦濤) 주석 중심의 중국 신정부는 기존의 對대만 정책의 근간을 대부분 계승, "하나의 중국" 원칙하에 어떤 문제도 대만 측과 대화할 수 있음을 천명하고, "一國兩制, 평화통일", 장쩌민(江澤民)의 "8개항 주장", 조속한 직접 "3通" 실현 등을 주장
  ※ 중국 측은 '02.11월 제16차 당대회 시 "하나의 중국"이라는 전제하에 ① 양안 간 적대상태를 종결짓는 대화를 할 수 있으며 ② 대만지구의 국제사회에서의 그에 상응하는 경제, 문화, 사회 공간문제에 대해 대화할 수 있으며 ③ 대만당국의 정치지위문제에 대해 대화할 수 있다고("3個可以談") 천명
  ※ 후진타오(胡錦濤) 당총서기는 제10기 全人大 1차회의 기간중('03.3.11) 對대만 업무에 관한 "4가지 의견"을 제시
  ① 시종일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고
  ② 양안 간의 경제·문화 교류를 촉진하며
  ③ 대만 주민에게 거는 희망을 관철하며
  ④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양안 동포들이 단결하여 공동 추진한다.

- '03.5월 대만의 WHO 옵서버 가입 좌절, 대만의 중국 SARS 기증물품 거절, WTO의 대만 대표단 명칭 변경 요구 등 문제로 양안관계가 어느 정도 경색

- '04.1.16 천수이볜(陳水扁) 총통은 대만 총통선거('04.3.20)와 함께 중국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위능력 제고 및 양안 간 평화구축 메카니즘 협상 개시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방위성 국민투표") 실시 계획을 발표, 이후 양안간 새로운 긴장국면에 돌입
  - 중국은 '04.1.17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동 주민투표는 양안 민중을 대립 시키고 양안관계를 파괴하는 것으로 강력히 비난
  - 과거 대만 총통선거 시 중국 측이 "무력사용 불배제" 언급 등 과민하게 반응한 것과 달리 중국 측은 강경발언을 자제하고, 다만 미·일 등 주요국으로 하여금 "방위성 국민투표"에 반대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토록 협조를 추진, 간접적으로 천수이볜(陳水扁) 총통의 재선을 막는 전략 구사
  - '04.3.20 천수이볜(陳水扁) 총통이 야당 롄잔(連戰) 후보를 근소한 표차로 누르고 총통에 재당선되었으나, "방위성 국민투표"는 투표율이 과반수에 미달(45%)하여 부결됨

- 천 총통의 선거공약인 '08년전 헌법 개정 문제 관련, 천 총통이 취임식('04.5.20)에서 국가주권, 영토, 통일, 독립에 대한 사안은 개헌작업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언급하였으나, 중국 측은 대만의 독립 감행시 무력 사용을 법률화하는 「반국가 분열법」을 추진('05.3.14 전인대 통과)

- '05.4.26-5.3 롄잔 국민당 주석의 방중과 5.5-13 쑹추위 친민당 주석의 방중, 7.6-13 위무밍(郁慕明) 대만신당 주석 방중 등 중국은 대만내 독립반대 세력과의 공식 교류를 추진하면서, 대만 내 독립세력 견제를 위해 노력 중

- 천 총통은 '06년 신년사에서 양안 경제정책으로 「有效開放 積極管理」를 발표하고, '06.2월 국가통일위원회와 국가통일강령 「終止」를 선언하여 양안관계 긴장

- '07.3월 천 총통은 대만은 △독립이 필요하고 △신헌법을 제정해야 하며 △국호를 고치고 △발전을 기해야 한다는 4가지의 필요성(要)과 함께 △좌우노선의 차이가 없어야 한다(沒有)는 4要1沒有 독립노선 발표

6) 양안관계의 평화로운 발전 형세하에서 경제·사회적 통합 강화 시기('08–'15년)

- 대만은 마잉주(馬英九) 총통 취임('08.5월)을 전후 중국에 적극적 화해 제스쳐 표명
  - 마 총통은 3不(不獨·不統·不武)정책을 양안정책기조로 천명, 3통(通商·通航·通郵)의 전면적 실현 등 對中 관계개선 의지 피력
  - 중국도 대만과의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대화창구 재개·정책결정기구 개편 등 적극 호응

※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주석은 대만 부총통 당선자('08.4월)·국민당 부주석('08.5월) 등과 잇달아 만나 '98.12월부터 중단되어 온 兩岸회담을 되살리는 데 합의 및 對대만 유화 정책 표명('08.12월)

- 양안은 '先화해협력·後통일논의'에 공감, 상호양보를 통한 신뢰구축
  - 중국은 대만의 '10년도 WHA 옵서버 자격 참가(5.18) 동의에 이어 최근 대만과 단교하고 자국과 수교하겠다고 제의한 국가들(파나마, 엘살바도르 등)의 수교 제안을 최초로 거절
    ※ 그간 中·臺灣은 더 많은 국가와 외교관계 수립을 위해 치열한 외교전을 전개, 특히 중국은 여타국과 수교 교섭 시 대만과의 '국교 단절'을 전제조건으로 제시
  - 대만도 금전외교 종말 및 외교휴전을 선언, 군병력 감축 검토 등

- '08.6월부터 양안 간 고위급회담 개최를 통해 양안 대화 재개 등 경제협력 심화·확대
  - 해협회(中)-해기회(臺) 간 11차례 회담('08.6월, '08.11월, '09.4월, '09.12월, '10.6월, '10.12월, '11.10월, '12.8월, '13.6월, '14.2월. '15.8월)

1차 ('08.6.13)	• 양안 항공직항(전세기)을 개설(주말 36편)하고 중국인의 대만관광 확대
2차 ('08.11.4)	• 大三通(通航, 通商, 通郵) 합의 – 통항 : 항공직항(전세기)을 증편(주 108편)하고 평일로 운영을 확대 – 통상 : 선박의 해운 직항운항을 허용(중국 63개항, 대만 11개항) – 통신 : 서신, 소포, 택배 직접 왕래 허용
3차 ('09.4.26)	• 금융 : 은행·증권·보험업의 감독관리협력체제 구축, 점진적 화폐결제체제 수립 – 투자 : 대륙자본의 대만 내 투자를 허용하기로 공동인식 확인 – 사법공조 : 주로 경제범을 염두에 두고 사법공조 실시 – 통항확대 : 전세기가 아닌 정기 여객·화물 항공 개통(주 270편 증편)
4차 ('09.12.22)	• △농산품 검역협력, △표준 검사·인증 협력, △어선 선원노무협력 등 3가지 합의서 서명
5차 ('10.6월)	• 양안 간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체결 – 중국은 대만의 539개 품목, 대만은 중국의 267개 품목에 대해 2년내 3단계에 걸쳐 관세인하 후 최종 무관세 시행
6차 ('10.12월)	• 양안의약위생협력협정 체결
7차 ('11.10월)	• 차기 회의에서 양안투자보장협정 체결 합의
8차 ('12.8월)	• △양안투자보장협정, △양안세관협력협정 체결
9차 ('13.6월)	• 양안 서비스 무역 협정 체결
10차 ('14.2월)	• △양안 간 기상협력, △지진감측협력 협정 체결
11차 ('15.8월)	• △양안 간 이중과세방지 및 세무 협력 강화 협정, △양안간 비행안전 협정 체결

- 중국은 '양안 경제통합 시범 경제권' 개발을 위한 '해협서안경제구' 개발안 확정('11.3월)

- '12.5월 마잉주(馬英九) 총통 제2기 정부 취임
  - 마 총통은 취임사에서 중국과 대만 모두 동일한 중화민족임을 강조
  - 중국도 마 총통의 연임 환영

- 공산당 제18차 당대회 보고서('12.11월) 내 △양안관계 평화협정 추진, △양안 간 군사적 상호신뢰 구축이라는 구체 의제 포함

- 양안 지도자 간 양안관계 발전을 위한 대화 지속
  - '13.2.24-27 롄잔(連戰) 국민당 명예주석의 방중, 양안이 향후에도 양안관계 평화발전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데 의견 일치
  - '15.5.4 중국·대만 간 공산당 시진핑(習近平) 총서기-국민당 주리룬(朱立倫) 주석 수뇌회담 개최
  - '15.11.7 분단 66년만에 최초로 시진핑(習近平) 주석과 마잉주(馬英九) 총통 간 양안 지도자 회담 개최(싱가포르)하여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골자로 한 '92 컨센서스' 재확인 및 양안 사무담당 기관(대만판공실 주임 및 대륙위원회 주임위원)간 핫라인 개설 합의

- 마 총통 임기 중 양안관계 진전에 대한 대만 내 경계 움직임 등장
  - '14.3.18-4.10 대만 대학생들이 3.18일부터 20일 간 입법원을 점거, 양안 간 교류 투명화와 중국과의 서비스무역협정 반대를 주장한 태양화(太陽花) 학생운동 발생
    ※ 동 학생운동 진정을 위해 '14.4.3 대만행정원은 「대만지역과 대륙지역간 협정체결처리 및 감독조례(臺灣地區與大陸地區訂定協議處理及監督條例)」 초안을 통과시켜 입법원에 심의를 요청
  - '14.11.29 대만 지자체선거에서 양안관계 진전에 소극적인 민진당 승리(22개 선거구 중 민진당 13개, 국민당 6개, 무소속 3개)

7) 양안관계 진전의 속도 조절('16년-)

- '16.1.16 대만총통 선거에서 장기적인 경기침체, 높은 청년실업률, 국민당의 실정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대만독립을 당의 강령에 포함시키고 있는 민진당의 차이잉원(蔡英文) 후보가 당선되었으며, 입법위원 선거에서도 민진당이 과반 확보(68석/113석)
  - 차이 당선인이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양안관계의 '현상유지론'은 중국이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과 간극이 존재하는바, 양안관계 발전에 어느 정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
    ※ 차이잉원(蔡英文)의 현상유지론과 중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
    - 蔡英文의 현상유지론 : 양안은 △'92년 양안이 회담을 가졌다는 역사적 사실과 양안의 '구동존이'에 대한 인정 △중화민국의 현행 헌법 체계 △양안이 과거 20년 간 협상과 교류를 통해 얻은 성과 △대만의 민주주의 원칙과 보편적인 국민의식을 정치적 기초로 양안 관계의 평화롭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구해야 함.
    - 중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 : '92 컨센서스'의 핵심의미는 양안이 하나의 중국에 속한다는 것인바, 이를 인정해야만 양안관계가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음.

- 차이 당선인의 양안관계 견해에 대해 중국 측은 지속적으로 '하나의 중국' 원칙 인정 등 蔡 당선인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
  - '16.2.24 중국 국무원 대만판공실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중국은 '92 컨센서스' 견지와 대만독립 반대라는 정치적 토대 위에서 양안 관계의 평화 발전을 추진하고, 모든 형태의 대만 독립 분열 활동을 반대한다고 발표
  - '16.3.24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대만의 샤오완창(蕭萬長) 양안공동시장기금회 명예이사장과 회담을 갖고, 중국의 對대만 방침은 명확하고 일관된 것으로 '92 컨센서스'를 인정하고 양안이 하나의 중국의 속한다는 공동의 정치적 기초를 인정한다면 모든 것을 논의할 수 있다고 언급

- '16.5.20 차이잉원 총통은 취임식에서 "양안 사이의 대화와 소통에 있어 기존의 메커니즘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1992년 양안 양회가 어느 정도의 공동인식과 이해의 일치를 보았다는 역사적 사실을 존중하며, 「중화민국헌법」, 「양안인민관례조례」 및 기타 관련 법률을 근거로 양안 사무를 처리할 것"이라고 언급
  - 이에 대해 중국 측은 "양안 관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92컨센서스 및 그 핵심적 함의를 분명하게 인정하지 않은 미완성의 답안으로서 앞으로 실제 행동으로 명확한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논평(5.20 중공중앙 대만판공실 및 국무원 대만판공실 명의 담화)

나. 실질교류 동향

- 실질교류에 대한 양측 입장
  - 중국은 대만과의 교류강화와 대만의 자본주의 체제 인정으로 대만 여론의 "1국 2체제" 지지 도모
  - 대만은 자신의 경제발전 경험을 전파하고, 교류 확대를 통해 중국 여론의 對대만 호의적 반응을 유도함으로써 1국 2정부 입장에 따른 대등한 관계 수립 도모

- 양안 간 투자, 교역, 문화 등 실질분야 교류는 지속 확대 추세
  - 교역과 투자는 대만의 직접 3通 불허정책으로 간접방식으로 추진중
  - '97.4월 이래 제3국 편의치적선이 대만(까오슝)과 대륙(푸저우, 샤먼) 간 직항 개시
  - '01.1.1 小3通 실시

    ※ 小3通 : 대만의 진먼(金門), 마주(馬祖), 펑후(澎湖)제도 등 3개 섬과 중국 푸젠(福建)성 연안도시 간 선박 및 항공기 직항을 연결하는 小三通(通航, 通商, 通郵) 허용

    · '01.12월 양안 WTO 가입(중국은 12.11, 대만은 12.12자로 선후 가입)

    · '03.1.26–2.10 양안 간 최초 전세기 운항(상하이–홍콩·마카오 경유–타이뻬이·까오슝시)

    · '05.1.15 중국 및 대만의 대표단은 마카오에서 협상, 구정기간 중 양안 간 전세기 취항에 합의('05.1.29–2.20간, 양측 각 24회, 총 48회)

    · '05.9.3 중국민항총국은 대만 4개 항공사의 대륙 영공통과 신청(매주 93회) 허가

- '08.11.4 大三通 합의 이래 중국·대만 간 교류·협력이 본격화
  · 통항 : 항공직항(전세기)을 증편(주 108편)하고 평일로 운영을 확대
  · 통상 : 선박의 해운 직항운항을 허용(중국 63개항, 대만 11개항)
  · 통신 : 서신, 소포, 택배 직접 왕래 허용
- 중국 자본의 대만 투자허용('09.5.1)
- ECFA 체결('10.6.29) 후, 6개 분야(상품, 서비스, 투자, 분쟁해결, 산업협력, 세관협력)의 후속협상 진행 중이며, 투자보장협정('12.8월), 세관협정('12.8월), 서비스 무역협정('13.6월) 체결 등 양안 협력의 제도화가 진행 중
- 양안 기층 대상 〈해협포럼〉('09.5월부터 양안정부 및 민간기구가 모여 정책대화, 경제·통상분야 협의, 문화 행사 등을 개최하는 종합포럼으로 매년 푸젠에서 개최), 양안 기업가 대상 〈자금산 포럼〉('12.9월) 등 새로운 교류 플랫폼 마련
- '11.6월, '12.4월의 2차례에 걸쳐 중국 13개 도시 주민의 대만으로의 개인 여행 개방
  ※ 대만 방문 외부 관광객 중 중국 대륙인이 최대 관광객
- '14.2월 양안 간 기상협력 협정, 지진감측협력 협정 체결
- '15.8월 양안 간 이중과세방지 및 세무협력 강화 협정, 비행안전협정 체결
- '16.1월 난창, 쿤밍, 충칭 등 3개 도시 출발 중국 여행객의 대만 환승 허용

○ 교역('15년) : 총 교역액 1,886억 불(전년대비 4.9% 감소) * 출처 : 해관총서
- 對대만 수출 : 449억 불(전년대비 5.5% 감소), 수입 : 1,437억 불(전년대비 3.0% 감소), 중국의 무역적자 : 988억 불
  ※ 대만은 高부가가치 상품을 수출, 대륙은 低부가가치 상품 수출로 대만의 흑자 기조 유지
  ※ 2003년부터 중국은 일본 및 미국을 제치고 대만의 최대 교역 파트너로서 부상

○ 투자('14년) * 출처 : 상무부
- 대만자본의 對 중국직접투자 : 51.8억 불
- 중국자본의 對 대만투자 : 1.8억 불

○ 인적교류('15년) : 총 985만 명(전년대비 4.73%증가) * 출처 :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 방중 : 645만 명(전년대비 20% 증가)
- 방대만 : 340만 명(전년대비 16% 감소)

다. 향후 전망

○ '16.1월 민진당 차이잉원(蔡英文) 후보의 총통 당선 및 민진당의 입법원 과반 확보로 양안 관계의 진전은 그 속도를 조절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양안 간 평화안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동인식 및 경제협력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민진당의 집권이 대만의 독립 추구와 직접적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낮음.
- 중국은 과거 천수이볜(陳水扁) 총통 당선시와 같이 '하나의 중국' 원칙 및 '92

컨센서스' 인정을 요구하며 차이잉원(蔡英文) 총통 및 민진당을 압박하면서 蔡 총통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하고, 이를 통해 중국 역시 보다 명확한 판단과 결정을 내리기 위한 검토 시간을 가질 것으로 전망

라. 양안관계 주요일지

- '96. 2월 대만 행정원 건설위원회, 중국과 3通을 위해 타이중(臺中)항을 양안 특구로 결정
  - 양안 간 인력·물자·선박 등을 同 特區를 통해 직접 교류 가능
- '96. 2월 리덩후이(李登輝) 총통, 중·대만 간 적대상태 종식 및 긴장완화를 위한 양안 간 '평화협정' 체결 추진 방침 천명
- '96. 3월 중국군,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에서의 미사일 발사훈련 실시
- '96. 3월 중국 인민해방군, 3.12-20간 대만 인근해역에서 해·공군 실탄 사격훈련 실시
- '96. 3월 중국군, 대만 인근해역에서 3군합동 군사훈련 실시
- '96. 4월 롄잔(連戰) 대만 행정원장, 대만 입장에서 "1개 중국"은 "통일후의 중국"을 의미하며, 중국은 현재 PRC와 ROC로 분리 통치되고 있다고 발언(입법원)
- '96. 5월 리덩후이(李登輝) 총통, 대륙 방문을 통한 중국 지도부와의 회담용의 표명 및 국제생존 공간 확보 외교 지속 다짐
  - 5.20 중국 국무원, 동 내용 비난 및 정상회담 제의 거부
- '96. 7월 대만, 실용외교 추진을 위한 新대만폐 105억 원(한화 약 3천억 원)의 "국제협력발전기금" 설립 발표
- '96. 7월 대만 행정원 대륙위, 대만의 市長, 縣長이하 민선지방 자치단체장의 대륙 방문과 중국 기자단의 대만 상주 허용 결정
- '96.10월 대만 독립추진을 공식 천명한 "建國黨" 창당 정식 선언
- '96.11월 남아공, 대만과의 단교(중국과 수교) 계획 발표
- '96.12월 대만 海基會, 중국 海協會에 양안관계 정상회의를 위한 공식협상 예비회화의 재개를 공식 제의
  - 리덩후이 총통과 장쩌민 주석 간 상호방문 재촉구 내용 포함
- '96.12월 대만, 超黨派적인 "국가발전회의"를 개최
  - 중국과의 대등한 관계(실체) 재확인
  - 양안관계 처리 시 "대만 우선" 원칙 적용
  - 중국과 평화협정 체결 및 "汪.辜회담" 재개 추진
- '97. 3월 달라이라마, 대만 불교계 초청 대만방문, 리덩후이(李登輝) 총통 면담

- ’97. 4월 중국정부, 자국 6개 해운사의 양안직항을 정식 허가
- ’97. 9월 리덩후이(李登輝) 총통, 중남미 4국 순방
- ’97.10월 대만 행정원 대륙위, 중국에 대해 1개중국 원칙을 포함 아무 전제조건 없이 양안회담을 조속 재개하자고 촉구
- ’97.11월 리덩후이(李登輝) 총통, WP지와 회견 시 대만은 독립. 주권국가라고 발언
- ’97.11월 왕다오한(王道涵) 海協會 회장, 대만 新同盟會議 쉬리농(徐立農) 회장 접견 시 양안협상에서 국기·국호 논의도 가능하며 대만에 동등한 협상 지위를 보장할 것이라고 언급(언론보도)
- ’98.10월 구전푸(辜振甫) 대만 해기회장 중국방문
- ’99. 7월 리덩후이(李登輝) 대만총통, 양안관계는 “특수한 국가 대 국가의 관계”라고 규정
- ’00. 5월 천수이볜(陳水扁) 총통 취임, 「四不一沒有」 양안정책 발표
- ’01. 1월 대만 측은 정식 三通의 준비단계로서 진먼(金門), 마주(馬祖)와 중국 푸젠성(福建省) 간 小三通을 일방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대륙투자제한 정책을 완화하고 대륙인에 대해 대만관광을 부분적으로 허용
- ’02. 7월 천수이볜(陳水扁) 총통의 민진당 주석취임 직후, 一邊一國論(대만과 중국은 한쪽에 한 나라)을 발표, 양안관계 교착상태를 초래
- ’02. 8월 천수이볜(陳水扁) 총통은 ‘세계 대만인 연합회’ 연례 행사 축사 시 대만은 ‘자신의 길’을 가야 하는 것에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주장
- ’03. 7월 천수이볜(陳水扁) 총통은 「하나의 중국」 전제하에서라면 三通에 반대한다고 표명
- ’03. 9월 천수이볜(陳水扁) 총통은 ’03.10.18까지 양안화물 직항을 추진계획이라고 발표
- ’04. 5월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실 판공실은 5.20 천수이볜(陳水扁) 총통 취임식을 앞두고 대만 독립 행위를 단호히 제재하겠다는 내용의 “현 양안관계 문제에 대한 성명”을 발표
- ’04. 5월 천수이볜(陳水扁) 총통은 취임사에서 양안 간 어떠한 형태의 관계정립도 배제하지 않고 협상 가능하다고 선언하고, 대만신헌법 제정이 아닌 현행 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다소 ‘실용적’, ‘탄력적’인 입장을 표명
- ’04.10월 천수이볜(陳水扁) 총통은 쌍십절 축사에서 ‘’92년 홍콩협상’ 방식에 따라 양안협상 재개를 제의
- ’04.11월 천수이볜(陳水扁) 총통은 양안 간 대화재개와 긴장완화, 전세기운항 협의, 양안평화발전위원회 구성 등 ‘양안관계 10개항’을 발표
- ’05. 1월 대만·중국 대표단은 마카오에서 협상, 구정기간 중 양안전세기 취항에 합의

- '05. 3월 중국 10기 전인대는 대만이 독립추진시 비평화적 수단의 사용을 합법화하는 '반국가분열법' 통과·제정
- '05. 4-5월 롄잔(連戰) 국민당 주석 중국방문(4.29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회동)
- '05. 5월 쑹추위(宋楚瑜) 친민당 주석 중국방문(5.12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회동)
- '06. 1월 陳 총통은 신년사에서 양안경제교류 기본방침을 '유효관리 적극개방'에서 '적극관리 유효개방'으로 변경
- '06. 1월 천수이볜(陳水扁) 총통, 국가통일회의 및 통일강령 폐지 필요성 언급
- '06. 2월 천수이볜(陳水扁) 총통, 국가안전회의에서 국가통일회의 및 통일강령 終止 발표
- '06. 6월 양안정부, 춘절, 단오, 청명, 중추절의 4대 절기 직항전세기 확대운항 방침 발표
- '07. 4월 롄잔(連戰) 국민당 前주석 중국 방문(4.28 胡錦濤 국가주석 회동)
- '08. 3월 대만 총통선거(마잉주(馬英九) 총통-샤오완창(蕭萬長) 부총통) '대만 명의 유엔가입' 및 '중화민국 명의 유엔복귀' 국민투표 실시(투표율이 50%에 못미쳐 모두 부결)
- '08. 4월 보아오포럼 계기 샤오완창(蕭萬長) 부총통 당선인-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간 회동
- '08. 5월 마잉주(馬英九) 총통 취임, 3不정책(불독립, 불통일, 무력불사용) 발표
- '08. 5월 우보슝(吳伯雄) 국민당 주석 중국 방문(제1차 吳-胡 회담 개최)
- '08. 6월 제1차 양안회담(베이징)
  - 주말 전세기 운영, 대륙인의 대만관광 허용 합의
- '08.11월 제2차 양안회담(타이베이)
  - 여객 직항 전세기 확대, 화물 직항 전세기 운영, 해운 직항 개방, 우편 직접 왕래, 식품안전 협력 합의
- '09. 4월 제3차 양안회담(난징)
  - 공동범죄퇴치 및 사법협력, 금융협력, 정기항공 운영, 중국자본의 대만 진출 개방 합의
- '09. 5월 우보슝(吳伯雄) 국민당 주석 중국 방문(제2차 吳-胡 회담 개최)
- '09. 5월 제1회 해협포럼
- '09. 6월 대만 측 중국자본의 대만진출 개방 발표
- '09.11월 양안 간 금융감독협력 MOU 체결
  - 은행, 보험, 증권업 관련 지점의 상호 개설 기반 확립
- '09.12월 제4차 양안회담(타이중)
  - 어업 노무 협력, 농산품 검역, 표준검사·인증 협력 합의
- '10. 1월 양안 ECFA(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협상 개시

- 합의서 명칭, 전반적인 협상계획 등 절차적인 문제 논의

- ’10. 6월 양안 ECFA(경제협력기본협정) 체결
- ’10. 6월 제5차 양안회담(충칭)
- ’10. 7월 우보슝(吳伯雄) 국민당 주석 중국 방문(제3차 吳-胡 회담 개최)
- ’10. 9월 양안 ECFA(경제협력기본협정) 발효
- ’10.12월 제6차 양안회담(타이베이)
- ’11. 5월 우보슝(吳伯雄) 국민당 주석 중국 방문(제4차 吳-胡 회담 개최)
- ’11. 6월 제3차 해협포럼(푸젠)
- ’11. 6월 중국인의 대만 개별관광 정식 개시(베이징, 상하이, 샤먼 주민들의 대만 개별 관광 공식 허용)
- ’11.10.20 제7차 양안회담(톈진시(天津市))
- ’11.10월 제1회 양안산업협력포럼(장쑤성 쿤산시(江蘇省 昆山市))
  - 양안 핵안전 협력의정서 체결(10.28)
- ’12. 1월 마잉주(馬英九) 총통 대선 승리, 연임 성공
- ’12. 3월 제10차 양안관계 세미나 개최
- ’12. 3월 우보슝(吳伯雄) 국민당 명예주석 방중(제5차 吳-胡 회담 개최)
- ’12. 4월 우둔이(吳敦義) 부총통 당선자 보아오 포럼 참석(리커창 부총리와 회동)
- ’12. 4월 톈진, 충칭, 난징, 항저우, 청두 주민들의 대만 개별관광 개시
- ’12. 4월 제3차 양안경제협력위원회 회의 개최(대만)
- ’12. 5월 마잉주(馬英九) 총통 취임
- ’12. 6월 제4차 해협포럼(푸젠)
- ’12. 8월 제8차 양안회담(타이베이)
  - 양안투자보장협정, 양안세관협력협정 체결
- ’12. 9월 해협양안 기업인 간 고위층 교류 플랫폼인 紫金山 Summit 개최
- ’12.10월 린중선(林中森) 신임 해기회 이사장 방중(자칭린 전국정협 주석 등 면담)
- ’12.10월 셰창팅(謝長廷) 민진당 前 주석 방중(다이빙궈 국무위원, 왕이 대만판공실 주임 면담)
  - 역대 민진당 최고위 인사 방중
- ’12.11월 우보슝(吳伯雄) 국민당 명예주석, 광동성 방문(王洋 서기 면담)
- ’12.12월 제4차 양안경제협력위원회 회의 개최(광저우)
- ’13. 2월 롄잔(連戰) 국민당 명예주석 중국방문(2.25일 후진타오 국가주석 및 2.26 시진핑 총서기와 회동)
- ’13. 3월 제11차 양안관계 세미나 개최
- ’13. 4월 汪-辜 회담 개최 20주년 기념행사 베이징 개최

- '13. 6월 제9차 양안회담(상하이)
  - 양안 서비스무역 협정 체결
- '13. 8월 해기회·해협회 간 상호 사무기구 설치 관련 업무 협상 개최
- '13.11월 천더밍(陳德銘) 해협회 회장 11.26-12.3 대만 방문
  - 린중선(林中森) 해기회 이사장, 롄잔(連戰) 국민당 명예주석, 쑹추위(宋楚瑜) 친민당 주석 등 회담
- '13.12월 제5차 양안경제협력위원회 회의 개최(타이베이)
- '14. 2월 해협회 양안 간 체결 협정 이행 성과 발표
- '14. 2월 해기회·해협회 간 체결 협정 이행 성과 총괄대회 개최(창사(長沙))
- '14. 2월 제10차 양안회담(타이베이)
  - 양안 간 기상협력 협정, 양안 간 지진검측협력 협정 체결
- '14. 2월 천더밍(陳德銘) 해협회 회장 왕위치(王郁琦) 대만 대륙위원회 주임위원 회담
- '14. 8월 제6차 양안경제협력위원회 회의 개최(베이징)
- '14.11월 장즈쥔(張志軍) 대만판공실 주임, 왕위치(王郁琦) 대만 대륙위원회 주임위원 회담
- '14.12월 천더밍(陳德銘) 해협회 회장 12.9-16 대만 방문
  - 린중썬(林中森) 해기회 이사장, 양안 언론인 회동
- '15. 1월 제7차 양안경제협력위원회 회의 개최(타이베이)
- '15. 3월 왕다오한(汪道涵) 출생 100주년 기념 좌담회 개최
- '15. 4월 해협양안경제통상 포럼 개최(샤먼)
- '15. 6월 양안 간 기상협력 협정, 양안 간 지진검측협력 협정 발효
- '15. 7월 해협회 사법공조 교류단 대만 방문
- '15. 8월 제11차 양안회담(푸저우)
  - 양안 간 이중과세방지 및 세무협력 협의, 양안 간 민간항공비행안전 협력 협의 체결
- '15.11월 시진핑(習近平)-마잉주(馬英九) 양안 정상회담(싱가포르)
- '15.12월 천더밍(陳德銘) 해협회 회장 11.30-12.6 대만 방문
  - 린중선(林中森) 해기회 이사장 회담, 양안 간 협정 이행 성과 총괄대회 개최
- '16. 1월 난창, 쿤밍, 충칭 등 3개 도시 출발 중국 여행객의 대만 환승 허용
- '16. 1월 대만 총통선거(차이잉원(蔡英文) 총통 및 천젠런(陳建仁) 부총통) 및 입법위원 선거(민진당 다수당 차지(68석/113석))
- '16. 3월 리커창(李克强) 총리 샤오완창(蕭萬長) 대만 양안공동시장기금회 명예이사장 회담
- '16. 3월 대만 국민당 주석 선거-홍슈주(洪秀柱) 前입법위원 당선

5. 중·북한 관계

가. 관계 추이

1) 중·소 협력기('40년대 말–'50년대 말)

- '50년대 중·소 협력시기에는 오로지 사회주의 국가 건설이라는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정치·안보·경제 등 모든 측면에서 북한과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
  - '49년 중국·북한 간 수교
  - '50년 한국전쟁 시 중국 인민의용군 북한 파견
  - '53년 김일성 방중, 경제·문화협조 및 지원 협정 체결
  - '54년 중·북 양자 간 총교역액(약 8천만 불), 중국 총 교역액의 약 3.4% 점유
  - '58년 중요물자 공급 협정 및 차관제공 협정 체결

2) 중·소 갈등기('50년대 말–'70년대 말)

- '60–'70년대 중·소 갈등 시기에는 소련과 북한 견인 경쟁 추진
  - '61.7월 김일성 방중 시 「중·북한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 체결
  - '61.11월 통상 및 항해조약, '71.9월 무상 군사원조 협정, '73.6월 경제기술협조 협정 체결
  - '63.9월 류샤오치(劉少奇) 국가주석 방북, '75.4월 김일성 방중, '78.5월 화궈펑(華國鋒) 당주석 겸 총리 방북, '78.8월 중국 군사대표단 방북

3) 개혁·개방 초기('70년대 말–'80년대 말)

- '70년대 말부터 중국이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 정치·외교·안보 분야에서 북한 지지 및 협력 심화를 통해 對소, 對미 입지 강화 시도
  - '84년 북한의 3자회담 제의 지지 및 UN 등 국제무대에서 북한입장 지지
  - 김일성 방중('82, '84, '91년), 펑전(彭眞) 全人大 상무위원장('83년), 양상쿤(楊尙昆) 국가주석('88, '92년), 자오즈양(趙紫陽) 총서기('89년), 장쩌민(江澤民) 총서기('90년), 리펑(李鵬) 총리('91년) 방북 등 최고 지도자들 간 교류 빈번

- 경제 등 실질분야에서는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으로 서방세계와의 실리적 관계가 강화됨에 따라 對북한 관계는 다소 소원화
  - '90년 한·중 간 직교역 총액이 19억 불로 전년대비 117% 증가한 데 비해, 동년 중·북한 간 교역액은 4.8억 불로 전년대비 13% 하락

4) 한·중 수교('92년) 이후

가) 정무 관계

-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필수적인 안정된 주변환경을 구축하고 북한의 급격한 몰락이나 對美 경사로 인한 미국의 對北영향력 확대를 견제한다는 전략 하에 對北 접근

- 이에 따라 한·중 수교 이전 중·북한은 제반 측면에서 여타국에 비해 특별한 관계 지속
  - 북한과의 전통적 우호·협력 관계를 거듭 강조하고 북한 체제 유지 지원
  - 양측 공산당(노동당) 및 외교부 간 대표단의 연례적 교환 방문 등 매년 당, 정, 군 間 상호방문 지속 실시

- 그러나 '92.8월 한·중 수교 이후 중국과 북한은 전반적으로 소원한 관계 유지
  - 냉전종식에 따른 군사적 동맹의식의 이완 및 중국의 개혁·개방에 따른 이념적 결속력 약화
  - 한·중 관계의 지속적 발전에 따른 북한의 對中 신뢰감 저하
  - 중국의 덩샤오핑(鄧小平), 류화칭(劉華淸), 장전(張震), 북한의 김일성, 최광, 김광진 등 양측 혁명세력의 사망·퇴진에 따라 지도층 간 유대감 약화
  - '97년 황장엽 사건 및 대만 핵폐기물 북한 반입시도와 관련한 중·북한 간 갈등
  - '97.8월 이후 개최되어 온 4者회담 예비회담 및 본회담 등에서 북한의 중국 배제 시도 및 중국과 실질협의 회피로 인해 중·북한 간 불협화음 노정
  - 양측 간 저조한 주요인사 교류

- '98.9월 김정일의 권력승계 이후 양국 간 고위인사 교류를 복원함으로써 관계 회복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방중('99.6월)
  - 탕자쉬안(唐家璇) 외교부장 방북('99.10월)
  - 백남순 북한 외무상 방중('00.3월)

- '00.5월과 '01.1월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 및 '01.9월 장쩌민(江澤民) 국가주석의 방북으로 양국 관계는 기본적으로 회복
  - 우방궈(吳邦國) 전인대 상무위원장 방북('03.10월)

- 또한, '04.4월 김정일의 중국 방문과 중·북 수교('49.10.6) 55주년을 계기로 양국 간 친선·실무 대표단 교류가 빈번해지고, 교역 및 경제협력도 대폭 증가
  - 수교 55주년을 계기로 리창춘(李長春) 중국 당정치국 상무위원('04.9월)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04.10월)이 상호 방문하고 친선관계 확인 및 협력강화 방침 재천명

- '05년 들어 왕자루이(王家瑞)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의 방북('05.2월), 박봉주

북한 총리('05.3월)의 방중, 탕자쉬안(唐家璇) 국무위원 방북('05.7월), 우이(吳儀) 중국 부총리 방북('05.10월) 등 당·정 교류 활발

- 특히, '05.10월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의 방북을 계기로 중·북한 관계는 전통적 우호관계를 대외적으로 과시

- '06.7월 북한 미사일 발사 및 '06.10월 북핵 실험(1차) 이후 북한의 일방적 상황악화 조치와 중국의 대북 비난 안보리 결의 찬성 등으로 중·북 관계가 원활하지 않은 모습도 나타났으나, '07.2.13 합의 이후 '07.7월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 방북, '07.10월 류윈산 중국 공산당 선전부장 방북 등을 통해 양국 정치관계 정상화
  ※ '07.2월 제5차 6자회담(베이징 개최) 시 북한핵 비확산에 관해 합의

- '08년 이후 양국 간 공산당, 외교부 및 부총리급 이상 고위급 지도자 교류 빈번
  - 왕자루이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 방북('08.1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주북 중국 대사관 방문('08.3월), 박의춘 북한 외상 방중('08.4월), 시진핑 북한 국가부주석 방북('08.6월),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베이징올림픽 개막식 참석('08.8월) 등

- '09년 '중·북 우호의 해' 개막식에는 김영일 총리가 방중하여 참석하고 폐회식에는 원자바오 총리가 방북하여 참석
  - 다이빙궈(戴秉國) 국무위원, 량광례(梁光烈) 국방부장 등 방북
  - 최태복 서기, 김정각 국방위원, 주상성 인민보안상 등 방중

- '09.4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 및 '09.5월 제2차 핵실험으로 다소 소원한 조짐이 나타나기도 하였으나, '09.10월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의 방북을 기점으로 양국 간 전통적 우호 협력관계 회복
  - 압록강 신교 건설, 중국의 창지투(長吉圖) 개발 계획 추진 등을 통해 중·북 간 경제개발 협력 모색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10.5월, '10.8월, '11.5월 비공식 방중, '11.8월 러시아 방문 후 귀국길에 경유 계기 방중을 통해, 북한은 중·북 간 전통적 우호관계의 세대를 이은 계승의지를 강조
  - 중국은 '전통계승, 미래지향, 선린우호, 협력강화'의 정신 하에, △고위급 교류 강화, △경제사회발전 촉진을 위한 경험교류, △호혜협력 확대, △국제·지역 정세 및 중대문제에 대한 소통 강화 등 제안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11.12.17) 이후, 중국 정부는 중·북 양국 간 당·국가·인민 관계를 공고히 발전시키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적극 공헌하겠다고 천명

- '12.4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강행으로 소원했던 중·북 관계가 왕자루이(王家瑞) 중련부장의 방북(7월) 및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의 방중(8월)으로 회복되어 가다가,

'12.12월 장거리 미사일 재차 발사 및 '13.2월 제3차 핵실험과 이에 대한 중국의 안보리 제재(2087, 2094호) 동참 등으로 인해 다시 냉각기에 진입

- '13.5월 최룡해가 특사로 방중하는 등 관계전환 가능성을 탐색하기도 하였으나, '13.12월 북한의 장성택 처형 이후 중·북 관계는 더욱 악화

- '14-'15년간 냉각기가 지속되던 중·북 관계는 '15.9월 최룡해 노동당 정치국위원 방중(중국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기념행사 참석), 10월 류윈산(劉雲山) 당정치국 상무위원 방북(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행사 참석) 등 관계복원 모색 움직임 시현. 그러나 '15.12월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 초청으로 방중한 북한 모란봉악단·공훈국가합창단이 공연을 취소하고 귀국하는 사태가 발생한 후 중·북 관계는 다시 냉각

- '16.1월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2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그리고 이에 대한 유례없이 강력한 안보리 제재(2270호)에 중국이 동참함으로써, 중·북 관계 악화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평가

나) 경제·통상분야 교류

- 중국은 북한의 최대 교역·외자유치 대상국
  - 대중 무역의존도는 '05년 52.6%로 절반을 초과한 이후 지속 증가추세를 보여 '14년에는 90%를 상회
    ※ 연도별 대중 무역의존도(KOTRA 통계)
    – '10년 83.0% → '11년 89.1% → '12년 88.3% → '13년 89.1% → '14년 90.2% → '15년 90% 이상 예상
  - '12년 말 김정은 집권 이후 중·북 관계가 소원해졌음에도 불구, '10-'13년간 매년 교역규모 최대치를 갱신해 오는 등 교역에는 큰 영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나, '14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
  - 특히 '16.1월 제4차 핵실험 이후 중국의 적극적 대북제재가 이루어짐에 따라 교역규모 추가 감소 가능성 존재
  - 5.24월 조치 이후 북한은 1차 산품(무연탄 등) 수출, 주요 물자 수입(원유, 비료, 식량 등)의 무역구조를 지속해왔으나, 최근 광물성 생산품 수출 감소, 섬유제품 수출 증가 등 수출 품목별 비중에 일부 변화가 나타나는 상황
  - 한편, '14.1월 이후 '16.1월 현재까지 중국 해관총서 통계상 중국의 대북 원유 수출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북한 내 원유공급 중단을 시사하는 정황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며, 중국의 대북 원유 공급이 교역이 아닌 원조 등 방식으로 이루어질 가능성 배제 불가

중·북 교역 현황 (출처 : KITA)

(단위 : 억 불)

구분 \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대북 수입	12.32	13.93	20.33	12.10	22.78	31.65	34.46	36.33	35.23	29.46
대북 수출	4.68	5.82	7.54	5.01	11.88	24.64	24.85	29.12	28.42	24.84
교역액	17.00	19.74	27.87	17.10	34.66	56.29	59.31	65.45	63.64	54.30

- 중·북 간 교역의 주요 특징
  - 북한의 주요 수출품은 광물성 생산품, 어패류 등 1차 상품이 중심을 이루며, 최근 위탁가공품인 의류 수출이 지속 증가
    ※ 북한의 대중 수출품 : 광물, 의류제품, 어패류, 철강 등
  - 북한은 원자재 중심의 수입구조를 보이는 가운데 최근 소비재 수입이 상대적으로 증가
    ※ 주요 수입품 : 전기기기, 기계류, 차량, 플라스틱 등
  - 중·북 간 무역은 지리적 인접성 및 중국 변경무역의 관세혜택 등으로 인해 동북3성에 편중

- 중·북 간 경제협력은 중국의 동북3성 개발 전략과 북한의 투자유치 필요 등 이해관계가 일치하면서 상호 경제적 연계성이 강화된 차원에서 진행되었으나, 북한의 핵·경제 병진노선 고수에 따라, 성과는 지지부진한 상황
  - 양측은 '정부인도(政府引導)·기업위주(企業爲主)·시장운영(市場運作)·호혜공영(互利共贏)'의 4대 경협원칙에 합의하고, 나선과 황금평/위화도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북중 경협 추진
  - 신압록강대교 착공('10.12월), 황금평 개발 착공('11.6월), 신두만강대교 착공('14.9월), 궈먼완(國門灣) 중·북 호시무역구 출범('15.10월) 등 중·북 접경지역 무역·교통 인프라 정비가 추진 중이나, 현재까지 별다른 성과가 없는 것으로 평가
  - 북한 경제특구 투자설명회('12.9.7 창춘, '12.9.9 샤먼), 북한 투자환경설명회 및 투자상담회('12.9.26-27 베이징), 원산-금강산 관광특구 투자설명회('14.9.20 단둥, '15.3.20 선양, '15.5.25-30 평양/금강산) 등

나. 중·북 간 주요일지

- '49.10월 중·북 수교 합의
- '50.10월 중국 「인민의용군」 파견
- '53.11월 김일성 방중(경제·문화협조 및 지원협정 체결)
- '58. 2월 저우언라이(周恩來) 총리 방북
- '61. 7월 김일성 방중, 中·朝 우호협조 및 상호 원조조약 체결(군사방위조약 해당)
- '63. 9월 류사오치(劉少奇) 국가주석 방북
- '75. 4월 김일성 방중
- '78. 5월 화궈펑(華國鋒) 당주석 겸 총리 방북
- '78. 8월 중국 군사우호대표단 방북
- '82. 9월 김일성 방중(덩샤오핑의 실용주의 체제 확인 후 친선방문)
- '82.10월 중국, 북한에 미그기 40대 판매 보도
- '83. 9월 펑전(彭眞) 전인대 상무위장, 북한건국 35주년 행사 참석
- '84. 5월 후야오방(胡耀邦) 총서기 방북
- '84.11월 김일성 방중
- '86. 9월 북한, 중국 선양에 총영사관 개설
- '87. 7월 중국, 북한 청진에 총영사관 개설
- '88. 9월 양상쿤(楊尙昆) 국가주석 방북
- '89. 6월 북한, 중국 천안문사태(6.4)로 주중국 유학생 500여명 전원소환 조치
- '90. 3월 장쩌민(江澤民) 총서기 방북
- '91. 5월 리펑(李鵬) 총리 방북
- '91.11월 김일성 방중(베이징, 난징, 산둥성, 장쑤성 방문)
- '92. 1월 무역협정 체결(경화결제방식 적용 규정)
- '92. 4월 양상쿤(楊尙昆) 국가주석 방북
- '93. 7월 전승 40주년 기념행사 참석 계기 후진타오(胡錦濤) 당정치국 상무위원 방북
- '96. 5월 홍성남 부총리, 정창렬 인민무력부 부부장 방중
- '96. 7월 뤄간(羅幹) 국무원비서장 외 19명 방북
  - 10만 톤 식량무상지원 결정
- '99. 6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위원장 방중
- '99.10월 중·북한 국교수립 50주년 계기 탕자쉬안(唐家璇) 외교부장 방북
- '00. 3월 백남순 북한 외무상 방중
- '00. 5월 김정일 총비서 비공개 방중

- ’00. 6월 김일철 인민무력부장 방중
- ’00. 8월 예쉬안핑(葉選平) 정협부주석 방북
- ’00. 9월 다이빙궈(戴秉國) 공산당 대외연락부장 방북
- ’00.10월 항미원조전쟁 50주년 계기 츠하오톈(遲浩田) 국방부장 방북
- ’01. 1월 김정일 총비서 비공개 방중
- ’01. 3월 쩡칭훙(曾慶紅) 당조직부장 방북
- ’01. 9월 장쩌민(江澤民) 국가주석 방북
- ’02. 4월 쑨자정(孫家正) 문화부장 방북
- ’02. 5월 자칭린(賈慶林) 당중앙 정치국위원 겸 베이징시 당서기 방북
- ’02.10월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방중
- ’02.11월 번영립 교육상 방중
- ’03. 1월 AAPP 회의 계기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 방중
- ’03. 4월 조명록 국방위 제1부위원장 방중
- ’03.10월 우방궈(吳邦國) 전인대 상무위원장 방북
- ’04. 3월 리자오싱(李肇星) 외교부장 방북
- ’04. 4월 김정일 총비서 비공개 방중
- ’04. 9월 리창춘(李長春) 당정치국 상무위원 방북
- ’04.10월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방중
- ’05. 2월 왕자루이(王家瑞) 당대외연락부장 방북
- ’05. 3월 박봉주 총리 방중
- ’05. 7월 탕자쉬안(唐家璇) 국무위원 방북
- ’05.10월 우이(吳儀) 부총리 방북
- ’05.10월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방북
- ’05.12월 노두철 부총리 방중
- ’06. 1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중
- ’06. 3월 장성택 노동당 제1부부장 방중
- ’06. 4월 차오강촨(曹剛川) 국무위원 겸 국방부장 방북
- ’06. 5월 백남순 외무상 방중
- ’06. 7월 후이량위(回良玉) 부총리 방북
- ’06. 7월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방중
- ’06.10월 탕자쉬안(唐家璇) 국무위원 방북
- ’07. 7월 양제츠 외교부장 방북
- ’07.10월 류윈산(劉雲山) 정치국원 방중

- '08. 1월 왕자루이(王家瑞) 당 대외연락부장 방북
- '08. 4월 박의춘 북한 외무상 방중
- '08. 6월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 방북
- '08. 8월 베이징올림픽 계기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방중
- '09. 1월 왕자루이(王家瑞) 당 대외연락부장 방북
- '09. 3월 김영일 내각총리 방중
- '09. 4월 리진화(李金華) 전국정협 부주석
- '09. 9월 다이빙궈(戴秉國) 당 대외연락부장 방북
- '09.10월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방북
- '09.11월 량광례(梁光烈) 국방부장 방북
- '09.11월 천즈리(陳至立) 전인대 상무위 부위원장 방북
- '10. 2월 왕자루이(王家瑞) 당 대외연락부장 방북
- '10. 2월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 방중
- '10. 2월 김영일 노동당 국제부장 방중
- '10. 4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방중
- '10. 5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비공식 방중
- '10. 8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비공식 방중
- '10. 9월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 방중
- '10.10월 저우융캉(周永康) 중앙정법위 서기 방북
- '10.10월 궈보슝(郭伯雄) 중앙군사위 부주석 방북
- '10.10월 변인선 인민무력부 부부장 방중
- '10.10월 문경덕 평양시 당위 책임서기 방중
- '10.11월 최영림 내각총리 방중
- '10.11월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 방중
- '10.12월 다이빙궈(戴秉國) 국무위원 방북
- '11. 4월 김계관 외무성 부상 방중
- '11. 5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비공식 방중
- '11. 6월 리위안차오(李源潮) 당 조직부장 방북
- '11. 6월 천더밍(陳德銘) 상무부장 방북
- '11. 8월 김계관 외무성 부상 방중
- '11. 8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귀국 경유 방중
- '11. 9월 최영림 내각총리 방중
- '11. 9월 이태철 인민보안부 부부장 방중

- ’11.10월 리커창(李克强) 부총리 방북
- ’11.11월 김성기 외무성 부상 방중
- ’11.11월 리지나이(李繼耐) 인민해방군 총정치부 주임 방북
- ’11.12월 한광복 내각부총리 방중
- ’12. 2월 푸잉(傅莹) 외교부 부부장 방북
- ’12. 4월 김영일 노동당 국제부장 방중
- ’12. 4월 中國人民和平與裁軍協會 대표단 방북(리우웨이(歷無畏) 부회장 겸 정협 부주석, 양옌이(楊燕怡) 고문 겸 대외연락부 부장조리 등)
- ’12. 5월 리자오싱(李肇星) 전인대 외사위 주임, 민간 자격으로 방북
- ’12. 7월 리명수 인민보안부장 방중
- ’12. 7월 왕자루이(王家瑞) 대외연락부장 방북
- ’12. 8월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 방중
- ’12.10월 더우위페이(竇玉沛) 민정부 부부장 방북
- ’12.10월 북한 김일성대 대표단(단장 : 김태희 당위 서기) 방중
- ’12.10월 북한 평안북도 대표단(단장 : 최종건 평북 인민위원장) 방중
- ’12.11월 리젠궈(李建國) 정치국 위원 겸 전인대 부위원장 방북
- ’13. 1월 경제무역대표단(단장 : 리진짜오(李金早) 상무부 부부장) 방북
- ’13. 5월 최룡해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 겸 인민군 총정치국장 방중
- ’13. 7월 리위안차오(李源潮) 국가부주석 방북
- ’13. 6월 김계관 외무성 부상 방중
- ’13. 7월 김성남 국제부 부부장 방중
- ’13. 9월 김계관 외무성 부상 방중
- ’13.10월 김형중 외무성 부상 방중
- ’14. 2월 류전민(劉振民) 외교부 부부장 방북
- ’14. 3월 이호선 노동당 경제부 부부장(경제시찰단) 방중
- ’15. 9월 최룡해 노동당 정치국위원 방중
- ’15.10월 류윈산(劉雲山) 상무위원 방북
- ’16. 5월 이수용 북한 노동당 중앙정무국 부위원장 방중

6. 중국의 수교국 및 중국 내 주재공관 현황

가. 수교국 현황(총 173개국)

(2016.3월 기준)

수교지역	계	수교국
아시아	22	일본, 몽골, 북한,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태국, 미얀마,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아프가니스탄, 네팔, 몰디브,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한국, 동티모르
대양주	10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사모아, 피지, 파푸아뉴기니, 바누아투, 미크로네시아, 쿡제도, 통가, 니우에
미주	23	미국, 캐나다, 멕시코, 쿠바, 자메이카, 바베이도스, 트리니다드토바고,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페루, 가이아나, 수리남, 에콰도르, 앤티가바부다, 볼리비아, 우루과이, 바하마, 도미니카연방, 코스타리카, 그레나다
서구	25	이탈리아, 스위스, 스페인, 포르투갈,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그리스, 아일랜드,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아이슬란드, 산마리노, 몰타, 영국, 프랑스, 독일,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키프로스, 안도라, 마케도니아('93.10월 수교, '99.2월 단교, '01.6월 복교), 모나코
독립국가연합, 동구	27	러시아, 몬테네그로,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세르비아, 알바니아, 그루지아, 아제르바이잔,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도바,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에스토니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키르기스스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중동	16	터키, 이란, 이집트, 시리아, 레바논, 팔레스타인, 요르단, 이라크, 쿠웨이트, 예멘, 오만,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카타르, 바레인,
아프리카	50	수단, 리비아, 튀니지, 알제리, 모로코, 모리타니, 소말리아, 지부티, 에티오피아, 케냐, 우간다, 탄자니아, 말리, 기니, 토고, 적도기니, 앙골라, 코트디부아르, 베넹, 감비아('16.3월 복교), 카메룬, 가봉, 나이지리아, 가나, 시에라리온, 보츠와나, 부룬디, 잠비아, 카보베르데, 르완다, 모잠비크, 짐바브웨,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 코모로, 콩고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세이셸, 나미비아, 레소토, 에리트레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중앙아프리카공화국, 기니비사우, 니제르, 라이베리아, 말라위, 남수단, 차드, 세네갈

나. 중국내 주재공관(국제기구 포함) 현황

- 대사관(169), 국제·지역기구 사무소(25), 총영사관, 영사관 및 영사사무소(약 250여 개)

CHINA



Ⅳ
중국의 군사·안보

1. 중국의 국방정책
2. 인민해방군 군사조직 및 지휘체제
3. 병력 현황
4. 계급 제도
5. 국방 예산
6. 2014년 중국 국방백서



1. 중국의 국방정책

* 출처 : 2014 중국 국방백서 등

가. 중국 인민해방군 전략 목표

- 전면적 소강사회(2020년) 및 부강한 민주문명 사회주의 국가(2050년)를 건설하는 중국의 꿈을 지원하기 위한 강군의 꿈을 실현하는 것

나. 중국 인민해방군 군사전략 : 적극방어 군사전략

- 중국의 적극방어 군사전략은 중화인민공화국 성립이후 줄곧 중국의 군사전략 방침이었으며 방어와 공격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한 공세적인 방어 개념임.
- 1996년 대만해협 위기 이후 중국인민해방군은 분쟁지역에 대한 외부 세력의 진입을 억지·지연·방지하는 反접근 및 지역거부(Anti-access/Area denial, A2AD) 전략을 구사함.
  - 구체적으로 '反접근'이란 적의 전력이 분쟁지역으로 전개되는 것을 지연시키거나 적으로 하여금 분쟁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작전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며, '지역거부'란 적이 분쟁지역에 접근했을 때 작전을 방해하는 것을 의미함. (출처 : Air-Sea Battle office 자료)
- 중국은 국내외 안보 정세 변화에 따라 적극방어 군사전략 수행 방침 내용을 수차례 수정하였는바, '04년에는 新시기(the new period) 군사전략 방침을 보완하여 '정보화 조건 하 국지전의 승리' 등 일부 개념의 구체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14년 국방백서에서는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수행 원칙을 명시하였음.

적극방어 군사전략 수행 원칙

① 국가 전략 목표 실현을 위해 복종하고 기여하며 총체적 국가 안보관을 실현한다.
  – 군사투쟁 준비, 위기 예방, 전쟁 억제 및 승리
② 국가 평화 발전에 유리한 전략 정세를 조성하고 방어적인 국방정책을 견지한다.
  – 국가가 직면할 수 있는 종합안보 위협에 적극 대응
③ 권익 수호와 안정유지의 균형을 유지하고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을 수호한다.
④ 군사투쟁의 전략적 주도권을 쟁취하기 위해 노력한다.
  – 군대 개혁 및 발전을 빠르게 추진
⑤ 융통성 있고 기동성 있는 전략전술을 운용한다.(합동작전 효율성 강조)
⑥ 가장 복잡하고 최악의 상황에 대응하는 사고(思考)를 견지한다.
⑦ 인민군대 특유의 정치적 강점을 충분히 발휘한다.
  – 당의 영도를 견지, 군정(軍政) 및 군민(軍民) 관계를 밀접히 하고 사기를 고양
⑧ 인민전쟁의 전체적인 위력을 발휘한다.(과학기술 동원 위주로의 전환)
⑨ 군사 안보협력 공간을 적극 확장한다.(대국, 주변국 등 관계강화 및 지역안보 구축 강화)

〈 2014년 중국 국방백서 〉

다. 중국 인민해방군 국방정책

- '95년-'14년까지 총 9번의 국방백서가 발표되었으며, 이중 '98년-'10년에 발간된 7개의 국방백서에서 명시한 중국의 국방정책은 아래 내용을 함축하고 있음.
  - 국가의 안보와 통일을 수호하고 국가의 발전이익 보장
  - 국방과 군대 건설의 전면적 조화로 지속 가능한 발전 실현
  - 정보화를 주요 지표로 하는 군대의 질적 건설 강화
  - 적극방어 군사전략 방침 관철
  - 자위방어(自衛防禦) 핵전략 견지
  - 국가의 평화적 발전에 유리한 안보환경 조성

- '10년 발표된 국방백서에서는 국방정책을 4가지로 요약 하였는바, ① 국가 주권, 안전 및 국가 핵심 발전 이익 수호 ② 조화로운 사회 건설 및 안녕 유지 ③ 국방과 군 현대화 추진 가속화 ④ 세계 평화/안정 유지 및 기여 등으로 명시 하였으며, '13.3월 12기 전인대 1차회의 정부 업무 보고에서는 국방정책을 ① 국방과 군 현대화 추진 가속화 ② 공고한 국방 및 강력한 군대 건설 ③ 국가 주권, 안보, 영토의 굳건한 수호 ④ 국가의 평화 및 안전 보장 등으로 발표한 바 있음.

라. 중국 인민해방군 현대화 동향

1) 덩샤오핑의 국방현대화

- 세계대전의 시대가 가고 냉전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판단 하, 덩샤오핑은 중공중앙 군사위 주석('81-'89) 및 국가군사위 주석('83-'93) 취임 후 '국방현대화'를 본격 추진
  ※ '국방현대화'는 1954년 제1차 인민대표대회에서 처음 언급되었고, 1956년 제8차 당대회에서 '국가 목표(4개 현대화)' 중 하나로 설정되기도 하였으나 실제 추진은 불발

- 이를 위해 국방 예산 재조정 및 100만 명 감군('85-'87)을 단행하였으며, '제한적 국지전'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화력, 기동력 및 원거리 투사능력 발전에 중점을 두기 시작

2) 장쩌민의 3단계 국방건설론

- 1단계 : 2010년 이전에 견실한 기반 구축
- 2단계 : 2020년 이전에 기계화의 기본적 실현 및 정보화 건설 관련 중대 발전 이룩
- 3단계 : 2050년에는 국방과 군 현대화 목표의 기본적 실현

3) 대규모 병력 감축을 통한 정예화

- 1단계('80년대 후반) : 100만 명 감축(400만 명 → 300만 명)
- 2단계('90년대 후반) : 50만 명 감축(300만 명 → 250만 명)
- 3단계(2000년대 초) : 20만 명 감축(250만 명 → 230만 명)
- 4단계('15-'17년) : 30만 명 감축(230만 명 → 200만 명)

4) 육군 : 기동작전과 입체 공방의 전략적 요구를 충족한 전역(全域) 기동형 전력 구축

5) 해군 : 근해 방어와 원양 호위형 전력으로 합동·다기능·고효율의 해상작전 전력체계를 구축

6) 공군 : 항공우주 일체 및 공방 겸비형 전력 구축

7) 로켓군 : 핵 반격 및 중·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을 제고하는 전력 구축

8) 전략지원부대 : 우주 전력 증강 및 정보전·사이버전 능력 제고

2. 인민해방군 군사조직 및 지휘체제

가. 중국군의 창설 및 특징

1) 중국군의 창설

- 중국 장시성(江西省) 난창시(南昌市)에서 중국공산당 지령에 따라 '27.8.1 발생한 최초의 무장봉기인 난창기의(南昌起義)를 준비하며 만든 '홍군(중국공농홍군)'이 모태
  - 당시 동원된 병력은 2만여 명으로 국민당 정부 예하 일부 전투부대, 장교교육생도, 경찰부대로 구성
- 중국공산당 창건 멤버인 毛澤東과 周恩來 등이 주장한 "중국에서의 혁명과업을 완수하기 위해 독자적인 무장세력 확보 필요"에 따른 것이나 '27.4월 시작된 당시 중화민국 정부의 공산당 세력 및 일제 소탕 개시로 인한 위기탈출이 직접적 계기로 작용
- '27.8월 난창기의는 국민당 정부군 소탕작전에 의해 실패했지만, 이를 계기로 중국공산당은 집권 국민당과의 대립과 타협을 거듭하면서도 자체 군사훈련 기구를 편성, 지속적인 무장역량의 확장을 통해 '49.10월 중국 대륙에 중화인민공화국(中華人民共和國)을 건립
  - '47년에 '인민해방군'(People's Liberation Army : PLA)으로 개칭

2) 중국 군사조직의 특징

- 인민해방군은 新중국 정권수립 전 공산당에 의해 창설된 당의 군대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정권 수립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
  * '83년에는 전국인민대표회의 예하에 국가중앙군사위원회를 창설하여 인민해방군이 당의 군대임과 동시에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국민의 군대라는 점을 강조하였음.
- 군은 당의 과업수행 도구이자 국가의 보위세력으로 정치, 사상교육 및 공작에 역점
- 정치, 사회, 경제 등 각 분야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
- 국가의 생산 및 건설 활동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98.7월 江澤民 주석의 "군대, 무장경찰, 국가공안기관의 기업경영활동 금지" 결정 이전까지 자체 영리활동을 통해 일부 군비 확보
- 군의 조직은 지휘관-정치위원 병존체제 하 다수 副지휘관, 副부서장을 두는 특이한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이로써 상호감시, 견제, 협조, 의견수렴 등을 할 수 있도록 합의체 형식의 지휘구조를 편성

○ 인민해방군은 육군을 모체로 창설되었으며 '15년 말까지 4대 총부 중 하나인 총참모부가 대외 군사교류시 합동지휘기구의 임무를 수행하는 등 다소 기형적인 지휘구조를 장기간 유지하다가 '15.12.31 상부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신설된 전구(戰區) 통합지휘를 위한 연합참모부와 전구 육군에 대해 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육군지휘기구를 정식 창설

- '15.12.31 상부 지휘구조 개편으로 중국 인민해방군은 5개 군종으로 확대

☞ 5대 군종 : 육군, 해군, 공군, 로켓군, 전략지원부대(우주·사이버 등 정보 분야)

나. 중국 군사조직 현황

1) 중앙군사위원회

【黨중앙군사위원회/'27년 창설】

○ 실질적인 통수권을 장악(현재 주석은 習近平)

- 역대 主席이 毛澤東, 華國鋒, 鄧小平, 江澤民, 胡錦濤인 점으로 보아 실질적인 최고지도자가 黨중앙군사위 주석 직책을 수행

※ 2개 중앙군사위원회의 지도부는 실제로 100% 동일 인물로 되어 있으며, 국가 중앙군사위원회에는 산하 기구가 편성되어 있지 않음.

【國家중앙군사위원회/'83년 창설】

○ 전국의 무력을 지휘하며 주석책임제 실시

- 주석은 임기 5년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선출(현재 주석은 習近平)
- 黨중앙군사위원회와 동일한 조직 및 인원으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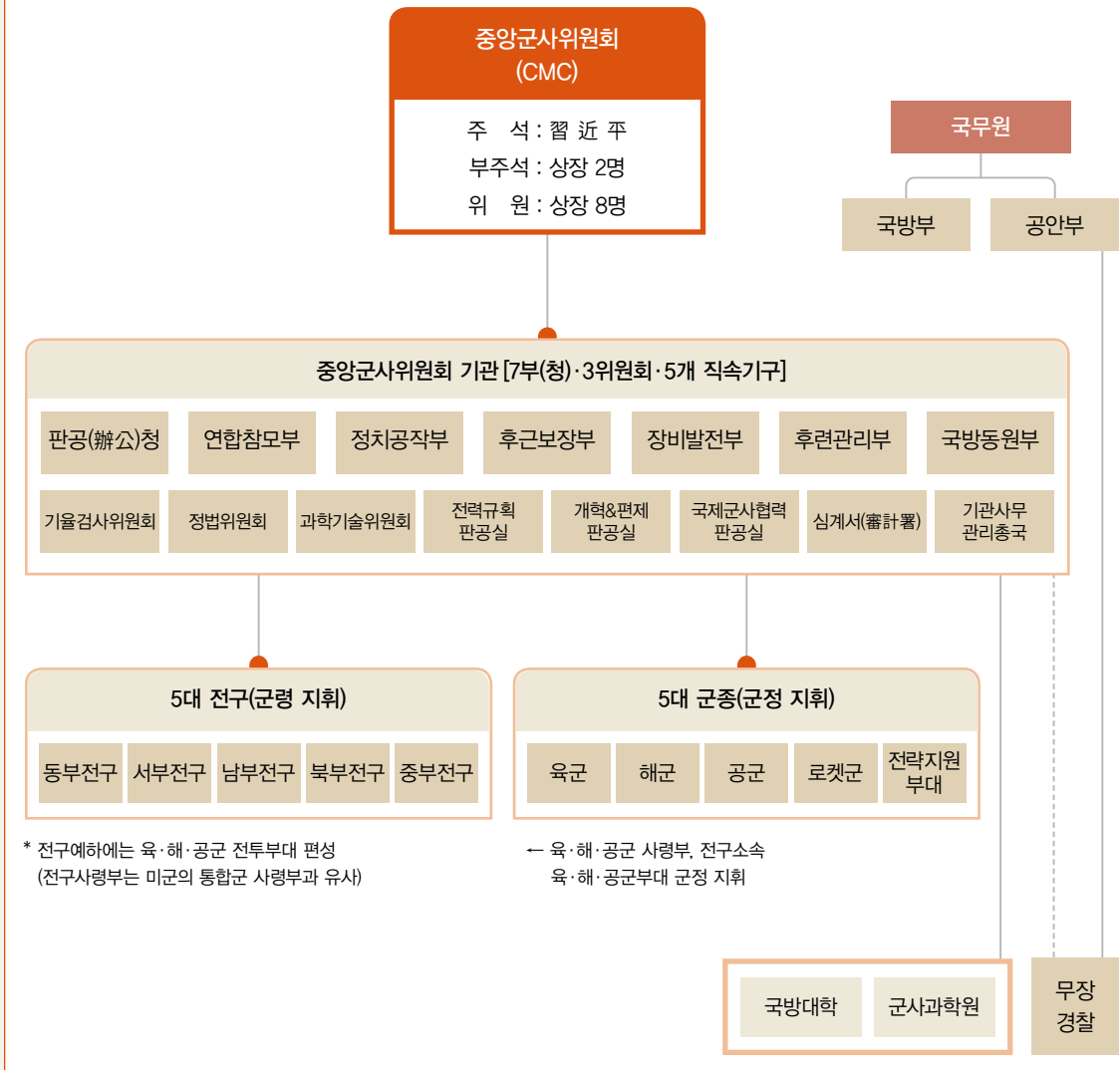
2) 중앙군사위원회 예하 기관

○ '15.9.3 習近平 주석은 9·3 기념행사 시 30만명 감군을 천명하였으며 '15.12~'16.2월 기간에 중국군 상부 지휘구조 개편을 단행하였는바, 기존 중앙군사위원회 예하 4대 총부(총참모부(總參謀部), 총정치부(總政治部), 총후근부(總後勤部), 총장비부(總裝備部))를 해체하고 그 권한과 임무를 신설된 중앙군사위원회 15개 직능부문으로 개편 (각각의 직능은 아래 참조)

【판공청(辦公廳)】

-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업무 지원 및 여타 14개 직능 부문에 대한 행정 지원업무를 총괄하는 것으로 추정함.

중국인민해방군 지휘구조('16.2.1)



* 전구예하에는 육·해·공군 전투부대 편성
(전구사령부는 미군의 통합군 사령부과 유사)

← 육·해·공군 사령부, 전구소속
육·해·공군부대 군정 지휘

★ **중국군 조직 개편 경과**

* '15.12.31 : 육군지휘기구, 로켓군, 전략지원부대 창설로 5대 군종체제 정립
* '16. 1.11 : 4총부 해체, 7부(청)·3위원회·5개 직속기구 등 15개 직능 부문 개편
* '16. 2. 1 : 7대 군구 해체, 5대 전구(예하 육·해·공군 편제)로 개편

※ 출처 : 중국국방부 자료 등

【연합참모부(聯合參謀部)】
- 작전계획 수립 및 지휘통제, 작전지휘 보장, 군사전략과 군사수요 연구 및 제정, 작전능력 평가 및 조직, 연합 지휘훈련 및 전비건설, 일상 전비업무 조직 등 직능을 수행함.

【정치공작부(政治工作部)】
- 전군적인 당의 건설과 조직업무, 정치교육 및 군사 인력자원 관리 등의 직능을 수행함.
- 당의 군에 대한 절대 영도의 근본원칙을 견지하면서 당위제, 정치위원제, 정치기관제 등 일련의 제도를 엄격히 실행함. 또한 규정에 따라 정치 軍간부를 편성 및 배치하고, 군 내 당 조직을 완비하여 엄밀한 권력 운행 제약 및 감독 체계를 구축함.

【후근보장부(后勤保障部)】
- 전군 후근(보급)보장 기획과 계획, 정책연구, 표준제정, 검사감독 등의 직능을 이행함.
- 보장(보급) 역량 배치와 간부·지휘관계를 조정하여 최적화시키고 연합작전지휘체제와 서로 부합되면서 통합-분리 결합 및 통용-전용의 'Two 라인' 후근(보급)보장체제를 구축함.

【장비발전부(裝備發展部)】
- 전군 장비발전 기획과 계획, 개발, 실험, 감정(조사), 구매관리, 정보시스템 건설 등의 직능을 이행함.
- 군사위원회 장비부서가 집중 통괄하고, 군종이 구체 건설관리하며, 전구(戰區)가 연합 운용하는 체제 구조를 구축하는 데 주력함.

【훈련관리부(訓練管理部)】
- 부대의 주기적, 기초적 업무인 군사훈련 및 부대관리 업무를 담당함.
- 전군적인 군사훈련에 대한 통일 기획 및 조직영도를 강화하며, 부대 및 학교관리 강화를 통해 군사훈련과 부대관리를 긴밀히 융합시켜 '실전화 훈련'과 '의법치군, 종엄치군' 추진을 지원함.

【국방동원부(國防動員部)】
- 국방동원 및 예비역량 건설을 조직적으로 지도하고, 성(省) 군구를 영도 및 관리하여 중국특색의 국방 동원체계를 구축하는 직능을 이행함.

【기율검사위원회(紀律檢查委員會)】
- 군사위 직능 부문과 작전부대에 각각 기율검사팀을 파견 주둔시켜 기율을 검사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함.
- 이를 통하여 군대 내 기율검사 감독의 독립성과 권위성을 강화함.

【정법위원회(政法委員會)】
- 군대 내 정법업무에 대한 영도를 강화하여, '의법치군, 종엄치군'을 추진하고, 위법 범죄활동을 예방하고 조사,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함.

【과학기술위원회(科學技術委員會)】
- 국방 과학기술 전략 관리를 강화하고 국방 과학기술의 자주혁신을 촉진하며, 동 영역에서 군민융합 발전을 조화롭게 추진하는 직능을 이행함.

【전략규획판공실(戰略規劃辦公室)】
- 전군적인 전략기획체제, 기제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군사위의 전략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군대 내 전략기획 집중 통괄을 강화하며 국방 및 군대건설의 효과를 제고시키는 업무를 담당함.

【개혁·편제판공실(改革和編制辦公室)】
- 주로 국방 및 군대 개혁의 기획조정 직능을 이행하며, 중대 개혁을 지도 및 추진하고, 전군적인 조직편제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함.

【국제군사합작판공실(國際軍事合作辦公室)】
- 주로 대외 군사교류협력과 전군적인 외사업무 관리, 조정 등을 담당함.

【심계서(審計署)】
- 주로 군대 내 회계심사 감독 직능을 이행하며, 전군적인 회계심사 업무를 조직하고 지도함.
- 회계심사인원 파견 주둔 실행을 통해 회계심사의 독립성과 권위성을 증강시켜 감독 효능을 증진하는 데 주력함.

【기관사무관리총국(機關事務管理總局)】
- 군사위 직능 부문 및 유관 직속단위 관리 및 보장 업무를 총괄함. 자원의 일괄 관리 및 사용을 통해 관리 및 보장의 효율을 제고하는데 주력함.

3) 5대 군종 및 5대 전구체제

- '15.12.31 중국군은 육군, 해군, 공군, 로켓군, 전략지원부대 등 5개 군종으로 확대됨.
  - 인민해방군 육군에 대한 군정 지휘를 담당하는 최초의 육군지휘기구를 창설함.
  - 제2포병이 로켓군으로 재탄생함.

- 기존 총참모부의 주요 정보 기능부대(정보전, 사이버전 등 담당) 및 국가 전략 정보부대(우주 감시, 자산 관리 등 담당)를 통합한 전략지원부대를 창설함.

- '16.2.1 기존 7대 군구 체제를 미군의 통합군 체계를 모델로 동, 서, 남, 북 및 수도 베이징을 방어하는 5대 전구(戰區)체제로 재조정하여 통합 작전능력을 제고함.
  - 동부전구(舊 난징군구) : 장쑤, 저장, 안후이, 푸젠, 장시, 상하이
  - 남부전구(舊 광저우군구) : 후난, 광둥, 하이난, 윈난, 구이저우
  - 서부전구(舊 청두군구 및 란저우군구) : 쓰촨, 티베트, 간쑤, 닝샤, 칭하이, 신장, 충칭
  - 북부전구(舊 선양군구) : 랴오닝, 지린, 헤이룽장, 네이멍구, 산둥
  - 중부전구(舊 베이징군구 및 지난군구) : 허베이, 산시(山西), 산시(陝西), 허난, 후베이, 베이징, 톈진

- 최근 중국군 상부 지휘구조 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시진핑 주석의 군 통수권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으로 서방 언론에서는 평가하고 있는바, 중앙군사위원회가 5대 전구에 대한 작전 지휘권과 5대 군종에 대한 군정권을 행사함으로써 중앙군사위원회의 권한이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음.

4) 국방부

- '54.9월 중국 제1기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에 의거 국무원 산하의 국방관련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기구로 발족

- '71.9.13 제2대 국방부장인 린뱌오(林彪)에 의한 쿠데타 미수사건(反革命事件) 이후 국방부는 군사 행정 및 대외 군사외교의 의전적 업무를 주로 처리, 실제 업무는 중앙군사위 및 예하 직능부문에서 처리

- 중국 헌법상에 명시된 권한은 국방건설 사업의 지도와 관리
  - 軍에 대한 지휘 및 통제기능을 제외한 軍의 업무(중앙 및 지방정부와의 업무협조와 동원, 국방교육, 대외 군사외교 및 행정)를 담당

5) 국방대학

- '85.12월 기존의 해방군 군사학원, 정치학원, 후근(보급)학원을 통합하여 설립되었으며 국방현대화 추진에 따른 인재, 특히 현대 군사지식을 갖춘 고급지휘관 양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교육기관

- '86.9.1 부터 교육을 시작하였으며, 육·해·공군 집단군급 이상의 야전, 정치, 군수분야 지휘관, 주요부서의 부서장, 고등이론 연구요원 및 국가기관의 고급 간부를 주 교육대상으로 교육

- 국방대학 내 국방연구 전공은 군단장급 이상의 장교 및 省, 국가기관의 국·실장급 이상의 간부를 대상으로 6개월 과정의 국방건설 관련 내용을 교육하며, 大學院은 현역 복무 1년 이상의 대졸학력 장교를 대상으로 석/박사 수준의 교육을 제공

- 전략 및 국방현대화 추진 등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생산, 중앙군사위원회 및 각 군에 정책 참고자료로 제공

6) 군사과학원

- '56년 元帥 예젠잉(葉劍英)의 창설 제의로 '58.3.15 베이징에서 공식 개원

- 중국인민해방군 군사이론 연구 관련 고등 연구기구로서 全軍 군사학술 연구의 센터 역할을 수행하는 중앙군사위원회 직속기관

다. 지휘체제(黨·軍관계)

- 중국 헌법(93조)에 따르면, 국가중앙군사위원회가 軍을 지휘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黨중앙군사위원회가 국가중앙군사위를 겸직하는 방법을 통하여 黨이 인민해방군을 완전히 장악(以黨領軍)하는 형태

  ※ 지휘체계(군령권) : 중앙군사위 → 5대 전구 → 집단군(해·공군 부대)
  (군정권) : 중앙군사위 → 5대 군종 → 집단군(해·공군 부대)

- 黨의 軍에 대한 통제는 黨중앙군사위원회의 통솔(統帥), 군정(軍政)지도, 군내 정치위원제 실시, 黨 조직에 의한 장병 동향 파악 등의 형태로 강력 추진 중

  ※ 중국은 국가발전 추세에 따라 당의 군대임과 동시에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국민의 군대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83.2월 전국인민대표회의 예하에 국가중앙군사위원회를 창설하였으나 軍 통제는 여전히 黨중앙군사위를 통하여 실행(黨중앙군사위원이 국가중앙군사위원 겸임)해 왔으며, 특히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 군에 대한 당의 지휘를 강화했고 그 일환으로 '16.2.1일부로 기존의 4대 총부체제를 중앙군사위원회 다부체제로 개편하였음.

3. 병력 현황

가. 병역제도

1) 병무행정 담당기관

-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 및 국방부
- 중앙군사위원회 예하 국방동원부 등 기관
  - 15개 직능 부문, 5대 군종 및 5대 전구 내 관련 기관
  - 성(省) 군구(위수구, 경비구), 현(縣), 자치구 및 시 관할구의 인민무장부
  - 향(鄕), 민족향(民族鄕), 진(鎭)의 인민정부
- 국방부 예하 징병 판공실

2) 병역 유형 : 징병제 (실질적으로 지원병제로 운영)

- 의무병과 지원병, 민병과 예비역을 상호 결합한 병역제도 운영
  - 〈병역법〉에는 만 18세 이상의 남성은 병역 등기의 의무가 있으며, 등기 후 신체검사에서 병역 의무 수행 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현역병으로 징집된다고 적혀있으나, 모집 정원에 비해 적합 판정을 받은 자 중 병역 의무 수행 의사가 있는 사람이 많아 사실상 지원신청서 제출 및 심사를 통해 선발됨. (출처 : 중화인민공화국 병역법, 중국 전국 징병망)

3) 병역의무 이행

- 남자 : 18~20세
  - 고졸은 만 21세, 대학 재학생은 만 22세, 전문대(3년제) 졸업생은 만 23세, 대학 졸업생은 만 24세로 연장 가능
- 여자 : 18~19세(자원자)
  - 대학 재학생은 만 20세, 대학 졸업생은 만 22세로 연장 가능

4) 현역병 및 지원병 제도

- 현역병 복무기간 : 2년(1년차 : 列兵, 2년차 : 上等兵, 2년 복무 후 장기 근무자 선발)

○ 지원병 대상
- 군단급(집단군) 이상의 비준을 거쳐 현역 복무기간이 끝난 사람 중에서 선발
- 군 수요에 의해 전문기능이 있는 非 군사부문의 공민(公民) 중에서 모집
- 복무기간 : 최소 3년, 최장 30년(50세까지)

나. 병력현황

○ 상비군(출처 : Military Balance 2015)

구분	합계	지상군	해군	공군	로켓군	전략지원부대
병력(만 명)	230	156.7	23.5	39.8	10	미상

- 약 230만 명으로 세계 1위 규모, 準군사력 부대인 무장경찰 66만 명은 별도
- 軍 개혁 일환으로 2017년 말까지 30만 명 감군 예정이며 新군종으로 분류된 전략지원부대(정보) 병력은 미상이나 최소 1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음.

4. 계급 제도

- '55년 처음으로 계급제도를 시행하였으나, 시행 10년만인 '65년 문화대혁명 당시 군인들의 계급을 '인민평등'이라는 주장 하에 폐지하고 '직책'만 존속
- '79.2월 중-월 전쟁에서 작전 지휘권의 혼란을 가져오게 되어, '88년 鄧小平의 지시에 의거 계급제도가 부활되었으며, '99년부터 부사관 제도 시행

구분	계급
장군(3)	上將(대장급), 中將, 少將
영관(4)	大校, 上校, 中校, 少校
위관(3)	上尉, 中尉, 少尉
부사관(7)	高級士官(1級軍士長, 2級軍士長, 3級軍士長), 中級士官(4級軍士長, 上士), 初級士官(中士, 下士),
사병(2)	上等兵, 列兵

5. 국방 예산

가. 연도별 국방비 현황

단위 : 억 元(불)

구분 \ 연도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국방비	2,838.29 (350억)	3,509.21 (449.4억)	4,177.69 (587.6억)	4,806.86 (624.8억)	5,321.15 (704억)	6,011.00 (915억)	6,056.00 (1,060억)	7,201.68 (1,143억)	8,082.00 (1,318억)	8,868.98 (1,410억)	9,543.54 (1,460억)
전년대비 증가율 (%)	12.50	17.80	17.60	14.9	7.5	12.7	11.2	10.7	12.2	10.1	7.6
정부재정 증가율 (%)	7.40	7.50	7.2	7.2	6.3	6.0	5.53	·	5.53	·	·
GDP대비 (%)	1.35	1.35	1.4	1.4	1.4	1.4	1.28	1.3	1.3	·	·

* 출처 : 신화사 발표 정부 자료

나. 국방비 관련 중국 측 주장

- 최근 10년간 국방비의 두자리 수 증가율은 장병 처우 개선, 물가 상승분 보충, 부대 공공사업비 및 교육훈련비 증가, 새로운 무기장비 확보 필요 등에 따른 것
- 절대 액수면이나 GDP 점유비율 면에서 세계 주요국가 수준에 비해 낮고, 규모 면에서는 중국의 적극방어 전략방침을 구현할 수 있는 적당한 규모
- 넓은 국토 면적과 많은 인구에 비추어 국방비는 현저히 낮으며 군인 1인당 평균 군사비 지출은 미국의 1/20에 불과
- GDP 대비 국방예산 비중은 미국과 영국 등의 국가가 2% 이상인 반면 중국은 2008년 1.4%에서 2013년 1.3%로 GDP 대비 국방예산은 감소 추세
- 2016년 국방예산은 전년대비 7.6%로 2000년 이후 최저 증가폭 시현

다. 중국 국방비 분석

- 1990년대 이후 경제력 성장과 군사비 지출이 일치된 가운데 꾸준히 증강되어 왔으며 '89년 기준으로 20여 년간 약 30배 증가되었음.
- 국방비에 장비비, 훈련비, 인건비만 포함하고 첨단무기 도입비 등을 기타 예산에 편성하여 실제 국방비는 발표액의 2배 이상으로 추정되며, 명실 공히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임.
  - 아시아 국가 중에서 일본을 제외한 인도, 한국, 호주, 대만, 인도네시아 국방비를 합친 것보다 많은 규모
- 스톡홀롬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중국의 실제 국방비는 공식 발표액의 1.5~2배일 것이라고 추정

6. 2014년 중국 국방백서

가. 주요 내용

1) '14년도 중국 국방백서는 '중국의 군사전략(中國的軍事戰略)'이라는 주제 형식으로 '15.5월 발간

- 중국은 '95년 최초로 중국의 군비통제&축소(China : Arms and Disarmament)라는 제목하에 국방백서를 발표한 이래 '98년 이후 부터는 2년 주기로 국방백서를 발표하고 있으며 '14년도 국방백서가 9번째임.
  - 국방백서는 '98년 이래 해당년도 연말(12월)에 발표되었으나, '10년 국방백서는 '11.3월, '12년 백서는 '13.4월, '14년 백서는 '15.5월에 발간하였음.
  - 중국 국방부 중문 홈페이지('16.3.28. 기준)에는 '95년, '00년, '02년, '04년, '06년, '08년, '10년, '12년 등 8개 국방백서가 게재되어 있으며 영문 홈페이지에는 '95년부터 '14년까지 발간된 10개의 국방백서의 제목과 순서는 모두 게재되었으나 본문이 게재된 국방백서는 '10년, '12년, '14년에 발표한 3개뿐임.

- '98-'10년 2년 단위로 발표된 7개의 백서는 종합적인 국방백서 형태였으며, '12년 및 '14년 발간된 백서는 전문 주제(專題) 서술 형식으로 발간되었음.
  - '14년 백서의 경우 서언을 제외하고 총 6개 장, 25페이지 9,000여자 수준이었음.
  - '10년 백서는 총 10개 장, '12년 백서는 총 5개 장으로 구성되었음.

2) 1장 : 국가안보 정세

- 국지전 위협을 언급하며 영토 및 주권 수호 의지를 강조하였음.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전략을 지속 추진하면서 군사동맹 체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일본은 군사안보 정책을 대폭 조정하여 주변국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평가함.

- 대만 독립 주장 세력을 중국의 분열세력으로 평가하였으며, 티베트 독립 주장 세력 또한 심각한 분열 세력으로 평가하였음.

-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 정세에 다수의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요소가 존재한다고 기술하였음.

3) 2장 : 군대 사명과 전략과제

- 중국 인민해방군의 전략 목표를 중국의 국가 전략 목표(전면적 소강사회 및 부강한 민주문명 사회주의 국가 건설)를 지원할 수 있는 강군의 꿈을 실현하는 것으로 정의함.
- 전략 목표의 효과적인 실현 및 총체적 국가안보관 구현을 위한 인민해방군의 8대 전략임무를 아래와 같이 서술함.
  - 군사적 위협 대응 및 국가 영토, 영공, 영해 등 주권과 안보 수호
  - 조국 통일 수호
  - 새로운 영역(우주, 사이버 등)의 안보 및 이익 수호
  - 해외 이익 및 안전 수호
  - 전략적 억지력과 핵 반격 행동 확보
  - 지역과 국제안보 협력 적극 참여 및 지역과 세계평화 수호
  - 반테러, 반분열 대비 능력 강화 및 국가 정치 안전과 사회 안정 수호
  - 재난 구조, 권익 수호, 안보 경계, 국가 경제 사회 건설 지원

4) 3장 : 적극방어 전략 방침

- 적극방어 전략은 중국 공산당 군사전략 사상의 토대라고 강조함. 현재 적극방어 전략 방침은 '04년 新시기(the new period) 군사전략 방침을 보완하여 '정보화 조건하 국지전의 승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구체적 수행원칙을 아래와 같이 서술함.

① 국가 전략 실현을 위해 복종하고 기여하며 총체적 국가 안보관을 실현한다.
② 국가 평화 발전에 유리한 전략 정세를 조성하고 방어적인 국방정책을 견지한다.
③ 권익 수호와 안정유지의 균형을 유지하고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을 수호한다.
④ 군사투쟁의 전략적 주도권을 쟁취하기 위해 노력한다.
⑤ 융통성 있고 기동성 있는 전략전술을 운용한다.(합동작전 효율성 강조)
⑥ 가장 복잡하고 최악의 상황에 대응하는 사고(思考)를 견지한다.
⑦ 인민군대 특유의 정치적 강점을 충분히 발휘한다.
⑧ 인민전쟁의 전체적인 위력을 발휘한다.(과학기술 동원 위주로의 전환)
⑨ 군사 안보협력 공간을 적극 확장한다.(대국, 주변국 등 관계강화 및 지역안보 구축 강화)

5) 4장 : 군사력 건설 및 발전

- 강군 목표를 실현하고 정보화 군대를 건설하며 중국 특색의 군사력 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음.

- 각 군종별 새로운 발전 전략을 아래와 같이 제시함.
  - 육군 : 기동작전과 입체 공방의 전략적 요구를 충족한 전역(全域) 기동형 전력 구축
  - 해군 : 근해 방어와 원양 호위형 전력으로 합동·다기능·고효율의 해상작전 전력체계를 구축
  - 공군 : 항공우주 일체 및 공방 겸비형 전력 구축
  - 로켓군 : 핵 반격 및 중 ·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을 제고하는 전력 구축
  - 무장경찰 : 대테러 공격, 재난 구호, 응급지원, 공중지원 전력 발전

- 4대 중요 안보영역(해양, 우주,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가 핵심 이익 수호 의지를 명시하였으며, 첨단무기와 장비 발전, 군사인재 양성, 의법치군·종엄치군의 심도있는 추진, 군사 이론 혁신 추구를 명문화하였음.

- 특히 군사력 건설 발전 관련 군민융합(軍民融合) 정책을 심도있게 추진할 것을 강조하였음.

6) 5장 : 군사투쟁 준비

- 전투 준비 태세 관련, ① 정보체계에 기반한 체계적 작전 능력 강화 ② 각 측면 및 각 영역에서 전투 준비 태세를 종합적으로 계획 및 시행 ③ 평시에도 항상 전시 대비 태세 유지 ④ 군사훈련의 실전화 수준 제고 ⑤ 재난구조, 대테러, 국제평화 유지 활동 등 전쟁 이외의 군사활동(MOOTW : Military Operations Other Than War) 준비 강화 등 5개 분야를 강조하였음.

7) 6장 : 군사안보 협력

- 군사안보 협력 분야에서는 ① 대외 군사 관계의 전방위적 발전 추구 ② 실무적 군사 협력 추진 ③ 국제 책임과 의무 이행 등을 강조하였음.

나. 중국 국방백서에 나타난 국방정책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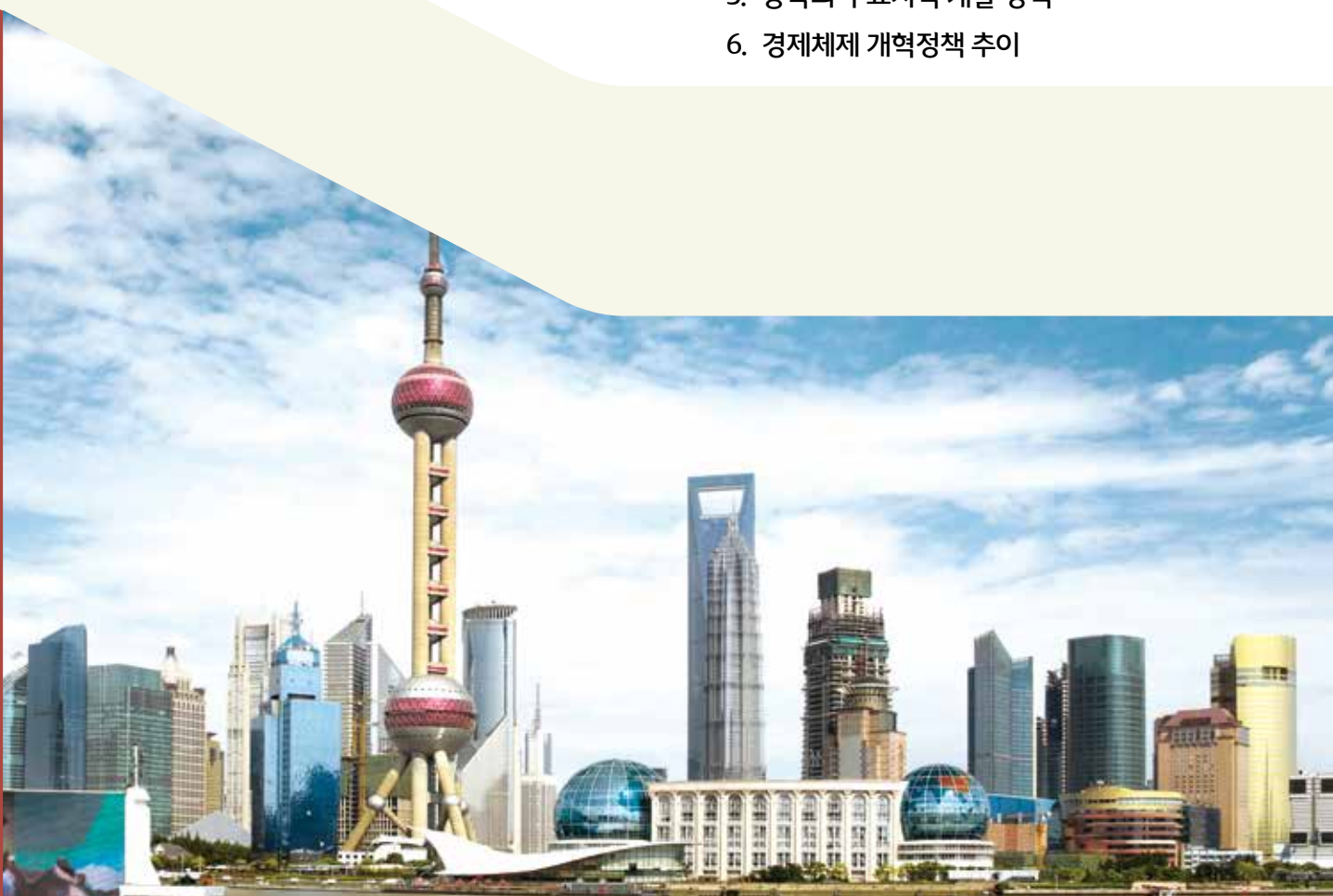
연도	주요 내용
1998	중국의 군사전략은 적극방어 전략으로 적의 공격이 먼저 발생한 후에만 공격을 하되 적의 공격에 대해서는 반드시 반격하고 전장의 주도권을 확보
2000	중국군의 현대화는 자위를 위한 것이며, 국가 안보와 현대화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것
2002	중국 국방정책의 근본적 기초는 중국의 국가 이익
2004	중국의 국방은 국가의 생존과 함께 발전 역시 보장해야 하는 요소
2006	3단계 발전전략 : ① 2010년까지 기계화 실현 및 정보화 진전, ② 2020년까지 기반 구축을 토대로 비약적 발전, ③ 21세기 중반까지 정보화 군대건설을 실현해 정보화 전쟁에서 승리
2008	정보화 조건하 국부전쟁에서의 승리 : 현대전 체계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합동작전 지휘체계, 합동훈련 및 합동지원체제 완비, 전력의 결합구조 최적화, 부대편성 완비
2010	국가의 해양권익을 수호하고, 우주, 전자,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가 안보이익 수호, 인재 전략공정을 통한 인재 양성
2012	전통/비전통 안보, 해양권익, 해상 교통로, 해외 이익 등 다양한 안보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무장역량의 다양화 운용
2014	미국의 아·태 재균형 정책 및 일본의 군사력 증강 등을 최초로 직접 명시

CHINA


UA LIAN
TCL
TCL

V
중국의 경제

1. 개관
2. 중국 경제 최근 동향 및 정책
3. 중국의 장기 경제정책
4. 중국 경제의 당면과제
5. 중국의 주요지역 개발 정책
6. 경제체제 개혁정책 추이



1. 개관

가. 중국경제의 초기 발전과정

■ **'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설립 후 국민당 관료자본의 몰수, 토지개혁과 재정개혁을 거쳐 '53년 부터 제1차 5개년 규획 시행**

■ **1950년대 이후 현실적 경제여건을 무시한 채 소련의 경제원조를 배경으로 급속히 추진된 중화학 공업육성 정책은 외화부족에 따른 사업부진, 자원낭비와 경제침체 유발**

■ **'78년 덩샤오핑 집권이후 '흑묘백묘론'에서 출발하여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체제'로 완성되는 개혁·개방정책 추진**

- 집단노동방식을 철폐하고 농민에게 토지경작권을 부여하는 '가정책임경영제' 실시로 농산물 생산량이 획기적으로 증대
- 국영·집체(집단소유제)기업이 주종을 이루던 경제구조에서 민영기업을 허용함으로써 도시의 고용문제 해결과 시장경제의 기초 마련
- 자력 갱생을 탈피하고 연해도시의 개방, 경제특구 설립 등 대외 개방을 통하여 선진 기술 도입과 경제개발자금 조달
- 기업의 진입퇴출을 규율하는 회사법 제정, 국유기업 노동자에 대한 고용계약제 등 시장 경제의 초석 마련

  ☞ 동 기간 중 시행된 제5·6·7차 5개년 규획은 중국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

※ 제7차 5개년 규획 기간('86–'90년)에는 높은 인플레이션, 천안문 사태 등으로 사회주의 체제로의 회귀를 주장하는 신보수주의 논의가 대두되기도 하였으나, 1992년 덩샤오핑의 남순강화를 계기로 개혁·개방정책 지속 추진

※ 남순강화(南巡講話)
: '92년 덩샤오핑이 지도부의 보수적 분위기를 변화시키기 위해 상하이, 선전, 주하이 경제 특구를 시찰하면서 개혁개방 확대를 주장

나. 1990-2000년대 이후 경제발전 과정

■ **1990년대 들어 '사회주의적 시장경제(socialist market economy)' 도입을 위한 제도 개혁 지속**

- 외자유치 촉진, 이중환율제 폐지와 경상거래 자유화, 민영기업을 위한 회사법 제정,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는 헌법 개정

○ 상하이·선전의 증권거래소 개설, 국유기업의 거래소 상장, 노동시장 규제완화를 위한 사회보장시스템 개혁 등 추진

☞ 1990년대 초반이후 민간부문의 역할 확대로 경제적 호황 유지, 1990년대 말 아시아 외환위기 과정에서도 7% 이상 성장

■ **2000년대에는 시장경제의 정착을 위한 구조개혁과 대외개방 가속화**

○ '01년 WTO 가입에 따른 중국시장 개방, 국유기업의 민영화 가속화, 부실금융기관의 구조조정, 환율제도 개편, 물권법·반독점법 제정

- WTO 가입 이후 관세인하, 금융시장 개방, 외자유치와 해외투자 확대, 아시아권 국가와의 FTA 체결 등 개방폭 확대
- '08.9월 세계 금융위기 이후 위안화는 달러당 6.82위안으로 고정(peg) 운용되었으나, '10.6월 기존의 달러화 페그제를 폐지하고 통화바스켓을 참조하여 조정하는 관리변동 환율제도로 전환

다. 경제발전방식의 전환과 12차 5개년 규획('11-'15년)의 시행

■ **중국경제는 '12년 말 기준 경제규모 세계 2위, 교역규모 세계 2위, 외국인 투자 유치(FDI) 세계 2위, 외환보유고 세계 1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

○ '12년 말 기준 GDP 8.26조 불(52조 위안), 교역규모 3.87조 불, FDI 순유입 1,117억 불, 외환보유고 3.31조 불

○ '78년 이후 현재까지 평균소득이 약 56배 상승하였고, 평균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10%에 이르는 경이적 성과 달성

■ **다만, 그동안의 수출주도형·외자의존형 양적성장전략에 수반되는 지역·계층·도농 간 소득 격차확대, 환경·에너지보전과 성장과의 부조화 등 중국 경제의 모순 노정**

■ **이에 따라, 제12차 5개년 규획('11-'15년)은 과학적발전관에 기초한 경제발전방식의 전환과 전면적인 개혁·혁신 추진으로 경제사회 발전 과정에서의 불균형, 부조화, 지속불가능 문제 해결 추구**

라. 전면적 개혁 심화와 13차 5개년 규획('16-'20년)의 시행

■ **중국 정부는 '16.3월 양회기간 제13차 5개년 규획 강요를 발표**

■ **제13차 5개년 규획은 향후 5년을 2020년 전면적 소강사회 달성을 위한 관건적 단계로 규정하고, 이를 위해 혁신, 조화, 녹색, 개방, 공동향유 등 5가지 발전이념을 제시**

※ 소강 사회 :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생활환경 등이 비교적 여유로운 상태(2020년까지 2010년 기준 1인당 국민소득을 2배까지 제고)

– 덩샤오핑의 3단계 발전 중 2단계로서 1단계는 온포(溫飽 : 의식주 해결–2000년대 초 달성), 3단계는 대동(大同 : 선진국 사회 건설–2050년 달성 목표)

- (중고속 경제성장 유지) 2020년 소강사회 실현 및 GDP, 도시, 농촌 주민 1인당 소득 2배 달성(2010년 대비)을 위해 '13·5 규획' 기간 연평균 경제성장률 6.5% 이상으로 유지하고, 1인당 노동생산성 향상(8.7만 위안 → 12만 위안)으로 경제 총량 90조 위안 초과

- (혁신으로 발전 동력 마련) 혁신을 국가발전 전략의 핵심적 위치에 두고, 과학기술 혁신과 대중창업 만중혁신,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 등을 적극 추진, 활용하여 품질강국, 제조강국, 인재강국을 조속 건설
  - 2020년까지 기초연구, 전략적 우위 영역에서 중대한 진전을 이루고, R&D 비중을 GDP의 2.5%, 과학기술의 경제성장에 대한 공헌도 60% 이상 달성 목표

- (개혁개방 심화) 일대일로의 중대한 진전과 국제 생산협력의 새로운 돌파, 서비스 무역 비중 확대, 무역 수출입 품질 개선으로 무역대국에서 무역강국으로 부상하고, 진입전 내국민 대우,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 전면 실행 등 점진적으로 높은 표준의 자유무역구 네트워크 구축

- (균형 및 조화발전 추구) 신형 도시화 농업현대화 등 도농간, 지역간 조화발전 추진, 생태환경 개선, 민생 개선 및 교육개혁 추진

마. 중국 경제 발전 성과

■ **경제규모(GDP) 세계 2위**

- 중국은 '05년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4위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했으며, '08년 독일을 제치고 세계 3위를 차지한데 이어, '10년 일본을 누르고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 부상

'14년 전세계 경제규모(GDP) 순위 (단위 : 십억 불, 출처 : UNCTAD)

순위	국가명	GDP	순위	국가명	GDP
1	미국	17,527	6	프랑스	2,849
2	중국	10,067	7	브라질	2,200
3	일본	4,587	8	이탈리아	2,157
4	독일	3,852	9	인도	2,041
5	영국	2,950	10	러시아	1,865

■ 교역규모 세계 1위

○ 중국의 '15년 교역량은 3.96조 불로 세계 제1위(2위는 미국)
- 수출은 2.28조 불(전년대비 2.8% 감소)로 세계 1위, 수입은 1.68조 불(전년대비 14.1% 감소)로 세계 1위

■ 외환보유고 세계 1위

○ '15년 기준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3조 3,304억 불에 달하며, 중국은 '06년 이후 줄곧 전 세계 외환보유고 1위를 유지

■ 외국인 투자유치 세계 2위

○ '15년 기준 중국의 외자유치 규모는 1,263억 불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2. 중국 경제 최근 동향 및 정책

가. 최근 경제·금융시장동향

■ **(성장) '15년 중국경제는 연간 6.9%의 성장률을 기록하여 연초 목표치 7%에 근접하였으나 25년만에 최저수준이며, '16년에는 6.5-7.0%를 성장 목표치로 제시**

- 제조업 및 부동산개발투자가 부진하면서 '15년 고정투자규모가 전년에 비해 크게 둔화(15.7% → 10%)되었고 글로벌 경제둔화 등으로 수출이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한 것(6% → -2.9%)이 성장률 하락의 주요원인
  - 경제성장률 추이 : '08-'11년 9.7% → '12-'13년 7.7% → '14년 7.3% → '15년 6.9%
- 전반적인 성장률 하락에도 불구하고 3차산업의 성장률은 8.3%를 기록하고 온라인 소비의 급성장을 바탕으로 소매판매가 안정적인 수준(12% → 10%)을 유지하는 등 경제 구조가 전환(제조업, 수출, 투자 → 3차산업, 내수, 소비)되는 추세
-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생산과잉시설, 부동산재고, 비금융기업 및 지방정부의 부채와 취약한 금융시장이 중국경제의 리스크 요인으로 지적

■ **(노동시장) 고용지표는 경제성장율 둔화에도 불구하고 고용효과가 큰 제3차 산업의 성장에 힘입어 안정 유지**

- '15년 신규취업자수(도시)가 1,312만 명으로 '14년(1,322만 명)에 비해 소폭 둔화되었으나 연간목표치(1,000만 명)를 무난히 달성
- '15년 4/4분기 도시실업률은 4.05%로 안정적인 추세를 지속하였으며 구인배율(구인/구직)은 1.10배로 구인수요가 구직수요를 초과

■ **(물가) 중국의 '15년 소비자물가(CPI) 상승률은 1.4%, '16년 2월은 설날 영향으로 2.3%로 상승하는 등 소폭 상승세**

- 생산자물가(PPI)는 '15년 5.2% 하락, '16년 2월 4.9% 하락하는 등 '12년 3월 이후 47개월 하락세를 지속

소비자물가지수 및 생산자물가지수 상승률 (단위 : 전년동기대비, %)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소비자물가지수	5.4	2.6	2.6	2.0	1.4
생산자물가지수	9.1	△1.8	△2.0	△2.2	△5.2

* 출처 : 중국국가통계국

■ **(금융시장) '15년 말 M2 증가율은 완화적 통화정책 및 재정지출 증가 등으로 전년말(12.3%) 및 연간목표치를 상회하는 13.3%를 기록**

- '15년 중 경제침체 압력 및 미국을 제외한 기타 국가들의 금리인하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하는 가운데 예금금리 상한을 완전히 폐지하여 금리 자유화를 완성('15.10.23)
  - '16년 들어 은행들의 신용공급, 인민은행의 대규모 유동성 공급으로 M2증가율과 사회융자총액이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시중금리도 하향안정세 시현

- 주식시장은 '15년 상반기 중 연초 대비 60% 이상 급등을 보이다가 8월 한때 고점대비 43%까지 급락하였으나 9월부터 안정세를 보이면서 연초 대비 10% 상승으로 마감
  - '16년 들어 주식매각제한 해제우려, 저조한 PMI지수, 위안화평가 절하우려 등으로 서킷브레이크가 발생하는 등 주가 폭락을 겪다가 주가지수 3,000선에서 횡보 중

주가지수 추이

		'10년 말	'11년 말	'12년 말	'13년 말	'14년 말	'15년 말	'16.3월 말
상하이	상하이종합	2,808.1	2,199.4	2,269.1	2,214.5	3,234.7	3,539.2	3,003.9
	A주 (내국인 전용)	2,940.2	2,304.1	2,376.0	2,116.0	3,389.4	3,704.3	3,143.6
	B주 (외국인 전용)	304.4	215.3	244.9	253.6	290.8	426.4	375.2
선전	선전성분	12,458.6	8,918.8	9,116.5	8,121.8	11,014.6	12,664.8	10,455.4

* 출처 : 상하이증권교역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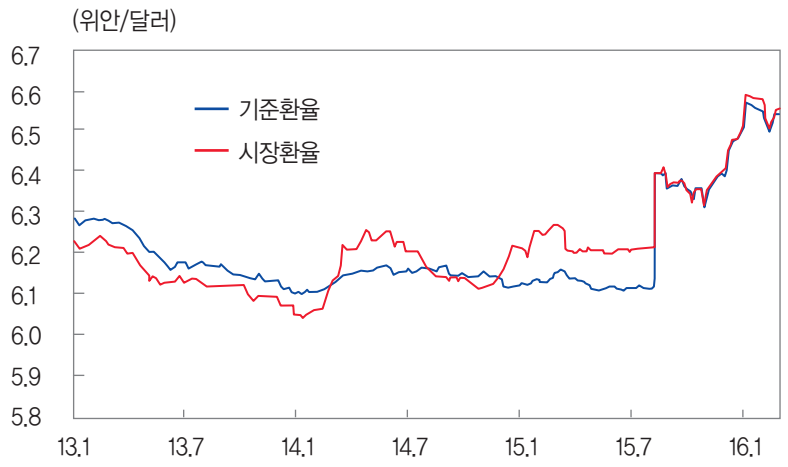
■ **(부동산시장) 내수둔화를 방지하기 위한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통화완화와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 정책으로 주택가격(70개 도시 단순평균, 전월대비)은 '15.4월 이후 상승세로 전환되었으며 '16.2월 현재 전월대비 상승 47개, 보합 8개, 하락 15개**

- 그러나 지역별로 볼 때 정책효과가 1-2선도시에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과열 우려 까지 있으나 3-4선도시의 회복세는 미약한 상황

■ **(외환시장) 대미달러 기준 위안환율은 산정방식의 변경('15.8.11) 이후 중국의 경제 둔화우려, 증시불안, 미국의 금리인상 등으로 자본유출이 가속화 하면서 큰 폭으로 절하되는 등 변동성이 심화**

- '16년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 시기 지연가능성, 인민은행의 적극적인 대응 노력으로 소폭절상 되는 등 안정화 추세

위안화의 대미달러 환율 변동추이(매월 말 기준)



출처 : 인민은행

외환보유액 변동 추이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2
외환보유액(연말, 억 불)	23,992	28,473	31,811	33,116	38,213	38,430	33,304	32,023
전년 말 대비 증가율(%)	23.3	18.7	11.7	4.1	15.4	0.6	△13.3	–

* 출처 : 중국국가통계국-국민경제와 사회발전통계

■ **(외국인투자) '15년 중국은 1,263억 불의 FDI가 유입되어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10년 이전의 증가세에 비해서는 미약한 수준**

- 중국의 성장둔화, 외자기업 우대축소, 가공무역규제, 생산요소의 상승 외에 반독점 규제, 비관세 장벽 등이 외국인 투자를 제약

○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른 중국 내수시장 확대, '16년 전인대에서 발표한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과 협력정책 등에 따라 내수 서비스산업, 첨단산업, 일대일로 관련 산업 등 분야에서 외국자본의 참여가 기대

외국인 투자 동향 (단위 : 억 불, 전년동기대비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건수	27,406(16.9)	27,712(1.1)	24,925(△10.1)	22,773(△8.6)	23,778(4.4)	26,575(11.8)
실제투자	1,057(17.4)	1,160(9.7)	1,117(△3.7)	1,176(5.3)	1,196(1.7)	1,263(6.4)

* 출처 : 중국국가통계국

나. '16년 경제정책 방향

■ **2016년은 13차 5개년 규획 기간('16-'20년)의 첫 해이자, 중국 경제가 '신창타이'(新常態, 경제 구조조정 속 중고속 성장)* 하에서 구조조정을 본격 시행하는 해로서, 대대적인 구조개혁 노력을 통해 안정적인 경제성장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

○ 특히, 경쟁력 없는 한계기업 퇴출, 과잉생산 조정, 생산성 제고를 위한 신흥산업 및 서비스산업 육성 등 공급측 구조개혁을 핵심과제로 추진

※ 신창타이(新常態) : 중국은 전체 경제규모의 증대('15년 기준 67.7조 위안)에 따라 현재의 1%p의 경제성장률이 5년 전의 1.5%p, 10년 전의 2.5%p 성장에 해당되어 과거와 같은 수준의 고속성장이 어려운 실정인바, 이러한 상황을 시진핑 주석은 '14.5월에 중·고속성장을 의미하는 '신창타이(新常態)' 라는 용어로 설명

■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16.3.5 전국인민대표대회 '16년도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금년도 중국의 경제운용 방향을 아래와 같이 발표**

○ (주요 목표) GDP 6.5-7% 성장, 소비자 물가 상승률 약 3%, 도시 신규 취업자 1,000만 명 이상, 도시 등록 실업률 4.5% 이내, GDP 단위당 에너지 소모 3.4% 이상 감소
- 경제성장 목표를 구체적인 수치보다는 상한 및 하한 구간으로 설정함으로써 일정 범위 내에서 탄력적인 관리방식을 취하겠다는 의미

○ (거시경제 안정) 세금감면, 비용인하 등 기업부담을 경감하고 지방정부 채무를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재정 적자율 3%, 2.18조 위안)을 실시하는 한편, 적절하고 유연성 있는 안정적인 통화정책 실시

○ (공급 측 구조개혁) 행정기능을 간소화하고 혁신·창업 장려, 과잉생산 해소, 국유기업 개혁, 기술 혁신 등 공급 측 구조개혁으로 중국의 성장동력 지속 강화

- (내수 잠재력 발휘) 소비 주도의 성장을 지속 추진하고, 기초시설, 민생개선, 신형 도시화 조치로 유효 투자의 역할을 강화하며, 지역발전 3대전략(일대일로, 징진지 협동발전, 장강경제벨트)과 함께 서부대개발 '13·5 규획', 새로운 동북지역 등 노후공업기지 진흥전략 및 중부굴기 신규 10년 규획을 추진

- (농업농민 발전) 농업의 구조조정, 과학기술 혁신과 농촌 공공서비스/기초시설 개선 및 농민 1천만 명 빈곤 탈출 지원

- (대외개방 수준 제고) 일대일로 건설, 국제산업협력 확대, 대외무역 혁신, 외자이용 수준 제고, FTA 전략(RCEP 협상 및 체결, 한중일 FTA 협상 가속화, 중·미, 중·EU 투자협정 협상 등) 조속 실시 등을 통해 중국의 대외개방 수준 제고

- (환경정책 강화) 에너지 절약/환경보호 산업을 중국의 제1의 지주 산업으로 육성하고, 스모그, 수질오염 등에 대해 강력 대응

- (민생보장) 대졸자, 구조조정 대상자, 도시구직자, 농민공의 취업·창업 지원, 공공교육 강화, 의료보장 강화, 사회보장 안전망 구축, 안전관리(식품, 생산, 재해) 강화 등을 통해 민생 개선

다. 진단과 전망

■ **주요 기관들은 최근 투자와 수출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향후 정부지출 확대에 따른 실물경기 부양 및 이를 뒷받침하는 완화적 통화정책을 통해 6.4% 정도의 경제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주요기관 전망 : IMF(6.3%), EIU(6.4%), HSBC(7.2%), Global Insight(6.3%), ADB(6.7%), World Bank(6.7%)

- 제13차 5개년 규획이 시작되는 첫 해로서, 중국의 중점적인 발전전략(지역 발전 전략, 중국 제조 2025, 일대일로 등)과 관련한 투자 확대가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

- 반면, 과잉생산 해소, 부동산 재고, 국유기업 개혁, 지방정부 채무 안정화, 금융 리스크 예방 등 각종 공급 측 개혁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느냐가 향후 중국 경제성장의 관건이 될 것으로 예측

■ **(중장기 전망) 과거와 같은 중국 경제의 두자리 수 고속성장이 재현될 가능성은 거의 없으나, 최근의 성장 둔화세를 경착륙 가능성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는 평가**

- 다수 학자들은 도시화의 진전, 중서부 지역 발전을 통한 내수확대 잠재력, 제조업의

수출 경쟁력, 기술혁신 움직임 등을 감안할 때 중국이 소위 “중진국 함정(middle income trap)”에 처할 위험이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

- 중국사회과학원은 향후 10년간 중국경제가 연평균 6.2%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중국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16-’17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6-7% 수준으로 전망

중국의 잠재성장률 추정

구분	중국 경제성장률(%)		비고
	2016년	2017년	
IMF	6.3	6.0	
아시아개발은행	6.5	6.3	
세계은행	7.0	6.9	
중국인민은행	6.8	–	
중국사회과학원	6.7	–	
중국은행	6.6–6.8	–	
국가신식중심	6.5	–	

* 출처 : 언론보도내용 정리

3. 중국의 장기 경제정책

가. 중국 제5세대 지도부의 경제정책 형성

- '12.11월 제18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로 출범한 제5세대 지도부(시진핑, 리커창 등)는 기존 성장 패러다임의 한계를 극복하고 중진국 함정을 벗어나 '20년 소강사회 건설을 위한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성장기반 확충 추구
  - 이를 위해 우선 제4세대 지도부(후진타오, 원자바오 등)가 채택한 제12차 5개년 규획('11-'15년)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경제성장, 민생개선, 환경보호 및 에너지 절약 등 경제와 사회의 균형적인 발전 추진

※ 시진핑 체제(제5세대 지도부) 성향

- 시진핑 국가주석 등 정치국 상무위원(7명) 대부분은 동부 연안의 개혁개방 중심지에서 근무하면서 적극적인 개혁개방 정책을 수행
  - 시진핑 국가주석(푸젠성 성장, 저장성·상하이시 당서기 역임), 리커창 총리(랴오닝성 당서기), 장더장 전인대 상무위원장(저장성, 광둥성 당서기), 위정성 정협 주석(상하이시 당서기), 왕치산 당기율위 서기(베이징시 시장), 장가오리 상무부총리(산둥성, 톈진시 당서기)
- 시진핑 국가주석은 개혁개방을 지향하고, 리커창 총리 및 장더장, 위정성, 왕치산, 장가오리 신임 상무위원 등도 시장 친화적인 것으로 평가

- '15년 양회시 시진핑 주석은 4개 전면(全面)을 정부업무보고 최종안에 포함시킴으로써 현 지도부의 통치 이념으로 제시
  - 4개 전면은 ① 전면적 소강사회라는 전략적 목표와 이를 위한 ② 전면적 개혁심화, ③ 전면적 의법치국, ④ 전면적 엄격한 당관리(從嚴治黨) 등으로 구성

- 또한, 중국경제의 뉴노멀 시대 진입을 공식 선언하고 합리적 수준의 성장속도와 경제 구조조정 및 개혁 심화를 통해 경제 발전방식 전환 가속 및 성장의 질과 효과 제고를 도모

나. 중국의 장기 경제정책

- 2020년까지 전면적인 소강사회(小康社會) 건설을 목표로 산업구조 고도화, 친환경 사회 건설, 내수확대 등 추진

- 핵심기술 육성, 첨단 산업 및 서비스 산업 발전 추진
  ※ 7대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에너지절약·환경보호, 차세대IT, 바이오, 첨단 장비제조, 신에너지, 신소재, 신연료 자동차 산업)

-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자원절약, 친환경 순환경제 구축
  ※ '20년 GDP당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05년 대비 40-45% 수준으로 결정('09.11월)하고,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및 원자력 발전 확대 추진

- 지역·계층 간 격차 해소, 농민소득 증대, 사회보장정책 강화 등을 통해 내수 진작 및 균형발전 추진

다. 중국의 FTA 추진동향

1) 중국의 FTA 추진 현황

■ **중국은 '16.1월 기준 홍콩 및 마카오(CEPA 체결), ASEAN, 칠레, 파키스탄(FTA 체결), 뉴질랜드, 싱가포르, 페루, 코스타리카, 대만(ECFA 체결), 아이슬란드, 스위스, 한국, 호주 등 23개 국가(지역)와 자유무역 협정(총 14건)을 체결**

■ **GCC(걸프협력회의, 총 6개국), 한·중·일 3국, RCEP 및 스리랑카 등과 협상을 진행 중이고, 조지아, 몰디브, 이스라엘, 인도, 콜롬비아와의 FTA 및 FTAAP(총 21개국)과 FTA 추진을 검토 중**

① 홍콩 및 마카오
- 중국령인 홍콩 및 마카오와는 CEPA(경제동반자협정)를 체결하여 '04.1월부터 중국 대륙으로 수입되는 374개(홍콩) 및 311개(마카오) 수입상품에 대해 CEPA 세율 (영세율)을 적용
- '12.6월에는 기존 CEPA에 대한 9번째 보충협정을 통해 양 지역에 대한 서비스 부문 개방폭을 더욱 확대키로 합의
  · 교육 분야가 추가로 개방되어 서비스 양허품목은 47개에서 48개로 증가
  · 법률, 회계, 건축, 의료, 자영업, 교육 등 22개 영역에서 43개 개방조치가 추가되어, CEPA의 개방조치는 총 338개로 확대
  · 특히, 금번 보충협정에서는 금융부문 개방이 확대된바, 홍콩금융기구의 적격 외국인기관 투자자(QFII)* 자격요건이 완화되었으며, 증권회사, 기금관리회사, 선물거래회사, 증권투자 자문회사 등을 합자로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
- 홍콩 증시 상장조건에 부합하는 중국 기업들이 홍콩에 상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홍콩 증시 활성화
- 광저우에서 시범적으로 소비금융회사 설립 허용
- 증권회사를 고객으로 자금청산, 선물보증자금 업무 등 중계업무 허용

* QFII(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 :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의 기관 투자자가 중국 본토 시장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② ASEAN(10개국)

- 세계 최초로 ASEAN과 FTA 협정을 체결*, '05.7월부터 상품분야를 우선 발효
- '07.1월 서비스협정 체결, '07.7월부터 발효
- '09.8월 투자협정 체결
- '10.1.1일부터 중·ASEAN FTA 전면 발효

* 중국은 ASEAN의 지정학적 · 경제적 중요성과 주변국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 확대 전략의 일환으로 ASEAN과의 경제협력을 대외경제정책의 핵심과제로 추진('03년에는 역외국가 중 최초로 동남아 우호협력조약(TAC)에 가입)
* 관세인하는 자국산업에 미치는 민감도 등에 따라 3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차등 적용

관세인하 추진계획

구분		선발 6개국[1]	후발 4개국[2]
조기자유화[3]		2006년까지 관세 완전철폐	
일반		2012년까지 관세철폐	2018년까지 관세철폐
민감	일반민감[4]	2018년까지 관세율 5% 이하	2020년까지 관세율 5% 이하
	고도민감[5]	2015년까지 관세율 50% 미만	2018년까지 관세율 50% 미만

주 : 1)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2)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3) 육류, 어류, 유제품, 채소, 식용과일 등 일부농산물 및 비농산물 571개 품목(early harvest package)
4) 선발 6개국은 400개 품목('01년 수입총액의 10% 미만), 후발 4개국은 500개 미만 품목으로 규정
5) 선발 6개국은 100개 미만 품목, 후발 4개국은 150개 미만 품목으로 규정

③ 칠레

- 남미국가 중 두 번째 수교국이자 그동안 무역분쟁*이 발생하지 않았던 칠레와도 '06.10월부터 상품분야 FTA 발효, '08.4월 서비스협정 체결, '12.9월 투자협정 타결

* '95-'04년 상반기 중 남미국가들의 중국상품에 대한 반덤핑 제소는 총 92건에 달하였으나 칠레와는 상호 비경쟁적 산업구조 등에 기인, 무역분쟁이 없었음.
  - 중국은 칠레상품의 2,806종을, 칠레는 중국상품 중 5,891종에 대해 FTA 시행과 동시에 관세를 철폐
  - 향후 10년 동안 양국 세목수의 97%에 해당하는 상품을 비관세화

④ 파키스탄

- 남아시아 진출의 거점기지인 파키스탄과 FTA 협상도 마무리 짓고 '07.7월부터 발효
- '09.2월 서비스 협정 체결, '09.10월 발효

⑤ 한국

- 현재까지 중국이 FTA를 체결한 국가 중 가장 교역액이 크고, 산업이 발전한 국가와의 FTA를 체결, '15.12월 발효

⑥ 호주
- 아시아·태평양의 주요 선진국인 호주와 FTA 협상을 10년만에 마무리하고, 한중 FTA와 같이 '15.12월 발효

⑦ 이외 뉴질랜드, 싱가포르, 페루, 코스타리카, 대만, 아이슬란드, 스위스 등과 협정 체결

⑧ 협상 추진 중인 국가
- '15년 말 기준 한일(중), 노르웨이, GCC, 남아프리카 관세동맹(SACU), RCEP과 협상을 추진 중

중국의 FTA 추진현황

단계	상대국(지역)	추진현황
기체결 13건 19개국	홍콩, 마카오	· '03. 6월 CEPA 체결('04.1월 발효) 이후, 2012.6월까지 총 9차례의 CEPA 보충협정(supplements) 각각 체결
	ASEAN	· '00.11월 공동연구 시작 후 1년간 진행 · '02.11월 기본협정 체결, '04.1월 Early Harvest 조치 시행 · '04.11월 상품협정 체결, '05.7월 발효 · '07. 1월 서비스협정 체결, '07.7월 발효 · '09.8월 투자협정 체결·2010.1월 중·ASEAN FTA 전면 발효
	칠레	· '04.4–10월 민간연구, '05.1월 협상 개시(6차례 협상) · '05.11월 상품협정 체결, '06.10월 발효 · '08. 4월 서비스협정 체결, '12.9월 투자협정 협상 타결
	파키스탄	· '04.10–05.4월 정부 간 연구, '05.8월 협상 개시(6차례 협상) · '06. 1월 Early Harvest 시행, · '06.11월 상품·투자협정 체결, '07.7월 발효 · '09. 2월 서비스협정 체결, '09.10월 발효
	뉴질랜드	· '04.3–9월 정부 간 연구, '04.12월 협상 개시(15차례 협상) · '08. 4월 협정 체결, '08.10월 발효
	싱가포르	· '05.10–06.8월 정부 간 공동연구 · '06.10월 협상 개시, '08.9월 협상 타결(8차례 협상) · '08.10월 서명, '09.1월 발효
	페루	· '07.3–8월 정부 간 연구 · '07.9월 협상 개시, '08.11월 협상 타결(6차례 협상) · '09.4월 서명, '10.3월 발효
	코스타리카	· '08.1–7월 공동연구 · '09.1월 협상 개시, '10.2월 협상타결(6차례 협상) · '10.4월 서명, '11.8월 발효
	대만	· '10.6월 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ECFA) 체결 · '11.1.1 발효

단계	상대국(지역)	추진현황
기체결 13건 19개국	아이슬란드	· '05.5–'06.7월 정부 간 연구 · '07.4월 협상 개시, '13.1월 제6차 협상 · '13.4월 서명
	스위스	· '10.2–9월 공동연구 · '11.1월 협상 개시 · '14.7.1 발효
	한국	· '06.11월 공동연구 개시 합의 · '07.3월 공동연구 개시, '10.5월 공동연구 종료 · '10–'11년 사전협의 · '12.5–'13.9월 협상개시 및 1단계 협상 · '13.10–'14.11월 2단계 협상, '14.11.10 협상 실질적 타결 선언 · '15.6.1 정식서명 · '15.12.20 발효
	호주	· '03.10–'05.3월 정부 간 연구 · '05.5월 협상 개시 · '15.6.17 정식서명 · '15.12.20 발효
협상중 6건 14개국	한중일	· '09.10월 산관학 공동연구 개시 합의 · '10.5월 제1차 회의, '11.12월 공동연구 종료 · '13.3월 협상 개시, '16.4월 제10차협상
	RCEP*	· '13.5월 제1차 회의 · '13.3월 협상 개시, '16.2월 제11차협상
	GCC**	· '05.4월 협상 개시 · '16.1월 실질적 상품협상 타결
	노르웨이	· '07.6–12월 공동연구 · '08.9월 협상 개시, '10.9월 제8차 협상
	스리랑카	· '14.9월 협상 개시
	SACU	· '03.6–'04.6월 정부 간 연구 · '07년 협상 개시 후 현재 중단 상태
공동연구 5건 5개국	인도	· '03.6–'07.10월 RTA 공동연구(6차례 회의) 완료
	조지아	· '15.4–'15.7월 공동연구 · '15.12월 협상개시 합의
	몰디브	· '15.2월 공동연구 개시 · '15.9월 협상개시를 위한 MOU 체결
	이스라엘	· '13.7–'14.11월 공동연구
	콜롬비아	· '12.5월 협력협정 서명
기타	FTAAP	· '14.11월 APEC 계기 로드맵 채택

*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ASEAN 10개국,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

** GCC(Gulf Cooperation Council) :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등 아라비아 반도 6개국이 1981년에 창설

2) 중국의 FTA 추진 목표

■ **중국은 거대한 국토와 주변 인접국이 많은 지역적 특성을 바탕으로 전방위적이고 다양한 형식의 FTA를 추진**

○ 기본적으로 자국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안정적인 자원 확보 등 미래 전략적 이익을 우선 고려

① 전략국가와의 관계개선을 통한 대외진출 강화
- 전통우방국 및 남미/남아시아 지역 진출 교두보 확보 노력과 병행
- 미국이 주도하는 TPP에 대한 대응차원 및 NAFTA·EU에 비하여 비교적 뒤쳐진 역내 지역경제 통합을 강화함으로써 영향력 제고하기 위하여 한중일 FTA 및 RCEP 추진에 적극적

② 안정적인 에너지 및 자원공급원 확보
- 고성장에 필수적인 자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기 위해 주요 자원보유국이면서 중국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칠레(구리), 아이슬란드(알루미늄), 걸프협력 회의 국가(GCC, 석유) 등과 FTA를 추진

③ 신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시장 다변화
- 향후 경제적 이익에 부합하는 국가일 경우 현재 교역수준에 관계없이 FTA 협상을 추진한다는 전략

④ 자국 내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
- 중국의 주요 수출시장이자 광의의 중화경제권인 ASEAN과의 FTA 체결은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주도권 확보목적 이외에도 서남부지역 발전촉진 등 자국 내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전략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음.
- 특히, 동남아 국가들과 인접한 광시(廣西)장족자치구의 경우 FTA 체결 이후 물류 중심지로 부상

라. 중국의 철도·도로 건설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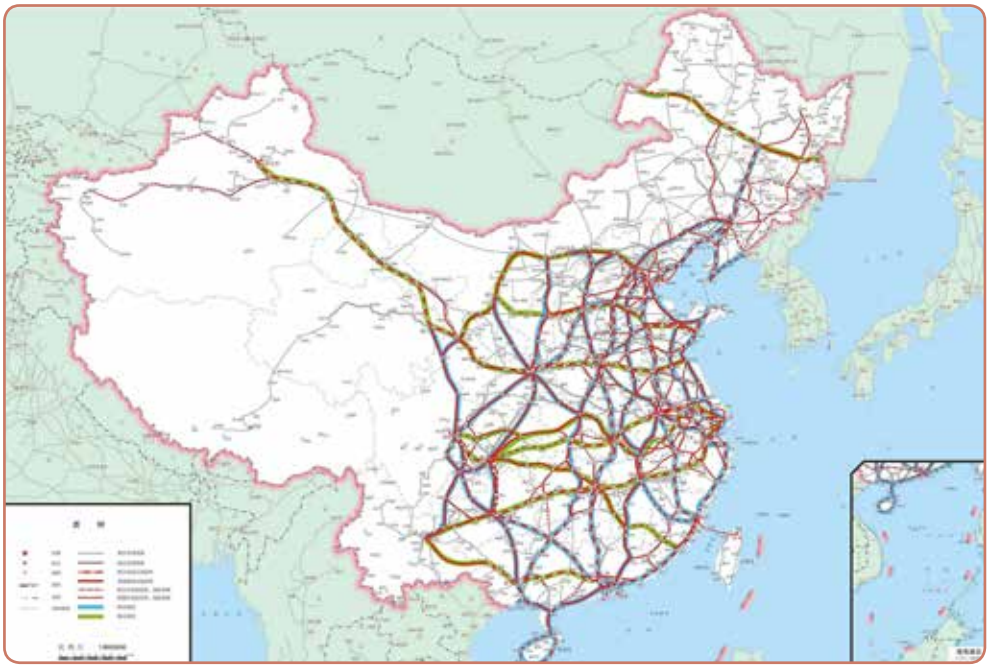
○ 철도 건설을 적극 추진하여 철도 운행연장이 '08년 79,700km에서 '12년 98,000km, '15년 121,000km로 확장(4종 4횡 고속철도는 1,400km에서 19,000km로 확장)

※ 칭하이–티베트 간 철도 396km 완공('06.7월)
베이징–선전 간 고속철도 2,323km 완공('12.12월) 등

○ 공항은 '08년 158개에서 '12년 183개, '15년 214개로 확대

※ 베이징 남부 신공항 건설 중('14–'19년)

○ 고속도로는 '08년 60,300km에서 '12년 95,900km. '15년 120,000km로 확장



* 출처 : 13·5 규획강요

4. 중국 경제의 당면과제

가. 경제 불균형 문제

○ (소득 불균형) 국가 GDP는 '02년 1조 3,248억 불에서 '15년 10.42조 불로 급증했으나, 1인당 GDP는 7,581불로 중진국 수준에 불과
- 특히 도농·지역·계층 간의 빈부격차 심화 등 문제 발생
  · '14년 기준 도·농 지역의 1인당 가처분소득은 각각 29,381-9,892위안, 동부 연안 지역과 서부 내륙지역의 1인당 가처분소득은 각각 25,954-15,376위안(출처 : 중국 통계연감)
  ·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80년대 초반 0.25 → '15년 0.462 (출처 : 중국국가 통계국)
  ※ 0.45 이상이면 사회 불안정 초래 수준으로 평가, '08년 0.491로 최고치 기록 이후 매년 완만한 하락세 유지

○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의 불균형) 중국 국유기업은 정부 보호로 석유·통신·금융 등 핵심 산업을 독점
- '14년 말 기준 국유기업 수는 약 13만 개로서, 전체 기업 수의 1.2%이나 GDP의 약 67% 차지하는 '國進民退(국유자본의 진입으로 인한 민영자본의 퇴출)' 현상 초래

나. 3농(三農)문제

• 3농문제는 농민·농업·농촌문제를 의미하며, 도시·농촌 간 불균형 발전, 낮은 농업생산성 등이 주원인
  – 제16차 당대회 이래 제18차 당대회에서도 3농문제는 중국공산당 전체업무 중 "중중지중(重中之重 : 가장 중요)"이라고 강조
• 3농문제 해결을 위하여 "4화동보(四化同步)" 정책 추진(제18차 당대회 보고)
  – 공업화·도시화·정보화·농업현대화를 함께 발전시켜 도농발전 일체화 달성 지향

1) 3농문제의 중요성

○ 중국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기초는 농업에 있고, 난관은 농촌에 있으며, 관건은 농민에 있다는 중국정부의 확고한 인식하에 13년('04-'16년) 연속 중앙1호 문건에서 3농문제 해소 강조
- 농업의 기초적 지위, 식량안보가 보장되어야 공업화·도시화·경제발전이 가능함을 강조

2) 3농문제 현황

- 도농간 소득격차 확대
  - '14년 농민 1인당 평균소득은 9,892위안으로 도시주민(29,381위안)의 1/3 수준에 불과
  - 도농간 소득격차 : '09년 3.33:1로 최고를 기록한 후 점차 감소 추세

도농간 소득격차 변화 추세

연도	소득격차 비율(도시:농촌)
1980	2.50 : 1
1990	2.20 : 1
1995	2.72 : 1
2000	2.79 : 1
2005	3.22 : 1
2009	3.33 : 1
2010	3.23 : 1
2011	3.13 : 1
2012	3.10 : 1
2013	3.03 : 1
2014	2.97 : 1

- 국가경제에서 농업비중 하락
  - GDP 비중 : ('97) 28.1% → ('08) 10.7% → ('14) 9.2%
  - 인구비중(농촌:도시) : ('08) 53:47 → ('10) 50:50 → ('14) 45:55
  - '14년 농산물 수출입 : 1,945억 불(수출 719.6억 불, 수입 1,225.4억 불) → 무역 적자 505.8억 불로 농산물 무역적자 11년 연속 지속

3) 3농문제의 원인

- 가장 주된 요인은 도시와 농촌의 이원화 분할정책에 따른 빈부의 양극화 현상 확대
  - 과거 계획경제하에서 중공업과 도시 우선 발전정책, 도농간 분리정책 등에 기인

- 많은 농민인구, 협소한 농가호당 경지면적, 낮은 농업생산성 등에 기인
  - 농촌인구가 전체인구의 45%로 매우 높고, 1인당 경지면적이 세계평균의 1/3(0.1ha), 1인당 수자원 점유량은 세계평균의 1/4에 불과하여 소농경영이 불가피하고, 농업 공공투자 부족으로 노동 생산성 정체

4) 4화동보(四化同步 : 공업화, 도시화, 정보화, 농업현대화) 정책 추진

- 전통적 공업화와 함께 기술발전을 병행하고, 기술발전 수혜자가 농민이 되도록 조정
  - 도·농발전 일체화 추진으로 도시와 농촌의 호혜·상생
  - 농업분야에서 '적게 거둬들이고 많이 지급' 함으로써 농업지원 강화 모색

- 도시화로 농촌잉여 노동력을 흡수하고 도시유입 농민에 대한 처우개선
  - '農民工'(농촌에서 유입된 도시노동자를 위해 호적제도, 사회보장, 의료위생, 자녀교육, 임금 등 부문에서 도시근로자와의 차별을 축소 내지 철폐(2020년 도시인구 8억 명 예상))

- 농업생산 현대화와 유통의 시장화 방향으로 지속적인 개혁 심화
  - 농민 토지재산권 부여 강화, 농업의 산업화 경영 육성, 유통체제 개혁, 농촌 정보화 발전 가속화, 농산물 품질 표준화 강화 등

5) 제13차 5개년('16–'20년) 계획('13·5 규획') 기간의 주요 농정 추진 과제

- 농업현대화
  - 중국 경제사회 발전 방식의 전환기를 맞아 시진핑 정부가 추구하는 4화동보(四化同步 ; 공업화, 정보화, 도시화, 농업현대화) 발전 전략을 실현하는데 농업현대화가 제약요인 이라는 판단에 따라 지속적으로 정책적 우선순위 부여
  - 농업현대화를 통해 2020년까지 달성해야 할 목표 : △주요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 보장 △농가소득 증대(2010년의 2배 목표) 및 도농 간 소득격차 축소 △농촌지역 빈곤 구제 △농민의 자질 향상과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 수준 제고 △각종 농업제도 개혁 완성

- 공급측면의 구조개혁
  - '신창타이(新常態, new normal)' 시대를 맞아 소비 중심의 내수 확대에 집중하였던 성장 전략을 조정하여 새로운 수요의 변화에 부응하도록 공급체계의 구조 개혁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잠재적 성장 동력을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경제 성장과 발전을 촉진한다는 구상
  - 농업분야의 공급측면 구조개혁을 위한 중점 추진 과제 : △재배업 생산구조 조정 실시 : 벼와 밀의 생산은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비교열위 생산지역을 중심으로 옥수수의 재배 축소 추진 △식량주산지에 식량생산 핵심구역 건설 추진 △식량-사료 대체 시범사업 확대 추진 및 현대화된 풀사료 산업체계 건설 가속화 △식량 관련 통계 조정 △식량생산구역 및 대두, 면화, 유지작물, 식용당 등 중요 농산물 생산보호구역 획정 관련 제도의견 제정 △감자 주식화 연구개발 추진 △축산업 현대화 가속화, 지역별 가축 사육분포 조정, 가축·가금 사육구조 업그레이드, 초식동물 사육업 발전 촉진 △경종과 축산이 결합된 순환농업 시범사업 전개 등

○ 녹색발전
- '녹색'은 '13·5 규획' 기간('06-'20년) 경제사회 발전 과정에서 추구할 5대 이념 중 하나로 제시
- 농업생태환경 문제 해결이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한 주요 농정 어젠다로 부상
- 농업분야의 녹색발전을 위한 중점 추진 과제 : △토지, 수자원 등 농업자원의 보호 및 효율적 이용 강화 △농업환경문제 현안 해결 가속화 △농업생태환경 보호 및 복구 강화 △식품안전 전략 실시

○ 도농 통합발전
- 농업분야는 시진핑 정부가 추구하는 '4화동보' 전략 실현에서 여전히 '짧은 다리(短腿)'이며, 농촌지역은 전면적인 소강사회(小康社會) 건설에서 여전히 '걸림돌(短板)'이라고 인식
- 도농 통합발전을 위한 중점 추진 과제 : △농촌지역 인프라 구축 가속화 △농촌지역 공공서비스 수준 제고 △농촌지역 정주환경 개선 및 아름다운 마을 건설 추진 △농촌노동력의 전이·취업·창업 및 농민공의 도시민화 추진 △농촌지역 빈곤인구 구제 프로젝트 실시

○ 6차 산업화와 농민소득 증대
- 농가소득 증대는 중국 농정에서 줄곧 우선순위를 차지하는 농정 목표로서 이를 견인할 수 있는 농업의 6차산업화가 핵심 농정으로 부상
- 농촌지역에서 '1차·2차·3차 산업의 융합'을 통해 농업부문의 가치사슬을 연장하고 부가가치를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농민소득을 증대시킬 것을 강조
- 산업 융합을 통한 농민소득 증대를 위한 중점 추진 과제 : △농산물가공업의 업그레이드 추진 △농산물 유통시설과 시장 건설 강화 △관광농업의 발전 촉진 △농산업 체인과 농민의 이익 연계체계 완비

다. 실업문제

-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근로자 공급부족현상이 시작되고, 도시지역 등록실업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대졸자 증가, 농촌노동력 도시 유입 등으로 실업문제도 잠재
- 창업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촉진, 적극적 취업정책 실시, 정리 해고자 재취업 촉진, 공공고용서비스 체계 구축, 청년취업촉진 등 정책 추진

■ 현황

○ '14년 말 취업인원은 7억 7,253만 명으로 전년보다 276만 명 증가

○ 도시지역 등록실업률은 '00년 3.1%, '05년 4.2%에 이어 '10년 4.1%를 기록한 이후 '14년까지 5년간 연이어 4.1%를 기록하는 등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

인구, 취업자, 실업자, 실업률 (만 명, %)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총인구	126,743	130,756	134,091	134,735	135,404	136,072	136,782
도시지역인구 (비율)	45,906 (36.2)	56,212 (43.0)	66,976 (49.9)	69,079 (51.27)	71,182 (52.57)	73,111 (53.7)	74,916 (54.8)
농촌지역인구 (비율)	80,837 (63.8)	74,544 (57.0)	67,113 (50.1)	65,656 (48.73	64,222 (47.43)	62,961 (46.2)	61,866 (45.2)
취업자	72,085	75,825	76,105	76,420	76,704	76,977	77,253
도시지역 취업자	23,151	27,331	34,687	35,914	37,102	38,240	39,310
농촌지역 취업자	48,934	48,494	41,418	40,506	39,602	38,737	37,943
도시지역 등록실업자	595	839	908	922	917	926	952
도시지역 등록실업률	3.1	4.2	4.1	4.1	4.1	4.1	4.1

* 출처 : 중국국가통계국 홈페이지(http://data.stats.gov.cn)

○ 근로자 연평균 임금상승률은 '10년 13.3%, '11년 14.4%를 기록한 이후 점진적으로 상승률이 낮아지면서 '14년에는 9.5%를 기록하였으나, 여전히 상당히 높은 수준

도시지역 근로자 연평균임금 (위안, %)

	2010	2011	2012	2013	2014
임금	36,539	41,799	46,769	51,483	56,360
상승률	13.3	14.4	11.9	10.1	9.5

* 출처 : 중국국가통계국 홈페이지(http://data.stats.gov.cn)

○ 산업별 취업 인구 비율은 지속적으로 고도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14년도 1차 산업 취업인구의 비중은 29.7%까지 하락하고 3차 산업 취업인구 비중은 40.9%로 상승

산업별 취업자(비율)								(만 명, %)
	1995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68,065	72,085	75,825	76,105	76,420	76,704	76,977	77,253
1차 산업	35,530 (52.2)	36,043 (50.0)	33,970 (44.8)	27,931 (36.7)	26,594 (34.8)	25,773 (33.6)	24,171 (31.5)	22,790 (29.7)
2차 산업	15,655 (23.0)	16,219 (22.5)	18,084 (23.8)	21,842 (28.7)	22,544 (29.5)	23,241 (30.3)	23,170 (30.2)	23,099 (30.1)
3차 산업	16,880 (24.8)	19,823 (27.5)	23,771 (31.4)	26,332 (34.6)	27,282 (35.7)	27,690 (36.1)	29,636 (38.6)	31,364 (40.9)

* 출처 : 중국국가통계국 홈페이지(http://data.stats.gov.cn)

- 중국 노동시장 구조는 취업자 증가가 견조하게 이어지고 있고, 등록실업률은 안정된 가운데, 3차 산업 취업자 증가, 높은 임금상승률 등 구조적 개선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지역별 노동시장 차이가 매우 크고,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고령화, 대졸자 증가에 따른 청년고용 문제, 농촌지역 잉여노동력 등 구조적 문제들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

라. 환경오염 문제

- 오수처리시설 및 탈황시설 확충, 낙후된 공장설비 퇴출 등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을 지속적으로 감축하고 있으나, 호소는 대부분 부영양화 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미세먼지 오염으로 인한 스모그 현상이 중동부 지역에서 발생하는 등 오염 상태는 여전히 심각
- 중국 정부는 실질적인 환경질 개선을 위해 스모그와 미세먼지 억제를 위한 다양한 대기오염 저감대책을 강력히 추진하는 한편, 수질 및 토양오염 방지 행동계획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신환경보호법 등 환경관련 법률의 강화와 환경관리 체계의 개혁을 중점 추진

1) 환경오염 상황

- 중국 정부는 대기, 수질, 토양 등 환경오염이 심화됨에 따라 환경적재능력이 이미 상한선에 접근하였다고 진단하고, '환경오염과의 전쟁'을 선포('15년 정부업무보고시)

- 대기오염의 경우, '13.9월 〈국가 대기오염방지 행동계획(대기10조)〉 시행 이후 부분적인 개선을 보이고 있지만, 징진지(京津冀), 창장(長江)삼각주, 주장(珠江)삼각주 등 3대 중점지역의 대기오염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

- 〈2014년 중국기후공보〉('15.1월)에 따르면 징진지 지역의 스모그 발생일은 2014년에 61일에 달하고, PM2.5 연평균 농도가 93㎍/㎥이며, PM10은 158㎍/㎥ 수준
- '14년 베이징의 대기기준(PM2.5 : 연평균 35㎍/㎥, PM10 : 연평균 70㎍/㎥) 달성일수 비율은 47.1%로, 연중 절반 이상이 기준을 초과(PM2.5 연평균 농도 85.9㎍/㎥)
- 중국 환경보호부 〈2015년 전국도시 대기질 상황〉('16.2.4)에 따르면, 새로운 대기환경질 기준을 시행한 74개 도시의 PM2.5 연평균 농도가 55㎍/㎥로서 전년 대비 14.1% 감소하고, 베이징의 PM2.5 연평균 농도는 80.6㎍/㎥로서 6.2% 감소
- '15년에 74개 도시 중 대기질 상대적으로 나쁜 10개 도시(74등부터 65등까지)는 바오딩(保定), 싱타이(邢臺), 헝쉐이(衡水), 탕산(唐山), 정저우(鄭州), 지난(濟南), 한단(邯鄲), 스자좡(石家莊), 랑팡(廊坊), 선양(瀋陽) 순임
- '15년 대기질 상황의 특징은 △전국의 대기질이 개선 추세이나, 징진지 지역의 PM2.5 농도의 기준치 초과가 여전히 심각하고, △북쪽지역의 난방 기간 중 대기오염 발생이 심각하며, △오존 오염문제가 대두한 것임

- 수질오염의 경우, 전국의 지표수 수질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는 있으나 약 10%는 심각하게 오염된 것으로 평가되며, 최근 음용수 안전과 관련한 사건 빈번
  - 특히 징진지 지역은 수자원 부족 문제, 도시 건설구역의 악취 및 하천의 검은 수체, 지하수 초과 채취 및 지하수 오염(수질 측정지점 중 매우 나쁜 지점이 '13년 15.7%, '14년 16.1%를 차지) 등이 문제

- 토양오염의 경우, 약 20%의 농경지가 공·광업 폐기물에 오염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시급한 환경문제로 대두('14.4월 국토부 전국토질조사결과)
  - 지역적인 퇴화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며, 농촌의 환경상황이 여전히 낙관적이지 않음(2013년 말 기준 생활오수 처리를 하는 행정마을 비율이 9.0%, 생활쓰레기 처리를 하는 행정마을 비율이 35.9%)

2) 환경개선 추진동향

- 제18기 공산당 전당대회 결과('12.11월), 자원절약과 환경친화적 사회건설을 4대 중점 추진 분야로 채택하고, 당장(黨章)에 '생태문명 건설'을 최초로 삽입
  - 3중 전회에서는 '생태문명제도 건설 가속화'('13.11월) 방안을 채택, 사전예방적 환경보호제도, 생태환경 손해책임 종신추궁제도, 환경관리 및 생태복원 등을 포함

- '환경은 곧 민생'으로 중시하고, 대기·수질·토양오염 3대 환경문제의 실질적인 개선에 역점
  - 대기분야는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大氣10條)〉('13.9월 발표)에 따라 산업구조 조정, 에너지 효율 개선, 배출가스 및 비산먼지 관리, 지역연합 방지전략을 추진
  - 수질분야는 〈수질오염방지행동계획(水10條)〉('15.4월 발표)에 따라 수질오염 배출의 전면적 통제·관리를 위해 공업오염, 도시생활오염, 농업/농촌 오염, 선박/항구오염 분야별 방지, 관리, 억제를 중점 추진

- 토양분야는 '16년에 〈토양오염방지행동계획〉을 수립하여 토양오염 복원정화, 오염지역 개발이용 관리 등을 강화하는 한편, 〈토양오염방지법〉 제정도 추진 중

○ 앞으로 실질적인 환경개선을 담보하기 위해 환경관련 법률의 제·개정 및 환경관리 체계 개혁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
- 〈환경보호법〉은 25년 만에 대폭 수정하여 '15.1.1 발효되었으며, △기존 47개 조항에서 70개 조항으로 크게 늘고, △기본국책으로서 환경보호 명시, △생태보호 레드라인 설치, △환경정보공개 확대, △환경법 위반시 누적일수에 따른 처벌, 압류, 행정구류, 생산제한, 기업퇴출 등 내용을 대폭 강화
- 〈대기오염방지법〉도 15년 만에 전면 수정하여 '16.1.1 발효되었으며, △66개 조항에서 129개 조항으로 증가, △총량억제 책임 강화, △자동차 오염 관리 및 석탄연료 감축, △엄격한 처벌 강화, △정보 공개와 신고 장려 등 내용을 대폭 강화
- '16년 정부입법계획에 환경보호세법(제정), 물오염방지법(수정), 야생동물보호법(수정), 해양환경보호법(수정)을 포함
- 앞으로 종전의 환경보호비용 징수체계를 환경보호세 체계로 전환하고(재정부 주관으로 환경보호세법 제정중), 환경보호부에 물, 토양, 대기 3개사(司)를 신설하며, 성(省)이하 환경기구의 환경모니터링/감찰/법집행 업무를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수직관리(垂直管理) 개혁을 2018년 내에 완성할 계획

○ '13·5 규획' 기간('16-'20년) 중 생태환경분야에서는 핵안전, 토양환경보호, 생태환경보호, 수환경 오염방지, 식품안전 등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

'13·5 규획' 기간(2016-2020) 중 생태환경관련 발전목표 및 중점사업

※ **'13·5 규획' 중 생태환경관련 발전목표**

- 향후 5년 간 GDP의 단위당 물 사용량, 에너지 소모량,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각각 23%, 15%, 18% 감축하고, 삼림피복률을 23.04%로 높이는 한편,
- 에너지자원의 개발이용효율을 대폭 개선함으로써 생태환경의 질을 총체적으로 개선
- 특히 대기오염 정비사업 부문에서 지구급도시 및 지구급 이상 도시의 공기질 우량일 비율을 80% 이상으로 높일 계획('15년에는 72.9%를 기록)

※ **'13·5 규획' 중 생태환경관련 중점방향**

- 국토공간 개발에서 주요기능구역 건설 가속화
- 자원절약과 집약적 이용 촉진
- 대기, 수질, 토양 등 환경종합정비 강화
- 생태보호 복원 강화
- 글로벌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
- 생태안전보장 메커니즘 보완
- 녹색환경산업 발전

5. 중국의 주요지역 개발 정책

가. 개요

- (담당부서)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기획국, 지역경제국, 서부지역국, 동북지역국 등 부서를 두고,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전략 하에 지역발전계획을 수립, 시행

- (경과) 1990년대 초 중국 동부연해 개혁개방을 시작으로, 이를 통해 중서부지역 발전을 견인한다는 목표를 시행하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오늘날 동부/중서부 지역 간 경제발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병행
  - '제12차 5개년 규획('11.3월 원자바오 총리가 전인대에 보고)'에서는 지역발전 전략 중 '서부대개발'을 최우선에 배치하고, 동북 노후공업기지 부흥, 중부굴기 등의 정책도 지속 추진

- (주요 내용) '제13차 5개년 규획('16.3월 리커창 총리가 전인대에 보고)'에서는 일대일로(一帶一路) 건설, 징진지 협동발전, 창장 경제벨트 건설을 3대 전략으로 하여 연해(沿海), 연강(沿江), 연선(沿線)을 위주로 하는 종적/횡적 경제벨트 형성 추진
  - (3대 전략) 일대일로, 징진지 협동발전, 창장 경제벨트 건설을 특정 권역을 초월하여 전체 중국 지역발전을 총괄하는 3대 전략으로 설정
  - (여타 권역별 전략) 서부대개발, 동북노후공업기지 진흥전략, 중부 굴기 전략 등 기존의 권역별 전략에 대해 기존 '12·5 규획' 기간의 추진 성과에 더하여 상기 3대 전략과 연계함으로써 새로운 계획 수립

나. 3대 전략

1) 일대일로(一帶一路) 건설

- (개요) 중국 정부가 지역 간, 국가 간 연계성 강화를 통해 상대적으로 낙후한 중국 중서부 지역 개발과 동남아/중앙아시아 등 주변국가와의 전략적 협력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기 위한 경제외교 정책
  - '13.9월 시진핑 주석의 카자흐스탄 나자르바예프 대학 강연 및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 발언 시 실크로드 경제벨트 구상을 발표하고, '13.10월 시진핑 주석의 인도네시아 국회 연설 시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구상을 최초로 제시

- 이후 양제츠 국무위원이 '14.4월 보아오 포럼시 두 구상을 통칭하여 "일대일로"라고 공식 언급

○ (핵심 개념) ① 정책소통(政策溝通) 강화, ② 교통연계(道路連通) 강화, ③ 무역원활화(貿易畅通) 강화, ④ 화폐유통(貨幣流通) 강화, ⑤ 민심상통(民心相通) 강화

※ 2013.9월 시진핑 주석이 카자흐스탄 나자르바예프 대학 강연에서 이를 소개했으며, 5개 방안에 모두 "通" 자가 포함되어 시 주석의 동 개념을 보통 "五通"이라 지칭

○ (추진 현황) 국내적으로는 중서부 지역 개발 및 변경지역 국가를 활용하는 형태로, 대외적으로는 주로 동남아 및 중앙아 국가들과 함께 교통망 연계, 기반시설 확충, 경제회랑 건설 등의 형태로 추진 중

- 특히, 중국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을 추진하여 아시아 기반시설 개발을 위한 역내 다자 협력을 주도하는 한편, 400억 불 규모의 실크로드 기금을 설립하여 일대일로 사업에 대해 양자 차원의 투·융자 지원 중

○ (향후 추진 방향) 제13차 5개년 규획에서는 일대일로의 추진 방향으로 △중국-몽골-러시아, 중국-중앙아시아-서아시아, 중국-차이나반도, 신아시아-유럽대륙교, 중-파키스탄, 중국-인도-미얀마 등 국제경제협력 회랑 건설, △주변국과의 기초 인프라 연계 및 협력, 자원, 에너지, 산업간 연계 협력 등 추진, △21세기 해상실크로드의 기초를 건설하기 위해 연선의 중요 항구 건설 및 운영, △국제물류, 해상무역의 새로운 통로 건설, △신장(新疆)실크로드경제벨트 핵심구 및 △푸젠 21세기 해상실크로드 핵심구 개발 등 제시

2) 징진지(京津冀) 협동발전

○ (개요) 베이징, 톈진, 허베이성 등 3개 지역을 전략적, 종합적으로 개발하여 중국 북방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한다는 전략

- '14.2월 시진핑 국가 주석이 징진지 협력 발전 방안은 중대한 국가전략이라고 강조하면서 급속히 부상
- 주요 목표는 △혁신적인 수도경제권 건설, △도시군 형태의 지역발전모델 개발, △환경보호와 경제발전의 조화, △지역 발전의 시너지 제고 등

※ 징진지 발전 전략 연혁 : 징진지 경제일체화 연구('04년), 국가발전계획위원회 종합계획 수립('06년), 12.5 규획 징진지 경제일체화 발전방안 수립('11년), 국가전략으로 선택('14년)

○ 지역별 발전 전략

- (베이징시) 정치, 문화, 국제교류 중심지, 과학기술혁신 중심지, 현대서비스업, 문화콘텐츠산업, 첨단기술, 연구개발 등이 발달한 국제 대도시로 건설
- (톈진시) 북방 경제중심지, 국제 해상운송 거점 도시, 현대물류 중심지, 세계적인 현대제조업 기지, 환경이 아름다운 국제항구로 건설
- (허베이성) 녹색산업 및 첨단산업, 중화학공업 및 장비제조업, 신재생에너지, 전자정보산업, 전략적 신흥산업 및 일반제조업 육성

○ (향후 추진 방향) 제13차 5개년 규획에 따라, 각 지역의 장점 간 상호 시너지를 창출하여 지역 일체화 추진, 경제 및 지역 구조 조정, 인구밀집지역 개발의 새로운 방식 탐색, 수도를 핵심으로 한 세계급 도시군의 건설 등을 목표로 하여 추진 예정

3) 창장(長江) 경제벨트 건설

○ (개요) 일대일로, 징진지 권역 발전과 더불어 중국의 3대 발전 전략으로 중국 중서부 지역의 신형 도시화, 내륙 개방협력 및 지속 발전사회 건설 추진
- 창장 삼각주 지역은 상하이시, 장쑤성, 저장성으로 구성되며, 중국에서 경제가 가장 발달하고 대외개방도가 높은 지역으로서 '11-'15년 중 지역 총생산이 연평균 10.1% 성장하였으나, 최근 수출입과 외국인직접투자(FDI)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어 타개책 필요
- 이러한 상황에서 '15년 중국 국무원은 창장 경제벨트 권역의 경제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 실행 계획으로서 〈창장중류도시군 발전계획('15년)〉 비준 및 발표

○ (중점 추진 과제) 도농 일체화 발전,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상호연결, 산업 간 협동 발전, 생태문명 건설, 역내 공공서비스 공유 수준 제고, 대외개방 심화
- 각 지방정부는 자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권역 내 각급 지방정부 내에서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사업도 추진 중

○ (향후 추진방향) 제13차 5개년 규획 기간 중 동 지역은 중국 평균 수준의 경제성장(6.5-7.5%)을 유지할 것이며, 주로 서비스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구축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
- (상하이시) '13·5 규획' 기간 정책방향은 경제·금융·해운·무역의 국제적 허브 건설의 완성으로 요약되며, 특히 '16년 중에는 위안화 해외지불시스템(2기) 구축, 보험거래소 개소, 국제결제청산협회 등 금융 유관기관 집결 등 국제금융센터 부상을 위한 금융 개혁·개방 확대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
- (장쑤성) '13·5 규획' 기간 정책방향은 일대일로를 위시한 대외개방의 다변화로 요약되며, 일대일로는 장쑤성의 건설장비제조 및 건설업체의 해외진출에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저장성) '13·5 규획' 기간 정책방향은 산업융합과 업그레이드로 요약되며, 항저우·닝보·저우산을 중심으로 주요 시범사업을 전개할 것으로 전망

다. 주요 권역별 발전 정책

1) 서부대개발 정책

가) 개요

■ **중국정부는 개혁개방 이후 동·서부지역의 경제력 격차가 지속 확대되는 것을 시정하고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속적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서부대개발을 국가 정책 목표의 하나로 추진**

- 서부대개발을 통하여 심각한 내수부진 문제를 해결하고, 소수민족이 주로 거주하는 낙후한 서부지역의 생활수준 향상을 통한 정치적 안정 도모
- '00.3월 전인대에서 서부대개발 추진을 천명하고, 국가적 장기사업으로 중점 추진
- '09.10월 원자바오 총리는 제10회 서부박람회에 참석, 지난 10년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10년 계획 수립을 천명
  ※ 서부지역 : 서부 12개 성·시·자치구(쓰촨, 구이저우, 윈난, 산시(陕西), 간쑤, 칭하이, 충칭, 닝샤, 신장, 네이멍구, 광시, 티베트)로, 중국 전체면적의 71.4%(685만㎢), 전체인구의 28.6%(3.7억)를 점유함에도 불구하고 GDP의 약 20%(6조 6천 8백억 위안)에 불과('09년)
- '11.3월 원자바오 총리는 전인대에서 12차 5개년 계획을 보고하고, 서부대개발을 지역발전 총 전략의 우선에 배치하고, 교통·에너지망, 생태환경보호, 전략자원과 산업 집결구의 건설 및 특색 산업(농업·여행 등)의 우위산업 발전 방향 제시
  - 서부대개발 지역의 3대 축인 충칭-청두(쓰촨(四川)성)-시안(산시(陕西)성)의 전략적 합작을 중심으로 각 지역별 중심 도시(오르도스-유림, 광시북부만, 금중, 진중, 장중남, 광중-천수, 란저우-시닝, 하녕연황, 천산북파 등)를 새로운 성장극으로 육성
  - 충칭 양강신구(국가급 개방신구), 청두 톈푸(天府)신구, 시안 시셴(西咸)신구 등 설립
- '12.2월 국무원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수립한 12차 5개년 규획 기간('11-'15년) 중 서부대개발 중점 추진 계획을 비준
- '16.3월 중국 정부는 제13차 5개년 규획에서 서부대개발의 심화를 일대일로 건설, 창장경제벨트 건설과 함께 국가 3대 전략으로 설정하고 서부대개발 2.0 시대를 열어갈 것을 표명
  - 서부대개발을 우선순위에 놓고, 일대일로의 추동 역할을 더욱 잘 발휘
  - 서부지역 내외 교통연결 및 기초시설을 개선하고, 녹색농산품, 문화, 관광 등 지역 특색의 산업 발전 및 국가급 산업전환 시범구 설립
  - 자원의 현지전환 비중 제고, 수자원 과학개발 및 고효율 이용 강화, 생태환경 보호, 정부의 투자역량, 기본 공공서비스 평균 수준 및 서부지역 내 도시의 개방수준 제고 등

나) 주요내용

- 단계적 추진전략
  - 개발초기('00-'05년) : 개발계획 및 정책 수립, 발전전략 개시
  - 대규모 개발('06-'15년) : 투자규모 확대, 서부지역 개발능력 제고
  - 전면개발('15-'50년) : 서부지역 도시화, 시장화, 국제화 수준제고

- 주요 추진사업
  - 西氣東輸(東端工程 완료), 西電東送(2,800만kw 건설완료), 青藏鐵路(396km 건설완료)
  - 수자원 분야는 南水北調 사업으로 3개 노선에 4,530km를 건설 중으로 ERP선(장쑤성 장두(江都)~톈진, 1,150km), MRP선(후베이성 한장(漢江)~베이징, 1,246km), WRP선(시짱 진사장(金沙江)~닝샤, 네이멍구, 산시(陝西)성, 1,954km) 등이 있음.
  - 기타 철도, 간선도로, 공항, 가스수송관, 수리시설, 조림사업, 교육·의료기관 건설 등 추진 중
  - 서부 12개 성시별 '특색경제(特色經濟)' 육성 추진

- 향후 중점발전지역
  - 成-渝(쓰촨과 충칭), 關東-天水지역(간쑤성과 산시(陝西)성), 광시북부만지역 등 11개 중요 경제개발구 우선 발전

다) 주요성과

■ **서부대개발 산업분야, 西氣東輸, 西電東送, 青藏鐵路 완공과 인프라 확충, 생태환경 보호, 그리고 동북 3성 지구의 인프라 개선에 어느 정도 효과 시현**

■ **제12차 5개년 규획 기간('11-'15년) 동안 서부지역이 중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높아졌으며, 특히 고정자산투자와 외국인직접투자의 중국 내 비중이 확대되어 투자를 통한 경제성장 선도**

- 서부지역 고정자산투자의 전국 대비 비중은 '11년 23.1%에서 '15년 25.6%로, FDI는 '11년 20.4%에서 22.8%로 증가

라) 서부대개발 향후 발전방향('16.3월 양회에서 제시)

■ **기존의 ① 에너지 및 교통 분야 협력 강화, ② 경제무역 및 투자협력 확대, ③ 에너지 절감 및 친환경 분야 협력 확대, ④ 지역 및 국제협력 강화 기조 유지**

■ **서부지역의 대외 개방을 촉진시키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일대일로 건설 강조**

■ **중국제조 2025, 인터넷+ 등 국가 차원의 산업전략을 적극 연계시켜 혁신을 통한 경제구조 업그레이드를 추진**

- (충칭시) 산업의 집적화와 스마트화를 핵심으로 하면서 산업클러스터 형성 중시
- (쓰촨성) 3대 핵심도시인 청뚜(成都), 더양(德陽), 몐양(綿陽)을 중심으로 통합 발전 추진
- (산시(陝西)성) 기존 자원 위주의 산업발전을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경제 고도화 추진

■ **역내 지역 간 조화로운 발전을 강조하며, 경제가 발달한 주요도시를 중심으로 한 경제권을 우선적으로 발전시켜 지역경제 성장을 선도하고, 나머지 지역에는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역할 부여**

- (충칭시) 역내 조화발전을 위해 5대 기능구 계획 추진(도시기능핵심구, 도시기능확장구, 도시발전신구, 동북생태발전구, 동남생태보호구)
- (쓰촨성) 청두와 톈푸신구를 중심으로 한 경제권 우선 발전
- (산시(陝西)성) 시안을 중심으로 한 중부지역 발전과 더불어 북부지역은 경제전환에 집중, 남부지역은 관광, 의약, 식품 등을 발전

2) 동북 노후 공업지역 진흥정책

가) 추진배경

■ **동북지역 경제구조 문제점 해결**

- 동북3성은 과거부터 전통적인 중공업이 발달하였으나, 개혁개방이후 경제성장의 주도권을 3대 경제권역(珠江삼각주, 長江삼각주, 京津冀지구)에 내어주고 상대적으로 침체
  - 계획경제에 따른 구조적 비효율성, 설비 노후화, 실업증가, 국유기업 부실화 등으로 전반적인 경제활력 저하
    ※ 20년 이상 된 생산설비 비중 : 선양 70% 이상, 창춘 60%, 하얼빈 23.8%
- '03년 후진타오 정권이 출범하면서 주요 전략과제로 '동북3성 진흥' 정책을 추진
  ※ 장쩌민 전 총서기가 추진한 '서부대개발'에 이은 지역균형발전 전략의 일환인 동시에 이전 정권과의 차별화 시도
  - 동북3성 진흥정책 추진 결과, '11년 동북3성 경제총량은 4.5만억 위안으로 '04년의 3배로 증가, 식량 생산량은 '04년의 7,230만 톤에서 '11년 1억7백만 톤으로 크게 증가

■ **동북3성의 비교우위를 활용, 중국경제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육성**

- 최근 IT, 주택, 자동차 등의 수요증대에 따라 석유화학, 철강, 에너지 등 중간재 및 설비투자에 필요한 자본재 수요가 증가

- 이에 따라 동북3성이 갖추고 있는 풍부한 원자재 및 중공업 제품 생산기반을 활용한 비교우위 산업의 육성 도모

※ 동북3성의 주요 공업생산 비중(괄호는 중국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 원유(39.2%), 목재(25.6%), 자동차(21.8%), 철강(12.5%), 석탄(9.0%)

나) 주요 경과

■ **'03.10월, '동북지역 등 노공업기지 진흥전략 실시에 관한 의견' 발표, '04년부터 본격 추진**

※ '노공업기지를 선진기술과 시장친화적 시스템을 갖춘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신흥 산업기지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함.

- 노후화되고, 비효율적인 국유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조정, 침체된 동 지역 경제에 새로운 성장계기를 마련
  - 동북지역 각 성별 비교우위산업의 전략적 육성, 농업개조, 신산업 육성, 구역별 발전 계획 등을 추진

※ 비교우위 산업 : 랴오닝성(기계장비), 지린성(자동차), 헤이룽장성(석유화학)

- 중국의 장비제조업 기지화 : 중대형 장비제조업, 자동차산업, 자동차부품 기지, 공작기계 제조창, 항공 및 조선 등을 육성
- 광전자 및 IT산업기지화 : 광전자, 생물공학, 신소재 분야 개발 육성
- 농산품과 녹색식품, 중의약산업기지화 : 농부산품 및 녹색식품가공기지, 백두산(중국명 : 장백산) 특산물기지 등 육성
- 유럽-아시아 대륙교량화 : 훈춘(지린성)-몽골까지 철도 개통

■ **'07.8월 동북지역을 주강, 장강, 환발해에 이은 제4의 경제중심축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시책으로 '동북지역진흥계획'을 발표**

- 랴오닝연해경제벨트, 선양경제구, 창지투(長吉圖)경제구, 하다치(하얼빈-다칭-치치하얼), 무수이(무단장-수이펀허)를 중점적으로 개발

- 동북진흥정책의 범위를 네이멍구까지 확대하고, '10년까지 연평균 7.4% 성장률 달성을 목표

※ 이외에 산업구조 고도화, 에너지절약, 환경오염절감, 사회복지 등 분야별 목표치 설정

■ **'11.3월 발표된 12차 5개년 규획에서는 장비제조, 원재료, 자동차, 농산품 심층가공 등 우위 산업을 고도화하고, 금융, 물류, 여행 및 소프트웨어와 아웃소싱 등의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발전키로 함.**

■ **'12.3월 국무원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수립한 12차 5개년 계획기간 중 동북진흥 정책 구체계획 승인**

■ **그러나 동북지역은 '11년 이후 투자 부진과 수출 감소 등의 영향으로 지역총생산 성장률이 빠르게 둔화되고 있으며, '12·5 규획' 기간 목표성장률의 절반 수준만 달성**

○ 랴오닝성의 GDP 성장률은 '12·5 규획' 기간 목표성장률을 11.0%로 설정했으나 경제성장이 빠르게 둔화되면서 7.8%에 불과

○ 지린성과 헤이룽장성은 '12·5 규획' 기간 9.4%와 8.3%의 성장을 이루어 목표(12%)에 크게 미달

■ **이에 따라, 동북3성 지방정부는 '13·5 규획' 기간 목표성장률을 '12·5 규획' 기간의 절반 수준인 6.0% 내외로 설정하고, 동북지역의 노후화된 공업기지의 재진흥 전략을 마련**

○ '15.12월 개최된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동북지역 등 노후화된 공업기지 전면 진흥에 관한 약간의 의견'이 통과
- 동 〈의견〉에서는 향후 노후화된 공업기지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체제개혁, △구조조정, △혁신장려, △민생 개선을 추진할 것을 강조

다) 향후 추진 방향('13·5 규획' 기간)

■ **'13·5 규획' 기간 동안 동북지역은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대폭 낮추는 대신, 경제구조 개선과 관련된 지표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안정적 성장과 구조전환에 역점을 두면서 체제개혁, 구조조정, 기술혁신, 정보화, 지역 견개를 주요 정책 방향으로 설정**

■ **특히, 최우선과제로 혁신을 제시하였으며, 2016년 중점업무로 국유기업 및 행정관리 체계 개혁, 시장화 개혁 등 정부 직능과 국유 부문의 개혁 및 효율 증진을 강조**

■ **동북3성의 지역별 발전 전략은 아래와 같음.**

○ (랴오닝성) '13·5 규획' 기간 제도개혁을 우선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경제구조를 전환하고 산업고도화를 위한 기반 조성
- 특히 중국 제조 2025 등 혁신 주도형 성장전략을 성급 단위에서 집중

○ (지린성) 러시아, 북한과의 접경 및 동해와의 연결성을 활용하여 창지투 개발계획을

확대시켜 일대일로 전략과 연계하고, 중국 남부지역으로의 접근성을 높이는 등 역내 물류환경 원활화에 주력

- (헤이룽장성)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룽장 실크로드경제벨트'를 적극 구축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

3) 중부굴기(中部崛起) 정책

가) 추진배경

- '06.7월 전인대에서 중부경제개발 공식 선언
  - '05.3월 NDRC가 중부지역발전 5대 기본정책수립 발표
  - ※ 농업지원강화, 경제집중지역 형성, 현대공업화, 동부·서부·동북지역에 부여되는 각종 외국인우대조치 동일적용, 교육지원 강화
  - ※ 중부지역은 산시(山西), 허난, 후난, 후베이, 장시, 안후이의 중부지역 6개 省 의미

- 20여 년간 '동부연해지역' 위주로 개혁개방이 진행된 이후,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 서부대개발('00년), 동북공업지역진흥정책('03년)이 차례로 시행되었으나, 중부지역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다는 지적에 따라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중국의 '허리'인 중부지역 발전전략 수립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지속 제기

나) 주요 내용

■ **자력갱생의 원칙하에 농업의 현대화, 공업화, 도시화 실현**

원칙	자력갱생		
전략	농업의 현대화 공업화 도시화	▷ 인프라 확충	동부와 연계 교통망
		▷ 농촌개혁	행정조직, 농산물 유통
		▷ 산업육성	자동차, 철강, 전력, 첨단기술
		▷ 도시권 형성	성정부 소재 도시 중심

■ **각 지방정부는 각 지방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특정 부문에 집중 투입하여 경제발전을 추진**

① 후베이성의 우한(武漢) 경제권

- 우한은 대학 및 고급연구기관이 집중되어 있어 연구역량이 타 지역에 비해 월등하며, 긴밀한 산학연 협동체제를 바탕으로 첨단과학기술 산업에서 우위

② 허난성 중원(中原) 도시권

- 허난성은 중원도시권 중심으로 연해 3대 경제지역 통합하는 중부발전전략을 제시하고 교통 인프라 구축, 산업연계발전, 물류시스템의 현대화 등 전문 프로젝트 추진

③ 후난성의 창주탄(長株潭) 일원화

- 후난성은 창사(長沙), 주저우(株洲), 샹탄(湘潭) 도시경제의 일원화를 추진 중이며, 이들 지역은 후난성 인구의 20.8%('10년), GDP의 42.4%('12년)를 차지하여 성 발전을 선도

④ 장시성의 창주(昌九) 공업지역

- 주장(九江)에서 난창(南昌)에 이르는 일대 공업지역을 중심으로 자동차, 항공, 정밀기기 등 산업을 육성, 푸동경제발전에 지원세력이 되는 도시군으로 육성

⑤ 안후이성의 허페이(合肥)-우후(蕪湖) 도시지대

- 지리적 우위를 기반으로 대장강삼각주 도시지역에 편승하여, 허페이-우후를 중심으로 벨트식 도시권 개척

■ **제12차 5개년 규획에서는 룽하이(龍海)선 주변, 징광(京廣)선 주변, 징주(京九)선 주변과 장강주변 중류경제벨트 구축에 박차를 가하여 주변 도시군 연결 강화를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

■ **제13차 5개년 규획에서는 투자 주도로 중국 평균(6.5%)을 상회하는 8% 이상의 높은 성장을 추구하면서 성별 특화 경제권을 조성해 나갈 것으로 전망**

- (후베이성) 경제적 위상 제고를 목표로 고속성장을 추구하고 있으며, 과학기술 혁신 능력 제고 및 이의 경제성과화, 개방환경 강화 추진
- (허난성) 내륙이라는 지리적 제약을 항공물류와 전자상거래로 극복하기 위해 공항경제 시범구 본격 발전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
- (산시(山西)성) 중앙정부의 공급측 개혁에 맞추어 석탄산업 개편을 추진할 계획

6. 경제체제 개혁정책 추이

가. 개혁개방 초기 정책

- 대외개방 및 농촌경제 개혁 정책('78.12월)
- 現代化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 단계로서 "조정, 개혁, 정돈, 제고(調整, 改革, 整頓, 提高)"의 8字方針의 3개년 경제조정계획 실시('79-'81년)
- 제6차 5개년 규획('81-'85년)
  - 연평균 10%의 고속성장을 달성하였으나, 생산과잉, 에너지 및 원자재 부족, 곡물 감산, 인플레이션, 무역적자, 부정부패, 소득불균형 심화 등 문제 양산
- 경제체제 개혁 결정('84.10월)
  - 도시 商·工業의 생산책임제, 기업의 자주권 확대, 시장경제 원리의 도입, 교통 및 가격제도의 개선 등 추진
- 제7차 5개년 규획('86-'90년)
  - 고도성장에 따른 폐단을 감안, 연평균 성장률 7.5%의 안정 성장을 추구하는 동시에 경제체제개혁에 노력
  - 에너지 개발 및 수송, 통신망 구축 등 기간산업 육성에 투자를 집중하여 1990년대 고도성장 기반 구축
  - 중국 전 지역을 동부, 중부, 서부 3개 지역(三線)으로 구분, 연안지대인 동부지역의 우선 개발 추진
- 治理整頓期 : '7·5 규획' 말기- '8·5 규획' 초기('89-'91년)
  - '87년의 가격개혁 실시에 따른 기록적 물가상승('88년 상반기 12.7%, 하반기 24.5%)과 '89년 天安門사태로 중앙정부의 계획성과 통제성 강화
  - '88년 4/4분기 경부터 심각한 경기침체 및 실업증대 발생

나. 제8차 5개년 규획('91-'95년 : '8·5 규획')

- 농업 중점 정책 지속, 기초공업과 기초설비 우선 정책 실시
- 집약경영을 통한 경제효율 제고를 경제건설과 경제운용의 핵심과제로 하여, 상업, 상품, 기업 등 구조조정 추진
- 경제체계의 국제화 차원에서 개방 확대

- 과거의 연해 중심 개발전략을 탈피, 주변국과 경제교류 확대, 아·태 지역의 경제 공동체 형성에 능동적 참여

다. 국민 경제·사회 발전 10개년 규획('91-'00년)

- '00년까지 국민생산 총액을 '80년의 4배 수준 달성
  - 불변가격 기준 연평균 6% 경제성장 추구
  - 국민생활의 의식주 해결(溫飽) 수준에서 중진국(小康) 수준으로 향상
- 교육사업 발전 및 과학기술 개발, 경제관리 및 경제구조개선, 중점 건설 사업 강화
- 공유제를 기초로 한 계획경제와 시장조절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경제 체제와 운영 제도의 수립

라. 제9차 5개년 규획('96-'00년 : '9·5 규획')

- 동 기간 중 연평균 8% 이상 성장, 동 기간 중 제조업의 연평균 성장률 11%이상 달성, 외환보유는 1,500억 달러 이상으로 세계 2위 규모
- '97년말 아시아 금융위기에 따른 내수부족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 및 안정적인 화폐정책 추진, 디플레이션 탈피
- 인프라 확충
  - 도로건설 투자가 '8·5 규획' 대비 4.5배 증가, 신설 도로의 총연장 24만km(이중 고속도로 13,000km), 신설 철도 6,000km, 신설 및 확장된 비행장 40개, 전국 90%이상의 현(縣)에 전선망 개설 완공
- 주민생활수준 제고
  - '99년 말 도시 주민의 1인당 평균 가처분 소득 및 농민의 1인당 평균 순수입은 5,854위안, 2,210위안으로 95년 대비 각각 1,571위안, 632위안 증가
  - 농촌 빈곤층이 '95년의 6,500만 명에서 99년 3,400만 명으로 감소
- 시장경제체제의 가속
  - GDP중 공유제 및 비공유제 경제 비중은 각각 3/4, 1/4 차지
- 대외경제 가속 : 대외무역 총액 4,000억 달러(세계 9위)이상, FDI 누계가 3,078억 달러로 '8·5 규획' 대비 1,278억 달러 증가

마. 제10차 5개년 규획('01-'05년)

- 경제성장의 질과 효율성 제고를 통하여 '10년 GDP를 '00년 GDP의 2배로 확대하기 위한 기반조성
- 국유기업에 현대기업제도 도입, 사회보장제도의 건전화,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진전
- 도시와 농촌주민의 수입확대를 도모, 국민생활 수준 개선 및 생태 환경 보호
- 경제구조 조정
  - 농업, 공업, 서비스 산업의 수준과 효율 제고
  - 서부대개발 전략 실시함으로써 도시화를 촉진하고, 도시와 농촌 간 균형발전
  - 인프라 건설 강화, 생태환경 보호 중시, 인구와 자원관리 강화
- 개혁개방과 과학기술 발전
  - 과학 및 교육을 통한 국가 발전전략을 실시, 첨단기술 연구를 적극 추진, 첨단기술 산업 및 과학기술의 지속적인 발전 도모
  - 인재 개발, 교육사업 발전 가속화

바. 제11차 5개년 규획('06-'10년)

■ 거시경제

- GDP 년 평균 성장률 7.5%, '10년 1인당 국민소득 '00년 대비 2배 증가, 기간 중 도시 신규취업 및 도시유입 농촌취업자 각 4,500만 명 증가, '10년까지 도시지역 실업율 5% 이내로 통제
  - '10년 총 교역액 2조7천억 불(상품 : 2조3천억 불, 서비스 : 4천억 불)

■ 경제구조조정

- 산업구조조정 : '10년까지 서비스업의 GDP 비중 3%, 서비스 취업자의 전체 취업자 비중 4%, 연구개발비(R&D)의 GDP 비중 2%로 증가

■ 자원·에너지, 생산 안전

- 자원·에너지 절약 : '10년까지 단위 GDP당 에너지 소모율 20% 절감, 단위공업생산의 용수소모량 30% 절감, 공업고체폐기물 종합이용률 60% 제고, 전 도시에서 점토 벽돌 사용 금지

- '10년 도시오수처리율 70%, 도시생활쓰레기 무해화처리율 60% 이상

- 생산안전수준 제고 : '10년까지 안전사고사망율 35%, 공업광업 상업취업이원 안전사고 사망률 25%로 감소

■ 도시-농촌, 인프라

- 도시-농촌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도시화율을 47%로 제고

- 인프라건설 : '10년까지 철로건설 1.7만㎞(그중 여객전용선 7천㎞), 총도로 연장 230만㎞ (그중 고속도로 6만7천㎞)

■ 교육, 인구, 오염물, 소득

- '10년까지 국민 평균 교육년한을 9년으로 상승, 도시 기본 양로보험 가입자수 2,23억 명, 농촌의 수혜율 80% 이상

- 총인구를 13.6억 명 내 통제, 총 경작지 면적 1.2억 헥타르, 삼림율 20% 유지, 주요 오염물 배출 총량 감소율 10% 달성

- 동 기간 중 매년 도시주민 및 농촌주민 소득 증가율 5% 달성

사. 제12차 5개년 규획('11-'15년)

■ 거시경제

- GDP 연평균 성장률을 7%로 하향조정하고, 전반적인 물가안정을 유지하며, 무역 수지의 점진적 균형 달성

- 5년간 도시 신규 일자리 4,500만 개를 창출하고 도시지역 실업율도 5% 이내로 통제

■ 경제구조조정

- GDP 대비 서비스업 비중 4%p 제고(47%), 7대 전략적 신흥산업 적극 육성 및 발전

- 연구개발비(R&D)의 GDP 대비 비중 2.2%, 인구 1만 명당 특허보유건수 3.3건으로 향상

- 지역별, 작물별 경작지 특화(7區23帶) 전략을 통한 농업현대화(强農惠農) 실현

■ **자원 · 에너지, 환경보호**

- 자원 · 에너지 절약 : 단위 GDP당 에너지 소모율과 이산화탄소 배출량 각각 16%와 17% 저감, 단위공업생산의 용수소모량 30% 절감, 1차에너지 대비 비화석에너지 비중 11.4%로 확대
- 대기오염 기준 2급 이상 도시 80%로 확대, 도시오수처리율과 도시생활 쓰레기 무해화 처리율 각각 85%, 80% 수준으로 제고

■ **도시-농촌, 인프라**

- 도시-농촌 간 균형발전을 가속화하여 도시화율을 47%에서 51.5%로 제고(2012년 도시화율 52.6%로 기달성)
- 약 100만㎞의 농촌도로 신설 또는 보수, 중동부 지역의 모든 행정 촌과 서부지역 행정촌 중 80% 이상의 도로에 대해 아스팔트 포장 실시

■ **교육, 사회보험, 인구, 민생**

- 의무교육(9년) 수준을 현저하게 제고시키고 의무교육 보급률도 93%로 확대. 도시 기본 양로보험 가입자 수 3.57억 명, 도농3대기본의료보험 가입율 3%p 제고
- 총인구 13.9억 명 이내로 통제, 총 경작지 면적 1.212억 헥타르, 삼림율 21.66%로 제고
- 동 기간 중 도시 및 농촌 주민 가처분 소득 연평균 증가율 7% 유지. 보장성 주택 3,600만 호 건설

아. 제13차 5개년 규획('16-'20년)

■ **중고속 경제성장 유지**

- 2020년 소강사회 건설 및 GDP, 1인당 소득 2배 달성(2010년 대비)을 위해 '13·5 규획' 기간 연평균 경제성장률 6.5% 이상으로 유지
- 1인당 노동생산성 향상(8.7만 위안 → 12만 위안)을 통해 경제 총량 90조 위안 초과

■ **혁신으로 발전 동력 마련**

- 혁신을 국가발전 전략의 핵심적 위치에 두고, 과학기술 혁신과 대중창업 만중혁신,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 등을 적극 추진, 활용하여 품질강국, 제조강국, 인재강국을 조속 건설

- 2020년까지 기초연구, 전략 선우위 영역에서 중대한 진전을 이루고, R&D 비중을 GDP의 2.5%, 과학기술의 경제성장에 대한 공헌도 60% 초과

■ 개혁개방 심화

- 일대일로의 중대한 진전과 국제 생산협력의 새로운 돌파, 서비스 무역 비중 확대, 무역 수출입 품질 개선으로 무역대국에서 무역강국으로 부상
- 진입전 내국민 대우,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 전면 실행 등 점진적으로 높은 표준의 자유무역구 네트워크 구축

CHINA



VI
중국의 사회·문화

1. 인구
2. 소수민족
3. 교육
4. 언론·출판
5. 종교
6. 체육
7. 문화



1. 인구

가. 인구정책

1) '78.12월 제5기 全人大 제1차 회의에서 인구증가율을 85년까지 0.5%, 20세기 말까지 0%로 축소하여 2000년의 인구를 12억 명 이내로 억제한다는 목표 설정

2) '79.1월부터 「1가구 1자녀」 정책 실시

- 1가구당 1자녀에 대한 고교졸업시까지 학비 면제 등 혜택부여
-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10% 감봉, 벌금징수, 승진제한 등 불이익 부과
  ※ 도·농, 민족, 직업에 따라 자녀수 제한에 상당한 차이

3) '80.3월 婚姻法을 개정, 결혼연령을 상향 조정(남 20세→22세, 여 18세→20세)

4) '82.12월 新헌법 내 가족계획 의무화 명시(제49조)

5) 제9차 5개년 규획 기간('96–'00년)중 인구 자연증가율을 1.08% 이내로 억제하고, 총 인구를 2000년에는 13억 명, 2010년에는 14억 명 이내로 억제(리펑(李鵬) 총리, 제8기 全人大 4차 회의 시 발표)

6) 주룽지(朱鎔基) 총리는 '03.3월 제10기 全人大 1차 회의에서 '98–'03.2월 기간 인구 자연증가율이 6.45%로 하락하여 안정적인 저출산수준의 시기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하고, 저출산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인구와 계획출산 사업을 지속 전개할 것을 천명

7) 원자바오(温家寶) 총리는 '10.3월 제11기 全人大 3차 회의에서 저출산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인구와 계획출산 사업을 지속 전개할 것을 표명

- 한편, 저출산율과 함께 인구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양로기금 확충, 의료보험 확대 등 사회보장체제 확립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
  – '11.1월 양로, 의료, 실업, 상해, 출산 보험 등 5대 보험 확대

- '1가구 1자녀 정책' 수정 추진

8) '12.11월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은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에서 계획출산 기본국책을 견지하고, 출생인구 소질을 제고하고 정책을 점차 보완하여 장기적인 인구 균형발전을 추진할 것을 천명

9) '13.3월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제12기 전인대 1차회의에서 인구정책을 점차 보완하고, 계획출산 기본국책을 견지하며, 중국 인구 총수와 구조 변동 추세에 적응하여 인구 수량, 소질, 구조 및 분포 문제를 통합 해결하여 장기적인 인구 균형발전을 추진할 것을 천명

10) 전면적인 '두 자녀 정책(二孩政策)' 시행

- '11.11월 중국 각 지역에서 전면적인 雙獨二孩(부부가 둘 다 외동일 경우 둘째 출산 허용) 정책 시행
- '13.12월 중국 각 지역에서 單獨二孩(부부 중 한 명이 외동일 경우 둘째 출산 허용) 정책 시행
- '15.10월 중국공산당 제18차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는 "계획출산 기본국책을 견지하고, 인구 고령화 대응 행동을 적극 전개하여 전면적인 두 자녀 정책을 시행한다"고 천명
- '15.12월 전면적인 '두 자녀 정책' 시행 내용이 포함된 '중화인민공화국 인구계획생육법'이 개정되어 '16.1.1부터 시행

나. 최근 인구증가 추이

(단위 : 억 명, %)

구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총인구	12.67	12.76	12.85	12.92	13.00	13.07	13.14	13.21	13.28	13.34	13.40	13.47	13.54	13.60	13.67
자연증가율	0.758	0.695	0.645	0.601	0.587	0.589	0.528	0.517	0.508	0.505	0.494	0.479	0.495	0.492	0.521
출산율	1.403	1.338	1.286	1.241	1.229	1.24	1.209	1.21	1.214	1.195	1.19	1.193	1.210	1.208	1.237
사망률	0.645	0.643	0.641	0.640	0.642	0.651	0.681	0.693	0.706	0.708	0.711	0.714	0.715	0.716	0.716

※ 출처 : 중국통계연감 2015

다. 인구조사 통계

1) 제3차–제6차 인구조사 통계

항목	제3차 인구조사 통계 ('82.6월말)	제4차 인구조사 통계 ('90.6월말)	제5차 인구조사 통계 ('00.11.1)	제6차 인구조사 통계 ('10.11.1)
총인구	10억 818만 명	11억 4,333만 명	12억 6,743만 명	13억 4,091만 명
자연증가율 출생률 사망률	1.455% 2.091% 0.636%	1.470% 2.098% 1.628%	0.758% 1.403% 0.645% * 2000년도 기준	0.494% 1.54% 0.689% * 2010년도 기준
한족 소수민족	9억 4,088만 명 6,730만 명	10억 5,277만 명 9,056만 명	11억 6,293만 명 1억 449만 명	12억 2,958만 명 1억 1,132만 명
문맹 문맹률	2억 2,996만 명 22.81%	1억 8,003만 명 15.88%	8,507만 명 6.72%	5,466만 명 4.08%
도시인구 도시인구비율	2억 6,589만 명 20.60%	2억 9,651만 명 26.23%	4억 5,594만 명 36.09%	6억 6,558만 명 49.68%
가구당 인구 성비율(여=100)	4.42명 106.3%	3.96명 106.6%	3.44명 106.74%	3.10명 105.20%

2) '15년도 인구구성 현황

■ **총인구 : 13억 7,462만 명**

- 연령별
  - 0-14세 : 2억 4,166만 명(17.6%)
  - 15-64세 : 9억 8,910만 명(71.9%)
  - 65세 이상 : 1억 4,386만 명(10.5%)

- 도시-농촌별
  - 농촌 인구 : 6억 346만 명(43.9%)
  - 도시 인구 : 7억 7,116만 명(56.1%)

- 성별
  - 남성 : 7억 414만 명(51.2%)
  - 여성 : 6억 7,048만 명(48.8%)

* 출처 : 중국 국가통계국

라. 문제점

1) 저출산율 문제

- 지난 30여년간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 실시결과, 70년대 초반 5.8명이던 출산율이 1.5명으로 낮아졌으며, 이는 약 3억 명 이상의 인구를 축소한 효과 유발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15.7월에 발표한 '인구 및 사회발전보고서 2014'에서는 중국 합계 출산율이 대체 수준 이하까지 떨어져 인구 출산 수준이 세계 저출산국가로 분류 되었다고 명시

2) 고령화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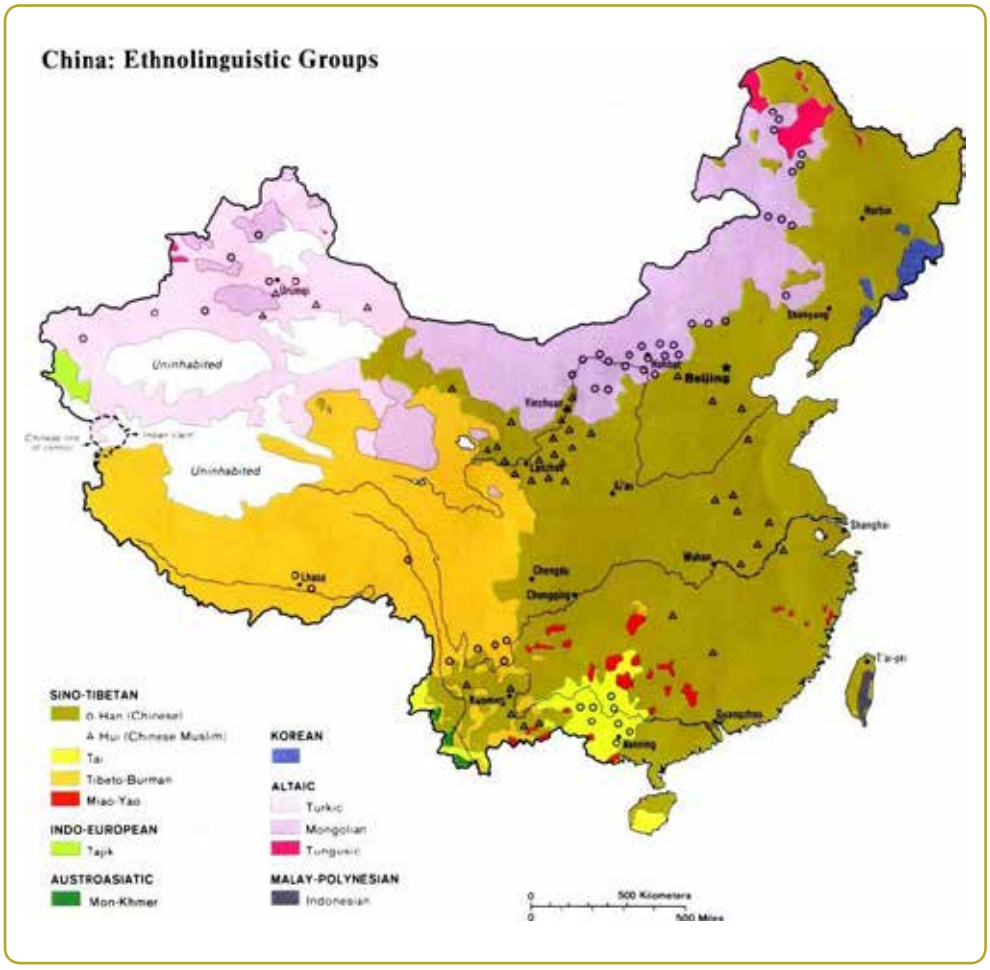
- 중국 민정부에서 발표한 '2014 사회서비스발전통계공보'에 따르면, '14년 말 기준 전국 60세 이상의 고령 인구수가 2억 1,242만 명으로 전체 인구수의 15.5%를 차지하며, 그 중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수가 1억 3,755만 명으로 전체 인구수의 10.1% 차지
- 저출산율에도 불구하고 의학발달에 따른 평균수명 연장('90년 68.6세→'15년 75.5세)은 인구증가를 지속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중국의 고령화 문제는 선진국들과 달리 사회경제적 기초가 아직 취약한 상황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른바 전면적인 小康(중진국 수준) 사회 건설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

※ 60세 이상 고령인구는 '89년 말 9,100만 명(총인구의 8%)에서 '14년에는 2억 1,242만 명(총인구의 15.5%)으로 증가하였으며, '25년에는 총인구의 25%에 달할 것으로 전망

2. 소수민족

가. 개요

- 중국은 56개 민족으로 구성된 국가이며, 약 13억 7천만 명 이상의 총인구에서 한(漢)족은 약 12억 5천만 명으로 중국 인구의 91.46%, 한족을 제외한 55개 소수 민족은 약 1억 1,700만 명으로 인구의 약 8.54%를 차지함.(2015년 기준)
  ※ 출처 : 중국국가통계국 〈'15년 전국 1%인구 표본조사 주요데이터 보고〉
- 중국은 14개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독특한 상황에서 빚어지는 분리 독립 운동으로 인해 과거부터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분리독립을 '핵심이익'인 영토안정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대처해 왔음.
  - '08.3월 유혈사태가 발생한 시짱자치구는 티베트족이 집중 분포한 지역으로 중국이 '49년 정부수립 이후 자국의 영토로 편입하였으며, '65년에는 티베트 일부지역을 칭하이(青海)성, 윈난(雲南)성, 간쑤(甘肅)성, 쓰촨(四川)성으로 편입시키고 120만㎢에 이르는 지역에 시짱(西藏, 티베트)자치구를 설치해 오늘에 이르고 있음. 지난 '59년 분리독립을 요구하는 반중 운동이 일어났지만 중국의 강제진압으로 실패함에 따라 당시 인도로 망명('59년)한 달라이 라마(1935.7.6생, 제14대, 현재 인도 거주)는 현지에서 티베트 망명정부를 수립하고 국제사회를 무대로 지속적으로 독립운동을 전개 중
  - 달라이 라마는 '95.5.17 티베트에서 소년 게둔최끼니마를 티베트불교의 2인자인 제11대 판첸 라마로 임명함. 그러나 중국정부는 곧 게둔최끼니마를 체포·구금하고, 기알첸노르부를 제11대 판첸 라마로 임명함. 그 후, 게둔최끼니마의 행방은 알 수 없음.
  - 또 청나라 때 중국으로 편입된 신장위구르자치구(新疆維吾爾自治區)는 국공내전 등 혼란한 틈을 타 주류 민족인 위구르족이 '33-'34년, '43-'49년 독립국가인 동(東)투르키스탄공화국을 세운 역사가 있으며, 아직까지도 분리독립을 요구하는 단체들이 활동 중
  - 몽고(몽골족)는 청나라 시기 중국에 복속된 후, 20세기 초 독립운동의 결과 외몽고(外蒙古)는 독립했으나, 내몽고(네이멍구, 內蒙古)는 중국 치하에 남게 됨
  - '09.7월 신장 우루무치시 폭동(사상자 약 1,900여 명)
  - '14.4월 신장 우루무치시 기차역 테러(사상자 약 80여 명)
  - '14.7월 신장 사처(莎車)지역 폭동(사상자 약 50여 명)
- 현재 소수민족 젊은이들 상당수가 경제적인 이유로 대도시로 떠나고 있는 반면 소수민족 자치구에서의 한족 인구비율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
  ※ 옌볜 조선족 자치주, 창바이(長白) 조선족 자치현도 유사한 상황



* 출처 : https://en.wikipedia.org/

나. 중국 소수민족 정책 원칙

- '49년 중국은 '단 하나의 중국(只有一個中國)'이라는 통일정책을 시행하고, 정권의 안정과 영토의 일체화를 유지하기 위해 국내적으로는 분열 소지가 많은 소수민족 문제 해결에 노력하면서 소수민족의 분리독립을 근본적 국익인 영토안정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대처해 옴.

- 이러한 정책은 소수민족의 평등을 견지하고 민족 멸시와 압박을 반대한다는 주장을 불러와, '82년에 제정한 헌법 제4조에 "중화인민공화국의 각 민족은 모두 평등하다. 그 어떤 민족에 대한 멸시와 압박도 금지한다"고 규정
  이러한 규정은 중국의 원칙적 입장과 근본정책이 민족 압박 제도를 폐지하고 민족 평등과 민족 단결의 정책을 실시한다는 것을 의미

다. 인구와 분포

- 중국의 소수민족은 그 수에 있어서나 정치, 경제, 문화,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한족 이외의 여타 소수 민족집단을 지칭
  - '10년 제6차 전국인구조사 주요데이터 보고에 따르면, 현재 중국 전체인구에서 한족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91.5%, 소수민족은 약 8.5%
  - 그러나 소수민족의 정치적 대표는 인구의 비중을 넘어서, '13년 제12기 전인대 소수민족의 대표는 전체 전인대 대표총수 2,987명 중 409명으로 13.69%를 차지

    ※ 5년 주기로 전인대 각급 대표 선출

    ※ 중국은 소수민족의 평등한 권리를 위해서 참정권을 부여하였는데, '79년 새로 제정한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회의와 지방각급인민대표회의 선거법'에는 인구가 특히 적은 민족도 적어도 한명의 대표는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 '04년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 인민대표대회 선거법' 4차 수정본에서는 소수민족이 집거한 지역은 소수민족 대표가 있어야 하고, 지역 인구의 30%를 초과할 경우 당지 인민대표의 비례와 동일, 15% 미만일 경우 당지 인민대표의 비례보다 적어도 되지만 절반은 초과해야 함. 또한 소수민족이 집중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의 소수민족 대표의 비례는 당지의 인민대표의 비례보다 적어도 된다고 명확히 규정

- 중국에서 소수민족에 대한 확인 작업은 "科學依據—民族依願"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두 가지 기준에 따라 소수민족으로 분류
  - 어느 특정한 민족이 ① 공동언어 ② 공동지역 ③ 공동경제생활 ④ 공동문화를 가진 공동체라는 민족형성의 네 가지 조건 충족 여부
  - 개개의 민족들이 독자적인 민족단위로 존재할 의사 여부

- 중요한 것은 현재는 위의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55개의 소수민족만이 확인되어 있는 상태이며(民族分類의 公式性), 이는 중국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민족을 총망라하는 것은 아님. 위의 원칙에 따른 분류 작업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민족의 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음(민족분류의 可變性).
  - 중국 소수민족 인구는 '53년에 3,353만 명, '64년에 4,000만 명, '82년에 6,730만 명, '90년에 9,056만 명, '00년의 다섯 번째 인구조사에서는 1억 400만 명으로 나타났으며, '10년 여섯 번째 인구조사에서는 1억 1,100만 명에 달함. 소수민족별 분포지와 인구는 〈표1〉에 나타나 있음.
  - 인구 100만 이상인 소수민족 :
    좡족(壯族, Zhuang), 회족(回族, Hui), 위구르족(維吾爾族, Uyghur), 카자흐족(哈薩克族, Kazakh, Hassake), 다이족(傣族, Dai), 이족(彝族, Yi), 묘족(苗族, Miao), 만족(滿族, Manchurian), 장족(藏族, Zang, Tibetian), 몽고족(蒙古族, Mongol), 투자족(土家族, Tujia), 부이족(布依族, Bouyei), 조선족(朝鮮族, Chosen), 둥족(侗族, Tong), 야오족(瑤族, Yao), 바이족(白族, Bai), 하니족(哈尼族, Hani), 리족(黎族, Li) 등 18개 민족
  - 인구 10만 이상 100만 이하인 소수민족 :
    리수족(傈僳族, Lisu), 서족(畲族, She), 라후족(拉祜族, Lahu), 와족(佤族, Wa),

수이족(水族, Sui), 둥샹족(東鄕族, Dong xiang), 나시족(納西族, Naxi), 시보족(錫伯族, Xibe), 투족(土族, Tu), 거라오족(仡佬族, Gelao), 키르기스족(柯爾克孜族, Kirghiz), 다월족(達斡爾族, Dawor), 창족(羌族, Qiang), 징포족(景頗族, Jingpo), 무라오족(仫佬族, Mulao), 싸라족(撒拉族, Salar), 마오난족(毛南族, Maonan) 등 17개 민족

- 인구 1만 이상 10만 이하인 소수민족 :
  부랑족(布朗族, Blang), 타지크족(塔吉克族, Tadzhik), 푸미족(普米族, Pumi), 누족(怒族, Nu), 아창족(阿昌族, Achang), 에벵크족(鄂溫克族, Ewenki) 지눠족 (基諾族, Jino), 우즈 베크족(烏孜別克族, Uzbek), 러시아족(俄羅斯族, Russ), 바오안족 (保安族, Bonan), 징족(京族, Jin), 더앙족(德昂族, Deang), 위구족(裕固族, Yugur), 먼바족(門巴族, Monba) 등 14개 민족
- 인구 1만 이하인 소수민족 :
  고산족(高山族, Gaoshan), 다다르족(塔塔爾族, Tatar), 두룽족(獨龍族, Durung), 오르쫀족(鄂倫春族, Oroqen), 뤄바족(珞巴族, Lhoba), 허저족(赫哲族, Hezhen) 등 6개 민족
- 이외에도 등인(僜人), 샬바인(夏爾巴人) 등과 같이 아직 그 민족성분이 식별되지 않은 인구가 약 64만여 명 있음.

※ 표기법 출처 :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前 국가기술감독국)

중국 소수 민족 인구 현황

민족	분포	인구(천 명)
壯族(Zhuang)	광시, 윈난, 광둥	16,926.3
滿族(Man)	랴오닝, 허베이, 헤이룽장, 지린, 네이멍구, 베이징	10,387.9
回族(Hui)	닝샤, 간쑤, 허난, 신장, 칭하이, 윈난, 허베이, 산둥, 안후이, 베이징, 톈진, 랴오닝, 네이멍구, 헤이룽장, 산시(陝西), 구이저우, 지린, 장쑤, 쓰촨	10,586.0
苗族(Miao)	구이저우, 후난, 윈난, 광시, 충칭, 후베이, 쓰촨	9,426.0
維吾爾族(Uyghur)	신장	10,069.3
彝族(Yi)	윈난, 쓰촨, 구이저우	8,714.3
土家族(Tujia)	후난, 후베이, 충칭, 구이저우	8,353.9
蒙古族(Mongol)	네이멍구, 랴오닝, 지린, 허베이, 헤이룽장, 신장	5,981.8
藏族(Tibetan)	시짱(티베트), 쓰촨, 칭하이, 간쑤, 윈난	6,282.1
布依族(Bouyei)	구이저우	2,870.0
侗族(Dong)	구이저우, 후난, 광시	2,879.9
瑤族(Yao)	광시, 후난, 윈난, 광둥	2,796.0
白族(Bai)	윈난, 구이저우, 후난	1,933.5

민족	분포	인구(천 명)
朝鮮族(Chosen)	지린, 헤이룽장, 랴오닝	1,830.9
哈尼族(Hani)	윈난	1,660.9
黎族(Li)	하이난(海南)	1,463.0
哈薩克族(Kazak)	신장	1,462.5
傣族(Dai)	윈난	1,261.3
畲族(She)	푸젠, 저장, 장시, 광둥	708.6
傈僳族(Lisu)	윈난, 쓰촨	702.8
仡佬族(Gelao)	구이저우	550.7
拉祜族(Lahu)	윈난	485.9
東鄉族(Dongxiang)	간쑤, 신장	621.5
佤族(Va)	윈난	429.7
水族(Sui)	구이저우, 광시	411.8
納西族(Naxi)	윈난	326.2
羌族(Qiang)	쓰촨	309.5
土族(Tu)	칭하이, 간쑤	289.5
錫伯族(Xibe)	랴오닝, 신장	190.4
仫佬族(Mulao)	광시	216.2
柯爾克孜族(Kirgiz))	신장	186.7
達斡爾族(Daur)	네이멍구, 헤이룽장	131.9
景頗族(Jingpo)	윈난	147.8
撒拉族(Salar)	칭하이	130.6
布朗族(Blang)	윈난	119.6
毛南族(Maonan)	광시	101.1
塔吉克族(Tajik)	신장	51.0
普米族(Pumi)	윈난	42.8
阿昌族(Achang)	윈난	39.5
怒族(Nu)	윈난	37.5
鄂溫克族(Ewenki)	네이멍구	30.8
京族(Jing)	광시	28.1
基諾族(Jin)	윈난	23.1

민족	분포	인구(천 명)
德昂族(Deang)	윈난	20.5
烏孜別克族(Uzbek)	신장	10.5
俄羅斯族(Russ)	신장, 헤이룽장	15.3
裕固族(Yugur)	간쑤	14.3
保安族(Bonan)	간쑤	20.0
門巴族(Monba)	시짱(티베트)	10.5
鄂倫春族(Oroqen)	헤이룽장, 네이멍구	8.6
獨龍族(Derung)	윈난	6.9
塔塔爾族(Tatar)	신장	3.5
赫哲族(Hezhen)	헤이룽장	5.3
高山族(Gaoshan)	대만, 푸젠	4.0
珞巴族(Lhoba)	시짱(티베트)	3.6
總計		111,324

※ 출처 : 중국국가통계국 – 중국통계연감 2015

라. 중국 소수민족의 특징

1) 높아지는 인구증가율

- '64년 인구조사에서는 소수민족 인구가 전체인구 6억 9,122만 104명의 5.78%이던 것이 18년 후인 '82년에는 전체의 6.7%, '90년 이후부터는 8.04%로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지속 상승하였으며, '00년 제5차 전국인구조사통계에서는 8.24%(1.04억 명), '10년 제6차 전국인구조사통계에서는 8.3%(1.11억 명)를 차지
  - '10년에는 '00년과 비교하여 한족인구는 5.73% 증가, 소수민족은 6.54% 증가

	2000년	2010년
총 인구수	1,267,430,000	1,340,910,000
한족수	1,162,939,265	1,229,585,200
소수민족수	104,490,735	111,324,800

※ 출처 : 중국국가통계국 - 중국통계연감 2000–2015

- 소수민족 인구의 이 같은 증가에는 자연증가의 이유도 있겠지만, 그보다 소수민족 정책의 암흑기라고 불렸던 문화대혁명이 끝나고 중국이 새로운 민족평등 정책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기 시작하면서 그 동안 자신의 민족성을 감추고 지내오던 많은 사람들이 다시 원래의 민족성을 회복한 것이 주요 원인
  - 소수민족의 출산을 장려하는 정부 정책과 경제발전, 의료서비스의 향상 등도 소수민족 인구증가와 밀접히 관련

2) 분포지역이 넓고 점유면적이 광대

- 중국의 소수민족은 비록 전국 인구의 1/10에도 못 미치지만, 분포되어 있는 지역이 매우 광활
  -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전국의 절반 이상(63.7%)이나 인구밀도는 한족 거주지보다 훨씬 낮음

- 5개의 소수민족 자치구 외에도 30개의 소수민족 자치주(自治州)와 120개의 자치현(自治縣)이 존재
  - 소수민족이 가장 많은 성(省)은 윈난(雲南)으로 35개의 민족 거주
  - 이외에도 네이멍구(內蒙古), 신장(新疆), 시짱(西藏, 티베트), 광시(廣西), 닝샤(寧夏) 지역 및 헤이룽장(黑龍江), 지린(吉林), 랴오닝(遼寧), 간쑤(甘肅), 칭하이(青海), 쓰촨(四川), 윈난(雲南), 구이저우(貴州), 광둥(廣東), 후난(湖南), 허베이(河北), 후베이(湖北), 푸젠(福建), 대만(臺灣), 하이난(海南) 등의 성(省)에 주로 분포

3) 大雜居와 小聚居

- 각 소수민족 지역에는 모두 일정한 수의 한족이 살고 있으며, 비록 소수민족 자치지구라 할지라도 주민 다수는 한족

- 각 소수민족은 모두 자신들의 집거지역을 가지고 있는데, 비교적 큰 지역도 있고 작은 지역도 있으며, 몇몇 집거지역은 각 지역에 분산되어 있고 단지 부분적으로 집거하고 있는 지역도 있으며, 그 나머지 소수민족은 다른 민족들 사이에 흩어져 거주
  - 회족은 1,058만여 명이 있는데 닝샤회족자치구(寧夏回族自治區)에 집거하고 있는 사람은 200여만 명이고, 또 100만여 명은 간쑤성 신장위구르자치구(新疆維吾爾自治區)에 집거하고 있으며, 나머지 700여만 명은 전국 각지에 흩어져 거주
  - 장족(티베트족)은 약 628만여 명인데, 270여만 명이 시짱(티베트)에 집거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간쑤, 칭하이, 쓰촨, 윈난 등지에 흩어져 거주

- 이러한 중국민족 분포의 특징은 소수민족과 한족 및 각 소수민족간의 밀접한 관계를 반영하고 있으며, 이것은 중국이 통일된 다민족 국가를 이루는 중요한 기초

4) 자원과 산물이 풍부

- 소수민족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대부분 고원, 산맥, 초원, 삼림지대로 지역이 광대하고 지하자원이 풍부하며 목축업이 발달되고 농작물의 종류가 다양
  - 네이멍구와 닝샤는 중국 식량작물의 중요 생산지이고, 신장은 목화, 광시는 사탕수수의 중요 생산지이며, 시짱에서는 쌀보리가 많이 생산되고, 윈난과 하이난은 열대 과일의 생산지
- 중국의 5대 천연 목축지역인 네이멍구, 신장, 시짱, 칭하이, 간쑤는 모두 소수민족 지역

5) 변경에 가깝고 인구가 희소, 경제와 문화가 비교적 낙후

- 소수민족이 집중된 지역은 대부분 중국의 국경지대에 위치하고 있고, 주변 국가들과 인접하고 있어, 국방 및 이웃 국가와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
- 그러나 지역이 광대하고 변방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구밀도가 낮고 교통이 불편하여 개발이 비교적 늦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비교적 낙후

마. 언어와 문자

- 중국의 55개 소수민족은 거의 모두 자신들의 언어를 갖고 있으나, 그 중 21개 민족만이 고유 문자를 보유
  - 회족, 만족, 서족이 한문(漢文)을 사용하고 있는 것 외에, 몽고족, 장족(티베트족), 좡족, 시버족, 다이족, 위구르족, 키르기스족, 다다르족, 러시아족 등 11개 민족은 모두 그들 민족의 고유 문자를 가지고 있는 동시에 통용 문자도 사용
  - 이족, 나시족, 묘족, 징퍼족, 리수족, 라후족, 와족 등 7개 민족은 비록 자신들의 문자를 갖고 있지만 별로 사용하지 않으며, 그 나머지 34개 민족은 고유 문자 별무
- 중국 소수민족들은 약 60여 종의 언어를 사용
  - 한장어계(漢藏語系)에 속하는 것이 가장 많으며, 중국어(漢語), 좡어(壯語), 부이어(布衣語), 다이어(傣語), 둥어(侗語), 수이어(水語), 무라오어(仫佬語), 모난어(毛南語), 리어(黎語), 미아오어(苗語), 요어(瑤語), 티베트어(藏語), 바이어(白語), 징어(京語), 리수어(傈僳語), 나시어(納西語), 라구어(拉祜語), 하니어(哈尼語), 징퍼어(景頗語) 투쟈어(土家語) 등 20개 어종(語種)이 있음
  - 알타이어계에 속하는 것으로는 위구르어(維吾爾語), 카자흐어(哈薩克語), 우즈베크어(烏孜別克語), 다다르어(塔塔爾語), 조선어(朝鮮語), 키르기스어(柯爾克孜語), 싸라어(撒拉語), 위구어(裕固語), 몽고어(蒙古語), 다월어(達斡爾語), 둥샹어(東鄉語), 보안어(保安語), 에벵크어(鄂溫克語), 오르쫀어(鄂倫春語), 만주어(滿語), 시버어

(錫伯語), 허저어(赫哲語) 등 17개 어종이 있음
- 남아시아어계에 속하는 것으로는 와어(佤語), 부랑어(布朗語), 더앙어(德昂語)가 있고, 인도유럽어계에 속하는 것으로는 다지크어(塔吉克語), 러시아어(俄語)가 있으며, 대만의 고산어(高山語)는 남도어계(南島語系)에 속함

바. 종교와 풍속

- 중국의 소수민족은 일반적으로 모두 종교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세계 3대 종교인 이슬람교, 불교, 기독교는 소수민족들에게 매우 많은 영향을 미침
  - 이슬람교를 믿는 민족은 회족, 위구르족, 카자흐족, 키르기스족, 다다르족, 우즈베크족, 타자크족, 둥샹족, 싸라족, 바오안족 등
  - 라마교나 불교를 믿는 민족은 장족(티베트족), 몽고족, 토족, 위구족, 다이족, 부랑족, 더앙족 등
  - 기독교를 믿는 민족은 일부 묘족과 이족 등이 있음

    ※ 중국 소수민족은 국가의 종교 신앙 자유정책에 근거하여 자기의 신앙에 따라 어느 종교나 믿을 수 있음.

- 두룽족, 누족, 와족, 징퍼족, 고산족, 오르쭌족 등 일부 소수민족은 조상숭배, 토테미즘, 샤머니즘(薩滿敎) 등을 포함한 원시 자연숭배의 여러 가지 신앙을 보유

- 소수민족 간의 풍속 습관도 매우 다르며, 옷차림, 음식, 거주, 관혼상제, 명절, 오락, 금기 등 각 방면에서 모두 자신들의 전통적인 특징 보유
  - 이슬람교를 믿는 10개의 소수민족은 돼지고기 먹는 것을 금기
  - 각 민족은 모두 자신들의 전통 명절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다이족의 발수절(潑水節), 이족의 화파절(火把節), 장족(티베트족)의 장력절(藏曆節), 몽고족의 나담대회(那達慕大會, Nadam Fair) 등 존재

3. 교육

가. 교육 실태

1) 정권 수립('49.10월) 이후 수차례의 정치투쟁을 겪으면서 지식인 탄압 및 경시 풍조가 만연된 데다 문화대혁명(文革, '66–'76년)으로 교육환경 피폐화

2) 덩샤오핑(鄧小平) 체제 출범('78.12월) 이후

- 덩샤오핑의 주도 아래 '78.12월 제11차 三中全會에서 개혁개방과 시장경제의 도입이라는 중대 정책을 도입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79년부터 비로소 개혁개방 정책을 시행
- 이에 따라 교육분야에서도 과학과 교육의 발전으로 나라를 부흥하자는 '科教興國'을 국가발전의 기본 전략으로 삼고, '93.12월 중국 교육개혁과 발전요강(中國教育改革和發展綱要)을 발표하여 교육개혁의 지향점을 제시하면서 관련 후속 법령을 제정

3) 1990년대 이후

- 교육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정비의 일환으로 교사법('93.10월), 교육법('95.3월), 직업교육법('96.5월), 고등교육법('98.8월) 및 사립학교법인 민판교육촉진법('02.9월) 등 교육 관련 법령을 순차적으로 제정·시행
  ※ '86.7.1부터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시행, '06.9.1부터 신 〈의무교육법〉 시행
- 의무교육(초·중등학교 교육)
  - '86.4월 의무교육법의 제정으로 '9년 의무교육제'를 채택하여 무상교육 지향
  - '05.12월 국무원 〈농촌의무교육 경제보장메커니즘 개혁 실시에 관한 통지〉 하달
  - '06.9월부터 실시한 신 〈의무교육법〉에는 "국가는 의무교육을 재정보장범위에 전면적으로 포함하고, 의무교육경비는 국무원과 각급 지방인민정부가 본 법의 규정에 따라 보장을 제공한다"고 최종적으로 명확히 함
  - '06년 서부지역부터 농촌의무교육 학비·잡비 무상화 정책 시행
  - '07년 무상 의무교육을 중부지역과 동부지역 농촌으로 확산
  - '08.9.1 전국 범위에서 도시 의무교육 학비·잡비 무상화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 이로써 중국에 전면적인 의무교육 무상화 실현
- 대학은 교육재정 확보와 대학졸업자의 직업선택 자율권을 보장하는 대신 학비를 납부하여야 하는 '自費生' 제도 시행

※ "自費生"은 일반 대학교가 학생모집규정에 따라 합격하고 본인이 학비를 부담하며, 졸업 후 학교추천에 의해 취업하거나 스스로 취업할 수 있는 학생을 가리킴. 현재 소수의 위탁양성학생 외에 전문대학생과 대학생은 거의 다 자비생임
※ 대학원생의 경우는 여전히 국가계획연구생, 위탁양성연구생, 자비연구생으로 나눔

나. 교육체계

1) 학제

- 우리나라와 같이 6-3-3-4제를 기본 학제로 하고 있으나, 농촌 및 내륙지역 등 일부 지역은 생활수준과 지역 실정에 따라 일부 변형된 학제도 운영
- 학교교육은 그 기능에 따라 기초교육(유치원 및 초·중등교육), 직업기술교육, 고등교육 및 성인교육으로 구분
- 9월에 신학기가 시작되어 다음 해 7월에 끝나는 2학기제로 운영되며, '95년부터 주5일제 수업 실시

2) 기초교육(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 유치원
  - 3세부터 6세까지의 유아를 대상으로 하고, 맞벌이 부부가 일반화되어 있어서 대부분 종일제로 운영
  - 56개 민족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漢族은 한 자녀만 낳도록 규제한 결과 독자(獨子)에 대한 사랑으로 인하여 버릇이 없는 '小皇帝'라는 별칭이 유행할 만큼 자녀에 대한 교육과 옷치장 등에 돈을 아끼지 않는 등 사회문제로도 대두
  - 유치원수 209,881개원, 원아수 40,507,145명(2014년 통계)

- 초등학교(小學)
  - 6-7세에 입학하여 5년 내지 6년 과정을 이수하며, 외국어(영어) 교과는 우리나라보다 먼저 도입
  - 교육환경이 낙후된 지역에 대한 교실의 신·증축이나 교과서 등 교재 보급을 위하여 '希望工程'(희망 Project)이란 명칭으로 기업체나 개인으로부터 모금을 하여 의무교육 확충 사업을 지원
    ※ '89-'09년 동안 56억 7천만 위안 자금을 모집하고 학생 346만 명에 도움을 제공하였으며 빈곤지역 등에 희망소학(교) 1만 5,940개 건설
  - 교원수 : 5,633,906명(이 중 여교원수 3,500,101명, 2014년)
  - 교원 학력 분포 : 석사 이상 학력 소지자 27,125명, 대학 학력 2,321,118명, 전문대 학력 2,713,074명, 고등학교 학력 565,804명, 고등학교 이하 6,785명(2014년)

· 학교수 : 201,377개교, 재학 학생수 94,510,651명(2014년)
· 학생과 교원의 비중 : 16.78:1(2014년)

- 일반 중등학교(‘보통 중학’이라고 하며 우리나라의 인문계 중학교에 해당)
  - 初級中學(중학교)과 高級中學(고등학교)으로 나누며, 이를 합한 6년제 중등학교인 ‘完全中學’과 농촌 등 일부지역의 경우 小學(초등학교) 5년과 初級中學 4년이 합쳐진 학교도 운영
  - 대도시의 고급중학은 입학시험을 거쳐야 하며, 세칭 유명학교는 커트라인이 상대적으로 높음.
  - 초급중학의 경우, 일반 초급중학 학교수 52,623개교, 재학 학생수 43,846,297명(비학령 인구 포함)

· 교원수 : 3,488,430명(이중 여교원수 1,834,243명)
· 학력수준 : 석사 이상 학력 54,775명, 대학 2,662,297명, 전문대 754,918명, 고등학교 15,882명, 고등학교 이하 558명(2014년)
· 학생과 교원의 비중 : 12.57:1(2014년)

- 고급중학의 경우, 일반 고급중학 학교수 2.6만 개교, 재학 학생수 2400.5만 명

· 교원수 : 1,662,700명(이중 여교원수 841,510명)
· 학력수준 : 석사 이상 학력 105,740명, 대학교 1,511,153명, 전문대 44,840명, 고등학교 913명, 고등학교 이하 54명(2014년)
· 학생과 교원의 비중 : 14.44:1(2014년)

3) 직업기술교육(中等職業學校)

- 한국의 실업고에 해당하는 중등직업학교(中等職業學校)는 전문가 양성이 목표인 보통중등전업학교(普通中等專業學校), 실무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기술자 양성이 목표인 직업고등학교(職業高中學校)가 있음. 공업·농업·예술·정법·체육·사범·재경·임업·의약위생·관리 등의 전공을 선택함.

- 특히, 중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직업중학교(職業初中學校)가 있어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직장을 갖는 경우도 있음.

(2014년)

	보통중등전업학교	직업고등학교	직업중학교
학교수	3,536개교	4,067개교	26개교
학생수	7,491,366명	4,728,165명	7,725명

※ 출처 : 중국교육부

4) 고등교육(전문대학, 4년제 대학 및 대학원)

- 4-5년 과정의 '大學'(종합대학) 및 '學院'(단과대학)과 2-3년 과정의 전문대학에 해당하는 단기교육과정인 專科學校 및 短期職業大學으로 구분되고, 대학 내에도 학부에 해당하는 '本科' 이외에 수업연한 2-3년의 전문대학과정인 '專科'를 설치한 경우도 있음.

- 대학원은 '研究生院'이라고 하며, 수학기간은 석사연구생 과정은 2-3년, 박사연구생 과정은 3-4년
  ※'81년부터 학사, 석사, 박사 3단계의 학위제도를 시행하며, 철학, 경제학, 법학, 교육학(체육학 포함), 문학(예술학 포함), 역사학, 이학, 공학, 농학, 의학, 관리학 등의 학위 수여

- 매년 6월 초순에 우리나라의 대학수학능력시험에 해당하는 '普通高等院校統一招生全國考試'를 전국적으로 동시 실시. 대부분 지역 성/시에는 매년 1번 시험을 실시하고 일부 지역은 2번 실시
  ※ 2014년 939만 명 응시, 2014년 고등교육 입학율 74.335%

- 대학 본과생의 경우 각 대학별로 입학가능 인원을 각 성·시별로 배정하는 '지역할당제'를 시행하며, 각 대학별로 사전 제시하는 전국통일고시 최저점수를 참고하여 1-3지망

- '98.3.19 당시 신임 총리 주룽지(朱鎔基)는 기자회견에서 "과교흥국(科教興國) 정책의 실시로 5년 내 교육사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촉진"할 것을 언명하면서, 1999년부터 대학 입학정원을 확대할 것임을 천명하여 대학 입학정원이 '99년 160만 명에서 '03년에는 382만 명, '08년 599만 명으로 대폭 증가함에 따라 경제성장이 지금처럼 계속 유지되더라도 대학 졸업생의 취업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

- 학교수 1,202개교(전문대 포함 2,529개교)(2014년), 학생수 본과생 1,350만 명(2011년)

5) 成人교육

- 성인교육기관으로 성인초등학교 18,255개교, 성인초급중학 1,370개교, 성인중등전업학교 1,457개교, 성인고등교육학교 540개교(2011년)

- 성인교육기관으로 放送大學, 函授學院, 教育學院 및 管理幹部學院 및 教育學院 등이 있고, 일반 대학의 교육과정과 큰 차이가 없음.

- 입학자격은 放送大學이나 函授學院은 방송매체에 의하거나 통신교육을 하는 것이므로 우리나라의 경우와 비추어 크게 다를 바 없고, 그 외에 職工大學은 연령 35세 이하, 직장 재직경력 2년 이상으로서 高級中學을 졸업한 자 중 국가에서 실시하는 성인대학통일입학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재직자 교육을 하는 곳이고(전일제의 경우 3년, 근무시간 중 일부는 근무하고 나머지 일부는 학업에 종사하는 경우 4-5년),

教育學院은 중등학교 재직교사에 대하여 전문대학 또는 대학과정의 재교육을 실시하여 고등교육 수준의 학력을 취득하게 하며(전문대학 과정은 2년, 대학과정은 4년), 管理幹部學院은 高級中學을 졸업한 관리를 담당하는 간부에 대하여 재교육을 하는 2년과정 교육기관

6) 특수 교육

- 특수교육학교 2,000개교, 재학생 39.5만 명(2014년)

다. 대외교류와 협력

1) 유학생 규모

- '14년 중 중국 각 대학 외국 유학생 누계 203개국 377,054명(중국 교육부)
  - 주중 한국인유학생 62,923명(전체 유학생 중 16.7%(2014년))
  - 한국 62,923명, 미국 24,203명, 태국 21,296명, 러시아 17,202명

2) 유학생 정책

- 대학내에 유학생처를 설치하여 유학생 업무 등 국제교류 업무 담당
- '95.12월부터 〈외국유학생 중국어 능력증서 입학규정〉 시행
  - 유학생에게 학부 6급, 석사 7급, 박사 8급 이상의 중국어 능력시험(漢語水平考試, HSK) 자격 요구
  - 2010년부터 新 HSK 시행, 총 6등급으로 변경
- 2015년 중국정부 초청 국비장학생 규모 40,620명

4. 언론·출판

※ 중국의 언론은 공산당 중앙선전부가 총괄통제

가. 신문·잡지

- 신문·잡지의 행정적 관리는 중앙정부기관인 國家新聞出版廣電總局에서 하고 있으며, 2014년 말 현재 신문 총 1,912종, 잡지 9,966종 발간 중
- 2014년 신문 발행부수 463.9억 부, 잡지 발행부수 30.95억 권
- 주요 신문, 잡지

신문(잡지)명	창간시기	발행부수	비고(성격)
인민일보	'48. 6월	300만 부	중국공산당 기관지
환구시보	'93. 1월	150만 부	인민일보산하 국제 시사문제지
광명일보	'49. 6월	80만 부	지식계층 대상
해방군보	'56. 1월	55만 부	중앙군사위원회 기관지
공인일보	'49. 7월	70만 부	중국총공회(노동조합) 기관지
법제일보	'80. 8월	50만 부	중앙정법위원회 기관지
경제일보	'83. 1월	90만 부	경제전문지
중국청년보	'51. 4월	60만 부	중국공산당 청년단 기관지
China Daily	'81. 6월	90만 부	영 문
구시(求是)	'88. 7월	100만 부	중국공산당 이론지 – '홍기'를 폐간하고 대신 발간
반월담(半月談)	'80. 5월	300만 부	신화사 주관, 시사종합 잡지

나. 방송

- 중앙정부기관인 國家新聞出版廣電總局에서 전국의 라디오, TV 방송을 관리
- 라디오 방송
  - '40년 연안에서 인민방송 개시
  - 2016년 2월 현재 전국에 511개의 방송국
  - 대외방송은 국제방송국에서 베이징방송국을 호출부호로 하여, 38개의 외국어로 방송
  - 2014년 말 현재 라디오 보급률 98%

- TV
  - '58년 베이징에서 방송 개시
  - 2016.2월 현재 전국에 516개의 방송국
  - 현재 CCTV를 비롯한 일부 지방TV들은 위성을 통해 방송함에 따라 가시청지역 확대
  - 2014년 말 현재 TV 보급률 98.6%

다. 통신

- 新華社(Xinhua News Agency)
  - 국무원 직속기관으로 모든 내외신 뉴스를 총체적으로 관할
  - '31.11월 발족한 "중앙 소비에트 홍색 중화통신사"가 '37.4월 연안으로 이전, 신화사로 개칭
  - 홍콩, 마카오를 포함한 중국내 각 지역에 33개 국내지사 및 해외 7개 총국 180개 지사 설치
  - 국내 각 언론사에 매일 평균 250여 개의 기사를 송고. 해외 각 언론사에 매일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포르투갈어, 일어 등 8개 언어로 40여만 자의 기사를 24시간 송고함
  - 직원 : 약 13,000명
  - 해외특파원 : 약 500명

- 중국신문사(China News Service)
  - 대만, 홍콩, 마카오 화교에 대한 선전을 주목적으로 '52.10.1 창립

라. SNS(웨이보)

-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는 중국내 주요 SNS(Social Network Sevice) 중의 하나로서, 최근 2-3년간 스마트폰의 급속한 보급과 함께 자국 서비스회사의 웨이보 이용이 폭발적으로 증가
  ※ 중국 당국은 외부의 민감한 정보 유입 방지를 위해 "트위터" 사용은 차단

- 웨이보 제공 주요 업체 : SINA(新浪), QQ(騰迅), 왕이(網易), 소후(搜狐) 등

- 중국 내 웨이보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2009년 하반기 이후 불과 2년만에 가입자가 약 3억 명(추산)으로 증가
  ※ 2013년 SINA 웨이보 총 가입자 수 5.06억 명

5. 종교

가. 정책노선

- 법적으로 종교신앙의 자유 존중·보호, 그러나 법에 따른 종교활동 관리 강화
  - 헌법 제34조 및 제36조, 민법통칙 제36조, 제37조, 제71조 및 제77조
  - 종교와 정치, 종교와 교육 분리원칙
  - 종교계 인사 단결 및 교육 강화
- 黨과 정부의 종교활동에 대한 지도 강화
  -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16.3월 제12기 전인대 4차회의에서 "우리는 당의 종교업무 기본방침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종교관계의 화합을 촉진시키며, 종교계 인사와 종교인들이 경제와 사회 발전에 있어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

나. 조직

- 국가종교사무국 : 국무원 직속기관으로 종교사무 분야 관할 부처
  - 주요 업무 : 종교 이론 및 국내외 종교 현황 연구, 종교 정보 수집·분석 및 정책 건의 제시, 종교사무 업무에 관한 법규 초안 작성 등
  - 구성 : 국가종교사무국장(次官級) 1인과 부국장 3인 및 6개국(室, 司)
- 산하에 중화종교문화교류협회, 중국종교연구센터, 국가종교사무국훈련센터, 중국종교잡지사, 종교문화출판사 등 보유

다. 주요활동

- 〈중국 국경 내에서의 외국인 종교 활동 관리규정〉('94.1.31 발표)으로 사실상 외국인의 중국 내 선교활동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같은 날짜에 발표된 〈종교활동장소 관리조례〉 발표·시행으로 내국인의 종교활동 제한
- 〈종교활동장소 연도조사규칙〉('96.7.29 발표) 제정으로 종교활동장소를 법적으로 엄격히 관리
- '〈중국내 외국인의 종교활동에 관한 시행세칙〉 수정 결정'('10.11.29 발표)이 '11.1.1부터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의 중국내 종교활동이 중국의 법령을 존중하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과 외국인이 중국의 종교사무에 대해 간섭할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

- 〈종교사무조례(국무원령 제426호)〉를 새롭게 제정, '05.3.1부터 시행함으로써 중국 내 종교활동 엄격히 관리

- '15년 국가종교사무국, 〈국무원 2015년 입법업무계획〉에 따라, 관련 부처와 공동으로 〈종교사무조례〉 개정 작업 전개 중

- 대외 우호증진 및 경협촉진 지원 등을 위한 대외 종교 교류 추진
  - '90년 20개국에 20개 종교사절단 파견, 15개국의 20개 종교사절단(100여 명) 초청
  - '91.2.18 중국 기독교협회(CCC), 세계교회협의회(WCC)에 317번째 회원으로 가입
  - '95. 5월 제1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베이징) 개최 및 '96.9월 제2차(서울), '00.10월 제3차(서울) 등 순회 개최
  - '09. 3월 세계불교포럼(장쑤성) 한국 14개 불교종단대표 등 40여 명 참석
  - '09. 7월 한국 기독교 각 교파조직연합대표단 중국 방문
  - '09. 7월 한중기독교 포럼(7월, 베이징) 오정현 목사, 김덕룡 특보 등 40여 명 참석
  - '10. 4월 제9회 중국원림 전통차문화제(베이징) 개최
  - '10.10월 제13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장쑤성) 개최
  - '11.11월 한·중 기독교 예술가 연합 전시회(베이징) 개최
  - '11.11월 제14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강원도) 개최
  - '11.12월 한중국제교류재단 회장, 오정현 목사 등 국가종교사무국 방문
  - '12. 6월 제1차 한·중·일 불교학술회(서울) 개최 및 '13.6월 제2차(베이징) 개최
  - '12.10월 제15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요코하마) 개최
  - '12.11월 한·중 기독교 서예 작품 순회전(스자좡(石家莊)) 개최
  - '13. 1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前회장 박종순 목사 및 한국기독교교회 담임목사 대표단 중국 방문
  - '13. 6월 한중불교문화교류협회 이사장 박영담 법사 및 한국불교대표단 중국 방문
  - '13.10월 한국 '한중기독교교류회' 박봉수 회장 일행 중국 방문
  - '13.11월 제16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하이난) 개최
  - '14. 1월 한·중·일 기독교 청년회 평화포럼 개최
  - '14. 6월 중국 국가종교국 대표단 한·중 기독교 교류회 및 한국기독교대중교류협회 출범식 참석
  - '14.11월 제17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서울) 개최
  - '15. 9월 제18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히로시마) 개최

6. 체육

가. 정책

- 국민건강 증진 및 정치외교 수단으로 체육활동 적극 장려
  - '95.6.20 群衆 체육활동 강화 및 국민건강 체질 강화를 위해 "全民建身計劃綱領"을 채택, 전국에 시달 시행

나. 조직

- 국가체육총국 : 局長(1人), 副局長(3人)
  - 국가체육총국조직 : 廳(1), 司(9), 局(2), 黨委(1)
  - 국가체육총국 소속기관 : 경기 종목별 센터(21), 국(1), 대학(1), 체육학교(3), 올림픽 스포츠 센터(1), 연구소(2), 신문사(1), 훈련소(1), 부설센터(11)
- 지방정부조직 : 직할시, 성, 자치구 정부 내에 체육국을 둠(전국에 총 37개)
- 중국 올림픽 위원회(COC)는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조직이며, 올림픽 관련 사무 관장
  - 국가체육총국 공무원이 COC의 상당직위를 겸직
- 중화전국체육총회
  - 주요기능 : 체육방면의 중요정책, 전략에 의견제기, 체육발전의 홍보, 체육사업 개혁 촉진, 전국체육기구와의 교류 강화 등
  - 조직 : 올림픽 종목 31개 협회, 비올림픽 종목 36개 협회
- 주요 국제대회 개최
  - 제29회 베이징올림픽대회('08.8.8-24)
  - 제16회 광저우아시안게임('10.11.12-27)
  - 제26회 선전하계유니버시아드게임('11.8.12-23)
  - 제6회 동아시아경기대회('13.10.6-15)
  - 제2회 난징유스올림픽대회('14.8.16-28)

7. 문화

가. 정책

- 현대적인 공공문화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 도덕 체제 건설과 중화 문화 전승 사업을 실시하여, 국민의 풍부한 정신문화 향유를 목표
- 신속한 문화산업 발전 추진을 위해 '13차 5개년 규획('16-'20년)'에서 문화산업을 핵심 산업으로 육성시킬 것을 명시함. 이 시기에 문화산업의 지역집중화 발전 및 지역과 지역 간의 연동을 통해 더욱 큰 효과를 이끌어내고 오는 2020년까지 GDP 대비 문화산업의 비중을 5%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

나. 조직

- 문화부 : 部長(1人), 副部長(4人)
  - 문화부조직 : 廳(1), 司(9), 局(4), 黨委(1), 信息中心(1)
- 지방정부조직 : 직할시, 성, 자치구 정부내에 문화국을 둠(전국에 총 37개)
- 직속기관 : 국가박물관, 고궁박물관, 국가도서관 등 30개

다. 주요 교류 현황

- 제2회 한중문화산업포럼(베이징, '14.10.31)
- 제6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요코하마, '14.11.29-30)
- 제3회 한중문화산업포럼(서울, '15.6.30)
- 제7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칭다오, '15.12.20)



Ⅶ
한·중 관계

1. 정무 관계
2. 군사 관계
3. 경제 관계
4. 영사 관계



1. 정무 관계

가. 현황

■ **'92.8월 수교 이래 양국관계가 제반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였으며, 현재 이러한 양호한 관계 발전 추세 유지**

- 양국 간 상호보완적 경제구조를 적극 활용, 경제통상관계의 지속적 확대·발전 이룩
- 양국 간 인적교류가 증대되고 양국 국민 간 상호이해 심화, 정치·군사·안보분야에서의 상호 협력관계도 점차 증진

※ 23년 간('92-'15년) 교역규모 약 36배 증가(63억 불 → 2,273.8억 불), 상호 인적교류 약 80배 증가(13만 명 → 약 1,042만 명) 등

※ 대중국 투자 698.6억 불('68-'15년 누계)/ 진출기업 2.4만여 개/재중한국인수 약 80만 명(추정)/양국 간 항공편수 여객 주 1,100회('15년 기준)

■ **'08.5월 이명박 대통령 방중 시 한·중 양국은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설정하고, '08.8월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방한 시 구체적 추진 방안에 합의함으로써 한 단계 높은 관계 발전 추구**

- 양국 정부, 의회, 국방 분야 고위인사 간 빈번한 교류와 접촉을 통해 정치적 신뢰 강화 및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내실화 노력

※ 협력의 범위가 양자문제에서 지역적·글로벌차원으로 확대되고, 경제, 사회, 문화, 정치·안보 등 전 분야에 걸쳐 협력이 강화된다는 의미

※ 한·중 관계 발전 경과

- 1992년 수교 시 우호협력관계 설정
- 1998년 '21세기를 향한 협력동반자 관계' 설정(김대중 대통령 방중 계기)
- 2003년 '전면적(全面的) 협력동반자 관계' 설정(노무현 대통령 방중 계기)
- 2008년 '전략적(戰略的) 협력동반자 관계' 설정(이명박 대통령 방중 계기)

■ **양국은 '13년도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기존 한·중 관계를 한차원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 중**

- '13.6월 박근혜 대통령 방중 계기 양국은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 채택을 통해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내실화' 목표에 합의
- '14.7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방한 계기 '한·중 공동성명'을 채택, 양국 관계를 보다 내실화하기 위한 구체 방안에 합의

- '15.9월 박근혜 대통령 9.3 중국 전승 70주년 기념행사 참석 계기 한·중 정상회담 등을 통해 다양한 성과를 거양함으로써,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한 차원 높은 발전 계기 마련
- '15.10월 말 리커창(李克强) 총리 공식 방한 계기 실질협력 분야 구체성과 도출

■ **탈북자 및 어업질서 문제 등이 양국관계 발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양국 간 대화·협의 체제를 통해 사전예방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문제 발생 시 원만하고 신속한 해결 노력 지속**

■ **양국은 한·중 관계를 양국민들 간의 이익뿐만 아니라 동북아 평화·안정에도 기여하는 명실상부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고위급 교류, 전략대화, 한중 1.5 트랙대화 등 다양한 전략적 소통 채널 구축**

나. 최근 대중 외교업무 추진실적

1) 양국 정상 등 정부 고위인사 간 상호교류의 활발한 추진

가) 최근 고위급 교류

- '13.6월 박근혜 대통령 국빈 방중, '14.4월 정홍원 국무총리 방중(보아오포럼 계기), '14.7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국빈 방한, '14.11월 박근혜 대통령 방중(APEC 정상회의 계기), '15.1월 왕양(汪洋) 부총리 방한, '15.9월 박근혜 대통령 방중(중국 전승 70주년 기념행사 계기), '15.10월 리커창(李克强) 총리 방한(한·일·중 정상회의 계기),'16.6월 황교안 국무총리 방중(하계 다보스포럼 계기) 外 UN총회 및 APEC 등 각종 국제회의 계기 정상회담, 외교 장·차관 회담 수시 개최 등

■ **정상 간 교류**

- '92. 9월 노태우 대통령 국빈 방중
- '93.11월 APEC 회의시(미국, 시애틀) 김영삼 대통령 – 장쩌민(江澤民) 주석 회담
- '94. 3월 김영삼 대통령 국빈 방중
- '94.11월 APEC 회의시(인니, 보고르) 김영삼 대통령 – 장쩌민(江澤民) 주석 회담
- '95.11월 장쩌민(江澤民) 주석 국빈 방한
- '96.11월 APEC 회의시(필리핀, 마닐라) 김영삼 대통령 – 장쩌민(江澤民) 주석 회담
- '97.11월 APEC 회의시(캐나다, 벤쿠버) 김영삼 대통령 – 장쩌민(江澤民) 주석 회담
- '98.11월 김대중 대통령 국빈 방중

- '99. 9월 APEC 회의시(뉴질랜드, 오클랜드) 김대중 대통령 – 장쩌민(江澤民) 주석 회담
- '00. 9월 UN 새천년 정상회의시(뉴욕) 김대중 대통령 – 장쩌민(江澤民) 주석 회담
- '00.11월 APEC 회의시(브루나이) 김대중 대통령 – 장쩌민(江澤民) 주석 회담
- '01.10월 APEC 회의시(상하이) 김대중 대통령 – 장쩌민(江澤民) 주석 회담
- '02.10월 APEC 회의시(멕시코) 김대중 대통령 – 장쩌민(江澤民) 주석 회담
- '03. 7월 노무현 대통령 국빈 방중
- '03.10월 APEC 회의시(방콕) 노무현 대통령 – 후진타오(胡錦濤) 주석 회담
- '04.11월 APEC 회의시(칠레) 노무현 대통령 – 후진타오(胡錦濤) 주석 회담
- '05. 5월 전승 60주년 기념식 참석시(모스크바) 노무현 대통령 – 후진타오(胡錦濤) 주석 회담
- '05.11월 APEC 회의시(서울) 노무현 대통령 – 후진타오(胡錦濤) 주석 회담
- '06.10월 노무현 대통령 실무 방중
- '06.11월 APEC 회의시(하노이) 노무현 대통령 – 후진타오(胡錦濤) 주석 회담
- '07. 9월 APEC 회의시(시드니) 노무현 대통령 – 후진타오(胡錦濤) 주석 회담
- '08. 5월 이명박 대통령 국빈 방중
- '08. 8월 베이징올림픽 개막식 참석시(베이징) 이명박 대통령 – 후진타오(胡錦濤) 주석 회담
- '08. 8월 후진타오(胡錦濤) 주석 국빈 방한
- '09. 4월 G20 금융정상회의시(런던) 이명박 대통령 – 후진타오(胡錦濤) 주석 회담
- '09. 9월 UN 총회시(뉴욕) 이명박 대통령 – 후진타오(胡錦濤) 주석 회담
- '10. 4월 상하이엑스포 개막식 참석시(상하이) 이명박 대통령 – 후진타오(胡錦濤) 주석 회담
- '10. 6월 G20 금융정상회의시(토론토) 이명박 대통령 – 후진타오(胡錦濤) 주석 회담
- '12. 1월 이명박 대통령 국빈 방중
- '12. 3월 핵안보정상회의 계기 후진타오(胡錦濤) 주석 방한
- '12. 5월 한중일 3국정상회의 계기 이명박 대통령 방중
- '13. 6월 박근혜 대통령 국빈 방중
- '13.10월 APEC 정상회의 참석시(발리) 박근혜 대통령 – 시진핑(習近平) 주석 회담
- '14. 3월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시(헤이그) 박근혜 대통령 – 시진핑(習近平) 주석 회담
- '14. 7월 시진핑(習近平) 주석 국빈 방한
- '14.11월 APEC 정상회의 참석시(베이징) 박근혜 대통령 – 시진핑(習近平) 주석 회담

- '15. 9월 전승70주년 기념행사 참석시(베이징) 박근혜 대통령 – 시진핑(習近平) 주석 회담
- '16. 3월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시(워싱턴) 박근혜 대통령 – 시진핑(習近平) 주석 회담

■ **고위급 회담 및 교류**

- '94.10월 리펑(李鵬) 총리 공식 방한
- '95. 3월 UN 사회개발 정상회의 참석시(코펜하겐) 김영삼 대통령 – 리펑(李鵬) 총리 면담
- '95. 5월 이홍구 국무총리 공식 방중
- '96. 3월 ASEM 정상회의시(방콕) 김영삼 대통령 – 리펑(李鵬) 총리 회담
- '96.11월 세계식량정상회의 참석시(로마) 이수성 국무총리 – 리펑(李鵬) 총리 회담
- '98. 4월 ASEM 정상회의시(런던) 김대중 대통령 – 주룽지(朱鎔基) 총리 회담
- '00.10월 주룽지(朱鎔基) 총리 공식 방한 및 ASEM 정상회의(서울) 참석
- '01. 6월 이한동 국무총리 공식 방중
- '01.11월 ASEAN+3 정상회의시(브루나이) 김대중 대통령 – 주룽지(朱鎔基) 총리 회담
- '02. 9월 ASEM 정상회의시(코펜하겐) 김대중 대통령– 주룽지(朱鎔基) 총리 회담
- '03.10월 ASEAN+3 회의시(발리) 노무현 대통령–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회담
- '04.10월 ASEM 정상회의시(하노이) 노무현 대통령 –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회담
- '04.11월 ASEAN+3 정상회의시(라오스) 노무현 대통령 –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회담
- '05. 6월 이해찬 국무총리 공식 방중
- '05.12월 ASEAN+3 회의시(쿠알라룸푸르) 노무현 대통령 –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회담
- '06. 9월 ASEM 정상회의시(헬싱키) 노무현 대통령 –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회담
- '07. 1월 ASEAN+3 회의시(세부) 노무현 대통령 –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회담
- '07. 4월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공식 방한
- '07.11월 ASEAN+3 회의시(싱가포르) 노무현 대통령 –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회담
- '07.12월 한덕수 국무총리 공식 방중
- '08. 5월 이명박 대통령 국빈 방중시 이명박 대통령 –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면담
- '08. 9월 베이징 장애인올림픽 참석시 한승수 국무총리 방중
- '08.12월 한·중·일 정상회의시(후쿠오카) 이명박 대통령 –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회담
- '09. 4월 ASEAN+3 회의시(태국) 이명박 대통령 –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회담
- '09.10월 한·중·일 정상회의시(베이징) 이명박 대통령 –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회담

- '10. 5월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공식 방한
- '10.10월 ASEM 정상회의시(브뤼셀) 이명박 대통령 –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회담
- '11. 4월 김황식 총리 공식 방중
- '11. 5월 한·중·일 정상회의 시(도쿄) 이명박 대통령 –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회담
- '11.11월 ASEAN+3 회의 시(발리) 이명박 대통령 –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회담
- '12. 1월 이명박 대통령 국빈 방중시 이명박 대통령 –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면담
- '12. 5월 한·중·일 정상회의 시(베이징) 이명박 대통령 –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회담
- '12.11월 ASEAN+3 회의시(프놈펜) 이명박 대통령 –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회담
- '13. 6월 박근혜 대통령 국빈 방중 시 박근혜 대통령 – 리커창(李克强) 총리 면담
- '14. 4월 보아오포럼 시(보아오) 정홍원 총리 – 리커창(李克强) 총리 회담
- '14.10월 ASEM 정상회의 시(밀라노) 박근혜 대통령 – 리커창(李克强) 총리 회담
- '15. 9월 전승70주년 기념행사 참석 방중 시(베이징) 박근혜 대통령 – 리커창(李克强) 총리 면담
- '15.10월 한·일·중 정상회의 시(서울) 박근혜 대통령 – 리커창(李克强) 총리 회담
- '16. 6월 하계 다보스포럼(톈진) 참석 방중 시(베이징) 황교안 총리 – 리커창(李克强) 총리 회담

2) 의회 및 정당 간 교류 활성화

가) 의회 간 교류

- '92.12월 한·중 의원친선협회 결성 및 '93.6월 중·한 의원친선협회 결성, 양국 의회 간 교류·협력 계속 확대되어 양국관계 발전에 기여 중
- '06. 1월 김원기 국회의장 방중 계기시 우리 국회와 중국 전인대 간 "교류·협력의정서" 체결, 매년 상호 방문을 추진 등 양국의회 간 협력사업에 합의, 이후 '15년 까지 상호 방문 통한 제10차 한중의회정기교류체제 합동회의 개최

■ 양국 의회 교류

〈우리 측 방중〉

- '94. 1월 이만섭 국회의장
- '94. 3월 국회 외무통일위 대표단(단장 : 정재문 위원장)
- '95. 4월 한·중 의원외교협의회 대표단(단장 : 문정수 회장)
- '95.12월 황낙주 국회의장

- ’97. 1월 김수한 국회의장
- ’97. 3월 이세기 문공위원장
- ’98.12월 신상우 국회부의장
- ’99. 3월 초당파 국회의원 대표단
- ’99. 8월 국회 재경위원위 대표단(단장 : 김동욱 위원장)
- ’00. 5월 김봉호 국회부의장
- ’00. 9월 한·중의원 외교협의회 대표단(단장 : 임채정 회장)
- ’01. 2월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대표단(단장 : 박명환 위원장)
- ’01. 5월 국회 21세기 동북아연구회 소속의원 10명
- ’01. 7월 김병오 국회사무총장
- ’01. 7월 최문휴 국회도서관장
- ’02. 1월 이만섭 국회의장
- ’02. 3월 법사위원회 대표단(단장 : 박헌기 위원장)
- ’02. 4월 제3차 AAPP 총회 대표단(단장 : 이만섭 국회의장)
- ’02. 5월 국회 문광위 대표단(단장 : 고흥길 의원)
- ’02. 8월 국회대표단(단장 : 이강두 의원)
- ’02.10월 국회 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 소속 의원(이해찬, 이주영, 조배숙 의원)
- ’03. 1월 AAPP 집행이사회 국회대표단(단장 : 고흥길 의원)
- ’03. 7월 한·중 의원외교협의회 대표단(단장 : 임채정 의원)
- ’03. 9월 박관용 국회의장 방중
- ’03.11월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대표단(단장 : 서정화 위원장)
- ’05. 3월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대표단(단장 : 원혜영 의원)
- ’05. 5월 한중 친선국회의원단(단장 : 박희태 국회부의장)
- ’05. 7월 남궁석 국회사무총장 중국의회 공식 방문
- ’05. 7월 황우여 국회 교육위원장
- ’05. 9월 문희상 열린우리당 의장
- ’05.11월 한·중 의원외교협회 의원(단장 : 김덕룡 의원)
- ’05.11월 열린우리당 여성의원 대표단(단장 : 조배숙 의원)
- ’06. 1월 김원기 국회의장
- ’06. 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단(단장 : 이경재 위원장)
- ’06. 6월 김원웅 통외통위 위원장
- ’06. 7월 이용희 국회부의장 등 초당파의원
- ’07. 3월 한중 친선국회의원단 방중

- '07. 4월 이용희 국회부의장(제2차 한중의회정기교류체제)
- '07. 7월 임채정 국회의장
- '08. 1월 박근혜 의원(대통령 특사)
- '08. 8월 국회 아시아문화경제포럼 대표단(단장 : 박진 의원)
- '08. 8월 문희상 국회부의장
- '08. 8월 국회 초당파의원 대표단
- '08.11월 국회의원 대표단(구상찬 의원 등)
- '09. 7월 이윤성 국회부의장(제4차 한중의회정기교류체제)
- '09.11월 김형오 국회의장
- '09.11월 장광근 한나라당 사무총장 등 대표단
- '09.12월 조진형 행정안전위원장
- '10. 1월 김무성 의원 등 한중경제포럼 대표단
- '10. 1월 국회교육위원회 대표단
- '10. 3월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
- '10. 3월 민주당 재외동포 사업단
- '10. 5월 변웅전 보건복지가족위원장 방중
- '10. 5월 이강래 의원 등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단
- '10. 8월 정의화 국회부의장 등 초당파 국회의원 우호 방문
- '11. 7월 홍재형 국회부의장 등 초당파 국회의원 대표단
- '11. 7월 정의화 국회부의장(제6차 한중의회정기교류체제)
- '12. 9월 김정훈 국회정무위원장
- '12.12월 국회 통일미래포럼 대표단
- '13. 1월 안홍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 '13. 4월 새누리당 의원 대표단
- '13. 5월 국회 초당파 의원 대표단
- '13. 7월 한·중 의원외교협의회 청년의원대표단
- '13. 8월 이병석 국회부의장(제8차 한중의회정기교류체제)
- '13. 8월 안홍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이만우 의원
- '13. 8월 제1차 바둑교류 의원 대표단(정협)
- '13.12월 강창희 국회의장
- '14. 1월 청년의원 대표단
- '14. 2월 통합 국회대표단(정몽준 의원 단장)
- '14. 3월 남경필 의원 등 IEF 의원단

- ’14. 3월 안중근 의사 순국 추모 방문단(서청원 의원 단장)
- ’14. 6월 차세대 정치지도자 대표단(유승민 의원 단장)
- ’14. 6월 국경복 국회 예산정책처장
- ’14. 7월 초당파 국회의원 대표단(이석현 국회부의장 단장)
- ’14. 7월 국제보건의원 포럼 대표단(김춘진 의원 단장)
- ’14.11월 벤처농업인 대표단 방중(이정현, 김종훈 의원)
- ’14.11월 차이나 뷰티포럼 참석(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 이명수 의원)
- ’14.12월 한·중 국회의원 서예교류(주승용 의원 및 헌정회 회원)
- ’14.12월 통일미래포럼(조명철, 설훈 의원)
- ’14.12월 국제장애인스포츠 교류(나경원, 신의진 의원)
- ’14.12월 정의화 국회의장
- ’15. 1월 정갑윤 국회 부의장(저장성, 허난성)
- ’15. 1월 청년정치지도자 포럼(김용태 의원 등 7인 의원)
- ’15. 4월 Her village 포럼(나경원, 신의진 의원)
- ’15. 5월 나경원 국회 외통위원장 공식 방중(전인대 외사위원회 초청)
- ’15. 7월 정갑윤 국회 부의장(제10차 한중의회정기교류체제)
- ’15. 8월 청년의원단 방중(김세연 의원 등, 청두, 티베트)
- ’15. 8월 제3회 한중 의회 바둑교류(원유철 의원 등 8인)
- ’15.11월 국회 법제실 대표단(김한근 법제실장)
- ’15.11월 진영 안전행정위원장 공식 방중(전인대 내무사법위원회 초청)
- ’15.11월 초당파 국회의원 우호 방중단(서청원 의원 등 13인)
- ’15.12월 이인철 국회 도서관장

〈중국 측 방한〉

- ’93. 6월 톈지윈(田紀雲) 全人大 상무위 부위원장
- ’93. 9월 왕광잉(王光英) 全人大 상무위 부위원장
- ’93.11월 자오둥완(趙東宛) 全人大 교육과학문화위생위원장
- ’94. 7월 주량(朱良) 중·한 의원친선협회 회장(전인대 외사위원장)
- ’95. 2월 천무화(陳慕華) 全人大 상무위 부위원장
- ’95. 4월 차오스(喬石) 全人大 상무위원장
- ’95.12월 왕빙간(王丙乾) 全人大 상무위 부위원장
- ’96. 7월 쑤추청(蘇秋成) 全人大 상무위 판공청 副비서장
- ’96. 8월 자오둥완(趙東宛) 全人大 교육과학문화위생위원장

- '96.11월 주량(朱良) 全人大 외사위원장
- '97. 4월 왕광잉(王光英) 全人大 상무위 부위원장
- '99. 5월 루루이환(李瑞環) 정협 주석
- '99. 6월 쉬둔신(徐敦信) 全人大 외사위 부주임
- '99. 6월 궈전간(郭振乾) 全人大 재경위 부주임
- '99. 7월 류홍루(劉鴻儒) 정협 경제위 부주임
- '99.10월 왕자오궈(王兆國) 정협 부주석
- '00. 4월 자오난치(趙南起) 정협 부주석
- '00. 5월 펑페이윈(彭珮雲) 全人大 상무위 부위원장
- '00. 7월 저우광자오(周光召) 全人大 상무위 부위원장
- '00. 8월 톈정페이(田曾佩) 정협 외사위 주임
- '00. 9월 리다오위(李道豫) 全人大 화교위 부주임
- '00. 9월 쑨푸링(孫孚凌) 정협 부주석
- '01. 5월 리펑(李鵬) 全人大 상무위원장
- '01. 9월 마완치(馬萬祺) 정협 부주석
- '01.12월 정젠웨이(曾建徽) 全人大 외사위원장
- '02.11월 후광바오(胡光寶) 全人大 법률위 부주임
- '02.11월 런정룽(任正隆) 全人大 농업위 위원
- '03. 9월 우방궈(吳邦國) 全人大 상무위원장
- '04. 8월 자칭린(賈慶林) 정협 주석
- '05. 9월 청쓰웨이(成思危) 全人大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 '06. 9월 왕중위(王忠禹) 정협 부주석
- '06. 9월 류젠펑(劉劍鋒) 정협 외사위원장
- '06. 9월 왕중위(王忠禹) 정협 부주석 방한
- '06. 9월 우윈치무거(烏云其木格) 全人大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제1차 한중의회 정기교류체제)
- '07.10월 주밍산(祝銘山) 全人大 내무법사위원회 부주임
- '07. 6월 구슈롄(顧秀蓮) 全人大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 '08. 9월 쉬자루(許嘉璐) 全人大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 '08.12월 천즈리(陳至立) 全人大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제3차 한중의회정기교류체제)
- '09. 5월 자오치정(趙啓正) 정협 외사위 주임
- '10. 6월 리자오싱(李肇星) 全人大 외사위 주임
- '10. 8월 천즈리(陳至立) 全人大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제5차 한중의회정기교류 체제)

- ’11. 5월 장수성(藏樹聲) 전인대 상무위 부위원장
- ’11. 7월 차오웨이저우(曹衛洲) 전인대 중한우호소조 회장 겸 전인대 상무위 부비서장
- ’11.10월 천즈리(陳至立) 全人大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 ’11.11월 리자오싱(李肇星) 全人大 외사위 주임
- ’12. 4월 전인대 외사위 대표단
- ’12. 6월 전인대 민족위원회 대표단
- ’12. 6월 전인대 법제공작위 대표단
- ’12. 9월 천즈리(陳至立) 全人大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제7차 한중의회정기교류체제)
- ’13. 6월 리하이펑(李海峰) 정협 부주석
- ’14. 5월 옌쥐안치(嚴雋琪) 全人大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제9차 한중의회정기교류체제)
- ’14. 5월 세계전자의회컨퍼런스 참석 全人大 대표단
- ’14. 8월 제2차 한중의회 바둑교류 정협 대표단
- ’14.11월 전인대 법제공작위 대표단
- ’15. 5월 친광룽(秦光荣) 부주임 全人大 내무사법위원회 대표단
- ’15. 6월 장더장(張德江) 全人大 상무위원장
- ’15. 9월 전인대 예산공작위 대표단

나) 정당 간 교류

• 중국공산당 방한과 우리 정당 대표단 방중을 통한 주요인사 수시 교류

〈우리 측 방중〉

- ’93.11월 및 ’94.5월 민자당 대표단
- ’98. 2월 김종필 자민련 명예총재
- ’98.10월 박태준 자민련 명예총재
- ’98.11월 자민련 대표단(김용환 부총재)
- ’98.12월 새정치국민회의 의원 대표단
- ’99. 6월 새정치국민회의 대표단
- ’99. 8월 한나라당 의원 대표단
- ’00. 6월 새천년민주당 의원 대표단(조세형 상임고문 등)
- ’00.12월 한화갑 새천년민주당 최고위원

- '01. 2월 이인제 새천년민주당 최고위원
- '01. 5월 김중권 새천년민주당 대표 최고위원
- '01. 5월 이해찬 새천년민주당 정책위원장
- '02. 7월 한광옥 새천년민주당 최고위원
- '02. 9월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 '03. 3월 새천년 민주당 대표단(단장 : 정동영 의원)
- '03. 6월 정대철 새천년민주당 대표 최고위원
- '04. 9월 제3차 아시아 정당대회 대표단
- '05. 5월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 '05. 9월 문희상 열린우리당 의장
- '05.11월 열린우리당 여성의원 대표단
- '06. 7월 열린우리당 의원(대표 : 김재홍 의원)
- '06.12월 열린우리당 의원 대표단(대표 : 정동영 전의장)
- '09.11월 한나라당 대표단(단장 : 장광근 사무총장)
- '10. 3월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
- '11. 7월 손학규 민주당 대표
- '13. 3월 새누리당 대표단(대표 : 남경필 의원)
- '14.10월 정당간 정책대화 대표단(대표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
- '15.10월 아시아 정당회의 참석(주승용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중국 측 방한〉

- '94. 3월 중국 공산당 대표단
- '95. 3월 리수정(李淑錚) 공산당 대외연락부장
- '98. 3월 리청런(李成仁) 공산당 대외연락 부부장
- '98. 4월 후진타오(胡錦濤) 국가부주석 겸 당중앙 상무위원
- '00. 4월 쩡칭훙(曾慶紅) 공산당 중앙정치국 후보위원(당조직부장)
- '00. 6월 황쥐(黃菊) 공산당 중앙정치국 후보위원 겸 상하이시 당서기
- '01. 4월 다이빙궈(戴秉國) 공산당 대외연락부장
- '02. 3월 왕자루이(王家瑞) 공산당 대외연락부 부부장
- '02. 9월 리톄잉(李鐵映) 당정치국 위원
- '03. 4월 중국 공산당 대표단(단장 : 위정성(俞正聲) 후베이성 당서기)
- '03.11월 탄자린(譚家林) 공산당 대외연락부 부비서장
- '04. 4월 중국 공산당 대표단(단장 : 궈진룽(郭金龍) 티베트 당서기)

- ’04. 6월 류훙차이(劉洪才) 공산당 대외연락부 부부장
- ’04.11월 저우창(周强) 공산주의 청년단 제1서기
- ’05. 4월 천펑샹(陳鳳翔)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 부장조리
- ’05. 5월 차이우(蔡武) 공산당 대외연락부 부부장
- ’05. 6월 류훙차이(劉洪才)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 부부장
- ’06. 2월 중국 공산당 대표단(단장 : 왕수샤(王淑霞) 중련부2국 부국장)
- ’06. 5월 탄자린(譚家林) 공산당 대외연락부 부장조리
- ’06. 9월 류윈산(劉雲山) 공산당 중앙선전부 부장
- ’07.11월 중국 공산당 대표단(단장 : 푸쓰허(傅思和) 중앙조직부 위원)
- ’07.11월 왕자루이(王家瑞) 공산당 대외연락부 부장
- ’09. 8월 허융(何勇) 공산당 중앙서기처 서기
- ’12.11월 중국 공산당 우호대표단
- ’14. 9월 천펑샹(陳鳳翔) 공산당 대외연락부 부부장
- ’15. 1월 중국 공산당 우호대표단
- ’15.12월 중국 공산당 우호대표단
- ’16. 5월 류치바오(劉奇葆) 공산당 중앙선전부 부장

3) 북한 핵문제 해결/한반도 및 동북아 안정을 위한 한·중 간 협력 강화

- 북한의 비핵화 실현을 위해 한·중 간 긴밀한 협의 체제 구축
-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안정 및 궁극적 평화통일 실현에 대한 중국 측 협조 확보 노력 지속 추진

4) 한·중 관계 저해요소 발생 방지 노력

- 탈북자 문제 등 민감사안의 원만한 해결 노력
- 재중동포 관련 제반 사안에 신중 대응

5)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강화

- 유엔 및 주요 국제기구, 다자회의 등 각종 국제외교무대에서 중국과의 협력 강화
- 유엔 개혁 문제 관련 중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우리 국익에 부합되는 유엔 안보리 개편 추진

다. 對중 외교업무 추진방향

■ **양국 당·정부·의회 등의 고위급간 교류 확대를 통한 전략적 소통 강화**

- 양국 정상 및 지도자 상호 방문, 다양한 전략대화채널 적극 가동 등

■ **북핵·북한 문제와 관련한 중국과의 소통·협력 강화**

- 북한의 비핵화 실현 추진을 위해 중국의 적극적 역할 확보 및 한·중 간 긴밀한 협조 지속 추진
- 북한의 개혁개방,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 및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한·중 간 협력 유지·강화

■ **경제·인문 교류 등 실질협력 지속 강화**

- 한·중 FTA(2015.12.20 발효)의 경제적 효과 극대화를 위한 이행체계 구축, 위안화 직거래 시장 정착
- 인적 교류 지속 확대 및 인문유대 세부사업 실시

■ **중국 내 對한국 이해증진을 위한 인적기반 저변 확대**

- 지방정부 지도자, 학계·문화계·언론계 인사들에 대한 초청사업 추진, 청소년 교류 강화 등

■ **잠재적 갈등 사안의 적절한 관리**

- 어업질서 문제, 역사·문화 등 분야의 양국 간 인식차이가 한·중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

라. 한·중간 외교일지

1973-80

'73.3.15	중국 외교부, 한국의 서해 및 중국해상에서의 석유탐사활동 비난 성명 발표
'73.3.16	한국 외무부, 「중화인민공화국」과 대륙붕 문제 협의용의 성명 발표
'74.2.4	중국 외교부, 한·일간 대륙붕협정 체결('74.1.30) 비난성명 발표
'74.2.6	한국 외무부, 「중화인민공화국」과 대륙붕 문제 협의용의 재표명 성명 발표

'75.4.18–26	김일성 중국 친선방문 – 4.26 공동성명 발표
'75.4.28	한국 외무부, 중·북간 공동성명 발표에 즈음 성명 발표
'75.9.2	한국 외무부, 일·중국 어업협정('75.8.15) 관련, 어업문제에 관해 관계국과의 협의용의 성명 발표
'76.6.19	한국 외무부, 중국의 한국어선 취성호(6.11), 정신1호(6.13) 납치사건과 관련 중국과 어로 협의용의 성명 발표
'77.6.5	중국, 한국어선 제3은파호 나포(10.4 귀환)
'77.6.13	중국 외교부, 한·일 대륙붕협정 자동비준('77.5.28)에 대하여 자국의 주권침해이며 불법무효라고 주장하는 성명 발표
'78.6.26	중국 외교부, 한·일 대륙붕 비준서 교환에 대해 주권의 침해이며 협정은 무효라고 항의성명 발표
'79.1.28	덩샤오핑(鄧小平), 한국이 反蘇的 입장 견지시 중국과의 우호관계조성 가능성 시사
'79.5월	중국, 조선족 귀국(일시적 방한) 허용
'79.7.3	중국 외교부, 한국과의 체육교류 용의 시사
'80.3.29	덩샤오핑(鄧小平), 한반도는 평화적·자주적으로 통일되어야 하며 주변4강에 의한 남북한 교차승인은 비현실적이라고 발언
'80.4.15	중국, 체육간행물을 한국에 우송하면서 「대한민국 올림픽 위원회」(KOC)로 호칭
'80.5.7	중국, 한·일 대륙붕 시추 관련 비난성명 발표

1981-90

'81.3월	중국, UNDP 국제회의 참가 한국인의 입국 거부
'82.8월	베이징 개최 FAO 아·태지역 농업세미나에 한국인 참가(UN 여권사용)
'83.1월	한국, 베이징–도쿄 간 항공노선의 한국 비행정보구역 통과 동의
'83.3월	한·중 양국, TV 뉴스교환
'83.5.5	중국민항기, 춘천 미군기지에 착륙, 중국 대표단이 방한하여 한·중 정부당국 간 최초 접촉 (중국, 한국을 「대한민국」으로 호칭)
'84.2.25	쿤밍(昆明) 개최 데이비스컵 테니스 예선대회에 참가차 한국선수 최초 방중, 선수단 호칭으로 「KOREA」 사용
'84.3월	자오쯔양(趙紫陽) 총리, 양국 거주 친척 상호교류 허용
'84.4.7	아시아청소년 농구선수권대회 참가차 중국선수단 방한
'85.3.22	한국해군, 영해에서 중국어뢰정 나포(3.27일 전 승무원 송환)
'85.5월	후야오방(胡耀邦) 당총서기, 미·북한 회담장소로 베이징 제안
'85.9월	한국은행, 최초로 대중국 투자(한스물산) 허가
'86.9.20	서울개최 아시아경기대회에 중국참가, 선수단은 직항기 이용 서울도착
'87.5월	베이징개최 제5차 세계배드민턴선수권대회 안내책자에 한국을 「대한민국」으로 표기
'87.12.24	노태우 대통령, 대중국 국교수립 희망 발언
'88.2.26	중국 인민일보, 최초로 「노태우 대통령」이라는 정식명칭으로 보도
'88.4.2	중국 산둥성(山東省) 웨이하이(威海)시장, 산둥반도에 대한 한국 투자 환영 입장 표명
'88.9.17	중국, 서울올림픽 참가 및 대한항공기 중국영공 통과 허가

'88.10.15	중국, 광저우 교역회에 최초로 한국기업 참가 요청 초청장 발급
'88.10.21	한국 교통부, 중국 관광금지 해제
'89.1월	중국, 우리의 특허출원 인정
'89.3.23	KOTRA 대표단 방중, CCPIT(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측과 회담을 갖고 서울·베이징 상호 무역 사무소를 개설키로 원칙 합의
'89.5월	중국, 우리 상품등록 첫 허용
'89.5.4	이규성 한국 재무부장관, 베이징개최 ADB총회 참석차 한국 각료로서는 최초로 방중
'89.5.17	CCPIT 중국대표단 방한, KOTRA 측과 무역사무소 개설 문제 협의
'89.6.17	한·중 양국 간 해운 정기직항로 개통 ※ 인천·부산 ↔ 상하이·톈진·다롄 간
'89.7월	KOTRA, 베이징 국제박람회 참가
'89.8.19	중국, 대한항공 임시특별전세기 최초로 상하이 취항 허가(월2회 부정기)
'90.2.2	한국에서의 중국행 우편 직송 개시(종전 일본경유)
'90.3.14–16	장쩌민(江澤民) 중국공산당 총서기 방북
'90.6.11–15	뤼페이젠(呂培儉) 중국 심계서장 방한(제15차 ASOSAI 이사회 참석차)
'90.8.26	한국 국제민간경제협의회(IPECK) 김복동 고문, 이한빈 회장 등 경제사절단 방중
'90.9.15	한·중 간 정기 여객선 골드브릿지호, 인천–웨이하이(威海) 간 최초 취항
'90.9.19	중국, 최초로 한국기업(선경)의 베이징사무소 설치를 허가
'90.9.21–24	정동성 체육장관 중국 방문(아시안게임 참관차) – 9.23 한·중국 체육장관 회담
'90.9.22	한국, 베이징 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 직항전세기 운항
'90.9.27	뉴욕에서 한·중 외무장관 간 최초 접촉
'90.9.30–10.8	김정기 외무부 아주국장 중국 방문(주베이징 무역사무소 개설 실무 교섭차)
'90.10.20	이선기 KOTRA 사장 방중, 중국국제상회(CCOIC) 측과 한·중 무역대표부 상호 설치합의서 서명(베이징)
'90.11.12	중국, 서울–상하이 간 전세기 운항 허가 취소
'90.11.30	주베이징 무역대표부 창설팀 베이징도착
'90.12.18–22	중국 무역대표부 설치 대표단 방한 – 단장 : 중민(鍾敏) 중국국제상회(CCOIC) 연락부장

1991

1.10–12	한·중 무역대표부 교환 개설에 관한 제2차 실무회담(베이징)
1.28	중국, 한국기자 11명에게 최초로 취재목적 비자발급(신화사 홍콩분사 통해)
1.30	주베이징 무역대표부 개설(1.27일 노재원 초대 주베이징대표부 대표 부임) – 국제무역중심 빌딩 13층
1.31	한국 기자단(주홍콩 특파원단 11명), 최초로 중국 외교부의 목요일 정기브리핑에 참석
2.1	선경, 한국기업으로서는 최초로 베이징에 본사 명의의 사무소 정식 개설

2.8	중국, 한국학생 9명(현대중국연구소 소속)에 단기연수 첫 허용
3.4	리펑(李鵬) 중국총리, 재단법인 민족문화촉진회 신태환 이사장 등 4명의 한국인 학자 접견, 리펑은 우리나라를 「한국」이라 호칭
3.26	중·소 항공협정 서명(베이징) – 모스크바–베이징–서울 노선 개설
3.31–4.11	류화추(劉華秋) 중국 외교부 부부장 방한 – 서울 개최 제47차 ESCAP 총회(4.1–10일) 참석
4.2	류화추(劉華秋) 중국 외교부 부부장, 이상옥 외무장관과 회담 – 이상옥 한국 외무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UN 가입문제에 대한 한국 측의 지지요청에 대해 "중국의 간여 없이 남과 북이 스스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함
4.8–15	KOTRA 베이징 국제박람회 참가시, 중국은 「한국」 국호 및 태극기 사용 불허
4.9	중국국제상회, 주서울대표처 개설 – 초대대표 : 쉬다유(徐大有)
5.3–6	리펑(李鵬) 총리 방북
5.23–29	중국국제상회(CCOIC) 서울 무역전람회 시, 우리 측은 중국 국기게양 및 국호 사용 불허
6.10	중국국제상회 주서울대표처, 비자발급업무 개시
7월	중국과학기자재 서울전람회시 우리 측은 팜플렛 및 상품 견본에 한해 중국의 국호 및 국기사용 허용
7.2–6	박철언 체육청소년부장관 방중 – 우사오쭈(伍紹祖) 중국국가체육운동위원회 주임과 공식회담
8.8	중국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올해 내로 중국과 한국은 영사관계를 수립할 것"이라는 서울발 연합통신 보도를 부인(9일자 SCMP)
8.26–28	제1차 한·중 경제회담(베이징) – 수석대표 : 김석우 외무부 아주국장/셰젠췬(解建群) CCIP 수석부회장 – 무역 및 투자보장협정 체결 논의
9.4–18	신현확 전 국무총리 방중
9.27	국무원 외교부 대변인, 북한 김일성 주석이 장쩌민(江澤民) 당 총서기와 양상쿤(揚尙昆)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중국을 공식 방문한다고 발표.
10.2	최초 한·중 외무장관회담(뉴욕) – 이상옥 외무장관/첸치천(錢其琛)외교부장
10.4–13	김일성 주석 방중
10.9–17	이연택 총무처장관 방중(제14차 EROPA 총회 참석차)
11.12–14	첸치천(錢其琛) 중국 외교부장 및 리란칭(李嵐淸) 대외경제무역부장, 제3차 APEC 각료회의 참가차 내한 – 11.12 첸치천 외교부장, 노태우 대통령 예방 – 11.14 한·중 외무장관 회담(서울)
12.18–20	제2차 한·중 경제회담(서울) – 수석대표 : 김석우 외무부 아주국장/셰젠췬(解建群) CCIP 부회장 – 12.20 무역협정 가서명
12.31	한·중(CCIP) 간의 무역협정 서명(베이징, '92.2.1일 발효) – 노재원 주베이징무역대표부 대표/정홍예(鄭鴻業) CCIP 회장

1992

1월	중국측은 중국에서 개최되는 한국의 모든 전람회(단독 또는 국제 전람회)에서 한국의 정식 국호, 국기 및 국가문장의 사용 허가방침 통보
2.1	한·중 무역협정 발효(아울러 한국정부는 비즈니스 목적의 방중 기업인에게 복수비자 발급 결정) – 1992.10.30 정부차원 협정으로 발효(조약 1107호)
2.19–21	제3차 한·중 경제회담 개최(베이징) – 수석대표 : 윤해중 외무부 아주국 심의관/셰젠췬(解建群) CCIP 부회장
2.20	중국,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남·북한 합의 지지
2.21–27	이시영 외무부 본부대사 방중(동북아 순방의 일환)
2.27	제1차 두만강지역개발계획 관리위원회(PMC) 회의 개최(2.27–28)(남·북한, 중국, 몽골, 일본, 러시아 등 6개국, 서울)
3월	쩡페이옌(曾培炎) 중국 기계전자공업부 부부장, 삼성 초청으로 방한
3월	김진현 과기처 장관 방중
4월	양상쿤(楊尙昆) 국가주석 방북
4.12–17	이상옥 외무장관 방중 – 4.13 한·중 외무장관회담(베이징) – 제48차 ESCAP 총회 참석
4.26–5.2	우사오쭈(伍紹祖) 중국 체육문화부장관 방한 – 4.27 한·중 체육협정 서명
5.2	한·중 투자보장협정 서명(97.7.26 발효) – 1992.12.4 정부 차원 협정으로 발효(조약 1108호)
5월	KOTRA 주관 〈대한민국 상품전〉(베이징) 및 중국무역전람회(서울) 개최 – 공식국명 및 국기 최초 사용
5.19–27	한·중 어업회담(베이징) – 수석대표 : 윤해중 외무부 아주국 심의관
5.25–29	이진삼 체육청소년장관 중국 방문(중국 및 CIS 방문의 일환)
8.23–25	이상옥 외무장관 중국 방문 및 한·중수교(8.24일)
8.23	한·중 외무장관회담(베이징)
8.24	한·중 수교공동성명 서명(베이징)
8.24–29	중국 통상사절단 방한 – 단장 : 톈룬즈(田潤之) 대외경제무역부 차관보
8.27	주중 한국대사관 개설/주한 중국대사관 개설
8.28	주베이징 무역대표부, 대사관으로 승격(9.4 관계법 개정발효)
9.7	노재원 주중대표부 대표, 초대 주중 상주대사로 발령
9.13–20	황화(黃華) 전 중국 외무장관 방한(비공식)
9.15	노재원 주중대사(1대) 신임장 제정
9.15	장팅옌(張庭延) 초대 주한중국 대사 신임장 제정

9.16–18	제1차 한·중 항공회담(베이징) – 수석대표 : 윤해중 외무부 아주국 심의관/루시링(盧希齡) 민용항공총국 국제국장
9.27–30	노태우 대통령 공식 방중 – 9.28 한·중 정상회담(제1차) – 노태우 대통령/양상쿤(揚尙昆)국가주석
10.4–14	성수런(盛樹仁) 중국 국가경제위원회 부주임(차관) 방한 – 10.13 교류·협력 양해각서 서명
10.8	우리 측, 한·중 의원친선협회 결성 ※ 95.1.9 "한·중 의원외교협의회"로 개칭
10.25–11.4	중국 연변 조선족자치주 경제시찰단 방한
11.11–12	제1차 한·중 국제학술회의(서울) – 주최 : 외교안보연구원/중국 국제문제연구소
11.12–13	제1차 한·중 해운회담(베이징) – 수석대표 : 홍정표 외무부 통상국장/한웨이칭 교통부 운수관리국장
11.16–18	제2차 한·중 항공회담(서울) – 수석대표 : 김석우 외무부 아주국장/커더밍(柯德明)민용항공총국 부국장
11.23–24	한·중 특허청장 회담(베이징) – 수석대표 : 김태준 특허청장/가오루린(高盧麟) 전리국장(專利局長)
11.25–12.2	중국 과학기술대표단 방한 – 단장 : 쑹젠(宋健) 국가과학기술위 주임 – 11.26 신·재생 에너지분야 과학기술협력 각서 서명
12월	김갑현 제2정무장관 방중
12.1–8	제1차 한·중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실무회담(베이징)
12.2–8	제1차 한·중 세관협력회의(서울) – 수석대표 : 백원구 관세청장/다이제(戴杰) 해관총서장
12.6–11	최각규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방중
12.14–16	제1차 한·중 경제·무역·기술협력 공동위원회(베이징) – 수석대표 : 허승 외무부 제2차관보/톈룬즈(田潤之) 대외경제무역부 차관보
12.20	양상쿤(揚尙昆) 중국 국가주석, 김영삼 대통령 당선자 앞 축전 송부
12.31	한·중 간 주상하이 및 주부산총영사관 설치에 관한 구상서 교환

1993

1.6–18	우디성(武迪生) 중국 선양시장 방한
1.7–10	서영택 건설장관 방중 – 1.8 건설장관회담, 건설협력 양해각서 서명(1993.2.7 발효, 조약 1123호)
1.13	한·중 외무장관회담(화학무기금지협약 서명식 참석시)(파리) – 이상옥 외무장관/첸치천(錢其琛) 외교부장
2.3–14	류쑤이녠(柳隨年) 중국 물자부장 방한
2.8–17	허궈창(賀國强) 중국 화학공업 부부장 방한

2.15–17	한·중 통신실무협의회(베이징) – 수석대표 : 박영일 체신부 통신정책 심의관/조신통 우전부(郵電部) 외사국장
2.16–17	제2차 한·중 해운회담(서울) – 수석대표 : 홍정표 외무부 통상국장/한웨이칭 교통부 운수관리국장 – 2.17 해운협정 가서명
2.22–28	장바이파(張百發) 중국 베이징시 부시장 방한 – 2.25 김영삼 제14대 대통령 취임식 참석 및 경제무역협력 협의차
3월	장하오뤄(張皓若) 국내무역경제부장 방한
3.3	노태우 전 대통령, 퇴임 계기 양상쿤(揚尙昆) 주석, 장쩌민(江澤民) 총서기, 리펑(李鵬) 총리 앞 감사서한 송부
3.3	중국 통상사절단 방한 – 대표 : 보시라이(薄熙來) 다롄시장, 예롄쑹(葉連松) 허베이성(河北省) 성장·부서기
3.31	왕원둥(王文東) 중국 대외경제무역합작부 부부장 방한
4.14–21	허우제(候捷) 중국 건설부장 방한 – 4.15 건설장관 회담
4.17	허난성(河南省) 저우사오화(周少華) 어린이에 대한 김 대통령 답신 송부 – 93.2.20 저우사오화, 김대통령께 편지 및 참외씨앗 송부
4.21	한·중 외무장관회담(방콕) – Bangkok 제49차 ESCAP 총회 참석시 – 한승주 외무장관/첸치천(錢其琛) 외교부장
4.21–25	정훙예(鄭鴻業) 중국 국제상의회 회장 방한
4.26–30	제2차 한·중 이중과세방지협약 체결 실무회담(서울) – 수석대표 : 엄낙용 재무부 세제심의관/하오자오청(郝昭成) 국가세무국 외국인세국장
4.28–30	한·중 무역실무회담(베이징) – 수석대표 : 홍정표 외무부 통상국장/웨이사오룽 대외무역경제합작부 아주사장 대리
5.26–29	첸치천(錢其琛) 중국 부총리 겸 외교부장 방한(탕자쉬안(唐家璇) 부부장 수행) – 5.26–27 외무장관 회담(서울)
6월	중국 측, "중·한 의원소조"(의원친선협회) 결성
6.5	황병태 제2대 주중대사 신임장 제정
6.6–13	톈지윈(田紀雲)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방한
6.18–19	제2차 한·중 국제학술회의(베이징) – 외무부 외교안보연구원/중국 국제문제연구소
7.14	주상하이총영사관 개설
7.15–22	쉬쾅디(徐匡迪) 상하이시 제1부시장 방한
7.21–26	제1차 한·중 세관협력회의(베이징)
7.22–27	윤동윤 체신장관 방중
7.24	한·중 외무장관회담(싱가포르) – 싱가폴 아세안 PMC 계기 – 한승주 외무장관/첸치천(錢其琛) 외교부장
7.26–30	후진타오(胡錦濤)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방북

8.1–7	중국 통상사절단 방한 – 단장 : 스광성(石廣生)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부부장
8.16–18	한·중 항공회담(베이징) – 수석대표 : 유병우 외무부 아주국장/커더밍(柯德明) 중국 민항총국 부국장
8.17–19	고병우 건설장관 방중
8.20–21	제2차 한·중 경제공동위원회(서울)
8.20–25	홍순영 외무차관 방중(제1차 차관회담) – 탕자쉬안(唐家璇) 외교부 부부장, 왕잉판(王英凡) 아주국장 및 왕쌍시(王雙錫) 산시성(陝西省) 부성장 앞 감사서한 송부(9.1)
8.23–24	제1차 한·중 해운협의회(베이징)
9.2–5	김철수 상공자원부장관 방중
9.3	제1차 한·중 통상장관회담(베이징) – 김철수 상공자원부장관/우이(吳儀) 대외무역합작부장
9.5–12	왕광잉(王光英)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방한 – 김한규 민자당의원 초청
9.6	주부산 중국총영사관 개설
9.26–10.2	리란칭(李嵐淸) 중국 부총리 방한 – 93 대전 EXPO '중국의 날' 행사 참석차
9.27	한·중 외무장관회담(뉴욕) – 유엔총회 참석 계기 – 한승주 외무장관/첸치천(錢其琛) 외교부장
9.28	제1차 한·중 민간경제협의회(베이징) – 대한상공회의소장/중국 국제무역촉진회장
10.4–5	제2차 한·중 경제무역 및 기술협력 공동위원회(서울) – 수석대표 : 선준영 외무부 제2차관보/류샹둥(劉向東)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부장조리
10.6–11	한·중 항공회담(서울) – 수석대표 : 유병우 외무부 아주국장/커더밍(柯德明) 중국 민항총국부국장
10.23	서울시·베이징시간 자매결연
10.26–31	한승주 외무장관 공식 방중(베이징) – 10.28 외무장관 회담
11월	민자당 실무대표단(단장 : 조부영 민자당 제2사무총장) 방중 – 공산당과의 정식교류에 원칙합의
11.3–8	김시중 과학기술처장관 방중 – 11.4–6 제1차 과학기술공동위원회 참석차 – 수석대표 : 김시중 과학기술처장관/쑹젠(宋健) 국가과학기술 위원회 주임
11.19	한·중 정상회담(시애틀) – APEC 계기 – 김영삼 대통령/장쩌민(江澤民) 중국 국가주석
11.24	제2차 한·중 체신장관회담(서울) – 윤동윤 체신장관/우지촨(吳基傳) 우전부장

12월	주중 한국대사관 무관부 설치
12.2	제1차 한·중 정책기획협의회(서울) – 수석대표 : 권병현 외무부 외교정책기획실장/페이위안잉(裵遠穎) 외교부 정책연구실 주임
12.2	김영삼 대통령, 93.11.19 한·중 정상회담(시애틀) 관련 장쩌민(江澤民) 중국 국가주석 앞 서한 송부
12.7	인천시·톈진시 간의 자매결연
12.7–11	후치리(胡啓立) 중국 중국전자공업부장 방한
12.9–14	김영태 경제기획원 차관 방중
12.13–15	제1차 한·중 어업실무회담(서울)
12.13	한승주 외무장관, 우쉐첸(吳學謙) 정협 부주석 앞 초청 서한 송부

1994

1.6–12	이만섭 국회의장 방중
1.17–22	한·중 항공협정 체결 비공식 실무회담(베이징) – 서울–베이징 직항로 개설 합의
2.4–5	한·중 과학기술협력위원회 제1차 실무회담(베이징)
2.17–19	한·중 항공회담(베이징) – 수석대표 : 유병우 외무부 아주국장/커더밍(柯德明) 중국 민항총국 부국장
2.21–26	제3차 한·중 이중과세방지협약 체결교섭 실무회담(베이징)
3월	주한 중국대사관 무관부 설치
3.8–14	국회 외무통일위원회 의원단 공식 방중 – 단장 : 정재문 위원장
3.16–23	중국 공산당 대표단 방한 – 단장 : 주산칭(朱善卿) 공산당 대외연락부 부장
3.26–30	한승주 외무장관 방중(김영삼 대통령 일본 및 중국 방문 수행차) – 3.28 외무장관회담(베이징), 한·중 간의 이중과세방지 협정 서명(1994.9.28 발효, 조약 1243호), 한·중 간의 문화 협력에 관한 협정 서명(1994.4.27 발효, 조약 1215호)
3.26–30	김영삼 대통령 방중(일본 및 중국 방문의 일환) – 3.28 정상회담(제3차)
4.13–14	제2차 한·중 외교정책기획협의회 개최(베이징)
4.10–17	우쉐첸(吳學謙) 정협주석 공식 방한 – 외무장관 초청
4.22–26	저우난(周南) 신화사 홍콩분사 사장 방한 – 외무부 초청
5.3	한국 교통부–중국 항공당국, 한·중 항공운항 대폭 확대 합의(서울–상하이, 서울–톈진 노선)
5.7	한국의 대중 경협기금 상향 조정 : 4,000만 불에서 4,500만 불로 증액. 대출금리 연 3.5%에서 연 3.25%로 하향 조정. 6월부터 단계적 집행

5.10	한국통신 베이징사무소와 주중 한국대사관, 한·중 해저 광케이블 건설 발표(태안–칭다오 간 549km)
5.10–11	한·중 무역실무회의(서울) – 관세, 비관세 장벽 완화 및 교역 확대방안 중점 협의
5.11–15	장루이제(張瑞杰–한·중 수교 시 중국 측 교섭단 실무수석대표) 중·한 우호협회 부회장 방한 – 외무부 초청
5.20	주칭다오총영사관 창설요원 부임
5.24–29	민자당 대표단 방중(단장 : 문정수 사무총장) – 민자당과 중국공산당간 교류사업의 일환 – 대통령의 친서 전달(장쩌민(江澤民) 주석 방한 재초청 등)
5.29–6.5	위정성(兪正聲) 산둥성(山東省) 칭다오시장 방한 – 5.31 차관면담 및 오찬
6.2–7	탕자쉬안(唐家璇) 중국 외교부 부부장 방한 – 6.3 한·중 외무차관회담(서울)
6.6	한·중 산업협력위 발족(제1차 회의 6.12–17 서울개최) – 왕중위(王忠禹) 경제과학무역위 주임 방한
6.7–12	우이(吳儀) 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장 방한
6.7–15	이상옥 전 외무장관 방중 – 중국인민외교학회 초청
6.8–9	한승주 외무장관 방중(실무 방문) – 6.9 한·중 외무장관 회담(베이징)
6.8–10	제2차 한·중 어업실무회담(베이징)
6.10	백두산 호랑이 인수식(서울대공원) – 대통령 방중 후속사업
6.12–17	한·중 산업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서울)
6.17	김영삼 대통령, 장쩌민(江澤民) 중국 국가주석 앞 북한 핵문제 관련 지지 요청 및 방한 요청 친서 송부
6.21	제1차 한·중 외무부 조약국장 회의(베이징)
6.21	중국 남부지방 홍수피해 관련 김영삼 대통령의 장쩌민(江澤民) 중국 국가주석 앞 위로전문 발송
6.29–7.1	한·중 미래포럼 제1차 회의 개최(베이징) – 주관 : 우리 측 국제교류재단/중국 측 인민외교학회
6.29–30	제2차 한·중 해운협의회(서울)
7.4	주한 중국대사를 초치, 중국어선의 서해 불법조업에 대한 우려 및 항의 전달
7.6–10	중·한 의원소조 대표단 방한(단장 : 주량(朱良) 전인대 외사위원장 등 6명) – 김용태 한·중 의원친선협회장 초청
7.12	장쩌민(江澤民) 중국 국가주석, 김영삼 대통령 앞 친서 송부
7.26	장쩌민(江澤民) 중국 국가주석 명의 감사전문 접수 – 김영삼 대통령의 위로전문(6.21)에 대한 답전
7.20–27	한·중 항공협상 – 7.27 한·중 항공협정 가서명

7.24	한·중 외무장관회담(태국, 방콕) – 방콕 ARF/ASEAN–PMC 회의 참석시
8.4	김호태 주칭다오총영사 현지부임(초대)
8.12–19	저우사오화(周少華) 어린이 방한 – 청소년단체 연합회 초청 – 8.13 대통령 예방
8.17	주중대사관을 통해 주선양총영사관 설치 제의
8.18–25	국회외통위 나웅배 위원장외 의원 5명 방중
8.24	한·중 우호협회, 수교 2주년 기념 조찬회 – 이상옥 전 장관 연설
8.24–29	가오더잔(高德占) 톈진시 당서기 등 市대표단 방한 – 인천시 초청 – 8.26 대통령 예방
8.27–9.5	민자당 2000년대 국가발전위원회 방중 – 박세직, 박명환 의원 외 19명 러시아, 중국 방문
9.5–6	한·중 학술회의 개최(서울) – 외교안보연구원/중국 외교부 산하 국제문제연구소
9.12	주칭다오총영사관 개관 – 제1차관보, 김하중 주중공사 참석
9.12–16	제2차 한·중 세관협력회의 개최(서울)
9.27–10.2	한·중 우호협회 대표단 8명 방중(단장 : 황인성 전 총리, 협회고문) – 중국 인민대외연락부, 중·한 우호협회 공동 초청 – 9.30 리펑(李鵬) 총리 예방
9.30	제49차 UN총회 참석계기 한·중 외무장관 회담(뉴욕) – 한승주 외무장관/첸치천(錢其琛) 외교부장
10.1	김영삼 대통령, 장쩌민(江澤民) 중국 국가주석 앞 중국 국경일 축전 발송
10.4–11	마오잉량(毛應梁) 인민은행 상하이 분행장 방한
10.5–12	한·중 과기위 중국 대표단 방한(단장 : 후이융정(惠永正) 부주임) – 제2차 한·중 과기공동위 참석
10.6–15	정룽저(鄭龍喆) 연변 조선족 자치주 주장 등 자치주 대표단 방한
10.7–13	황영하 총무처장관 방중 – 중국 인사부장 초청
10.11	제2차 한·중 민간경제협의회(서울) – 대한상공회의소장/중국 국제무역촉진회장
10.11–18	중국 감찰부 대표단 방한 – 감사원장 초청
10.18–25	중국 임업부장 방한 – 농림수산부장관 초청
10.23–26	남재희 노동부장관 방중

10.31–11.4	리펑(李鵬) 중국 국무원 총리내외 방한 – 11.2 및 11.3 한·중 외무장관 회담(서울)
11.6–13	가오옌(高嚴) 지린성(吉林省) 성장 방한 – 강원도 주최 환동해권 지방정부 지사·성장회의 참석차 – 11.11 국무총리 예방
11.7–13	양옌인(楊衍銀) 중국 민정부 부부장 방한
11.10–16	리치옌(李其炎) 베이징시장 방한 – 서울시 주최 베이징주간행사 참석차 – 11.12 국무총리 예방
11.11–16	장원캉(張文康) 중국 위생부 부부장 방한
11.11–17	황화(黃華) 국제우호연락회 회장 방한 – 고려합섬 초청 – 11.11 국무총리 주최 만찬
11.14	한·중 정상회담(인니 자카르타)(제4차) – 제2차 APEC 정상회담 참석계기 – 김영삼 대통령/장쩌민(江澤民) 중국 국가주석
11.18–19	김숙희 교육부장관 방중 – 중국 국가교육위원회 및 인민일보사 공동 초청
11.21–28	자오치정(趙啓正) 상하이 부시장 방한
11.24	우수칭(吳樹青) 베이징대 총장 방한 – 11.24 국무총리 예방
11.29–12.1	김덕룡 의원 상하이 방문 – 고려대 언론대학원 중국연수단을 인솔, 상하이 푸단대학 측과의 세미나 참석차
11.30–12.2	제1차 한·중 문화공동위 개최(베이징)
12.20–21	한·중 경제공동위(베이징) 개최 – 우리 측 수석대표 : 선준영 제2차관보 – 중국 측 수석대표 :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부장조리
12월	우타오(武韜)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 등 5인 방한 – 주부산 총영사관 부지 시찰 목적
12.28	장쩌민(江澤民) 중국 국가주석, 김영삼 대통령 앞 신년 축하 친서 송부

1995

1.9	한·중 의원친선협회를 '한·중 의원외교협의회'로 개칭
1.30	리펑(李鵬) 총리, 김 대통령 앞 중국 인권문제 지지요청 서한 송부 – 2.25 김 대통령의 답신 송부
2.13–18	천무화(陳慕華) 전국부녀연합회 주석 겸 전인대 부위원장 방한
2.20–26	조성태 국방정책실장(중장) 방중 – 중국 국방부 초청(군 고위 인사로는 최초 공식 방중)
3.8–10	제3차 한·중 어업실무자회담(서울)

3.12	김영삼 대통령/리펑(李鵬) 총리 면담(덴마크 코펜하겐) – 유엔사회개발 정상회의 계기
3.13–16	푸쉐장(傅學章) 외교부 아주국장 일행 방한 – 3.13 제1차 한·중 아주국장회의 개최
3.21–25	우사오쭈(吳紹祖) 중국 국가체육운동위 주임 방한 – 김운용 NOC위원장 초청
3.27–4.2	덩난(鄧楠) 중국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부주임 방한
3.27–4.3	리수정(李淑錚) 중국공산당대외연락부(중련부) 부장 방한 – 민자당 사무총장 초청
3.27–4.3	허주캉(何竹康) 지린성(吉林省) 인민대표대회 상무위 주임 방한 – 서울시 의회초청
4.3–8	한·중 의원외교협의회 대표단 방중(단장 : 문정수 회장) – 중·한 우호소조 초청
4.17–22	차오스(喬石) 전인대 상무위원장 방한 – 국회의장 초청
5.8	한·중 무역실무회담(베이징)
5.9–15	이홍구 국무총리 공식 방중 – 이시영 외무차관, 구본영 과기처차관 수행 – 제6차 Asia Society 총회 참석(기조연설), 시안, 상하이 시찰
5.29–6.3	중국 기자단 방한
7.31	한·중 외무장관회담(브루나이) – 브루나이 ASEAN–PMC 계기 – 공로명 외무장관/첸치천(錢其琛) 외교부장
8.16–21	윤관 대법원장 방중
9.3–8	손명순 영부인, 세계 여성회의(베이징) 참석
9.22–26	제2차 한·중 미래포럼(서울 및 경주)
9.25	한·중 외무장관회담(유엔총회 참석 계기)(뉴욕) – 공로명 외무장관/첸치천(錢其琛) 외교부장
10.3–6	조순 서울시장 방중
10.5–10	이시윤 감사원장 방중
10.17–23	쑤양(肅楊) 중국사법부장 방한
10.18–22	김하중 아·태국장 중국 방문 – 왕이(王毅) 아주국장 면담, 천젠(陳健) 공보국장 면담
11.13–17	장쩌민(江澤民) 중국 국가주석 방한 – 단독·확대 정상회담(제5차)
12.10	황병태 대사 이임
12월	중국 전인대 외사위 대표단 방한 – 저우줴(周覺) 외사위 부주임 등
12.10–16	외무부 기자단 방중 – 한·중 외무부 기자단 교류계획에 의거

12.19–20	제4차 한·중 어업실무회담(베이징)
12.20–26	황낙주 국회의장 공식 방중

1996

1.29	제2차 한·중 아주국장회의(베이징)
2.3	한·중 외무장관회담(푸켓) – 아시아 10개국 외무장관회담 참석 계기 – 공로명 외무장관/첸치천(錢其琛) 외교부장
2.4	김영삼 대통령, 윈난성(雲南省) 지진 발생관련 위로전문 발송 및 10만 불 상당의 구호물자 지원 – 장쩌민(江澤民) 중국 국가주석의 김 대통령 앞 회신 접수(3.14)
2.9	정종욱 주중대사 부임(제3대)
2.9	한·중 해저광케이블 개통
2.14	정종욱 제3대 주중대사 신임장 제정
2.26	류더유(劉德有) 문화부 부부장 방한
3.1	김영삼 대통령–리펑(李鵬) 총리 면담(방콕) – 제1차 ASEM 참석 계기
3.5–10	중국 외교부 대표단 방한 – 단장 : 왕궈장(王國章) 차관보 – 양국 고위관리 교류 확대 방침에 따른 방한
3.16–20	장옌시(張延喜) 농업부 부부장 방한
3.20–24	공로명 외무장관 방중 – 3.20 한·중 외무장관회담(베이징)
3.30	김영삼 대통령, 장쩌민(江澤民) 중국 국가주석 앞 4자회담 관련 서한 발송 – 장 주석의 회신 접수(4.10)
4.6–8	뤄간(羅干) 중국 국무원 비서장 비공식 방한
4.20–25	웨이젠싱(尉健行) 중화전국총공회 주석 방한 – 김영삼 대통령 예방
4.23	한·중 외무차관회담(방콕) – 이기주 차관/리자오싱(李肇星) 부부장
4.24	제3차 한·중 정책기획협의회 개최(서울)
4.28–5.1	추경석 건교부장관 방중
5.3–4	제5차 한·중 어업실무회담(서울)
5.7–8	제2차 한·중 영사국장회의(서울)
5.15	공로명 장관, 첸치천(錢基琛) 외교부장 앞 2002년 월드컵개최지 한국 지지요청 서한 발송
5.17	김영삼 대통령, 장쩌민(江澤民) 중국 국가주석 앞 월드컵 유치 지지요청 친서 발송 – 장 주석, 지지 구두 메세지 전달해옴 – 우리 측, 중국 측 지지에 대한 사의 표명 서한 발송(6.1)

5.20–26	런젠신(任建新) 중국최고인민법원장 방한 – 대통령 예방, 한중 대법원장 회의
5.22–27	후이량위(回良玉) 안후이성(安徽省) 성장 방한 – 경상북도 초청
6.2–9	국무원 산하 국가외국전문가국 대표단 방한 – 부국장(차관보급)외 3명
6.3–4	제5차 한·중 국제문제학술회의(서울)
6.6	김영삼 대통령, 윈난성(雲南省) 산사태 발생관련 장쩌민(江澤民) 중국 국가주석 앞 위로전문 발송 – 중국 측 회신 없음
6.22–27	양상태 국방부 차관보 방중
7.2	제4차 한·중 무역실무회담(서울)
7.8	김영삼 대통령, 중국 동남부 홍수피해 관련 장쩌민(江澤民) 중국 국가주석 앞 위로전문 발송
7.25	한·중 외무장관회담(자카르타) – ASEAN PMC/ARF 참석 계기
7.31	장쩌민(江澤民) 중국 국가주석, 국내 수재 관련 김영삼 대통령 앞 위로전문 전달
8월	한백회 소속위원(노승우 등 17명 신한국당 의원) 방중 – 중국 공산당 초청 세미나 참석
8.8	EEZ법 및 EEZ에서의 외국인 어업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EEZ 어업주권법) 공포
8.9	김영삼 대통령, 황하 홍수피해 관련 장쩌민(江澤民) 중국 국가주석 앞 위로전문 발송
8.15	장쩌민(江澤民) 중국 국가주석, 김영삼 대통령 앞 광복절 축전 전달
8.20–27	중국 노동부 대표단 방한 – 단장 : 장샤오젠(張小建) 노동부 직업기능개발사장
8.25–29	이기주 차관 방중(베이징) – 제3차 한·중 외무차관회담 – 한·중 외무차관회담 정례화 합의
8.26–27	제6차 한·중 어업실무자회담(베이징)
8.28–29	제3차 한·중 산업협력위 회의 개최(서울)
9.6	정태익 제1차관보–리자오싱(李肇星) 부부장 면담(마샬 아일랜드) – 제8차 SPF/PFD 참석 계기
9.10	EEZ법 발효
9.24	중국 국경일(10.1) 관련, 장쩌민(江澤民) 중국 국가주석 앞 김영삼 대통령 축전 전달
9.24	주한 중국대사관의 국경일 리셉션(9.30) 개최 관련, 공로명 장관명의 축하서한 송부
9.25	한·중 외무장관회담(뉴욕) – 유엔총회 참석 계기 – 공로명 외무장관/첸치천(錢其琛) 외교부장
10.13–18	김대중 총재 방중
10.4–10	제3차 한·중 미래포럼 개최(항저우 및 베이징) – 주최 : 한국 국제교류재단/중국 인민외교학회

10.20–24	외무부 대표단 방중 – 단장 : 정태익 외무부 기획관리실장
10.23	한·중 민간경제협의회 제3차 회의 개최(베이징)
11.9–15	쑹젠(宋建) 중국 과학기술위원회 주임 방한 –APEC 과학기술각료회의 참석
11.11–12	제5차 한·중 포럼개최(서울) – 주최 : 현대 중국연구회/중국 사회과학원
11.12–13	한승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 중국 방문 – 제3차 차이나 서미트(세계정치지도자회의 참석)
11.16	세계 식량정상회의 참석 계기 한·중 총리회담(로마) – 이수성 국무총리/리펑(李鵬) 총리
11.18–26	마수성(馬叙生) 중국 인민외교학회 수석 부회장 일행 방한 – 최종기 한국국제관계연구소 이사장 초청
11.24	APEC 참석계기 한·중 정상회담(마닐라)(제6차) – 김영삼 대통령/장쩌민(江澤民) 국가주석
11.25	한·중 외무장관회담(마닐라) – APEC 참석 계기 – 유종하 외무장관/첸치천(錢其琛) 외교부장
11.26–27	한·중 어업실무자회담(서울)
11.29–12.8	우제핑(吳階平) 전인대 상무 부위원장 부부 방한 – 국제가족계획연맹 아·태지역회의 참석차
12월	탄자린(譚家林) 공산당 아주국 부국장 일행 방한 – 외무부 초청
12.7–14	중국 국방부 대표단 방한 – 단장 : 라이빈(賴斌) 외사국장
12.10–11	제5차 한·중 경제공동위원회(베이징)
12.16–22	쩌우자화(鄒家華) 부총리 방한
12.21–22	제3차 한·중 조약국장 회의(베이징)

1997

1.15	인민대학 왕기민 교수 앞 김영삼 대통령 서한 전달 – 동인의 「정관정요(貞觀政要)」 필사본 증정에 대한 감사답신
1.20	장쩌민(江澤民) 중국 국가주석, 김영삼 대통령 앞 친서 전달 – '96.12.13자 김 대통령 서한에 대한 답신
1.28–2.1	김수한 국회의장 방중(베이징, 상하이–쑤저우)
2.12	황장엽, 주중 우리대사관(영사부)에 귀순 신청
2.14	한·중 외무장관회담(싱가포르) – ASEM 외무장관 회의계기 – 유종하 외무장관/첸치천(錢其琛) 외교부장
2.19	덩샤오핑(鄧小平) 사망(2.25 덩샤오핑(鄧小平) 추모식 거행)

2.20	김영삼 대통령, 덩샤오핑 사망 관련 특별담화 발표
2월	중국공산당 중앙 黨史연구실 발간 「百年潮」(격월) 한국전쟁 소개(북한의 남침 인정) 기사 보도 – 3회(97.2, 4, 6월)에 걸쳐 한국전 발발 배경, 소련의 중국참전 독려, 정전협정 과정을 게재
2.24	제1차 한·중 EEZ 경계획정 회담(서울)
3.18	황장엽, 중국 출발 및 필리핀 도착(35일 경과)
3.19	황장엽 사건 관련, 김영삼 대통령 명의 장쩌민(江澤民) 중국 국가주석·리펑(李鵬) 총리 앞 감사서한 타전(3.20 전달)
3.27–4.1	펑티윈(馮梯雲) 감찰부 부부장 외 5인 방한 – 감사원 초청
4.5–10	이부식 과기처 차관 방중(베이징, 시안, 상하이)
4.9–12	'97년도 제1차(제8차) 한·중 어업회담(하이난다오(海南島))
4.14–17	김석우 통일원 차관 방중
4.14–19	저우싱바오(周興寶) 중국 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 방한 – 한국 민족통일연구원 초청
4.15–18	제4차 한·중 정책기획협의회 – 단장 : 소병용 외정실장 및 정금형 정책연구실 주임
4.20	황장엽, 서울 도착
4.22–23	세계에너지이사회(WEC) 아·태지역 포럼 참석(베이징) – 우리 측 : 통산부 한준호 자원정책실장 등 17명
4.23–27	류장(劉江) 농업부장 일행 방한(농림부장관 초청) – 줘유단(卓友膽) 어업국장 등 6명 수행
4.24–29	한·중 해양과학 공동연구센타 제2차 관리위원회(칭다오 및 베이징)
4.25–5.1	기계공업부 자동차공업국 장샤오위(張小虞) 국장 외 15명 방한
4.27–5.3	궈전첸(郭振乾) 중국 심계서장 재경원 방한 – 이시윤 감사원장, 김한규 총무처장관 예방
4.27–5.6	후난성(湖南省) 정부대표단 방한 – LG그룹 초청 – 왕마오린(王茂林) 당서기, 주보화(朱伯華) 부성장 등
4.30–5.7	이세기의원 일행 방중 – 중국 당중앙대외연락부(중련부)의 한국 국제관계연구소(소장 : 최종기) 초청
5.6–12	제2차 한·중 국세청장 회의개최(서울) – 중국 측 : 양충춘(楊崇春) 국세청차장 외 5명
5.15–18	제5차 한 · 중 해운회담 – 우리 수석 : 해운선박과장 – 중국 수석 : 쑤신강(蘇辛剛) 수운관리국 부국장
5.18–20	유종하 외무장관 공식 방중 – 5.19 외무장관 회담(베이징)/첸치천(錢其琛) 외교부장
5.19–25	중국 외교부 기자단 방한
5.19–23	리보융(李伯勇) 노동부장 일행 방한
5.21–23	제5차 한·중 해운협의회(베이징)
5.25–31	차이칭화(蔡慶華) 철도부 부부장 일행 방한

5.25–28	이회창 신한국당 대표 방중(상하이, 베이징) – 장쩌민(江澤民) 중국 국가주석 앞 대통령 친서 전달 – 후진타오(胡錦濤) 상무위원의 방한 초청
5.27	제3차 한·중 영사국장회의(베이징)
5.28–29	중국, 대만 핵폐기물의 중국내 수용의사 표명(외교부 대변인)
5.29–6.3	제4차 한·중 미래포럼 개최(서울 힐튼호텔 및 제주도)
5.30–6.9	전인대 교육과학문화위 이서악 부주임 일행 방한
6.3–12	중국 환경보호청 부청장 왕위칭(王玉慶) 일행 방한 – 세계 환경의 날 기념식 참석
6.5–7	제3차 중국지역 공관장회의(상하이)
6.10–11	'97년도 제2차(제9차) 한·중 어업회담(제주도)
6.10–12	제1차 한·중 형사사법공조조약 실무회의(서울)
6.14–20	양셴쭈(楊賢足) 우전부 부부장 일행 방한
6.16	제2차 한·중 문화공동위 개최, 합의서 서명(서울) – 쑨웨이쉐(孫維學) 문화부 대외문화연락국 국장
6.25	홍콩반환 관련, 장쩌민(江澤民) 주석 앞 김영삼 대통령 축하메세지 송부
6.25–26	제2차 EEZ경계획정 회담(베이징)
6.28	김수한 국회의장, 홍콩반환 관련 차오스(喬石) 상무위원장 앞 축전 발송
6.29–7.3	유종하 외무장관, 홍콩주권 이양식 참석
7.1	한국 외무부 대변인, 성공적 홍콩반환 환영성명 발표
7.2	중국, 4자회담 참가 입장 공식표명(외교부 대변인)
7.10	황장엽, 기자회견 실시
7.20–23	최홍건 특허청장 방중(베이징, 산시성(陝西省)) – 제5차 한·중 특허청장회의 개최
7.24	장쩌민(江澤民) 중국 국가주석, 홍콩반환 관련 김영삼 대통령 축하메세지에 대한 감사답신 송부
7.25–8.1	롼충우(阮崇武) 하이난성(海南省) 성장 방한 – 제주도지사 초청
7.28	한·중 외무장관회담(쿠알라룸푸르) – '97년도 ARF/ASEAN PMC 계기 – 유종하 외무장관/첸치천(錢其琛) 외교부장
7.28–30	'97년도 제3차(제10차) 한·중 어업회담(상하이)
8.4	〈한국전쟁〉 관련 중국 교과서 오류·왜곡 시정 공식 요구
8.6–22	노신영 전총리 방중 –베이징, 시안, 청두, 티베트(西藏), 충칭, 우한
8.6–7	한·중 무역실무회의(베이징)
8.8	EEZ 어업주권법 발효
8.10–25	국립예술단(무용단 45명) 방중 순회 공연(베이징, 상하이, 창춘(長春)) – 수교 5주년 기념사업의 일환
8.11–12	한·중 산업협력위 전자교환기 분과위 제3차 회의(베이징)

8.12–21	김수환 추기경 방중(베이징, 옌지(延吉), 상하이) – 중국 국무원 종교사무청 초청
8.21–25	강경식 부총리 방중 – 쩌우자화(鄒家華) 중국 부총리 초청 – 수교 5주년 기념행사 일환
8.21–26	문체부 대표단 방중(베이징, 시안, 상하이) – 단장 : 문체부 차관
8.24	한·중 수교 5주년
9.23	제52차 UN총회 계기 한·중 외무장관 회담(뉴욕) – 유종하 장관/첸치천(錢其琛) 외교부장
9.29	'97년도 제4차 한·중 어업실무자회담(서울)
11.19–27	이정린 국방차관 방중
11.24	제7차 한·중 정상회담(벤쿠버) – 제5차 APEC 정상회의 참석 계기 – 11.23 한·중 외무장관회담
11.24–26	한·중 형사사법공조조약 체결을 위한 제2차 교섭회담(베이징) – 11.26 가서명
12.1	제3차 한·중 EEZ 경계획정회담(서울)
12.1–8	중국 태권도 지도자 5명 방한 – 단장 : 궈중궁(郭仲恭) 중국태권도협회 부주석겸 비서장
12.11–12	'97년도 제5차 한·중 어업실무자회의(베이징)

1998

1.21	'98년도 제1차 한·중 어업실무자회담(서울)
2.8–11	김종필 자민련 명예총재 방중 –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 친서 전달
4.2	제2차 ASEM 계기 한·중 고위급 회담(런던) – 김대중 대통령/주룽지(朱鎔基) 총리
4.3	ASEM 계기 제28차 한·중 외무장관회담(런던) – 박정수 장관/탕자쉬안(唐家璇) 외교부장
4.15–17	'98년도 제2차 한·중 어업실무회담(베이징)
4.26–30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 부주석 방한
5.15	권병현 대사(4대) 신임장 제정
6.8–9	제7차 한·중 국제학술회의(서울)
6.18–19	'98년도 제3차 한·중 어업실무회담(서울)
7.11–14	박정수 외교통상부 장관 방중 – 한·중 외무장관회담(베이징)
7.30–31	'98년도 제4차 한·중 어업실무회의(베이징)

8.20–22	슝광카이(熊光楷) 중국 인민해방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방한
8.27	한·중 고위급 무역회담(서울)
9.10–11	'98년도 제5차 한·중 어업실무자회담(서울)
9.17–18	제5차 한·중 미래포럼(상하이)
9.21–24	양원창(楊文昌) 중국 외교부 부부장 방한
9.24	우다웨이(武大偉) 주한중국대사(제2대) 신임장 제정
9.28–29	한·중 무역실무회담(서울)
10.7–8	한·중 어업실무회담(서울)
10.21–23	한·중 어업협정 문안 전문가회의(베이징)
10.26	제7차 한·중 경제공동위원회(베이징)
11.2–5	류수칭(劉述卿) 전 중국인민외교학회 회장 및 주량(朱良) 전 중국전인대 외사위원장 방한
11.11	한·중 간 어업협정 가서명(베이징)
11.11–15	김대중 대통령 국빈 방중 – 제8차 한·중 정상회담(11.12) – 한·중 외무장관회담(홍순영 외무장관/탕자쉬안(唐家璇) 외교부장)
12.7	제5차 한·중 정책기획협의회(서울)
12.21–22	한·중 문화공동위 회의(베이징)

1999

1.22–29	이수성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방중
2.11–13	임동원 외교안보수석 방중
2.19–24	천자얼(陳佳洱) 베이징대 총장 방한
3.17	한·중 어업협정 현안 협의(서울)
3.25	한·중 외교부 아주국장 회담(서울)
3.29	ASEM 외무장관 회담 계기, 한·중 외교장관회담(베를린)
3.31–4.6	국회의원 대표단 방중 – 이세기, 남궁진 의원 등 9명
4.5	한·중 아주국장 회의(베이징)
4.7–10	루융샹(路甬祥) 중국 과학원원장 방한
4.8–9	한·중 어업실무협상(서울)
4.11–16	이수성 민주평동 수석 부의장 방중
5.4–8	국회 통일대비 의원 연구모임 소속 의원 중국 및 러시아 방문 – 박종웅, 설훈 의원 등 8명
5.10–12	김홍일 의원 방중
5.9–15	리루이환(李瑞環) 중국정협주석 방한

5.10	한·중 외무차관 조찬 회담 – 리루이환(李瑞環) 주석 방한 계기
5.10	제6차 한·중 정책기획협의회(베이징)
5.11–12	제7차 한·중 무역실무회담(베이징)
5.24–29	유엔 한국협회 대표단 방중 – 이상옥 전장관 등
5.27	한·중 아주국장 회담(베이징)
5.27–28	제4차 한·중 조약국장 회담 및 EEZ 경계획정회담(서울)
5.27–28	제8차 한·중 국제학술회의(베이징) – 외교안보연구원/중국국제문제연구소
6.3–7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방중
6.17–19	국민회의 대표단 방중 – 박정수, 양성철 의원 등 4명
6.7–9	손숙 환경부장관 방중
6.7–11	쉬둔신(徐敦信) 중국 전인대 외사위 부주임 방한(미래지향교류사업)
6.13–20	우지촨(吳基傳) 중국정보산업부장 방한
6.17–19	국회 국민회의대표단 방중 – 박정수, 양성철 의원 등 4명
6.17–23	이인재 국민회의 당무위원 방중
6.22–27	류지(劉吉) 전 중국사회과학원 부원장 방한(미래지향교류사업)
7.1–6	박건우 4자회담 담당대사 방중
7.6–8	한·중 외교부 간 어업협정 관련 협의(베이징)
7.8	주선양영사사무소 개설 – 김용규 기획관리실장 참석
7.19–24	자오야푸(趙亞夫) 수도사범대학 부교수 방한(미래지향교류사업)
7.24	ARF/ASEAN PMC 계기 한·중 외교장관 회담(싱가포르)
7.26–8.1	국회 안보·통일 정책연구회 소속 국회의원 방중 – 조웅규, 권기술 의원 등 8명
8.23–29	조성태 국방장관 공식 방중
8.25–30	한나라당 대표단 방중
8.26–31	둬지차이랑(多吉才讓) 중국 민정부장 방한(미래지향교류사업)
8.31–9.7	박순용 검찰총장 방중
9.11	APEC 정상회의 계기 한·중 정상회담(오클랜드)
9.29	주한 중국대사관 주최 기념리셉션, 김종필 국무총리 참석 – 중국 건국 50주년 관련
10.3–7	저우자빈(周嘉賓) 칭다오시 부시장 방한(미래지향교류사업)
10.4–5	한·중국 미래포럼(제주)
10.5–9	탕자쉬안(唐家璇) 외교부장 방북

10.6–11	허융(何勇) 중국 감찰부장 방한
10.10–15	왕자오궈(王兆國) 중국 정협부주석 방한
10.25–30	우아이잉(吳愛英) 산둥성(山東省) 당부서기 방한(미래지향교류사업)
10.26–28	선준영 차관 방중 – 한·중 외무차관회담
11.10–14	중국 외교부 중견직원 방한
11.15–20	런하이선(任海深) 옌타이시(煙臺市) 당서기 방한(미래지향 교류사업)
11.22–27	장지순(張濟順) 상하이 푸단대 당위부서기 방한(미래지향 교류사업)
11.28	ASEAN+3 정상회의 계기 한·중·일 조찬회동(마닐라) – 김대중 대통령/주룽지(朱鎔基) 총리
12.1	한·중 영사국장회의(베이징)
12.7–8	퉁젠화(董建華) 홍콩 특구수반 방한
12.10–12	탕자쉬안(唐家璇) 중국 외교부장 방한 – 12.10 한·중 외교장관회담(서울)
12.19–21	김중권 대통령 비서실장 마카오 주권 반환 행사 참석
12.27	제1차 한·중 경제장관회의(베이징)

2000

1.5–8	김기재 행정자치부장관 방중
1.19–23	츠하오톈(遲浩田) 중국 국방부장 방한
1.23–29	김정길 법무부장관 중국·몽골 방문
2.2–4	장재룡 차관보 방중
2.13	김대중 대통령, 중국 “인민일보” 회견
2.20–24	류훙차이(劉洪才) 중국공산당대외연락부(중련부) 아주국장 방한
2.25–26	한·중 어업협상 관련 민 · 관 연찬회 개최
3.9–10	제5차 한·중 조약국장회의 및 EEZ 경계획정회담(베이징)
3.13–14	제4차 한·중 어업협정 양해각서 실무회담
3.29	제8차 한·중 경제공동위원회(서울)
4.1–4	쩡칭훙(曾慶紅) 중국공산당 조직부장 방한(미래지향 교류사업)
4.5–7	한·중 외교부 아주국장 회의(베이징)
4.22	제5차 한·중 어업협정 양해각서 실무회담
4.24–5.3	자오난치(趙南起) 중국 정치협상회의 부주석 방한
4.27–29	이정빈 외교통상부장관 중국 공식 방문 – 4.27 한·중 외교장관회담(베이징)
5.7–11	주방짜오(朱邦造) 중국 외교부 대변인 방한
5.10–11	제6차 한·중 어업협정 양해각서 실무회담(베이징)

5.17–22	장후이라이(張惠來) 중국 칭다오시 당서기 방한(미래지향교류사업)
5.29–31	김정일 북한노동당 총비서 겸 국방위원장 방중
6.1–3	민주당 의원 대표단 중국 및 러시아 방문(조세형 상임고문, 문희상, 류삼남 의원)
6.3–8	황쥐(黃菊) 중국 당 중앙 정치국 후보위원 겸 상하이시 당서기(21세기 초청사업 방한)
6.6–10	가오신팅(高新亭) 산둥성(山東省) 공안청장 방한(21세기 초청사업)
6.6–18	김영삼 전 대통령 방중
6.7–19	노태우 전 대통령 방중
6.9–15	제7차 한·중 미래포럼(충칭(重慶), 베이징)
6.12	제7차 한·중 어업협정 양해각서 실무회담(서울)
6.15–17	반기문 외교통상부 차관 방중
6.15–19	궈웨이청(郭偉成) 중국 인민일보 고급기자 방한(21세기 초청사업)
6.19–20	제9차 한·중 국제문제학술회의(서울) – 양청쉬(楊成緖) 중국국제문제연구소장 등 참석
6.22–28	왕윈쿤(王雲坤) 중국 지린성(吉林省) 당서기 방한(21세기 초청사업)
6.23–25	제8차 한·중 어업 실무회담(베이징)
6.28–29	제5차 한·중 수산당국 간 어업 실무회담(제주)
6.28–30	이희호 여사 방중 – '출판기념회' 및 '한국관광우호의 밤 행사' 참석
6.28–30	박지원 문화부장관 방중
6.30–7.4	루수민(盧樹民) 중국 외교부 미주국장 방한(21세기 초청사업)
6.30–7.14	마늘 세이프가드조치 관련 한·중국 양자협의(베이징)
7.4–8	톈쩡페이(田曾佩) 중국 정협 외사위 주임 방한 – 이영일 한·중 문화협회장 초청으로 방한
7.10	제1차 한·중 범죄인인도조약 실무교섭회담(서울)
7.24–29	외교통상부 간부대표단 방중 – 단장 : 박양천 기획관리실장
7.26	ASEAN PMC/ARF 계기 한·중 외교장관회담(방콕)
8.3	한·중 어업협정 서명
8.13–17	우둥허(武東和) 중국 외교부 부부장 방한
8.21–27	예쉬안핑(葉選平) 중국 정협부주석 방북
8.28–9.4	조영길 합참의장 방중
8.31	홍순영 대사(제5대) 신임장 제정
9.1–3	쑹더푸(宋德富) 중국 인사부장 방한(행정자치부의 초청으로 방한)
9.4–6	제2차 한·중 범죄인인도조약 실무교섭회의(베이징)
9.6	제9차 한·중 정상회담(뉴욕) – UN 새천년 정상회의 참석 계기
9.6–8	한·중 항공회담(베이징)
9.12–16	다이빙궈(戴秉國) 중국공산당대외연락부(중련부) 부장 방북

9.15–16	제7차 한·중 수산당국간 회담 개최(베이징)
9.16–21	리다오위(李道豫) 중국 전인대 회교위원회 부주임위원 방한
9.17–23	중국 민정부 구난구제국 대표단 방한(행정자치부 초청)
9.18–23	쑨푸링(孫孚凌) 정협 부주석 공식 방한(한·중문화협회 초청으로 방한)
9.20–21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 방한
9.21–26	최종영 대법원장 공식 방중
9.23–29	장궈광(張國光) 중국 랴오닝성(遼寧省) 성장 방한(경기도지사 초청)
9.25	제8차 한·중국 무역실무회담(서울)
9.25–10.1	장팅옌(張庭延) 전 주한중국대사 방한
9.26–30	국회 "한·중 의원협의회" 대표단 방중
9.27–10.2	고건 서울시장 방중(세계대도시회의 참석차)
10.9	장쩌민(江澤民) 중국 국가주석, 주중북한대사관 방문
10.17–22	주룽지(朱鎔基) 중국 국무원 총리 공식 방한 – 김대중 대통령/주룽지 총리간 고위급 회담 – ASEM 정상회의 참석(10.19–21)
10.18	ASEM 계기 한·중 외교장관회담(서울) – 이정빈 외교장관/탕자쉬안(唐家璇) 외교부장
10.22–26	츠하오톈(遲浩田) 중국 국방부장 방북(국방부장 최초 방북)
10.24–11.1	한나라당 여성대표단 방중
10.31–11.4	양원창(楊文昌) 중국 외교부 부부장 방북
11.15	APEC 정상회의 계기 한·중 정상회담(브루나이)
11.20–25	천밍밍(陳明明) 중국 외교부 미주국 부국장 방한(21세기 초청사업)
11.26–30	훙하오(洪浩) 상하이시 환경보호국장 방한(환경부 초청)
12.1–2	제9차 한·중 수산당국간 어업실무회담
12.10–14	추규호 아·태국장 중국 방문
12.13	제4차 한·중 문화공동위원회(서울)
12.13–22	외교부 출입기자단 방중
12.14–19	인지쭤(尹繼佐) 상하이사회과학원장 방한(21세기 초청사업)
12.17–19	한화갑 새천년 민주당 최고위원 방중
12.17–21	가오궈주(高國珠) 랴오닝성(遼寧省) 부성장 방한
12.16–27	제10차 한·중 수산당국간 어업실무 회담

2001

1.3–4	왕광야(王光亞) 중국 외교부 부부장 방한
1.15–20	김정일 북한노동당 총비서 겸 국방위원장 방중
2.12–15	박명환 국회 통외통위 위원장 방중

2.21–27	이인제 민주당 최고위원 방중
2.28–3.3	길형보 육군 참모총장 방중
3.5–9	류순야오(劉順堯) 중국 공군사령관 방한
3.12–14	한명숙 여성부장관 방중
3.13–17	천정가오(陳政高) 선양시장 방한
3.22–23	제7차 한·중 환경협력공동위(제주도)
3.30–4.3	바이커밍(白克明) 인민일보사장 방한
4.2–3	한·중 어업실무회담(베이징)
4.5–5.7	한·중 어업협정 차관급회담(베이징)
4.6–8	제3차 한·중·일 3국 환경장관회의(베이징)
4.9–12	다이빙궈(戴秉國) 중국공산당대외연락부(중련부) 부장 방한(21세기 초청사업)
4.17–20	양승택 정보통신부장관 방중
4.18–22	리빙차이(李炳才) 국무원 대만판공실 부주임 방한
4.20–21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 방중
4.21–27	창커런(常克仁) 중국 문화부 특별부장조리 방한
4.24–26	장재식 산업자원부장관 방중
5.8–9	제6차 한·중 조약국장회담(서울)
5.12–13	리톄잉(李鐵映)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방한
5.23–27	리펑(李鵬) 중국 전인대상무위원장 방한
5.25–29	김중권 민주당 대표 최고위원 방중
5.26	제3차 ASEM 외무장관회의 계기 한·중 외교장관회담(베이징) – 한승수 외교장관/탕자쉬안(唐家璇) 외교부장
6.1–3	제8차 한·중 미래포럼(경주)
6.4–10	중국공산당 중견간부(총10명) 방한
6.6–7	제10차 한·중 학술회의(외교안보연구원, 중국국제문제연구소)
6.8–10	장재식 산업자원부장관 방중
6.17–23	보시라이(薄熙來) 랴오닝성(遼寧省) 성장 방한
6.18–27	이정빈 전 외교통상부장관 방한
6.19–22	이한동 국무총리 공식 방중
6.25–26	제1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하이난다오(海南島))
6.26–29	우리 군함 상하이 방문
6.28	제5차 아주국장회의(서울)
6.30	한·중 어업협정 발효
7.3–5	이종남 감사원장 방중
7.10–14	황전둥(黃鎭東) 중국 교통부장관 방한
7.24	한·중 외교장관회담(하노이, ASEAN PMC/ARF 계기) – 한승수 외교장관/탕자쉬안(唐家璇) 외교부장

7.26	제9차 한·중 무역실무회담(베이징)
8.28	주광저우총영사관 개관
9.3–5	장쩌민(江澤民) 국가주석 방북
9.23–28	마완치(馬萬祺) 중국 정협부주석 방한
10.4	리빈(李濱) 주한중국대사(제3대) 신임장 제정
10.5–9	쉬젠페이(徐建培) 칭다오(靑島)대학 총장(21세기 초청사업)
10.8	김하중 주중대사 부임
10.10	김하중 대사(제6대) 신임장 제정
10.16	한·중 외교장관회담(상하이, APEC 회의 계기) – 한승수 외교장관/탕자쉬안(唐家璇) 외교부장
10.17–18	제13차 APEC 각료회의(상하이)
10.19	한·중 정상회담 – 제9차 APEC 정상회의(10.20–21, 상하이) 참석 계기
10.24–28	우리나라 해군함정, 중국 상하이 방문 – 92년 양국 수교이래 최초 방문
11.4	한·중 외교장관회담(브루나이, ASEAN+3 계기) – 한승수 외교장관/탕자쉬안(唐家璇) 외교부장
11.5	ASEAN+3 계기 한·중 고위급회담(브루나이) – 김대중 대통령/주룽지(朱鎔基) 총리
11.13	한·중 외교장관회담(뉴욕) – 한승수 외교장관/탕자쉬안(唐家璇) 외교부장
11.10–14	신승남 검찰총장 방중
11.14–18	리젠궈(李建國) 중국 산시성(陝西省) 당서기 방한(21세기 초청사업)
11.21	제8차 한·중 정책기획협의회(베이징)
11.22–29	최호중 외교협회장 방중
11.24–30	천톄디(陳鐵迪) 중국 상하이시 인대상무위 주임 방한
11.27–28	제6차 한·중 영사국장회의(서울)
11.27–12.1	황다런(黃達人) 중산(中山)대학 총장 방한(21세기 초청사업)
11.28	제2차 한·중 군축/비확산 협의회(베이징)
11.28–12.1	한정(韓正) 상해 부시장 방한(21세기 초청사업)
12.4–8	원스전(聞世震) 중국 랴오닝성 당서기 방한
12.5–10	쑨위시(孫玉璽) 중국 외교부 대변인 방한(21세기 초청사업)
12.10–14	천촨위(陳傳譽) 광저우시 부시장 방한(21세기 초청사업)
12.10–19	전두환 前 대통령 방중
12.13–19	김동신 국방부장관 방중
12.17–21	쩡젠후이(曾建徽) 전인대 외사위원회 주임위원 방한

2002

1.9–17	이만섭 국회의장 공식방중
1.14–19	한주빈(韓杼濱) 중국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 방한
1.14–19	리강(李剛)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 부주임 방한(자오치정(趙啓正) 국무원 신문판공실 주임 방한준비)
1.20–26	국회 한·중포럼 대표단 방중
1.20–27	중국 군사교육대표단 방한
1.21–26	이억수 공군참모총장 방중
1.22–24	임성준 차관보 방중(중국외교부 초청) – 왕이(王毅)부부장 등 면담
1.25	한·중국 마늘교역에 관한 합의서 이행을 위한 협의(베이징)
1.28–2.1	이수성 전 총리 등 21세기 한·중 교류협회 대표단 방중
1.30–2.1	김항경 외교안보연구원장 방중(중국국제문제연구소장 초청)
2.23–3.2	외교부 출입기자단 방중
3.3–7	국방부 군수대표단 방중
3.8–14	중국 영사부서시찰단 방한
3.11–13	김광웅 중앙인사위원장 방중
3.12–15	왕자루이(王家瑞) 중국공산당대외연락부(중련부) 부부장 방한
3.13	중국 전인대, 한·중 범죄인인도조약 비준
3.14	탈북자 25명, 주중스페인대사관 진입(외국공관 진입 최초)
3.19–24	중국 국방대학 교장 방한
3.20–28	강영훈 전총리 내외 방중
3.22–30	박현기 국회법사위원장 방중
3.27	한·중 경제포럼(조선일보/인민일보)
3.27–29	한·중 국민교류의 해 개막식 – 우리 측, 3.27 베이징 개최(문광부장관 3.26–29 방중) – 중국 측, 3.29 서울 개최(중국문화부장 3.29–4.1 방한) * 대통령 및 주룽지(朱鎔基) 총리의 축하메시지 전달, 낭독
3.28–29	최성홍 외교통상부장관 공식방중 – 3.28 한·중 외교장관회담(베이징, 최성홍 장관/탕자쉬안(唐家璇) 외교부장)
3.29–4.1	국회 인권포럼 대표단 방중
4.5–10	중국 장쑤성(江蘇省) 인대 주임 일행 방한 – 전라북도 도의회 의장 초청
4.12–13	이한동 총리, 보아오(博鰲)포럼 참석 – 4.12 한·중 총리회담(이한동 국무총리/주룽지(朱鎔基) 총리)
4.15	장쩌민(江澤民) 중국 국가주석, 주룽지(朱鎔基) 중국총리의 김대중 대통령 앞 위로전(부산 중국 민항기 CA129 추락사건 관련) 접수
4.15–22	국세청장 방중

4.16	김대중 대통령의 장쩌민(江澤民) 중국 국가주석 앞 답전(부산 중국민항기 CA129 추락사건 관련) 송부
4.16–19	제3차 AAPP(평화를 위한 아시아의회연합) 총회 개최(베이징, 충칭) – 이만섭 국회의장 등 참석, 리펑(李鵬) 상무위원장 면담
4.19–20	한·중·일 환경장관 회의(서울)
4.21–28	국방대학교 총장 방중
4.22–26	중국형사정찰국장 방한
4.23–24	한·중·일 경찰(인터폴) 회의(서울)
5.8	중국 북방항공 소속 여객기(CJ6136) 추락사고 관련, 장쩌민(江澤民) 중국 국가주석 앞 김대중 대통령 명의 위로 전문 발송
5.8–11	중국 동해함대 해군함정 2척 최초 방한
5.9–10	제6차 한·중 아주국장 회담(베이징) – 추규호 아·태국장/푸잉(傅瑩) 아주국장
5.9–11	스광성(石廣生) 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부장 방한
5.9–11	제1차 한·중 투자협력위(상하이)
5.9–16	황병기 감사원 사무총장 방중
5.13–14	한·중 경제장관회의(베이징)
5.13–18	유엔 한국협회 대표단 방중(회장 : 이상옥 전 장관) – 중국유엔협회 초청
5.13–14	한·중 국제학술회의(외교안보연구원)
5.14	한·중 원자력 공동위 실무위(서울)
5.14–17	류커톈(劉克田) 랴오닝성(遼寧省) 부성장 방한(경기도지사 초청) – 5.14 차관 접견
5.15–16	제9차 한·중 미래포럼 개최(중국 우루무치)
5.15–16	한·중 영사협정 회담(베이징)
5.16	장쩌민(江澤民) 중국 국가주석의 김대중 대통령 앞 답전(중국 북방항공 소속 여객기(CJ6136) 추락 사건 관련)
5.17–18	국회 문화관광위 대표단 방중(단장 : 고흥길 의원)
5.20	김대중 대통령 앞 장쩌민(江澤民) 중국 국가주석의 답전 접수
5.22–27	자오치정(趙啓正) 국무원 신문판공실주임 방한(국정홍보처장 초청)
5.23–29	박찬주 법제처장 방중(중국 국무원 법제판공실 주임 초청)
5.26–6.1	중국 제2군의대학교장 방한
5.31–6.4	쉬중톈(許中田) 중국 인민일보 사장 방한 – 6.3 대통령 인터뷰
6.2–8	김병호 중앙공무원 교육위원장 일행 방중(중국 인사부 초청)
6.5–7	이태식 차관보 방중(중국외교부 초청), 왕이(王毅) 부부장 등 면담
6.5–9	자오화융(趙化勇) 중국 CCTV 사장 방한 – 6.7 김대중 대통령 인터뷰

6.7–11	한·중 수교시 중국 측 유공인사 방한 – 쉬둔신(徐敦信) 전인대 외사위 부주임, 장루이제(張瑞杰) 전직외교관연의회 상무이사, 장팅옌(張庭延) 전주한대사 내외
6.11–16	류훙차이(劉洪才) 중국공산당대외연락부 부비서장 방한(외교부 초청, 지방선거 관찰)
6.12–14	제6차 한·중 산업협력위(서울)
6.12–15	한메이린(韓美林) 예술가협회 이사 방한
6.13–16	제9차 한·중 정책기획협의회(서울)
6.19	ACD회의 참석 계기 한·중 외교장관회담(방콕) – 최성홍 외교통상부장관/탕자쉬안(唐家璇) 중국 외교부장
6.20–21	한·중 EEZ 경계획정회담(베이징)
6.26–28	한·중 중남미국장 회담(서울)
7.1–5	한승수 유엔총회의장 방중
7.2–8	쑨즈쥔(孫志軍) 중국 양저우(揚州)시 당서기 방한(외교부 초청)
7.10–11	한·중 황해환경 공동조사 실무회의(칭다오)
7.15–19	한광옥 최고위원 등 민주당 대표단 방중 –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 초청
7.22–25	성락식 경찰차장 중국·몽골 방문
7.23–28	중국 친선 군사대표단 방한(단장 : 장원타이(張文台) 중장)
8.1–6	이강두의원 등 국회 여.야 대표단 방중
8.2–3	탕자쉬안(唐家璇) 중국 외교부장 방한 – 8.2 한·중 외교장관회담(최성홍 외교장관/탕자쉬안(唐家璇) 부장)
8.11	장쩌민(江澤民) 중국 국가주석 명의 김대중 대통령 앞 위로공한 접수(수해피해 관련)
8.19–21	한·중 여성교류협회(임진출 의원) 방중
8.22	중국 인민대외우호협회/중·한 우호협회 공동리셉션
8.23	한·중 수교기념 주중대사관 리셉션 –8.23 주한 중국대사관 리셉션
8.23–24	한·중 수교 10주년 경축행사 – 양국 정상 및 외교부장관간 축전 교환
8.23–28	저우허핑(周和平) 중국 문화부 부부장 방한(한·중 국민교류의 해 사업의 일환)
8.23–29	박문석 문광부 차관 방중
8.24	한·중 우호협회 주최 한·중 수교 10주년 기념 리셉션
8.24–25	한국 예술단 및 중국 예술단 교환 공연
8.26–31	권영효 국방차관 방중
8.27–9.1	신중식 국정홍보처장 방중
8.28–9.4	前중국특파원단 방중(중국 초청)
8.30	한·중 아주국장 조찬회담(서울) – 신정승 국장/푸잉(傅瑩) 중국 아주국장
9.2–5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방중
9.5–9	웨이젠궈(魏建國) 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부부장 방한
9.9–15	공군수송기 CN–235 최초 방중

9.9–15	김준범 국방홍보원장 방중
9.10–14	푸완중(傅萬中) 랴오닝성(遼寧省) 부비서장 방한(외교부 초청)
9.11–14	외교통상부–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베이징)
9.17–20	김정길 법무부장관 방중(WTO와 법률서비스국제심포지엄 참석)
9.23–25	석동연 공보관 방중(대변인 교류의 일환)
9.25–28	장몐헝(江綿恒) 중국과학원 부원장(장쩌민(江澤民) 중국 국가주석 장남) 방한 – 삼성전자 초청
9.25–29	궈루빈(郭汝斌)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質量監督檢驗檢疫總局) 부국장 방한
9.27–10.1	리톄잉(李鐵映) 중국공산당 정치국위원 방한(외교부 초청)
9.30–10.4	푸취안유(傅全有) 중국 인민해방군 총참모장 방한
10.4	중국 선양시 공안국, 양빈(楊斌) 신의주 특구 행정장관 연행(탈세, 토지불법 전용 혐의)
10.9–15	왕원위안(王文元) 중국정협부주석 방한(21세기 한·중교류협회 초청, 총리예방)
10.14–25	중국공산당 중앙당교 연수단 방한(삼성전자 초청)
10.15–19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방중
10.15–19	에드먼드 호(Edmund Ho) 마카오 행정장관 방한(외교부장관 초청)
10.16–19	한국 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소속 의원(이해찬, 이주영, 조배숙 의원) 방중
10.17–19	제1차 한·중 외교·국방 당국간 안보대화 개최(10.17 베이징) – 우리 측 : 신정승 아태국장/중국 측 : 푸잉(傅瑩) 아주국장
10.20–22	두스청(杜世成) 칭다오시 당서기 겸 시장 방한(외교부초청)
10.23–26	이재달 국가보훈처장 방중
10.27	제10차 APEC 정상회의 계기 한·중 정상회담(멕시코, 로스카보스) – 김대중 대통령/장쩌민(江澤民) 중국 국가주석
11.2–3	제3차 한·중 한국전쟁 학술연구회(푸단대학)
11.4	ASEAN+3 정상회의 계기 한·중·일 3국 총리회의 개최(캄보디아)
11.4–9	후광바오(胡光寶) 전인대 법률위 부주임위원 방한
11.7	제2차 한·중 어업공동위 개최(서울) – 박재영 해수부 차관보/양젠(楊堅) 어업국장
11.17–21	문수식 국군 기무사령관 방중
11.18–28	노태우 전 대통령 방중(인민외교학회 초청)
11.22	한·중·일 비즈니스 포럼
11.25–30	런정룽(任正隆) 인대 농업위 위원 방한
12.2–6	뤄펑(羅鋒) 공안부 부부장 방한
12.3–4	제8차 한·중 환경협력공동위원회(하이난다오(海南島))
12.17–18	한·중·일 경제공동연구회 회의(베이징)
12.27	주선양영사사무소의 총영사관 승격관련 교환각서 및 양해각서 교환(베이징)
12.28	최성홍 외교장관, 탕자쉬안(唐家璇) 중국 외교부장과 통화(북한 핵문제)

2003

1.1–3	이태식 외교부 차관보 방중
1.21	제5차 한·중 문화공동위원회(베이징)
2.12–14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고위대표단 방중 – 단장 : 이해찬 새천년민주당의원
2.24–26	첸치천(錢其琛) 부총리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방한
3.6–7	한·중 어업지도단속회의
3.26–28	정동영 의원 등 민주당 의원단 방중(베이징)
3.25–29	왕융성(王永生) 칭다오 당 선전부장 방한(미래지향적 교류사업)
3.28	재외동포법 개정안 공청회(14:00, 국회 소회의실)
4.2–3	라종일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 방중
4.10–12	윤영관 외교통상부장관 방중 – 4.10 한·중 외교장관회담(베이징)
4.15	한·중 영사국장회담(서울)
4.21–23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방중
4.22–26	위정성(兪正聲) 당 정치국위원 겸 후베이성 당서기 방한(미래지향적 교류사업)
4.25	제10차 한·중 경제공동위원회(서울)
4.29	주선양총영사관 개관
5.10–12	왕이(王毅) 외교부 부부장 방한
5.20–21	이수혁 외교부 차관보 방중
6.18	ARF/ASEAN+3 계기 한·중 외교장관회담(캄보디아)
6.19–21	정대철 민주당대표 방중
6.24–29	중국 공군수송기 최초 방한
6.25–28	라종일 청와대 대통령국가안보보좌관 방중
6.28–30	이수혁 차관보 방중
7.2	한·중 수산고위급회담(베이징)
7.7–10	노무현 대통령 국빈방중 – 7.7 한·중 정상회담 및 외교장관회담(베이징)
7.15–21	한·중의원외교협의회 대표단 방중(임채정 민주당 의원 등 12명)
7.21–25	한나라당 국회의원단 방중(단장: 서청원 의원)
7.23	한·중 외교장관회담(인니 발리, 제5차 ASEM 외무장관회의 계기)
8.13–15	리자오싱(李肇星) 중국 외교부장 공식방한 – 8.13 한·중 외교장관회담(서울)
8.14–20	리위안차오(李源湖) 장쑤성(江蘇省) 당서기 방한(미래지향적 교류사업)
8.16–22	중국 외교학원 학생대표단 방한(미래지향적 교류사업)
8.24–31	외교안보연구원–국제문제연구소 간 학술회의(베이징)
8.25–29	보훙쿠이(薄宏奎) 헤이룽장성(黑龍江省) 정법위 부서기 방한(미래지향적 교류사업)

8.27–29	이수혁 차관보 방중
9.2–4	우방궈(吳邦國) 전인대 상무위원장 방한(왕이(王毅) 부부장 수행)
9.16–20	뤼쭈산(呂祖善) 저장성(浙江省) 성장 방한(미래지향적 교류사업)
9.22–26	첸궈량(錢國良) 랴오닝성(遼寧省) 당조직부 부부장 방한(미래지향적 교류사업)
9.22–30	박관용 국회의장 방몽, 방중
10.7	ASEAN+3 회의 계기 한·중 정상회담(발리) – 노무현 대통령/원자바오(溫家寶) 총리 회담
10.7–8	한·중 조약국장회의(제주)
10.7–11	추샹둥(楚向東) 랴오닝성(遼寧省) 무경총대 부총대장 방한(미래지향적 교류사업)
10.16–17	제10차 한·중 정책기획협의회(베이징)
10.18	제11차 APEC 정상회의 계기 한·중 외교장관회담(태국)
10.19	제11차 APEC 정상회의 계기 한·중 정상회담(태국) – 노무현 대통령/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
10.18–24	황화화(黃華華) 광둥성(廣東省) 성장 방한(미래지향적 교류사업)
10.24–29	장가오리(張高麗) 산둥성(山東省) 당서기 방한(미래지향적 교류사업)
10.26–28	홍콩 정무사장 방한
10.29–31	우방궈(吳邦國) 전인대 상무위원장 방북
11.2–7	런하이선(任海深) 안후이성(安徽省) 부성장 방한
11.6	중앙당교 연수단 외교부 방문
11.9–12	다이빙궈(戴秉國) 외교부 상무부부장 방한
11.9–12	보시라이(薄熙來) 랴오닝성(遼寧省) 성장 방한
11.11–15	서정화 통외위위원장 방중
11.14–16	우창위안(吳昌元) 하이난성(海南省) 부성장 방한(미래지향적교류사업)
11.20–25	탄자린(譚家林)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 부비서장 방한(미래지향적 교류사업)
11.21	제2차 한·중 중남미국장회의(베이징)
11.26	제11차 한·중 무역실무회담(베이징)
12.12–13	이수혁 차관보 방중
12.16–19	중국 중견학자 대표단 방한(미래지향적 교류사업)
12.28	한·중·일 아주국장회의(서울)
12.29	제7차 한·중 아주국장회의(서울)

2004

1.29	제2차 FEALAC 외무장관회의 계기 장관–왕이(王毅) 부부장 면담
2.9	제1차 한·중 경제통상협력 공동연구(서울)
2.13–15	왕이(王毅) 외교부 부부장 방한
3.9–13	21세기 한·중 미래지향 교류사업 대표단 방한

3.16–17	이수혁 차관보 방중
3.16–20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 간부 방한(한·중 미래지향 교류사업)
3.23–25	리자오싱(李肇星) 외교부장 방북
3.28–30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 공식 방중 – 3.29 한·중 외교장관회담(베이징)
4.6–10	21세기 한·중 미래지향 교류사업 대표단 방한
4.18–21	김정일 북한노동당 총비서 겸 국방위원장 방중
4.20–27	왕윈쿤(王雲坤) 지린성(吉林省) 당서기 방한
4.20–24	뤄칭취안(羅淸泉) 후베이성(湖北省) 성장 방한
4.25–5.3	한위췬(韓寓群) 산둥성(山東省) 성장 방한
4.25–29	궈진룽(郭金龍) 시짱(西藏)자치구(티베트) 당서기 방한
4.29–5.1	닝푸쿠이(寧賦魁) 북핵담당대사 방한
5.11–15	21세기 한·중 미래지향 교류사업 대표단 방한
5.25–29	21세기 한·중 미래지향 교류사업 대표단 방한
6.15–19	21세기 한·중 미래지향 교류사업 대표단 방한
6.16–19	최영진 외교통상부 차관 방중
6.17	제11차 한·중 경제공동위원회(베이징)
6.19–23	류훙차이(劉洪才)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 부부장 방한
7.1	PMC 계기 한·중 외교장관회담(자카르타)
8.1–3	닝푸쿠이(寧賦魁) 북핵담당대사 방한
8.1–5	중국 외교부 기자단 방한
8.10–14	21세기 한·중 미래지향 교류사업 대표단 방한
8.22–24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부부장 방한 – 고구려사 문제관련 구두양해사항 합의
8.24–25	이수혁 외교통상부 차관보 방중
8.26–30	자칭린(賈慶林) 중국 정협주석 방한
9.3–5	국내 4당 대표단, 제3차 아시아정당대회 참석(베이징)
9.6–9	왕진산(王金山) 안후이성(安徽省) 성장 방한
9.7–11	21세기 한·중 미래지향 교류사업 대표단 방한
9.10–13	리창춘(李長春)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방북
10.5–9	당정 차세대 대표단 방한(한중 미래지향 교류사업)
10.7	ASEM 정상회의 계기, 대통령 –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면담(하노이)
10.15	제8차 한·중 영사국장회의(칭다오)
10.13–14	닝푸쿠이(寧賦魁) 북핵담당대사 방한
10.17–23	장원웨(張文岳) 랴오닝성(遼寧省) 성장 방한
10.18–20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방중
10.20–29	위윈야오(虞雲耀) 중앙당교 수석부교장 방한

10.21–22	제11차 한·중 정책기획협의회(서울)
10.25–26	한·중 어업공동위 제1차 국장급준비회의(베이징)
10.25–30	리더주(李德洙) 국가민족사무위원회 주임 방한
11.1–6	저우창(周强) 공산주의 청년단 제1서기 방한
11.19	제12차 APEC 정상회의 계기 한·중 정상회담(칠레)
11.20	제12차 APEC 각료회담 계기 한·중 외교장관회담(칠레)
11.18–23	천즈리(陳至立) 국무위원 방한
11.25	한·중 경제통상협력비전 공동연구 제3차 회의(서울)
11.29	ASEAN+3 정상회의 계기 노무현 대통령 –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면담(라오스)
12.6	제12차 한·중 무역실무회담(서울)
12.6–11	제4차 한·중 지도자포럼 대표단 방한
12.13–16	첸치천(錢其琛) 전부총리 방한
12.15–18	제9차 한·중 조약국장회의(베이징)
12.21–24	정동영 통일부장관 방중

2005

1.5	ASEAN 특별정상회의 계기 한·중 총리회담(자카르타)
1.11–13	장보린(張柏林) 중국 인사부장 방한
2.2–4	권인혁 국제교류재단 이사장 방중
2.17–18	송민순 외교통상부 차관보 방중
2.17–20	쑨야푸(孫亞夫)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부주임 방한
2.19–21	왕자루이(王家瑞) 공산당 대외연락부장 방북
2.25–27	기획관리실장 방중(주청두총영사관 개관식 참석)
2.26	주청두총영사관 개관
3.2	한·중 외교부 북미국장회의(서울)
3.2–4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부부장 방한
3.8–12	21세기 한·중 미래지향 교류사업 대표단 방한
3.11–12	이종석 NSC 사무차장 방중
3.11–14	이상경, 신학용 등 열린우리당의원 방중(산둥대학교 초청)
3.16–18	문정인 동북아시대위원장 일행 방중('한반도 WMD 확산방지 관계국 전문가 회의' 참석)
3.20–23	중국 외교부 중견간부 대표단(7명) 방한 – 단장 : 관무(管木) 외교부 아주사 부사장(ASEAN 담당)
3.21–25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대표단 방중(베이징, 선전(深圳))
3.22–27	박봉주 북한 총리 방중
3.28–29	송민순 외교통상부 차관보 방중
3.30–4.2	윤광웅 국방부 장관 방중

3.30	한·중 국방장관회담
3.31–4.5	리진짜오(李金早) 광시자치구 부주석 방한
4.1–5	천펑샹(陳鳳翔) 대외연락부 부장조리 방한(열린우리당 전당대회 참관)
4.6	ACD회의 계기 한·중 외교장관회담(파키스탄)
4.9–15	왕민(王珉) 지린성(吉林省) 성장 방한
4.20–24	제2차 한·중 여성지도자 포럼 – 주리란(朱麗蘭) 전인대 교육·과학·문화·위생 위원회위원장 등 대표단 8명
4.25–29	제3차 한·중 안보포럼(베이징)
4.29	제4차 한·중 경제통상협력비전 공동연구회의(광저우)
5.6	제7차 ASEM 및 ASEAN+3 외교장관 회의 계기 한·중 외교장관 회담(교토)
5.8	'제2차 세계대전 승전 60주년' 기념행사계기 한·중 정상회담(모스크바)
5.10–12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방중
5.10–14	한·중 친선국회의원 대표단 방중(중련부초청) – 단장 : 박희태 국회의장(총 13명)
5.10–14	이미경 국회문광위원장 방중(인민대학초청)
5.11–15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일행 방중 – 단장 : 이재정 평통 수석부의장(총 7명)
5.14–15	문정인 동북아시대위원장, 「제4회 선양한국주」 행사 참석차 방중
5.17–21	21세기 한·중 미래지향 교류사업 대표단 방한(중련부 대표단)
5.19–22	박유철 국가보훈처장 방중
5.21–27	샤겅(夏耕) 칭다오시 시장 방한
5.22–26	쑨서우푸(孫守璞) 산둥성(山東省) 부성장 제6차 정부혁신세계포럼 참석차 방한
5.23–25	이건무 국립중앙박물관장 방중
5.23–27	화젠민(華健民) 국무원 비서장 제6차 정부혁신세계포럼 참석차 방한
5.23–28	10차 한·중 국방학술회의(베이징)
5.23–28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방중
5.25–29	차이우(蔡武) 중련부 부부장, 제4차 아시아 정당 국제회의 상임중앙 위원회 회의 참석차 방한
5.27–31	한나라당 이재웅, 이계진 의원 외 9명 방중(산둥성 초청)
5.29–31	리사오광(李少光) 홍콩 특별구정부 보안국장(장관급)방한
5.30	제6차 한·중 문화공동위(서울)
5.30–6.2	류신성(劉昕生) 외교부 섭외안전국(涉外安全司) 부국장(副司長) 방한
6.1–4	보시라이(薄熙來) 상무부장 제11차 APEC 통상장관회의 참석차 방한
6.4–5	송민순 외교통상부 차관보 방중
6.8–11	정비젠(鄭必堅) 개혁개방포럼 이사장 방한 – 제3차 제주평화포럼 참석차 6.7–9 제3차 한·중 수산고위급회담(베이징)
6.9–14	첸치천(錢其琛) 전부총리 방한(제주평화포럼 참석)

6.13–14	제10차 한·중미래포럼 – 루추텐(盧秋田) 중국인민외교학회장 등 15명 방한
6.14–18	21세기 한·중 미래지향 교류사업 대표단 방한
6.20–23	송민순 외교통상부 차관보 방중
6.21–23	이해찬 국무총리 방중
6.24	한덕수 부총리, 제5차 한·중 경제장관회의 참석(베이징)
6.25–26	한덕수 부총리, ASEM 재무장관회의 참석(텐진)
7.4–6	고건 前총리 「2005 중국 하얼빈 한국주」 행사 참석차 방중(하얼빈시 초청)
7.6–15	중국 청소년(청년)대표단 제1진 197명 방한
7.8–12	자오커즈(趙克志) 산둥성(山東省) 부성장 방한(유력인사 초청사업)
7.11–14	동북아시대위원회 대표단 방중
7.14	제9차 한·중 조세정책회의(중국)
7.16–17	송민순 외교통상부 차관보 방중
7.18–24	시진핑(習近平) 저장성(浙江省) 당서기 방한(유력인사 초청사업)
7.25–30	남궁석 국회사무총장 중국 전인대 공식방문(상하이, 베이징)
7.27	ASEAN+3 PMC/ARF 외무장관회의 계기 한·중 외교장관회담(라오스)
8.4–7	왕타이화(王太華) 국가 라디오.영화. 텔레비전총국(廣播電影電視總局) 국장 방한
8.8–12	쑨자정(孫家政) 문화부장 방한
8.9–13	21세기 한·중 미래지향 교류사업 대표단 방한
8.11–13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방중 – 8.12 한·중 외교장관회담(서울)
8.11–18	주중대사관과 광시좡족(廣西壯族)자치구 청두(成都) – 난닝(南寧) 간 한국영화주간 및 문화관광사진전 개최
8.25–28	우젠민(吳建民) 중국 외교학원 원장 방한
8.25–9.2	중국 공무원 대표단(30명) 방한 – '2005–2007 한·중 문화교류계획'에 의거
8.26	제12차 한·중 정책기획협의회(지난(濟南)) – 김원수 외교통상부 정책기획관/두치원 정책연구국장
8.26–27	추이톈카이(崔天凱) 외교부 아주국장 방한(한·중 아주국장회의)
8.29–9.1	장하진 여성부장관 방중(베이징, 제4차 세계여성회의 10주년기념 회의 참석)
8.31–9.1	한·중 투자보장협정 개정 회의(서울)
9.1–4	이홍구 전 총리 방중(중국인민외교학회 초청)
9.3–8	청쓰웨이(成思危) 전인대 부위원장 방한(한국 PECC 초청)
9.3–8	이수성 전총리 방중(제5회 한·중 저명인사포럼 참석)
9.3–16	강신욱 대법관, 제22차 세계 법률가대회(9.4–10) 참석 계기 방중
9.7	제2차 세계국회의장회의 계기, 한·중 국회의장 회담(뉴욕)
9.7–13	한완상 대한적십자사 총재 방중

9.8	제12차 한·중 경제공동위(서울)
9.19–23	제4차 한·중투자보장협정 개정회의
9.20	제60차 유엔총회 계기, 한·중 외교장관회담 개최(뉴욕)
9.20–24	21세기 한·중 미래지향교류사업 대표단(11명) 방한
9.21–26	쉬둔신(徐敦信) 前 중국 외교부 부부장 방한
9.22–24	문희상 열린우리당 의장 방중
9.25–30	외교부 출입기자단(10명) 방중
9.26	닝푸쿠이(寧賦魁) 주한중국대사(제4대) 신임장 제정
9.26–30	리커창(李克强) 랴오닝성(遼寧省) 당서기 방한(유력인사 초청사업)
9.26–27	충청남도 심대평 지사 방중 – 우호협력 합의서 서명(지린성(吉林省) 창춘(長春))
10.8–11	우이(吳儀) 중국 부총리 방북
10.9–12	제8차 세계화상대회(서울)
10.10–16	한국외교협회 대표단 방중(중국 전 외교관 연의회 초청)
10.11–16	왕화이천(王懷臣) 쓰촨성(四川省) 부성장 방한(유력인사 초청사업)
10.13	한·중 외교부 북미국장회의(베이징)
10.13–19	노옥섭 감사위원 방중
10.16–23	한태규 외교안보연구원장 방중
10.20–22	최영기 한국노동연구원장 방중(제4차 동북아 노동포럼 참석)
10.28–30	리빈(李濱) 북핵담당 대사 방한
10.28–30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 방북
10.30–11.1	유명환 제1차관 방중 – 제3차 EAF 참석, 한중 외교차관 회담(10.31)
10.30–11.1	제1회 서울–베이징 포럼 – 서울국제포럼·중국인민외교학회 공동주최(서울)
11.3–7	유홍준 문화재청장 방중
11.15	APEC 통합각료회의 계기, 한·중 외교장관회담(부산)
11.16–17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국빈방한
12.6–7	제10차 한·중 조약국장회담(서울)
12.12	ASEAN+3 정상회의 계기, 대통령–원자바오(溫家寶) 총리와의 양자회담(말레이시아)
12.12–13	손학규 경기도지사 방중(광저우)
12.14–17	권욱 소방방재청장 방중
12.15	제6차 한·중무역구제 협력회의(베이징)
12.19	제1차 한·중 교육국장회의(서울)
12.19–23	21세기 한·중 미래지향 교류사업 대표단 방한
12.22–24	이규형 제2차관 방중
12.24–27	노두철 북한 내각부총리 방중

2006

1.8–14	김원기 국회의장 방중 – 한·중 의회간 교류협력의정서 체결
1.10–18	김정일 북한노동당 총비서 겸 국방위원장 방중
1.18	'한·중 품질감독검사검역 협의체' 제1차 회의(베이징)
1.19–21	천정배 법무부 장관 방중('한·중 출입국 관리 당국간 협력에 관한 양해 각서' 서명식 참석)
2.12–15	첸치천(錢其琛) 前부총리 방한(중앙일보 주최 '東北亞名人會' 참석 계기)
2.22–23	이수훈 동북아시대위원장 방중(중국 개혁·개방 논단 초청)
3.9–11	천영우 외교통상부 외교정책실장 방중
3.18–28	장성택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방중
3.20	딩쿠이쑹(丁奎松) 개혁개방논단 부이사장 방한 – 동북아시대위원회 주최 한·중전략대화(3.22–24) 참석차
3.20–24	21세기 한·중 미래지향교류사업 대표단 방한
3.22	한·중 외교부 아주국장회의(베이징)
3.27–4.1	손학규 경기도 지사 방중
3.31	제13차 한·중 무역실무회담(베이징)
4.4–4.5	국제문제연구소–외교안보연구원 제15차 학술회의 – 주제 : '21세기 동아시아 안보와 한중관계'(서울)
4.15–19	차오강촨(曹剛川) 국방부장 방한
4.24–28	첸샤오첸(錢小芊) 국무원 신문판공실 부주임 중국의 '感知中國' 행사 홍보차 방한
4.25–30	지젠예(季建業) 양저우시(揚州市) 당서기 방한
5.2–7	추이리루(崔立如)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원 원장 방한(국제문제조사 연구소 초청)
5.22–26	21세기 한·중 미래지향 교류사업 대표단 방한
5.22–25	유명환 외교통상부 제1차관 방중
5.23	ACD회의 계기 한·중 외교장관회담(도하) – 반기문 외교장관/리자오싱(李肇星) 외교부장
5.23–26	왕훙쥐(王鴻擧) 충칭(重慶)시장 방한
5.24–6.2	제1차 중국 청년대표단 방한(대표단 100명, 단장 : 한즈창(韓志强) 외교부 판공청 부주임
5.26	한·중 통상장관회담(서울) –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보시라이(薄熙來) 상무부장
5.30–6.6	백남순 북한 외무상 방중
5.31–6.3	탄자린(譚家林) 중련부 부장조리 방한(제4차 아시아정당국제회의 참석)
6.9	ASEAN+3 계기 제2차 한중 외교안보대화(서울)
6.13	제9차 한중영사국장회담(서울)
6.26–27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방중 – 6.27 한·중 외교장관회담(베이징)

6.30–7.3	제11차 한중미래포럼 – 참가인원 : 한·중 양국 각 15명 내외 – 주관기관 : 한국국제교류재단, 중국인민학회
6.30–7.3	김원웅 통외통위 위원장 방중(제11차 한중미래포럼 참석)
7.5–14	제2차 중국 청년대표단 방한(대표단 : 200명) – 단장 : 장샤오란(張曉蘭) 중화전국청년연합회 부주석
7.2–5	김재홍 의원 등 열린우리당 의원 9명 하얼빈 방문 – 제2회 하얼빈 한국주 행사참석
7.6–11	사오치웨이(邵琪偉) 국가여유국장 등 10명 방한(문화관광부 초청)
7.10–14	후이량위(回良玉) 중국 부총리 방북
7.11–15	양형섭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방중
7.12–16	이용희 국회부의장 등 초당파 의원 12명 방중(중련부 초청)
7.18–22	외교부 중견간부대표단 방중(단장 : 김명진 아태연구부장)
7.26	ASEAN ARF 계기 한·중 외교장관회담(쿠알라룸푸르)
8.1–5	추궈훙(邱國洪) 아주국 부국장 방한
8.2–5	류젠차오(劉建超) 외교부 대변인 방한
8.2–6	중국공산당 청년간부대표단 방한(21세기 한중 미래지향 교류사업)
9.4–8	류젠펑(劉劍鋒) 정협 외사위원장 방한(국회 통일외교 통상위원회 초청)
9.5–9	류윈산(劉雲山) 당 선전부장 방한(유력인사 초청사업) – 제4차 아시아정당대회(9.7–10) 참석 계기
9.8–16	왕중위(王忠禹) 정협 부주석 방한 – 경제사회이사회 국제기구 회의 참석
9.10	ASEM 계기 노무현 대통령–원자바오(溫家寶) 총리 회담(헬싱키)
9.11	ASEM 계기 한·중 외교장관회담(헬싱키)
9.18	'한·중 교류의 해' 준비를 위한 제2차 한·중 심의관 협의(베이징)
9.18–22	21세기 한·중 미래지향 교류사업 대표단(11명) 방한
9.19–22	쉬쭝헝(許宗衡) 선전(深圳)시장 방한(유력인사 초청 사업)
9.26–30	우윈치무거(烏雲其木格)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방한 – 한·중 의회 정기교류 제1차 회의
9.29–10.1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부부장 방한
10.13	노무현 대통령 실무 방중
10.16–22	뤄하오차이(羅豪才) 정협 부주석 겸 중한우호협회 회장, 양원창(楊文昌) 중국인민외교학회 회장 방한 – 제6차 한중 지도자 포럼 참석
10.22–25	김진선 강원도지사 방중
10.23–27	한중 미래지향 교류사업 5차 방한단(12명) 방한 – 경제, 정부개혁 인사 초청 방한
10.23–11.7	하오스진(郝時晋) 중공 중앙당 교무위원회 비서장 외 공산당 연수단 방한 – 방한계기 : 삼성전자 초청

10.24–30	이용훈 대법원장 방중(베이징, 상하이) – 방중계기 : 중국 최고인민법원장 초청
10.27–28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내정자 겸 외교부장관 방중 – 10.27 한·중 외교장관회담(베이징)
10.28–11.3	장쭤지(張左己) 헤이룽장성(黑龍江省) 성장 방한(유력인사 초청사업)
11.5–13	중국공산당 당 건설간부 시찰단 방한(중련부 측의 방한 초청 제의 수락)
11.7–9	제6차 한중 어업공동위 실무회의(베이징)
11.8–13	한·중 외교부 출입기자단 교류사업 중국 대표단 방한(서울, 부산, 제주)
11.16–20	천쉰추(陳訓秋) 중국 사법부 부부장 외 일행 6명 방한
11.17	APEC 계기 한·중 정상회담(하노이)
11.19	APEC 계기 송민순 외교장관 내정자와 리자오싱(李肇星) 외교부장간 회담(하노이)
11.22–26	주시안총영사관 개설 조사단 파견
11.24	'2007 한중 교류의 해' 실무협의회 개최(베이징)
12.4–6	정동영 열린우리당 전 의장 방중 – 대표단 : 박명광, 박영선, 우윤근 의원 등 8명
12.6–7	한중 EEZ 회담(베이징)
12.6–12	행정자치부 제1차관 방중
12.7–10	하반기 중국지역 공관장 회의(베이징)
12.11–13	제6차 한·중 어업공동위 개최(서울)
12.12	제13차 한중 정책기획협의회(제주도)
12.12–15	한중 미래지향 교류사업 6차 방한단(6명) 방한
12.13	제13차 한·중 경제공동위(베이징) – 김중근 통상교섭조정관/천젠(陳健) 상무부 부장조리
12.13–15	베이징시 공안국장(차관급) 방한 – 방한단 : 마전촨(馬振川) 공안국장 외 6명
12.13–19	홍경식 법무연수원 연수원장 등 5명 방중
12.15	'2007 한중 교류의 해' 자문위원 위촉 및 홍보대사 임명 행사
12.15–17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 방중
12.20–24	변재진 보건복지부 차관 방중

2007

1.11	ASEAN+3 계기 한·중 외교장관회담(필리핀 세부)
1.14	ASEAN+3 계기 한·중 정상회담(필리핀 세부)(노무현 대통령–원자바오(溫家寶) 총리)
1.25–27	송민순 외교통상부장관 방중 – 1.25 한·중 외교장관회담(베이징)
2.23	야태국장, 먀오웨이청(繆衛誠) 중국 당대외연락부 부국장 면담(서울) – 아시아정당국제회의(ICAPP) 상임위원회 참석(2.23–27)

3.8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국무원 총리 방한 준비전문가 자문회의 개최(제1차관 주재)
3.23	주광주 중국 영사사무소 개소
4.3	제14차 SAARC 정상회의 옵저버 참가 계기 한·중 외교장관회담(뉴델리) – 송민순 외교장관/리자오싱(李肇星) 외교부장
4.5–6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방중 – 중국 사회과학원 방문 및 상호 관심사 협의(4.5)
4.5–8	한창푸(韓長賦) 지린성(吉林省) 성장 방한(유력인사 초청사업) – 한국산업은행 초청
4.8–11	황리만(黃麗滿) 광둥성(廣東省) 인대위 상무위원회 주임 방한(경기도 초청) – 이용희 국회부의장 예방(4.9)
4.8–14	중국 국가임업국장 방한
4.10–11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국무원총리 공식 방한
4.10	2007 한·중 교류의 해 개막식(서울)
4.19	역사 현안 관련 청와대 주관 점검회의
4.25–26	제16차 한·중 학술회의
4.26–5.1	이용희 국회부의장 방중 – 한·중 의회 정기교류 제2차 회의
5.3	이라크컴팩트(ICI) 출범회의 계기 한·중 외교장관회담(이집트) – 송민순 외교장관/양제츠(楊潔篪) 외교부장
5.14–18	장하진 여성가족부 장관 일행 방중(베이징, 칭다오)
5.16	제3차 한·중 외교·안보대화(베이징)
5.19	제1차 한·중·일 외교부 고위급 회의
5.21–25	제1차 21세기 한·중 미래지향 교류사업
5.28	제8차 ASEM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중 외교장관회담(독일 함부르크)
6.3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중 외교장관회담(제주)
6.4–7	이용훈 대법원장 방중(홍콩) – 제12차 아태 대법원장 회의 참석
6.6–9	구슈롄(顧秀蓮) 중국 전인대 부위원장 방한 21C 한·중교류협회 초청으로 방한
6.11	제14차 한·중 무역실무회담(서울)
6.12–15	지젠예(季建業) 중국 장쑤성(江蘇省) 양저우시(揚州市) 당서기 방한 – 21C 한·중교류협회 초청으로 방한
6.13–22	'07년 제2차 중국 청년대표단(99명) 방한
6.14–17	상반기 중국지역 공관장 회의(홍콩, 광저우)
6.15	제12차 한·중 환경협력공동위원회
6.18–22	제2차 21세기 한·중 미래지향 교류사업
6.27–28	백종천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방중
6.27	차관보, 주다청(朱達成) 중국 국제교류협회 부회장 면담 –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초청으로 방한(6.24–7.1, 서울, 제주, 부산)

7.2–4	양제츠(楊潔篪) 외교부장 방북
7.5–13	임채정 국회의장 중국·몽골 공식 방문
8.2	ARF 계기 한·중 외교장관회담(마닐라)
8.22	한·중 수교 15주년 기념 리셉션
8.24	한·중 수교 15주년 기념 축전 교환 – 정상간, 총리간 및 외교장관간 교환
9.2–5	자오더취안(趙德全) 중국 산시성(陝西省) 부성장 방한
9.7	APEC 계기 한·중 정상회담(시드니)
9.8	APEC 계기 한·중 외교장관회담(시드니)
9.20	주시안총영사관 개관식
9.28	UN 총회 계기 한·중 외교장관회담(뉴욕)
10.9–10	윤병세 청와대 안보정책수석 방중
10.27	한·중·일 고위급회담 계기 한·중 외교부 차관보 회담(서울)
10.29–30	류윈산(劉雲山)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선전부장 방북
10.29–11.3	전두환 전 대통령 중국인민외교학회 초청 방중
11.6–9	중국공산당 대표단 방한(유력인사 초청사업) – 푸쓰허(傅思和) 중앙조직부 위원 등 6명
11.6–15	중국공산당 중앙당교 대표단 방한(리수레이(李書磊))중앙당교위 위원 등 53명)
11.20	ASEAN+3 정상회의 계기 한·중 정상회담 개최(싱가포르) – 노무현 대통령/원자바오(溫家寶) 총리
11.21	ASEAN+3 정상회의 계기 한·중 외교장관 조찬회담(싱가포르)
11.25–27	왕자루이(王家瑞)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장 방한(유력인사 초청사업)
12.3–7	제7차 한·중 어업공동위 개최(베이징)
12.3–7	제3차 한·중 미래지향 교류사업 대표단 방한
12.4	제12차 한·중 해양경계획정 회담 및 조약국장 회담(제주)
12.10–11	한덕수 국무총리 방중
12.10–14	제4차 한·중 미래지향 교류사업 대표단 방한

2008

1.13–16	왕이(王毅)외교부 부부장(중국정부 특사 자격) 방한
1.16–19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특사 방중 – 후진타오(胡錦濤) 주석 예방, 당선자 친서전달
1.29–2.2	왕자루이(王家瑞) 공산당 대외연락부장 방북
2.1	중국 폭설피해 관련 대통령 명의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 앞 위로전 발송
2.24–25	제17대 대통령 취임식 계기 탕자쉬안(唐家璇) 국가주석특사 방한
2.25	탕자쉬안(唐家璇) 특사, 이명박 신임대통령 예방

3.20–21	유명환 외교장관 방중 – 3.21 한·중 외교장관회담(베이징)
4.8	한·중·일 외교부 부국장급 회의(도쿄)
4.11–13	2008년 보아오 포럼(베이징)
4.19–21	정몽준 의원 방중
4.29–30	이용준 차관보 방중–한중 외교차관보 회담
5.12	쓰촨성(四川省) 지진 사태 발생 – 대통령 명의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 앞 위로전 발송
5.14–16	김병국 외교안보수석 방중
5.26–27	제1차 한·중·일 3자 협력포럼 개최(제주)
5.28	제17차 한·중 학술회의 개최(제주)
5.27–30	이명박 대통령 국빈 방중 – 5.27 한·중 정상회담(베이징)
5.27	신정승 대사(제7대) 신임장 제정
5.29	한·중·일 외교부 부국장급회의(도쿄)
6.14	제2차 한·중·일 외교장관회의(도쿄)
6.14	한·중 외교장관회담
6.17	제13차 한중 미래포럼(베이징)
6.17–19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 방북
7.1–7	한중 미래지향교류사업(문화, 언론계 인사)
7.4	제13차 한·중 해양경계획정회담(칭다오)
7.23	ASEAN+3 외교장관회의계기 한·중 외교장관회담(싱가포르)
8월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방중
8.6–8	국회 아시아문화경제포럼 대표단(박진의원) 방중(상하이)
8.8–9	이명박 대통령 베이징올림픽 개막식 참석 계기 방중
8.9	한·중 정상회담
8.13–14	양제츠(楊潔篪) 중국외교부장 공식 방한 – 8.13 한·중 외교장관회담(서울)
8.18–27	'08년도 제1차 중국 청년대표단 방한 – 단장 : 허쥔커(賀軍科) 공청단 서기(제1차관 예방)
8.19–22	국회 초당파의원 대표단 방중(문희상 국회부의장 등)
8.25–26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 국빈 방한
8.25	한·중 정상회담
9.6–7	한승수 국무총리 내외분 장애인올림픽 계기 방중
9.7	한·중 총리회담
9.10	제10차 한중 영사국장회의(베이징)
9.22	UN총회 참석계기 한·중 외교장관회담(뉴욕)

9.22–26	제8차 한·중 지도자포럼 참석 대표단 방한 – 쉬자루(許嘉璐) 전 전인대 부위원장 등
9.25	중국 유인우주선 '선저우(神舟) 7호' 발사 관련 대통령명의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 앞 축전 발송
9.29	차관보, 주한중국대사 초치, 중국 해경에 의한 우리어민 사망사건 관련 구상서 전달
10.6–12	한중 미래지향 교류사업(체육계인사)
10.14–17	따오기 인수 대표단 방중(경남도지사 등 20여 명)
10.21–22	'08년도 한중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선양)
10.25	제7차 ASEM 정상회담 계기 한·중 외교장관회담(베이징)
10.24–11.2	중국 중앙당교대표단 방한(삼성전자 초청) – 쉬웨이신(徐偉新) 중앙당교 교육부 주임 등 53명
10.26–29	김대중 전 대통령 방중(선양)
10.27–29	김문수 경기도지사 일행 방중(선양 및 허베이성(河北省)–랴오닝성(遼寧省) 정부 초청)
10.29–11.7	'08년도 제2차 중국 청년대표단 방한
10.29–30	건국 60주년 세계지도자포럼(서울)
11.2–5	왕훙쥐(王鴻擧) 충칭(重慶)시장 방한
11.3–7	제18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제1차 준비회담
11.3–8	베이징지역 우수대학생(베이징올림픽 자원봉사단 참가자)방한(제2차관 접견)
11.5–14	'08년도 제3차 중국 청년대표단 방한
11.10	청융화(程永華) 주한중국대사(제5대) 신임장 제정
11.11	한·중/한·일 어업문제 관련 대책회의 –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문제 등
11.13	2008년도 한·중 고구려역사 연구 학술회의(제주) 개최
11.18	한·중·일 부국장급 실무회의 개최(도쿄) – 제1차 한·중·일 별도 정상회의 사전준비
11.24	한·중 해/공군간 직통전화 개설
11.25–30	국회의원 대표단 방중(구상찬 의원 등)
12.2–4	제8차 한중어업공동위 및 제2차 준비회담(서울)
12.4–8	천즈리(陳至立)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등 방한
12.4	한·중 의회 정기교류체제 제3차 합동회의 – 이윤성 국회부의장/천즈리(陳至立) 전인대 상무위 부위원장 공동주재
12.7–13	한중미래지향교류사업 제3차 방한(중국 언론문화분야 인사)
12.9	제3차 한·중·일 고위급회의(도쿄)
12.11	제1차 한·중 고위급전략대화(베이징) – 권종락 제1차관/왕광야(王光亞) 외교부 부부장
12.12	제14차 한·중 해양경계획정회담
12.13	한·중·일 정상회의 계기 한·중 정상급회담(후쿠오카)
12.16–20	운남성 리지헝(李紀恒) 당 부서기 방한

12.18	중국 개혁·개방 30주념 기념식 개최 – 개혁·개방 30주년 관련 대통령명의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 앞 축하서한 전달
12.21–24	김하중 통일부장관 방중
12.24	제2차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개최(제주)
12.29–30	제15차 한·중 경제공동위(베이징)
12.29	동중국해 대륙붕한계설정관련 한·중 과장급 전문가회의(베이징)

2009

1.12–19	외교부 출입기자단 방중(베이징, 저장성(浙江省))
1.21–24	왕자루이(王家瑞) 공산당 대외연락부장 방북
2.7–11	천정가오(陳政高) 랴오닝성(遼寧省) 성장 방한 – 한·중 교류협회 초청
2.19–20	도날드 창(Tsang Yam-keun Donald) 홍콩특구 행정수반 공식 방한
2.24–25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 방중 – 2.24 한·중 외교장관회담(베이징)
3.17–21	김영일 북한 내각총리 방중
3.19–21	진영 한나라당 의원 방중 – 국제의회연맹(IPU) 아태그룹 실무회의 참석
3.22–24	국회 '아시아문화경제포럼' 대표단 방중 – 박진 외통위원장 외 3인
3.26–4.2	한국불교대표단 방중 – 제2차 불교포럼 참석 – 지관 조계종 총무원장 등
3.30–4.2	한중 차세대 정치지도자(국회의원) 대표단 방중 – 21세기 한중교류협회 주최
4.3	G20 정상회의 계기 한·중 정상회담(런던) – 이명박 대통령/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4.4–7	리창춘(李長春) 중국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방한
4.8–13	서울시장, 상하이·톈진·베이징 방문
4.11	ASEAN+3 계기 한·중 정상급 회담(태국) – 이명박 대통령/원자바오(溫家寶) 총리
4.11	ASEAN+3 계기 한·중 외교장관회담(태국)
4.20–22	리징톈(李景田) 중국 개혁개방논단 이사장 겸 중앙당교 상무부교장 방한
4.20–24	장메이잉(張梅穎) 중국 전국정치협상회의 부주석 방한 – 21세기 한중교류협회 초청 – 4.21 제6차 한·중 여성지도자 포럼
5.4–9	김대중 전 대통령 방중
5.8–13	한국 외교협회 대표단 방중(단장 : 홍순영 전 외교부장관)

5.15–19	쓰촨성(四川省) 대지진 고아대표단 방한(단장 : 리샤오린(李小林) 중국 대외우호협회 부회장)
5.25	ASEM 외교장관회담 계기 한·중 외교장관회담(하노이)
5.26–27	이상희 국방부장관 방중
6.1–2	동북아시아국장 방중(선양)
6.2–6	김황식 감사원장 방중
6.12–13	IIF(국제금융연합회) 총회 참석 계기 한승수 국무총리 방중
6.14–22	중국 청년대표단 방한 – 한국국제교류재단 초청
6.15–18	제14차 한중 미래포럼 참석 계기 양원창(楊文昌) 중국인민외교학회 회장 일행 방한
6.18	주광저우중국총영사관 개관식 – 동북아국 심의관 참석
7.7–8	한·중 관계 발전 공동연구 제1차 전체회의(베이징)
7.9–17	중국 청년대표단(공청단) 방한 – 보건복지가족부 초청
7.12–18	'09년도 제1차 중국 차세대지도자 대표단 방한
7.13–15	이윤성 국회부의장 등 국회의원 9명 방중 – 제4차 한·중 의회 정기교류
7.22	ARF 계기 한·중 외교장관회담(푸켓)
8.20–24	허융(何勇) 중국공산당 중앙서기처 서기 방한
8.22–23	탕자쉬안(唐家璇) 전 국무위원 방한 –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중국 조문특사 자격
8.24–28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방중(베이징 및 청두) – 8.25 제9차 한·중 지도자포럼
8.27–29	이홍구 전 총리 일행 방중
8.27–30	류멍슝(劉夢熊) 중국 정협위원 방한
8.31–9.1	중국지역 공관장회의(시안)
9.2	주우한총영사관 설치관련 우리 측 제안각서 전달 – 9.17 중국 측 회답각서
9.7–8	왕지쓰(王輯思)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장 일행 방한
9.13–19	'09년도 제2차 중국 차세대지도자 대표단(언론계) 방한
9.15–16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부산)
9.16–18	다이빙궈(戴秉國) 국무위원 방북
9.16–25	중국 청년대표단 방한(보건복지부 초청)
9.22–25	한·중 어업공동위 1차 준비회의(부산)
9.23	UN 총회 참석계기 한·중 정상회담(뉴욕)
9.29	제3차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중 외교장관회담(상하이)
10.4–6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방북
10.10	제2차 한·중·일 정상회의 계기 이명박 대통령 – 원자바오 총리와 양자회담(베이징)

10.19	제2차 한·중 관계 발전 전문가 공동연구 전체회의(서울)
11.1–3	왕양(汪洋)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광둥성(廣東省) 당서기 방한
11.1–9	한·중 청년우호대표단 방한(한·중 우호협회초청) – 11.4 제2차관 면담
11.2–6	한나라당 대표단 방중(베이징, 시안) – 단장 : 장광근 사무총장
11.3–6	제9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다롄)
11.4–14	중국 중앙당교 연수생 방한(삼성전자 초청)
11.8–14	한·중 미래지향교류사업 제3차 차세대지도자 초청사업
11.11–20	제3차 중국 청년대표단 방한(보건복지부 초청)
11.18–24	김형오 국회의장 공식 방중(베이징, 톈진, 시안, 홍콩)
11.22–28	후즈창(胡志强) 산시성(陝西省) 위린(榆林)시장 방한
12.5–10	샤경(夏耕) 칭다오시 시장 방한
12.9–15	장다밍(姜大明) 산둥성(山東省) 성장 방한
12.16–19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부주석 방한
12.17	제3차 한·중 관계 발전 전문가 공동연구 회의(베이징)

2010

1.1	'2010년 중국방문의 해' 계기 한·중 정상 간 메시지 교환
1.17	FEALAC 계기 한·중 외교장관회담(도쿄)
3.17–19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 공식 방중 – 3.18 한·중 외교장관회담(베이징)
3.23–27	안중근의사 순국 100주년 계기 국회 외통위 의원 대표단 방중(하얼빈, 다롄)
3.25–27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 방중(베이징)
4.5–7	제2차 한·중 차관급 전략대화(서울)
4.23	한·중관계 발전 전문가 공동연구 회의(베이징) – 최종 보고서 채택
4.25–28	왕민(王珉) 랴오닝성(遼寧省) 당서기 방한
4.30–5.1	상하이엑스포 개막식 참석 계기 이명박 대통령 방중
5.15–16	양제츠(楊潔篪) 외교부장 방한 – 5.15 한·중 외교장관회담(서울)
5.28–29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공식 방한
6.26	토론토 G20정상회의 계기 한·중 외교장관회담
6.27	토론토 G20정상회의 계기 한·중 정상회담
6.27–30	양징(楊晶) 중국 국가민족사무위원회 주임 방한
7.12–16	제2차 한·중 미래지향교류사업 대표단 방한(중국 언론분야 인사)

8.9–12	초당파 국회의원 대표단 방중(베이징, 칭다오) – 단장 : 정의화 국회부의장
8.29–31	천즈리(陳志立)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방한 – 제5차 한중 의회정기교류체제 회의
8.30–9.3	제10차 한·중 지도자 포럼 대표단 방한 – 8.31 포럼 개최
9.12–14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 방중(상하이, 텐진) – 세계경제포럼(WEF)회의 참석
9.14–17	제10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개최(제주)
9.16–20	중국 다롄시 대표단 방한(인천시) – 단장 : 리완차이(李萬才) 다롄시장
9.26–30	한·중 고위언론인 포럼 중국대표단 방한 – 9.28 제3차 고위언론인포럼 개최
9.28	한·중 평화포럼 개최(서울)
9.29	제3차 한·중 고위급 전략대화 개최(베이징) – 수석대표 : 신각수 제1차관/왕광야(王光亞) 외교부 상무부부장
10.5	제8차 ASEM 정상회의 참석 계기 한중 정상급회담(브뤼셀) – 이명박 대통령–원자바오 총리 간 회담
10.11	ASEAN+8 국방장관회의 계기 한·중 국방장관회담 개최(하노이)
10.13–22	중국 청년대표단(98명) 방한(여성가족부 초청)
10.21–22	천정가오(陳政高) 랴오닝성(遼寧省) 성장 방한(경기도지사 초청)
10.25–11.2	중국 청소년 대표단(150명) 방한 – 단장 : 우타오(武韜) 중한 우호협회 고문
10.25	주우한총영사관 개관
10.25–28	제15차 한·중 미래포럼 대표단 방중(베이징) – 10.28 포럼 개최
10.28	제13차 ASEAN+3 참석 계기 한·중 외교장관회담 개최(하노이) – 10.28 김성환 외교장관–양제츠(楊潔篪) 외교부장간 회담
10.29–30	한·중 외교부 대변인 교류 – 마자오쉬(馬朝旭) 중국 외교부 대변인 방한
11.1–5	한·중 외교부 출입기자단 교류 사업 중국 측 기자단 방한
11.8–12	후시진(胡錫進) 환구시보 총편집 방한
11.11	서울 G20 정상회의 참석 계기 한·중 정상회담 개최 – 11.11–12 후진타오 국가주석 방한
11.15–19	한·중 미래지향교류사업 제4차 대표단 방한 – 공안·출입국 분야
11.25–29	재스퍼 창(Jasper Tsang) 홍콩 입법회 의장 방한
11.27–28	다이빙궈(戴秉國) 국무위원 방한
12.29–20	차관보 중국 방문

2011

2.23–24	양제츠(楊潔篪) 중국 외교부장 방한 – 2.23 한·중 외교장관회담(서울)
3.19	제5차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중 외교장관회담(베이징)
3.20–26	한·중 기자단 교류사업 우리 측 기자단 중국 방문
3.28–30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 중국 방문 – 3.29 한·중 외교장관회담(베이징)
4.12–15	김황식 국무총리 공식 방중 – 4.13 한·중 총리회담
4.14–15	2011년도 보아오(博鰲) 포럼 참석
5.17	류우익 주중대사 귀임
5.19	이규형 신임 주중대사 부임
5.17–22	G20 국회의장회의 개최 계기 중국 측 대표단 방한 – 단장 : 장수성(蔣樹聲) 전인대 상무위 부위원장
5.22	제4차 한·일·중 정상회의 계기 한·중 정상급 회담(도쿄)
5.29–6.4	한·중 청년외교관 교류사업 우리 측 대표단 방중 – 단장 : 인사기획심의관 외 10명(베이징, 상하이, 우루무치)
6.4	제10차 샹그릴라 대회 계기 한·중 국방장관회담
6.6	제10차 ASEM 외무장관회의 계기 한·중 외교장관회담(부다페스트)
7.4–7	손학규 민주당 대표 방중(베이징, 충칭)
7.7–10	전인대 중한우호소조 대표단 방한 – 단장 : 차오웨이저우(曹衛洲) 전인대 중한우호소조 회장
7.13–16	초당파 국회의원 대표단 방중 – 단장 : 홍재형 국회부의장
7.14–16	김관진 국방부 장관 방중 – 7.15 한·중 국방장관회담(김관진 국방장관/량광례(梁光烈)국방장관)
7.17–.22	정의화 국회부의장 방중 – 제6차 한·중 정기교류체제회의 참석
7.21	ASEAN+3/ARF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중 외교장관회담(발리)
7.27	제1차 한·중 국방 전략대화(서울) – 이용걸 국방차관/마샤오톈(馬曉天) 부총참모장
8.8	이규형 신임주중대사 신임장 제정
8.24–26	정선태 법제처장 방중
8.29–30	제11차 한·중 지도자 포럼(베이징)
9.7	한·중 수교 20주년 기념사업 부국장급 제2차 실무협의(서울)
9.20	UN 총회 계기 한·중 외교장관회담(뉴욕)
9.22–29	전두환 전 대통령 방중

10.17–19	중국 탕자쉬안(唐家璇) 전 국무위원 방한 – 한·일·중 3국 협력사무국 출범계기 국제학술회의 참석
10.26–27	리커창 상무부총리 방한 – 대통령 예방, 국무총리 접견 및 만찬, 국회의장 면담, 민속촌 방문 등
11.18	ASEAN+3계기 한·중 정상급회담(발리) – 이명박 대통령/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간 회담
11.18	2011 하반기 중국지역 공관장회의(베이징)
11.21–23	류우익 통일부장관 방중
12.1	한·중 대변인교류협의회(베이징)
12.2	한·중 아주국장회의(베이징)
12.5–9	외교부–중련부 청년직원교류사업(서울, 경주) – 중국청년간부대표단 방한
12.27	제4차 한·중 차관급 고위전략대화(서울) – 장즈쥔(張志軍) 외교부 상무 부부장 방한

2012

1.9–11	이명박 대통령 중국 국빈 방문
3.2	양제츠(楊潔篪) 중국 외교부장 방한 – 한·중 외교장관회담(서울)
3.25–28	서울핵안보정상회의 계기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 방한 – 3.26 한·중 정상회담 및 한·중 외교장관 조찬회담(서울)
4.3–6	한중 수교 20주년 개막행사(4.3) 관련 중국대표단 방한 – 수석대표 : 왕원장(王文章) 문화부 차관
4.7–9	제6차 한·일·중 외교장관회의 계기 외교장관 중국 방문(닝보(寧波), 상하이) – 4.7 한·중 외교장관회담 개최(닝보)
5.12–14	제5차 한·일·중 정상회의 계기 대통령 중국 방문(베이징) – 후진타오(胡錦濤) 주석(5.14) 및 원자바오(溫家寶) 총리(5.13)와 양자회담 개최
5.22–24	왕즈전(王志珍) 중국 국가 정협 부주석 방한(서울, 여수)
6.27–29	왕치산(王岐山) 중국 국무원 부총리 방한(여수) – 여수엑스포 중국 국가의 날 참석
7.4–6	자오치정(趙啓正) 중국 정협외사위 주임 방한(한국국제교류재단 초청)
7.6–12	외교통상부–중국 중련부간 실무직원 교류 우리 측 대표단 방중
7.12	ARF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중 외교장관회담 개최(프놈펜)
7.12–14	멍젠주(孟建柱) 국무위원 겸 공안부장 방한(서울, 제주)
7.14	주제주 중국총영사관 개관
7.31	제2차 한·중 국방전략대화(베이징) – 국방차관/중국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
8.8–12	한·중 외교부 간 실무직원 교류 중국청년외교관 대표단 방한

8.24	한·중 수교20주년 기념일 – 8.24 이명박 대통령–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 총리, 외교장관간 축전 교환 – 8.31 수교기념 리셉션 개최(베이징)
8.29	주다롄출장소 개관
9.2–5	천즈리(陳至立) 전인대 상무위 부위원장 방한 – 제7차 한중 의회정기교류체제회의 참석(9.4)
9.24	제67차 유엔총회 계기 한·중 외교장관회담 개최(뉴욕)
9.24–28	판스웨이(潘世偉) 상하이사회과학원 당서기 초청 방한
10.28–30	류우익 통일부장관 방중(베이징대 국제전략연구센터 초청)
11.15	시진핑 당총서기 선출관련 대통령 명의 축전 송부 – 11.23 시진핑 총서기 답전
11.19	ASEAN+3 정상회의 계기 한·중 정상급 회담(프놈펜) – 이명박 대통령/원자바오(溫家寶) 총리
11.20–22	중공우호대표단 방한 – 단장 : 천바오성(陳寶生) 중국공산당 중앙당교 부교장
11.26	제5차 한·중 고위급 전략대화(베이징) – 수석대표 : 안호영 제1차관/장즈쥔(張志軍) 상무부부장
12.11	한·중 수교 20주년 기념사업 폐막식 개최(베이징) –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차이우(蔡武) 문화부장

2013

1.4	한·중 아주국장회의(베이징)
1.9–11	중국정부 특사단 방한 – 단장 : 장즈쥔(張志軍)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 – 대통령 당선인 예방(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구두메시지 전달)
1.21–24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특사단 방중 – 단장 : 김무성 전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 – 시진핑(習近平) 중국 당총서기 예방(당선인 친서 전달)
1.25–27	안홍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방중
2.23–26	제18대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류옌둥(劉延東)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위원 겸 국무위원 방한 –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 및 시진핑 총서기의 특별대표 자격 – 대통령 예방(후 주석 메시지 및 시 총서기 친서 전달)
3.13	한·중 국제법률국장회담 개최(베이징)
3.19	한·중 외교장관간 전화통화
3.20	한·중 정상간 전화통화
3.30–4.3	새누리당 의원대표단 방중(우루무치, 베이징) – 단장 : 남경필 의원
3.31–4.3	이해찬 전 국무총리 방중(선양)
4.10–11	중국연구센터–중공 중앙당교 국제전략연구소 제1차 전략대화(서울)

4.20	중국 사천성 야안시 지진 발생관련 대통령 명의 시진핑 주석 앞 위로전 전달
4.21–27	박원순 서울시장 방중(베이징, 산둥성, 상하이)
4.22–26	2013년도 제1차 한중 미래지향교류사업
4.23–27	중련부 청년간부 대표단 방한 – 단장 : 류진펑(劉金鋒) 중련부 간부국 부국장
4.24	윤병세 외교부장관 방중 – 한·중 외교장관회담(베이징)
5.6–10	자오웨이화(翟衛華) 중국 선전부 부부장 방한(서울, 제주, 부산)
5.8	룽위샹(龍宇翔) 중국국제문화전파중심 집행주석 방한
5.7–12	한·중 우호대화 대표단 방한(서울, 제주) – 단장 : 쉬둔신(徐敦信) 전 외교부 부부장
5.14–15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방중
5.20–24	국회 초당파 의원대표단 방중(베이징, 칭다오) – 단장 : 새누리당 유기준 최고의원
5.20–24	2013년도 제2차 한중 미래지향교류 사업
5.22–24	양승태 대법원장 방중
6.3–7	제10차 한·중 여성지도자 포럼 중국 측 대표단 방한(서울, 제주) – 단장 : 리하이펑(李海峰) 전국정협 부주석(女)
6.9–13	한국외교협회 대표단 방중 – 단장 : 김용규 회장
6.18	제7차 한·중 대변인교류협의회(서울) – 수석대표 : 조태영 대변인/친강(秦剛) 신문국 국장 및 대변인
6.27–30	박근혜 대통령 중국 국빈 방문(베이징, 시안) – 6.27 제33차 한·중 정상회담(베이징),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 발표
6.30	ASEAN + 3/ARF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중 외교장관회담(브루나이)
7.2–7	중국 파워블로거 대표단 방한
7.17–24	중국 외교부 청년대표단 방한 – 단장 : 황시롄(黃溪連) 중국 외교부 아주국 참사관
7.18–23	한·중 의원외교협의회 청년의원대표단 방중
7.22–25	리샤오린(李小林) 중국 인민대외우호협회 회장 방한
7.23–26	박병석 국회부의장 방중
7.25	제3차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옌타이(煙臺))
8.10–14	차오아이화(曹愛華) 중국 다롄시 상무부시장 방한
8.16–21	제8차 한·중 의회정기교류체제 의원대표단 방중 – 단장 : 이병석 국회부의장
8.18	한·중 외교관사증면제협정 발효
8.18–20	안홍준 외통위원장, 이만우 의원 방중
8.30	제7차 한·중 북미국장회의(제주) – 수석대표 : 문승현 북미국장/셰펑(謝鋒) 외교부 미주·대양주국장

9.16	한·중 아주국장회의(베이징)
9.27	UN 총회 계기 한·중 외교장관회담(뉴욕)
10.7	APEC 계기 제34차 한·중 정상회담(발리) – 박근혜 대통령/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10.10	ASEAN+3/EAS 계기 박근혜 대통령 – 리커창(李克强) 총리 환담(브루나이, 반다르세리베가완)
10.17–18	제18차 한·중 환경협력공동위원회(칭다오) – 수석대표 : 윤강현 국제경제국장/탕딩딩(唐丁丁) 환경보호부 국제협력국장
10.23–25	쩡웨이(曾維) 중국 선양시 당서기 방한
10.21–26	한국 외교부 청년외교단 방중 – 단장 : 정병후 남아시아태평양국 심의관
11.5	제4차 대테러협의회(칭다오) – 수석대표 : 허철 대테러국제협력대사/추궈훙(邱國洪) 외교부대외안전사무국장
11.6–8	류전민(劉振民) 중국 외교부 부부장 방한 – 11.7 제8차 한일중 고위급회의(SOM) 참석
11.7	제1차 한·중 개발협력 정책대화(베이징) – 수석대표 : 오영주 개발협력국장/장사오강((張少剛) 상무부 국제경제무역관계사 공사참사관
11.17–19	양제츠(楊潔篪) 중국 국무위원 방한 – 11.18 제1차 국가안보실장과의 대화 참석
11.19	제1차 한·중 인문교류공동위원회(서울) – 수석대표 : 김규현 제1차관/류전민(劉振民) 외교부 부부장
11.20	제19차 한·중 경제공동위원회(서울) – 수석대표 : 조태열 제2차관/가오옌(高燕) 상무부 부부장
11.21	제1차 한·중 다자경제분야협의회(베이징) – 수석대표 : 정병화 다자경제외교국장/장쥔(張軍) 외교부 국제경제국장
11.28	제11차 한·중 중남미국장회의(다롄) – 수석대표 : 장명수 중남미국장/선즈량(沈智良) 외교부 중남미국장
12.4–7	강창희 국회의장 방중(베이징, 광저우)
12.5–7	한·중 국책연구기관 합동전략대화(서울)
12.18–20	이경수 차관보 방중
12.23	제1차 한·중 외교안보대화(2+2)(베이징) – 수석대표 : 박준용 동북아시아국장/뤄자오후이(羅照輝) 외교부 아주국장

2014

1.19	하얼빈역 안중근 의사 기념관 개관
2.20–22	류전민(劉振民) 중국 외교부 부부장 방한 – 2.21 한·중 양자회담(서울)
2.20–23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 등 국회의원단 방중(베이징, 상하이) – 2.21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예방
3.11–15	국회 예결위 대표단 방중(지난(濟南), 취푸(曲阜), 상하이)

3.13	제17차 한·중 해양법회의 및 국제법률국장회의(서울) – 수석대표 : 강정식 국제법률국장/쉬훙(徐宏) 외교부 조약법률국장
3.17–18	국제교류연맹(IEF) 대표단 방중(광둥성, 베이징) – 단장 : 남경필 국회의원
3.23	핵안보정상회의 계기 제35차 한·중 정상회담(헤이그) – 3.25 핵안보 정상회의 계기 한미일 3국 정상회담 – 3.28 박근혜 대통령, 독일 드레스덴 공대 연설
3.24	제6차 한·중 품질감독검사검역회의(서울) – 수석대표 : 안총기 경제외교조정관/메이커바오(梅克保) 질검총국(質量監督檢驗檢疫總局) 부총국장
3.31–4.5	외교부 – 중련부 실무직원 교류사업 대표단 방중(베이징, 시안, 상하이)
4.9–13	정홍원 국무총리 보아오포럼 참석 및 총칭 방문(하이난성 보아오) – 4.10 보아오포럼 계기 한·중 총리회담
4.21	제20차 한·중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서울) – 수석대표 : 김승호 양자경제외교국장/천저우(陳洲) 상무부 아주국장
4.23	한·중 정상 간 전화 통화
5.9	제19차 한·중 정책기획협의회(시안) – 수석대표 : 신범철 정책기획관/차이룬(蔡潤) 외교부 정책기획국장
5.17–23	김성환 전 외교장관 방중(시안, 둔황, 우루무치) – 중국인민외교학회 초청
5.20–21	류길재 통일부장관 제4차 CICA 정상회의 참석(상하이)
5.20–22	옌쥔치(嚴雋琪)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방한(서울) – 제9차 한·중 의회정기교류체제 합동회의 참석차(국회 초청)
5.26–27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 방한 – 5.26 한·중 외교장관회담(서울), 박근혜 대통령 예방
6.4–5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방중
6.14–18	차이밍자오(蔡名照)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 주임(장관급) 방한 – 6.15 윤병세 외교장관 면담
6.20–22	국회 차세대 지도자 중국 방문단 방중(상하이) – 단장 : 유승민 국회의원
6.26	제5차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닝보(寧波)) – 수석대표 : 정병원 동북아국 심의관/자이레이밍(翟雷鳴) 외교부 영사국 부국장
7.3–4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국빈 방한(펑리위안(彭麗媛) 영부인 동행) – 7.3 제36차 한·중 정상회담(서울), 협정서명식, 「한·중 공동성명」 발표 – 7.4 정의화 국회의장 및 정홍원 국무총리 면담, 서울대 연설, 한·중 경제협력포럼
7.22–24	초당파 국회의원 우호 방중단 방중(상하이, 베이징) – 단장 : 이석현 국회부의장
7.24–26	이명박 前 대통령 방중(광저우)
7.26–28	웨이훙(魏宏) 중국 쓰촨성(四川省) 성장 방한
7.29–30	조태열 제2차관 방중 – 7.29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동평구) 설명회 참석

7.30–8.3	쑨화이산(孫懷山) 중국 정협 상무부비서장(장관급) 방한
8.8	ASEAN+3/ARF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중 외교장관회담(미얀마 네피도)
9.10–12	류전민(劉振民) 중국 외교부 부부장 방한 – 9.11 제9차 한일중 고위급회의(SOM) 참석
9.11–15	중국 외교부 외교정책자문위 대표단 방한 – 단장 : 쉬둔신(徐敦信) 전 중국 외교부 부부장 – 9.15 조태열 제2차관 면담
9.18–25	중국 파워블로거 대표단 방한
9.18	제2차 중국 어민 대상 한·중 공동간담회 개최(다롄) – 제14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1차 준비회담 계기 개최
9.19–23	장셴푸(臧獻甫) 중국 톈진시 기율위원회 서기(차관급) 방한(서울, 부산) – 9.23 조태용 제1차관 면담
9.20–24	천펑샹(陳鳳翔) 중국 중련부 부부장 방한(부산, 서울)
9.22–24	샤겅(夏耕) 산둥성 부성장 방한(서울)
10.13	제16차 한·중 영사국장회의(베이징) – 수석대표 : 이명렬 재외동포영사국장/황핑(黃屛) 외교부 영사국장
10.13–17	새누리당 대표단 방중(베이징, 황산, 상하이) – 10.14 제1차 한·중 정당 간 정책대화(베이징),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왕자루이(王家瑞) 중련부장 면담
10.16	ASEM 정상회의 계기 박근혜 대통령 – 리커창(李克强) 총리 회담(이탈리아 밀라노)
10.20–24	외교부 – 중련부 실무직원 교류사업 대표단 방한
10.20–24	탕자쉬안(唐家璇) 중국 전 국무위원 방한(21세기 한중교류 협회 초청) – 10.21 대통령 예방, 제14차 한·중 지도자포럼 참석
10.21	제5차 한·중 대테러협의회(부산) – 수석대표 : 허철 대테러국제협력대사/류광위안(劉光源) 외교부 대외안전국장
11.3–4	박원순 서울시장 방중(지난(濟南))
11.7	APEC 통합각료회의 계기 한·중 외교장관회담(베이징)
11.9–12	박근혜 대통령 APEC 정상회의 계기 방중(베이징) – 11.10 제37차 한·중 정상회담, 협정서명식
11.20	제2차 한·중 인문교류공동위원회(시안) – 수석대표 : 조태용 제1차관/류전민(劉振民) 외교부 부부장
11.26–27	서병수 부산시장 방중(시안)
12.2–3	이경수 차관보 방중(베이징)
12.8–9	제19차 한·중 환경협력공동위원회(제주) – 수석대표 : 이성호 국제경제국장/리하이셩(李海生) 중국 환경보호부 국제합작사 사장
12.8–9	이명박 前 대통령 방중(닝보(寧波)) – 세계중소기업연맹 초청
12.16–20	한·중 외교부 청년 외교관 교류사업 대표단 방한(서울, 제주)
12.16–18	한·중 국책연구기관 합동전략대화(베이징)
12.17–21	정의화 국회의장 방중(베이징, 충칭)

12.23	제20차 한·중 경제공동위(옌타이(煙臺)) – 수석대표 : 조태열 제2차관/가오옌(高燕) 중국 상무부 부부장

2015

1.5–6	제2차 한·중 외교안보대화(2+2)(서울) – 수석대표 : 이상덕 동북아시아국장/쿵쉬안유(孔鉉佑) 중국 외교부 아주국장
1.6	제2차 한·중 중동정책협의회(서울) – 수석대표 : 권희석 아중동국장/천샤오둥(陳曉東) 중국 외교부 서아시아·북아프리카국장
1.22–24	왕양(汪洋) 중국 국무원 부총리 방한 – 1.23 박근혜 대통령 예방, '2015 중국 관광의 해' 개막식 참석
1.29	한·중 경제장관회의(베이징) – 수석대표 :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쉬사오스(徐紹史)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2.3–5	창완취안(常萬全) 중국 국방부장(육군상장) 방한(서울) – 2.4 박근혜 대통령 예방
3.10–12	류전민(劉振民) 중국 외교부 부부장 방한(서울) – 3.11 제10차 한중일 고위급회의(SOM) 개최 계기 한·중 양자관계 협의
3.15–18	류젠차오(劉建超)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 방한(서울, 제주)
3.20–22	제7차 한중일 3국 외교장관회의 계기 왕이(王毅) 외교부장 방한 – 3.21 한·중 외교장관회담(서울)
3.29–30	루하오(陸昊) 헤이룽장성(黑龍江省) 성장 방한(서울)
4.4–8	펑칭화(彭淸華) 중국 광시좡족자치구 당서기 방한(서울)
4.21	반둥회의 60주년 기념 아시아·아프리카 각료회의(4.20) 계기, 조태열 제2차관–류전민(劉振民) 중국 외교부 부부장 간 양자회담(자카르타)
4.23	제2차 한·중 개발협력정책대화(베이징) – 수석대표 : 오영주 개발협력국장/장사오강(張少剛) 중국 상무부 국제경제무역관계국장(國際經貿關係司長)
4.26–30	우리부 – 중련부 실무직원 교류사업 대표단 방한(서울, 제주)
5.4	제20차 한·중 정책기획협의회(제주) – 수석대표 : 신범철 정책기획관/차이룬(蔡潤) 중국 외교부 정책기획국장
5.4	제17차 한·중 영사국장회의(서울) – 수석대표 : 이명렬 재외동포영사국장/황핑(黃屛) 중국 외교부 영사국장
5.18–22	탕자쉬안(唐家璇) 중국 前 국무위원 방한(서울, 광주) – 조선일보 주최 제6차 아시안 리더쉽 컨퍼런스(ALC) 참석
5.20	제21차 한·중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베이징, 상무부 회의실) – 수석대표 : 김승호 양자경제외교국장/천저우(陳洲) 중국 상무부 아주사장
5.26–28	나경원 외교통일위원장 방중(베이징, 시안)
5.31–6.1	가오후청(高虎城) 중국 상무부장 방한 – 6.1 박근혜 대통령 예방, 한·중 FTA 서명식, 한·중 통상장관회담
6.9–10	ASEAN 관련 고위급회의(SOM) 계기 한·중 양자관계 협의(말레이시아 쿠칭) – 수석대표 : 김홍균 차관보/류전민(劉振民) 중국 외교부 부부장

6.11–13	장더장(張德江) 전인대 상무위원장 방한 – 6.11 박근혜 대통령 예방, 정의화 국회의장 예방 등
7.6–8	제1차 한·중 1.5트랙 대화(광둥성 주하이시) – 수석대표 : 김홍균 차관보/류젠차오(劉建超)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
7.6–8	이명박 前 대통령 방중(시안) – ‘2015 Global New Fortune Xi’an Forum’ 참석
7.7–10	제10차 한·중 의회정기교류체제 대표단 방중(베이징, 쿤밍) – 단장 : 정갑윤 국회부의장(한·중 의회정기교류제체 회장)
7.13–14	주철기 외교안보수석 방중(베이징) – 유라시아 친선특급 행사 계기 개최 국제학술 세미나 참석
7.19–24	황준국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방중(상하이, 베이징)
8.5	ASEAN 관련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중 외교장관회담(쿠알라룸푸르)
8.13–18	새누리당 청년의원 대표단 방중(티베트, 청두) – 단장 : 김세연 의원
8.17–21	제1차 한·중 청년지도자 교류 대표단 방중(베이징, 칭다오) – 단장 : 유현석 국제교류재단 이사장
8.20	제18차 국제 한·중 법률국장회의(베이징) – 수석대표 : 김인철 국제법률국장/쉬훙(徐宏) 중국 외교부 조약법률국장
9.2–4	박근혜 대통령 방중(베이징, 상하이) – 9.2 제38차 한·중 정상회담(베이징) – 9.3 중국 전승 70주년 기념행사 참석 – 9.4 대한민국 임시정부청사 재개관식 참석
9.21–26	중국 파워블로거 대표단 방한(서울, 충청남도)
10.4–8	류츠구이(劉賜貴) 중국 하이난성(海南省) 성장 방한
10.9–12	류윈산(劉雲山)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북한 방문
10.10–12	완융(萬勇) 우한(武漢)시장 방한단 방한(청주, 서울)
10.14–15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방중(광저우)
10.27–29	류전민(劉振民) 중국 외교부 부부장 방한 – 10.29 한·중 양자협의 및 제11차 한·중·일 고위급회의(SOM) 참석
10.31–11.2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 공식방한 – 10.31 한·중 양자회담, 대통령 주최 공식 환영 만찬 – 11.1 정의화 국회의장 면담, ‘중국관광의 해’ 폐막식 공동 참석, 제6차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 – 11.2 황교안 국무총리 면담, 한·중 청년지도자 포럼 참석
11.5–6	제20차 한·중 환경협력공동위(베이징) – 수석대표 : 이성호 외교부 기후변화환경외교국장/리하이성(李海生) 중국 환경보호부 국제협력국장(國際合作司長)
11.10–13	초당파 국회의원 우호방중단 방중(베이징, 상하이) – 단장 : 서청원 의원
11.15–18	유정복 인천시장 방중(칭다오, 웨이하이(威海))
11.19	제3차 한중 공공외교포럼(서울)
11.21	ASEAN+3/EAS 정상회의 계기 한·중 외교장관회담(쿠알라룸푸르)

11.26	제8차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칭다오) – 수석대표 : 정병원 외교부 동북아국 심의관/자이레이밍(翟雷鳴) 외교부 영사국 부국장
11.30	제6차 한·중 대테러협의회(광저우) – 수석대표 : 백지아 국제안보대사/류광위안(劉光源) 중국 외교부 섭외안전국장(涉外安全事務司長)
12.2–3	제3차 한·중 국책연구기관 합동전략대화(서울)
12.6–10	제2차 중국 파워블로거 대표단 방한(평창, 서울)
12.9–14	한·중 외교부 청년외교관 교류사업 대표단 방중(베이징, 쿤밍, 하이난)
12.10–15	중국공산당 우호대표단 방한(서울) – 단장 : 선춘야오(沈春耀)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비서장
12.14–18	외교부–중국공산당대외연락부(중련부) 실무직원 교류사업 대표단 방중(베이징, 광저우, 난닝(南寧))
12.20	한·중 FTA 발효
12.22	제1차 한·중 해양경계획정 공식회담(서울) – 수석대표 : 조태열 제2차관/류전민(劉振民) 중국 외교부 부부장
12.23	제3차 한·중 인문교류공동위원회(제주) – 수석대표 : 임성남 제1차관/류전민(劉振民) 중국 외교부 부부장
12.25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설립협정 발효

2016

1.8	한·중 외교장관 간 전화 통화
1.13–15	윤덕민 국립외교원장 방중(베이징)
1.20	'한국 관광의 해' 개막식(베이징)
2.5	한·중 정상 간 전화 통화
2.11	뮌헨 국제시리아지원그룹(ISSG) 제4차 외교장관 회의(약칭 : 뮌헨 안보회의) 참석 계기 한·중 외교장관회담(뮌헨)
2.15–16	장예쑤이(張業遂)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 방한 – 2.16 제7차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서울), 임성남 제1차관 주최 오찬, 윤병세 외교장관 예방 등
2.28–3.3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 방한 – 2.28 황준국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주최 만찬 – 2.29 윤병세 외교장관 예방 등
3.10–12	한·중 대변인 교류사업 대표단 방중 – 단장 : 조준혁 대변인
3.14	한·중 외교장관 간 전화 통화
3.17	한·중 통상장관회담(베이징) – 수석대표 :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가오후청(高虎城) 중국 상무부장
3.18	제1차 한중 품질감독 검사검역 장관회의(베이징) – 수석대표 :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즈수핑(支樹平) 중국 질검총국(質量監督檢驗檢疫總局) 국장

3.18	제2차 한·중 산업장관회의(베이징) – 수석대표 :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먀오웨이(苗圩) 중국 공업정보화부(工業和信息化部) 부장
3.23–25	유일호 경제부총리 2016년 보아오포럼 참석
3.31	핵안보 정상회의 계기 한·중 정상회담(워싱턴)
4.10–12	왕셴쿠이(王憲魁) 헤이룽장성(黑龍江省) 당서기 방한(서울, 부산) – 4.11 황교안 국무총리 예방, 윤병세 외교장관 주최 오찬 등
4.19–23	천민얼(陳敏爾) 중국 구이저우성(貴州省) 당서기 방한(서울) – 4.20 황교안 국무총리 예방 – 4.21 윤병세 외교부장관 주최 오찬 등
4.20	제21차 한·중 경제공동위(서울) – 수석대표 :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가오옌(高燕) 중국 상무부 부부장
4.20–24	한·중 판다 보호협력 관련 임업국 대표자 방한 – 단장 : 탄광밍(譚光明) 국가임업국 인사국장 – 4.21 에버랜드 판다 사육장 개관식(용인)
4.27	제5차 CICA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중 외교장관회담(베이징)
5.7–8	ASEAN+3 관련 고위급회의(SOM) 계기 한·중 양자관계 협의(라오스 루앙프라방) – 수석대표 : 김홍균 차관보/류전민(劉振民) 중국 외교부 부부장
5.16–18	다이빙궈(戴秉國) 전 국무위원 방한(서울) – 5.17 제7회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 참석, 윤병세 외교장관 주최 오찬 등
5.20–23	류치바오(劉奇葆) 중국 공산당 중앙선전부장(정치국 위원) 방한(제주, 서울) – 5.21 정갑윤 국회부의장 주최 만찬 – 5.23 윤병세 외교장관 주최 오찬 등
5.22–26	한·중 청년지도자 포럼 중국 측 대표단 방한(서울, 제주)
5.30–31	동북아평화협력구상 협력회의 참석 계기 김형진 차관보 방중 – 5.30 한·중 동북아평화협력구상 협력회의 개막식 참석, 류전민 중국 외교부 부부장 면담 등
5.30–6.3	한·중 기자단 교류 사업 중국 측 대표단 방한(서울, 광주, 부산)
5.31–6.2	이수용 북한 노동당 중앙정무국 부위원장 방중
6.1	제21차 한·중 정책기획협의회(청뚜) – 수석대표 : 신범철 정책기획관/왕야쥔(王亞軍) 중국 외교부 정책기획국장
6.3	제19차 한·중관세청장회의(서울) – 수석대표 : 천홍욱 관세청장/쑨이뱌오(孫毅彪) 중국 해관총서 부총서장
6.15	제18차 한·중영사국장회의(베이징) – 수석대표 : 김완중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장/궈사오춘(郭少春) 중국 외교부 영사국장
6.26–30	하계 다보스포럼 계기 황교안 국무총리 방중(톈진, 베이징, 선양) – 6.28 한·중 총리회담, 리커창 총리 주최 만찬 – 6.29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예방 등

2. 군사 관계

가. 무관부 개설

- ’93.12.23 주중 한국 무관부 개설(주중 외국무관부 중 51번째)
- ’94.4.1 주한 중국 무관부 개설

나. 주요 군사 교류 현황

- 중국과의 군사교류는 ’09년 양국 정상이 합의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에 걸맞는 국방안보 분야의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있음.
- 군 지도급 인사교류는 양국 국방장관의 상호 교환방문을 계기로 인사교류의 폭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 조성태 국방부장관이 ’99.8월 한국전쟁 이후 국방장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하여 양국 군사관계의 새 장을 열었으며, ’00.1월에는 츠하오톈(遲浩田) 중국 국방부장이 최초로 한국을 방문하였음.
- ’15년 말까지 양국 국방장관 회담은 총 9차례(방중 6회, 방한 3회) 실시되었으며, 그 밖에도 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육군 3군사령관 등 고위급이 중국을 방문하였으며, 중국 측은 총참모장, 군구(軍區) 사령원 및 정치위원 등이 정례/비정례적으로 상호 교환방문하고 있음.
- 양국 군사교류는 매년 양국 국방부 간 ‘국방정책실무회의’를 통해 교류계획을 협의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국방부 차관과 총참모부 副총참모장(국방전략대화), 3군사령부와 제남군구사령부 및 2함대사령부와 북해함대사령부(이상 지역사령부 간 교류), 해/공군 간 직통전화실무회의, 청년장교 군사교육교류, 국방학술회의와 체육교류 등이 정례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기타 실무급 대표단이 비정기적으로 상호 교환방문하고 있음.
- 양국 국방부는 ’08.11월 해/공군 간 직통전화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해/공군 간 직통전화가 정상 운용되고 있으며, ’11.7월 장관회담과 ’12.7월 국방전략대화에서 합의한 국방부 직통전화 (핫라인)는 ’15.12.31 양국 국방장관의 첫 통화를 계기로 정식 개통되어 운용 중에 있음.
- ’12.9월 한국군 청년장교 3명이 중국 昆山외국어학원에 최초로 입교하였고, ’13.3월 중국군 청년장교 3명이 한국 국방 어학교에 최초 입교하였음. ’15.8월에는 한국군 소령급 장교들이 인민해방군 육·해·공군 지휘참모학원에 최초 입교하였으며

'16년 중국군 소령급 장교들의 우리나라 합동참모대학 입교와 '17년 중국군 대령급 장교의 우리나라 국방대학 입교 등이 예정되어 있는 등 양국 간 군사교육 교류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임.

- 또한 미래 양국군을 이끌어갈 청년 장교들의 교류도 매년 추진하고 있는 바, '13년 최초로 중국군 청년 장교들이 한국을 방문하여 군부대 방문, 軍지도자 예방, 양국 청년장교 간 우호활동에 참가하였으며 '14년에는 한국군 청년장교들이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군 부대 방문 및 양국 청년장교간 우호활동에 참가하였으며 격년제로 상호 교환 방문을 실시하고 있음.

- '13년 한중 양국 모두 신정부가 들어서고, '13.6월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 '14.7월 시진핑 주석의 방한, '15.9월 박근혜 대통령의 9·3 열병식 행사 참가 등 양국 정상들의 국방·안보 분야에 대한 포괄적인 협력 필요성 인식 및 軍고위급 상호 방문 정례화, 국방 전략대화 개최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을 강화함으로써 양국 국방·군사협력 및 신뢰 구축을 강화하고 있음.

- 한·중 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및 지역 안보문제와 관련하여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는 한편, 양국군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에 걸맞는 국방 교류협력을 지속 확대 발전시켜 나가고 있음.



3. 경제 관계

가. 개관

- 한·중 양국은 '92년 수교 이래 경제통상 분야에서 △지리적 인접성, △경제적 상호 보완성, △문화적 유사성에 기초하여 비약적인 관계 발전 이룩
  - 수교 이후 양국 간 교역액은 급속히 증가하여 '15년 교역액 2,273억 불(수교 당시 63.7억 불의 36배) 달성
  - '15년 한국의 對중국 실제투자는 28.5억 불, '15년 기준 한국의 대중투자 누계액(한국 통계 기준)은 521억 불(해외투자의 약 16.9%)로, 한국은 중국의 제3위 투자 대상국(홍콩 제외)
  - '15년 양국 상호 방문객 1,043만 명(아국인 訪中 444만 명, 중국인 訪韓 599만 명)
  - 항공편은 '15년 말 기준 한국 7개 도시와 중국 30여 개 도시간 90개 노선 주 1,230회 운항 중

- 이러한 그간의 경제협력 성과에 더하여, 한·중 양국은 '15.6월 한·중 FTA를 체결함으로써, 새로운 한·중 경제협력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내실화
  - 양국은 '12.5월 한·중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14.11월까지 14차에 걸친 협상 끝에 '15.6월 한·중 FTA를 체결하였고, 같은 해 12월 동 협정 발효

- 또한, 한·중 양국은 양자 간 협력 뿐 아니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중·일 FTA 등 아시아 역내 경제통합 및 WTO, APEC, G20 등 세계 경제 거버넌스에도 상호 긴밀한 소통을 통해 지속 협력해 나갈 예정

나. 교역 현황('15년)

- (교역 규모) 대중 교역액은 수교 당시 64억 불에서 '15년 36배에 달하는 약 2,273억 불(중국 측 통계 2,759억 불)로 증가, '04년 이래 중국은 우리의 최대 교역대상국이며, 한국은 중국의 제3위 교역대상국(홍콩 제외 시)
  - 중국은 한국에 대해 '03년 이래 계획 최대 수출시장(미국이 2위)이며, '07년 이래 최대 수입시장(일본이 2위)

- (무역 수지) 수교 첫 해인 '92년을 제외하고는 한국이 계속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해 왔으나, 다만 최근 세계경제 침체 영향으로 중국의 대외수출이 감소하면서 양국 간 교역도 감소세를 시현

- '09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던 대중 무역수지는 '13년 628억 불 흑자 기록 이후 중간재 수출이 둔화되고 수입은 증가하면서 감소 추세 시현
  * 무역수지 : 478억 불('11년) → 535억 불('12년) → 628억 불('13년) → 552억 불('14년) → 469억 불('15년)

(단위 : 억 불, %)

	한국 측 통계(韓 → 中)				중국 측 통계(中 → 韓)			
	교역액	수출	수입	수지	교역액	수출	수입	수지
2014년	2,354(2.7)	1,453(−0.4)	901(8.5)	552	2,905(5.9)	1,003(10.1)	1,902(3.9)	−899
2015년	2,273(−3.4)	1,371(−5.6)	902(0.2)	469	2,759(−5.0)	1,014(1.0)	1,745(−8.2)	−731

* 출처 : 한국무역협회·중국해관총서(양국 간 통계 산정방식의 차이로 수치가 불일치)
* 주 : ( )안의 수치는 전년대비 증가율

- (교역구조) 양국 간 수출입 제품은 주로 중간재와 원자재로서 상당한 정도의 국제 분업이 이루어져 왔으며, 양국 간 무역 발전에 따라 교역구조가 고도화
  - 특히, 중국이 중간재 수입, 가공조립 후 재수출하는 가공무역 중심에서 탈피하여 중국의 수출구조가 고도화되면서 양국 간 경쟁이 심화되는 중
  - 중국의 대한국 수출품은 수교 초기 주로 자원 및 노동집약형의 저부가가치 제품이었으나, 90년대 이후부터 점차 공업제품 비중 확대
  - 한국의 대중국 수출품은 수교 초기 공업제품에서 중화학제품으로 변화
    ※ 한·중 수출입 주요 품목('15년)
    – (대중 수출) 집적회로, 액정디바이스, 전화기, 환식탄화수소, 석유와역청유, 자동차부품, 반도체장비, 사무용기기부품 등
    – (대중 수입) 전화기, 접적회로, 컴퓨터, 액정디바이스, 절연전선, 광케이블, 철강재구조물, 반도체트렌지스터 등

다. 투자 현황('15년)

【한국의 對중국 투자】

- (투자 규모) '15년 대중국 투자액 28.5억 불, 투자누계액 521억 불로, 중국은 '09년 이래 우리의 제2위 투자대상국(1위는 미국)
  - 중국은 투자 누계액 기준으로 우리나라 해외 투자의 16.9% 차지
    ※ 중국진출 한국기업수 : 24,789개(한국수출입은행 통계)
  - '12년 우리나라는 중국의 5위(1위 홍콩, 2위 일본, 3위 싱가폴, 4위 미국) 투자유입국이었지만 '14년 미국, '15년 일본을 제치고 3위로 부상

우리의 對중투자 추이 (단위 : 억 불)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누 계 (1968–2015)
총신고(신고건수)	48.0(2,211)	66.5(1,866)	47.0(1,881)	37.6(1,613)	43.0(1,647)	698.6(51,910)
총투자(송금횟수)	35.4(3,505)	40.4(2,866)	51.5(2,672)	31.6(2,306)	28.5(2,343)	520.8(93,634)
신규법인수	825	721	818	700	702	24,789

*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 주 : 신고건수=공동투자, 증액건수 포함수치, 실행건수=송금횟수

- (투자 특징) 과거 중소기업, 제조업 위주에서 최근 대기업, 서비스업 투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투자 목적도 기존의 비용 절감(저임금 활용)에서 내수시장 진출로 변화
  - 대기업이 건수기준으로는 17.1%를 차지하지만, 금액기준으로는 78.6%를 차지, 대기업의 단위 투자규모는 약 500만 불로 중소기업(30만 불)에 비해 20배 수준(실제투자 기준)
  -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약 80%를 차지하고 있으나, 도소매 등 서비스업 비중이 최근 증가하는 추세

【중국의 對한국 투자】

- (투자 규모) 중국의 대한국 투자는 한국의 대중국 투자에 비해 미약한 수준이나, 중국의 해외투자 장려(走出去) 정책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
  - '15년 중국의 대한국 투자 누계액은 81.1억 불(우리의 전체 FDI 중 3.1% 차지)로, 한국은 중국의 제6대 투자대상국
  - 중국 정부의 해외투자 관련 제도 간소화 및 활성화 정책 시행으로 對한국 투자 확대 전망

- (투자 특징) 중국의 대한국 투자는 서비스업, 특히 부동산, 문화컨텐츠, 패션 및 IT 산업 부문을 중심으로 증가

【최근 중국 투자환경 변화】

- 최근 중국의 경제발전 전략이 '질적 성장'으로 전환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우대가 축소되고, 세제·노동·환경·토지 규제가 강화되면서 일부 진출기업의 경영환경 악화
  -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 환경변화 적응에 애로를 노정하며 산동성 지역에 진출한 일부 노동집약적 기업을 중심으로 비정상적으로 사업을 철수하는 사례 발생

※ 우리 기업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국 측 주요 정책변화

-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 : 건축, 부동산, 금융보험, 생활서비스 등 전 업종 대상
- 공급 측 개혁 : 정부의 경제정책이 수요진작 위주에서 공급의 효율성 증대 위주로 전환
- 중국제조 2025 : 전통제조업의 업그레이드 및 첨단제조업 육성
- 인터넷플러스 : 인터넷에 다양한 산업을 접목시켜 복합적인 신산업 육성
- 외자기업 세제혜택 축소 : 내외자기업 소득세 25%로 통일(15% → 25%)
- 가공무역 규제 : 저부가가치 가공무역 금지, 부가가치세 환급 폐지·축소
- 토지규제 강화 : 토지사용 규제강화, 토지사용비 상승
- 환경규제 강화 : 환경유해산업 제한, 환경법규 엄격 적용
- 노동자 권익제고 : 5대보험 가입, 경제보상금 지급, 노동계약 장기화 등(노동계약법 '08.1월 시행), 파견노동자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간 동일노동 · 동일보수 권리(노동계약법 개정, '13.7월 시행)

○ 한편, 한·중 FTA 발효 수 2년 내 서비스와 투자 분야에서 네거티브 방식의 후속 협상을 개시하기로 함으로써, 추가적인 중국 서비스 시장 개방 및 양측 간 투자 확대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라. 산업 협력

○ 한·중 양국은 '92년 수교 이래 비교적 순조로운 양국관계 발전, 양국 경제의 역동적인 발전,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 등을 바탕으로 산업 전 분야에 걸쳐 협력을 확대·발전시켜 왔음.

- '94년 김영삼 대통령 訪中시 한·중 산업협력위원회를 구성키로 합의한 이래, '98년 김대중 대통령 訪中시 완성차·금융·CDMA·원전·고속철도 등 5대 경협사업 추진에 합의
- '03년 노무현 대통령 訪中시 차세대 IT, 미래첨단기술, 전력산업, 중국 자원개발, 고속철도 건설사업, 환경, 금융, 유통 서부대개발 사업 등 10대 경협사업 추진 합의
- '05년 후진타오 주석 방한시 정보기술, 생명공학, 신소재 등 첨단분야 및 황사 모니터링, 사막화 방지, 순환경제 등 환경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
- '08년 이명박 대통령 訪中시 양 정상은 양국 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격상하고, '09년 한·중 정상회의 계기 '한·중 경제통상 협력 비전보고서' 서명
- '13년 박근혜 대통령 訪中시 채택한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과 '14년 시진핑 주석 방한시 채택한 '한·중 공동성명'을 통해 한·중 FTA의 타결을 위한 공동노력과 IT, 에너지, 환경 등 미래지향적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에 합의

○ '15.12월 한·중 FTA가 발효됨에 따라, 양국은 상품 교역과 투자 중심에서 유통, 환경, 서비스 등을 포함한 전방위적인 산업 협력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최근 한국의 對中 투자 및 산업 협력 분야는 점차 △동부연안 → 중서부, △노동집약적 제조업 → 첨단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으로 확대
- 특히, 중국제조 2025, 인터넷+ 계획 등 중국의 산업정책과 우리의 제조업 혁신 3.0을 연계하여, 양국 간 공동발전과 산업 협력 강화 추진

  * 중국제조 2025에서 육성하는 10대 신흥산업(차세대 IT 산업, 에너지 절약 및 신에너지 자동차, 신소재, 생물의약, 항공우주장비 등)과 우리의 미래성장동력 19개 분야(지능형 로봇, 착용형 스마트 기기, 실감형 콘텐츠, 스마트 바이오 생산 시스템, 빅데이터 등) 간 협력 모색

  * 인터넷+ 계획은 2018년까지 인터넷과 경제·사회 각 분야의 융합 발전을 통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인터넷경제와 실물경제의 융합 발전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창업·혁신, 제조, 농업, 에너지, 금융, 민생, 물류, 전자상거래, 교통, 생태환경, 인공지능 등 새로운 산업모델 창출이 가능한 11개 중점 분야를 선정

마. 인적교류 및 운수

○ 한·중 간 인적교류 동향

(단위 : 만 명/( )는 증가율 %)

	2011	2012	2013	2014	2015
방한 중국인	222(18.4)	284(27.8)	433(52.5)	613(41.6)	598(△2.3)
방중 한국인	418(2.7)	407(△2.8)	397(△2.5)	418(5.4)	444(6.3)

* 출처 : 한국관광공사·중국국가여유국
* 2015년 전체 외국인 방한 입국자 중 중국인의 비중은 45.2%로 가장 높음
* 2015년 중화권 전체 방한 입국자는 703만 명이며, 중국 598만 명, 홍콩 52만 명, 대만 52만 명으로 구성

○ 한·중 간 항공기 운항 현황

- '15년 말 현재 주당 1,100회 항공편 정기 운항(우리측 61개 노선 주 489회, 중국측 68개 노선 주 611회)

4. 영사 관계

가. 동포사회 역사 및 현황

1) 재외국민

- '92년 한중 수교 이후, 양국 간 경제, 사회, 문화 각 방면의 교류확대로 인해 중국에 거주하는 기업인, 유학생 등도 급증하여 이들 재외국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재중국한국인회」('99.12월), 「북경 한국 유학생회」('92년), 「중국 한국상회」('93년) 등이 설립됨.
- 베이징시 내 대표적인 재외국민 거주지역으로는 왕징(望京)과 우다오커우(五道口) 등이 있음.

지역별 재외국민 현황('15년) (단위 : 명)

지역	총계	주중국 (대)	주상하이 (총)	주선양 (총)	주칭다오 (총)	주광저우 (총)	주청두 (총)	주시안 (총)	주우한 (총)	주홍콩 (총)
재외국민수	**369,349**	99,487	47,505	44,400	82,417	71,761	4,150	4,382	2,432	12,815

* 재외국민 통계는 매 2년마다 조사, '15년도는 '13년도 대비 5.37% 증가

2) 조선족 동포

- 대부분은 19세기 말 한발 등 재난과 일제 치하에서 경제적 빈곤을 피하거나 항일운동 등을 위해 중국으로 이주
  - 오늘날 동포 수는 183만여 명으로 중국 55개 소수민족의 하나로 여타민족에 비해 높은 교육, 문화, 경제적 수준을 유지

※ 조선족 고위인사 현황

- 全哲洙(공산당 중앙위원, 중공중앙통전부 부부장, 전국공상연합회 상무부주석), 金振吉(공산당 중앙위원, 지린성상무위원·정법위서기), 趙南起(前 정협 부주석), 李德洙(前 국가민족 사무위 주임)

- 조선족 동포 인구 총수 : 1,830,929명
  - 중국 내 소수민족 중 인구수로 14번째

  * 출처 : 중국 국가통계국 2010

○ 조선족 동포 지역별 분포 현황

중국		외국		
동북3성	베이징, 연해지역 등지	한국	미국	러시아
80만	50만	70만	5만	2만

* '45년 광복 직후 중국내 조선족은 약 216만 명에 달하였으나, 그 중 절반이 고국으로 귀환함. 이후 조선족 동포는 '53년 112만 명에서 지속 증가, '90년 192만 명을 기록하다가 중국의 개혁개방에 따른 여타 중국지역과 한국 등 외국으로 진출이 심화되면서, 현재 동북3성 거주자는 약80만 명 정도(호구상 180만 명)로 추산되는바, 이러한 감소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

○ 중국의 개혁 개방 과정에서 조선족 사회도 분화
-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농촌인구가 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광저우 등 대도시로 이주

○ '92년 한·중 수교 후 한국기업 진출 확대 및 한·중 간 교류 확대에 따라 조선족 사회의 경제 발전과 조선족의 한국 체류 증가 추세
※ 한국내 조선족 약 63만 명 체류(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2015년 7월호)」 통계 인용)

나. 주요 동포단체

1) 재외국민 단체

■ 재중국한국인회

○ 설립일 : '99.12.20(설립 준비회 총회 개최일)
- '02.2월 중국 정부에 외국인 민간단체 등록 신청(중국 측 법규 미비로 상금 미등록)

○ 조직 및 설립목적
- 중국 전역 66개 지역 한인회 및 6개 지역 연합회를 포괄하는 연합단체
- 중국내 거주 한국인의 친목 도모,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
- 한·중 간 민간차원의 우호협력 증진

○ 주요 활동
- 각 지역 한인회 활동 지원, 교민사회 화합 및 권익신장, 교민안전 계도 활동 등

■ 중국 한국상회

○ 창립일 : '93.12월
- 중국 정부에 외국사회 단체로 등록(20개 외국 상회 중 7번째)
※ 중국 정부에 등록된 유일한 한국인단체

- 조직 : 중국 주재상사, 투자업체, 금융기관 등 중국 전역 49개 지역상회 연합체(7,000여 개 회원사)
- 주요 활동 : 경제 정보 제공, 매월 '북경 모닝 포럼' 개최, 중국 법령집 등 발간 및 기업들간 정보교류, 친목 도모

■ **민주평통 중국지역회의**

- 설립일 : '09.7월
- 중국협의회 출범회의 개최('09.11월)
- 5개 지역협의회 신설 및 17기 자문위원 279명 위촉('15.7월)
  - 베이징(75명), 광저우(49명), 칭다오(62명), 상하이(51명), 선양(42명)

■ **재중국대한체육회**

- 지부승인일 : '05.4월
  - 대한체육회로부터 15번째 해외지부로 정식 인가
- 조직 : 각 경기단체장 및 각 지회장 등으로 구성(9개 지역회, 12개 경기단체)
- 주요 활동 : 대한체육회 중국 지역 활동 지원, 경기단체 지원, 중국체육계인사 교류 강화 등

■ **북경 한국 유학생회**

- 창립일 : '92.12월
- 조직 : 베이징지역 25개 대학 유학생회 17,231명('15년 기준)
- 톈진, 상하이, 다롄, 선양, 하얼빈, 옌볜 등에도 유학생회 구성, 유학생회간 상호 교류
- 주요활동 사항
  - 각 학교별 한국유학생 중심으로 학예·문화 학생활동 전개
  - 유학생 생활 계도 및 애로사항 등 공동 협조 및 애경사 참여

2) 언론 단체(베이징지역)

- 북경 저널(주간지)
  - '97.5.16 창간(대표 : 신영수)

※ 중국당국으로부터 정식 허가는 받지 못함(중국 측, 외국인의 경우 언론매체 설립 제한)

- 일요신문 CHINA(주간지)
  - '02.2.1 창간(대표 : 이상운)

- 좋은 아침(월간지)
  - '03.11.1 창간(대표 : 김구정)

- 온바오닷컴(인터넷 매체)
  - '06.8월 창간(대표 : 김병묵)
    ※ 중국 당국에 언론단체 등록을 신청했으나 허가는 받지 못함.

3) 학교 및 종교단체

■ **재외한국학교 현황('15.3.1 기준)**

구분	설립 연월일	학생 수(학급 수)					전임교원 수						
		유	초	중	고	계	유	초	중	고	교감	교장	계
베이징한국국제학교	'98.08.26	59(5)	496(17)	243(9)	342(13)	1,140(44)	9	36	27	27	1	1	101
톈진한국국제학교	'01.03.05	143(6)	378(15)	212(8)	177(6)	910(35)	16	31	20	21	3	1	92
상하이한국국제학교	'99.07.06		581(22)	350(13)	467(16)	1,398(51)		48	74		1	1	124
우시한국학교	'08.02.19	52(3)	161(7)	129(6)	165(6)	507(22)	5	16	16	13	1	1	52
쑤저우한국학교	'13.11.29		72(6)	24(3)	25(3)	121(12)		7	4	5		1	17
홍콩한국국제학교	'88.03.01	25(2)	68(6)	27(3)	66(3)	186(14)	4	12	6	5		1	28
옌타이한국학교	'02.07.12		249(12)	184(7)	240(9)	673(28)		24	18	23	1	1	67
칭다오청운한국학교	'06.05.30	77(5)	303(12)	172(8)	172(8)	724(33)	7	22	17	18	1	1	66
다롄한국국제학교	'03.12.23	5(1)	107(6)	99(5)	107(6)	318(18)	2	12	14	15		1	44
선양한국국제학교	'06.07.26	45(3)	79(6)	46(3)	56(3)	226(15)	8	10	8	7		1	34
옌볜한국학교	'98.02.19		38(6)	31(3)	43(3)	112(12)		6	7	8		1	22
광저우한국학교	'15.03.01		105(6)	69(3)	38(2)	212(11)		13	7	6		1	27
계		406(25)	2,637(121)	1,586(71)	1,898(78)	6,527(295)	51	237	218	148	8	12	674

* 설립연월일 : 대한민국정부 인가일
* 학급 수 : 교육부로부터 승인받은 학교급
* 전임교원 수 : 현지채용, 고용휴직 등 전임으로 근무하는 교원 총 수

■ **종교 단체(베이징지역)**

- 개신교 : 20여 개 교회 집회 활동
- 천주교 : 천주교 북경한인교회 등 활동
- 불　교 : 만월사 등 활동
- 원불교 : 원불교 북경교당 등 활동

CHINA


13661.87
13588.73
13296.43
13128.64
12778.90
14 22 28 Feb

부록

중국 주요지도자 인적사항
중국 성·시·자치구 개황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중국의 주요 경제분야별 통계
한·중 간 주요 경제통계
한·중 간 주요 조약·협정 및 합의서
한·중 간 공동성명
한·중 공동언론발표문
역대 주중한국대사 및 주한중국대사
중국주재 한국 공관





시진핑(習近平, Xi Jinping)



1. 현직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2. 출생	1953.6월생(산시성 푸핑, 陝西省 富平)/베이징	
3. 학력	칭화대 화공과 학사(79) 칭화대 인문사회학원 법학박사(02) (마르크스주의이론 및 사상정치교육전공)	
4. 경력	1974.1	중국공산당 입당
	1979–82	국무원 판공청, 중앙군사위원회 판공청 비서
	1982–85	허베이성(河北省) 정딩현(正定縣) 부서기, 서기
	1985–88	푸젠성(福建省) 샤먼시(厦門市) 상무위원, 부시장
	1988–90	푸젠성 닝더(寧德)지역위 서기, 닝더 군분구(軍分區) 당위 제1서기
	1990–93	푸젠성 푸저우시(福州市) 서기,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1993–95	푸젠성 상무위원, 푸저우시 서기,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1995–99	푸젠성 부서기, 푸저우시 서기,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1999–00	푸젠성 부서기, 성장대리, 난징(南京)군구 국방동원위원회 부주임, 푸젠성 국방동원위원회 부주임
	2000–02	푸젠성 부서기, 성장
	2002–07	저장성 부서기, 서기, 성장대리, 저장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 주임
	2007	상하이시 서기, 상하이 경비구(警備區) 당위 제1서기
	2007–12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중앙서기처 서기, 중앙당교(中央黨校) 교장, 중화인민공화국 부주석(2008–12), 중공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2010–12),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10–12)
	2012–13	중공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공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중화인민공화국 부주석,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2013–	중공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 위원회 주석, 중공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중앙국가안전위원회 주석(14–)
	※ 제15기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제16–18기 중앙위원회 위원, 제17–18기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5. 기타	방한경력 :	1995.7월 푸저우시 당서기(SK 초청)
		2005.7.18–24 저정성 당서기(유력인사 초청사업 일환)
		2009.12.16–19 국가 부주석(정부 초청)
		2014.7.3–4 국가 주석(국빈 방한)
	방북경력 :	2005.7.9–12 공산당 대표단 단장
		2008.6.17–19 국가 부주석

리커창(李克强, Li Keqiang)



1. 현직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국무원 총리 당조(黨組) 서기	
2. 출생	1955.7월생(안후이성 허페이, 安徽省 合肥)	
3. 학력	베이징대 법학과 학사(82) 베이징대 경제학 석사(88) 중앙당교 성부급(省部級) 간부 연수반(91) 베이징대 경제학 박사(95)	
4. 경력	1976	중국공산당 입당
	1982–83	베이징대 공청단 서기
	1983–85	공청단 중앙학교부 부장, 중화전국학생연합회(學聯) 비서장
	1985–93	공청단 중앙서기처 서기, 중화전국청년연합회(青聯) 부주석
	1993–98	공청단 중앙서기처 제1서기, 중국청년정치학원 원장
	1998–99	허난성(河南省) 부서기, 성장대리
	1999–02	허난성 부서기, 성장
	2002–03	허난성 서기, 성장
	2003–04	허난성 서기, 허난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 주임
	2004–05	랴오닝성(遼寧省) 서기
	2005–07	랴오닝성 서기, 랴오닝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 주임
	2007–08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2008–13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국무원 부총리, 당조 부서기, 국무원 싼샤(三峽) 공정건설위원회 주임, 국무원 남수북조(南水北調)공정건설위원회 주임, 국무원 심화의약위생체제개혁영도소조 조장
	2013–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국무원 총리, 당조 서기, 국무원 싼샤공정건설위원회 주임, 국무원 남수북조공정건설위원회 주임, 국무원 심화의약위생체제개혁영도소조 조장
	※ 제15–18기 중앙위원회 위원, 제17–18기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5. 기타	방한경력 :	1995년 공청단 중앙서기처 제1서기
		2005.9월 랴오닝성 당서기(유력인사 초청사업)
		2011.10월 국무원 상무부총리
		2015.10.31–11.2 국무원 총리(제6차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
	방북경력 :	1986, 1988년 공청단 서기
		2005.9월 랴오닝성 대표단 단장(북한 평안북도 노동당위원회 초청)
		2011.10월 국무원 상무부총리

장더장(張德江, Zhang Dejiang)



1. 현직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 상무위원장	
2. 출생	1946.11월생(랴오닝성 타이안, 遼寧省 台安)	
3. 학력	옌볜(延邊)대 조선어학과(75) 김일성종합대 경제학과(80)	
4. 경력	1971	중국공산당 입당
	1970–72	지린성(吉林省) 왕칭현(汪清縣) 혁명위원회 선전조 간사, 기관 공청당 지부 서기
	1975–78	옌볜대 조선어과 당총지부 부서기, 옌볜대 당위(黨委) 상무위원, 혁명위원회 부주임
	1980–83	옌볜대 당위원회 상무위원, 부총장
	1983–85	지린성 옌지시(延吉市) 부서기, 옌볜조선족자치주 상무위원
	1985–86	옌볜조선족자치주 부서기
	1986–90	민정부 부부장, 당조(黨組) 부서기
	1990–95	지린성 부서기 겸 옌볜조선족자치주 서기
	1995–98	지린성 서기, 지린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1998–02	저장성(浙江省) 서기
	2002–07	중앙정치국 위원, 광둥성(廣東省) 서기
	2007–08	중앙정치국 위원
	2008–12	중앙정치국 위원, 국무원 부총리, 당조 구성원
	2012	중앙정치국 위원, 국무원 부총리, 당조 구성원, 충칭시(重慶市) 서기
	2012–13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국무원 부총리, 당조 구성원
	2013–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 중국공산당 제14기(1992–1997년)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제15–18기 중앙위원회 위원, 제16–18기 중앙정치국 위원, 제18기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5. 기타	방한경력 :	1992.10.25–11.4 중국 옌볜 조선족자치주 경제시찰단 단장 2015.6.11–13 전인대 상무위원장(정의화 국회의장 초청)
	방북경력 :	1990.3월 장쩌민 총서기 방북 수행 2011.7.10–13 중국우호대표단 단장

위정성(俞正聲, Yu Zhengsheng)



1. 현직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全國政協) 주석	
2. 출생	1945.4월생(저장성 샤오싱, 浙江省 紹興)	
3. 학력	하얼빈군사공정학원 미사일공학과 학사(68)	
4. 경력	1964	중국공산당 입당
	1985–87	산둥성(山東省) 옌타이시(煙臺市) 부서기
	1987–89	산둥성 옌타이시 공산당 부서기, 시장
	1989–92	산둥성 칭다오시(靑島市) 부서기, 부시장, 시장
	1992–94	산둥성 위원회 상무위원, 칭다오시 서기, 시장
	1994–97	산둥성 워원회 상무위원, 칭다오시 서기
	1997–98	건설부 당조 서기, 부부장
	1998–01	건설부 부장, 당조 서기
	2001–02	후베이성(湖北省) 서기
	2002–03	중앙정치국 위원, 후베이성 서기, 후베이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 주임
	2003–07	중앙정치국 위원, 후베이성 서기
	2007–12	중앙정치국 위원, 상하이시 서기(–2012.11) (2010년 상하이 엑스포 조직위원회 제1 부주임위원, 집행위원회 주임)
	2013–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제12기 전국정협 주석
	※ 제14기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제15–18기 중앙위원회 위원, 제16–18기 중앙정치국 위원, 제18기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5. 기타	방한경력 :	1994.5월 산둥성 칭다오 시장 1995–96년 산둥성 칭다오 서기 2003.4월 중앙정치국 위원 겸 후베이성 서기(미래지향사업)

류윈산(劉雲山, Liu Yunshan)



1. 현직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중국공산당 중앙서기처 서기 중국공산당 중앙당교 교장	
2. 출생	1947.7월생(산시성 신저우, 山西省 忻州)	
3. 학력	네이멍구(內蒙古)자치구 지닝(集寧)사범대(68) 중앙당교 당정관리학(92)	
4. 경력	1971	중국공산당 입당
	1975–82	신화통신사 네이멍구 농목조(農牧組) 기자, 부조장, 지사 당조 구성원
	1982–84	공청단 네이멍구자치구 부서기, 당조 부서기
	1984–86	네이멍구자치구 당위 선전부 부부장
	1986–87	네이멍구자치구 당위 상무위원, 선전부 부장
	1987–91	네이멍구자치구 당위 상무위원, 비서장 겸 자치구 직속기관 노동운동위원회 서기
	1991–92	네이멍구자치구 당위 상무위원, 츠펑시(赤峰市) 서기
	1992–93	네이멍구자치구 부서기 겸 츠펑시 서기
	1993–97	중앙선전부 부부장
	1997–02	중앙선전부 부장, 중앙정신문명건설지도위원회 판공실 주임
	2002–12	중앙정치국 위원, 중앙서기처 서기, 중앙선전부 부장
	2012–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중앙서기처 서기, 중앙당교 교장(2013.1–), 중앙정신문명건설지도위원회 주임
	※ 제12, 14기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제15–18기 중앙위원회 위원, 제16–18기 중앙정치국 위원, 중앙서기처 서기, 제18기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5. 기타	방한경력 : 2006.9.5–9 공산당 대표단	
	방북경력 : 2007.10.29–30 공산당 대표단	
	2015.10.9–12 북한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식 참석	

왕치산(王岐山, Wang Qishan)



1. 현직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중국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	
2. 출생	1948.7월생(산시성 톈전, 山西省 天鎭)	
3. 학력	시베이(西北)대 역사학과(76) 중앙당교(92)	
4. 경력	1983	중국공산당 입당
	1986–88	중앙서기처 농촌정책연구실 연구원(국장급), 국무원 농촌발전연구센터 연락실 주임 겸 전국농촌개혁실험구 판공실 주임, 국무원 농촌발전연구센터 발전연구소 소장
	1988–89	중국농촌신탁투자공사 총경리, 당위 서기
	1989–93	중국인민건설은행 부행장, 당조 구성원
	1993–94	중국인민건설은행 부행장, 당조 구성원
	1994–96	중국인민건설은행 행장, 당조 서기
	1996–97	중국건설은행 행장, 당조 서기
	1997–98	광둥성(廣東省) 당위 상무위원
	1998–00	광둥성 상무위원, 부성장
	2000–02	국무원 경제체제개혁판공실 주임, 당조 서기
	2002–03	하이난성(海南省) 서기, 하이난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2003–07	베이징시 부서기, 시장대리, 시장, 베이징올림픽조직위원회 집행주석, 당조 부서기
	2007–08	중앙정치국 위원
	2008–11	중앙정치국 위원, 국무원 부총리, 당조 구성원 (2010년 상하이 엑스포 조직위원회 주임위원)
	2011–12	중앙정치국 위원, 국무원 부총리, 당조 구성원
	2012–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 국무원 부총리, 당조 구성원
	※ 제15기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제16–18기 중앙위원회 위원, 제17–18기 중앙정치국 위원, 제18기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상무위원, 서기	
5. 기타	방한경력 : 2010.11.11–13 G20 서울정상회의 계기 후진타오 주석 방한 수행 2012.6.27–29 여수엑스포 중국의 날 행사 참석차 방문	

장가오리(張高麗, Zhang Gaoli)



1. 현직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국무원 부총리	
2. 출생	1946.11월생(푸젠성 진장, 福建省 晋江)	
3. 학력	샤먼(厦門)대 경제학과(70) 중앙당교 성부급(省部級) 간부 연수반 학습(90)	
4. 경력	1973	중국공산당 입당
	1983–84	석유부 광둥(廣東)마오밍석유공업공사 당위(黨委) 상무위원, 부사장
	1984–85	광둥성 마오밍시(茂名市) 부서기, 중국석화총공사 마오밍석유공업공사 사장
	1985–88	광둥성 경제위원회 주임, 당조(黨組) 서기
	1988–92	광둥성 부성장
	1992–93	광둥성 부성장, 광둥성 계획위원회 주임, 당조 서기
	1993–94	광둥성 상무위원, 부성장 겸 광둥성 계획위원회 주임, 당조 서기
	1994–97	광둥성 상무위원, 부성장, 주장 삼각주(珠江三角洲)경제구 규획협조영도소조 조장
	1997–98	광둥성 상무위원, 부성장, 선전시(深圳市) 서기
	1998–00	광둥성 부서기, 선전시 서기
	2000–01	광둥성 부서기, 선전시 서기, 선전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2001–02	산둥성(山東省) 부서기, 대리성장, 성장
	2002–03	산둥성 서기, 성장
	2003–07	산둥성 서기 겸 산둥성 인민대표대회 주임
	2007	톈진시(天津市) 서기
	2007–12	중앙정치국 위원, 톈진시 서기
	2012–13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톈진시 서기(–2012.11)
	2013–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국무원 부총리, 당조 부서기
	※ 제15기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제16–18기 중앙위원회 위원, 제17–18기 중앙정치국 위원, 제18기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5. 기타	방한경력 : 2003.10.24–29 산둥성 당서기	

마카이(馬凱, Ma Kai)



1. 현직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국무원 부총리	
2. 출생	1946.6월생(상하이 진산, 上海 金山)	
3. 학력	베이징당교 이론반(79) 인민(人民)대 경제학 석사(82) 중앙당교 성부급(省部級) 간부 연수반 학습(92, 97)	
4. 경력	1965	중국공산당 입당
	1982–83	국가물가국 물가연구소 조리(助理)연구원
	1984–85	베이징시 시청구(西城區) 부구장(區長), 시청구 계획위원회 주임
	1985–86	베이징시 체제개혁위원회 판공실 부주임
	1986–88	베이징시 물가국 국장, 당조 서기
	1988–93	국가물가국 부국장, 당조 구성원
	1993–95	국가경제체제개혁위원회 부주임, 당조 구성원
	1995–98	국가계획위원회 부주임, 당조 구성원
	1998–00	국무원 부비서장, 기관 당조 구성원
	2000–03	국무원 부비서장(국무원 판공청 상무공작 담당, 장관급), 기관 당조 부서기
	2003–08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당조 서기, 국무원 서부지구개발영도소조 판공실 주임, 국가에너지영도소조 판공실 주임(2005–)
	2008–12	국무위원, 국무원 당조 구성원, 국무원 비서장, 기관 당조 서기, 중앙국가기관공작위원회 서기, 국가행정학원 원장
	2012–13	중앙정치국 위원, 국무위원, 국무원 당조 구성원 겸 국무원 비서장, 기관 당조 서기, 중앙국가기관공작위원회 서기, 국가행정학원 원장
	2013–	중앙정치국 위원, 국무원 부총리, 당조 구성원
	※ 제16–18기 중앙위원회 위원, 제18기 중앙정치국 위원, 제15기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위원	
5. 기타	방한경력 : 2006.8.29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왕후닝(王滬寧, Wang Huning)



1. 현직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중국공산당 중앙정책연구실 주임 중국공산당 중앙개혁판공실 주임	
2. 출생	1955.10월생(산둥성 라이저우, 山東省 萊州)	
3. 학력	상하이 사범대 간부학교 외국어 훈련반(77) 상하이 푸단(复旦)대 법학석사(국제정치)(81)	
4. 경력	1977–78	상하이시 출판국 간부
	1981–89	상하이 푸단대 국제정치학과 강사, 부교수, 교수 (1988–89 미국 아이오와대, UC버클리 방문학자)
	1984	중국공산당 입당
	1989–94	푸단대 국제정치학과 주임
	1994–95	푸단대 법학원 원장
	1995–98	중앙정책연구실 정치조 조장
	1998–02	중앙정책연구실 부주임
	2002–07	중앙정책연구실 주임
	2007–12	중앙서기처 서기, 중앙정책연구실 주임
	2012–	중앙정치국 위원, 중앙정책연구실 주임, 중앙개혁판공실 주임
	※ 제16–18기 중앙위원회 위원, 제17기 중앙서기처 서기, 제18기 중앙정치국 위원	
5. 기타	방한경력 :	2005.11.16–17 후진타오 국가주석 국빈방한 수행
		2008.8.25–26 후진타오 국가주석 국빈방한 수행
		2014.7.3–4 시진핑 국가주석 국빈방한 수행
	방북경력 :	2001.9.3–5 장쩌민 국가주석 수행
		2005.10.28–30 후진타오 국가주석 수행

류옌둥 (劉延東, Liu Yandong)



1. 현직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국무원 부총리	
2. 출생	1945.11월생(장쑤성 난퉁, 江蘇省 南通)	
3. 학력	칭화(淸華)대 공정화학과 학사(70) 인민(人民)대 사회학 석사(94) 지린(吉林)대 행정학원 법학 박사(98)	
4. 경력	1964	중국공산당 입당
	1982–91	공청단 중앙서기처 서기, 상무서기, 전국청년연합회 부주석, 주석
	1991–95	중앙통일전선공작부 부비서장, 부부장, 전국청년연합회 주석
	1995–98	중앙통일전선공작부 부부장, 중앙사회주의학원 당조 서기
	1998–01	중앙통일전선공작부 부부장(장관급), 중앙사회주의학원 당조 서기
	2001–02	중앙통일전선공작부 부부장(장관급), 중앙사회주의학원 당조 서기, 쑹칭링(宋慶齡)기금회 부주석
	2002–03	중앙통일전선공작부 부장, 중앙사회주의학원 당조 서기, 쑹칭링기금회 부주석
	2003–05	제10기 전국정협 부주석, 당조 구성원, 중앙통일전선공작부 부장, 쑹칭링기금회 부주석
	2005–07	제10기 전국정협 부주석, 당조 구성원, 중앙통일전선공작부 부장
	2007–08	중앙정치국 위원, 제10기 전국정협 부주석, 당조 구성원
	2008–09	중앙정치국 위원, 국무위원, 국무원 당조 구성원, 베이징올림픽조직위원회 부주석, 당조 부서기
	2009–13	중앙정치국 위원, 국무위원, 국무원 당조 구성원
	2013	중앙정치국 위원, 국무원 부총리, 당조 구성원
	2015–	중앙정치국 위원, 국무원 부총리, 당조 구성원, 중국축구개혁발전소조 조장
	※ 제15기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제16–18기 중앙위원회 위원, 제17–18기 중앙정치국 위원,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 제6, 8, 9기 전국정협 상무위원회 위원, 제10기 전국정협 부주석	
5. 기타	방한경력 : 1992년 중화전국청년연합회 주석, 유엔 여성관련 국제회의(서울) 참석 2013.2.23–26 제18대 대통령취임식 중국 측 특별대표	

류치바오(劉奇葆, Liu Qibao)



1. 현직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중국공산당 중앙서기처 서기 중국공산당 중앙선전부 부장	
2. 출생	1953.1월생(안후이성 쑤쑹, 安徽省 宿松)	
3. 학력	안후이사범대학 역사학과 학사(72–74) 지린(吉林)대 국민경제계획 및 관리학과 경제학석사(92)	
4. 경력	1971	중국공산당 입당
	1974–77	안후이성 당위(黨委) 선전부 이론연구실 간부
	1977–80	안후이성 당위 판공청 비서실 비서
	1980–82	공청단 안후이성 당위 선전부 부부장
	1982–83	공청단 안후이성 당위 부서기, 당조(黨组) 구성원 겸 선전부장
	1983–85	공청단 안후이성 당위 서기, 당조 서기
	1985–93	공청단 중앙서기처 서기, 공청단 중앙 당위 서기
	1993–94	인민일보사 부총편집장
	1994–00	국무원 부비서장, 당위 구성원
	2000	광시(廣西)좡족(壯族)자치구 부서기
	2000–06	광시좡족자치구 부서기 겸 자치구 당교(黨校) 교장
	2006–07	광시좡족자치구 서기 겸 자치구 당교(黨校) 교장
	2007	광시좡족자치구 서기 겸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주임
	2007–08	쓰촨성(四川省) 서기
	2008–12	쓰촨성 서기 겸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2012.11–	중앙정치국 위원, 중앙서기처 서기, 중앙선전부 부장
	※ 제16기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제17–18기 중앙위원회 위원, 제18기 중앙정치국 위원, 중앙서기처 서기	
5. 기타	방한경력 : 5.20–23 중앙선전부 부장	

쉬치량 (許其亮, Xu Qiliang)



1. 현직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2. 출생	1950.3월생(산둥성 린취, 山東省 臨朐)	
3. 학력	중국인민해방군 공군 제5항공학교 이수(68–69) 중국인민해방군 국방대학 전역연수반(戰役進修班) 이수(94)	
4. 경력	1966	중국인민해방군 입대
	1967	중국공산당 입당
	1989–90	중국인민해방군 공군 제8군 참모장, 제8군 대리군장(代理軍長)
	1990–93	중국인민해방군 공군 제8군 군장
	1993–94	중국인민해방군 공군 부참모장
	1994–99	중국인민해방군 공군 참모장
	1999–04	선양(沈陽)군구 부사령관 겸 군구 공군 사령관
	2004–07	중국인민해방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2007–08	중국인민해방군 공군 사령관, 중공중앙군사위 위원
	2008–12	중국인민해방군 공군 사령관, 중공중앙군사위 위원, 국가중앙군사위원회 위원
	2012–13	중앙정치국 위원, 중공중앙군사위 부주석, 국가중앙군사위 위원
	2013–	중앙정치국 위원, 중공중앙군사위 부주석, 국가중앙군사위 부주석
	※ 제14–15기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제16–18기 중앙위원회 위원, 제18기 중앙정치국 위원	
5. 기타	1991년 공군 소장 진급 1996년 공군 중장 진급 2007년 상장 진급	

쑨춘란(孫春蘭, Sun Chunlan)



1. 현직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중국공산당 중앙통일전선부(統戰部) 부장 중화해외우의회(聯誼會) 회장 중국평화통일촉진회 집행부회장	
2. 출생	1950.5월생(허베이성 라오양, 河北省 饒陽)	
3. 학력	안산시(鞍山市)공업기술학교 기계학과 이수(69) 랴오닝(遼寧)대 경제학과 경제관리학 학사(84, 91) 중앙당교 간부 연수반 이수(93)	
4. 경력	1973	중국공산당 입당
	1988–91	랴오닝성 안산시 부녀연합회 주임
	1991–93	랴오닝성 총공회(總工會) 부주석
	1993–94	랴오닝성 부녀연합회 주석
	1994–95	랴오닝성 총공회 주석
	1995–97	랴오닝성 당위(黨委) 상무위원, 성 총공회 주석
	1997–01	랴오닝성 부서기, 당교(黨校) 교장
	2001–05	랴오닝성 부서기, 다롄시(大連市) 당위 서기
	2005	전국총공회 당조(黨組) 서기
	2005–09	전국총공회 부주석, 총공회 서기처 제1서기, 당조 서기
	2009–10	푸젠성(福建省) 서기
	2010–12	푸젠성 서기,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2012–14	중앙정치국 위원, 톈진시 당위 위원, 상무위원, 서기, 푸젠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2013.1)
	2014–15	중앙정치국 위원, 중앙통전부 부장
	2015–	중앙정치국 위원, 중앙통전부 부장, 중화해외우의회(聯誼會) 회장
	※ 제15–16기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제17–18기 중앙위원회 위원, 제18기 중앙정치국 위원	
5. 기타		

쑨정차이(孫政才, Sun Zhengcai)



1. 현직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충칭시 서기	
2. 출생	1963.9월생(산둥성 룽청, 山東省 榮成)	
3. 학력	산둥성 라이양(萊陽)농업학원 농학 학사(84) 베이징(北京)농림과학원 농학 석사(87) 및 박사(97)	
4. 경력	1988	중국공산당 입당
	1994–95	베이징시(北京市) 농림과학원 부원장
	1995–96	베이징시농림과학원 당위(黨委) 부서기, 상무부원장
	1997–98	베이징시 순이현(順義縣) 당위 부서기, 현장
	1998–02	베이징시 순이구(順義區) 당위 서기, 구장(區長), 시 당위 상무위원
	2002–06	베이징시 당위 상무위원, 시 당위 비서장
	2006–09	농업부 부장, 당조(黨組) 서기
	2009–10	지린성(吉林省) 서기
	2010–12	지린성 서기(–2012.11),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2012–	중앙정치국 위원, 충칭시위 당서기, 지린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2013.1)
	※ 제17–18기 중앙위원회 위원, 제18기 중앙정치국 위원	
5. 기타	방한경력 :	2000.1.25–31 베이징시 순이구 구장 자격 2012.6.17–19 유력인사 초청사업

리젠궈(李建國, Li Jianguo)



1. 현직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중화전국총공회(總工會) 주석	
2. 출생	1946.4월생(산둥성 쥐안청, 山東省 鄄城)	
3. 학력	산둥대 중문과 학사(69)	
4. 경력	1976–78	톈진시(天津市) 당위(黨委) 농업위선전처 간사
	1978–81	톈진시 당위 판공청 간사, 부주임
	1981–88	톈진시 당위 판공청 주임
	1988–89	톈진시 당위 부비서장 겸 판공청 주임
	1989–91	톈진시 당위 비서장
	1991–92	톈진시 상무위원, 비서장, 허핑구(和平區) 당위 서기
	1992–97	톈진시 부서기
	1997–98	산시성(陝西省) 서기
	1998–07	산시성 서기, 성 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주임
	2007–08	산둥성 서기, 성 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주임
	2008–12	제11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당조(黨組) 구성원 겸 비서장, 산둥성 인대상무위원회 주임(–2009.2)
	2012–13	제18기 중앙정치국 위원, 제11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겸 비서장, 당조 구성원
	2013.3–	제18기 중앙정치국 위원, 제12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당조 부서기, 중화전국총공회 주석
	※ 제14기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제15–18기 중앙위원회 위원, 제18기 중앙정치국 위원, 제11–12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5. 기타	방한경력 : 2001.11.14–18 한·중 차세대 지도자교류사업	
	방북경력 : 2012.11.29–30 중공우호대표단	

리위안차오(李源潮, Li Yuanchao)



1. 현직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중화인민공화국 부주석	
2. 출생	1950.11월생(장쑤성 롄수이, 江蘇省 漣水)	
3. 학력	푸단대 수학과 학사(78–82) 베이징대 경제관리학 석사(88–91) 중앙당교 과학사회주의학 박사(91–95)	
4. 경력	1978.3	중국공산당 입당
	1982–83	푸단대 관리학과 교사, 교내 공청단 위원회 부서기, 서기
	1983–83	공청단 상하이시(上海市) 위원회 부서기, 서기
	1983–90	공청단 중앙서기처 서기
	1990–93	중앙대외선전소조 1국 국장
	1993–96	중앙대외선전소조 부조장, 중앙대외선전판공실 부주임, 국무원신문판공실 부주임
	1996–00	문화부 부부장
	2000–01	장쑤성 부서기
	2001–02	장쑤성 부서기, 난징시(南京市) 서기
	2003–07	장쑤성 서기, 난징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2007–12	중앙정치국 위원, 중앙서기처 서기, 중앙조직부 부장
	2012	중앙정치국 위원
	2013–15	중앙정치국 위원, 중화인민공화국 부주석
	2015–	중앙정치국 위원, 중화인민공화국 부주석, 중국적십자회 명예회장
	※ 제16기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제17–18기 중앙정치국 위원, 제7기 전국정협 상무위원, 제8–9기 전국정협 위원	
5. 기타	방한경력 : 2003.8월 한·중 미래지향 교류사업 방북경력 : 2011.6월 공산당 대표단	

왕양(汪洋, Wang Yang)



1. 현직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국무원 부총리	
2. 출생	1955.3월생(안후이성 쑤저우, 安徽省 宿州)	
3. 학력	중앙당교 당정관리 전공 학사(92) 중국과학기술대 관리과학 전공 석사(95)	
4. 경력	1975.8	중국공산당 입당
	1981–82	공청단 안후이성 쑤현지역 위원회 부서기
	1982–83	공청단 안후이성 위원회 선전부 부장
	1983–84	공청단 안후이성 위원회 부서기
	1984–87	안후이성 체육위원회 부주임
	1987–88	안후이성 체육위원회 주임
	1988–92	안후이성 퉁링시(銅陵市) 당위(黨委) 부서기, 시장대리, 시장
	1992–93	안후이성 계획위원회 주임, 성장조리
	1993–98	안후이성 당위 상무위원, 부성장
	1998–99	안후이성 부서기, 부성장
	1999–03	국가발전계획위원회 부주임
	2003–05	국무원 부비서장, 기관 당조 부서기
	2005–06	충칭시(重慶市) 서기
	2006–07	충칭시 서기, 충칭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2007–12	중앙정치국 위원, 광둥성(廣東省) 서기
	2012–13	중앙정치국 위원
	2013–	중앙정치국 위원, 국무원 부총리, 당조 구성원
	※ 제16기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제17–18기 중앙정치국 위원	
5. 기타	방한경력 : 2009.11.1–3 유력인사 초청 2015.1.22–24 국무원 부총리(2015 중국 관광의 해 개막식 참석)	

장춘셴(張春賢, Zhang Chunxian)



1. 현직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 서기	
2. 출생	1953.5월생(허난성 위현, 河南省 禹縣)	
3. 학력	둥베이(東北)중형기계학원 기계제조학 학사(80) 하얼빈(哈爾濱)공업대학 관리과학공정학 석사(02)	
4. 경력	1973	중국공산당 입당
	1995–97	윈난성(雲南省) 성장조리
	1997–98	교통부 당조(黨組) 구성원
	1998–02	교통부 부부장, 당조 구성원
	2002–05	교통부 부장, 당조 서기
	2006–10	후난성(湖南省) 서기,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2010–12	신장위구르자치구 서기, 신장 생산건설부대 제1정치위원
	2012.11–	중앙정치국 위원, 신장위구르자치구 서기, 신장 생산건설부대 제1정치위원
	※ 제16–18기 중앙위원회 위원, 제18기 중앙정치국 위원	
5. 기타		

판창룽(范長龍, Fan Changlong)



1. 현직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2. 출생	1947.5월생(랴오닝성 둥강, 遼寧省 東港)	
3. 학력	해방군군사학원(82) 중앙당교 영도간부 통신교육반 경제관리학(94)	
4. 경력	1969	중국인민해방군, 중국공산당 입당
	1993–00	육군 제16군 참모장, 군장, 소장 진급(95)
	2000–03	선양(沈陽)군구 참모장, 중장 진급(02)
	2003–04	인민해방군 총참모장 조리(助理)
	2004–12	지난(濟南)군구 사령관
	2012	중앙정치국 위원, 중공중앙군사위 부주석
	2013.3–	중앙정치국 위원, 중공중앙군사위 부주석, 국가중앙군사위 부주석
	※ 제16기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제17–18기 중앙위원회 위원, 제18기 중앙정치국 위원	
5. 기타		

멍젠주(孟建柱, Meng Jianzhu)



1. 현직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중국공산당 정법위원회 서기	
2. 출생	1947.7월생(장쑤성 쑤저우, 江蘇省 蘇州)	
3. 학력	경제관리통신교육연합대 상하이(上海)분교 공업기업관리학 학사(86) 상하이기계학원 시스템엔지니어링학 석사(91)	
4. 경력	1971	중국공산당 입당
	1986–90	상하이시 촨사현(川沙縣) 당위(黨委) 서기
	1990–91	상하이시 자딩현(嘉定縣) 당위 서기
	1991–92	상하이시 농촌공작 당위 서기
	1992–93	상하이시 농촌공작 당위 서기, 시정부 부비서장
	1993–96	상하이시 부시장
	1996	상하이시 상무위원, 부시장
	1996–01	상하이시 부서기, 부시장
	2001–07	장시성(江西省) 서기,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2007–08	공안부 부장, 공안부 당위 서기
	2008–12	국무위원, 국무원 당조 구성원, 중앙정법위원회 부서기, 공안부 부장, 공안부 당위 서기, 총경감(總警監, –2012.1)
	2012.12–	중앙정치국 위원, 국무위원, 국무원 당조 구성원(–2013.3), 중앙정법위원회 서기, 중앙사회관리종합치리위원회 주임
	※ 제15기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제16–18 중앙위원회 위원, 제18기 중앙정치국 위원	
5. 기타	방한경력 : 1999.9.15–17 상하이시 부시장 2012.7.12–14 공안부장	

자오러지(趙樂際, Zhao Leji)



1. 현직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중국공산당 중앙조직부 부장 중국공산당 중앙서기처 서기	
2. 출생	1957.3월생(산시성 시안, 陝西省 西安)	
3. 학력	베이징대 철학과 학사(80) 중국사회과학원 화폐은행전공 석사(98) 중앙당교 정치학 석사(05)	
4. 경력	1975.7	중국공산당 입당
	1983–84	칭하이성(青海省) 상업청 정치과 부주임, 상업청 공청단 서기
	1984–86	칭하이성 우진(五金)교통전기화공공사 당위(黨委) 서기, 사장
	1986–91	칭하이성 상업청 부청장, 당위 부서기
	1991–93	칭하이성 상업청 청장, 당위 서기
	1993–94	칭하이성 성장조리, 성 재정청 청장, 당조(黨組) 서기
	1994–95	칭하이성 부성장, 성 재정청 청장, 당조 서기
	1995–97	칭하이성 부성장
	1997–99	칭하이성 부서기, 시닝시(西寧市) 서기
	1999–03	칭하이성 부서기, 성장대리, 성장
	2003–04	칭하이성 서기
	2004–07	칭하이성 서기,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 주임
	2007–08	산시성(陝西省) 서기
	2008–12	산시성 서기,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 주임(–12.11)
	2012–	중앙정치국 위원, 중앙서기처 서기, 중앙조직부 부장
	※ 중국공산당 제15기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제16–18기 중앙위원회 위원, 제18기 중앙정치국 위원	
5. 기타		

후춘화(胡春華, Hu Chunhua)



1. 현직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광둥성(廣東省) 서기	
2. 출생	1963.4월생(후베이성 우펑, 湖北省 五峰)	
3. 학력	베이징대 중문과 학사(83) 중앙당교(中央黨校) 중청반(中青班) 연수(97) 중앙당교 세계경제 석사과정(99) 중앙당교 성부급 간부연수반(00)	
4. 경력	1983.4	중국공산당 입당
	1987–92	공청단(共青團) 티베트(西藏)자치구 부서기
	1992–95	공청단 티베트자치구 서기
	1995–97	티베트자치구 산난(山南) 지역위원회(地委) 부서기
	1997–01	공청단 중앙서기처 서기, 중화전국청년연합회(青聯) 부주석(98–01)
	2001–03	티베트자치구 당위(黨委) 상무위원, 비서장, 직속기관공작위원회 서기
	2003–05	티베트자치구 부서기, 상무 부주석
	2005–06	티베트자치구 상무 부서기, 당교(黨校) 교장
	2006–08	공청단 중앙서기처 제1서기
	2008–09	허베이성(河北省) 부서기, 부성장, 대리성장, 당조(黨組) 서기
	2009	허베이성 부서기, 성장, 당조 서기
	2009–10	네이멍구(內蒙古)자치구 서기(09.11–)
	2010–12	네이멍구자치구 서기,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13.1)
	2012.11–	중앙정치국 위원, 광둥성 서기(12.12–)
	※ 제17–18기 중앙위원회 위원, 제18기 중앙정치국 위원	
5. 기타	방한경력 : 2009.6.21–23 허베이성장 방한(경기도 초청)	

리잔수(栗戰書, Li Zhanshu)



1. 현직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중국공산당 중앙서기처 서기 중국공산당 중앙판공청 주임	
2. 출생	1950.8월생(허베이성 핑산, 河北省 平山)	
3. 학력	허베이사범대 사상정치교육과(야간)(83) 중앙당교(통신교육) 경제학전공(94) 중국사회과학원 대학원 재정무역학과(98) 하얼빈공업대 고급공상관리 석사(07)	
4. 경력	1975.4	중국공산당 입당
	1976–83	허베이성 스자좡(石家莊) 당위(黨委) 판공실 자료과 간사, 과장
	1983–85	허베이성 우지현(無極縣) 서기
	1985–86	허베이성 부서기
	1986–90	공청단 허베이성 위원회 서기
	1990–93	허베이성 청더(承德) 부서기, 행정관서(行署) 책임자(專員)
	1993–97	허베이성 상무위원, 비서장
	1997–98	허베이성 상무위원, 농촌공작영도소조 부조장
	1998–00	산시성(陝西省) 상무위원, 농촌공작영도소조 부조장, 판공실 주임
	2000–02	산시성 상무위원, 조직부 부장
	2002	산시성 상무위원, 조직부 부장, 시안시(西安市) 서기,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2002–03	산시성 부서기, 조직부 부장, 시안시 서기,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2003–04	헤이룽장성(黑龍江省) 부서기
	2004–10	헤이룽장성 부서기, 부성장(04–07), 대리성장(07–08), 성장(08–10)
	2010–12	구이저우성(貴州省) 서기,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서기
	2012	중앙판공청 상무 부주임(부장급), 중앙판공청 주임, 중앙직속기관공작위원회 서기, 구이저우성 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주임
	2012–13	중앙정치국 위원, 중앙서기처 서기, 중앙판공청 주임, 중앙직속기관공작위원회 서기, 구이저우성 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주임
	2013.1–	중앙정치국 위원, 중앙서기처 서기, 중앙판공청 주임, 중앙직속기관 공작위원회 서기
	※ 제16–17기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제18기 중앙위원회 위원, 중앙정치국 위원, 중앙서기처 서기	
5. 기타		

궈진룽 (郭金龍, Guo Jinlong)



1. 현직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베이징시 서기	
2. 출생	1947.7월생(장쑤성 난징, 江蘇省 南京)	
3. 학력	난징대 물리학 학사(69)	
4. 경력	1979	중국공산당 입당
	1979–80	쓰촨성(四川省) 중현(忠縣) 선전부 이론 교원
	1980–81	쓰촨성 중현 문화교육국(文教局) 부국장
	1981–83	쓰촨성 중현 문화국 국장
	1983–85	쓰촨성 중현 부서기, 현장
	1985–87	쓰촨성 농촌정책연구실 부주임, 농촌경제위원회 부주임
	1987–90	쓰촨성 러산시(樂山市) 부서기
	1990–92	쓰촨성 러산시 서기
	1993	쓰촨성 부서기
	1993–94	시짱(西藏)자치구(티베트) 부서기
	1994–00	시짱자치구(티베트) 상무 부서기
	2000–04	시짱자치구(티베트) 서기
	2004–05	안후이성(安徽省) 서기
	2005–07	안후이성 서기, 성 인민대표 상무위원회 주임
	2007–12	베이징시 부서기, 대리시장, 시장(08–12), 베이징올림픽조직위 집행주석, 당조(黨組) 부서기
	2012	베이징시 서기
	2012.11–	중앙정치국위원, 베이징시 서기
	※ 제15기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제16–18기 중앙위원회 위원, 제18기 중앙정치국 위원, 제10–11기 전인대 대표	
5. 기타		

한정(韓正, Han Zheng)



1. 현직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상하이시 서기	
2. 출생	1954.4월생(저장성 츠시시, 折江省 慈溪市)	
3. 학력	푸단대 부속 전문대(大專班)(85) 화둥(華東)사범대 야간과정 정치교육전공(87) 화둥사범대 국제문제연구소 국제관계 및 세계경제학 석사(94)	
4. 경력	1979.5	중국공산당 입당
	1982–86	상하이시 화공국 공청단 서기
	1986–87	상하이시 화공전문학교 당위(黨委) 서기
	1987–88	상하이고무신공장(膠鞋廠) 당위 서기, 부공장장
	1988–90	상하이대중화고무공장 당위 서기, 부공장장
	1990–92	공청단 상하이시 위원회 부서기, 서기
	1992–95	상하이시 루완구(盧灣區) 부서기, 구장
	1995–97	상하이시 정부 부비서장, 시 종합경제업무 당위 부서기, 시 계획위원회 주임, 당조(黨組) 서기, 시 증권관리 판공실 주임
	1997–98	상하이시 상무위원, 시 정부 부비서장
	1998–02	상하이시 상무위원, 부시장
	2002–04	상하이시 부서기, 상무부시장, 시장
	2004–06	상하이시 부서기, 시장, 2010년 상하이 세계엑스포조직위 부주임위원, 집행위원회 집행주임
	2006–07	상하이시 대리서기, 시장, 2010년 상하이 세계엑스포조직위 부주임위원, 제1부주임위원, 집행위원회 집행주임
	2007–08	상하이시 부서기, 시장, 2010년 상하이 세계엑스포조직위 제1부주임위원, 집행위원회 집행주임
	2008–11	상하이시 부서기, 시장,2010년 상하이 세계엑스포조직위 부주임위원, 집행위원회 집행주임
	2011–12	상하이시 부서기, 시장
	2012–13	중앙정치국위원, 상하이시 서기, 시장(–12.12)
	2013–	중앙정치국위원, 상하이시 서기
	※ 제14–15기 전인대 대표, 제16–18기 중앙위원회 위원, 제18기 중앙정치국 위원	
5. 기타		

양징(楊晶, Yang Jing)



1. 현직　중국공산당 중앙서기처 서기,
국무원 국무위원, 비서장
국가행정학원 원장

2. 출생　1953.12월생(네이멍구 준거얼치, 内蒙古 准格爾旗)

3. 학력
네이멍구대 중어중문학 학사(82)
네이멍구자치구위 당교(黨校) 경제관리단기연수반(86)
중앙당교 중청년간부양성반(91)
중국사회과학원 대학원 공업경제관리전공(98)
중앙당교 정치학 전공(05)

4. 경력

1976	중국공산당 입당
1991–92	네이멍구자치구 통계국 부국장
1992–93	네이멍구자치구 여유국(旅遊局) 국장
1993–96	공청단 네이멍구자치구위원회 서기
1996–98	네이멍구자치구 저리무(哲里木)맹(盟)위원회 서기, 맹 인민대표대회 공작위원회 주임
1998	네이멍구자치구 후허하오터시(呼和浩特市) 서기,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1998–03	네이멍구자치구 당 위원회 상무위원, 후허하오터시 서기,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2003–04	네이멍구자치구 부서기, 자치구 정부 대리주석
2004–08	네이멍구자치구 부서기, 자치구 정부 주석
2008–11	중앙통전부 부부장, 국가민족사무위원회 주임, 당조(黨組) 구성원
2011–12	중앙통전부 부부장, 국가민족사무위원회 주임, 당조 서기
2012–13	중앙서기처 서기, 국가민족사무위원회 주임, 당조 서기
2013–	중앙서기처 서기, 국무위원, 국무원 당조 구성원 겸 국무원 비서장, 기관 당조 서기, 중앙국가기관공작위원회 서기, 국가행정학원 원장

※ 제16기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제17–18기 중앙위원회 위원

5. 기타

창완취안(常萬全, Chang Wanquan)



1. 현직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국무원 국무위원 국방부 부장	
2. 출생	1949.1월생(허난성 난양, 河南省 南陽)	
3. 학력	산시성(陝西省) 웨이난(渭南)사범전문학교(87) 국방대 기본과 학사(95)	
4. 경력	1968	인민해방군 입대, 중국공산당 입당
	1985–90	인민해방군 육군 제47집단군 139사 부사장
	1990–92	란저우(蘭州)군구 사령부 작전부 부장
	1992–94	인민해방군 육군 제21집단군 61사 사장
	1994–98	인민해방군 육군 제47집단군 참모장, 소장 진급(97)
	1998–00	국방대 전역교연실(戰役教研室) 주임
	2000–02	인민해방군 육군 제47집단군 군장
	2002–03	란저우군구 참모장, 중장 진급(03)
	2003–04	베이징(北京)군구 참모장
	2004–07	선양(瀋陽)군구 사령관
	2007	인민해방군 총장비부(總裝備部) 부장, 상장 진급(07)
	2007–08	중공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인민해방군 총장비부 부장
	2008–12	중공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국가중앙군사위원회 위원, 인민해방군 총장비부 부장
	2012–13	중공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국가중앙군사위원회 위원
	2013–	중공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국가중앙군사위원회 위원, 국무위원, 국무원 당조(黨組) 구성원 겸 국방부 부장
	※ 제16–18기 중앙위원회 위원	
5. 기타	방한경력 : 2015.2.3–5 국방부장	

양제츠 (楊潔篪, Yang Jiechi)



1. 현직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 국무원 국무위원(외교담당) 중앙외사공작영도소조(中央外事工作領導小組) 판공실 주임	
2. 출생	1950.5월생(상하이, 上海)	
3. 학력	영국 바스대, 런던정경대(LSE) 국제관계학전공 연수(75) 중앙당교 성부급 간부연수반(96) 난징(南京)대 역사학 박사(07)	
4. 경력	1975–83	외교부 번역실 직원(課員)
	1983–87	주미대사관 2등서기관, 1등서기관, 참사관
	1987–90	외교부 번역실 참사관 겸 과장
	1990–93	외교부 미주·대양주국 참사관 겸 과장, 부국장
	1993–95	주미대사관 공사
	1995–98	외교부 부장조리, 당위(黨委) 위원, 미대국(美大司) 국장(95–96)
	1998–00	외교부 부부장, 당위 위원
	2000–04	주미 대사
	2005–07	외교부 부부장(미주·대양주·중남미·홍콩·마카오·대만관련 사무 및 통·번역, 대외안보 업무 담당), 당위 부서기
	2007–13	외교부 부장, 당위 부서기
	2013.3–	국무위원, 국무원 당조(黨組) 구성원, 중앙외사공작영도소조 판공실 주임
	※ 제16기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제17–18기 중앙위원회 위원	
5. 기타	방한경력 :	2007.6월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계기
		2008.8.13–14 공식 방한
		2008.8.25–26 후진타오 주석 방한 수행
		2010.5.15–16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계기
		2010.5.28–30 원자바오 총리 방한 수행
		2010.11.12–13 서울 G20 정상회의 계기 후진타오 주석 방한 수행
		2011.2.23–24 공식 방한
		2012.3.1–2 공식 방한
		2012.3.25–28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계기 후진타오 주석 방한 수행
		2013.11.17–19 한중 고위급 외교안보 전략대화
		2014.7.3–4 시진핑 주석 방한 수행
	방북경력 :	2007.7.2–4

궈성쿤(郭聲琨, Guo Shengkun)



1. 현직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 중앙정법위원회 부서기 국무원 국무위원 공안부 당서기, 공안부 부장	
2. 출생	1954.10월생(장시성 싱궈, 江西省 興國)	
3. 학력	장시 예진(冶金)학원 광업학과 학사(79) 중남공업대 관리공정학 석사(96) 중앙당교 성부급 간부연수반 연수(02) 베이징과학기술대 경제관리학 박사(07)	
4. 경력	1974	중국공산당 입당
	1990–92	중국유색금속공업총회사 화미요오광(畫眉坳鎢鑛) 광업소장 겸 귀계은광건설(貴界銀鑛建設) 지휘부 총지휘, 당위(黨委) 서기
	1992–93	중국유색금속공업총회사 귀계은광 광업소장, 당위 서기
	1993–97	중국유색금속공업(난창/南昌)회사 사장, 당조(黨組) 서기
	1997–98	중국유색금속공업 총회사 부사장(副總經理), 당조 구성원
	1998–99	국가유색금속공업국 당조 구성원
	1999–00	국가유색금속공업국 부국장, 당조 구성원
	2000	국유중점대형기업 감사회(監事會) 주석
	2000–01	국유중점대형기업 감사회 주석, 중국알루미늄회사 계획조장(籌備組長)
	2001	중국알루미늄회사 사장, 당조 서기
	2001–04	중국알루미늄회사 사장, 당조 서기 겸 중국알류미늄 투자유한회사 이사장, 총재
	2004	광시좡족(廣西壯族)자치구 부서기
	2004–07	광시좡족자치구 부서기, 자치구 정부 부주석, 당조 부서기
	2007	광시좡족자치구 서기, 자치구 정부 부주석, 당조 부서기
	2008–12	광시좡족자치구 서기,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2012–13	공안부 부장, 당위 서기
	2013–	국무위원, 국무원 당조 구성원, 중앙정법위 부서기, 공안부 부장, 공안부 당위 서기, 총경감(總警監)
	※ 제16–17기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제18기 중앙위원회 위원	
5. 기타	방한경력 : 2011.9.23–27 유력인사 초청 방북경력 : 2011.10월	

왕융(王勇, Wang Yong)



1. 현직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
국무원 국무위원, 국가감재(減災)위원회 주임

2. 출생　　1955.12월생(랴오닝성 가이저우, 遼寧省 蓋州)

3. 학력　　베이징 방송(廣播電視)대 전자 학사(82)
하얼빈공업대 기술경제엔지니어링 석사(88)

4. 경력

1974.8–	중국공산당 입당
1997–98	중국항천공업총공사 정치부 부주임, 京區 당위(黨委) 부서기
1998–99	중국항천공업총공사 인사노동교육국 책임자
1999–00	중국항천기계전기그룹 부사장(副總經理)
2000–01	중앙조직부 기업간부판공실 주임
2001–03	중앙조직부 간부5국 국장
2003–08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부주임, 당위 위원
2005–08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부주임, 당위 부서기
2008	국무원 부비서장, 당조(黨組) 구성원
2008–10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質量監督檢驗檢疫總局) 국장
2010–13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주임, 당위 서기
2013–14	국무위원, 국무원 당조 구성원, 국가감재위원회 주임(–13.5)
2014–	국무위원, 국무원 당조 구성원, 국가감재위원회 주임 국무원 석유가스수송관안전위험개선업무영도소조(油汽輸送管安全隱患整改工作領導小組) 조장

※제17기 중앙기율위원회 위원, 제18기 중앙위원회 위원

5. 기타

중국 성·시·자치구 개황(2015년 기준)

直轄市(4개)

베이징시(北京市)

개황

- 면적 : 1만 6,808㎢
- 인구 : 2,170만 명
- 행정구역 : 市區 14개, 郊區 2개 縣
- 당서기 : 궈진룽(郭金龍)
- 시장 : 왕안순(王安順)
- 자연환경·자원
  - 1월 평균 −5.5℃, 7월 평균 25.5℃, 연평균 강수량 484㎜
  - 도시 서부 산지에 대리석·석회석·화강암 등이 풍부

경제현황

- GDP : 2조 2,968억 위안(3,533억 불)
- 1인당 GDP : 106,284위안(17,064불)
- 수출입 총액 : 3,195.9억 불
  - 수출 : 546.7억 불, 수입 : 2,649.2억 불
- 지역 특징
  - 공업기반이 취약해 소비도시 성격이 강한 편
  - 베이징시민 상당수는 과거 왕족·사대부들의 후손이거나, 공산정권의 당·정 고위관료 또는 선택된 인재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어 자부심이 강하고 보수적 성향
  - 중관춘(中關村) 개발구를 중심으로 과학기술·경제력 향상에 집중

상하이시(上海市)

개황

- 면적 : 6,340.5㎢
- 인구 : 2,415만 명
- 행정구역 : 市區 18개, 郊區 1개 縣
- 당서기 : 한정(韓正)
- 시장 : 양슝(楊雄)
- 자연환경·자원
  - 1월 평균 4.7℃, 7월 평균 29.5℃, 연평균 강수량 1,022㎜
  - 동부 해안의 중심 및 장강(長江)삼각주에 위치한 중국 최대 상공업 도시

경제현황

- GDP : 2조 4,964억 위안(3,840억 불)
- 1인당 GDP : 10.31만 위안(15,861불)
- 수출입 총액 : 50,838.1억 불
  - 수출 : 31,065.7억 불, 수입 : 19,772.4억 불
- 지역 특징
  - 일찍부터 서방 문물의 영향을 받아 베이징에 비해 개방적이며, 중국 경제를 이끌어 왔다는 자부심 보유(중국 경제·무역·금융·물류 중심지)
  - 중국 공산당 탄생지(1921), 문화대혁명의 진원지, 사인방의 근거지, 중국 개혁·개방의 선도지

톈진시 (天津市)

개황	• 면적 : 1만 1,917㎢ • 인구 : 1,546만 명 • 행정구역 : 市區 13개, 郊區 3개 縣 • 당서기 : 황싱궈(黃興國)(代) • 시장 : 황싱궈(黃興國) • 자연환경·자원 – 1월 평균 –4℃, 7월 평균 26.5℃, 연평균 강수량 590㎜ – 다강(大港)유전(매장량 석유 4.5억 톤, 천연가스 140억㎥) 발해 유전에 인접해 있으며, 계현탄광(매장량 5–8억 톤)의 석탄 공급도 원활. 창루(長蘆)염전은 중국 최대 소금생산지로 연간 200만 톤을 생산
경제현황	• GDP : 1조 6,538억 위안(2,544억 불) • 1인당 GDP : 106,908위안(16,447불) • 수출입 총액 : 1,143.4억 불 – 수출 : 511.8억 불, 수입 : 631.6억 불 • 지역 특징 – 동북지역의 발해만 연안에 위치한 항구도시로 수도 베이징의 관문 – 발해만 경제 구역의 중심도시로 개혁·개방이래 중국 베이징의 경제·상업·무역·금융 발전을 주도

충칭시 (重慶市)

개황	• 면적 : 8만 2,400㎢ • 인구 : 3,016만 명 • 행정구역 : 市區 15개, 郊區 4개 縣級市, 17개 縣 • 당서기 : 쑨정차이(孫政才) • 시장 : 황치판(黃奇帆) • 자연환경·자원 – 1월 평균 8.0℃, 7월 평균 28.5℃, 연평균 강수량 1,398㎜ – 중국 최대 천연가스전인 촨둥(川東)가스전(매장량 2,700억㎥)을 비롯, 석탄·망간·석회석·대리석·석양사·수은 등 40여 종의 자원이 매장되어 있으며, 특히 스트론튬(폭죽의 재료) 매장량은 세계 2위
경제현황	• GDP : 1조 5,719억 위안(2,418억 불) • 1인당 GDP : 52,330위안(8,402불) • 수출입 총액 : 4,615.4억 불 – 수출 : 3,417억 불, 수입 : 1,198.4억 불 • 지역 특징 – 서남부 최대의 상공업·교통요지로서 상하이 푸둥(浦東)지구와 연계된 長江 개발계획의 내륙거점이자 산샤댐 배후도시로 각광

一省(22개)

허베이성(河北省)

개황	• 면적 : 18만 7,700㎢ • 인구 : 7,424만 명 • 행정구역 : 省都는 스자좡(石家莊), 11개 市, 22개 縣급 市, 114개 縣 • 당서기 : 자오커즈(趙克志) • 성장 : 장칭웨이(張慶偉) • 자연환경·자원 – 스자좡 : 1월 평균 –1℃, 7월 평균 28℃, 연평균 강수량 1,097㎜ – 탕산(唐山) 등 지역에 석탄(매장량 170억 톤)과 지둥(冀東) 유전의 석유(매장량 9,400만 톤)을 비롯, 철·석회암·불석 등 광물자원이 풍부
경제현황	• GDP : 2조 9,806억 위안(4,585억 불) • 1인당 GDP : 40,148위안(6,175불) • 수출입 총액 : 514.8억 불 – 수출 : 329.4억 불, 수입 : 185.4억 불 • 지역 특징 – 수도인 베이징과 직할시인 톈진을 둘러싸고 있는 우리의 경기도와 같은 수도권 지역 – 베이징 · 톈진市 및 랴오닝(遼寧) · 산둥성(山東省)과 '발해만(渤海灣) 경제권'을 형성

허난성(河南省)

개황	• 면적 : 16만 7,000㎢ • 인구 : 10,722만 명 • 행정구역 : 省都는 정저우(鄭州), 17개 市, 21개 縣급 市, 89개 縣 • 당서기 : 셰푸잔(謝伏瞻) • 성장 : 천룬얼(陳潤兒) • 자연환경·자원 – 정저우 : 1월 평균 0.6℃, 7월 평균 26.8℃, 연평균 강수량 628㎜ – 몰리브덴·푸른 석면·추형 사암·진주암·푸른 뢰석·붉은 주석의 매장량은 전국 1위이며, 보크사이트·숫돌·유리용 응회암·시멘트용 석회암의 매장량은 전국 2위
경제현황	• GDP : 3조 7,010억 위안(5,693억 불) • 1인당 GDP : 34,517위안(5,309불) • 수출입 총액 : 4,600억 위안(707.6억 불) – 수출 : 2,684억 위안(412.9억 불), 수입 : 1,916억 위안(294.7억 불) • 지역 특징 – 예로부터 '중원(천하의 중심)'으로 일컬어져 온 곳으로 쓰촨성·충칭시 분리(97.3) 이후 중국내 최대의 省으로 부상

산둥성(山東省)

개황	• 면적 : 15만 6,700㎢ • 인구 : 9,847만 명 • 행정구역 : 省都는 지난(濟南), 17개 市, 31개 縣급 市, 60개 縣 • 당서기 : 장이캉(姜異康) • 성장 : 궈수칭(郭樹清) • 자연환경·자원 – 지난 : 1월 평균 0.2℃, 7월 평균 27.1℃, 연평균 강수량 834㎜ – 성리(勝利)유전의 석유(96년 생산량 2,911만 톤)·천연가스를 비롯, 금(전국 1위)·석탄(전국 5위)·동·알루미늄·코발트·다이아몬드·석고(중국 전체 매장량의 70%)·마그네사이트 등 각종 광물자원이 풍부하며, 해안선이 3,000㎞에 달해 수산품 생산도 전국 1위
경제현황	• GDP : 6조 3,002억 위안(9,692억 불) • 1인당 GDP : 64,168위안(9,872불) • 수출입 총액 : 2,417.5억 불 – 수출 : 1,440.6억 불, 수입 : 976.9억 불 • 지역 특징 – 화북평원과 황하를 끼고 발달한 반도지역으로 랴오닝·허베이성과 베이징·톈진을 포괄하는 '발해만(渤海灣) 경제권'의 중심지역

산시(산서)성(山西省)

개황	• 면적 : 15만 6,300㎢ • 인구 : 3,664만 명 • 행정구역 : 省都는 타이위안(太原), 10개 市, 12개 縣급 市, 85개 縣 • 당서기 : 뤄후이닝(駱惠寧) • 성장 : 리샤오펑(李小鵬) • 자연환경·자원 – 타이위안 : 1월 평균 –5℃, 7월 평균 23℃, 연평균 강수량 652㎜ – 석탄(매장량 전국의 25%로 전국 1위)·보크사이트(9억 톤으로 전국 1위)를 비롯, 철·동·납·아연·유황·코발트 등 매장량이 확인된 광물 자원만 53종
경제현황	• GDP : 1조 2,802억 위안(1,969억 불) • 1인당 GDP : 35,018위안(5,387불) • 수출입 총액 : 147.1억 불 – 수출 : 84.2억 불, 수입 : 62.9억 불 • 지역 특징 – 산시고원에 위치하여 산지가 많고 강우량이 적어 10년 중 9년은 가뭄이 들 정도로 물 부족현상이 심각

랴오닝성(遼寧省)

개황	• 면적 : 14만 5,700㎢ • 인구 : 4,382만 명 • 행정구역 : 省都는 선양(瀋陽), 14개 市, 17개 縣급 市, 27개 縣 • 당서기 : 리시(李希) • 성장 : 천추파(陳求發) • 자연환경·자원 – 선양 : 1월 평균 –11.4℃, 7월 평균 23.6℃, 연평균 강수량 721.3㎜ 다롄(大連) : 1월 평균 –3℃, 7월 평균 22.4℃, 연평균 강우량 660.4㎜ – 석탄(매장량 68억 톤)·석유 및 천연가스(매장량 전국 3위)·철(120.6억 톤)·금(32,654㎏)·활석(4,255만 톤)·마그네사이트(23.8억 톤) 등 110여 종의 광물자원 매장
경제현황	• GDP : 2조 8,743억 위안(4,422억 불) • 1인당 GDP : 65,521위안(10,080불) • 수출입 총액 : 960.9억 불 – 수출 : 508.4억 불, 수입 : 452.5억 불 • 지역 특징 – 중공업 기반의 경제구조 – 북한과 접경(200㎞)하고 있어 예로부터 중·북 교류가 빈번한 지역

지린성(吉林省)

개황	• 면적 : 18만 7,400㎢ • 인구 : 2,753만 명 • 행정구역 : 省都는 창춘(長春), 8개 市, 20개 縣급 市, 21개 縣 • 당서기 : 바옌솔루(巴音朝魯) • 성장 : 장차오량(蔣超良) • 자연환경·자원 – 창춘 : 1월 평균 –13.7℃, 7월 평균 22.6℃, 연평균 강수량 490.2㎜ – 석탄(매장량 5.2억 톤)·석유 및 천연가스(6.3억 톤)·철(6.3억 톤)·몰리브덴(전국 매장량의 20%)·금(전국 매장량의 5.9%) 등의 광물자원이 매장
경제현황	• GDP : 1조 4,274억 위안(2,196불) • 1인당 GDP : 51,852위안(7,977불) • 수출입 총액 : 189.38억 불 – 수출 : 46.54억 불, 수입 : 142.84억 불 • 지역 특징 – 북한과 국경(압록·두만강)을 맞대고 있으며 옌볜 조선족자치주가 위치

헤이룽장성(黑龍江省)	
개황	• 면적 : 45만 3,800㎢ • 인구 : 3,833만 명(2014년) • 행정구역 : 省都는 하얼빈(哈爾濱), 12개 市, 19개 縣급 市, 47개 縣 • 당서기 : 왕셴쿠이(王憲魁) • 성장 : 루하오(陸昊) • 자연환경·자원 – 하얼빈 : 1월 평균 –15.3℃, 7월 평균 23℃, 연평균 강수량 480.7㎜ – 연간 산유량 5,000만 톤의 다칭(大慶)유전이 위치하고 있으며 금 매장량은 전국 2위, 지마오(鷄毛) 등 중국내 3대 흑연(1.2억 톤) 광산이 모두 위치
경제현황	• GDP : 1조 5039억 위안(2,445억 불) • 1인당 GDP : 39,226위안(6,404불) • 수출입 총액 : 389억 불 – 수출 : 175.5억 불, 수입 : 215.5억 불 • 지역 특징 – 최북단에 위치하여 러시아와의 국경무역이 활발

장쑤성(江蘇省)	
개황	• 면적 : 10만 2,600㎢ • 인구 : 7,976만 명 • 행정구역 : 省都는 난징(南京), 13개 市, 27개 縣급 市, 27개 縣 • 당서기 : 리창(李强) • 성장 : 스타이펑(石泰峰) • 자연환경·자원 – 난징 : 1월 평균 –2.5℃, 7월 평균 26.8℃, 연평균 강수량 1,213㎜ – 화중평원과 장강 하류 평야지대에 위치한 중국 최대 곡창지역으로 광물자원은 쉬저우(徐州)의 석탄, 롄윈강(連雲港)의 인광(燐鑛)이 유명하고 해안지역에서는 염전업이 활발
경제현황	• GDP : 7조 116억 위안(1조 787억 불) • 1인당 GDP : 87,995위안(13,537불) • 수출입 총액 : 5,456억 불 – 수출 : 3,387억 불, 수입 : 2,069억 불 • 지역 특징 – 상하이와 더불어 중국경제를 이끌어온 선진지역으로 사회간접자본과 교통 여건이 비교적 양호한 편 – '장쑤성과 저장성에 풍년이 들면 천하가 풍족하다'고 할 만큼 유명한 곡창지역

푸젠성(福建省)

개황	• 면적 : 12만㎢ • 인구 : 3,839만 명 • 행정구역 : 省都는 푸저우(福州), 9개 市, 14개 縣급 市, 45개 縣 • 당서기 : 유취안(尤權) • 성장 : 위웨이궈(於偉國) • 자연환경·자원 – 푸저우 : 1월 평균 11.4℃, 7월 평균 29.5℃, 연평균 강수량 1,339㎜ – 철광·석탄·망간·알루미늄 등 광물자원이 풍부하며, 연해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지와 구릉이 80%를 차지하고 있어 목재생산량이 쓰촨성에 이은 전국 2위
경제현황	• GDP : 2조 5,979억 위안(약 3,996억 불) • 1인당 GDP : 67,966위안(약 10,456불) • 수출입 총액 : 1,693.6억 불 – 수출 : 1,130.1억 불, 수입 : 563.5억 불 • 지역 특징 – 광둥성과 함께 대다수 화교의 원적지로 교향(僑鄕)이라 지칭 – 2차 산업의 구조조정에 의한 고도의 기술과 높은 부가가치를 요구하는 기계·전자업계의 빠른 성장

장시성(江西省)

개황	• 면적 : 16만 7,000㎢ • 인구 : 4,565만 명 • 행정구역 : 省都는 난창(南昌), 11개 市, 10개 縣급 市, 70개 縣 • 당서기 : 루신서(鹿心社) • 대리성장 : 류치(劉奇) • 자연환경·자원 – 난창 : 1월 평균 5℃, 7월 평균 28.7℃, 연평균 강수량 1,353㎜ – 텅스텐·동·석탄·철·아연·암염·석고 등 140여 종의 광물자원이 매장되어 있으며, 이 중 매장량이 전국 5위 이내를 차지하는 것이 33종
경제현황	• GDP : 1조 6,723억 위안(2,572.8억 불) • 1인당 GDP : 36,724위안(5,649불) • 수출입 총액 : 406.3억 불 – 수출 : 317억 불, 수입 : 89.3억 불 • 지역 특징 – 난창봉기, 징강산(井岡山) 근거지, 25,000리 장정(長征) 등 마오쩌둥 공산혁명의 발원지로 유명 – 경제적으로는 낙후한 편 – 연해와 내륙, 북부와 남부를 잇는 교통의 요충지로 쌀을 위주로 한 농업이 주류

후베이성(湖北省)

개황	• 면적 : 18만 5,900㎢ • 인구 : 5,851만 명 • 행정구역 : 省都는 우한(武漢), 12 市, 24개 縣급 市, 39개 縣 • 당서기 : 리훙중(李鴻忠) • 성장 : 왕궈성(王國生) • 자연환경·자원 – 우한 : 1월 평균 4.3℃, 7월 평균 28℃, 연평균 강수량 1,319㎜ – 다예(大冶)·어청(鄂城) 지역의 철, 다예·양신(陽新) 지역의 동, 허샹(鶴祥) 지역의 임(燐) 등이 유명하며 암염·녹송석(綠松石, 조각 보석의 재료)·석탄·석유·중석·망간 등 매장량 풍부
경제현황	• GDP : 2조 9,550억 위안(4,546억 불) • 1인당 GDP : 7,769불 • 수출입 총액 : 436억 불 – 수출 : 157억 불, 수입 : 279억 불 • 지역 특징 – 장강을 따라 삼국지 유적이 다수 위치해 있으며, 성도 우한은 장강 중류 최대 거점항구인 동시에 자동차·철강 도시

후난성(湖南省)

개황	• 면적 : 21만㎢ • 인구 : 6,783만 명 • 행정구역 : 省都는 창사(長沙), 13개 市, 16개 縣급 市, 72개 縣 • 당서기 : 쉬서우성(徐守盛) • 성장 : 두자하오(杜家毫) • 자연환경·자원 – 창사 : 1월 평균 4.6℃, 7월 평균 28.3℃, 연평균 강수량 1,396㎜ – 텅스텐·안티모 매장량은 세계 최대, 비스무스·형석·석묵·백운석 매장량은 중국 최대, 납·아연·수은·망간·바나듐·고령토는 중국 2위, 주석·몰리브덴·리튬·금·은·구리도 상위권으로 134종의 광물자원 매장
경제현황	• GDP : 2조 9,047.2억 위안(4,468.8억 불) • 1인당 GDP : 42,968위안(6,610불) • 수출입 총액 : 280억 불 – 수출 : 183억 불, 수입 : 97억 불 • 지역 특징 – 후난성은 천연자원이 풍부하여 '물고기와 쌀의 고향(魚米之鄕)', '유색 금속의 고향(有色金屬之鄕)', '여행성지(旅行勝地)'로 불리워지며, 남악(南岳)이라고도 하는 헝산(衡山)은 중국 5대 명산의 하나 – 둥팅호(洞庭湖)는 당나라 시인 두보(杜甫)의 「등악양루(登岳陽樓)」로 유명하며 장자제(張家界)는 UN에 의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세계 자연환경 보호구

광둥성(廣東省)

개황	• 면적 : 17만 7,900㎢ • 인구 : 10,849만 명 • 행정구역 : 省都는 광저우(廣州), 21개 市, 26개 縣급 市, 45개 縣 • 당서기 : 후춘화(胡春華) • 성장 : 주샤오단(朱小丹) • 자연환경·자원 – 광저우 : 1월 평균 13.9℃, 7월 평균 28.5℃, 연평균 강수량 1,683㎜ – 남중국해 석유(매장량 150억 톤), 황철석·티탄철석 매장량 중국 내 1위, 동·연·알루미늄은 2위, 아연(매장량 2,000만 톤)·고령토·주석·텅스텐(180만 톤)은 3위를 차지하는 등 85종의 광물자원 매장
경제현황	• GDP : 7조 2,812억 위안(1조 1,201억 불) • 1인당 GDP : 67,503위안(10,385불) • 수출입 총액 : 1조 229억 불 – 수출 : 6,435억 불, 수입 : 3,794억 불 • 지역특징 – 명대(明代)이래 서방 문물도입의 창구역할을 해 왔으며 개혁·개방이후에도 선전(深圳)·주하이(珠海)·산터우(汕頭)등 省내 3개 지역이 최초로 경제특구로 지정되면서 중국 전체 경제발전을 선도

안후이성(安徽省)

개황	• 면적 : 14만㎢ • 인구 : 6,949만 명 • 행정구역 : 省都는 허페이(合肥), 17개 市, 5개 縣급 市, 56개 縣 • 당서기 : 왕쉐쥔(王學軍) • 성장 : 리진빈(李錦斌) • 자연환경·자원 – 동계(1월) –1–4℃, 하계(7월) 28–29℃, 연평균 강수량 750–1,700㎜ – 광물자원은, 석탄, 철, 동, 황, 명반석 등은 5대 광산을 포함 총 158종(매장량이 확인된 광물은 118종)의 광물자원 보유 – 뿌리식물 300여 종, 초목식물 2,100여 종, 동물 500여 종(국가기정 보호동물 54종)등 동식물 자원 보유
경제현황	• GDP : 2조 200억 위안(3,385억 불) • 1인당 GDP : 35,997위안(5,779불) • 수출입 총액 : 488억 불 – 수출 : 331억 불, 수입 : 157억 불 • 지역특징 – 사계절이 분명하고 주위의 아름다운 경관 때문에 '금수하산(錦繡河山)', '완산완수(皖山皖水, 皖은 지극히 아름답다는 의미)' 등으로 별칭 – 판창현(繁昌縣) 동굴에서 250만 년 전 인류가 생활한 흔적을 발견하였으며, 화현(和縣) 룽탄동(龍潭洞)에서는 30–40만 년 전 구석기시대의 원시인 유적 발굴

하이난성(海南省)

개황	• 면적 : 3만 3,900㎢ • 인구 : 910만 명 • 행정구역 : 省都는 하이커우(海口), 2개 市, 6개 縣급 市, 10개 縣 • 당서기 : 뤄바오밍(羅保銘) • 성장 : 류츠구이(劉賜貴) • 자연환경·자원 – 하이커우 : 1월 평균 18.9℃, 7월 평균 29.6℃, 연평균 강수량 1,406㎜ – 다칭유전에 버금가는 하이상유전의 석유(매장량 630억 톤)·천연가스(1,888억㎥)를 비롯 석영사(3억 톤)·철광 등의 광물자원과 루비·사파이어 등 보석류의 매장량이 풍부
경제현황	• GDP : 3,702억 위안(569억 불) • 1인당 GDP : 40,818위안(6,279불) • 수출입 총액 : 132억 불 – 수출 : 35억 불, 수입 : 97억 불 • 지역특징 – 과거 광둥성에 속한 낙후된 섬에 불과했으나 88년 4월 중국의 다섯 번째 경제특구로 지정됨과 동시에 省으로 승격 – 사계절이 여름인 아열대지역으로 야자(중국 전체의 90%), 고무(60%), 후추(50%), 커피(40%) 등 열대 농작물이 풍부

쓰촨성(四川省)

개황	• 면적 : 48만 5,000㎢ • 인구 : 8,204만 명 • 행정구역 : 省都는 청뚜(成都), 18개 市, 14개 縣급 市, 124개 縣 • 당서기 : 왕둥밍(王東明) • 성장 : 인리(尹力) • 자연환경·자원 – 청뚜 : 1월 평균 4.8℃, 7월 평균 25.9℃, 연평균 강수량 711㎜ – 석탄(매장량 60억 9,600만 톤)·천연가스(200억㎥)·철(36억 4,200만 톤)·동(9억 2,700만 톤)·망간(1,214만 톤) 등 채산성 있는 광물 자원만도 78종이 있으며 수력발전 가능용량이 9,165만Kw, 산림목재 축적량이 14억 1,000㎥
경제현황	• GDP : 3조 103억 위안(4,631억 불) • 1인당 GDP : 36,836위안(5,667불) • 수출입 총액 : 490억 불 – 수출 : 316억 불, 수입 : 174억 불 • 지역특징 – 비옥한 토지와 풍부한 물자로 '하늘이 준 땅(天府之國)'이라는 별칭 – 60년대 삼선건설(3線建設, 전쟁대비 후방지역 건설)에 힘입어 군수 산업을 중심으로 한 철강·화공·우주항공·전자공업이 발달 – 97년 3월 충칭이 직할시로 승격하면서 省에서 분리

구이저우성(貴州省)

개황	• 면적 : 17만 6,100㎢ • 인구 : 3,529만 명 • 행정구역 : 省都는 구이양(貴陽), 4개 市, 9개 縣급 市, 67개 縣 • 당서기 : 천민얼(陳敏爾) • 성장 : 쑨즈강(孫志剛) • 자연환경·자원 – 구이양 : 1월 평균 4℃, 7월 평균 23.9℃, 연평균 강수량 1,177.5㎜ – 석탄(매장량 507만 톤)·수력(1,800만㎾)·보크사이트(5억 톤)·임(25억 7,000만 톤)·망간·바리시움·수은 등의 광물자원과 3,800여 종에 이르는 야생동식물·약용식물이 풍부
경제현황	• GDP : 1조 502억 위안(1,615억 불) • 1인당 GDP : 29,847위안(4,591불) • 수출입 총액 : 761억 위안(117억 불) – 수출 : 618억 위안(95억 불), 수입 : 142억 위안(22억 불) • 지역특징 – 해발 1,000m의 고원에 위치, 농토가 협소하고 사회간접자본이 부족한 중국내 최악의 빈곤지역으로 유일한 해상출구인 광둥성 북해만과의 거리가 500㎞ – 먀오족(苗族)·부이족(布依族)·투자족(土家族)·둥족(侗族)·수이족(水族) 등 소수민족이 전체인구의 23%(860만 명)를 점유

윈난성(雲南省)

개황	• 면적 : 39만 4,000㎢ • 인구 : 4,741만 명 • 행정구역 : 省都는 쿤밍(昆明), 6개 市, 10개 縣급 市, 109개 縣 • 당서기 : 리지헝(李紀恒) • 성장 : 천하오(陳豪) • 자연환경·자원 – 쿤밍 : 1월 평균 9.2℃, 7월 평균 19.9℃, 연평균 강수량 866㎜ – 열대 산림자원(임목 축적량 13억㎥), 유채씨(생산량 3,100만㎏)·벌꿀(1,500여 톤) 등의 농산품, 수력(개발가능발전량 9,000만㎾)자원, 철(20만 톤)·아연(550만 톤)·대리석(1,000만㎥)·석탄(40억 톤)·금·동 등 광물 자원을 보유
경제현황	• GDP : 1조 3,717억 위안(2,110억 불) • 1인당 GDP : 29,015위안(4,463불) • 수출입 총액 : 245억 불 – 수출 : 166억 불, 수입 : 79억 불 • 지역특징 – 봄의 성(春城)이라 불릴 만큼 온화한 아열대 기후 – 26개 소수민족 연초업(50여 종의 담배 생산)과 관광업이 발달

산시(섬서)성(陝西省)

개황	• 면적 : 20만 5,600㎢ • 인구 : 3,792만 명 • 행정구역 : 省都는 시안(西安), 10개 市, 3개 縣급 市, 81개 縣 • 당서기 : 러우친젠(婁勤儉) • 성장 : 후허핑(胡和平) • 자연환경·자원 – 시안 : 1월 평균 –1.3℃, 7월 평균 26.8℃, 연평균 강수량 714㎜ – 석탄(매장량 1,600억 톤)·천연가스(1,700억㎥)·철·동·망간·아연·알루미늄·금·인·석고·내화점토 등 92종의 광물자원 매장이 확인되고 있으며 웨이수(渭水) 평원의 소맥·면화도 유명
경제현황	• GDP : 1조 8,171억 위안(2,795억 불) • 1인당 GDP : 48,023위안(7,338불) • 수출입 총액 : 1,895억 위안(291억 불) – 수출 : 918억 위안(141억 불), 수입 : 977억 위안(150억 불) • 지역특징 – 춘추전국시대 진(秦)나라의 근거지로 省都 시안(西安)은 과거 장안(長安)으로 불렸던 중국 6대 고도(古都)의 하나이며 진시황릉과 병마용(兵馬俑)으로 유명 – 과학기술대학·연구소 설립 등 인재양성에 주력하여 종합 과학기술능력 발달

간쑤성(甘肅省)

개황	• 면적 : 45만 4,300㎢ • 인구 : 2,599만 명 • 행정구역 : 省都는 란저우(蘭州), 10개 市, 4개 縣급 市, 67개 縣 • 당서기 : 왕싼윈(王三運) • 성장 : 린둬(林鐸) • 자연환경·자원 – 란저우 : 1월 평균 –4.7℃, 7월 평균 21.9℃, 연평균 강수량 369㎜ – 중국 최대의 장경 천연가스전(매장량 24억 6,900만㎥)을 비롯, 석유(2억 7천만 톤)·니켈·아연·코발트·백금·바리사움·철·석회암 등 81종의 광물자원을 보유. 수력·풍력·태양에너지(연간 일조시간 2,500시간) 등 개발가능 발전용량은 4,200만㎾
경제현황	• GDP : 6,790억 위안(1,044억 불) • 1인당 GDP : 26,165위안(4,025불) • 수출입 총액 : 497억 위안(76억 불) – 수출 : 362억 위안(55억 불), 수입 : 135억 위안(21억 불) • 지역특징 – 황토 고원, 칭장(靑藏) 고원, 몽골 고원 사이를 따라 동남에서 서북으로 회랑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만리장성의 서쪽끝인 자위관(嘉峪關)이 위치하고 있는 과거 중국 한족왕조의 서북방 한계 – 실크로드의 연장선상에 있어 동서양 문물 교류의 통로였으나, 현재는 구이저우성·시짱자치구(티베트)에 이어 낙후된 지역

칭하이성(青海省)

개황	• 면적 : 73만 7,000㎢ • 인구 : 588만 명 • 행정구역 : 省都는 시닝(西寧), 1개 市, 2개 縣급 市, 37개 縣 • 당서기 : 왕궈성(王國生) • 성장 : 하오펑(郝鵬) • 자연환경·자원 – 시닝 : 1월 평균 –9.1℃, 7월 평균 16.5℃, 연평균 강수량 402㎜ – 석유(매장량 2억 톤)·천연가스(4,500만 톤)·염화칼륨(4억 4,400만 톤)·염화나트륨(3,262만 톤)·동(180만 톤)·아연(250만 톤)등 123종의 광물자원 보유 – 풍부한 수자원으로 13개 중대형 발전소를 건설, 연간 3억 8,000만 톤의 전력을 생산
경제현황	• GDP : 24,17억 위안(317억 불) • 1인당 GDP : 41,252위안(6,346불) • 수출입 총액 : 119억 위안(18억 불) – 수출 : 101억 위안(15억 불), 수입 : 18억 위안(3억 불) • 지역특징 – 해발 2,500m–4,500m의 칭장고원은 장강·황하·란창강(瀾滄江)의 발원지이며, 내륙 호수인 칭하이호(青海湖)가 위치하여 칭하이성 명칭이 유래 – 티벳 자치구에 이어 두 번째로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이나, 풍부한 수자원을 활용한 수력발전소가 다수 소재

저장성(浙江省)

개황	• 면적 : 10만 2,000㎢ • 인구 : 5,539만 명 • 행정구역 : 省都는 항저우(杭州), 11개 市, 22개 縣급 市, 36개 縣 • 당서기 : 샤바오룽(夏寶龍) • 대리성장 : 처쥔(車俊) • 자연환경·자원 – 항저우 : 1월 평균 4.3℃, 7월 평균 27.6℃, 연평균 강수량 1,482㎜ – 구릉과 평원으로 이루어져 광물자원은 풍부하지 않은 편이나 사오싱(紹興) 지역에 철·동·금·은·납·석탄 등 40여종 광물의 매장이 확인
경제현황	• GDP : 4조 2,886억 위안(6,597억 불) • 1인당 GDP : 77,644위안(12,466불) • 수출입 총액 : 2조 1,566억 위안(3,474억 불) – 수출 : 1조 7,174억 위안(2,767억 불), 수입 : 4,392억 위안(707억 불) • 지역특징 – '물고기와 쌀의 고향(魚米之鄉)', '비단과 차의 집(絲茶之府)'으로 유명하며, 동남 연해지역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이용 조기에 개방 – 항저우의 서호(西湖)·푸퉈산(普陀山) 등 관광자원도 풍부

–自治區(5개)

네이멍구자치구(內蒙古自治區)

개황	• 면적 : 118만 3,000㎢ • 인구 : 2,511만 명 • 행정구역 : 省都는 후허하오터(呼和浩特), 7개 市, 13개 縣급 市, 17개 縣, 52개 旗 • 당서기 : 왕쥔(王君) • 주석 : 부샤오린(布小林) • 자연환경·자원 – 후허하오터 : 1월 평균 –32℃, 7월 평균 22℃, 연평균 강수량 353㎜ – 바우터우(包頭)의 희토류(전국 매장량의 97%), 석탄(매장량 2,170억 톤, 전국 2위)·천연가스(매장량 275억㎥)·금(80톤)·은(4,000톤)·아연·주석·코발트 등 광물자원과 초지·산림(16만 6,000㎢)자원 보유
경제현황	• GDP : 1조 8,032억 위안(2,774억 불) • 1인당 GDP : 71,903위안(11,062불) • 수출입 총액 : 790억 위안(120억 불) – 수출 : 350억 위안(53억 불), 수입 : 440억 위안(67억 불) • 지역특징 – 국내 8개 성·자치구와 인접하여 있고 러시아·몽골과 접경(국경선 4,200㎞)

광시좡족자치구(廣西壯族自治區)

개황	• 면적 : 23만 6,200㎢ • 인구 : 5,518만 명 • 행정구역 : 省都는 난닝(南寧), 14개 市, 7개 縣급 市, 68개 縣 • 당서기 : 펑칭화(彭淸華) • 주석 : 천우(陳武) • 자연환경·자원 – 난닝 : 1월 평균 11.9℃, 7월 평균 28.6℃, 연평균 강수량 1,835㎜ – 망간의 매장량은 전국 1위이며 석회암·주석·수정 등 광물자원 풍부 – 아열대 기후로 연중 3모작이 가능하고 사탕수수 생산량은 전국 1위
경제현황	• GDP : 1조 6,803억 위원(2,585억 불) • 1인당 GDP : 35,190위안(5,413불) • 수출입 총액 : 512억 불 – 수출 : 280억 불, 수입 : 232억 불 • 지역특징 – 좡족(壯族)을 비롯, 먀오족·야오족·둥족·징족 등 소수민족이 자치구 인구의 40%를 점유 – 지역적 고립성 때문에 외래 문화가 늦게 전래되고 미개발 상태에 있다가 최근들어 서부대개발 정책 추진으로 활발한 인프라 건설 – '구이린의 산수는 하늘에서 최고이다(桂林山水甲天下)'라는 말이 있듯, 구이린(桂林)의 리장(灕江)은 관광지로 유명

시짱자치구(西藏自治區, 티베트)

개황	• 면적 : 122만 8,400㎢ • 인구 : 323만 명 • 행정구역 : 省都는 라싸(拉薩), 1개 市, 1개 縣급 市, 71개 縣 • 당서기 : 천취안궈(陳全國) • 주석 : 뤄쌍장춘(洛桑江村) • 자연환경·자원 – 라싸 : 1월 평균 1℃, 7월 평균 16℃, 연평균 강수량 448.9㎜ – 창두(昌都)지구의 위롱(玉龍) 동(銅)광산(714만 톤)을 비롯, 니켈·마그네사이트·금 등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미개발된 상태
경제현황	• GDP : 1,026억 위안(157억 불) • 1인당 GDP : 31,999위안(4,922불) • 수출입 총액 : 56억 위안(8.6억 불) – 수출 : 36억 위안(5.6억 불), 수입 : 20억 위안(3억 불) • 지역특징 – 중국 서남부 해발 4,000m의 티베트고원에 위치 – 13세기 중국에 복속된 이후에도 민족(티베트족)·종교(라마교)의 독자성 유지

닝샤후이족자치구(寧夏回族自治區)

개황	• 면적 : 6만 6,400㎢ • 인구 : 667만 명 • 행정구역 : 省都는 인촨(銀川), 4개 市, 2개 縣급 市, 14개 縣 • 당서기 : 리젠화(李建華) • 주석 : 셴후이(咸輝) • 자연환경·자원 – 인촨 : 1월 평균 –7.1℃, 7월 평균 23.3℃, 연평균 강수량 153.2㎜ – 석탄(매장량 2,026억 톤, 전국 5위)·석유·석고·인·석영·중석 등 광물 자원이 풍부하며 석고매장량(45억 톤)은 전국 1위
경제현황	• GDP : 2,911억 위안(447억 불) • 1인당 GDP : 43,805위안(6,739불) • 수출입 총액 : 37.9억 불 – 수출 : 29.8억 불, 수입 : 8.1억 불 • 지역특징 – 서북부 비옥한 황토고원(해발 1,000m 이상)에 위치, 농업·광업·전력공업이 발달 – 후이족(回族)은 이슬람교를 믿는 몽고계 혈통의 민족

신장위구르자치구(新疆維吾爾自治區)	
개황	• 면적 : 160만㎢ • 인구 : 2,360만 명 • 행정구역 : 省都는 우루무치(烏魯木齊), 2개 市, 20개 縣급 市, 68개 縣 • 당서기 : 장춘셴(張春賢) • 주석 : 쉐커라이티 자커얼(雪克來提·扎克爾) • 자연환경·자원 – 우루무치 : 1월 평균 –15.6℃, 7월 평균 24℃, 연평균 강우량 390㎜ – 90년대 들어 타림분지(40만㎢) 등에 대한 석유·천연가스개발이 활발히 진행되어 97년말 현재 45개 석유·가스전이 가동 중이며, 97년에는 석유 1,580만 톤을 생산 – 이 밖에 석탄·니크롬·니켈·석면 등 76종의 광물을 생산 중
경제현황	• GDP : 9,324억 위안(1,434억 불) • 1인당 GDP : 40,034위안(6,159불) • 수출입 총액 : 196억 불 – 수출 : 175억 불, 수입 : 21억 불 • 지역특징 – 위구르족(47%) 등 소수민족이 전체인구의 62%를 차지(소수민족은 대부분 이슬람교 신봉)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구분 \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GDP(억 위안)		484,124(9.5)	534,123(7.7)	588,019(7.7)	636,462(7.4)	676,708(6.9)
1인당 GDP (달러 *매년 연말 환율 기준)		5,414	6,156	6,800	7,572	7,855
산업별 (억 위안)	1차산업	47,712(4.5)	52,377(4.5)	56,957(4.0)	58,336(4.1)	60,863(3.9)
	2차산업	220,592(10.6)	235,319(8.1)	249,684(7.8)	271,764(7.3)	274,278(6.0)
	3차산업	203,260(8.9)	231,627(8.1)	262,204(8.3)	306,038(7.8)	341,567(8.3)
공업부가가치생산액(억 위안)		191,571(10.8)	204,540(7.9)	217,264(7.6)	228,123(6.9)	228,974(5.9)
물가상승률(%)		5.4	2.6	2.6	2.0	1.4
소비재 매출(억 위안)		187,260(17.1)	214,433(14.3)	242,843(13.1)	271,896(12.0)	300,931(10.7)
소득 (위안)	도시 가처분소득	21,810(14.1)	24,565(12.6)	26,955(9.7)	28,843(9.0)	31,195(8.2)
	농촌 현금수입	6,977(17.9)	7,916(10.7)	8,896(12.4)	10,489(11.2)	11,422(8.9)
고정자산투자(조 위안)		31.15(12.0)	37.47(20.3)	44.46(19.3)	51.27(15.3)	56.20(9.8)
교역	수출입(억 불)	36,421(22.5)	38,667(6.2)	41,603(7.1)	43,030(3.4)	39,586(−8.0)
	수출	18,986(20.3)	20,489(7.9)	22,100(7.9)	23,427(6.0)	22,766(−2.8)
	수입	17,435(24.9)	18,178(4.3)	19,503(7.3)	19,603(0.5)	16,821(−14.2)
	무역수지	1,551(−15.3)	2,311(4.9)	2,579(11.6)	3,824(48.5)	5,945(55.5)
외국인 투자	건수	27,712	24,925	22,773	23,778	26,575
	실행(억 불)	1,160(9.7)	1,117(−3.7)	1,176(5.3)	1,196(1.7)	1,263(6.4)
통화	M2(조 위안)	85.15(13.6)	97.41(13.8)	110.65(13.6)	122.83(12.2)	139.2(13.3)
	예금(조 위안)	80.9(13.6)	91.7(14.0)	104.3(13.7)	113.9(9.2)	135.7(19.1)
	대출(조 위안)	54.8(15.8)	62.9(22.8)	71.8(14.1)	81.7(13.8)	94.0(15.1)
외환	환율	6.45	6.31	6.19	6.14	6.23
	외환보유고(억 불)	31,811	33,116	38,213	38,430	33,304
재정	수입(억 위안)	103,874(25.0)	117,254(12.9)	129,210(10.2)	140,370(8.6)	152,217(8.4)
	지출(억 위안)	109,247(21.6)	125,952(15.3)	140,212(11.3)	151,661(8.2)	175,768(15.8)
	수지(억 위안)	−5,373	−8,458	−11,002	−11,291	−23,551

* ( ) :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출처 : 중국통계연감, 국가통계국, 상무부, 인민은행, 재정부, IMF

중국의 주요 경제분야별 통계

1. 산업별 GDP점유율

구분	1995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차산업(%)	20.0	15.1	12.1	10.1	10.0	10.1	10.0	9.2	9.0
2차산업(%)	47.2	45.9	47.4	46.7	46.6	45.3	43.9	42.6	40.5
3차산업(%)	32.9	39.0	40.5	43.2	43.4	44.6	46.1	48.2	50.5

* 출처 : 중국통계연감

2. 교역

가. 세계 총교역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위치

구분 \ 연도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2	2013	2015.8
교역비중(%)	1.8	1.7	2.8	3.7	6.7	9.8	10.7	11.3	11.5
교역순위	11	16	11	7	3	2	1	1	1

* 출처 : IMF

3. 외국인의 대중국 투자

가. 투자 현황

(단위 : 건, 억 불)

구분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누 계 ('79–'15)
계약건수	27,514	23,435	27,406	27,712	24,925	22,773	23,778	26,575	487,274
실행금액	924	900	1,057	1,160	1,117	1,176	1,196	1,263	18,677

* 출처 : 중국상무부

나. 대중국 주요 투자지역

(단위 : 건, 억 불)

순위	2012		2013		2014		2015	
	국가명	실행액	국가명	실행액	국가명	실행액	국가명	실행액
1	홍콩	712.9	홍콩	783.0	홍콩	857.4	홍콩	926.7
2	일본	73.8	싱가폴	73.3	싱가폴	59.3	싱가폴	69.7
3	싱가폴	65.4	일본	70.6	대만	51.8	대만	44.1
4	대만	61.8	대만	52.5	일본	43.3	한국	40.4
5	미국	31.3	미국	33.5	한국	39.7	일본	32.1

순위	2012		2013		2014		2015	
	국가명	실행액	국가명	실행액	국가명	실행액	국가명	실행액
6	한국	30.7	한국	30.6	미국	26.7	미국	25.9
7	독일	14.7	독일	21.0	독일	20.7	독일	15.6
8	네덜란드	11.4	네덜란드	12.8	영국	13.5	프랑스	12.2
9	영국	10.3	영국	10.4	프랑스	7.1	영국	10.8
10	스위스	8.8	프랑스	7.6	네덜란드	6.4	마카오	8.9

* 출처 : 중국상무부, 조세회피지역 제외

4. 정보통신산업

(단위 : 십만 명)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유선전화가입자	3,408	3,137	2,944	2,851	2,782	2,670	2,494	2,310
이동전화가입자	6,412	7,474	8,590	9,863	11,122	12,291	12,861	13,057
인터넷이용자	2,980	3,840	4,573	5,131	5,640	6,175	6,487	6,883
브로드밴드이용자	2,700	3,460	4,500	1,500	1,752	미발표	미발표	미발표
모바일인터넷이용자	–	3,771	5,152	6,343	7,644	5,001	5,568	6,198

* 출처 : 공업정보화부, 中國互聯網絡信息中心

5. 관광업 동향

(단위 : 억 불, 만 명, %)

구 분	1998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관광인수	6,348	8,344 (14.6)	12,029 (10.3)	13,376 (5.8)	13,542 (1.2)	13,241 (–2.2)	12,907 (–2.5)	12,849 (–0.5)	13,382 (4.1)
홍콩·마카오	5,408	7,010 (13.7)	9,593 (8.5)	10,249 (2.3)	10,305 (0.5)	9,987 (–3.1)	9,763 (–2.2)	10,213 (–0.6)	10,234 (5.8)
대만	217.4	311 (20.3)	411 (11.4)	514 (14.6)	526 (2.4)	534 (1.5)	516 (–3.4)		550 (2.5)
외국인	711	1,016 (20.5)	2,026 (19.6)	2,612 (19.1)	2,711 (3.8)	2,719 (0.3)	2,629 (–3.3)	2,636 (0.3)	2,599 (–1.4)
관광수입	126	162.2 (15.0)	293.0 (13.8)	458 (15.5)	485 (5.8)	500 (3.2)	516 (3.2)	569 (10.2)	637 (12.0)

* 출처 : 중국국가여유국, 괄호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1. 한·중 교역동향

가. 한국 측 통계

(단위 : 억 불, %)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총 액	1,409.5 (–16.3)	1,844.1 (33.7)	2,206.2 (17.1)	2,151.1 (–2.5)	2,289.2 (6.4)	2,353.7 (2.8)	2,273.7 (–3.4)
對中수출	867 (–5.1)	1,168.4 (34.8)	1,341.9 (14.9)	1,343.2 (0.1)	1,458.7 (8.6)	1,452.9 (–0.4)	1,371.2 (–5.6)
對中수입	542.5 (–29.5)	715.7 (31.9)	864.3 (20.8)	807.9 (–6.5)	830.5 (2.8)	900.8 (8.5)	902.5 (0.2)
무역수지	324.6	452.6	477.5	535.4	628.2	552.1	468.7

* 출처 : 한국무역협회, 괄호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나. 중국 측 통계

(단위 : 억 불, %)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총 액	1,557.6 (–16.3)	2,068.3 (32.8)	2,446.0 (18.3)	2,542.4 (3.9)	2,700.1 (6.2)	2,906.9 (7.7)	2,757.2 (–5.1)
對韓수출	536.3 (–27.4)	688.1 (28.3)	829.3 (20.5)	876.5 (5.7)	906.5 (3.4)	1,004.0 (10.8)	1,014.3 (1.0)
對韓수입	1,021.3 (–8.9)	1,380.2 (35.2)	1,616.7 (17.1)	1,665.9 (3.0)	1,793.6 (7.7)	1,902.9 (6.1)	1,742.9 (–8.4)
무역수지	–485.0	–692.1	–787.5	–789.4	–887.1	–898.8	–728.6

* 출처 : 중국해관총서, 괄호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다. 한국의 對중국 10대 수출입 품목(2015년)

(단위 : 억 불, %)

순위	수 출				수 입			
	품 목	금액	증가율	비중	품 목	금액	증가율	비중
1	반도체	27,823	6.4	20.3	반도체	11,381	40.2	12.6
2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22,082	–1.9	16.1	무선통신기기	8,401	24.3	9.3
3	무선통신기기	7,718	21.3	5.6	컴퓨터	5,385	–6.9	6.0
4	합성수지	6,318	–16.5	4.6	철강판	4,186	–27.1	4.6
5	자동차부품	5,879	–3.5	4.3	의류	3,437	–2.3	3.8
6	석유화학중간원료	5,792	–13.9	4.2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3,393	–11.4	3.8

순위	수 출				수 입			
	품 목	금액	증가율	비중	품 목	금액	증가율	비중
8	컴퓨터	3,298	6.3	2.4	전선	2,156	1.8	2.4
9	기구부품	2,764	−14.4	2.0	기구부품	1,798	−18.2	2.0
10	플라스틱제품	2,700	−0.6	2.0	레일및철구조물	1,511	5.9	1.7
총 계		137,140	−5.6	100.0	총 계	90,237	0.2	100.0

라. 우리의 대외무역에서 점하는 한·중 간 무역비중

1) 무역총액 기준

(단위 : 억 불)

국가 \ 연도		1992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우리의 교역총액(A)		1,584	3,328	5,457	8,916	10,809	10,675	10,752	10,982	9,634
對중국 교역	교역액(B)	64	313	1,006	1,884	2,206	2,151	2,289	2,354	2,274
	교역비중(%)(B/A)	4.0	9.4	18.4	21.1	20.4	20.1	21.3	21.4	23.6
對미국 교역	교역액(B)	363.8	668.5	719	902	1,008	1,019	1,036	1,156	1,139
	교역비중(%)(B/A)	23.0	20.1	13.2	10.1	9.3	9.5	9.6	10.5	11.8
對일본 교역	교역액(B)	310.6	523.0	725	925	1,080	1,032	947	860	715
	교역비중(%)(B/A)	19.6	15.7	13.3	10.4	10.0	9.7	8.8	7.8	7.4

* 출처 : 한국무역협회

2) 수출액 기준

(단위 : 억 불)

국가 \ 연도		1992	1995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우리의 수출총액(A)		766	1,251	1,723	2,844	4,664	5,552	5,479	5,596	5,727	5,269
대중국 수출	수출액(B)	26.5	91.4	186.1	619.1	1,168	1,342	1,343	1,459	1,453	1,371
	수출비중(%)(B/A)	3.5	7.3	10.8	21.8	25.1	24.2	25.6	26.1	25.4	26.0
대미국 수출	수출액(B)	180.9	241.3	376.1	413.4	498	562	585	621	703	698
	수출비중(%)(B/A)	23.6	19.3	21.8	14.5	10.7	10.1	11.2	11.1	12.3	13.3
대일본 수출	수출액(B)	116.0	170.5	204.7	240.3	282	397	388	347	322	256
	수출비중(%)(B/A)	15.1	13.6	11.9	8.4	6.0	7.1	7.4	6.2	5.6	4.9

* 출처 : 한국무역협회

3) 수입액 기준

(단위 : 억 불)

국가 \ 연도		1992	1995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우리의 수입총액(A)		818	1,351	1,605	2,612	4,252	5,244	5,196	5,156	5,255	4,365
對중국 수입	수입액(B)	37.2	74.0	128.0	386.5	716	864	808	831	901	902
	수입비중(%)(B/A)	4.5	5.5	8.0	14.8	16.8	15.8	15.5	16.1	17.1	20.7
對미국 수입	수입액(B)	182.9	304.0	292.4	305.9	404	446	433	415	453	440
	수입비중(%)(B/A)	22.4	22.5	18.2	11.7	9.5	8.1	8.3	8.1	8.6	10.1
對일본 수입	수입액(B)	194.6	326.1	318.3	484.0	643	683	644	600	538	459
	수입비중(%)(B/A)	23.8	24.1	19.8	18.5	15.1	12.5	12.4	11.6	10.2	10.5

* 출처 : 한국무역협회

마. 한국의 중국시장 점유율(연도별)

(단위 : 억 불, %)

연도	중국전체수입		한국의 대중 수출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점유율
2015	16,820.7	-14.1	1,745.2	-8.2	10.4
2014	19,602.9	0.4	1,901.5	3.9	9.7
2013	19,502.8	7.3	1,830.7	8.5	9.4
2012	18,178.3	4.3	1,686.5	3.7	9.3
2011	17,434.6	26.7	1,570.3	13.7	9.0
2010	13,754.5	37.5	1,380.2	35.2	10.0
2009	10,005.8	-11.6	1,021.3	-8.9	10.2
2008	9,562.6	20.8	1,121.5	7.8	9.9

* 출처 : 중국해관총서

바. 한국과 중국의 미국시장 점유율

(단위 : 억 불, %)

연도	미국전체수입		한 국			중 국		
	금액(B)	증가율	수출액(A)	증가율	A/B	수출액(A)	증가율	A/B
2015	22,416.6	-4.4	718.3	3.2	3.2	4,818.8	3.3	21.5
2014	23,451.9	3.5	696.1	11.9	3.0	4,666.6	6.0	19.9
2013	22,668.6	-0.4	622.3	5.7	2.7	4,404.3	3.5	19.4

연도	미국전체수입		한 국			중 국		
	금액(B)	증가율	수출액(A)	증가율	A/B	수출액(A)	증가율	A/B
2012	22,753.2	3.0	589.0	3.9	2.6	4,255.8	6.6	18.7
2011	22,080.6	15.4	566.6	15.9	2.6	3,993.8	9.4	18.1
2010	19,138.6	22.9	488.8	24.6	2.6	3,649.5	23.1	19.1
2009	15,558.8	−25.8	392.4	−18.4	2.5	2,964.0	−12.3	19.0
2008	21,001.4	7.5	480.8	1.1	2.3	3,377.9	5.1	16.1

* 출처 : 한국무역협회

2. 우리의 대중투자

가. 투자규모

(단위 : 억 불, 건)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누 계
신고기준	금액	44.0	48.0	66.5	47.0	37.6	43.0	708.4
	건수	2,297	2,211	1,866	1,881	1,613	1,647	52,283
실행기준	금액	36.6	35.4	40.4	51.5	31.6	28.5	527.5
	건수	3,769	3,505	2,866	2,672	2,306	2,343	94,201
신규법인수		895	825	721	818	700	702	24,948

* 주 : 실행건수=송금건수,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나. 대중국 투자비중(2015년 말 기준)

(단위 : 억 불)

구 분		해외투자 전체(A)	대중국 투자(B)	(B/A, %)
신고기준	금액	4,507.0	708.4	15.7
	건수	147,746	52,283	35.4
실행기준	금액	3,148.1	527.6	16.8
	건수	245,887	94,201	38.3
신규법인수(건)		63,335	24,948	39.4

* 주 : 실행건수=송금건수,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다. 중국의 對한국 투자현황(신고기준)

(단위 : 백만 불)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누계
금액 (건수)	160 (537)	414 (616)	651 (405)	727 (512)	481 (402)	1,189 (525)	1,978 (685)	8,110 (9,656)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3. 한·중 간 인적교류 현황

(단위 : 만 명, ( )내는 증가율 %)

국가 \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한국인 → 중국	319.8 (–19.2)	407.6 (27.5)	418.5 (2.7)	406.9 (–2.8)	396.9 (–2.5)	418.2 (5.4)	444.4 (6.3)
중국인 → 한국	134.2 (14.9)	187.5 (39.7)	222.0 (18.4)	283.7 (27.8)	432.7 (52.5)	612.7 (41.6)	598.4 (–2.3)
계	454.0 (–11.5)	595.1 (31.1)	640.5 (7.6)	690.6 (7.8)	829.6 (20.1)	1,030.9 (24.3)	1,042.8 (1.2)

* 출처 : 訪中 한국인 통계 : 중국국가여유국/訪韓 중국인 통계 : 한국관광공사

한·중 간 주요 조약·협정 및 합의서

번호	조약명	서명일	발효일
1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92.09.30	92.10.30
2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무역협정(91.12 체결된 민간협정(92.2.1 발효)에서 승격)	92.09.30	92.10.30
3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무역 및 기술협력공동위 설립 협정	92.09.30	92.10.30
4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과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92.5 체결된 민간협정(92.7.26 발효)에서 승격)	92.09.30	92.12.04
5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건설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93.01.08	93.02.07
6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해상운송에 관한 협정	93.05.27	93.06.26
7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우편 및 전기통신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93.07.24	93.08.23
8	대한민국 통계청과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통계국 간의 통계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93.08.31	93.08.31
9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환경협력에 관한 협정	93.10.28	93.11.27
10	대한민국 건설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수리부 간의 수자원분야 협력에 관한 약정	93.12.04	93.12.04
11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94.03.28	94.04.27
12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94.03.28	94.09.28
13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한·중 산업협력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정	94.06.06	94.06.06
14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민간항공기 산업 기술협력 및 개발에 관한 양해각서	94.06.06	94.06.06
15	대한민국 공업진흥청과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기술감독국과의 표준화·도량형·품질인증분야에 있어서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94.06.09	94.07.09
16	대한민국 기상청과 중화인민공화국 기상국 간 서울–북경 간 기상통신회선 설치에 관한 약정	94.07.11	94.07.11
17	대한민국 기상청과 중화인민공화국 기상국 간 기상협력약정	94.07.11	94.07.11
18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세관분야 협력 및 상호지원에 관한 협정	94.09.16	95.04.29
19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민간항공운수에 관한 잠정협정	94.10.31	94.10.31
20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민간항공기 협력 개발에 관한 약정	94.10.31	94.10.31

번호	조약명	서명일	발효일
21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94.10.31	95.02.11
22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공여에 관한 교환각서	94.12.13	94.12.13
23	대한민국 과학기술처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핵안전국 간의 원자력 안전 협력에 관한 의정서	94.12.13	95.04.24
24	대한민국 외무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간의 항공사 지사직원 및 승무원 사증발급을 위한 교환각서	95.08.01	95.08.31
25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에 관한 협정	95.11.14	95.11.14
26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공여에 관한 교환각서	96.03.15	96.03.15
27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주홍콩 특별행정구 대한민국 총영사관 유지 협정	97.04.24	97.07.01
28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직업훈련협력사업에 관한 약정	97.05.23	97.05.23
29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제3차 제1기 대외경제협력 기금(EDCF) 차관공여에 관한 약정	97.05.30	97.05.30
30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제3차 제2기 대외경제협력 기금(EDCF) 차관공여에 관한 약정	97.11.21	97.11.21
31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98.11.12	00.03.24
32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사증절차 간소화 및 복수입국 사증발급에 관한 협정	98.11.12	98.12.12
33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청소년 교류에 관한 양해 각서	98.11.12	98.11.12
34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에 관한 약정	99.12.27	00.02.28
35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EDCF 차관공여에 관한 교환각서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00.05.17	00.05.17
36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제3차 제1기 대외경제협력 기금(EDCF) 차관공여에 관한 약정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00.05.17	00.05.17
37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제3차 제2기 대외경제협력 기금(EDCF) 차관공여에 관한 약정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00.05.17	00.05.17
38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00.08.03	01.06.30
39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범죄인 인도조약	00.10.18	02.04.02
40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제5차 제1기 대외경제협력 기금(EDCF) 차관에 관한 약정	01.06.15	01.06.15

번호	조약명	서명일	발효일
41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제5차 제2기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에 관한 약정	01.09.03	01.09.03
42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중국 서부지역 조림사업에 관한 교환각서	02.05.21	02.05.21
43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제6차 제1기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에 관한 약정	03.01.28	03.01.28
44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연금가입 상호면제를 위한 잠정조치협정에 관한 교환각서	03.02.28	03.05.23
45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민사 및 상사 사법공조조약	03.07.07	05.04.27
46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제6차 제2기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에 관한 약정	03.12.26	03.12.26
47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제6차 제3기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에 관한 약정	04.04.08	04.04.08
48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청소년 교류 약정	04.05.13	05.05.13
49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제7차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에 관한 약정	05.12.30	05.12.30
50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제6차 제1기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에 관한 약정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06.01.10	06.01.10
51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의 제2 의정서	06.03.23	06.07.04
52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제7차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에 관한 약정 개정을 위한 교환 각서	07.02.01	07.02.01
53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철새보호에 관한 협정	07.04.10	07.05.10
54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해상 수색 및 구조에 관한 협정	07.04.10	07.05.16
55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수형자 이송조약	08.05.27	09.08.05
56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개정)	07.09.08	07.12.01
57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중국 우란부허 사막화방지 사업을 위한 교환각서	08.06.24	08.06.24
58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청소년 교류약정	09.05.06	09.05.06
59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 협정	10.09.07	10.11.25
60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 협정 1단계 실시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의정서	10.09.07	10.11.25

번호	조약명	서명일	발효일
61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험에 관한 협정	12.10.29	13.1.16
62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13.06.27	13.08.18 82번 협정으로 대체
63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간 에너지 절약분야 협력 강화에 관한 양해각서	13.06.27	13.06.27
64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간의 한중 경제통상 협력 수준 제고에 관한 양해각서	13.06.27	13.06.27
65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중화인민공화국 과학기술부 간의 응용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화 협력 강화에 관한 양해각서	13.06.27	13.06.27
66	대한민국 관세청과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 간 대한민국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제도와 중화인민공화국 해관기업분류관리제도의 상호인정에 관한 약정	13.06.27	13.06.27
67	대한민국 환경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임업국 간 따오기 보호·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13.06.27	13.06.27
68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해양국 간의 해양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13.06.27	13.06.27
69	대한민국 수출입은행과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은행 간 공동금융 지원에 관한 상호 리스크참여 약정	13.06.27	13.06.27
70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영사협정	14.07.03	15.04.12
71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영화 공동제작에 관한 협정	14.07.03	14.09.01
72	대한민국 기획재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간 '창조 및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촉진'에 관한 양해각서	14.07.03	14.07.03
73	대한민국 한국은행과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인민은행 간 위안화 청산·결제 체제 구축 등 한·중 위안화 금융서비스 협력 제고에 관한 양해각서	14.07.03	14.07.03
74	대한민국 미래창조과학부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간 방송 및 디지털 콘텐츠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14.07.03	14.07.03
75	대한민국 외교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간 2014–2015년도 교류협력 계획	14.07.03	14.07.03
76	대한민국 관세청과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 간 전략적 협력에 관한 약정	14.07.03	14.07.03
77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중화인민공화국 공업신식화부 간 산업협력 양해각서	14.07.03	14.07.03
78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간 양국 지역통상 활성화 협력 제고를 위한 양해각서	14.07.03	14.07.03

번호	조약명	서명일	발효일
79	대한민국 환경부와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부 간 환경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14.07.03	14.07.03
80	대한민국 환경부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임업국 간 야생생물 및 자연생태계 보전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14.07.03	14.07.03
81	한국 수출입은행과 중국 수출입은행 간 상호리스크참여약정에 따른 초대형 에코쉽 프로젝트 금융계약	14.07.03	14.07.03
82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관용 및 공무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14.11.10	14.12.25
83	대한민국 외교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간의 한중경제무역발전공동계획(2016–2020년) 작성에 관한 양해각서	15.01.23	15.01.23
84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기후변화 협력에 관한 협정	15.01.29	15.02.28
85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15.06.01	15.12.20
86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간 품질감독검사검역 협력 강화에 관한 양해각서	15.09.02	15.09.02
87	대한민국 기획재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실크로드 경제벨트 및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15.10.31	15.10.31
88	대한민국 기획재정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및 상무부 간 제3국 시장 협력 전개에 관한 양해각서	15.10.31	15.10.31
89	대한민국 미래창조과학부와 중화인민공화국 과학기술부 간 혁신·창업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15.10.31	15.10.31
90	대한민국 외교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간 2015–2016년도 교류협력 계획	15.10.31	15.10.31
91	대한민국 외교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간 인문교류공동위원회 미래발전계획	15.10.31	15.10.31
92	대한민국 외교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간의 한·중경제무역발전공동계획(2016–2020년) 요약본에 관한 양해각서	15.10.31	15.10.31
93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간의 한–중 수입 및 수출용 쌀의 검역·검사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15.10.31	15.10.31
94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간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삼계탕의 수의위생 및 검역·검사 조건에 관한 약정	15.10.31	15.10.31
95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간 한중산업협력단지에 관한 양해각서	15.10.31	15.10.31
96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간 한중 투자협력기금 공동연구에 관한 양해각서	15.10.31	15.10.31

번호	조약명	서명일	발효일
97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중화인민공화국 공업신식화부 간 '제조업혁신 3.0전략'과 '중국제조 2025'의 연계 협력 양해각서	15.10.31	15.10.31
98	대한민국 환경부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임업국 간 판다 보호협력 공동 추진에 관한 양해각서	15.10.31	15.10.31
99	대한민국 환경부와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부 간 환경 대기질 및 황사 측정자료 공유에 관한 합의서	15.10.31	15.10.31
100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간 수출·입 활수생동물의 검사·검역에 관한 약정	15.10.31	16.05.01
101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간 소비자보호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15.10.31	15.10.31
102	대한민국 관세청과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 간 자유무역협정 이행 협력 약정	15.10.31	15.10.31
103	대한민국 관세청과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 간 대한민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제도와 중화인민공화국 해관기업분류관리 제도의 상호인정에 관한 약정에 대한 결정안	15.10.31	15.10.31
104	대한민국 교육부와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부 간 교육 교류 약정 2016–2018	16.01.30	16.01.30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

1.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양국 국민의 이익과 염원에 부응하여 1992년 8월24일자로 상호 승인하고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하기로 결정하였다.

2.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유엔헌장의 원칙들과 주권 및 영토보전의 상호존중, 상호 불가침, 상호 내정불간섭, 평등과 호혜, 그리고 평화공존의 원칙에 입각하여 항구적인 선린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에 합의한다.

3. 대한민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중국의 유일 합법 정부로 승인하며, 오직 하나의 중국만이 있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중국의 입장을 존중한다.

4.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양국 간의 수교가 한반도 정세의 완화와 안정, 그리고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

5.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한반도가 조기에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것이 한민족의 염원임을 존중하고, 한반도가 한민족에 의해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것을 지지한다.

6.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1961년의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라 각자의 수도에 상대방의 대사관 개설과 공무수행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빠른 시일 내에 대사를 상호 교환하기로 합의한다.

1992년 8월 24일 북경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김대중 대통령 국빈 방중 계기 한·중 공동성명

1998.11.13, 베이징

1. 대한민국의 김대중 대통령은 중화인민공화국 강택민 주석의 초청으로 1998년 11월 11일부터 15일까지 중국을 국빈 방문하여 중국정부와 국민의 정중한 환영과 따뜻한 영접을 받았다.

2. 방문기간 동안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은 중화인민공화국 강택민 주석과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회담을 가졌다. 김대중 대통령은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이붕 위원장, 주용기 국무원 총리, 호금도 국가부주석과 면담하였다. 회담과 면담을 통해 양측은 한·중 관계의 진일보한 발전과 공동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 및 국제문제에 관해 심도있게 의견을 교환하고, 광범위한 인식의 일치를 보았다.

3. 한·중 양국 정상은 수교이래 6년여 기간동안 양국 간 선린우호협력관계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제반분야에서 주목할만한 발전을 이루어온 데 대해 만족을 표명하고, 이러한 발전은 양국 각자의 발전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동북아를 포함한 이 지역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해 왔음을 평가하였다.

   양국 정상은 UN헌장의 원칙과 한·중 수교 공동성명의 정신 및 수교이래 발전해 온 양국 간 선린우호협력관계에 기초하여, 미래를 바라보면서 21세기의 한·중 협력 동반자 관계를 구축키로 합의하였다.

4. 양측은 아시아 금융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양국이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정보 교류와 경제연구기관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결정하였다.

   한국 측은 중국의 인민폐 환율 안정과 내수확대를 통한 경제성장 유지 정책이 아시아 금융위기를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였다.

   중국 측은 앞으로도 능력범위내에서 이러한 기여를 계속할 것임을 표명하고, 동시에 한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광범위한 경제개혁 및 금융위기 극복과 경제 회복을 위한 노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5. 중국 측은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을 재천명

하고, 최근 남·북한 민간경제교류에서 얻어진 긍정적인 진전을 환영하며, 한반도 남·북 양측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한반도에서의 자주적인 평화통일 실현을 지지하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목표가 하루 속히 실현되기를 희망하였다.
양측은 4자회담의 추진을 통해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점진적으로 수립되기를 희망하였다.

6. 중국 측은 세계에 하나의 중국만이 있으며, 대만은 중국 영토의 불가분의 일부분임을 재천명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 측은 충분한 이해와 존중을 표시하고, 지금까지 실행해 온 하나의 중국의 입장을 견지한다고 하였다.

7. 양측은 양국 지도자, 정부의 각 부문, 의회 및 정당 간의 교류를 확대,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8. 양측은 수교이래 6년여 기간동안 이룩해 온 양국 간 경제·무역관계의 발전을 높이 평가하고, 21세기에도 계속해서 경제·무역 협력을 확대, 심화시켜 양국의 공동번영과 이 지역의 안정 및 발전에 기여하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양국 간 '경제·무역 및 기술협력 공동위원회'의 수석대표를 차관급으로 격상시키기로 결정하였다.

양측은 현재 양국 간 무역의 불균형에 대해 유의하고, 이러한 무역불균형 현상을 양국 간 무역확대를 통해 개선해 나가기 위하여 공동 노력하기로 결정하였다.

한국측은 한·중 간 무역확대를 위한 중국의 한국 측에 대한 수출금융 제공 제의를 환영하고, 동 수출금융이 양국 간 무역확대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였으며, 중국 측은 한국정부의 조정관세 축소방침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새로운 무역상품 발굴 및 반덤핑제도 등 무역제한 조치 완화를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한국 측은 중국의 방콕협정 가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였고, 중국 측은 이에 대해 사의를 표시하였다.

한국 측은 양국 간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중국 안휘성의 2개 사업에 대한 70억 원(한화)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차관 제공을 금년중 결정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금융감독관리 부문과 금융시장 상호개방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하였다.

9. 양측은 산업, 과학기술, 정보통신, 환경, 에너지, 자원, 농업, 임업,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사회간접자본 건설, 철도 등 부문에서 협력을 가일층 강화하는데 있어 아래와 같이 인식을 같이 하였다.

'한·중 산업협력 위원회'의 협력사업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21세기 양국 간 산업협력 관계를 더욱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한·중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라 양국정부 및 민간의 과학기술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최근 홍수, 가뭄, 지진 등 자연재해가 양국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음을 감안하여 양측은 상술한 부문에서의 정보교류 및 조기예보, 연구조사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결정하였다.

양측은 기초과학 부문에서의 교류를 강화하고, 동시에 첨단 기술의 산업화분야에서의 협력을 적극 촉진해 나가기로 결정하였다.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양측은 초고속 정보통신망 및 전자상거래 등 국가 정보화 부문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첨단 통신 기술 연구개발 분야에서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결정하였다.

양측은 '한·중 환경협력협정'에 기초하여 양국정부간 환경 보호 및 환경산업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황사 및 산성비 등 환경오염, 황해환경보호 등 문제에 대하여 정부 간 공동조사 연구를 강화해 나가고, 동북아지역 협력 활동에 적극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 양측은 황해 환경보호를 위해 양국 유조선 사고 발생시 해상오염 예방을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에너지, 자원 등 부문의 공동개발 이용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한국 측은 1999년 곤명 세계원예박람회 참가를 결정하고, 중국 측은 이를 환영하였다. 양측은 이를 계기로 원예부문에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한·중 시범농장을 공동으로 건립하고 농작물 병충해 방지에 대하여 공동연구를 추진해 나가기로 결정하였다.

양측은 삼림이 자연생태계에서 차지하는 중요성과 삼림의 유지와 합리적 이용이 생태환경 개선, 나아가 인류생존 환경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한·중 간 임업협력 약정'에 기초하여 산림녹화, 토사유실 방지 등 분야에서 임업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양국은 '한·중 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에 근거하여 핵과학 기술 및 핵 에너지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하였다.

한국 측은 호혜의 원칙하에 중국의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참가하기를 희망하였으며, 중국 측은 이를 환영하였다. 양측은 또한 제3국 건설분야에서 공동 진출 협력을 추진하기를 희망하였다.

양측은 '한·중 철도분야 교류 및 협력약정'을 체결하였고, 철도 분야에서 과학기술 교류와 교육훈련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결정하였다.

10. 양측은 미래지향적인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정부 간 교류뿐 아니라, 양국 국민 간 상호 이해증진과 다양한 교류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양측은 양국의 각 분야에서의 문화교류 및 협력을 강화, 발전시키기 위하여 한·중 양국 정부 간 문화협정에 의거, '한·중 문화공동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키로 하였다.

양측은 양국 각각의 정부수립 및 건국 50주년을 기념하여 금년과 내년에 각종 행사를 개최키로 하고, 양국 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하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1998년 체결된 '교육교류 약정'을 기초로 교육 및 학술부문의 교류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양국 관광분야의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도록 장려하고, 양국 관광업계의 발전을 공동으로 촉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양국의 각급 지방정부 간 자매결연 등 방식을 통해 경제, 문화 등 제반분야에서의 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양국이 '한·중 형사사법공조조약', '한·중 사증발급절차 간소화 및 복수사증발급에 관한 협정' 및 '한·중 양국정부간 청소년 교류 양해각서' 등 문서에 서명하고, 어업협정을 가서명 한 데 대해 환영을 표시하고 상술한 문서가 양국관계 발전과 양국 간 교류 및 협력의 확대에 기여하기를 희망하였다.

11. 양측은 핵무기 확산 방지와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및 생·화학무기 감축, 환경, 마약, 테러, 국제조직범죄 등 국제문제에 있어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한국 측은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조기 가입을 지지하는 입장을 재천명하였으며, 양측은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아세안지역 안보포럼(ARF) 및 UN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00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제3차 아시아·유럽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12. 양측은 김대중 대통령의 중국방문이 순조롭게 이루어져 성공을 거두었다고 평가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중국 측의 따뜻한 환대에 대해 사의를 표시하고, 강택민 주석이 편리한 시기에 한국을 방문해 주도록 초청하였다. 강택민 주석은 이에 대해 사의를 표시하고 동 방한초청을 흔쾌히 수락하였다.

/끝/

노무현 대통령 중국 국빈 방문 계기 한·중 공동성명

2003.7.8, 베이징

1. 대한민국 노무현 대통령은 중화인민공화국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의 초청으로 2003년 7월 7일부터 10일까지 중국을 국빈 방문하여 중국정부와 국민의 정중한 환영과 따뜻한 영접을 받았다.

   방문기간 동안 노무현 대통령은 후진타오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중화인민공화국 우방궈(吳邦國)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위원장, 원자바오(溫家寶) 국무원 총리, 쩡칭홍(曾慶紅) 국가부주석과 면담하였다. 회담과 면담을 통해 양측은 한·중 우호협력관계의 더 나은 발전과 지역 및 국제문제에 관한 공동관심사에 관해 심도있게 의견을 교환하고, 광범위한 분야에서 인식의 일치를 보았다.

2. 한 · 중 양국 정상은 수교후 11년 동안의 양국 선린우호협력관계의 발전을 전반적으로 회고하면서 총결산하고, 양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제반분야에서의 협력이 그간 현저한 성과를 거둔 데 대해 만족을 표명하였으며, 이는 양국 국민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평화, 안정 및 번영을 촉진시키는 데에도 중요한 기여를 해 왔다고 평가하였다.

   양국 정상은 유엔헌장의 원칙과 한·중 수교 공동성명의 정신 및 기존의 협력동반자 관계를 기초로, 미래를 지향하여 전면적 협력동반자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선언하였다.

3. 양측은 각기 국내정세 및 대외정책을 소개하였다. 중국 측은 한국정부가 경제발전과 한반도 및 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한국 측은 중국정부가 개혁개방 및 현대화 건설을 추진하여 거둔 성과와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인접국과의 선린·동반자 외교정책을 높이 평가하였다.

4. 양측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한반도의 비핵화 지위가 확보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양측은 북한 핵문제가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확신하였다.

   한국 측은 북한 핵문제가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완전히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중국 측은 북한의 안보우려가 해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양측은 금년 4월 개최된 북경회담이 유익했다고 인식하였다. 한국 측은 중국 측이 동 회담 개최를 위해 기울인 노력을 평가하고 지지하였다. 양측은 북경회담으로부터 시작된 대화의 모멘텀이 지속되어 나가고, 정세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하였다. 중국 측은 한국 측이 남북관계 개선과 긴장완화를 위해 취해 온 긍정적인 조치들을 평가하고, 한국 측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하는 것을 지지하였다.

양측은 북한 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에 관하여 협조와 협력을 가일층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5. 중국 측은 세계에 하나의 중국만이 있으며, 대만은 중국 영토의 불가분의 일부분임을 재천명하였다. 한국 측은 여기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존중을 표시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중국의 유일 합법정부라는 것과 하나의 중국 입장을 계속 견지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6. 양측은 한·중 고위층 교류 및 양국 정부, 의회, 정당간의 교류가 양국 간 전면적 협력을 가일층 강화해 나가는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이를 위하여 양측은 양국 지도자간의 상호 방문과 회동을 강화하고, 교류와 대화체제를 확대하고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7. 양측은 양국 간 경제·통상협력을 더욱 확대·심화하는 것이 양국의 공동이익에 부합되고, 양국의 공동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양측은 양국 간 경제·통상 협력 방향을 연구하기 위한 공동팀을 구성하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 양국 간 무역의 건전하고도 순조로운 발전을 추진하고, 또한 무역을 확대하면서 균형을 이루어 나간다는 원칙하에 무역불균형을 개선토록 상호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상호이익과 우호적인 협의 정신에 따라 무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하고 원만히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위하여 양측은 양국 간에 품질감독·검사·검역 협의체를 조속히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한·중 투자보장협정을 개정하여 양국 상호 간 투자확대를 위해 유리한 환경을 함께 조성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8. 양측은 새로운 협력분야와 협력방식을 개발하여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협력 관계"를 모색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완성차 생산, 금융, CDMA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높이 평가하고, 동 분야의 협력을 계속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이러한 분야에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차세대 IT산업, 생명공학, 신소재 등 첨단기술분야에서의 공동 연구와 산업화 협력을 강화하고, 유통, 자원개발 및 에너지, 교통 등 인프라 건설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환경보호와 환경산업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 정부와 업계, 학계 및 관련 단체들이 참가하는 '한·중 환경보호 산업투자 포럼'을 공동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황사 모니터링, 사막화 방지 및 생태계 건설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계속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한국 측은 2008년 북경올림픽, 2010년 상해엑스포와 중국의 서부대개발 계획을 적극 지지하였으며, 중국 측은 한국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환영하였다.

9. 양측은 '2002년 한·중 교류의 해' 활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만족을 표명하고, 동 성과를 바탕으로 '한·중 교류제'를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하였으며, 양국 간 문화교류와 문화산업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양국 간 교육, 체육, 언론 등 분야와 우호단체, 청소년 및 양국의 자매도시 간의 교류를 더욱 확대하여 양국 국민들 간 우호협력의 기초를 튼튼히 하기로 합의하였다.

   한국 측은 중국 정부와 국민이 SARS 퇴치에 있어서 큰 성과를 거둔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중국 측은 한국측이 중국의 SARS 퇴치 노력을 지지하고 지원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양국 간 전염병 예방과 퇴치 등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양국 국민들의 왕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에 따른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양국 간 항공협력을 확대해나가는 한편, 항공자유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영사 및 사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의 법집행 기관과의 협의와 인적교류를 확대하여 양국 국민들의 정상적인 왕래를 위한 법적인 보장을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한·중 간 민사 및 상사 사법공조 조약', '한·중 간 표준화 및 적합성 평가 분야 협력에 관한 약정' 및 '한국공학한림원과 중국 공정원간의 공학기술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된 것을 환영하였다. 중국 측은 한국이 청뚜(成都)에 총영사관을 설치하는데 동의하였다. 양측은 이러한 조치가 양국 관계의 발전과 양국 간 교류·협력의 확대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10. 양측은 아태지역에서 부상하고 있는 역내협력 과정의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ASEAN+3 과정을 통해 동아시아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심화시켜 나가는 것을 지지하여 지역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기여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한·중·일 간 협력 강화가 동아시아 협력의 발전을 촉진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현재 3국의 경제연구기관 간에 진행되고 있는 한·중·일 FTA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공동연구가 많은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하였다.

양측은 유엔, 세계무역기구, 아·태 경제협력기구, 아시아·유럽 정상회의 등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조와 협력을 강화하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특히, 2005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마약, 국제테러리즘, 금융경제범죄, 해적, 하이테크범죄 등 비전통적 안보 분야를 포함한 공동관심사에 관하여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11. 양측은 노무현 대통령의 중국방문 성과에 대해 만족을 표명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금번 방문이 향후 양국관계의 장기적인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중국 측의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편리한 시기에 후진타오 주석이 한국을 방문하여 주도록 초청하였다. 후진타오 주석은 이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초청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끝/

후진타오 주석 국빈 방한 계기 한·중 공동성명

2005.11.17, 서울

중화인민공화국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은 대한민국 노무현 대통령의 초청으로 2005년 11월 16일부터 17일까지 대한민국을 국빈 방문하였다.

방문기간중 후진타오 주석은 노무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김원기 국회의장, 이해찬 국무총리 등 한국 지도자들과 각각 면담 하였다.

양국 정상은 2003년 7월 북경에서의 만남 이후 한·중 관계가 새로운 진전을 거둔 데 대해 만족을 표하고, 양국 간 합의한 "한·중 간 전면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더욱 심화시켜 나갈 것과, 지역 및 국제문제 등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하고 심도 있는 의견교환을 하였으며, 광범위한 공동인식에 도달하였다.

Ⅰ

양측은 1992년 한·중 수교 이래 양국이 외교, 안보, 경제, 사회, 문화, 인적교류 등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에 있어 중요한 진전을 거두게 된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양측은 2003년 7월의 《한·중 공동성명》이 효과적으로 이행되고 있는데 대해 만족을 표명하였다. 양측의 정치적 상호신뢰는 계속 깊어지고 있으며, 각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이 날로 확대·심화되고 있는 바, 한·중 간 전면적 협력 동반자관계가 새로운 발전단계에 접어들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양측은 양국 간 '전면적 협력 동반자관계'에 따라 선린우호협력관계를 계속 공고히 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양국 국민의 근본적인 이익에 부합되며, 이 지역은 물론 세계의 평화, 안정 및 번영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는 데 공감하였다.

또한, 양측은 각 분야에서의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을 계속 확대, 심화시켜 나가고, 양국관계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한·중 우호·협력관계 발전의 큰 틀속에서 원만하게 해결해 나감으로써, 한·중 관계가 장기적으로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하였다.

Ⅱ

양측은 북경 제4차 6자회담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을 환영하고, 동 공동성명을 통해 6자회담의 목표와 원칙에 합의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중요한 기초를

다졌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양측은 관련 각측이 계속 성의를 가지고 신축성을 보여주어야 하며, 동 성명을 성실히 이행하여 회담의 프로세스가 계속 진전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중국 측은 남북한 간 화해 협력이 적극적인 진전을 거두게 된 것을 환영하고, 남북한 양측의 관계가 개선되어 최종적으로는 평화통일이 실현되기를 계속 확고 불변하게 지지한다는 점을 재천명하였다. 중국 측은 한국 측이 남북관계 개선 및 한반도 평화와 안정유지를 위해 기울여 온 노력을 평가하고, 한국 측이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국으로서 이를 위해 계속적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기를 바라며, 이를 지지한다고 하였다.

양측은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의 번영을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동북아 지역의 교류와 협력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것을 환영하고, 역내 통합과 협력의 질서창출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중국 측은 한국 측의 '평화와 번영 정책'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한국 측은 중국이 동북아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수행하고 있는 건설적인 역할을 높이 평가하였다.

Ⅲ

중국 측은 세계에서 중국은 오직 하나뿐이며, 대만은 중국 영토의 불가분의 일부분이라고 강조하였다. 한국 측은 이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존중을 표명하였으며,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만이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재확인하고, 하나의 중국 입장을 계속 견지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Ⅳ

양측은 양국의 고위급 교류 및 정부, 의회, 정당 간의 교류가 양측의 상호이해와 신뢰를 증진하고, 양국 간 전면적 협력동반자관계의 지속 심화 발전을 촉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양측은 고위급 상호방문 모멘텀을 계속 유지하기로 하고, 양국 지도자간의 빈번한 만남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양국 의회간 고위급 정기교류체제의 조속한 구축과 양국 정당, 단체간 각종 형식의 교류와 협력을 지지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양국 외교부 간의 협상과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가자는 데 동의하고, 양국 외교장관 간 상시 의견교환이 가능하도록 직통전화 채널(hot-line)을 개설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국 외교부 차관급 정례협의채널을 설치하고, 공동관심사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였으며, 양측 외교 당국 간 다양한 수준에서의 정기협의 메커니즘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양국 국방, 안보분야의 대화와 접촉을 강화하고, 양국 군사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02년 북경에서 개최된 한·중 외교·국방 당국간 제1차 안보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2006년 서울에서 제2차 대화를 개최키로 합의하였으며, 이를 정례화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V

양측은 양국 간 경제무역관계가 날로 긴밀해지는 것은 양국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줄 뿐만 아니라, 양국의 공동 발전과 번영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고, 이에 대해 만족을 표명하였다.

양측은 양국의 공동연구팀이 2003년 양국 정상간 합의에 따라 완성한 《한·중 경제통상 협력 비전 공동연구보고서》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동 보고서가 향후 양국의 무역·투자 등 중장기 경제협력의 중요한 지침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양측은 양국 간 연간 1,000억 무역 목표액이 3년 앞당겨 2005년 달성이 예상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한·중 수교 20주년이 되는 '12년에 양국 간 무역액이 2,000억 불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자고 하였다.

양측은 양국 간 무역을 확대시켜 나감과 동시에 점진적으로 균형을 이루어 나가도록 상호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 측은 구매사절단 파견 등 적극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국은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한·중 양자 간 FTA 민간공동연구가 2005년부터 2년 예정으로 가동되고 진전을 거둔데 대해 만족을 표명하고, 양국의 연구기관이 이를 심도 있게 논의, 연구보고서를 예정대로 완성하여 정부에 정책건의를 하게 되기를 희망하였다.

양측은 양국경제무역과학기술 공동위원회, 경제장관 회의 등 대화와 협력체제를 가일층 강화, 정비하고, 양국 경제협력의 분야와 채널을 지속·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현재 운용중인 한·중 무역 구제기관 협력회의의 기능을 확대 강화시켜 상호 이익, 호혜와 우호협상의 정신에 따라, 무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만하게 처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품질감독검사검역에 관한 고위급 협의체를 조속히 가동시킴으로써, 식품위생, 동식물 검사검역 등 품질검사 분야의 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기로 하였으며, 상업정보분야 교류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투자협력 확대를 위한 양호한 환경 조성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한·중 투자 보장협정》 개정에 조속히 합의하여 양국의 상호투자 확대라는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대한민국 산업자원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간의 무역구제분야 협력 확대에 관한 양해각서〉 및 〈대한민국 산업자원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간의 무역투자협력 확대에 관한 양해각서〉의 체결을 환영하고, 이들 양해각서의 체결을 통해 양국의 기업들에게 보다 개선된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양측은 첨단기술, 인프라, 서비스업 및 대형프로젝트 분야에서의 양국의 협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한·중 경제통상협력 비전 공동연구보고서》에서 건의한 양자 간 무역투자 원활화를 위한 5개 조치 및 정보통신, 자동차, 철강 등 12개 분야에서의 협력 등 17개 중점산업분야에서의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자는데 합의하였다.

양측은 정보기술, 생명공학, 신소재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더욱 긴밀한 협력을 전개하고, 과학기술정보 교류를 확대하며, 관련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추진하자는 데 동의하였다.

양측은 또한, 환경기술에 대한 공동 연구 및 응용방안을 추진하며 순환경제, 황사 모니터링, 사막화 방지, 위생매립장 관리, 매립가스 발전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차세대 인터넷과 이동통신, 공개 소프트웨어 등의 IT분야에서 보다 더 긴밀하고 구체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등 양국 간 IT협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정보화 혜택으로부터 소외되어 지식정보사회로의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시아와 세계 각국의 빈곤계층에 대한 정보 접근기회 제공 등 국제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에너지 문제가 세계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석유수입에 관한 양국 간 대화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으며, 에너지 분야에서의 기업 간 교류와 협력을 장려하고, 평등호혜, 상호협의의 원칙하에 양국 간 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석유 공동 비축, 전력건설 및 신재생 에너지 등 분야에서 교류를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양국 간 물류·유통 분야의 협력체제를 계속 정비시키고, 동북아 전체의 물류 분야 협력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양국 간 해상운수협력 장관급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양국이 현재의 기초 위에 전통의약 및 전염병 방지 등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가자는 데 동의하였다.

양측은 조류 인플루엔자의 예방과 치료분야에서의 정보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데 동의하였다.

한국 측은 2008년 북경 올림픽과 2010년 상해 세계박람회, 중국의 서부대개발, 동북노후공업지역 진흥계획 등에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참여할 뜻을 밝혔으며, 중국 측은 이를 환영하였다.

Ⅵ

양측은 양국의 문화, 교육, 관광, 스포츠, 언론 등 분야와 우호단체, 지자체 간의 교류를 더욱 확대하여 양국민의 우호협력을 위한 기초를 공고히 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한·중 수교 15주년이 되는 2007년을 한·중교류의 해로 정하기로 하고, 양국 정부 차원에서 각종행사를 진지하게 기획하고 조직하여, 양국의 민간교류 확대와 이해증진의 중요한 계기가 되도록 하자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양측은 청소년 교류가 양국관계의 미래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하고, 최근 2년간 《한·중 청소년교류합의》의 운영상황을 높이 평가하였다. 중국 측은 양국 청소년 간의 교류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2006년부터 방중 초청대상 한국청년 규모를 100명을 추가하여 초청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으며, 한국 측이 매년 500명의 중국청년을 한국으로 초청하는 사업이 중국 청년들의 한국에 대한 이해와 양국 청년 간 우의를 제고시키는 데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였다.

양측은 경제무역, 인적교류의 신속한 발전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항공, 해운협력을 지속확대해나가기로 하였으며, 항공, 해운 자유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한국 측은 중국의 항공사를 위해 중국에서 제주도까지의 항공노선에 최대한 편의를 제공해줄 의향이 있다고 하였다.

양측은 양국문화공동위원회가 금년 5월 채택한 《2005-2007년도 한·중문화교류계획》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동 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문화분야의 전문가, 배우 및 관련 공무원을 상호 파견하여 학술교류와 문화산업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중국 측은 한국 측이 시안(西安)에 총영사관을 개설하는 것을 환영하였으며, 한국 측은 중국의 주한 중국대사관 주광주 영사사무소 개설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해상 수색 및 구조협정》을 조속히 체결하여 해상 인명과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자는 데 동의하였으며, 양국 간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인적 왕래를 위한 법률 및 제도적 보장을 위해 영사, 사법 등 분야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나가자는 데 동의하였다.

양측은 《한국 산림청과 중국 국가임업국간 동북 호랑이 번식 협력에 관한 약정》의

체결을 환영하고, 동 약정의 체결이 양국 국민들 간의 우호와 협력을 가일층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였다.

Ⅶ

양측은 ASEAN+3, 동아시아 정상회의, 한·중·일 협력, ARF, APEC, ASEM, 아시아·라틴아메리카 포럼 등 각종 지역 및 지역 간 협력체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역내 FTA 연구와 구축을 촉진하며, 지역협력의 과정을 추진해 나가자는 데 동의하였다.

양측은 21세기 국제사회가 당면한 기회와 도전에 대처하기 위하여 효율적 다자체제를 보다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키로 하였다.

양측은 특히 효율적 다자주의의 미래를 위해 광범위하고 합리적인 유엔개혁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유엔체제가 유엔의 권위 및 효율성제고, 새로운 도전과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제고,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이며 대표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혁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양측은 또한, 안보리 개혁이 충분한 협상과 가장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된 기조 위에서 추진됨으로써 유엔의 전반적 개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양측은 마약퇴치, 국제 테러리즘, 금융경제범죄, 해적, 하이테크범죄, 종교적 극단주의 등 비전통적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동의하였다.

양측은 부산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하고, 궁극적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공동 번영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Ⅷ

양측은 후진타오 주석의 방한이 큰 성과를 거두게 된 데 대해 만족을 표명하고, 금번 방문이 장래 양국관계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후진타오 주석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한국 정부와 국민들의 따뜻하고 우호적이며 성대한 환대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편리한 시기에 중국을 재차 방문해주실 것을 초청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후 주석의 초청을 수락하였다. 구체적인 방문 일시는 양측 간 외교채널을 통하여 협의 후 결정하기로 하였다.

/끝/

이명박 대통령 국빈 방중 계기 한·중 공동성명

2008.5.28, 베이징

이명박 대한민국 대통령은 후진타오(胡錦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의 초청으로 2008년 5월 27일부터 30일까지 중국을 국빈방문하여 중국정부와 국민의 정중한 환영과 따뜻한 영접을 받았다.

방문기간 동안 이명박 대통령은 후진타오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원자바오(溫家寶) 국무원 총리, 자칭린(賈慶林) 전국정치협상회의 주석과 각각 면담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쓰촨성(四川省) 원촨(汶川)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막대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발생한데 대해 깊은 애도와 위로를 표시하고, 중국 측의 피해자 구호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후진타오 주석 등 중국 지도자들은 한국 정부와 국민들이 중국의 재난 상황에 관심을 갖고, 긴급원조를 제공하고 구조대를 파견한 것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지진, 해일, 태풍 등 자연 재해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회담과 면담을 통해 양측은 한·중 우호협력관계의 가일층 발전과 지역 및 국제문제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하고 광범위한 분야에서 인식의 일치를 보았다.

1. 한·중 관계 발전

양국 정상은 1992년 수교 이래 한·중 양국이 이룬 급속한 관계 발전을 높이 평가하고, 양국관계를 '전면적 협력 동반자관계'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격상하기로 하였으며, 외교, 안보, 경제, 사회, 문화, 인적교류 등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한층 강화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양국이 외교·안보 분야 대화와 협력을 증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인식 하에, 외교 당국 간 고위급 전략대화 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하고, 기존 양측 간 '한·중 외교·안보 대화'를 정례화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양국 지도자, 정부 각 부처, 의회와 정당 간의 교류를 더욱 강화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중국 측은 세계에 하나의 중국만이 있으며, 대만은 중국 영토의 불가분의 일부분임을 재천명하였다. 한국 측은 이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존중을 표시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중국의 유일 합법 정부라는 것과 하나의 중국 입장을 계속 견지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2. 경제·통상 협력 확대

양측은 2005년 양국 정상이 채택한 《한·중 경제통상협력 비전 공동연구보고서》를 양국 간 경제·통상관계 발전의 새로운 상황을 반영하여 보다 실질적인 경제·통상 협력의 토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정·보완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산관학 공동연구가 순조롭게 진행 중임을 평가하고, 동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에 대하여 양국 간 상호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계속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한·중 투자보장협정》의 개정 및 공포에 대해 환영을 표하고, 이 협정이 한·중 양국 간의 상호 투자를 확실히 보호하고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되며, 양국 호혜공영의 경제·통상 관계 발전방향에 부합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양측은 양국 간 무역이 점차적으로 확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국 측은 중국수출입상품교역회, 중국국제중소기업박람회 등 각종 무역투자박람회 적극 참가, 구매사절단 및 투자조사단 파견 등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중국 측은 이를 높이 평가하였다.

양측은 이동통신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양국 통신기업 간 자본 및 기술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전자정보통신 분야에서의 협력을 소프트웨어, 무선주파수식별시스템(RFID) 등의 분야로 확대해 나가도록 상호 긴밀히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원전, 석유비축, 자원 공동개발과 신재생 에너지 등 에너지 분야에서 포괄적이고 호혜적인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향후 에너지 절약분야에서도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지적재산권 보호, 식품안전 및 품질검사, 물류 및 노무 협력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금융분야에서의 협력 강화가 양국의 금융업 발전에 유리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양측은 금융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상호 교류하고 배우며, 금융시장의 개혁과 개방을 추진하고, 국제 및 지역 금융기구에서의 협조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남북 극지 과학 기술 등 분야에서 양국 간 공동 연구 및 조사 등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환경 보호 강화를 위한 협력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특히, 환경산업, 황사 관측, 황해 환경보전 등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2010년 상하이 세계박람회와 '12년 여수 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3. 인적·문화 교류 강화

양측은 기존의 청소년 상호 초청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상호 초청을 통한 청소년 홈스테이 프로그램 및 대학 장학생 교류도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양국 국민 간 교류 확대를 위해 사증 편리화 조치를 취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

중국 측은 한국측의 주우한(武漢) 총영사관 설립 계획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양국의 유구한 교류역사가 한·중 우호관계의 소중한 자산임을 인식하고, 상호 이해를 강화하기 위해 양국 학술기관이 역사, 문화 등 분야에서 교류를 전개하는 것을 지원해 가기로 하였다.

4.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추진

중국 측은 남북한 양측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관계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평화적인 통일을 실현하는 것을 변함 없이 지지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한국 측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 실현을 위한 그간의 중국 측의 역할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계속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였다.

한국 측은 북핵문제의 해결을 진전시키고 남북한 간 경제·사회 등 제반분야의 교류와 협력의 폭을 확대하고자 하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중국 측은 이에 대해 이해를 표시하고 남북한 화해협력이 증진되기를 기대하였다.

양측은 6자회담 관련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한 제2단계 행동 계획이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전면적이고 균형적으로 조기에 이행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양측은 관계 각측과 함께 다음 단계 행동계획을 검토·작성하고, 9.19 공동성명의 전면적인 이행을 위해 건설적인 노력을 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한·중 협력이 6자회담과 한반도 비핵화 과정을 추진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데 인식의 일치를 보았으며,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범세계적 문제 해결을 위한 유엔의 역할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유엔관련 사안에 대해 계속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유엔개혁이 유엔의 권위와 역할 및 효율을 강화하고, 유엔의 투명성, 민주성, 대표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회원국들 간의 최대한 광범위한 합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양측은 유엔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유엔사무총장의 제반노력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하였다.

양측은 한·중·일 협력이 아시아의 평화, 안정 및 번영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양측은 3국 정상 회의와 외교장관 회의의 3국내 순환 개최 등 3국간 빈번한 교류를 지속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금년 북경에서 개최되는 제7차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기후변화, 대량살상무기(WMD)의 확산방지, 국제 테러리즘, 금융경제 범죄, 해적, 하이테크 범죄 등 공동관심 문제에 대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5. 조약·양해각서 서명

양측은 양국이 《한·중 수형자 이송 조약》, 《중화인민공화국 과학기술부와 대한민국 교육과학기술부간 극지(極地)에서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한·중 학위학력 상호인증 양해각서》 체결을 환영하였다.

6. 평가 및 향후 정상교류

양측은 이명박 대통령의 금번 중국 방문의 긍정적인 성과에 대해 만족을 표명하고, 금번 방문이 향후 양국관계 발전에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후진타오 주석은 이명박 대통령의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참석을 기대하며, 이를 환영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베이징 올림픽이 인류 화합의 제전으로서 큰 성공을 거두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개막식에 참석하겠다는 의향을 표명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중국 측의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후진타오 주석이 조기에 한국을 방문하여 주도록 초청하였다. 후진타오 주석은 이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고 이 대통령의 초청을 흔쾌히 수락하였다.

/끝/

후진타오 주석 국빈 방한 계기 한·중 공동성명

2008.8.25, 서울

Ⅰ. 후진타오(胡錦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은 이명박 대한민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2008년 8월 25일부터 26일까지 한국을 국빈 방문하였다. 방문 기간 동안 후진타오 주석은 이명박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광범위한 분야에서 인식의 일치를 보았다.

Ⅱ. 양 정상은 1992년 한·중 수교 이래 양국 관계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이룩한 다대한 발전에 만족을 표시하였고, 이것이 양국의 발전을 촉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의 평화와 발전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Ⅲ. 이명박 대통령은 중국이 베이징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을 축하하였다. 후진타오 주석은 이명박 대통령이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에 직접 참석하는 등 베이징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여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였다.

Ⅳ. 양측은 한·중 관계가 양측 모두에게 중요한 양자 관계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양측은 2008년 5월 이명박 대통령 방중 시 양측이 발표한 《한·중 공동성명》을 기초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전면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양측은 장기적인 공동 발전 실현을 기본 목표로 상호 협력을 전 방위적으로 확대·심화하고, 지역 및 국제사회의 중요 문제에 있어 협조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항구적인 평화와 공동번영의 세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인류 발전과 진보를 위하여 힘쓰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양측은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1. 정치적 신뢰를 증진하고, 상대방의 평화적 발전을 상호 지지한다. 양국 간의 고위층 교류를 유지 강화한다. 양국 정부, 의회 및 정당 간의 교류와 대화를 심화 확대한다. 국방 분야의 대화와 교류를 강화한다.

2. 호혜협력을 심화한다. 서로의 장점으로 상호 보완하고 호혜상생하는 원칙에 입각하여 양측 간 새로운 협력분야를 부단히 발굴하고, 협력의 폭과 깊이를 확대해 나간다. 실용적 협력을 통해 양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한다.

3. 인적·문화적 교류를 촉진한다. 양국 간 유구한 교류의 역사와 깊은 인적·문화적 유대를 바탕으로 교류를 폭넓게 전개함으로써 양국 국민 간 상호 이해와 우호적인 감정을 심화시켜 나간다.
4. 지역 및 범세계적인 문제에 대한 조율과 협력을 강화한다.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 아시아 지역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국제다자 무대에서 대화와 협력을 강화한다. 인류 생존 및 발전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Ⅴ. 한국 측은 남북한 간 화해와 협력을 통해 상생·공영의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중국 측은 남북한이 화해·협력하고 남북 관계를 개선하여, 궁극적으로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것을 계속 지지한다고 재천명하였다. 한국 측은 대만 문제 관련, 2008년 5월 《한·중 공동성명》에서 밝힌 입장을 재천명하고, 하나의 중국 정책을 계속 견지하기로 하였다.

Ⅵ. 양측은 양국관계 발전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아래와 같은 구체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1. 정치 분야

(1) 양측은 양국 고위 지도자들의 빈번한 상호방문 및 접촉을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

(2) 양측은 양국 외교부 간 제1차 고위급 전략대화를 2008년 내 개최함으로써 양국의 공동이익과 관련된 중대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전략 대화 체제를 가동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국 외교부 간 실무급 업무 협의 체제를 정례화하여 대외정책 및 국제정세에 대한 의사소통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3) 양측은 양국 전문 학자들로 하여금 한·중 교류 및 협력의 전면적 추진에 관하여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양국 정부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4) 양측은 양국 국방 당국 간 고위급 상호 방문을 활성화하고, 상호 연락체제를 강화하며, 다양한 직급과 다양한 영역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5) 양측은 한·중 해양경계획정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양국 관계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하여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데 동의하고, 이를 위해 회담을 가속화하기로 하였다.

2. 경제 분야

(6) 양측은 2,000억 불 무역액 달성 목표를 2010년으로 앞당기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이를 위해 무역 및 투자 원활화, 품질 검사·검역, 무역구제조치, 지적재산권 분야 등에 있어서 협력을 강화하여 나가기로 하였다.

(7) 양측은 2008년 5월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한·중 경제통상협력 비전 공동연구 보고서》의 보완·수정 작업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8) 양측은 경제무역을 확대하기 위하여 양국 경제무역 협의와 무역실무 협력체제를 진일보 강화하기로 하였다.

(9) 양측은 환경보호, 에너지, 통신, 금융, 물류 등 중점 분야에서의 협력을 가일층 강화하기로 하였다.

(10) 양측은 상호 투자 확대가 양국의 호혜적 경제발전에 기여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정부 차원의 협력과 지원을 강화하고, 양호한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서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11) 양측은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중 FTA 추진을 상호 이익의 원칙에 따라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12) 양측은 2010년 상하이 세계박람회와 '12년 여수 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중국 2010년 상하이 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와 한국 '12년 여수 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간 교류 양해각서》등을 체결하여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경험을 공유하며 정보를 교환해 나가기로 하였다.

(13) 양측은 양국 정부 간 합의에 따라 고용허가제 노무협력을 가동하고, 양국 노무자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기로 하였다.

(14) 양측은 금융 분야에서 호혜적인 협력 성과를 환영하고, 향후에도 양국 금융기관의 상호 금융시장 진출과 관련하여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15) 양측은 유관 정부 및 기업 간 《정보기술 혁신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동통신 분야에서 기존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16) 양측은 친환경적·자원 절약형 사회 건설을 위해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17) 양측은 지진, 쓰나미, 태풍 등 자연재해 대응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18) 양측은 《에너지절약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에너지 절약 컨설팅, 인력 교류, 기술개발 등 협력을 추진하여 나가기로 하였다.

(19) 양측은 지구생태환경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사막화방지 과학기술 협력 관련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사막화방지를 위한 생명공학 분야 공동연구, 전문가 교류, 정보교환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20) 양측은 《무역투자정보망의 운영 및 유지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양국 간 무역투자정보망을 개통하여 최신 무역·투자 관련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로 하였다.

(21) 양측은 《첨단기술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향후 5년 간 전자정보, 통신기술, 신에너지 등 분야에서 협력하고, 앞으로 첨단기술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기로 하였다.

(22) 양측은 《수출입수산물 위생관리에 관한 약정서》 체결을 환영하고, 수산물 수입의 검사 검역 강화, 관련 법률 정보교환, 수산물 검역을 위한 검사관 양국 상호 방문 보장 등 위생관리 협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3. 인적·문화 교류 분야

(23) 양측은 현재 연간 600만 명 수준인 인적 교류를 가일층 확대하고, 이를 위해 사증편리화 조치 검토를 포함하여 필요한 모든 편리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24) 양측은 2010년 및 2012년을 각각 중국 방문의 해와 한국 방문의 해로 정하고, 관광을 비롯한 다양한 양자 교류 행사를 추진하여 양국 간 인적 교류를 촉진하기로 하였다.

(25) 중국 측은 주한 중국대사관의 광주 영사사무소를 총영사관으로 승격하기로 하였으며, 한국 측은 이를 환영하였다.

(26) 양측은 《한·중 교육교류약정》 개정을 통해, 정부 상호 초청 장학생을 각각 40명에서 각각 60명으로 확대하고, 매년 상호 초청을 통한 한·중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27) 양측은 양국 문화계, 언론계, 우호도시, 학술계, 민간단체 간 교류 활성화를 통하여 상호 이해를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 양국 민간 부문에서 진행되고 있는 문화 및 언론 분야 교류행사와 역사·문화 등 분야에서의 양국 학술기관 간 교류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28) 양측은 《중국 따오기 기증 및 한중 따오기 증식·복원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중국 측은 한국 측에 따오기 한 쌍을 기증하기로 하였고, 한국은 이에 사의를 표하였으며, 멸종 위기종인 따오기 복원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4. 지역 및 국제협력

(29) 양측은 6자회담 틀 내에서의 협의와 협력을 강화하여, 조기에 2단계 조치의 전면적이고 균형적인 이행을 촉진시키고, 9.19 공동성명을 전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건설적인 노력을 계속 경주하기로 하였다.

(30) 양측은 ASEAN+한·중·일, 한·중·일 협력,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아시아 협력대화(ACD), 아시아 유럽회의(ASEM),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포럼(FEALAC), 아시아-중동대화(AMED), 아시아-아프리카정상회의 등에서의 조율과 협력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31) 양측은 양국 외교부 간 유엔업무 협의 체제를 수립하여 유엔업무에서의 상호 이해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32) 양측은 국제 인권 분야에서의 대화와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33) 양측은 대량파괴무기 확산 방지, 국제 테러리즘 대응, 마약, 금융경제 범죄, 하이테크 범죄, 해적 등 문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34) 양측은 전 세계적인 공동 관심사인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하여 국제사회와 함께 계속 노력하기로 하였다.

Ⅶ. 양측은 상기 분야에서의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양국 외교부 간 고위급 전략 대화, 경제무역공동위원회, 관광장관회의 등 양자협의체를 통해 구체 계획을 세우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Ⅷ. 중국 측은 후진타오 주석 방한기간 동안 한국 측이 보여준 따뜻한 우의와 환대에 사의를 표하였다.

/끝/

박근혜 대통령 국빈 방중 계기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

2013.6.27, 베이징

박근혜 대한민국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2013년 6월 27일부터 30일까지 중국을 국빈 방문하여 중국 정부와 국민들의 성대한 환영과 따뜻한 영접을 받았다. 방문기간중 박근혜 대통령은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리커창 국무원총리, 장더장 전인대 상무위원장과도 면담하였다.

양측은 1992년 수교 이래 양국관계 발전 성과를 평가하고, 한·중관계, 한반도 정세, 동북아를 포함한 지역정세 및 국제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을 가졌으며, 한·중 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신뢰에 기반하여 내실있게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미래비전을 제시하였다.

1. 양국관계 발전 방향 및 원칙

1-1 양국관계 발전 평가

양측은 수교 이래 양국관계가 상호존중, 호혜평등, 평화공존, 선린우호의 정신 하에 제반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하였다.

양측은 양국 간의 역사적인 수교와 지난 20여 년간의 관계발전이 양국의 번영, 양국민의 복지증진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아시아의 공동 번영에도 기여해 왔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1-2 양국관계 발전 방향

양측은 양국관계 발전 성과를 토대로 양국 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양자 및 지역 차원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 차원으로까지 더욱 진전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앞으로 정치안보 분야의 협력과 경제통상, 사회문화 분야의 협력을 모두 대폭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있어, 양측은 향후 5년간 함께 협력할 양국 신정부가 공히 국민 행복과 인류사회의 복지 증진을 국정목표의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추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

1-3 양국관계 발전 원칙

이러한 공통된 인식 하에, 양측은 향후 양국관계 발전의 기본 원칙으로 첫째, 상호이해와 상호신뢰 제고, 둘째, 미래지향적 호혜협력 강화, 셋째, 평등원칙과

국제규범의 존중, 넷째, 지역·국제사회의 평화안정과 공동번영 및 인류의 복지 증진에의 기여를 제시하였다.

2.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내실화

2-1 중점 추진 방안

이러한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양측은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신뢰에 기반하여 내실화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다음 세 가지 방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첫째, 정치·안보 분야에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양국 지도자가 긴밀히 소통하고, 양국의 정부, 의회, 정당, 학계 등 다양한 주체 간의 전략적 소통을 포괄적·다층적으로 추진하여 상호 전략적 신뢰를 가일층 제고한다.

이를 통해, 한·중관계 발전,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 지역협력 및 글로벌 이슈의 해결에도 함께 기여한다.

둘째, 경제·사회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확대한다.

이를 위해, 기존 협력을 더욱 확대하는 동시에 새로운 협력 분야와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한다. 특히, 양측은 실질적인 자유화와 폭넓은 범위를 포괄하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모델리티 협상의 실질적 진전을 평가하고, 한·중 FTA 협상팀이 협상을 조속히 다음 단계로 진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할 것을 지시하였다.

아울러 양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확보를 통한 삶의 질 제고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조성하기 위한 교류협력을 증진시켜 나간다.

이를 통해, 양국의 호혜적 이익과 양국민 뿐만 아니라 인류의 복지증진에도 기여해 나간다.

셋째, 양 국민 간 다양한 형태의 교류를 촉진하고, 특히 인문유대 강화 활동을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학술, 청소년, 지방, 전통예능 등 다양한 인문분야에서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양국 간 공공외교 분야에서의 협력, 그리고 다양한 문화 교류도 가일층 촉진시킨다.

이를 통해, 양국관계의 장기적, 안정적 발전의 기반이 되는 양 국민 간의 상호

이해와 신뢰를 제고한다.

2-2 세부 이행계획

양측은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내실화를 위한 상기 세 가지 중점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이 공동성명의 첨부 부속서를 통해 아래와 같은 다섯 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하는 세부 이행계획을 제시하였다.

첫째, 정상 및 지도자 간 빈번한 상호방문과 회담, 서한 교환, 특사 파견, 전화 통화 등 방식으로 상시적 소통을 추진한다. 한국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중국의 외교담당 국무위원간 대화체제를 구축한다. 외교장관 상호방문의 정례화 및 핫라인의 구축, 외교차관 전략대화의 연간 2회 개최, 외교안보대화, 정당간 정책대화, 양국 국책연구소 간 합동 전략대화 등을 추진한다.

둘째, 거시경제정책 공조와 국제금융위기 등 외부경제위험에 대한 공동대처 등 경제통상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정보통신, 에너지, 환경, 기후변화 등 미래지향적인 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을 지속 개발한다. 또한, 보건의료, 식품안전, 인구구조 변화 등 사회분야에서도 발전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다양한 협의채널 확충 등의 노력을 강화한다.

셋째, 인문유대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협의기구로서 '한·중 인문교류 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동 공동위를 연례 개최하여 관련 협력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행을 지도한다. 또한, 교육, 관광, 문화, 예술, 스포츠 등 분야에서의 다양한 교류를 강화한다. 아울러, 이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제3국으로 확대하는 데에도 협력해 나간다.

넷째, 양국민 간 교류과정에서 국민에 대한 편의 제공과 권익 보호 등 분야에서 영사 협력을 강화한다.

다섯째,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강화한다.

3. 한반도

한국 측은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상을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 중국 측은 박근혜 대통령이 주창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상을 환영하고, 남북관계 개선 및 긴장 완화를 위하여 한국 측이 기울여온 노력을 높이 평가하였다.

양측은 한국과 북한이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로서 당국 간 대화 등을 통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한국 측은 북한의 계속되는 핵실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이와 관련, 양측은 유관 핵무기 개발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 및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가 공동이익에 부합함을 확인하고 이를 위하여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안보리 관련 결의 및 9.19 공동성명을 포함한 국제 의무와 약속이 성실히 이행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양측은 6자회담 틀 내에서 각종 형태의 양자 및 다자대화를 강화하고, 이를 통하여 한반도 비핵화 실현 등을 위한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해 긍정적인 여건이 마련되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한국 측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국 측의 노력을 평가하고, 한반도에서의 새로운 변화를 통해 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증진될 수 있도록 중국 측이 건설적인 기여를 해 줄 것을 희망하였다. 중국 측은 남북한 양측이 대화와 신뢰에 기반하여 관계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한민족의 염원인 한반도의 평화통일 실현을 지지한다고 표명하였다.

4. 대만

중국 측은 세계에 하나의 중국만이 있으며, 대만은 중국 영토의 불가분의 일부분임을 재천명하였다. 한국 측은 이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존중을 표시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중국의 유일 합법정부라는 것과 하나의 중국 입장을 계속 견지해 나가기로 하였다.

5. 지역·국제무대 협력

5-1 한·중·일 3국 협력

양측은 한·중·일 3국 협력이 3국 각자의 발전에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 번영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양측은 3국 정상회의를 정점으로 하는 3국 협력체제가 안정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금년 제6차 3국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하였다.

5-2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양측은 아시아 지역이 경제 발전과 상호의존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정치·안보 협력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역설적인 현상에 직면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역사 및 그로 인한 문제로 역내국가간 대립과 불신이 심화되는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역내 신뢰와 협력의 구축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 측은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원칙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5-3 지역 및 국제이슈에 대한 협력

양측은 지역의 안보 증진과 공동번영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국제사회의 안전과 인류의 복지에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는 대량파괴무기 확산, 국제 테러리즘, 사이버 범죄, 마약, 해적, 금융 범죄, 하이테크 범죄, 원자력 안전 등 국경을 초월한 각종 범세계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양측은 양국이 지역 및 국제 협력체에서도 아래와 같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첫째, 개방적 지역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하고, ASEAN+한·중·일,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등에서 정책적 조율과 협력을 계속 유지한다.

둘째, 유엔 헌장의 정신을 존중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공동번영, 인권 존중을 위한 업무에 관해 협력을 더욱 긴밀화한다. 2013-14년 한국의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을 계기로 양국 간 유엔 차원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한다.

셋째, 세계경제의 견실하고 지속 가능한 균형성장을 이룩하기 위해 G20을 포함한 국제경제협력체제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 또한,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동아시아 자유무역협정 논의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간다.

/끝/

부속서 :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내실화 이행계획

1. 정치 협력 증진

전략대화의 포괄적 강화

양측은 기존 대화채널의 활성화와 다층적인 대화채널 신설을 통해 양국 간 전략대화를 포괄적으로 강화한다.

양측은 양자방문 및 국제회의 계기를 충분히 활용하고, 상호 서한·전보 교환, 특사 파견, 전화 통화 등 방식을 통해 양국 정상 및 지도자 간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공동 관심사에 대한 논의를 심화시킨다.

양측은 한국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중국의 외교 담당 국무위원간 대화체제를 구축한다.

양측은 외교장관간 상호 교환방문 정례화를 추진하고, 외교장관간 핫라인을 가동하여 전략적 사안에 대한 협의를 강화한다.

양측은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하고, 전략적 사안에 대한 논의를 심화시킨다.

양측은 외교안보대화를 추진한다.

양측은 양국 정당 간의 국정경험 공유 등을 위한 정당간 정책대화 설립을 지원한다.

양측은 양국 국책연구소 간 합동전략대화를 연례적으로 개최한다.

한·중 주요 현안

양측은 양국 간 해양경계를 획정하는 것이 양국관계의 장기적 및 안정적 발전과 해양협력을 추진해 나가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해양경계획정 과정을 추진하기 위해, 해양경계획정 협상을 조속히 가동하기로 한다.

양측은 한·중 어업공동위 등 어업문제에 관한 기존 협의체가 원만히 운영되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한·중 외교 당국이 주관하는 어업문제협력회의가 정례화된 것을 환영하면서, 양측은 상호 협의하에 어업자원 보호와 조업질서 강화를 위해 소통과 협력을 지속 증진하고, 양국 어업수산 및 유관기관 간에 공동단속 등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한·중 수산협력 연구체제를 구축하고, 수산고위급 회의를 포함한 인적·기술적 교류를 확대한다.

양측은 역사 연구에 있어서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양국관계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와 관련하여 양측은 양국 학계 간에 사료의 발굴과 열람 그리고 연구 등 방면에서 상호 교류와 협력을 전개해 나가는 것을 장려하기로 한다.

2. 경제·통상 협력 확대

무역·투자

양측은 지역 및 세계 경제 현황을 평가하고, 상생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거시경제정책

공조를 강화하고, 대외경제 위험에 공동 대응해 나가고,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한다.

양측은 《한·중 경제통상협력 수준 제고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양국 간 통상 협력을 강화한다.

양측은 2015년까지 무역액 3,000억 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양국 간 무역을 지속 확대한다. 양측은 점진적으로 무역균형을 이루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한다. 또한, 상대국가가 주최하는 각종 전시회를 적극 지지하고, 보다 많은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한다.

양측은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이 미래 양국 경제통상 관계 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양국 간 전략적 신뢰 구축에도 크게 기여한다는 점에 인식을 함께 하고 협상 진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간다. 또한, 양측은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아태무역협정 협상, 광역두만개발계획(GTI), 한·중·일 환황해 경제기술교류 회의 등 아시아 지역 경제통합 과정에서도 긴밀히 협조한다.

양측은 세계무역기구(WTO)의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며, 도하라운드의 추진 및 다자무역체제의 양호한 발전을 위해 지속 노력한다.

양측은 무역·투자 증가에 따른 통상 협력을 증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인식 하에, 한·중 투자협력위원회 개최 등 다양한 계기에 양국 통상장관 회담 개최, 국장급 통상협력 조율기제 구축 등 양국 간 통상투자 협력을 강화한다.

양측은 양국의 지방정부가 다양한 계층과 형식으로 지방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산업협력단지 조성 지지를 통해 지방경제 발전을 이끌도록 한다.

양측은 지속적으로 양호한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협력하고, 상호 투자 확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중국기업의 한국 투자와 한국기업의 중국 투자, 특히 신흥산업 분야, 중국 중서부지역 및 동북지역에 대한 상호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공동 노력하고, 한국기업의 중국 신형 도시화 발전전략 참여를 지원한다.

양측은 한·중 경제장관회의, 한·중 경제·무역 및 기술협력 공동위원회, 무역실무회담 등 주요 경제협의체를 보다 활성화하고, 새로운 협력분야를 지속적으로 개발한다.

양측은 브랜드 및 마케팅 네트워크 구축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기업 교류 및 교육 등 행사를 공동 개최한다.

양측은 하이테크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한·중 기술 전시상담회를 계속해서 번갈아가며 개최한다.

양측은 한·중 고용허가제 관련 협력을 더욱 강화한다.

양측은 양국 간 무역 및 투자 증진에 더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이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함께 하고, CSR 활동을 적극 추진한다. 양측은 재한 중국상회 및 재중 한국상회의 업무를 지지하고, 관련 부처에서는 상회 및 투자기업과 비정기적인 좌담회를 갖고 의견 및 건의를 청취한다.

양측은 《대한민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제도와 중화인민공화국 해관기업 분류관리제도의 상호인정에 관한 약정》체결을 환영하고, 향후 양국 기업의 통관 원활화와 교역 확대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미래지향적 협력 분야

양측은 정보통신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한국 미래창조과학부와 중국 공업정보화부 간 《한·중 정보통신 협력 장관급 전략대화》를 신설하여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정보통신, 사이버 안보, 인터넷 주소자원 관리, 국가정보화, 클라우드 컴퓨팅 등 양측이 공동 주목하는 중요 의제에 대해 논의하고 교류한다.

양측은 양국 연구기구 및 기업 간에 특히 차세대 이동통신 분야의 육성을 위해 5G 이동통신 표준 및 신서비스 발굴 등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다.

양측은 과학기술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 미래창조과학부 등과 중국 과학기술부 등 간의 대기과학, 해양, 생명과학, 신소재, 정보통신기술(ICT) 등 과학기술 분야의 전략적 대형 공동연구를 강화하여 그 성과를 공유해 나가기로 한다. 또한, 중대한 기초과학분야 연구기관간 교류 협력을 추진한다.

양측은 《응용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화 협력 강화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신소재, 신재생에너지, 바이오 등 전략적 신흥산업 분야에서의 기술 협력, 공동 R&D 확대 등의 협력을 강화하고, 기업협력혁신센터 공동 설립을 장려한다.

양측은 《에너지절약 분야 협력 강화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한·중 양국의 에너지 절약 분야 협조 메커니즘 구축을 추진하고,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등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효율 분야에서의 구체적 협력사업을 발굴하여 공동 추진한다.

양측은 친환경도시, 스마트 도시 건설 관련 기술 경험 공유 및 시범사업 등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한다.

양측은 적절한 시기에 양국 항공회담을 개최하여 양자 간 항공운송 시장의 추가 확대 가능성에 대해 논의한다.

양측은 양국 간 무역에서 역내통화결제를 촉진하고, 금융 및 통화부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한·중 양국은 2011년 10월 3,600억 위안(64조 원) 규모로 확대체결된 한·중 통화스왑협정이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양국 상호 간의 무역 및 경제발전을 진전시키는데 기여하였다는데 인식을 같이 한다. 양국은 2014년 10월 통화스왑 협정 만기

도달 시 만기를 연장하고, 이후 스왑계약의 존속기간(duration)을 연장하는 데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고려하기로 합의한다. 양국은 앞으로 국제금융시장상황, 교역규모, 역내 통화 결제의 진전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통화스왑협정의 규모를 확대하기로 한다.

양측은 양국 기업의 제3국 공동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한·중 수출입은행간 공동금융 지원에 관한 상호리스크참여약정(RRPA)》 체결을 환영한다. 또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의 다자화(CMIM) 등 역내 금융협력 분야에서 그간의 진전을 환영하고, 협력을 보다 강화한다.

양측은 대기환경, 황사, 생물다양성 및 환경산업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한다. 양측은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양자 및 다자 협력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기후변화협상에 대한 의견교환 및 협력모색을 위한 정례대화 개최 및 양국 국내 기후변화대응정책에 관한 교류와 협력을 전개하기로 합의하고, 해당분야에서의 다양하고 실질적인 호혜 협력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 나간다.

양측은 해양과학 연구, 해양환경보호, 해양경제, 극지 연구, 대양 탐사 및 개발, 해상법집행 등 해양분야의 협력 및 공동연구를 추진한다.

양측은 동북아지역 역내 원전의 안전증진을 위한 협력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정보 공유, 기술협력, 사고시 조기통보 등 협력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상호 노력한다.

양측은 기존의 협력 기초위에서 지식재산권분야의 교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지식재산권의 창출·활용·보호·관리에 관한 호혜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양측은 한·중 사회보장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지속 협력한다.

양측은 양국 의료기관 간 협력, 건강보험 운영경험 공유, 기초의학과 전통의학 교류 및 협력 등 보건의료 분야의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고, 신변종 감염병의 대유행 예방 및 전파 차단을 위한 정보 공유, 인력교류 및 공동대응체계 구축 등에 지속 협력하기로 한다.

양국은 보건의료 교류를 지원하고 양국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소통기제를 구축해 나가는데 협력하기로 한다.

양측은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 추세에 대비하여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등 사회복지 정책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고령친화 산업·항노화 공동연구 등 고령화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한다.

양측은 양국 간 현지 실사제 도입과 긴급대응체계 구축 등 식품안전 확보와 위해요인 차단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GMP 상호인증 등을 위한 국장급 협의체를 설치·운영한다.

양측은 농촌개발을 포함한 양국 농업 및 농촌 경제정책에 대해 교류하고, 가축전염병 방역공조, 농업 과학기술 및 위생검역 분야 협력을 강화한다.

양측은 어업자원 보존 및 관리 정책 공유 등 수산분야 협력을 촉진한다.

3. 인적·문화적 교류 강화

인문유대 강화

양측은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더욱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양국민간의 심적 거리를 단축시키고 보다 돈독한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해 한·중 간 인문유대를 강화해 나간다.

양측은 한·중 인문유대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협의 기구로서 양국 외교부 차관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한·중 인문교류 공동위'를 출범시키고, 향후 동 공동위를 매년 개최하여 관련 구체사업들을 심의, 확정하고 그 이행을 지도한다.

인적 교류 지원, 관광, 스포츠, 자연

양측은 한·중 관계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양국 청소년 간 교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향후 청소년 교류를 대폭 확대시켜 나가기 위한 구체 방안을 협의해 나간다.

양측은 양국의 학생이 상대방 국가에서 공부하고 연수하는 것을 장려하며, 장학금 유학생 상호 교환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양측은 중학생 상호 교환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양측은 양국 대학 간 협력을 중요시하며, 양국 대학생 간 교류를 지속적으로 내실화한다.

양국은 한국어의 해, 중국어의 해 상호 지정을 통해 양국에서의 상대국 언어에 대한 이해 제고와 언어 관련 교류 사업 활성화를 위해 협력한다.

양측은 원어민 중국어 보조교사 초청 및 한국교사의 중국 파견에 대해서 상호 협력을 강화한다.

양측은 양국 간 공공외교 분야의 협력 확대를 통해 양국 국민들이 상대국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금년에 한·중 공공외교포럼을 신설한다.

양국은 한·중 문화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양측은 문화·예술단의 계기별 상호방문을 장려하고, 예술 분야의 공동 창작을

육성한다. 한·중 문화산업포럼을 조속히 개최하고, 양국 문화산업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양측은 영화, TV프로그램, 게임, 뮤지컬 등 문화산업 분야의 협력을 추진하고 공동제작 및 유통을 강화한다.

양측은 한·중 문화협력협정의 틀 안에서 차기 문화교류 시행계획 체결을 추진한다.

양측은 한·중 간 지방차원의 인적·문화적 교류 협력을 더욱 확대한다.

양측은 양국이 서로에게 중요한 관광시장이고, 지속적이고 건전한 관광발전이 양국 국민정서 증진과 상호 우호관계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양측은 또한 관광업계 간 협력 확대를 지속적으로 장려하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양측은 스포츠 분야 교류를 강화한다. 중국 측은 한국의 2013년 실내무도 아시안게임, 2014년 아시안게임,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적극 지지하며, 한국 측은 중국 측의 2013년 아시아 청소년게임, 2013년 동아시아 경기대회, 2014년 청소년 올림픽 개최를 적극 지지한다. 양측은 한·중 청소년 스포츠 교류 대회, 한·중 대중스포츠 교류 행사를 개최한다.

양측은 《따오기 보호·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한국 측에 따오기 2마리를 기증하고, 멸종 위기종 복원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한다.

4. 영사 분야 협력 확대

양측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양국이 《외교관 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것을 환영하고, 중장기적으로 상호 사증면제범위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양측은 양국 국민 간 교류과정에서 더 많은 법적 보장을 제공하기 위해 양국 영사협정의 조속한 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양측은 상호 재외국민보호를 위해 상대국내 자국 공관을 포함한 당국 간 상호협력을 강화한다.

5.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추진

양측은 전략적 관점과 장기적 시각에서 한·중·일 3국 협력을 바라보고, 그간의 협력 성과를 바탕으로 한 3국 간 신뢰구축이 긴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양측은 3국 협력체제의 안정적 발전 및 3국 협력 사무국의 기능과 역할을 보다 강화하는 것을 검토해 나가기로 한다. 양측은 3국 협력의 미래방향으로서 경제통합을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협력을 강화하고, 인문사회 교류 및 지방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3국 및 지역의 평화 안정·번영에 기여한다.

양측은 범세계적 문제 해결을 위한 유엔 역할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유엔 업무에서의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기로 한다.

양측은 유엔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존중하는 전제 하에, 유엔개혁이 유엔의 투명성, 민주성, 대표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긴밀히 협의한다.

양측은 ASEAN+한·중·일,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G20, 아시아협력대화(ACD), 아시아유럽회의(ASEM),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협력포럼(FEALAC) 등 다자협의체에서의 조율과 협력을 유지한다. 한국은 2014년 중국에서 개최되는 제22차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한다.

양측은 개발협력 분야에서 대화와 교류를 유지하고 개발도상국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을 기초로, 개발도상국 농업 및 농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개발협력 가능성을 연구, 검토한다.

양측은 대량파괴무기 확산, 국제 테러리즘, 사이버 범죄, 마약, 해적, 금융 범죄, 하이테크 범죄, 원자력 안전 등 문제를 방지하는 데 대한 협력을 강화한다.

양측은 금년 서울 개최 세계 사이버스페이스 총회와 대구 개최 세계에너지총회(WEC)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협력한다.

6. 정상회담 계기 체결 문건

양측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중화인민공화국 과학기술부간의 응용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화 협력 강화에 관한 양해각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해양국 간의 해양과학기술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간의 한·중 경제통상협력 수준 제고에 관한 양해각서》, 《대한민국 환경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임업국 간 따오기 보호·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대한민국 관세청과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 간 대한민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제도와 중화인민공화국 해관기업 분류관리제도의 상호인정에 관한 약정》, 《대한민국 수출입은행과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은행간 공동 금융 지원에 관한 상호리스크참여약정》,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간 에너지절약 분야 협력 강화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을 환영하였다.

/끝/

시진핑 중국 주석 국빈 방한 계기 한·중 공동성명

2014.7.3, 서울

1. 시진핑(習近平)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은 박근혜 대한민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2014년 7월 3일부터 4일까지 한국을 국빈 방문하여 한국정부와 국민들로부터 성대하고 뜨거운 환영을 받았다. 방문 기간 동안 시진핑 국가주석은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정의화 국회의장, 정홍원 국무총리와도 각각 면담하였다.

2. 양 정상은 한·중 양국이 1992년 수교 이래 다양한 분야에서 비약적으로 관계를 발전시켜 왔으며, 이러한 관계 발전은 양국 간 호혜적 이익 증진과 동북아시아 지역의 공동 번영에 기여해 왔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양 정상은 한·중 양국이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의 국빈 방중과 2014년 시진핑 주석의 국빈 방한을 통해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내실화 목표의 완성을 향해 착실히 나아가고 있다는 데 대해 의견을 같이 하였다.

3. 양 정상은 2013년 6월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이 제시한 양국관계 발전의 청사진에 따라, 지난 1년여간 △양국 지도자 간 소통을 긴밀히 유지하고, 각급에서의 다양한 전략대화 메커니즘을 신설하는 등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높은 수준의 전략적 소통 관계를 구축하였으며, △창조와 혁신을 원동력으로 하는 새로운 경제 체제 구축과 관련한 협력을 증진하고, 양국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착실히 다져왔으며, △인문유대 사업 활성화, 공공외교 분야 협력 개시, 교육·문화 교류 강화 등을 통해 인적·문화적 교류의 깊이와 폭을 심화·확대하여 왔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4. 양측은 한국과 중국이 동북아 지역의 가깝고 중요한 이웃이자 동반자로서, 공동발전을 실현하는 동반자, 지역 평화에 기여하는 동반자, 아시아의 발전을 추진하는 동반자, 세계 번영을 촉진하는 동반자가 되기 위해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과 금번 「공동성명」을 토대로 양국관계의 미래를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첫째,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각 급에서 공동의 관심사 및 중·장기적 문제를 수시로 긴밀하게 논의하는 성숙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구축한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의 증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둘째, 함께 창조와 혁신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전략적 경제통상 및 산업협력을

확대하고, 양국 국민의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며, 동아시아 지역 경제통합 및 세계경제 회복을 추진하기 위해 양국이 함께 노력함으로써 지역 및 세계 경제 성장에 있어서 견인차 역할을 해 나간다.

셋째, 쌍방향적이고 국민체감적인 인적·문화적 교류를 통해 양국민 간 정서적 유대감을 심화함으로써,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하는 신뢰관계를 구축해 나간다.

넷째, 양국 정부와 국민 간 상호 이해와 신뢰를 기초로, 지역 및 국제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협력을 가일층 강화해 나감으로써,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세계의 발전과 공동 번영에도 기여해 나간다.

5. 이를 위해 양 정상은 다음과 같은 주요 사업 추진에 합의하였으며, 분야별 세부 사업은 본 「공동성명」의 부속서에 명기하기로 하였다.

정치·안보 분야에서는 양국 지도자 간 상호 방문 및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간 외교안보 고위전략대화를 정례화하고, 양국 외교장관 간 연례적인 교환 방문을 정착시키며, 양국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1.5 트랙 대화 체제를 설치하고, 양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청년 지도자들이 참여하는 한·중 청년 지도자 포럼을 정례적으로 개최한다. 양국 국방·군사관계의 양호한 발전 추세를 유지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를 부단히 증진하며, 역내 평화와 안정 유지에 기여해 나간다. 또한, 2015년에 해양경계획정 협상을 가동하기로 한다.

미래지향적 호혜협력 분야에서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의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연말까지 협상을 타결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자국 통화 결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양국 간 경제·무역 발전에 이익이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원화와 위안화 간 직거래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며, 한국 서울에 위안화 청산체제를 구축하고, 중국 측은 한국 측에 800억 위안 규모의 위안화 적격해외기관투자자(RQFII) 자격을 부여하기로 합의한다. 아울러, 국민 위생 및 안전을 위하여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감축, 사고·천재지변 등에 대한 긴급구호·지원, 원전 안전,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등을 포함한 동물질병과 인체감염병 대처 등에 있어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기후변화 대응 및 해양 분야의 협력을 확대·심화해 나간다.

인적·문화적 교류 분야에서는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영사협정》 체결을 계기로, 양국 인적왕래의 법률적 기초를 가일층 다지고, 양국 영사관계 및 협력의 수준을 제고한다. 2015년과 2016년을 각각 '중국 관광의 해'와 '한국 관광의 해'로 지정하고, 양측 간 합의된 2014년 인문교류 세부사업을 공동 추진하며, 교육 및 청소년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관용·공무 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면제 협정 문안 합의를 환영하며, 사증면제 범위의 단계적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한다. 지방정부 간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고, 2016년까지 양국 간 인적교류 1,000만 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양국의 유관기관 등이 판다 공동연구를 실시하는 것을 지지하기로 한다.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영화 공동제작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다.

6. 양측은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6자회담 참가국들의 공동의 이익에 부합되며, 관련 당사국들이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이러한 중대한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양측은 6자회담 참가국들이 2005년 9월 19일에 합의한 9.19 공동성명 및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 하였다.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하여 관련 당사국들이 6자회담 프로세스를 꾸준히 추진하며, 이 과정에서 관련 당사국들이 상호 존중의 정신 하에 양자 및 다자간 소통과 조율을 강화하고, 9.19 공동성명에 따른 관련 당사국들의 관심사항을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양측은 6자회담 참가국들이 공동인식을 모아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견해를 같이 하였다. 양측은 6자회담 수석대표 간 다양한 방식의 의미 있는 대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지지하였다.

7. 한국 측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남북 간 상호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기를 희망하였다. 또한, 남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문제 해결, 남북한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한반도 평화통일과 동북아의 공동 번영에 기여하게 될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 측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기울인 한국 측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남북이 대화를 통해 관계를 개선하고 화해와 협력을 해 나가는 것을 지지하고,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에 대한 한민족의 염원을 존중하며,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이 실현되기를 지지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이 지역의 평화와 협력, 신뢰 증진 및 번영을 위하여 양자·다자 차원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소지역 협력을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8. 중국 측은 세계에 하나의 중국만이 있으며, 대만은 중국 영토의 불가분의 일부분임을 재천명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 측은 충분한 이해와 존중을 표시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것과 하나의 중국만이 있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양안관계의 평화적 발전을 지지하기로 하였다.

9. 한국 측은 중국 측의 제2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지지하고 이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금번 APEC 정상회의를 통해 지역경제통합 진전, 혁신적 발전·경제개혁 및 성장 촉진, 포괄적 연계성 및 인프라 개발 강화 등 핵심의제에서 실질적 성과를 거두어 아태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10. 양측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금번 국빈 방한이 양국관계가 새로운 도약을 하는데 있어서 이정표적 의미를 지닌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의 진심어린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편리한 시기에 중국을 재차 방문하여 줄 것을 초청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흔쾌히 수락하였다.

2014년 7월 3일 서울

부속서

I.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 이행 현황

1. 정치·안보 분야

한·중 양국 정상은 지난 1년여 기간 동안 상대국을 각기 국빈 방문하였고, 함께 참석한 모든 다자회의 시마다 빠짐없이 회동을 가졌으며, 한반도 정세 등 긴급한 현안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전화통화를 갖고 소통을 하며, 각별한 우의와 신뢰를 쌓아왔다.

양측은 2013년 11월 한국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중국의 외교담당 국무위원 간 외교안보 고위전략대화를 성공적으로 가동하였다. 2013년 4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중국을 방문하였고, 2014년 5월 왕이 외교부장이 한국을 방문하였다. 양 장관은 그간 4차례 전화통화를 갖고, 국제다자무대에서 2차례 양자회동을 하였으며, 양자관계 및 공동 관심사에 대하여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 왔다.

또한, 양측은 2013년 외교안보대화, 양국 국책연구소 간 합동전략대화 등 양측이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전략대화의 메커니즘을 성공적으로 출범

시키고, 양국 외교차관 간 전략대화와 제3차 국방전략대화를 개최함으로써 다층적인 전략적 소통체제를 구축하였다.

2. 경제·통상 분야

양측은 2015년까지 무역액 3,000억 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계경제의 불안정 속에서도 무역박람회 개최, 구매사절단 파견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양국 간 무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다.

양측은 2013년 9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모델리티 협상을 타결하였고, 협정문 협상을 추진해왔다.

양측은 2013년 체결한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간의 한·중 경제통상협력 수준 제고에 관한 양해각서》에 의거한 한·중 통상장관회담 및 다양한 경제통상 채널을 통해 무역불균형 축소 및 비관세장벽 해소 등 양국 간 주요 통상현안의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양측은 2013년 9월 및 2014년 4월 한·중 무역실무회의를 개최하고, 2013년 11월 한·중 경제공동위원회, 12월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양국 간 경제협력 분야 정책 교류 및 소통을 활성화하였다.

양측은 2013년 10월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서해 잠정조치수역에서의 공동순시 등 효율적인 어업자원관리 추진에 합의하였다. 또한, 양국 외교부가 주관하는 한·중 어업문제협력회의를 2013년 7월과 12월에 두 차례 개최하였으며, 11월에는 중국의 어업정책 및 지도단속 공무원들의 방한 등 교류사업을 실시하였다.

양측은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발전개혁 위원회 간의 에너지절약 분야 협력 강화에 관한 양해각서》 및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중화인민공화국 과학기술부 간의 응용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화 협력 강화에 관한 양해각서》의 적극적인 이행을 통해 에너지 절약, 신기술 등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였으며, 한·중 기업협력혁신센터를 통해 양측 기업 간 교류와 기술협력을 확대하였다.

양측은 2013년 12월 제1차 한·중 차관급 정보통신협력 전략대화를 개최하고, 동 계기에 양국 연구기관 간 5세대 이동통신 기술교류회를 개최함으로써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였다.

양측은 2013년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해양국 간의 해양과학 기술협력에 관한 양해 각서》를 갱신하고, 제12차 한·중 해양과학기술협력 공동위원회를 개최함으로써, 해양과학 연구, 해양환경 보호, 해양경제 등 해양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였다.

양측은 2014년 4월《대한민국 관세청과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 간의 대한민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제도와 중화인민공화국 해관기업분류관리제도의 상호 인정에 관한 약정》의 전면 실시를 통해 양국 우수 기업의 통관을 원활화하였다.

양측은 2013년 10월 제1차 한·중 기후변화협상대화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기후변화 국제협상 및 정책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 간 실질협력방안을 협의하였다.

양측은 2014년 5월 제11차 한·중 원자력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동북아 역내 원전의 안전증진을 위한 실질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양측은 양국 지식재산권 당국 간 지식재산권의 창출·보호·관리 등 포괄적 협력기반 조성을 위해 2013년 12월《대한민국 특허청과 중화인민공화국 지식산권국 간의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포괄적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양측은 2014년 2월《대한민국 고용노동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간의 고용허가제하 인력송출에 관한 양해각서》를 갱신하여, 양국 간 인력송출 협력을 더욱 강화하였다.

양측은 2013년 12월 식품, 화장품, 약품 및 의료기기 분야에서의 양국 주관 부서 간 실무협의회 및 고위급 대화채널을 창설하여, 식품·약품 안전 확보와 위해요인 차단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였다.

양측은 2013년 9월 제1차 보건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양국 간 보건의료 및 의료보험 분야에서의 정책 소통 및 교류·협력을 강화하였다.

중국 측은《대한민국 환경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임업국 간 따오기 보호·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2013년 12월 한국 측에 따오기 두 마리를 제공하였으며, 이를 통해 양국 간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협력을 증진하였다.

3. 문화·인적교류 분야

양측은 한·중 인문유대 강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협의기구로서 2013년 11월 한·중 인문교류공동위원회를 출범시키고, 학술, 지자체, 전통예능 등 분야에서 다양한 인문유대 세부사업들을 발굴하였다.

양측은 2013년 각 500명씩 총 1,000명 규모의 청소년 초청 및 파견 교류를 실시하였다. 한국 측은 2014년 5월 중국 청소년대표단 200명을 방한 초청하였으며, 중국 측은 2014년 6월 한국 청소년대표단 200명을 방중 초청하여 양국 간 인적 교류 기반을 강화하였다.

양측은 2013년 11월《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와 중화인민공화국 문화부 간의 문화산업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한국에서 제1차 한·중 문화산업포럼을

개최하는 등 문화산업 협력을 확대하였다.

양측은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영화 공동제작에 관한 협정》에 가서명하였으며, 한·중 합작영화를 중국에서 성공적으로 개봉하는 등 영화, TV프로그램의 공동 제작을 지속 추진하였다.

양측은 2013년 9월 서울에서 제1차 한·중 공공외교포럼을 개최한 데 이어, 2014년 6월 베이징에서 제2차 한·중 공공외교포럼을 개최함으로써, 양국 국민들의 상호 이해와 인식을 제고하였다.

4.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분야

양측은 2013년 이래 한·중·일 3국 간 외교부 고위급회의, 문화장관회의, 재난관리기관장회의, 보건장관회의, 특허청장회의, 환경장관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과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네 차례에 걸쳐 원만하게 진행된 것을 평가하였다.

양측은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상호 긴밀히 협력하였다. 양측은 유엔 안보리 개혁이 민주성, 책임성, 대표성,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긴밀히 협력하였다. 양측은 안보리 개혁 문제 관련, '포괄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협상을 통해 가장 광범위한 합의를 달성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양측은 2013년 제1차 한·중 국장급 다자경제 분야 협의회를 개최하여 G20,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주요 글로벌 경제 협의체에서 다루어지는 다자경제 이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양측은 2014년 3월 한·중 해양법·국제법률국장회의를 개최하여, 공동으로 관심을 갖는 해양법 및 국제법 문제에 대해 솔직하고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광범위한 공동인식에 도달하였다.

양측은 2013년 제1차 한·중 개발협력 정책대화를 개최하여 개발협력 분야에서 상호 대화와 교류를 유지하고, 구체적인 협력방식과 중점분야에 대해 논의하자는 데 동의하였다.

양측은 2013년 제4차 한·중 대테러협의회를 개최하여 관련 지역 테러 정세, 양국 간 대테러 협력 방안 등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였다.

그밖에, 양측은 대량살상무기 확산, 해적, 마약, 금융 범죄, 하이테크 범죄, 사이버 안보, 핵안보 등 각종 범세계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오고 있다.

II. 금번 정상회담의 합의사항

1. 전략적 정치안보협력 강화

양측은 최고 지도자 간의 각별한 신뢰와 긴밀한 소통이 양국관계 발전의 소중한 자산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으며, 앞으로 양국 정상 간 상호 방문을 정례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다자회의 계기 회동을 지속하고, 정상 간 서신 교환·전화 통화 등 방식으로 전략적 소통을 계속 유지·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한국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중국의 외교담당 국무위원 간 외교안보 고위전략대화의 정례화를 실현하고, 양국 외교장관 간 연례 교환방문을 지속 추진하며, 양국 외교안보대화를 정례적으로 추진한다는 당초의 합의를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군 고위급 교류와 국방전략대화를 지속 실시하고, 각 급 각 분야 대표단 상호 방문을 유지하며, 청년장교 상호 방문 교류를 실시하고, 전문분야의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하며, 양국 국방부 간 직통전화를 조속히 개통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각 부처, 의회, 정당, 싱크탱크 간 교류를 강화하고, 한·중 의회 정기 교류 체제 및 국책연구기관 합동 전략대화 등 채널을 통해 각 분야의 전략적 소통을 지속 강화하며, 양국 정당 간 정책대화를 적극 추진하고, 양국 정부 당국자와 학계 등 민간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1.5트랙 대화 체제를 구축하여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가일층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양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청년 지도자들이 참석하는 한·중 청년 지도자 포럼을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 양측은 2015년부터 5년간 매년 100명의 상대국 청년 지도자를 상호 초청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대한민국 외교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간 2014-2015년도 교류협력 계획》의 채택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양국 간 해양경계를 획정하는 것이 양국관계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발전과 해양협력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2015년에 해양경계획정 협상을 가동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양국 간 역사적 관계는 소중한 자산이며, 양국관계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상호 노력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양측은 역사연구에 있어 주요 연구기관을 포함한 학술계의 사료발굴, 조사·열람, 연구 등 분야에서 상호교류와 협력을 계속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관련 연구기관 간 위안부 문제 관련 자료의 공동연구, 복사 및 상호 기증 등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한·중·일 3국협력이 각각의 발전은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 번영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고, 3국 협력의 견실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ASEAN+한·중·일(ASEAN+3) 및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G20,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등 다자협의체에서의 긴밀한 협력을 계속 유지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한국의 2013-14년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활동 기간 중에 양측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유엔 업무에 있어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국측은 중국 측이 제2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중요한 진전을 이루어낸 것을 적극적으로 평가하였다. 양측은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여 금번 회의가 긍정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장기적인 발전과 공동번영에 힘찬 동력을 주입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기를 희망하였다.

2. 미래지향적 호혜협력 확대

양측은 세계경제의 불안정 등 대외경제여건 하에서도 양국 간 교역을 촉진시켜 2015년까지 무역 규모 3,000억 불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의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연말까지 협상을 타결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하였다.

양측은 자국 통화 결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양국 간 경제·무역 발전에 이익이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이를 위해, 양측은 우선 한국 내에 원-위안화 직거래시장을 개설하기로 합의하였다. 한국 측은 양 통화 간 직거래시장을 중국 외환시장에 개설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로 약속하였다. 또한, 양측은 한국 서울에 위안화 청산체제를 구축하고, 서울 소재 중국계 은행을 위안화 청산은행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한국 투자자들의 중국 증권시장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중국이 한국에 800억 위안 규모의 위안화 적격해외기관투자자(RQFII) 자격을 부여하고, 동 쿼터의 활용 상황과 시장 수요에 따라 장래의 적절한 시점에 이를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양측은 한국 당국 및 금융기관이 적격해외기관투자자(QFII) 자격을 통해 중국시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는 것을 환영하였다. 또한, 양측은 한국과 여타 다른 국가의 기업 및 금융기관들의 위안화 표시 채권발행을 장려하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새만금 한·중 경제협력단지에 대해 추후 지속 협의해 나가고,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발전이 향후 동북아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경제협력 기구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의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2013년 체결된 《한국 수출입은행과 중국 수출입은행 간 상호리스크참여약정(RRPA)》을 토대로 《한국수출입은행과 중국 수출입은행 간 상호리스크참여약정에 따른 초대형 에코쉽 프로젝트 금융계약》을 체결한 것을 환영하고, 향후 양국 무역거래를 지속 지지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해양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해양국 간 해양분야 협력계획(2014-2018)》의 수립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양국 어업수산 및 유관기관 간의 공동단속 등 협조체제와 수산협력연구체제를 강화하고, 인적·기술적 교류를 확대하며, 어업자원 보호와 조업질서 유지를 위한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양측은 서해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양국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앙정부 간 및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채널을 다양화하여 양국 민관공동포럼 및 기업상담회를 더욱 확대하고, 무역 촉진행사를 개최하여 양국 간 새로운 무역기회를 발굴하기로 하였으며, 무역 불균형 완화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상호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협력포럼 등 행사를 통하여 유망분야에서의 상호 투자기회를 발굴하고, 양국 산업단지, 경제특별구역에 대한 양국 기업의 상호 투자를 증진하기 위해 공동노력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상대 국가에서 주최하는 각종 전시회에 적극 참여하기로 하고, 중국 측은 한국 정부 유관부처와 더 많은 기업이 중국-동북아박람회, 중국(베이징) 국제서비스무역교역회, 중국중부투자박람회, 중국국제투자 무역상담회 등에 참석하는 것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2013년에 합의한 에너지 절약 및 효율 제고 분야 협력강화를 기반으로 양국 간 에너지 협력을 전 분야로 확대함으로써, 양국 경제·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양국산업이 점차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하이테크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가 매우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이를 위해 양측은 정부 간 교류 채널뿐만 아니라 양국의 관련 산업 및 정부 부처 간의 교류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원전 안전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사건정보통보체제 구축, 지역협력 프로젝트 추진 등 동북아 역내 원전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산학연 실용화 대형공동연구를 통해, 기초연구에서부터 실용화 단계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그 성과를 공유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대한민국 미래창조과학부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간 방송 및 디지털 콘텐츠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의 체결을 환영하고, 양국 간 방송 및 디지털 콘텐츠 공동제작 등 양국 간 방송 및 디지털 콘텐츠 교류를 보다 확대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해킹 등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하여 긴밀한 양국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침해사고에 관한 정보공유 및 공동 대응, 인력교류 등 사이버보안 분야에서의 상호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생태계 보호 및 임업협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삼림경영을 착실히 추진하며, 사막화와 토지퇴화를 방지하고, 야생동식물 및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실질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분야에서 대기오염수치 정보 공유와 대기오염 예·경보 모델 공동연구 등의 협력을 실시하고, 한·중 환경산업포럼 및 철강 등 분야에서 대기오염 방지 시설 실증 시범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하며, 동북아지역차원의 협력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기후변화라는 범세계적 도전에 대해 함께 대응하기로 하고, 2014년 9월 유엔기후정상회의와 2015년 유엔기후변화협약 파리 당사국총회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양측은 기후변화국제협상, 각각의 국내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경제 및 사회로의 발전에 대한 정책적 행동, 양국 간 기후변화 분야의 실질협력사업 등 문제에 있어서 대화, 교류 및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고, 2014년 하반기에 개최될 제2차 한·중 기후변화협상대화를 적극적으로 준비하기로 하였다. 특히, 양측은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기후변화협력에 대처하기 위하여 한·중 기후변화협력 협정을 체결하기로 하고, 조속한 시일내 문안협의를 개시하기로 하였다.

양측은《대한민국 관세청과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 간 전략적 협력에 관한 약정》체결을 환영하고, 양국 간 수출입 물품의 신속통관 촉진, 무역안전 및 건전한 경제 발전을 위해 양국 세관당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양국 국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전통의학 분야에서의 협력을 지속 확대하고, 식품, 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 분야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양국 기업과 의료기관 간 교류 협력을 촉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을 위한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 협력을 지속 강화하고, 감염병 예방 및 통제,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적응 등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천재지변 등 위급 상황 발생시 상호 도움이 되고 가능한 긴급구호 및 지원 분야에서의 협력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양국 농업과학기술 분야에서 정보교환, 인적교류, 합작연구 등을 강화하고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중대한 동물질병의 예방과 제어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식품 기준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지속 강화하고, 김치 등 식품을 우선협력 분야로 삼기로 하였다.

양측은 아시아 경제 발전을 위한 인프라 투자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중국 측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설립 관련 제안을 한국 측에 설명하였으며, 한국 측은 이를 높이 평가하였다. 이와 관련, 양측은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양국 방문·관광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양국 방문용 자가용 승용차의 일시 수입을 상호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3. 쌍방향 인문교류 제고

양측은 한·중 인문교류공동위원회를 통해 인문분야의 협력을 더욱 촉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양측은 2014년에 19개의 인문유대 세부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으며, 2014년 하반기에 제2차 한·중 인문교류공동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양국 공공외교 협력을 지속 강화하여, 매년 윤번제로 한·중 공공외교포럼을 개최하고, 한·중 인터넷 오피니언리더 원탁회의, 사막화 방지 분야에서의 한·중 청년 공동 협력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현 양국 간 1,000명 청소년 상호방문교류의 효과를 제고하고, 양국 청소년교류의 다양성과 내실화를 기하면서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양국 간 민간 문화교류를 통해 양국 국민들이 상대방 국가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양국의 문화예술분야 대표들이 참여하는 문화교류회의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또한, 2014년 중국에서 제2차 한·중 문화산업포럼 등의 개최를 포함하여 문화산업분야의 연구 및 프로젝트 협력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한·중 공동펀드를 조성하는 문제에 관해 논의하였다.

양측은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영화 공동제작에 관한 협정》의 체결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양국 교육분야에서 정부 대표단을 상호 파견하고, 원어민 중국어 보조교사의 한국 파견 및 한국교사의 중국 파견, 학술세미나, 학술교류 등 실질협력을 적극적으로

독려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우수한 교육자원이 장점을 상호 보완하고 공동 발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학교 간 교류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보다 많은 양국의 우수한 청년들이 상대국에서 학문을 연마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양국 간 유학생 규모의 지속 확대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양국 지방정부 간의 교류와 협력이 가일층 확대되고, 더 많은 지방이 우호도시관계로 발전하도록 장려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양국 여성조직 및 기관 간 협력을 지지하며, 양국 각계 여성 간 우호교류를 장려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문화유산 보호·복원, 박물관 분야에서의 연구, 협력 및 인적교류를 증진하고, 문화재 밀수 퇴치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양국 유관기관 등이 판다 공동연구를 실시하는 것을 지지하기로 하였다.

4. 국민체감적 인적교류 증진

양측은《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영사협정》체결을 환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대국에 체류하는 자국 국민에 대해 더 많은 법적 보장을 제공함으로써 그 합법적 권익을 더욱 잘 유지·보호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양국 국민들의 상호 방문을 장려하기 위해 2015년을 한국의 '중국 관광의 해'로, 2016년을 중국의 '한국 관광의 해'로 지정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2016년까지 양국 간 연간 인적교류 1,000만 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대규모 종합스포츠대회 등의 준비, 주최, 참가 등에 있어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중국 측은 한국 측의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및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개최를 지지하였다. 한국 측은 중국 측의 2014년 청소년 올림픽의 개최를 지지하였다.

양측은 관용·공무 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면제 협정 문안 합의를 환영하고, 사증면제 범위의 단계적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수요를 보아가며 상호 영사기관을 추가로 설치하기로 하였다.

Ⅲ. 정상회담 계기 체결 문건

양측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아래 문건들을 체결한 것을 환영하였다.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영사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영화 공동제작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 기획재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간 '창조 및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촉진'에 관한 양해각서》

《대한민국 미래창조과학부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간 방송 및 디지털 콘텐츠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대한민국 외교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간 2014-2015년도 교류협력 계획》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간 양국 지역통상 활성화 협력 제고를 위한 양해각서》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중화인민공화국 공업신식화부 간 산업협력 양해각서》

《대한민국 환경부와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부 간 환경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대한민국 환경부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임업국 간 야생생물 및 자연생태계 보전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대한민국 관세청과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 간 전략적 협력에 관한 약정》

《대한민국 한국은행과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인민은행 간 위안화 청산·결제체제 구축 등 한·중 위안화 금융서비스 협력 제고에 관한 양해각서》

《한국 수출입은행과 중국 수출입은행 간 상호리스크참여약정에 따른 초대형 에코쉽 프로젝트 금융계약》

노태우 대통령 공식 방중 계기 한·중 공동언론발표문

1992.9.30, 베이징

1. 대한민국 노태우 대통령은 중화인민공화국 양상곤 주석의 초청으로 '92.9.27부터 30일까지 중국을 공식 방문하였다. 노태우 대통령은 중국을 방문한 첫 번째 한국 대통령으로서 중국정부와 국민의 정중한 환영과 열렬한 영접을 받았다.

2. 방문기간동안 대한민국의 노태우 대통령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양상곤 주석과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회담을 가졌으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강택민 총서기 및 국무원 이붕 총리와 각각 면담하였다. 동 회담과 면담중 양측은 각각 자국의 정치. 경제 현황에 관해 소개하였으며, 양국 간의 우호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문제에 관해 토의하였다. 또한 양측은 국제정세와 동북아 지역정세에 관해 광범위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3. 한·중 양국 지도자들은 한·중 수교의 의의를 높이 평가하면서 양국이 과거의 비정상 관계를 청산하고 수교공동성명의 기초위에서 상호 선린협력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양국 국민의 이익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현재의 국제정세의 발전추세에도 일치되며, 아세아와 세계의 평화와 발전에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4. 양국 지도자들은 양국 정부가 무역협정, 투자보장협정, 경제·무역·기술협력위원회 설립에 관한 협정 및 과학기술협력 협정을 서명한데 대해 만족을 표하였으며, 양국은 향후 경제·무역·과학기술, 교통, 문화, 체육 등 제반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적극 추진키로 결정하였다.

5. 노태우 대통령은 한반도의 남북대화 비핵화 및 평화통일 실현에 관한 한국 측의 입장을 설명하였다. 중국지도자들은 한반도에서의 남북대화가 진전을 이룩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목표가 하루속히 실현되기를 희망하고 남북한 쌍방이 한반도의 자주 평화통일을 조속히 실현하는 것을 지지함을 재천명하였다. 양국지도자들은 한반도에 있어서의 긴장완화가 전체 한국민들의 이익에 부합될 뿐만아니라 동북아지역 및 아세아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유익하며 이와 같은 완화추세가 계속 발전되어 나가야 한다는데 합의하였다.

6. 양국지도자들은 동북아지역 및 아태지역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역내 국가들의 발전과 공동 번영에 유익하다고 인식하고, 양측은 아세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등 기타 역내 경제협력 기구에서 협력하는데 합의하였다.

7. 한·중 양측은 노태우 대통령의 성공적인 중국 방문이 장차 양국 간의 선린협력 관계를 가일층 발전시킬 것임을 확신하였다.

8. 노태우 대통령은 중국 측의 열렬한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양상곤 국가주석이 편리한 시기에 한국을 방문해 주도록 초청하였으며, 양상곤 주석은 이에 감사를 표하고 동 방한 초청을 흔쾌히 수락하였다.

/끝/

이명박 대통령 국빈 방중 계기 한·중 공동언론발표문

2012.1.11, 베이징

1. 이명박 대한민국 대통령은 후진타오(胡錦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의 초청으로 2012년 1월 9일부터 11일까지 중국을 국빈 방문하였다. 방문기간 동안 이명박 대통령은 후진타오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우방궈(吳邦國)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위원장, 원자바오(溫家寶) 국무원 총리와 각각 면담하였다.

2. 양측은 1992년 한·중 수교 이래 각 분야에서의 우호협력의 전면적이고 신속한 발전이 양국의 경제·사회 발전 및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적극 기여하였다는데 인식의 일치를 보았다.
양측은 2008년 한·중관계가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이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인적교류 등 각 분야의 협력에서 새로운 진전을 이룩한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양측은 2008년 5월과 8월 양국 정상 상호방문시 발표한 두 개의 공동문건의 각 원칙에 기초하여 미래지향적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더욱 내실있게 다져나갈 것을 확인하였다.

   대만문제에 있어, 한국 측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계속 견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양안관계 평화발전을 지지한다고 하였다.

3. 양측은 양국 고위지도자들의 교류를 계속 유지하고, 정부, 의회와 정당 간의 교류를 더욱 강화하며, 각 분야의 실무협력을 심화하고, 다양한 직급에서의 소통과 조율을 강화함으로써 공동 이익을 확대해 나가는데 동의하였다.

   양측은 양국 외교당국간의 교류와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가자는 데 동의하고, 양국 외교장관 간 직통전화(hot-line), 외교당국간 고위급 전략대화 등의 방식을 통해 양자관계 및 공통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국 국방당국 간 고위급 접촉 및 상호방문을 계속 유지하기로 하였다.

4. 양측은 양국 간 경제통상 협력이 안정적이고도 빠른 속도로 발전되고 있음을 적극 평가하고, 2015년 3천억 불 무역액 목표 달성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체결이 양자 간 경제통상 협력에 더욱 유리한 제도적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양국 이익에 부합된다는 점에 인식을 함께

하였다. 양측은 한국의 국내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한·중 FTA 협상을 개시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양측은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신재생 에너지, 에너지 효율화 등 에너지 분야에서 호혜적인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양국 신흥산업간의 협력을 한층 더 증진하고, 산업별 표준, 상호인증, 공동연구 등 분야의 협력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국 관련부처, 지방 및 기업이 도시개발 및 신농촌 건설 등 분야에서 협력하는 것을 지지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양국 간 호혜적인 금융협력의 성과를 적극 평가하고, 양국 금융산업 발전 촉진을 위한 양국 금융기관의 상호 진출을 지지한다고 하였다. 또한, 양측은 《한·중 사회보장협정》 협상을 조속히 개시하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무역안전을 보장하고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수출입안전인증업체(AEO) 상호인정을 위한 양국 세관당국 간 협상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5. 양측은 자연재난에 대한 예방, 대응, 관련 정보의 신속한 공유 및 구호협력 등을 강화해 나가는데 동의하였다. 양측은 환경보호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해양환경 오염 대응과 황사 예방 및 퇴치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하였다.

6. 양측은 양국 간 해양경계를 획정하는 것이 양국관계의 장기적, 안정적 발전과 해양협력을 추진해 나가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인식하고, 해양경계획정 관련 협상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어업분야 관련 문제의 원만한 해결과 어업질서의 공동 수호 및 어족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양국 수산 당국이 기존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소통과 협력을 증진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양국 해양분야 협력 촉진을 위하여 외교·어업 등 관계부처가 공동 참여하는 대화와 협의를 가동시키도록 적극 검토하는 데 동의하였다.

7. 양측은 수교 20주년 및 '한·중 우호교류의 해' 기념행사를 성공적으로 공동 개최하고, 청소년 상호방문교류 규모를 확대하여 양국 국민간 상호이해와 우호정서를 계속 증진해 나간다는데 동의하였다.

   양측은 2010년 "중국 방문의 해"가 거둔 성과를 적극 평가하고, 2012년 "한국 방문의 해"가 양국 국민간 교류를 계속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한·중 외교관여권 사증면제협정》을 조속히 체결하고, 청소년 수학여행단 사증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영사관계 및 영사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데 동의하였다. 또한, 양측은 중국 측이 제주도에 총영사관을 개설한다는데 합의하였으며, 상호 영사기구 추가설치 문제를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8. 양측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고, 동북아 지역의 장기적 안녕을 실현하는 것이 관련 각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된다는 점을 재천명하고, 이를 위해 공동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여건이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각국 및 국제사회와 공동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중국 측은 남북한 양측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관계를 개선하고, 화해와 협력을 추진하여, 최종적으로 한반도 평화 통일을 실현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천명하였다.

양측은 동아시아 평화와 안정 및 발전을 위한 동아시아 지역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한·중·일 투자협정의 조기 체결에 동의하였고, 한·중·일 자유무역지대 구축 추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한·중·일 3국협력, ASEAN+한·중·일,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등 다양한 역내 협의체에서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유지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중국 측은 한국 측이 2012년 서울핵안보정상회의, 여수세계박람회,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및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도록 지지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고 세계경제의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이룩하는데 G20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고, G20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글로벌 이슈의 해결에 있어서 유엔이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재천명하고, 유엔 관련 사안에 대해 계속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국제테러리즘, 마약, 해적, 금융범죄, 사이버 범죄 등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9. 양측은 이명박 대통령의 금번 중국 방문의 성과에 대해 만족을 표명하고, 금번 방문이 향후 양국관계 발전에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방중기간 동안 중국 측의 따뜻하고 우호적인 환대에 사의를 표하였다.

/끝/

역대 주중한국대사 및 주한중국대사

주중대사	재임기간	주한대사	재임기간
초대 노재원 대사	1991.1.27–1993.5.25	초대 장팅옌(張庭延) 대사	1992.9–1998.8
제2대 황병태 대사	1993.5.31–1995.12.10	제2대 우다웨이(武大偉) 대사	1998.9–2001.7
제3대 정종욱 대사	1996.2.9–1998.4.25	제3대 리빈(李濱) 대사	2001.9–2005.8
제4대 권병현 대사	1998.5.2–2000.8.7	제4대 닝푸쿠이(寧賦魁) 대사	2005.9–2008.10
제5대 홍순영 대사	2000.8.11–2001.9.12	제5대 청융화(程永华) 대사	2008.10–2010.2
제6대 김하중 대사	2001.10. 8–2008.3.11	제6대 장신썬(張鑫森) 대사	2010.3–2014. 2
제7대 신정승 대사	2008. 5. 6–2009.12.26	제7대 추궈훙(邱國洪) 대사	2014.3–
제8대 류우익 대사	2009.12.28–2011.5.7		
제9대 이규형 대사	2011.5.19–2013.6.2		
제10대 권영세 대사	2013.6.4–2015.3.13		
제11대 김장수 대사	2015.3.21–		

* 재임기간 : 현지 부임·이임일 기준

중국주재 한국 공관

공관명	공관 설치일	주 소	전화번호	관할지역
주중화 인민 공화국 대사관	1991.1.30 (대표부 공식 개설) 1992.8.28 (대사관 승격)	No.20, DongfangdongLu Chaoyang District, Beijing, China 100600 (中國 北京市 朝陽區 東方東路 20號, 100600)	대표전화 (86-10) 8531-0700 팩스 (86-10) 8531-0726	베이징시, 톈진시, 칭하이성, 허베이성, 산시(山西)성, 네이멍구자치구, 신장위구르 자치구, 시짱(西藏) 자치구(티베트)
주홍콩 총영사관	1949.5.1 (영사관 개설) 1949.11.29 (총영사관 승격)	5-6/F, Far East Finance Centre, 16 Harcourt Road, Hong Kong (中國 香港 金鐘夏慤道 16號 遠東金融中心 5-6樓)	대표전화 (852) 2529-4141 팩스 (852) 2861-3699	홍콩, 마카오
주상하이 총영사관	1993.7.14	No60, Wanshan Road, Changning-district, Shanghai, China (中國 上海市 長寧區 萬山路 60號 200336)	대표전화 (86-21) 6295-5000 팩스 (86-21) 6295-5191	상하이시, 안후이성, 저장성, 장쑤성
주칭다오 총영사관	1994.9.12	No.88 Chunyang Road, Chengyang District, Qingdao City, Shandong Prov, China (中國 山東省 靑島市 城陽區 春陽路 88號 266109)	대표전화 (86-532) 8897-6001 팩스 (86-532) 8897-6005	산둥성
주선양 총영사관	1999.7.8 (영사사무소 개설) 2003.4.17 (총영사관 승격)	No.37, South 13 Latitude Road, Heping District, Shenyang, Liaoning, China (中國 遼寧省 瀋陽市 和平區 南13緯路 37號)	대표전화 (86-24) 2385-3388 팩스 (86-24) 2385-5170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주광저우 총영사관	2001.8.28	NO.18, Youlin Road3, Chigang Consulate Area, Haizhu District, Guangzhou, 510620, P.R. China (中國 廣東省 廣州市 海珠區 赤崗 領事館區 友鄰三路 18號, 510310)	대표전화 (86-20) 2919-2999 팩스 (86-20) 2919-2963	광둥성, 푸젠성, 하이난성, 광시좡족자치구
주청뚜 총영사관	2005.2.26	19F, Paradise Oasis Mansion, No.6, Xianandajie Avenue, Chengdu, Sichuan 610016, P.R.China (中國 四川省 成都市 下南大街 6號 天府綠洲 19樓)	대표전화 (86-28) 8616-5800 팩스 (86-28) 8616-5789	쓰촨성, 윈난성, 구이저우성, 충칭시

공관명	공관 설치일	주 소	전화번호	관할지역
주시안 총영사관	2007.9.20	19F, HSBC, 33# Keji Road, GaoXin Hi-Tech Industries Development Zone, Xi'an, Shanxi, China 710075 (中國 陝西省 西安市 高新技術産業開發區 科技路33號 高新國際商務中心 19層 郵編 : 710075)	대표전화 (86-29) 8835-1001 팩스 (86-29) 8835-1002	산시(陝西)성, 간쑤성, 닝샤회족자치구
주우한 총영사관	2010.10.25	F4, Pudong Development Bank B/D, 218, Xinhua-Road, jianghan-District, Whan, Hubei 430022 P, R, China (中国 湖北省 武漢市 江漢區 新華路 218号 浦發銀行大廈 4樓, 430022)	대표전화 (86-27) 8556-1085 팩스 (86-27) 8574-1085	장시성, 허난성, 후베이성, 후난성
주선양 총영사관 다롄 출장소	2012.8.29	5FL Hongyuan building, Renmin Road, Zhongshan district, Dalian, 11600, China (中國 遼寧省 大連市 中山區 人民路 23號 虹源大厦 5層)	대표전화 (86-411) 8235-6288 팩스 (86-411) 8235-6283	다롄시

중국개황 2016

발간등록번호 11-1260000-000219-14

발행처 외교부 동북아시아국 동북아2과

발행일 2016년 7월

인쇄처 (주)늘품플러스 070-7090-1177

※ 본 책자의 내용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외교부 동북아2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2)2100-7349~50

2016

중국 개황



외교부